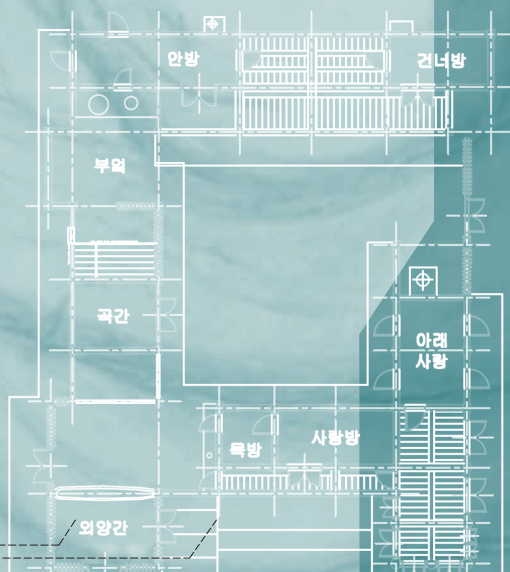


제 7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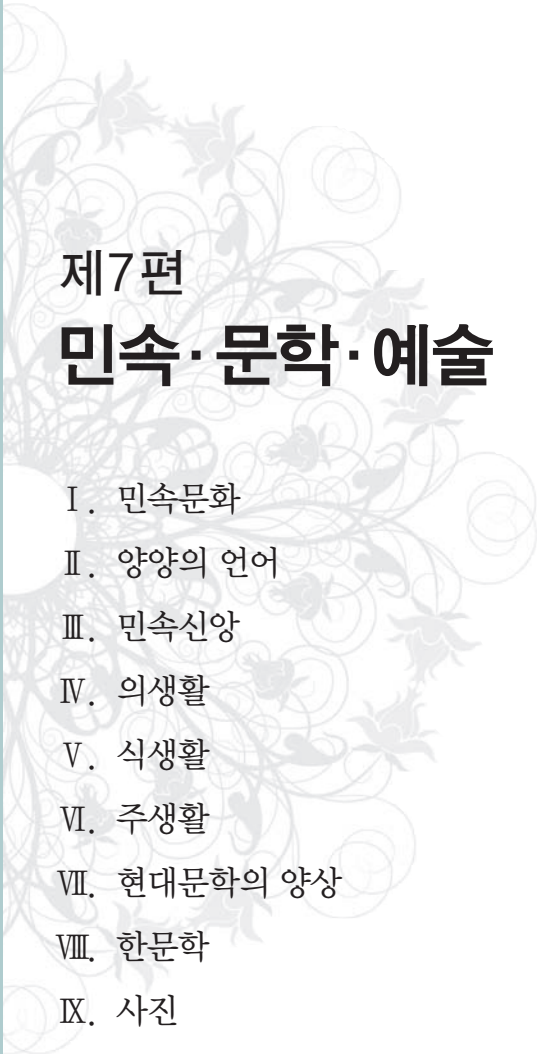
민속 문학·예술



* 장군성황제 축문

維 檀君紀元四千三百〇年勢次干支
月朔日干支 襄陽郡守 某 敢昭告于
襄州將軍城隍神 伏以
襄州關東大鎮 剛城守護將軍聖神
德著廣利 享祀是宜
庶諒祈告之誠 以垂豐穰之慶
謹以 牲幣禮齊 粢盛庶品 式陣明薦
尚 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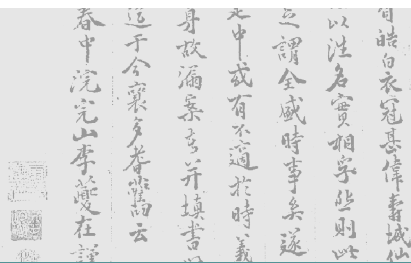


A decorative floral pattern in a light gray color, featuring stylized flowers and swirling vines, positioned behind the text on the right side of the page.

제7편

민속·문학·예술

- I. 민속문화
- II. 양양의 언어
- III. 민속신앙
- IV. 의생활
- V. 식생활
- VI. 주생활
- VII. 현대문학의 양상
- VIII. 한문학
- IX. 사진



I. 민속문화

1. 세시풍속

세시풍속의 세(歲)는 한 해를 의미하고, 시(時)는 춘하추동 네 절기를 뜻한다. 따라서 세시풍속은 한 해를 단위로 일정한 시기에 관습적·주기적·전승적·반복적·의례적으로 거행되는 행동양식 또는 생활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세시풍속을 다른 말로 연중행사라고 하듯이 1년 동안 행해지는 자연신앙, 조상숭배 등의 종교주술적인 행위와 각종 놀이, 관습 등이 내포된다. 현대적 의미의 세시풍속은 시대나 사회, 관념 등의 변화로 복합적인 면모를 지니는데, 자연의 운행법칙에 따른 자연력, 생산주기의 생업력, 전통적인 의례력 뿐만 아니라 경축일·기념일·공휴일 등으로 그 개념이 확대 변화되고 있다.

세시풍속은 공동생활 집단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최선의 행동체계로 관습화되고 유형화되어 생활상 변화를 주게 되는데, 단순한 시간의 변화를 역동적이고 의미 있는 시간의 흐름으로 바꾸어 준다. 양양 지역의 세시풍속은 전통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산간과 해안·평야지대의 경우가 다르고, 계층·생업·성별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난다. 천제의 운행에 따른 양양지역의 24절기 자연력과 의례력 그리고 농산어촌의 생산력 사례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 봄철의 세시풍속

(1) 정월

1월에는 설날행사가 대표적인 의례력이다. 설날은 한 해의 첫째 날로 이날을 명절로 삼고 있는데, 우리 민족은 한 해 첫날 서로 경하하고 해와 달의 신에게도 배례를 하였

다. 『삼국유사』에는 해(亥) · 자(子) · 오일(午日)에 온갖 일을 꺼리고 조심하여 감히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달도’라 했으며, 서글피 근심되어 백사를 금하는 뜻이라 하였다. 설날은 이처럼 쉼다, 슬프다에서 나온 것으로 보기도 하고, 나이를 뜻하는 우리의 고대어 ‘살’에서 나왔다거나, 새로 솟아난다는 뜻과 ‘마디’의 뜻을 지닌 산스크리트어 ‘살(sal)’에서 기원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설날의 가장 큰 행사는 무엇보다 조상을 기리는 추원보본(追遠報本) 차례지내기다. <농가월령가>에서 “사당에 배알하니 병탕에 주과로다”라고 한 것처럼 새해에는 각 가정에서 음식과 술을 장만하여 제사를 지낸다. 사당이 있는 집에서는 4대조를 모신 위패 앞에서 지내고, 그렇지 않은 집에서는 안방에 제상을 차린다. 강현면 전진리 낙산마을에서는 아침에 지방을 써놓고 떡국과 만두국으로 차례를 지낸다. 이때 떡국 떡은 추석 때 남겨둔 빵지 않은 수대쌀로 만든다. 수대쌀로 떡국떡 뿐만 아니라 여러 떡들도 만든다. 어묵, 육고기, 과일, 산나물을 놓고 술 한 잔 부어놓고 모든 가족이 절을 한다. 차례를 지낸 후 간단한 음식을 장만하여 산소에 성묘간다.

양양지역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낙산마을에서는 성묘를 갔다 온 후 과일이나 세초(歲草) : 담배를 사서 가까운 곳에는 세배를 다닌다. 세배를 드리면 “올해는 결혼해야지”, “부모 말씀 잘 들어라”, “공부 잘해라” 등의 덕담을 해준다. 그리고 배성주가 있으니까 1년에 한 번씩 배에다가 뱃고사를 지낸다. 정초에 날을 받아 하는데 대개 아침에 무당이 빌어주고 기를 쫓지는 않으나, 마을을 위한 큰 굿일 때는 기를 쫓는다. 설날 해뜰 무렵 떡국을 놓고 차례를 올리며 일부 가정에서는 메를 놓는다. 설날에는 어린이들이 새 옷을 입고 새 단장으로 꾸미는 것을 ‘설빔’이라 한다. 남녀 성인들은 한복으로 갈아입고 아이들은 색동저고리와 금박옷고름을 달고 머리도 단정히 빗으며 얼굴도 정갈하게 한다. 인구리에서는 여자들이 방정맞게 남의 집에 가면 재수 없다고 하여 보통 정초 3일 동안 외출을 금하기도 하였다. 가정에서는 나이 한 살 더 먹는다면 떡국을 먼저 먹고, 찰떡 · 절떡 · 과줄 · 꽃감 · 수정과 등을 세배객에게 내놓는다.

서면 송천리는 떡마을로 유명하다. 주변 산에서 뜯어다 말린 떡취나물을 넣어 만든 쫄깃쫄깃한 곱취 떡맛은 독특한 명절 먹거리다. 광산 탁씨 집성촌으로 소래라고도 불리는데 30여 가구에서 방아로 찜고 떡메를 쳐 만든 찰떡 등 무궁해 손맛은 명절 떡 중으

뜸이다. 범부리에서는 설날 만두국을 끓일 때 소만두를 주먹 만하게 만들어서 소에게 주면 건강하게 자라고 새끼도 잘 낳는다고 한다.

양양 주민들은 새 봄을 맞는다는 뜻으로 아침에 세주(歲酒)를 마시고 서로 덕담(德談)을 나눈다. 덕담은 일종의 언어주술적인 행위로 각자의 처지에 맞는 덕담을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게 된다. 떡국은 흰 가래떡을 동전처럼 동그랗게 썰어야 좋고, 만두는 말굽처럼 만들어야 재물이 많이 들어온다고 한다. 남아 있는 나물이나 찬류를 정리하는 의미로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다. 현남지역에서는 직접 과줄을 만드는데 맛이 좋은 산자는 차례상에 필수품이며, 강정류와 함께 간식으로 많이 쓰인다. 요즘에는 양력설을 지내는 가정이 많은데, 음력 설날 아침에는 여성들이 남의 집을 방문하는 것을 삼가는 풍습이 남아 있다.

전통적인 제례를 지내는 집에서는 안택제와 텃고사도 지내고, 바닷가의 선주들은 배에 모신 배성주신을 위하여 풍어와 무사고를 빈다. 배성주는 한지를 무명실에 묶어 선장실의 구석에 매년 새로 만들어 건다. 떡국을 메 대신 놓고 제물은 평소 잡았던 생선 가운데 크고 좋은 것을 잘 말려두었다가 쓴다. 배성주신에게 한 해의 풍어를 기원할 때 목욕재계를 하고 부정을 금한다. 술잔과 소지를 올리며, “배성주님, 올해도 가는 고기 눈감기고 오는 고기 손을 쳐서 아무쪼록 만선기를 꽃도록 축원하옵니다”라고 빈다. 낙산어촌의 배성주는 배 앞 이물, 중간, 조타실에 모시기도 한다. 배성주가 여성주이면 빨간색, 노란색, 흰색 등 삼색천을 건다. 제물을 놓고 절 삼세 번 한 후 고축을 한다. “일년은 열두 달, 삼백은 예순 날, 우리 여기 낙산 바다에서 김씨, 박씨, 이씨, 갯은 성명 가진 양반들, 다 망자에 가는 고기, 오는 고기, 다 코코마다 걸려서 거저 잘살게 해달라고 축원합니다”고 말한다.

설이 지나고 첫 개시장에 나가서 복조리를 사는데, 남보다 먼저 사야 좋고, 더욱이 복조리 장사를 일부터 불러서 사면 복이 더 들어온다고 믿는다. 1년 동안 가정에서 사용할 조리를 정초에 사서 붉은 색실로 묶어 안방 위쪽 벽이나 부엌에 걸어 둔다. 복조리 속에는 돈·옛·무명실·성냥 등을 넣어 달콤한 생활이 되고, 실처럼 길게 장수하고 불처럼 활활 타올라 발복하기를 빈다.

정초에는 며칠 동안 상점이나 시장은 문을 닫게 되므로 예전에는 시장에도 가지 않았

으며 바느질이나 빨래도 하지 않았다. 정월 초하룻날에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좋아진다고도 하여 머리는 감았다. 정초놀이인 윷놀이의 경우는 윷의 크기가 다른데, 영서지역에서는 ‘장작윷’이라고 크게 만드는 고장이 많고, 영동에는 실내에서 ‘종지윷’을 가지고 논다.

정월 초하룻날부터 열 이튿날까지 12간지(干支)의 이름에 따라 쥐날 · 소날 · 호랑이날 등으로 부르고 이에 따른 관습이 전한다. 이것을 ‘일진가리기’, ‘날가리기’라고도 부른다. 간지는 10천간과 12지지를 줄여 말하는 것으로 동물로 바꾸는데 12일간을 동물의 모습에 따라 털 있는 동물이 그 해 첫날에 들면 풍년이 든다고 믿는다. 일진에 따라 정월에 처음 드는 쥐날을 ‘상자일(上子日)’이라 하며 이 날 ‘쥐 조맹이 볶자’며 콩을 볶아 쥐의 피해를 막고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태우는 ‘쥐불놀이’도 한다. 쥐불이 잘 타면 그 해 농사가 풍년이고 조금 타다 꺼지면 흉년이라고 예측한다.

첫 소날을 ‘상축일(上丑日)’이라 하는데 정초 5일 이내에 들면 그 해에는 연중 소 값이 높을 것으로 예측한다. 소는 농가에서 중요한 동물이므로 잘 보호하기 위해 첫 소날에는 칼이나 낫으로 무엇을 자르거나 끊는 일도 하지 않고 쟁기질을 하지 않는다. 이는 도살의 의미도 있으므로 소가 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숟가락으로 누룽지를 긁지 않으며, 남자가 키를 만지면 평소 연장에 다친다고 한다. 이날만큼은 소에게 일을 시키지 않고 방아도 찧지 않는다. 또한 밥과 나물을 쌀을 이는 키에다가 담아서 먹도록 하는데, 어느 것을 먼저 먹느냐에 따라 쌀이 풍년인지 채소가 풍년인지 점친다.

군웅신을 집에서 모시는 양양 농가에서는 외양간에 삼베를 20~30cm정도 끊어 매년 걸며, 그 밑에 제물을 차려 놓고 소를 잘 보살펴 달라고 이렇게 빈다. “군웅장군님, 그저 우매 대매 가지불듯 외불듯 잘 퍼져서 일 년 열두 달 잘 크게 해 주십시오.” 우매(牛馬)는 소와 말을 뜻하며 지나 오이줄기가 퍼져 나가듯이 잘 크게 해달라는 뜻이다. 강현면 회룡리의 소 키우는 집은 군웅신에게 상축일이면 탈이 없게 해달라고 빈다. 상축일이 아니어도 소가 조금 아프기만 하면 외양간에 간단한 제물을 차려놓고 낫기를 빈다.

첫 호랑이날은 ‘상인일(上寅日)’ · ‘사람날’ · ‘인일(人日)’이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호랑이를 뜻하는 인(寅)자와 인(人)자가 음이 같기 때문이다. 이 날에는 백발을 태우면

길하다고 하며, 온갖 일을 삼가며 보낸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호랑이가 나타난다고 집안에서 쉬었다. 아이들은 일부러 ‘호두(虎頭)를 깬다.’며 널뛰기를 하였다. 여성들은 이날 바느질을 하면 생손가락을 앓는다고 금하였지만, 일반 상점이나 음식점에서는 호랑이 날에 첫 개시하면 털이 많은 것처럼 한 해가 좋아진다고 믿는다.

첫 용날인 ‘상진일(上辰日)’에는 초하루에 용 날이 들면 용 한 마리가 치수(治水)를 하고, 10일에 들면 열 마리가 물을 관장한다고 믿어 그 해 홍수와 가뭄을 짐작한다. 회룡리는 정초부터 10일 이내에 용날이 들면 ‘일용치수득신일’이라 부른다. 용이 많을수록 비가 안 오고, 용이 적을수록 비를 적절하게 내려준다고 믿는다. 이날 가정에서 샘물을 길어 오면 여름농사 때 비가 내려 망친다고 믿으며, 어촌에서는 용왕제를 지내고 풍어를 빈다. 또한 사용한 물을 집 밖으로 쏟지 않는데 물을 버리면 갑자기 소나기가 내린다고 한다.

첫 뱀날인 ‘상사일(上巳日)’은 무모일(無毛日)이므로 어부들은 출어를 피한다. 고기도 안 잡힐뿐더러 뱀처럼 미끄러워 조난을 당한다고 한다. 농가에서는 뱀을 막기 위해 잡초를 태우며 도끼질을 하면 좋다고도 한다. 이외에도 상해일(上亥日)인 돼지날을 농사일이라고 긴 장대 끝에 짚단을 꿰어 문 앞에 세워 풍년을 기원하고, 변소에 앉아 주머니를 만들어 차면 재수가 좋고, 토끼날에 쟁기질을 하면 산토끼가 산전 곡식을 쫓다고 금한다.

24절기의 첫째인 입춘날에는 “입춘대길(立春大吉)·건양다경(建陽多慶)·수복(壽福)·구룡(龜龍)” 등의 축원문을 써서 대문이나 기둥에 붙이고 소리 내어 읽는다. 이것을 ‘입춘 쓴다’ 하는데, 상가(喪家)에서는 쓰지도 않고 붙이지도 않는다. 집안에 한학을 한 사람이 있거나 붓글씨를 배우는 어린이들은 요즘도 써서 붙인다. 입춘은 새봄을 맞이하여 새로운 기분으로 출발한다는 뜻이 있다. 농가에서는 입춘날 아침에 복쌈을 싸먹으면서 “한 섬이오”, “열 섬이오”라고 외치면 보리가 풍년이 된다고 한다. 복쌈은 봄에 뜯어서 말려 둔 묵은 산나물을 말하는데, 입춘날 이것을 삶아 보리밥에 싸 먹으면 별식이다.

정월 14일을 ‘까치보름날’이라 부른다. ‘까치’는 어학적으로 ‘거짓’을 뜻하여, 아직까지 정식 보름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날 아침에는 오곡밥을 해 먹고,

저녁에는 밥 대신 만두국과 국수를 일찍 먹는다. 일찍 먹는 이유는 농가에서 추수를 일찍 끝낼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는 뜻이 있다. 까치보름날에는 쉼신삼기, 오곡형상 타작하기, 수수빋자루 매기를 하였다. 오곡형상은 수수깁의 속 부분으로 쌀·보리·조·콩·기장 등의 모습을 만들어 거름에 하루 동안 재웠다가 보름날 타작하는 흥내를 내면, 그 해는 “오곡이 풍년된다.”고 한다. 수수는 잘 말렸다가 빋자루를 매는데 그만큼 부지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 날을 ‘여름날’이라고 말한다. 13일은 봄날, 15일은 가을날로서 모든 것이 풍족하며, 16일은 ‘귀신날’이라고 하루를 쉰다. 양양 농촌에 전하는 속담으로 “남자는 14일 낮에 밥 아홉 그릇 먹고, 나무 아홉 짐, 거름 아홉 짐을 해야 하고, 여자는 삼을 아홉 광주리 삼아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부지런히 한 해 농사를 시작하였다.

농가에서는 이 날 저녁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지기 전에 국수를 해 먹는데, 논·밭의 거머리를 없앤다는 뜻이라 한다. 거머리는 논에서 일을 할 때 다리에 달라붙어 사람의 피를 빨아먹으므로, 이를 기피한다. 또한 곡식의 무게를 저울로 달아 똑같은 부피로 놔두었다가 15일 새벽에 다시 그 무게를 달아보고 무거운 곡식이 풍작이라고 점친다. 아울러 매월 비의 양을 점치는 달볼음도 하는데, 콩 12개를 수수깁 속에 차례로 넣고 우물물에 불렸다가 다음날 부푼 상태를 보고 어느 달에 비가 많이 올 것인지를 알고자 하였다. 많이 부푼 달에는 강우량이 많고 그렇지 않은 달에는 가뭄이 들 것으로 믿는다. 이를 문헌에서는 ‘월자(月滋)’라 하고, 각 호구 수대로 콩을 정하여 가장 많이 불은 집이 풍작을 이룰 것으로 점치는 ‘호자(戶滋)’도 있었다.

까치보름날에는 남은 떡 무거리를 잘 보관하였다가, 떡국이나 만둣국에 넣어서 함께 끓여 먹으면 만딸이 시집가서 잘 산다고 한다. 이 날에 금하는 것으로는 아침에 머리를 감지 않으며, 눈썹이 센다고 일찍 잠을 자지 않는다. 얼굴에 버짐이 많은 아이들에게 분가루를 발라주면 깨끗해진다고 한다.

대보름날은 우리의 세시풍속에서 가장 많은 행사들이 전하고 있으며, 한가윗날과 함께 보름주기의 대표적인 민속명절이다. 속담에 “설은 질어야 좋고, 보름은 밝아야 좋다”고 하듯이 보름의 어원이 밝음이므로 우리 민족의 밝음 지향의식이 잘 반영되고 있다. 대보름날에는 약밥을 해서 먹는데, 영서 지방에서는 거의 오곡밥을 만들고, 양양지

역은 찹쌀에 감과 대추, 밤을 버무려 넣은 약식을 만드는 집이 많다. 대보름날 새벽에 대문이나 벽·땅에 막대기나 싸리나무로 치거나 그릇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내서 참새를 쫓는 흥내를 낸다. 새쫓기는 벼를 파먹는 참새의 피해를 막기 위해 어느 해든지 대보름날 새벽 축시(丑時) 무렵에 문 밖에 나가서 들을 내다보면서 메나리조로 부른다. 첫 새벽에 까마귀가 지붕 용마루를 넘으면 흉한 일이 생긴다고 하여 넘지 못하게 한다. 새소리 듣기는 보름날 아침 일찍 일어나 새소리를 듣고 풍·흉년을 점친다. 까치소리를 들으면 ‘얼력풍년’이라 하여 잘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고 하는데, 까마귀 소리를 들으면 평년작이라고 점친다. 서면 범부리 노인들은 설날 아침에 까마귀 소리를 들어야 좋다고 믿는다. 까치소리가 들리면 각색이므로 흉년이 된다고 한다. 이밖에도 소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 풍년이고, 소에게 밥과 나물을 주어 먼저 먹는 것이 풍년, 첫답이 많이 올면 풍년이라고도 한다.

대보름날 저녁에 마을의 남녀노소가 횃불을 가지고 동쪽 산에 올라 달맞이를 한다. 이 때 잔교리 등 여러 마을에서는 달맞이농악을 치다가 달이 떠오르면 가지고 간 횃대에 불을 붙여 “망월이여 망월이여”라고 소리를 높이 지르며 달맞이를 하고 소원을 빈다. 달맞이를 할 때는 달빛으로 그 해의 풍흉을 예측하는 망월점(望月占)을 친다. 대개 달의 빛깔과 윤곽, 형체로 빛이 붉으면 가물고, 희면 장마가 지며, 황색이면 풍년이라 한다. 또한 달이 북쪽에 가깝게 보이면 산 쪽이 풍년, 남쪽에 가까우면 해변이 풍어가 된다고 한다. 보름달을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한 가지 소원을 빌면 성취가 된다고 믿는다. 서면에서는 달이 뜨는 것을 보고 맑고 크고 선명하면 “떡풍(풍년)이다”라고 말한다. 농촌마을에서는 바다에서 달이 뜰 때 구름이 같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달이 안보이거나 구름 사이로 겨우 보이면 그 해 농사가 안 좋다고 하는데 거의 맞는 경우가 많다.

다리밟기를 한자로 ‘답교(踏橋)’라고 부른다. 자기 나이 숫자대로 왕래하면 그 해는 재앙이 없어진다고 하며 횃불을 들고 다리를 먼저 밟으면 그 동네가 번성한다고 믿는다. 달맞이를 하기 위해 앞산에 올라가 있다가 달이 뜨면 낡은 마당비나 싸리, 대마껍질을 벗긴 저릅 등을 여러 개 모아 묶고 군데군데 광술을 넣어서 만든 횃대에 불을 붙여 산등성이를 돌다가 서로 다리를 먼저 밟기 위해 달려 내려온다.

다리를 밟는 사람이 어느 동네 사람이냐에 따라 그 동네가 풍년이 된다고 서로 먼저

다리를 밟으려고 한다. 이 날 다리를 밟으면 다리의 음이 같아서 속설로 각질(脚疾)이 1년 동안 생기지 않는다 하였다. 민간 속설로 열두 다리를 밟으면 열두 달의 액을 면한다고도 한다. 서면 범부리에서는 강통에다 소나무 광술을 넣어서 소머리 산에 올라가서 빙빙 돌린다. 달맞이 할 때 남대천에서 달집을 크게 만들어서 태우며 한 해의 액을 막는다. 다리밟기는 달이 뜨면 범부교를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한다.

대보름날 자기 집의 우물물이 부족하면 수량이 많은 이웃마을이나 이웃집의 물을 훔쳐 온다. 물 훔치기는 두 사람이 밤에 남몰래 수량이 많은 우물물에 가서 주전자로 물을 떠서 한 사람이 앞에서 물을 조금씩 흘리고 가면서 “오나?”하고 물으면 뒷사람은 “온다”라고 대답한다. 자기 집의 우물까지 물줄기가 이어지게 하고 남은 물은 자기 우물에 붓는다. 이와 같이 하면 우물물의 수량도 많아지고 물맛도 좋아진다고 하며, 반면에 도난당한 우물물은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므로 예전에는 대보름날 밤에 동네의 우물을 지키는 일도 있었다. 강현면 회룡리에는 용안수라 하는 곳이 두 군데 있으며 두 군데 우물 모두 따뜻하다. 한재 시에 이쪽 우물이 잘 안 나오면 저쪽 우물에서 물을 주전자에 퍼서 “오늬 온다”며 물을 질질 뿌리며 왔다고 한다. 용알뜨기라 하여 새벽 한시쯤 뜨러 가서 먼저 뜨면 그 해 재수가 좋다고 하고 물뜨고 나서 짚으로 가락지처럼 만들어 띄워 표시한다.

대보름날 아침 찬물을 마시면 소나기를 맞는다고 마시지 않으며, 풀을 쭈면 까마귀가 못자리를 헤집고, 바느질하면 생손 앓는다고 하지 않는다. 아침에 약밥을 찌는데 사용했던 불쏘시개를 12개로 나누어 그 각각을 입으로 불어 불씨가 꺼지는 상태와 정도를 보고, 1년 12달 각각 가물고 비가 오는 정도를 예측한다. 불씨가 먼저 꺼진 것일수록 비가 오는 달이 되고 안 꺼지면 가문다고 한다.

액매기를 액막이라고도 하는데 산간마을에서는 짚으로 허수아비를 만들어 액매기를 하고, 하광정리에서는 보름날 저녁에 달이 떠오르면 그 해의 신수가 나쁜 사람은 바닷가에서 용왕께 빌고 ‘어부습[어부식(魚付食) : 속어]’이라 하여 속적삼이나 문종이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밥 세 접시 또는 나이만큼 밥을 싸서 냇물에 띄운다. 조산리에서는 9 또는 7 숫자의 나이가 든 사람은 신수가 불길하다하여 바닷가에서 어부식을 한다. 이때 오곡밥을 나이수대로 떠서 한지에 싼 후 바다에 던져 넣고, 달보고 무사하기를 빌며 절

을 한다. 인구리에서는 찰밥을 나이만큼 세어서 뭉친 다음 이것을 강물에 던져 액을 막는다. 또한 대보름달이 떴을 때 오곡밥을 해놓고 밥을 식구 수대로 세 숟가락씩 떠서 천에 썬 다음, 이름을 쓰고 북어 한 마리를 열네 매끼로 묶어 바다에 함께 던진다. 열 네 매끼는 사람이 사망 후 겹 매끼 일곱, 속에 일곱 매끼를 묶는 것과 같다.

농촌에서는 토정비결을 보아 신수가 나쁘다는 사람은 짚으로 ‘제용’이라 하는 허수아비를 만들어 며칠간 베다가 대보름날 길에 버려 그 액을 예방한다. 나무시집 보내기는 ‘가수(嫁樹)’라고 하는데, 대보름날 감나무나 대추·호두나무에 이것을 많이 한다. 감나무의 갈라진 두 가지 사이에 돌을 깊숙하게 끼워 놓으면 그 해 열매가 많이 연다는 것이다. 범부리에서는 옛날에 어른들이 감나무 갈라진 곳에 돌을 끼우고 이때 ‘장가들인다’고 하였다. 이렇게 하면 감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은 성교를 모방하여 풍요를 비는 행위로 호두나 밤나무·대추나무에도 하며, 더러는 대보름날 찌 낸 약밥을 가지 사이에 갖다 붙여 과실이 풍년 들기를 기원한다. 또한 수수깡으로 지게도 만들고 연장을 만들어 거름뎡이에 14일 날 걸어놓고 보름날에 달을 보러 나간다. 대보름날 저녁에 남의 집에 다니면서 찰밥을 얻어먹으면 농사가 잘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날 찬물을 먹으면 여름에 길을 가다가 소낙비를 만난다고 피하고, 김치를 먹으면 여름에 썩기에 쏘인다고도 한다.

강원도의 농악은 영동과 영서가 지역별로 독특하며 차이가 나지만, 농악대의 지신밟기는 비슷하게 진행된다. 현북면 잔교리 농악이 유명한데 농악대가 농기를 앞세우고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새해의 복을 빌고 지신을 밟아준다. 마당에서 먼저 지신밟기를 하면 주인은 집을 향하여 자리를 깔고 상위에 쌀 한 말을 떠놓고, 돈이나 실도 놓고 농사가 잘되게 해달라고 절을 한다. 농악대의 상쇠가 이 때 나서서 집안과 자손의 번창을 비는 고사반을 올린다. 농악대가 우물을 지나갈 때는 우물굿을 치고 정지에서도 조왕신의 축을 한다. 이렇게 하면 주인이 늦대야에 쌀이나 돈을 올려놓은 것으로 농악대의 경비를 마련하거나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하고 경로당의 비용으로 쓴다.

대보름날 팔랑개비를 만들어 지붕이나 난가릿대에 꽂아 놓고 그 해의 길흉을 점친다. 팔랑개비가 잘 돌아야 그것을 만든 사람의 신수가 좋고, 설 새 없이 돌면 까마귀나 솔개·박쥐 같은 흉조들이 날아들지 못하고 귀신출입을 막는다 한다. 이 날 밤에 변소 출

입문 위에 쥔신을 새끼로 묶어 달면 도둑을 막을 수 있다 한다. 연날리기를 ‘연 귀양 보낸다’고 바다 쪽으로 날리고, 더위팔기를 ‘신병내기’라 하여 아침에 불러 대답하며 “내 더위 사라”고 하는데 어른에게는 팔지 않는다. 부럼깨물기는 “흔디[부스럼]를 막는다.”며 아침에 콩이나 날밤, 옥수수를 튀밥을 먹으면 한 해 동안 부스럼 없이 지낼 수 있다 한다. 대보름달이 뜨기 전에는 개에게 밥을 주지 않는 개보름쇠기, 귀밝이술마시기 등이 전한다. 또한 김치나 고추장 등 고춧가루가 들어 있는 음식을 먹으면 살빼기에 쏘인다고 먹지 않고 주로 나물을 먹는다.

대보름날 달이 뜨면 마을 가운데 한 자쯤 되는 나무를 세워 놓고 그 그림자의 길이로 한 해의 풍흉을 점친다. 그림자의 길이가 여덟 치 정도면 길하고, 다섯 치면 불길하고, 네 치가 되면 곡식이 여물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보리뿌리를 캐보아 뿌리가 여러 개면 그 해는 보리농사가 풍년이 들 것으로 미리 예측한다. 농촌에서는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의미가 크므로 이날 ‘보리알 불금’이라고 보리뿌리를 캐서 풍흉을 점친다. 뿌리가 세 가닥 이상이면 풍년, 두 가닥이면 평년작, 한 가닥이면 흉년이라고 짐작하는 맥근점(麥根占)을 친다. 대보름날 손님으로 남자 어른들이 먼저 오면 그 해 농사가 잘 된다고 믿는다. 기사문리에서는 대보름 제사를 모시기 전에 새벽에 바다로 나가 배에 만선기를 꽂아놓고 술잔을 부은 후 절하고 돌아온다.

강현면 낙산마을에서는 음력 1월 14일은 여름날이라 한다. 이날 더위를 팔면 한 해를 시원하게 지낸다고 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가족들에게도 혹 더위를 팔기도 하고 주위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더위를 팔기도 한다. 먼저 상대방의 이름을 부른 후 상대가 대답을 하면 “내 더위 사라”고 한다. 대부분 양양지역에서는 땅콩 등으로 부럼 깨물기를 하거나 과일로도 하고 청근(菁根) 즉 무를 깨무는데, 부럼을 깨물면 한 해 동안 부스럼이나 피부병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

조와 수수, 찹쌀 등을 넣어 오곡밥을 해 먹기 전에 오곡밥으로 조상신에게 먼저 제사를 올린 후 먹는다. 대보름날 달이 떠오르는 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보고 소원을 빌면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여 남들보다 일찍 바다에 나가 달마중을 한다. 정초에 신수를 보아 액운이 있거나 삼재가 들어있으면 대보름날 밤 나이대로 오곡밥을 한지에다가 싸가지고 곁에다가 성명을 쓴 후 바다에 나가 던지면서 액을 던진다고 주문을 외우며 액

막이를 한다. 삼재가 들거나 운이 안 좋은 사람이면 그 사람의 대리대명으로 보낸다고 해서 짚으로 허재비를 만들며, 실에다 명태를 묶어서 삼거리에 묻기도 하고 바다에 버리기도 한다.

정월 16일은 ‘귀신날’이라 하여 하루를 쉬며 어촌에서는 출어를 피한다. 이날 일을 하면 귀신이 붙어 죽을 때 헛손질하면서 죽는다는 속설이 전한다. ‘귀신 붙은 날’ ‘귀신을 달구는 날’이라 하여 나들이도 삼간다. 이 날 집안으로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귀신불 놓는다.’며 대나무를 불에 태워 그 터지는 소리로 귀신을 쫓으며, 집 입구에 깨금·은행·콩·낙엽 등을 모아서 불을 지르기도 하고 문 앞에 머리카락이나 고추씨를 모아 놓고 태운다. 체를 문밖에 걸어 두고 또 신발을 얹어놓거나 집안에 들여놓는데, 신발을 흠치러 온 귀신이 체 구멍을 세다가 정신이 혼미하여 돌아간다고 한다. 신발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불길하고 귀신이 신발을 신어보면 병을 앓는다고 한다. ‘야광귀’라는 귀신이 정초나 보름날에 내려와 신발이 맞는 것을 신고 가면 운수가 불길하고 말다툼이 있다 하였다. 또한 야광귀는 약왕이라는 불교신의 와전으로 그 형상이 아이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추하므로 일찍 잠자도록 하기 위해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한다. 범부리에서는 대문에다 췌바퀴를 걸어 놓아 잡귀를 막고 날이 어둑해지면 고추씨나 묵화씨를 마당에서 태운다. 신발을 마루에다 얹어놓는데 귀신이 신으면 ‘메하다’(나쁘다)고 하는데, 아프고 재수가 없다는 의미다.

양양에서는 설 쇠고 첫 정월 첫 번 장에 가서 소리 나는 냄비나 국자 같은 것을 사면 좋다고 개시하는 장날에 간다. 농가에서는 음력 초하루부터 약 초닷새 동안은 집에서 쉬며, 초엿새부터 열 사흘날까지 농사일을 한다. 이때는 새끼를 꼬거나 땔나무를 하며, 명석도 매고 자리도 맨다. 열 나흘날은 까치보름날이라 하며 수수빋자루를 맨다. 대보름날 보름음식 준비를 하고 새벽에는 외양간의 거름을 한 짐 저다가 논에 뿌린다. 농가에서는 벼품종 고르기, 모래논 객토, 발작물 종자준비, 느타리버섯 벗겨내기, 고구마 저장고 관리 등을 한다. 어촌에서는 명태잡이와 오징어채낚기 어업과 기선저인망 어업 등이 한창이다.

(2) 2월

음력 2월 1일을 ‘영등날’, ‘영동날’, ‘바람님날’, ‘풍신날’이라고 부른다. 영등맞이는 풍신제(風神祭)를 말하며 여신인 바람신을 모시는 날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영등신은 할머니로서 음력 2월 1일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보름 후인 2월 15일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며, 영등신을 따르는 수부신은 20일 올라간다고 말한다. 영등할머니가 올 때 비가 내리면 ‘물영등’, 바람이 불면 ‘바람영등’이라 부른다. 영등할머니가 하늘에서 머느리와 함께 오면 비가 오고, 딸을 데리고 오면 바람영등이 된다고 한다. 그 이유는 딸의 경우 다홍치마가 바람에 보기 좋게 잘 날리고, 머느리는 옷이 비에 젖어 밍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전통적인 고부간의 갈등을 빚대기도 한다. 또한 비가 오면 머느리가 서러워 우는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비가 오는 물영등이 되어야 농사나 해사가 풍년을 이룬다고 한다. 이날에는 어촌에서는 대부분 출어를 하지 않고 영등신을 바람님, 풍신, 말명할머니, 바람할머니라 부르며 제사를 지낸다.

인구리에서는 바람할머니에게 새벽 일찍 명태국을 끓여 제사를 지낸다. 장독대에 찰밥을 놓고 떡이나 다른 음식이 들어오면 먼저 올려놓았다가 먹으며 15일 새벽 일찍 영등할머니를 보낸다. 대부분 어촌에서는 이 날 팔 삶고, 찹쌀과 잡곡을 섞어 오곡밥을 짓고 나물, 생선, 정화수를 놓고 제사를 지낸 다음 15일까지 매일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서 올린다. 고기는 생물은 달아매고 죽은 것은 찌서 매다는데 영등할머니는 특히 해초, 김, 미역을 좋아한다고 한다. 15일 동안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은 먼저 바람님에게 올렸다고 먹으며, 바람님이 오시는 날과 가시는 날만 제사 지내고 그 외의 날에는 정화수만 떠다 놓는다. 농촌은 농사가 잘 되라고 하고 어촌은 고기를 많이 잡히라는 뜻이다.

동호리 지역에서는 영등날 집안이 잘되라고 소지를 올리며, 무와 명태 넣고 찌개를 끓이고 무나물도 채를 썰어서 놓는다. 영등이 올라갈 때도 똥[뒤뜰]에도 메를 해놓고 내려올 때도 장독대 앞에 상을 놓고 빈다. 이때 비가 올 때는 머느리하고 온다고 하는데, 딸은 남의 식구이므로 머느리하고 올 때가 좋다고 한다.

영등할머니가 15일 올라갈 때 바람이 불면 가물고, 비가 오면 그 해 물 걱정이 없을 것으로 점친다. 배를 가진 사람들은 바람영등제를 부모 제사보다 더 잘 지낸다고 말할

정도로 신경을 쓴다. 기사문리에서는 바람님을 장독대에서 빌고, 잡은 고기를 잘 걸어 두었다가 이것으로 제사를 지낸다. 이 날 팔밥을 해먹고 문창호지를 다시 붙인다. 대부분 어촌에서는 영동할머니 제사를 지낼 때 명태와 무를 넣고 끓여서 장독대에다 내놓고, 밥을 많이 하여 술에 식구수대로 수저를 쫓는다. 제물의 한 가지인 떡은 바다의 듭북이를 뜯어다가 삶아서 가루를 내어 쌀떡을 만들어 놓고 “바람님, 잘 잡숫고 가시고 잘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빈다. 바람님에게는 2월 15일 하늘로 올라가기 전까지 무엇이든 먼저 먹으라고 놓고, 밖에서 먹을 것이 들어오면 반드시 장독대에 내놓았다가 먹는다고 한다. 2월 1일에 아이들은 산에서 줌을 캐먹으면 약이 된다고 갈근을 캐러 다니기도 한다.

회룡리에서는 그냥 영동이라고 부르는데 물영동이면 농사지을 때 물이 흔하기에 비가 오기를 바란다. 이날은 팔밥, 오곡밥, 명태꼬리, 나물 등 장독대에 갖다놓고 영동할머니에게 올해 농사 잘되게 해달라고 빈다. 무악찌기라고 해서 장을 풀어 넣고 소금으로 맑게 끓여 가지고 만든다. 메는 메대로 따로 해 놓는데 식구 수대로 숟가락을 쏘고, 햅쌀은 아니어도 첫 수지로 메를 만들어서 내놓는다. 초하루 아침에 제를 올린 후 그 다음에 그 음식을 먹는다. 이후 보름까지 매일 아침마다 물 떠놓고 빈다. 영동할머니가 보름에 한 번 올라가고 스무날에 마저 올라간다고 믿는다.

범부리에서는 이날을 영동날이라고 한다. 흔히 바람영동날이라고 하는데 메를 해놓고 식구 수대로 수저를 쫓아 놓고 농사가 잘되게 해달라고 빈다. 옛날에는 바람영동이 무섭다고 했는데, 영동이 노하면 누가 덧나서 아프다고 한다. “논두렁은 물영동이 좋고 산은 바람영동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바람영동은 스무날에 하늘로 올라가며 한지 종이를 부엌에다 걸어놓고 음식이 들어오면 먼저 올려놓은 다음에 식구가 먹는다. 메를 크게 한 사발 놓고 북어, 떡, 무악찌기를 놓고 빈다.

2월 초하루는 옛날 설로 조선시대에는 중화절이라 했으며 농촌에서는 머슴날이라 불렀다. 농가에서는 이날 대청소를 하고 노래기날이라 하여 묵은 먼지를 털어 내며 “좀이 알 떨자”고 한다. 산간마을에서는 솔가지를 초가지붕 처마에 꽂고 아궁이의 재를 논에 갖다 쏘으면서 “송송벌기[벌레] 노래각시[노래기] 침주라”고 말하면 집안의 노래기가 없어진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솔가지 침을 ‘벽침(僻針)’이라 하였다. ‘좀북

기’라 하여 콩을 볶아서 먹거나 초가지붕 위로 콩을 던져 노래기를 없애고자 하였으며, 주부들은 “손거스러미 볶자”는 소리를 외우며 곡식을 볶는데, 농사일을 할 때에 거스러미가 나는 것을 예방하는 뜻이다.

양양에서는 이 날 천둥이 치면 할머니들이 장독대에 나가서 돌을 하나 뒤집어 놓는다. 이렇게 하면 노낙각시가 벼락을 맞아 없어진다고 한다. 요즘은 주택개량으로 줌뽕기 행사는 볼 수 없다. 농가에서는 대보름날 곡식 이삭을 묶어서 세웠던 벧가릿대를 내려서 송편을 만들어 농군들에게 나눠주는데, 자기 나이수대로 먹어야 일을 잘한다고 한다. 술떡 찢 때에 술잎을 놓는데 술잎 향이 향기롭다. 농촌에서는 정초나 대보름날 키 작은 사람이 집에 먼저 들어오면 삼의 키가 작아 진다고 꺼린다.

음력 2월 6일을 쯔상날, 쯔생이날이라 하며 “쯔생 본다”고도 말한다. 쯔생이는 하늘의 묘성으로, 이 별은 28개 별자리 중 폴레아테스라는 작은 별이 모여 있으며, 육안으로 대여섯 개에서 열 개 정도로 보이지만, 망원경으로 보면 100개 이상이다. 속담으로 “조무생이보고 그 해 일할 쯔신 삼는다.”하며 쯔생이의 빛깔이 붉으면 가물고 투명하면 곡식이 잘 된다고 점을 친다. 쯔생이 보기는 이날 초저녁 7시쯤 쯔생이별과 달과의 거리를 보고 그 해 풍흉을 점치게 된다. 쯔생이가 가는 방향을 풍년이 드는 지역으로 판단하기도 하고, 달과 쯔생이의 거리가 접근하면 흉년이라 한다. 그러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쯔생이 잘 따라간다.”하며 풍년이 들 것으로 판단한다.

하광정 마을에서는 쯔생이별과 달과 거리를 소고뼈만큼 떨어져서 가면 배가 불러 시절이 좋아 농사가 잘되고, 달의 앞이나 옆으로 가면 농사가 잘 안 된다는 비결점을 친다. 쯔생이별 옆의 삼태성은 아버지별, 잔별은 아들별이라고도 한다. 이 날을 농사날이라 부르는데, 쯔생이별은 농촌의 아이들이고 초생달은 어머니가 논에 모밥을 이고 가는 밥광주리라고 생각한다. 이때 햇불놀이와 다리뺏기를 하면서 다리 중간에서 모든 일이 잘 풀리게 해달라는 뜻으로 농악을 울리면서 술령노래를 하며, 풍년을 기원하는 고사를 올린다. 고사 제물은 돼지머리, 주과포, 산자, 향, 술 등을 올리며 한문 축을 읽는다.

양양에서는 “쯔상을 본다”며 음력 2월 초하룻날 별 다섯 개가 뭉쳐 있는 쯔상과 초승달과의 거리로 풍년을 점쳤다. 쯔상이별 다섯 개는 아들이고 달은 밥을 담은 함지로 보

는데, 별이 달 뒤에 가까이 가면 배가 고픈 것으로 보고 어느 정도 떨어져서 가면 배가 불러 밥함지와는 상관하지 않으므로 풍년이라고 본다. 달과 좀생이가 소고빼 한 휘장 정도의 거리에 있어야 적당한 거리이며, 그래야 풍년이라고 점친다. 그러나 좀생이와 달이 너무 떨어져 있으면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서 그 해는 흉년이 든다고 한다.

음력 2월 7일 아침에는 무채를 썰어 놓고 이것을 짜서 무즙을 낸 다음에, 몸을 동쪽으로 향하고 단숨에 마시면 한 해 동안 건강하다고 한다. 무는 한자로 ‘없을 무(無)’자와 음이 같아 무병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식은 동지 후 105일 만에 들며 이날을 찬밥먹는 날이라고 한다. ‘공마일’이라 하여 귀신도 꿈쩍하지 않으므로 평소에 꺼리던 일을 하거나 무덤을 손질해도 탈이 없다고 한다. 보통 2월에 한식이 들면 “철이 빠르다”고 하며, 3월에 들면 부지런히 농사일에 대비한다. 조선조에는 5절사(五節祀)라 하여 설·단오·추석·동지와 함께 제사를 지냈으나, 요즘에는 묘지에 가서 사초를 하는 것으로 그치는 집안이 많다. 중국에서는 춘추시대 진나라 문공의 충신이었던 개자추가 면산에 숨어서 나오지 않고 불에 타서 죽었으므로 불을 쓰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때쯤 되면 바람이 심하므로 불조심을 촉구하는 뜻이 많다. 범부리에서는 개사초를 하려고 산소에 가서 손을 본다. 농가에서는 이날 범씨를 담그고 감자를 심는다.

2월 달에는 속담으로 “2월 바람에 큰 독이 깨진다.” “꽃샘에 설늪은이 얼어 죽는다”고 하듯이, 꽃샘추위 즉 화투연(花妬娟)이라 하는 바람이 세계 불어오므로 불조심을 한다. 석전제(釋奠祭)는 2월 상정일(上丁日)과 8월 상정일에 중국과 우리나라의 선현 유학자를 모신 문묘에서 제향을 올리는 유교제례이다. 양양향교의 문묘석전은 유생들이 이날 모여 대제를 거행한다.

농촌에서는 보리밭에 나가 보리를 밟는다. 겨울에 부풀어 오른 보리의 뿌리가 흙에 단단히 묻혀 풍년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보리밭의 두엄주기, 범씨 고르기, 고추·가지씨 뿌리기 등을 한다.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영등할머니를 위하고, 중순경부터는 논에 가래질을 하고 밭을 갈아 감자 심을 준비를 한다. 논에 가래질할 때 ‘들개’라 하여 두레를 짜서 함께 일을 하고 품앗이를 한다. 또한 2월 1일에는 짚신과 명석, 새끼줄을 꼬아서 한데 모아 품평회를 하고 함께 어울려 음식을 먹는다.

20일에는 집집마다 나무 한 그루를 심는데 “부지깽이를 거꾸로 꽂아도 살아난다.”고 한다. 이 달은 본격적인 영농에 대비하는 달이며 어촌에서는 명태 · 문어잡이, 오징어 채낚기와 콩치그물 수리 등을 한다. 양양에서는 설 쇠고 봄이 되면 간장이나 장을 담그는데,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메주를 해 놓았다가 날이 조금 푸근해지면 한다. 요즘은 날을 받지 않는데 집에서 담그는 간장은 단지에 물을 붓고 매주에 돌을 매서 놓으면 녹아 내리면 가마에 넣고 달여서 만든다. 장은 메주콩으로 만들어야 맛이 있으며, 메주를 쪄서로 달아매서 마른 다음에, 안방의 더운데 모아놓고 천으로 덮어 놓으면 속이 검게 뜬다. 그러면 설을 쇠고 나서 그것을 깨서 고추장, 막장, 간장을 담근다.

(3) 3월

음력 3월 3일을 삼진날, 삼진일, 상사일(上巳日)이라 하며,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고 한다. 아이들은 제비를 처음 보면 “문둥이 보라”고 재미있게 이야기한다. 또한 이날에 아이들의 머리를 깎아주면 부스럼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양양의 부녀자들이나 예전 서당의 학동들은 이날 꽃 다림이라 하여 화전놀이를 갔는데, 화전(花煎)은 진달래꽃을 뜯어 찹쌀가루에 반죽하여 참기름을 발라가면서 둥글게 지져 먹는 것이다. 화전놀이는 사람들에게 따라 화류놀이, 꽃놀이, 화놀이라고도 부른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는 쌀을 곁어서 계피떡이나 송편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먹었으며 부녀자들이 오색령이나 남대천 물가에서 화전놀이를 하고 남자들은 계곡에 가서 가재를 잡고 천렵을 하였다. 여자들은 손수건 돌리기, 종지돌리기, 걸음내기, 망아지 놀이, 줄다리기를 하면서 놀았다. 화전놀이를 가서 처음 본 나비로 점을 치는데, 호랑나비나 노랑나비와 같은 채색나비를 먼저 보면 기쁜 일이 생기며 그 해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길조로 여기고, 흰나비를 먼저 보면 부모의 상을 당해 상주가 될 징조라고도 한다. 아들을 못 낳은 가정에서는 이 날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린다. 서면지역에서는 노랑나비를 먼저 보면 좋고, 흰나비를 보면 “몽상 입는다.”고 믿는다.

아이들은 주레튼다며 버드나무에 물이 오르면 비틀어서 피리를 분다. 3월 버드나무에 물이 한참 오르면 버들가지를 꺾어 풀피리를 만들어 아무 곡조나 불곤 했다. 회룡리

마을주민들 중에 개인적으로 진전사 근처에 있는 학송암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설악산 신령을 최고로 치는데 송암골에 3월 보름, 9월 보름 주기적으로 가며 학송암에는 제단을 만들어 놓았다.

3월에는 진달래꽃이 많이 피므로 일반 가정에서는 해수병에 좋다고 술을 담가 먹고, 일부 양반가문에서는 연못에 핀 연잎으로 감주를 담아 이틀 정도 봉했다가 마시는 연엽주가 유명하다. 독특한 향과 맛이 있어 시식으로 꼽혔다. 가정에서는 음력 3월에 택일하여 메주로 간장을 담근다. 간장이 쓰다고 신일(辛日)은 피하고 오일(午日)을 택하며, 부정을 막기 위해 금줄을 치고 황토를 문밖에 뿌리는 집도 있다. 이외에도 3월에는 남대천에서 은어나 뚜거리를 잡아 매운탕을 끓여 먹는데, 은어튀김이나 은어탕을 만들면 수박향을 느낄 수 있어 봄철의 별식으로도 인기가 높다.

3월에는 절기상 청명과 곡우가 들어 있는데, 24절기의 여섯 번째인 곡우일이 되면 오색계곡에 올라가 자작나무 물을 받아 마신다. 봄철이 되어 생장활동이 활발해진 나무줄기에 흠집을 내어 깡통을 매달고 흘러내리는 수액을 받는데, 이것을 곡우물이라 한다. 곡우물은 위장병이나 신경통에 좋으며 팔고 있으며 일부러 찾아서 마시는 사람도 있다. 경칩날에는 요통에 좋다고 개구리알을 먹는 사람도 있다.

농가에서는 초순에 간장을 담기기 위해 메주를 독에 풀어 넣는다. 또 곡우 무렵에 못 자리를 마련하여 범씨를 담그는데, 풍작을 위해서 밖에서 부정한 것을 보거나 상가(喪家)에 들렀을 경우 집 앞에 불을 놓아 타넘어 들어오며, 범씨를 만지거나 보지도 않을 만큼 신경을 쓴다. 3월 들어 길일을 택해서 농가에서는 첫밭갈기라고 일부러 밭을 가는 데, 대보름날 수저로 밥을 먹으면 넓은 밭고랑을 차지하고, 젓가락으로 먹으면 가는 밭고랑을 맡는다고 한다. 처음 밭을 갈 때 잘 갈려야 그 해 농사가 잘 된다고 한다.

모심기 준비로 범씨를 물에 담그고 오이·감자·파·깨·고추·가지 등의 씨를 뿌린다. 중순 이후에는 못자리에 범씨를 뿌리며 가래질을 하고, 된장이나 고추장도 담근다. 밭둑에는 옥수수를 심고 보리밭도 맨다. 하순에는 누에치기를 한다. 고구마 온상은 모판흙이 마르지 않도록 물주기를 한다. 어촌에서는 게잡기와 명태·문어잡이를 나간다.

2) 여름철의 세시풍속

(1) 4월

초파일날은 불교명절로 음력 4월 8일을 말한다. 석가모니 탄신일인 이날에 불교신자들은 낙산사 등 사찰에 모여 불공을 드린다. 포교당에는 불자들과 불교학생회원 · 시민들이 모여 이 날을 기리며, 저녁에는 시내에서 가장행렬을 하거나 제등을 하고 불교포교와 부처님의 가호가 온 누리에 퍼지기를 기원한다. 4월 달에는 초파일이 들어 있으므로 불교행사가 많은데, 강원도 역시 명산 · 고찰들이 많은 관계로 탐돌이가 성행한다. 양양 낙산사 탐돌이는 유명하여 인근에 잘 알려졌는데, 초파일제가 끝나면 신도와 승려들이 함께 불탑을 돌며 부처님께 소원을 빈다.

이 달에 어린 여자아이들은 봉선화 잎을 손톱에 물들인다. 염지갑(染指甲)이라고 봉선화 잎에 백반과 된장을 섞어 돌로 짚은 것을 손톱 위에 올려놓고 피마자나 봉선화 잎으로 묶고 하루가 지나면 손톱이 분홍색으로 변한다. 손톱에 물들이는 것은 미용과도 관계가 있지만 붉은 색이 나쁜 것을 쫓는 벽사(辟邪)의 의미를 겸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가에서는 이 달에 이웃끼리 서로 돌아가며 김매거나 모심기하는 것을 질짜기라 하고, 함께 어울려 농악놀이도 하고 술과 음식을 먹는 것을 질먹기라 부른다. ‘질’은 ‘두레’와 같은 의미가 있으며 책 ‘한질’이라고 말할 때처럼 하나의 모둠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된다. 질모임은 25명을 한 조로 하여 돌아가면서 모를 심는데, 처음 모심는 아이집부터 두벌집, 세벌집까지 함께 어울린다. 양양에서는 오독덕이나 자진아라리 등을 주로 부르며 작업을 하는데, 항상 소리꾼을 먼저 뽑아서 흥을 돋우고, 일이 끝나면 쓰레췌이, 췌레쓰시미, 세서연(洗鋤宴)을 베풀어 농군들을 위로한다. 이 때 농사를 잘 지었나를 살펴 농사장원에게 각 농가에서 막걸리 한 동이를 내놓아 장원주라며 권하고, 모밭에 고등어를 감나무 앞에 싸주는 반찬을 먹으면 맛도 좋다고 한다. 질먹기는 대체로 모심기 작업이 전반적으로 끝나는 말복이 지나서 서낭당 앞에 모여 술잔을 올리고 풍년을 기원하며 먹는다.

영갈은 농촌의 생산풍속으로 소만이 들어있는 4월중에 행하는데, 갈꺾기를 하여 퇴

비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소만 때 갈 꺾으라는 동네어른들의 명령이 있어야 하므로 이를 영갈이라 한다. 퇴비권장을 위해 동네주민들이 공평하게 소만 전에는 입산을 금하고, 으레 소만날만 되면 요즘도 갈 꺾으러 가는 사람이 있다. 초순에는 논갈이를 하는데 무논은 두벌 갈며, 모래 논은 세벌갈이를 한 뒤 씨레질을 하고 모를 심는다. 모심기는 대체로 소만을 전후하여 소위 “일공론, 모공론한다”며 서로 상의하여 깊은 못자리부터 모심기를 한다. 이때 “모 줄은 앞 뒷줄을 다툰다”고 할 만큼 먼저 심은 곳과 나중에 심은 모는 차이가 나므로 먼저 모심기를 하려고 애쓴다. 대체로 초벌매기 즉 아이짐은 음력 3월 20일 경부터 시작하고, 두벌짐은 약 보름 후, 세벌짐은 말복 10일 전에 매게 된다. 하순경에는 담배를 심으며, 누에고치와 보리를 거둔다. 그믐날에는 씨레쓰시미를 하고, 찰뭇생이떡을 해서 서로 나누어 먹으며 하루를 즐겁게 보낸다. 어촌에서는 게·명태·멸치잡이와 미역따기를 한다.

(2) 5월

음력 5월 5일은 단오날이다. 이날은 고려가요에는 이 날을 수릿날이라 불렀다. 단오날은 기수인 홀수가 겹쳐 있으므로 길한 날로 여기고 있는데, 기수는 음양으로 보면 양수에 속한다. 수릿날이라 부른 것은 민간전설로 수리치떡을 해먹고 떡 모양이 수레바퀴와 같다고 하여 유래되었다 하지만, 수리는 우리 고어로 태양이라는 뜻이 있다. 단오날 남자들의 씨름, 여자들의 그네뛰기가 민속놀이로 행해지며, 특히 여자들은 창포물로 머리를 감거나 창포뿌리로 비녀를 만들어 꽂기도 하였다. 가정이나 마을단위로 단오제례를 지내고, 양양의 장군성황신제를 매년 단오날에 치룬다. 고려 목종(穆宗) 10년(1007년)에 축성한 양주성내(襄州城內)에 성황사를 짓고 외적에게 희생된 영령을 위로하고 소원성취를 기원하고 있다.

양양군의 단오놀이는 예전부터 매우 유명했다. 기생과 무녀가 등장하고 영화상영, 씨름 등이 있었는데 1927년 6월 27일 동아일보 기사에는 “양양단오놀이, 양양군에서는 본월 15일부터 5일간 남대천 운동장에서 단오회(端午會)를 대대적으로 거행한다는데, 주최측에서는 준비에 분망 중인바, 5일간 연속될 여흥의 종목은 여창(女唱)의 보(步),

기생(妓生)연주회, 무녀(巫女)의 굿노리, 활동사진, 각희(脚戲) 등이라더라.”하였다.

인구리에서는 송편과 봄 쑥을 뜯어서 아침에 단오차례를 지냈으며 이날 창포뿌리를 깎아 비녀를 만들어 수복(壽福)이란 글씨를 새기고 끝에 연지를 발라 머리에 꽂으면, 두 통을 막고 액을 없앤다고 한다. 색실로 창포뿌리를 꺾어 댕기를 만들어 달고 다니는데 향낭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하며, 창포뿌리를 파·약쑥과 함께 삶아 아침 일찍 밥 먹기 전에 머리를 감으면 머리 결이 좋아지고 부스럼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아이들의 머리를 깎아 물에 띄워 보내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한다.

단오날 아침 식전에 쑥을 뜯어 말려 놓았다가 여름철 배앓이를 할 경우 다려서 먹으면 효과를 본다고 한다. 해가 뜨기 전에 뜯어야 약효가 있다고 하며, 부인들이 출산 후에 몸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쑥을 태운 김을 쏘이기도 한다. 이날 익모초 즙을 내서 먹으면 식욕이 생기고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하며 익모초 즙을 다려 생당 쑥엿으로 고아 환을 만들어 먹는다. 양양 인진쑥은 유명하여 여러 곳에서 특산품으로 만든다. 범부리에서는 강릉으로 단오 구경을 간다. 또한 창포뿌리를 캐서 다듬어 작게 만드는데 빨갛고 파랗게 물을 들여 댕기에 달곤 했다. 단오날 취떡을 해서 안반에 처서 찹쌀로 버무려 찰떡을 만들어 먹거나 쑥을 넣기도 한다. 단오날 식전에 아무 말을 안 하고 나가서 약쑥을 뜯어서 엮어 걸어두었다가 땀을 흘 때 쓴다. 몸이 아프거나 시큰거리면 땀을 뜨고 인진쑥은 생당쑥이라 하여 소화에 좋다고 고아서 먹는다.

소가 난산일 경우 약쑥을 소등에 엮고 천을 덮은 다음 거즈로 문지르면 순산을 한다고 하며, 약쑥을 넣은 영계를 여름철 보양식으로 먹고 시식으로 밀전병 대신 밀국수를 해먹는데, 이 시기가 밀을 수확한 직후이기 때문이다. 농가에서는 감자밭과 담배 밭도 매어 주고 늦은 논에는 아이집을 맨다. 하지가 ‘모의 환갑’이라고 늦어도 이때까지는 모심기를 한다. 보리는 망종 전 베는데 망종을 넘기면 바람에 쓰러진다.

첫 감자도 하지 때 캐는데, 작황을 보기 위해 캐보는 것을 “감자밀 본다”고 하며, 그러면 감자가 잘 영근다고 한다. 중순에는 밀·수수를 거두어 마당질을 하고 마늘도 수확한다. 예전에는 올계심니를 씨받이라 하여 수수나 조를 한 주먹 가량 베다가 방문 위에 걸어 두는데 다음 해 씨로 쓰거나 떡을 해서 사당에 천신하였다. 어촌에서는 명태·도루묵·오징어·칼치·멸치잡이를 한다.

(3) 6월

6월에는 더위가 밀려오는 때로 소서와 대서가 들어 있다. 음력 6월 15일은 유두날로 예전에 동쪽으로 흐르는 물가에서 머리를 감았던 것에서 유래하였다. 요즘은 강가나 계곡에 천렵을 많이 가며, 유두천신이라 하여 사당에 제사를 올리기도 한다. 유두조·유두콩·유두벼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이른 곡물을 내다 판다. 농촌에서는 이날 씨를 뿌리고 남은 곡식으로 떡을 해서 먹으며 “씨종자해 먹는다”고 말한다. 또한 이날을 전후하여 강우량이 많아지면 “유두물을 지운다”고 말한다. 농가에서는 복날에 농사를 짓는 대추가 백설기나 몽숭이 시루떡을 복떡이라하며 논둑에 차려 놓고 풍년을 기원하는 논굿을 한다. 이것을 ‘논맥이기’라고도 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삼복날 아무 때나 논두렁에 가서 전을 부쳐서 기름 냄새를 풍기면 벼에 해충이 끼지 않는다고 한다. 예전에는 이날 머슴 일꾼에게 상을 크게 차려주었는데, 이들은 이 날 만 일을 하지 않고 음식상을 받아먹고 놀기도 했다.

하지 뒤 셋째 경일(庚日)을 초복(初伏), 넷째 경일을 중복(中伏), 입추 후 첫째 경일을 말복(末伏)이라 하여 삼복으로 친다. 말복은 중복 후 10일이면 매복(每伏), 20일이면 월복(越伏)이라 한다. 이 날 천렵을 나가 물고기를 잡아 뚜거리탕을 끓이고, 닭을 잡아서 약병아리라 하여 보신용으로 먹거나, 보신탕을 이열치열로 먹는다. 이런 것을 복대림, 복놀이, 복대듬이라 한다. 여름에는 보신을 위해 소보다 개를 선호하는데, 여름 소를 ‘풀소’라고 하여 풀만 먹고 자랐기 때문에 보양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양양에서는 초복에 비가 오면 중복, 말복에도 꼭 비가 온다고 한다. 복날에는 주로 개를 잡아 보신하며 요즈음엔 삼계탕도 즐겨 먹고 추어탕도 먹는다. 복중에 천둥이 많이 치면 머루·다래 등 산열매가 흉년들고, 천둥이 치지 않으면 풍년이라 점을 친다.

동해안은 바다가 아름답고 백사장이 좋아서 허리가 아픈 사람들은 삼복날 양양 인근 바닷가에서 모래찜질을 하기 위해 인근 해수욕장으로 나간다. 삼베옷을 입고 바닷물을 적신 다음 모래구렁이 속에 들어가 있으면 요통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6월 보름에 천둥이 치고 비가 오면 머루와 다래가 안 달려 흉년이다. 서면 지역에는 머루, 다래가 많아서 따먹었는데 이날 천둥치고 비가 오면 틀림없이 머루, 다래가 흉년이었다고 한

다. 농가에서는 그믐 무렵에 ‘두벌집’을 매고 감자도 캔다. 장마가 의 끝남에 따라 병충해를 막기 위해 약제를 뿌리고, 담배잎 따기, 깨심기, 마늘수확 등을 한다. 어촌에서는 오징어잡이, 멸치잡이를 나간다.

3) 가을철의 세시풍속

(1) 7월

7월에는 입추와 처서가 들어 있는 절기로 가을이 시작되고 여름의 더운 기운이 끝나게 된다. 음력 7월 7일은 칠석(七夕)날이라 하여 하늘의 견우성과 직녀성이 만난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이날 옷과 서적을 말리며 전통가옥이나 종갓집에서는 보관 중인 고서들을 햇볕에 말리면 종이 먹지 않는다고 한다. 칠석날 비가 오면 견우와 직녀가 재회의 기쁨에 흘리는 눈물이며 그 해 농사가 잘 될 징조라 한다. 농촌에서는 ‘칠성기도’라 하여 북두칠성을 향하여 제사를 지내는데, 제물로 백설기·참외·주과포 등을 놓고 촛불과 향을 피우며 수명장수를 기원한다. 특히 자손이 귀한 집에서는 득남과 자식의 장수를 빈다.

음력 7월 보름날을 백중날이라 한다. 백중은 한자로는 백중(百種), 백중(百中), 망혼일(亡魂日), 중원(中元)이라고도 한다. 어원은 백 가지 과일을 차리고 불교의 우란분재를 지냈기 때문이라고 하며 또는 백가지 씨앗종자를 갖추었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이날 호미씻이를 하고 나면 발뒤꿈치가 하얗게 되므로 백중(白踵)이라는 사람도 있다. 영동 지방에서는 백중날 약수가 여문다고 약수터에 가서 물을 마신다. 7월이 되면 속담에도 있듯이 “간깐 5월, 미끈 6월, 어정 7월, 동동 8월”이라 한 것과 같이 다른 달에 비해 농한기다. 7월 보름 농부들은 집에서 각자 음식을 만들어 나이순대로 자리를 마련하고 위로의 시간을 갖는 것을 질먹기라 한다. 질먹기는 봄철에 질을 짜서 함께 농사일을 한 사람들이 논김은 다 매고, 밭김은 두 벌 매고, 김장을 심을 무렵에 하게 된다.

이 날 질을 먹고 난 다음에는 동네의 일들을 의논하며 일꾼이 많은 집에서는 푸짐한 음식을 장만한다. 아울러 장성한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서는 동네사람들에게 “질을 해친다.”고 하거나 “질을 먹인다.”며 음식을 베푸는데, 이것을 ‘관례’라 하며 이후에는 성

인대접을 받게 된다. 따라서 정당한 품회제로 품앗이를 하게 되는 성인식의 한 모습으로 볼 수 있다. 마을마다 ‘질’이라 부르는 두레를 짜면 공동으로 일을 해나가게 되는데 영좌와 대방, 비방이라는 직함을 만든다. 영좌는 마을의 어른으로 관례행사와 호미씻이를 주관하고 마을의 불량자를 훈계하기도 한다.

옥수수가 많이 나는 강원도 산간마을에서는 구황식품으로 오랫동안 주식이 되어 온 옥수수 알이 여문 것을 만져 보고 그 해 가을 풍·흉년을 점친다. 이른 옥수수가 잘 되면 이른 곡식이 좋은 결실을 맺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늦 곡식이 풍작이라고 점을 친다. 음력 7월에는 들판에 파리들이 많이 열리는데, 아이들은 다 익은 열매를 따서 껍질이 상하지 않게 속을 파내고 껍질 구멍에다가 공기를 불어넣어 동그랗게 한 뒤에, 입 속에 넣고 구멍이 있는 곳을 가만히 혀로 누르면 파리소리가 난다. 이 소리는 계속하여 입 속에서 빠드득 빠드득하고 나므로 듣는 사람도 재미가 있다.

갈풀썰이는 화전농경문화의 하나로 음력 7월경 추수 전에 내년의 농사를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두레형식으로 집집이 돌아가며 퇴비를 장만하는 것이다. 무성하게 자란 2년생 초목을 베어 와서 작두로 썰어 큰 풀가리를 만든다. 이것은 비료가 없던 1960년대 이전 화전농경을 하는 사람들에게 퇴비만이 유일한 지력증강의 수단이었으므로, 가을에 풀을 베어 말리는 작업은 긴요하였다. 갈풀썰이는 먼저 추수기 전까지 1년 동안 초목이 자라서 좁은 길과 마을길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풀을 베고 난 다음, 마을 서낭당에서 마을의 안녕과 주민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고사를 올린다. 이 때 날을 받아 언제부터 풀베기를 하며 누구 집부터 돌아가면서 한다는 결정을 보는데, 보통 20~30명이 품앗이 형태로 돌아가면서 풀베기를 한다. 갈풀은 대체로 2~3년생 초목을 대상으로 하는데, 작업 중에 풀아시가 풀의 이름을 해학적으로 사설을 붙여 불러주어 지루함과 힘든 작업의 피로를 덜고 작두질할 때 힘의 안배를 해주게 된다. 풀아시의 선소리에 답하여 작두꾼과 뒷풀꾼이 화음을 내어 흥겨운 분위기를 만드는데, 이날은 ‘풀밥’이라 하여 푸집한 음식을 장만하며 장정들은 식사 후에 씨름을 하며 논다.

7월에는 초순에 퇴비를 장만하여 감자를 캐 자리에 메밀을 심는다. 거름을 내고 퇴비장만을 위해 풀을 베어 놓고 작두질을 한다. 이 때 “우리리라”하는 작두소리를 한다. 속담에 ‘퇴비무지가 쌀무지’라 하여 농사에서는 내년 농사준비에 필요한 퇴비작업을 필

수적으로 한다. 아울러 가을떨감으로 약 한 달간 등거리나무나 소나무 가지인 송지 등 시목을 한다. 중순에는 가을누에를 치며, 담배 · 오이 · 호박 등을 거둔다. 어촌에서는 오징어잡이와 명태잡이, 도루묵잡이를 한다.

(2) 8월

음력 8월 15일을 한가윗날이라 하는데 한자로는 추석(秋夕)이라 쓴다. 이 때는 새로 나온 햅쌀과 과일로 조상의 차례상을 차리며 낮에는 성묘를 간다. 속담에 “더도 덜도 말고 8월 한가윗날만 같아라”하며, “5월 농부 8월 신선”이라는 말도 전한다. 양양지방에서는 이 때 박고지국을 먹는 것이 특징이며, 시식으로는 송편을 만들어 먹는다. 송편을 받으면 이웃과 나누어 먹는데, 떡을 받으면 빈 쟁반을 그냥 보내지 않고 자기 집의 떡도 맛을 보라고 보낸다. 이날 아침에 햅쌀로 메를 지어 차례를 올리는데 기제사와 비슷하게 지낸다. 송편과 기정을 만들어 차례상에 올리고, 송편을 만들 때 밤, 콩, 깨 등을 넣는다. 또 맨드라미 꽃잎과 대추를 넣어 기정떡을 해 먹는다. 별초는 8월 초하룻날에 하는 집이 많다.

8월 추석날이 되면 새로 수확한 수돗쌀 햅곡을 성주단지에 다시 채우는데 찹쌀을 넣는다. 성주단지는 양양, 영월, 평창, 속초, 강릉 등 일부 가정에서 모시고 있다. 보편적인 성주 모시기는 한지에 실을 묶어 안방 상량대에 거는 형식이다. 성주단지의 성주 쌀을 새로 교체할 때는 주부가 제물을 준비하여 치성을 드린 후 갈고 가정의 식복과 안녕을 기원한다.

회룡리에서도 곡신을 신주단지에 모시는데 특별한 날은 없고 추수한 후 제일 방아 많이 찧는 날 천신한 다음에 첫 쌀을 성주로 모셔놓았다가 정월달에 텃제사 지낼 때 그것 가지고 지낸다. 성주단지는 용마루에를 모시며, 달아 놓은 한지도 몇 년 되면 모아서 소각한다. 성주단지는 7~8월에 한 말 정도 들어가는 단지다. 여기에 3되 3홉으로 밥을 할 수 있고, 또 3되 3홉으로 떡을 할 수 있는 분량으로, 총 6되 6홉 정도 이상의 큰 단지에 그 해 농사지은 쌀을 넣는다. 단지를 모실 때 따로 빌지는 않고, 추석날 백설기와 팔시루떡을 만들어 성주신에게 풍년을 빈다. 가정에서는 창호지 구멍난 것을 7월 달에

바르면 도둑이 들고 이날 바르면 들지 않는다고 한다. 가을날 아침 바다에 먼동이 터올 때 대미인 큰 검은 구름이 끼서 올라오면 그 날은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한다.

농가에서는 건들 8월, 동동 8월이라 하여 바쁘기도 하고 한편 건들거리며 놀면서 지낸다. 밭의 가지를 거두며, 무나 배추를 심는다. 하순에는 가을걷이를 하며 보리를 심는다. 또 이른콩과 올벼를 거둔다. 어촌에서는 오징어·칼치·새우잡이를 나간다.

(3) 9월

음력 9월 9일은 9자가 겹쳐 중구일(重九日)이라 하며 양수가 겹쳐 ‘중양절(重陽節)’이라고도 한다. 이날 부녀자들은 국화를 따서 찹쌀떡을 만들어 먹는다. 절기상으로 제비가 강남으로 돌아가고 기러기가 찾아온다 하며, 설악산 등으로 단풍구경을 간다. 강원도 속담에 “여름철 모기떼들도 중구 얻어먹고 간다.”고 말한다.

음력 9월 9일은 길일이라 하여 집안에 삼재가 든 사람이 있거나 불상사가 자주 일어나는 가정에서는 무당을 찾아서 ‘구월맞이’ 라며 액이 든 사람의 이름을 걸고 정성껏 기도를 하면 좋다고 하여 행하며, 이날 차사를 지내는 가정에서는 시식으로 감떡을 제상에 올린다. 중양절을 범부리에서는 명절이라고 믿는데 이날 감과 콩을 넣어서 만든 뭇생이 떡을 만들어 먹는다. 농가에서는 메밀·깨·늦콩·수수 등을 거두며, 하순에는 벼를 베어 말린다. 그믐에는 마늘을 심는다. 어촌에서는 멸치어장이 형성됨에 따라 그물손질 등으로 분주하며 오징어·명태잡이를 나간다.

4) 겨울철의 세시풍속

(1) 10월

10월 상달에 각 가정에서는 고사를 올린다. 가정에서는 안택기도라 하는데, 토지신은 뒤뜰 장독 앞에서 지내고, 성주신 제사는 안방, 조왕신은 부엌에서 술뚜껑을 얹어 제물을 진설하고 지낸다. 뒤뜰에는 백설기·시루떡을 놓고, 방에는 팔시루떡, 부엌에서는

메를 한 그릇 올리며, 기타 제물은 돼지고기 · 명태 · 열갱이 · 주과포 등을 쓴다. 일부 군웅신을 모시는 가정은 간단한 제물을 차려 마굿간에 가서 소의 무병을 빈다. 형식은 독축을 하거나 절만 하고 소지를 올리는 가정, 간단히 말로 기원하는 경우가 많다. 제사 중에는 대문에 원새끼를 끈 금줄을 치며 황토를 문 앞에 뿌린다. 제사 후에는 각자의 소지를 올리는데, 태운 재가 위로 빨리 올라가면 그 식구의 운수가 좋다고 한다. 일부 가정에서는 무당을 불러 안택굿을 하고 종이성주를 갈기도 한다. 10월 1일 날씨가 따뜻하면 겨울날씨가 대체로 온난할 것으로 점을 친다.

농가의 풍속으로 가을철 벼베기를 끝내고, 10월이 되면 날을 정하여 ‘송개틀기’를 한다. 이 날을 속쟁이 하는 날, 소갈비 하는 날이라고도 부르는데, 소나무의 낙엽을 긁어서 겨울철 땀감으로 쓰기 위한 것이다. 마을에서는 한 사람이 종을 울리며 “송개다 송개다”라고 외치면 집집마다 깍지를 들고 나와 솔잎검불을 긁으러 함께 간다.

“나무가 묵어서 썩는 집안은 쌀도 남아 썩는다”고 할 만큼 연료사정이 좋지 않던 시절의 풍속으로 지금은 양양산간마을에서나 검불을 긁어다가 쓰는데, “검불 밑이 썩으면 좋다”고 한다. 하장동지(夏醬冬菹)라 하여 여름에는 장 담그고 겨울에 김장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음식세시풍속이다. 음력 10월에는 가정에서 다음해 봄까지 먹을 김장을 한다. 김장은 반양식이라 할 만큼 한국인의 식성에 맞는 반찬이고 겨울철의 중요한 비타민 공급원이기도 하다. 양양 농가에서는 김치헛간을 만들어서 땅에다가 김장독을 묻어야 제 맛이 난다고 한다. 김치헛간은 ‘김치각’이라고도 부르는 움막으로 일반 가정에서는 짚이나 이엉을 엮어 지붕을 만든다. 동치미 국물을 넣은 메밀막국수가 양양의 별미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

10월 달의 시식으로는 강정류를 들 수 있다. 강원도에서도 전통 가문에서는 강정을 만들어 제사에도 올리고 아이들 간식으로도 쓴다. 강정은 찹쌀가루에 술과 물을 넣고 반죽하여 여러 모양으로 말린 다음 기름에 이것을 튀기면 부풀게 되는데, 그 모양이 마치 누에고치 모양으로 되면, 여기에 조청을 바르고 흰깨나 검은깨를 볶아 묻혀 입혀 만든다. 이밖에도 콩강정, 깨강정 · 오색강정 · 매화강정도 있다.

10월에 들어서면 벼를 떨어서 방아를 찧는다. 날씨가 좋으면 추수한 곡식을 약 20일 정도 말리는데, 이 때 벼를 지게로 지어 집으로 들어서 벧가리를 세운다. 벧가리 위에는

깊으로 주저리를 씌워서 비가와도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이 때 예전에는 ‘태치기’를 하는데 바위로 태상을 차리고 손으로 벼를 잡아 도리깨질을 한다. 이 때 벼들은 녹두벼라 하여 태를 치면 잘 떨어졌다고 한다. 벼짚은 마구갈개를 하거나 초가집을 이었다. 농촌에서는 술값을 굶어다가 겨울철 땀감을 마련한다. 초순과 중순 사이에 메주를 쑤기도 한다. 어촌에서는 겨울 명태와 멸치를 잡으며, 그물손질과 겨울철 고기잡이 준비를 한다.

(2) 11월

동지를 작은 설, 아세(亞歲)라 하는데 고대 역법으로 동지를 설로 삼았던 것에서 비롯한다. 동지는 24절기 중 밤이 가장 긴 때로, 이때 시식으로 팔죽을 먹고 나이 한 살을 먹었다고도 한다. 이 날 팔죽은 찹쌀가루로 새알 모양의 떡을 만들어 죽 속에 넣고 꿀을 타서 시절음식으로 삼아 제사에 쓰며, 문에 뿌려 상서롭지 못한 것을 물리친다. 동지팔죽에는 찹쌀로 만든 웅심이 또는 새알심을 넣어서 자기 나이수대로 먹는다. 양양에서는 웅생이라고 부른다. 주부들은 아이들에게 일부러 새알을 주워 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는데, 미리 담 옆에 찹쌀웅심을 흰 종이 위에 두서너 개 올려놓는다. 그러면 아이들은 새알을 찾았다고 주워오게 되고 새알을 자기가 먹으면 좋다고 한다. 또한 웅생이로 점을 치는데, 집에 임신부가 있으면 팔죽을 끓이기 전에 생웅생이를 화롯불에다가 구워서 웅생이가 앞으로 튀어나오면 아들이고 부그냥 갈라지면 딸이라고 점을 친다. 팔죽은 먹기 전에 방안이나 부엌 부대문 등에 뿌려 집안의 잡귀를 몰아라고 평안을 기원한다. 범부리에서도 웅생이점을 친다. 팔죽을 쑤어 제사를 지내는데 찹쌀로 웅생이를 만들어서 넣는다. 크게 만든 것을 먹으면 좋다고 믿는다. 웅생이는 많게는 백개를 넣는데 이것으로 동지차례를 지내기도 했으나 지금은 지키지 않는다. 동지 팔죽은 중순이 지나야 쑤고 팔죽이 일찍 쉬면 그 해는 날이 덥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동지팔죽의 유래를 중국 공공씨(共工氏)의 불초자식이 동짓날 죽어 역질이 되었는데, 그 귀신이 붉은 팔을 두려워하므로 팔죽을 쑤어 물리친다 하였다. 동지가 초순에 들면 아기동지, 애동지라 하여 팔죽을 쑤지 않는데 아이들에게 나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며, 애동지에는 농사가 잘 안 된다고 점친다. 중동지나 노동지인 보름 이후라야 팔죽을 쑤어 먹는다. 속담에는 “동짓날에 팔죽 아홉 그릇 먹고 건불 아홉 짐을 지고 와야 좋다” 한다. 동짓날에는 날이 맑고 바람이 없어야 풍년이 들 것으로 보며, 팔죽이 일찍 쉬어도 풍년이라 한다.

농가에서는 겨울철에 쓸 땔나무를 준비하며 삼도 삼는다. 회룡리에서 나뭇잎을 채취하는 것을 검불 한다고 한다. 산이 많은 사람들은 걱정이 없었으나 산이 없는 사람들은 겨울을 나기에 걱정이 많았다. 이것을 ‘송계친다’고 하며, 송계라는 것이 있어서 제비뽑아 자기가 해당하는 곳에 가서 검불을 굽어 겨울을 준비한다. 초겨울에 하는데 검불을 굽어서 보면 위에 것은 좋고 밑에 것은 흙과 함께 섞어 있다. 그것을 밭에 갖다 뿌리면 거름으로는 최고다. 송계치기는 단풍 떨어진 후에 하며 그 날은 잘 먹고 잘 논다.

하순에는 새끼를 꼬거나 삼테미나 명석을 찐다. 어촌에서는 이 때 명태가 많이 잡히므로 일손이 바쁘다. 동태 말린 것을 북어라 하는데, 오색령 밑에서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마른 누런색의 황태를 제일로 친다. 명란과 창란 등은 밀반찬으로 유명하며, 포로 만든 것은 제수감으로 많이 애용된다. 이때 양양어촌의 양미리나 콩치도 어획량이 높다.

(3) 12월

음력 12월 달을 섣달이라 부른다. 이 달은 한 해를 마감하게 되므로 분주하게 보낸다. 예전에는 동지 후 셋째 미일(未日)을 납일로 정하여 납향제를 지냈으나 요즘은 없어졌다. 섣달에 잡은 참새는 맛이 좋고 마마[媽媽] : 천연두를 깨끗이 한다고 해서 잡아먹었다. 서면지역에서는 납[평]일에 참새를 잡아먹었다. 호룡불에 종이를 발라 가지고 들고서 참새를 잡으러 다니는데, 참새는 초가집 처마에 집을 짓고 밤에 잠을 잘 때 잡아서 구워먹었다. 이날은 일찍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센다며 아이들을 잠재우지 않는데 “수세(守歲)지킨다.”고 한다.

가정에서는 집 안팎에 환하게 불을 켜놓는데, 그렇게 해야 한 해가 밝고 복을 받으며 잡귀가 침범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날 묵은세배를 하고 만두국을 먹으며, 미리 넣어 둔 복만두를 먹는 식구는 남보다 복을 많이 받는다 한다. 양양에서는 그믐에 어른들에게

세배를 올리는 곳이 적지 않은데 일 년을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잘 보살펴주셔서 고맙다는 뜻이다.

농가에서는 12월을 ‘썩은 선달’이라 하여 다른 달에 비해 쉽게 지나간다고 한다. 온상 준비, 감자저장, 새끼꼬기 등을 하며, 어촌에서는 명태·문어·게·오징어 등을 많이 잡는다. 윤달은 남의 달, 공달이라 하여 재액이 없는 달로 여긴다. 이 달에는 “송장을 거꾸로 세워도 탈이 없다.”할 정도로 꺼리던 일을 한다. 장례준비를 하고 수의를 만들며, 부엌개수, 화장실 등을 고친다. 묘소도 손을 보는데 이장을 하거나 비석도 세우게 된다.

윤달에는 기가 약하므로 결혼, 이사, 회갑 등의 살아있는 사람의 경사스런 일을 금하고, 자손에게 피해가 없기 때문에 평소 꺼리던 죽은 사람을 위한 일을 한다는 것이다. 특히 윤삼월은 죽은 사람을 위한 귀한 달로 지관을 대지 않고 어느 자리에 이장을 해도 탈이 없다 한다. 범부리에서는 윤달에 묘를 이장하면 탈이 없고 귀신이 범접치 못한다고 하며, 수의도 만들어 장롱 깊이 넣어 둔다. 화장실도 고치는데 잘못 고치면 삼살방위를 손대어 동티가 난다고 한다. 대체로 양양에서는 윤달에 어떤 일을 해도 별 탈이 없는 달로 믿는다. 회룡리에서는 수의 만들고 집수리, 산소 손질 등 어떤 일을 해도 ‘동투(동티)가 안 난다’고 믿었다. 1년 중에 삼살방이니 대장군이니 이런 것이 있어서 운수가 사나울 때가 있는데, 청명, 한식, 윤달에는 그런 손재가 없다고 한다. 화장실에 아이들이 빠지면 떡을 해서 먹는다. 불교계에서는 윤달을 이용하여 저승길에 지고 갈 업장을 현세에 미리 갚는다는 의식으로 예수제(豫修齊)를 행한다.

2. 일생의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를 일생 또는 한 평생이라 한다. 따라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부모의 기자(祈子)에서부터 출생·성년·혼인·회갑·죽음·제사까지를 평생의례라 부른다. 평생의례는 일생의례, 통과의례[rites of passage]라고도 하는데 유교용어로는 관혼상제(冠婚喪祭)·사례(四禮)·가례(家禮)라 한다. 통과의례는 일생을 주기로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경과하면서 마디가 되는

곳에서 행하는 의례로서 생애분기의례[life-crisis rites]이며, 관혼상제는 평생의례 가운데 특정한 의례를 유교적 용어로 한 것인데 출산의례와 회갑례는 제외된다.

양양주민들의 일생의례를 기자의례, 출산의례, 혼례, 상례, 제례 등으로 나누어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자의례(祈子儀禮)

기자의례는 자녀를 낳기 위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가계를 잇기 위해 아들딸 구분 않고 자녀를 생산할 수 있기를 비는 것으로 치성기자와 주술기자로 나뉜다. 치성기자는 공덕기자, 풍수기자, 치성발원기자 등으로 특정한 대상 신에게 자식을 점지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발원치성을 올리는 형식으로 행하거나, 남의 눈에 보이지 않게 선행을 하여 공덕에 대한 결과로 득남을 바라기도 한다. 또한 조상을 잘 섬겨서 그 기를 받아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풍수기자 유형이 있다. 대부분 명산대천, 거목, 부처, 미륵 등에 빌거나 산이나 강, 사찰, 굿당에서 3일, 7일, 백일기도를 올린다.

주술기자는 이전에 접촉했던 사물을 물리적 접촉이 끝난 후에도 공간을 사이에 두고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물건을 소지하는 부착기자와 주술성이 담긴 사물이나 음식물을 먹음으로써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는 음식물기자로 나뉜다. 대체로 주술적인 힘을 얻기 위해 아들을 낳은 산모의 물건이나 아기 배내옷, 금줄의 고추, 도끼 등을 지니거나 돌미륵의 코를 갈면서 자식을 얻고자 한다.

양양의 주부들 가운데에는 아들을 얻지 못해서 고생하다가 기자치성을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오색리 산간의 깨끗한 물이 흐르는 나무 밑에서 간단하게 음식을 차려놓고 득남을 기원하기도 한다. 태몽이 아들의 경우는 산에서 나무를 하는 등 남자하는 일을 하면 아들이고, 딸은 베도 삼고 삼도 삼는 꿈을 꾸다고 한다. 꿈에서 삼신이 다 알려준다고 한다. 그래서 꿈을 잘 꾸어야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데 신랑이나 시어머니가 태몽을 대신 꿈을 꾸다고 한다.

2) 출산의례(出産儀禮)

출산의례는 아들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행해지는 의례다. 내물치에서는 아들을 많이 출산한 여자의 속옷을 빌려다가 입는다. 또 순산을 위해서는 아기를 쉽게 낳은 부인의 옷을 가져다 산고를 겪는 산모의 배에 덮어주면 순산한다고 믿었다. 또한 순산을 빌기 위해서는 소반에 냉수를 떠놓고 축원한다. 아기의 태는 첫 국밥을 끓일 때 아궁이 불에 태운다. 바닷가 마을에서는 태를 돌에 묶어서 바다에 던지거나 쌀겨와 함께 태우기도 한다. 보통 아기를 낳은 뒤 사흘 만에 태를 버리는데 이것을 ‘삼나가는 날’ 이라고 말한다. 이 날은 미역국과 메를 지어서 아기가 잘 크게 해달라고 삼신할머니에게 빈다. 이렇게 둘째, 셋째 주까지 매주 한번 씩 빌고 아기에게 신열이 있어도 메를 지어 삼신할머니에게 빈다.

아기를 출산할 때 난산(難産)이면 밥을 마당에 던지면서 “어진 삼신할머니, 앉아서도 삼천리, 서도 삼천리, 구만 삼천리를 굽어보시는 삼신할머니, 돌보아주시는 삼신할머니께 순산하게 해주십시오.”라면서 빈다. 남애리 등 양양지역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대문에 원새끼를 꼬아 금줄을 치는데 아들의 경우 숯과 고추, 딸의 경우 소나무 가지인 송아리를 달거나 처마에 꽃는다. 삼신할머니는 평소 공중에 아무 것도 안모시고, 그냥 허공에 모신다고 하며 9월이나 10월 달에 삼신할머니에게 제물을 올린다고 한다. 동호리에서도 딸을 낳으면 금줄치고 송아리 한 가지만 꽃는데 아들 낳으면 고추를 꽃아서 금줄을 친다.

3) 혼·상·제례(婚·喪·祭禮)

전통 혼례는 오래 전에 중단되었는데 요즘은 전통식 구식혼과 서양식 신식혼이 섞여서 행해진다. 전통 혼례의 절차를 보면 육례와 사례가 있다. 육례는 주나라 때부터 시행되어 주육례라고도 하는데 납채·문명·납길·납징·청기·친영으로 나눈다. 주자 가례 혼례에는 의혼·납채·납폐·친영의 네 단계로 나누었다. 우리의 전통혼례 절차는 주육례나 주자 사례가 아닌 전통육례로 혼담·사주·택일·납폐·예식·우귀의 순서

로 진행된다. 요즘 혼례를 보아도 예식장에서 서구식으로 하면서 그 과정은 전통 육례의 절차를 혼용하여 맞선·교제·사주·택일·약혼·함보내기·예식·폐백·신혼여행·우귀의 아홉 단계 정도로 나눌 수 있다.

함보내기 풍속은 주육례의 납징이고 사례에서는 납폐에 해당하는데 신랑측에서 신부를 맞기 위해 성의를 다해 폐백 즉 예물을 보낸다는 뜻이다. 납폐의 예물은 채단이라 하여 붉은 비단과 푸른 비단을 썼다. 함을 지고 가는 사람을 ‘함진애비’라고 한다. 요즘은 다복한 친구나 아들을 낳은 사람이 지고 가며 함진애비가 함을 지고 오면 신부댁에서 음식을 대접한다. 혼인의 중심은 당일 치루는 대례로서 절차는 크게 나누어 전안례·교배례·근배례로 나누며 교배례와 근배례를 합쳐 초례라 한다. 이어서 밤에는 함궁례가 이루어지는데 이 날을 첫날밤, 신방, 화촉동방이라 하며 관디벗김과 신방엿보기 풍속이 전한다. 대례를 마치고 3일후 신부가 시댁으로 들어가는 일을 우귀 또는 신행이라 하며 시댁으로 들어설 때 짚불을 타 넘고 간다. 신부가 시집에서 처음 시부모님께 문안인사를 하는 것을 견우고례 또는 폐백이라 한다. 요즘에는 당일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에 예식장에서 폐백을 올린다. 신부가 시댁으로 들어간 후 처음 친정 나들이를 하여 부모를 뵙는 것을 근친이라 하며 신랑이 다시 처가에 가는 것을 재행이라 한다. 근친은 3일 만에 가는데 음식을 장만하여 이바지를 보낸다. 신부집에서도 친구들을 초청하여 신랑매달기 즉 ‘동상례’ 자리를 마련하여 동네 청년들과 신랑이 안면을 익히게 된다. 이러한 것을 양양에서는 ‘웍달계’라고 하는데 자기 동네 처녀를 흠쳐갔다고 도둑이라며 웍 달려들어 신랑을 골리며 지혜나 용기를 엿본다.

예전에는 중신할미가 양가의 연을 맺어주었다. 궁합을 보아 혼인이 정해지면 신랑집에서 함을 보낸다. 양양지역에서는 함에 담아 보내오는 예단의 경우, 검게 물들인 광목한 필과 이불, 치마 저고리감을 넣었다. 신랑집에서 택일하여 잔칫날을 정해 신부집에 알리면 신랑측 형편이 좋으면 말이나 가마를 타고 신부집으로 가서 혼례를 치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걸어서 신부집에 간다. 혼례를 마치면 신부는 친정아버지와 함께 신랑 측에서 보낸 가마를 타고 시댁으로 갔다. 혼례상에는 수탉과 암탉을 올려놓고 목에는 밤과 대추를 꿰어서 건다. 사철나무와 대나무를 세워 놓고 용떡을 길게 해서 담아 검은콩으로 눈을 만들고 대추로 입을 만들어 용과 같이 꾸민다. 용떡은 다음날 아침 신랑 신부

에게 떡국을 끓여준다.

신부는 신랑집에 가서 첫날은 조상께 절을 올리고 다음날 아침부터 시부모님께 절을 올리는 것으로 시집살이를 시작한다. 부엌에 들어온 첫 날에는 시어머니가 솥뚜껑을 제쳐 놓고 며느리로 하여금 두서너 번 쓰다듬게 한다. 이것은 “앞으로 밥이 끓기지 않고 잘 살라”는 뜻이라고 한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살림솜씨를 시험해 보기 위해 치마의 말기를 주고 치마 주름을 잡도록 시키거나 버선코 고치는 솜씨를 보기도 한다. 신랑집에서 잔치를 했을 경우는 이틀이나 사흘 후 친정집을 방문하는데 이때 떡을 해 가지고 간다. 신부집에서는 남자 형제들이나 친척들이 모여 신랑의 발목을 매는 신랑놀음을 하면서 논다.

전통 상례는 초종, 성복발인, 치장, 흥제의 네 단계로 나뉜다. 먼저 사람이 운명하면 시신을 입관하고 성복하는 절차를 초종이라 한다. 초종에는 정침, 임종, 고복[초혼], 사자상, 수시, 부고, 목욕, 습, 반함, 소렴, 대렴, 입관의 순서로 진행된다. 둘째날에 시신을 목욕시키고 수의를 입히는 습과 염을 한다. 염은 습이 끝난 시신을 작은 이불로 싸서 묶는 소렴과 사흘째 되는 날 시신을 마지막으로 묶어 입관 준비하는 대렴으로 구분하며 요즘은 습과 소렴, 대렴을 동시에 한다. 칠성판을 깬 관에 입관하면 상복을 입고 성복제를 지낸다.

상주가 입는 상복은 참쇠, 재쇠, 대공, 소공, 시마 등 다섯 단계로 망자와의 촌수에 따라 차이가 있고 입는 기간도 다르다. 상주는 부친이 돌아가시면 죽장, 모친상에 오동나무를 짚는다. 성복제 이후에는 조상과 문상을 하는데 이것을 합해 조문이라 한다. 상여가 장지를 향해 나가기 전에 상두꾼들이 호흡을 맞추는 빈상여 놀이를 하고 사흘째 출상하며 발인제를 지낸다. 관이 상여에 싣기 위해 나서면 이때 바가지를 얹어 두었다가 관머리로 깨거나 발로 밟아 깨면 액운이 끼지 않는다고 한다. 묘지를 정하고 시신을 땅에 묻는 일을 치장이라 하며 이에 따르는 의식을 장례라 한다. 장지로 떠나는 상여행렬은 명정, 공포, 요여, 운아삽, 상여, 상주, 상제, 친척, 문객의 순서인데 상여가 연고 있는 곳을 지날 때 친지나 친구가 노제를 지낸다. 양양 입암리 수동골상여소리는 제23회 강원민속예술축제에서 최우수상, 제51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대상을 차지하였다.

묘지를 만들게 되면 먼저 산신제를 지내고 하관하면 회다지소리, 달구질을 하고 나서

평토제를 지낸 다음 봉분을 짓는다. 신주를 영좌에 모시고 돌아올 때 반곡이라 하여 곡을 하면 반곡례를 끝으로 장례절차는 끝난다. 다음에는 상중제례가 있는데 장례를 지내고 상주가 상복을 벗을 때까지 초우, 재우, 삼우, 졸곡제, 부제, 소상, 대상, 답제, 길제 등 아홉 번을 지낸다.

동호리에서는 임종이 가까워지면 안방으로 모신다. 임종을 확인하면 나무판자로 칠성을 바친 다음 혼을 부른다. 사자 밥을 지어 놓고 문밖에 나가 망인의 속적삼을 들고 생일과 주소를 부른 다음 ‘복복복’ 세 번 부른다. 혼을 부른 다음에는 염을 하여 입관하는데 입관 한 후에 가족이 모이면 토롱을 한다. 토롱은 마당 옆이나 방향을 보아 적당한 곳에 장사날까지 관을 묻어 두는 곳이다. 토롱을 한 후에는 그 앞에 차일을 치고 상가를 꾸며 문상객을 받는다. 상주는 토롱을 하기 전까지는 통건만 쓰다가 토롱을 할 때 비로소 상복을 입는다. 상여는 장사 전날인 드장날에 꾸미고 상두꾼은 이날 의무적으로 모여서 일을 거든다.

양양의 전통마을에는 상여들을 보관한 곳집이 있어 주민들이 상여를 매었는데 24명이 참가하며 그 외 요여 2명, 만장드는 사람과 선소리꾼이 있다. 대부분 상두꾼들은 드장날 밤 10시경 중식을 드리기 전에 초초를 아뢰고, 밤 12시경 중식을 드린 후에 이초를 아뢴다. 다음날 상여가 집에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삼초를 아뢰고 떠난다. 장사를 지낸 다음 혼백을 모셔다가 빈소를 꾸미고 탈상할 때까지 세끼 더운밥으로 상식을 떠놓는다. 탈상은 3년 상이 원칙이나 요즘은 흔히 일백일 탈상을 하는 경우가 많다.

현북면 기사문리에서는 먼저 초혼(招魂) 또는 고복(梟復)이라 하여 망인의 혼을 불러 돌아오게 한다는 뜻으로 혼을 부른다. 사자상을 차리고 이것을 대문 밖에 내놓는데 밥 세 그릇, 나물 세 그릇, 쥔신 세 켤레, 동전 세 잎을 채반에 담는다. 혼을 부를 때에는 망인의 속적삼을 들고 마당 밖으로 나가 “사재(사자) 사재 사재! 사재 사재 사재! 복 복 복, 속적삼을 가져가라! 쥔세기를 가져가라! 복 복 복”아홉 마디로 사자를 청한다. 사자(死者)를 부를 때는 밥과 나물 접시들을 얹어놓고 산이 떠나가라고 크게 부른다. 속적삼은 헛간 같은 곳에 끼워 놓는다. 상두꾼들은 드장날 밤에 초초를 아뢴다. 선소리꾼이 요령을 흔들며 “초초 아웁니다.”를 세 번 반복하며 상두꾼들이 “예”하고 모인다. 그러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명년 춘삼월에다 다시 올까, 달은 밝고 명랑한데 나를 버리고 왜

가느냐, 일일 칭칭 야삼경 밤중 셋별이 돌아온다”고 초초를 아뢰면 상주 앞에 술 한 잔을 부어놓고 자정에 이초를 아뢰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명년 춘삼월에나 다시 올까, 해는 지고 저문 날에 날 버리고 가시면 어디로 가나, 이렇게 원통한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아무개가 내일이면 이 터전을 아주 떠난다.”하고 이초를 마친 후에는 떡국제사를 지낸다. 삼초는 발인하기 전에 아뢰는데 “간다간다 나는 간다, 북망산천 앞세우고 나는 간다, 인제가면 언제 오나 명년 춘삼월에나 한 번올까, 어허 넘차 산지조종은 곤륜산이요, 수지조종은 황화수라”이렇게 마지막으로 부르면 상두꾼들이 “어허 넘차”를 반복하고 “자”하고 떠나면서 “어허 넘차”를 반복하며 상여가 장지를 향해 떠나간다.

강현면 강선리에서는 사자 상에 짚신 세 켤레, 사자 밥, 나물을 각각 세 그릇씩 담고 술과 물을 세 잔씩 떠놓고 노갯돈도 올려놓는다. 마당에서 손 없는 방향으로 문턱에 서서 자리를 펴놓고 초혼을 하는데 망인의 주소와 성명을 부르고 “복복복”하고 세 번 부른 다음 속적삼을 지붕에 던지거나 여의치 않으며 문턱에 걸어놓는다. 상청은 손 없는 방향으로 안방에 차려놓고 세끼 더운밥으로 뜨고 이웃에서 음식이 들어와도 먼저 올린다.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상복을 입고 곡을 한다. 물치리에서는 초상이 나면 지청이라고 해서 밖에 집을 지어 모시고 방안에 모시기도 하는데 장례가 끝난 다음에 빈소를 꾸민다.

화일리의 경우는 상여 나갈 때 선창하는 분이 있고, 전체 22명이 참가한다. 상두계가 한 32명 정도이므로 대체로 참가하며 혹 사정이 생겨 빠지는 사람은 돈을 낸다. 상여 앞에 가마에 사진 모셔 가지고 가는데, 만장대는 아이들도 들 수 있고 노인네들도 들 수 있고, 상두계는 쌀을 가지고 간다. 쌀 두 뒷박씩 걷고 술도 걷는다. 삼 십 명이 열 집씩 ‘요번에는 누구 차례다’ 하면 돈을 내서 막걸리 세 통자씩 그날 저녁 갖다놓는다. 그전에는 망여를 그 다음날 저녁에 밖에다 모셔놓고 날을 새웠다. 그걸 비우면 안 된다고 해서 상두꾼들이 아주 밤새도록 날을 새웠다.

강현면 사교리의 경우는 계원이 한 삼 십명 상두계가 조직된다. 보통 관례를 보면 초종 장례가 열두시 차례라 그래서 열두 가지 행사를 집사들이 집사를 하면서 사람이 운명을 하면 매장을 해가지고 입관을 해가지고 성복제라는 걸 일차적으로 지내고, 그 다음에 그 이튿날 발원제를 지내고 그 다음 나간다. 그렇게 행사를 하는데 지금은 간소화

되어 보통 내일이 장사라면 자정이 되면 이초하고 아침에 발원제가 두시에 삼초하고 상여가 가게 된다. 초초는 한 아홉시에서 열 시경, 망인 앞에 가서 “초초 아웁니다. 초초 아뢰었습니다.” 이렇게 세 번 곡하고 상주들 열좌시켜 놓고 “상주들 열좌”하면 그러면 그 앞에서 선소리를 하는데 어떤 특별한 가사가 없고 옛날에는 다 불자들이니까 부처님 앞에 가서도 나무아미타불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소리를 이어간다.

긴 소리를 이렇게 하면 상주들이 “예”하고 “상주 열좌했습니까?” “했습니다” 대답을 하고 그러면 “초초 아뢰겠습니다.” “강재 고하여 하-”하면 다같이 “하-”하면서 따라하고 그걸 다시 반복한다. 같이 나무아미타불하고 같이 절하고 “초초 아뢰었습니다” 신고 아뢰고 자리에 가 앉아 있다가 이초 삼초 때도 똑같이 한다. 시간적으로 초초, 이초, 삼초 그건만 다르다. 그냥 아라리식으로 뉘두리하면서 긴소리로 “달구야”한다.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고 웃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냥 회심곡 구절을 아는 대로 따가지고 아라리곡으로 병립을 시켜 가지고 합창을 한다. “호오-이 달구”이렇게 나가면 “인제 가면 언제 오나 호오이 달구” “불쌍하다 불쌍하다 우리친구 불쌍하다”하면서 이렇게 하고 매긴다.

강현면 간곡리는 내일 출상이면 오후 4시 이후에 모인다. 밤에는 초초 아뢰고 그답에 저녁 제사가 있는데 사위가 차리든지, 작은 아들이 차린다. 초초 아뢰면 다음에야 저녁 제사 드리고 이초, 다음날 아침에 상여 떠날 적에 삼초를 아뢰다. 묘지에 가서 회를 넣고 심토만 놓고 그 답에 한 반 정도 올라간 다음에는 상재들이 취토한다. 만상주가 평절하고 그 다음에 달구지 소리를 한다. 회를 깔 때는 소리가 없고 흙을 평탄하게 해 놓고 큰 노래인 달구야를 한다. “강원도 설악산은 줄기가 내려와서 이 산자리가 되었구나. 이 산자리가 되어 아들을 낳으면 효자고 딸을 낳으면 열녀가 나고 이 산자리가 되었구나.” 이렇게 부른다. 초초가 아뢰면 “상두 열장하시오.” 소리 질러 나오면 “상두 열장 대령하였소.” “다 하였소.” “예” “초초 아웁니다.” 상두가 “아- 어- 어- 으이”하면 소리주는 사람이 상두꾼들이 같이 “으이”한다. 세 마디를 “아- 아- 아- 어- 어- 어- 으- 어”한다.

저녁 제사를 드리면 상두꾼들이 이초할 때 “아- 아- 아- 어- 어- 으- 이- 의” “이초 아웁니다.”한다. 다음날 아침에 상여가 떠날 때 “상두 열장하소.” “상두 열장하시오 상두 열장하시오.” “상두 대령 다 하였소.” “예” 그러면 “아- 아- 아- 어- 어- 어-

어- 으이” “으이”라는 게 인사다. 아침에 삼초를 아뢴다.

서면 북평리 경우는 마을에 어떤 집이 상을 당하면 마을 뒷산에 모셔진 상여를 꺼내서 수리하고 그 상여를 들고 나간다. 상여를 매는 사람은 원래 30여 명에서 지금은 최소인원인 12명 정도로 줄어들었다. 상여는 마을 뒷산에 있는 집안에 있는데 평상시에는 그냥 보관만 하고 상을 당하면 상여를 꺼내서 치장을 하고 수리를 한다. 또한 그런 비용은 평상시 각 집에서 내는 회비로 충당한다. 북평리는 아직도 상두계 의 옛 풍습이 남아있고 마을의 유대관계도 무척 강해서 서로 많이 도와준다. 하지만 요즘은 곳집도 남은 곳이 별로 없으며, 주민의 숫자가 적어서 상여보다는 장의차를 주로 이용한다.

제례에는 사당제(祠堂祭), 기제(忌祭), 시제(時祭), 시조제(始祖祭), 예제(禘祭), 묘제(墓祭), 차례(茶禮) 등이 있으나 현재 행해지는 제례는 기제, 시제, 차례만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기제사는 기일(忌日) 즉 돌아가신 날의 제사로 고조부모까지 4대조까지 기일을 맞이하여 지내며 제사시간은 제사일 오전 1시경에 지내지만 근래에는 제사일 일몰(日暮) 시각으로 바뀌고 있다. 기제사는 1년에 한 번 지내며 제사를 지내는 날자와 시간은 원래 돌아가신 날 자시(子時)에 시작하여 닭이 울기 전에 끝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통행금지 제도로 전날 제사준비를 하고 이어서 제사지내는 관습이 제삿날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하루 전날 제사를 지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으로, 축문도 여전히 휘일부림(諱日復臨) 즉 ‘돌아가신 날이 다시 오니’ 라고 쓴다.

제물진설은 제상, 교의, 병풍, 돛자리, 향로, 향함, 모사그릇, 제기를 준비하고 지방을 써서 붙이거나 사진을 진설하며 축문도 미리 쓴다. 제물 진설은 가가례라 하여 가문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데 대개 메·갱·삼탕(소·돼지·해물)·삼적·통닭·삼채(콩나물·무나물·고사리)·침채·과자·실과·떡·제주·포·식혜[단술]·문어 등을 쓰며 마늘과 고춧가루는 쓰지 않는다. 기제사의 순서는 신위봉안·분향·강신·참신·진찬·초헌·독축·아헌·종헌·유식[침작]·합문·개문·진다·사신·분축·철상·음복의 순서로 진행한다.

시제는 시사·세사·시향이라도 하는데 기제사를 지내는 4대조 이상 5대조부터의 조상에 대한 제례다. 보통 10월 달에 날을 잡아 한 해 한 차례 묘에 가서 지내며 시사에 참석하는 대상은 직계자손, 방계자손, 또 그 유덕을 기리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한다.

제수는 기제사에 준하며 형편에 따라 증감한다.

차례는 명절에 조상께 올리는 제사다. 역사적으로 차례는 설·동지·매달 초하루와 보름·각종 명절에 지냈는데 근래에 들어 사당이 없어지고 절차도 간소화하여 대부분 설과 추석에만 차례를 올린다. 차례를 올리는 대상은 기제사와 마찬가지로 4대조까지 인데 기제사는 당사자만 모시지만 차례는 돌아가신 조상을 함께 모신다. 차례 장소는 가정에서 조상의 위패(신주나 지방, 사진)를 모시고 하며 추석에는 성묘하며 차례를 올린다. 차례 제수는 기제사와 큰 차이가 없으나 계절적인 별식을 장만하는데 설에는 메 대신 떡국, 추석에는 송편을 올리고 술잔은 한 번 올리고 축을 읽지 않는다. 제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사시제에는 시제(時祭)와 이제(爾祭)가 있다. 시제는 봄·여름·가을·겨울 어느 때고 그 절기의 첫달 즉 음력으로 1월, 4월, 7월 하순에 시제 지내는 날짜를 정하는 것으로서 다음날 중하순에 정일이나 해일 중에 고른다. 가을에만 지내는 제사는 이제이다. 5대조 선조 이상 돌아가신 분에게 지내는 제사를 매년 음력으로 10월초 1일부터 지낸다. 강현면 석교리는 시월 초2일, 장산리는 시월 초3일을 정하여 놓고 지낸다. 이때 모든 남녀노소가 다 참례를 하는데 정성 드린 깨끗한 음식으로 정성껏 제사를 지낸다.

기일(忌日)이란 부모가 돌아가신 날이며, 기제란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을 당하여 지내는 제사이다. 기제의 봉사대상은 제주로부터 5대조까지로 현재 시행중인 가정의례에는 2대조로 후손이 없는 3촌 이내의 존속 또는 비속으로 친족에 대하여 제사를 지낼 수 없게 되어 있다. 제주는 고인의 장자, 차자 또는 차손이 제사를 주관한다.

신위는 고인의 사진으로 대신하며 사진이 없으면 지방은 꼭 써야 한다. 한문을 잘 모르면 한글로라도 써야 하며 신위를 아무 표시도 없이 모시지 않고 벽에다 그냥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무래도 제사 지내는 마음의 자세도 그러하지만 성의도 없을뿐더러 무의미한 것이다. 옛날 풍습대로라면 3년 상이 지난 후 제사를 지내는 것이 원칙이나 요즘은 일년 탈상 후 지낸다. 또한 제사를 지내는 시간도 하루 중 제일 조용한 시간인 자시[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에 지냈으며 지금은 초저녁에 지내는 사람도 더러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특별한 예를 제하고는 조용한 시간에 부모님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며 깨끗한 음식과 술로써 성의껏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

4) 연중제사

매년 정월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를 연시제라고 한다. 봉사의 대상은 부모, 조부모, 배우자 및 직계로부터 증조, 고조까지라고 할 수 있다.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를 각각 따로 차리기도 하고 합사하기도 한다. 합사 할 경우 지방은 나란히 한 종이에 쓴다. 정월 초하루에는 우리의 고유 음식인 떡국을 먹으므로 메 대신 떡국을 차리기도 하고 축문은 생략하고 헌작은 단 한 번으로 한다. 양양에서는 설달 그믐날 저녁에 만두를 빚어 조상 앞에 제사를 지낸다.

한식은 청명 다음날로 동짓날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이다. 한식이란 말은 동짓날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에 비바람이 심하여 불을 때지 않고 밥을 먹었다고 하여 유래된 일이다. 원래 예부터 춘하추동에 성묘를 하였으니 봄에는 한식, 여름에는 단오, 가을에는 추석, 겨울에는 시월 초하루에 성묘를 했다. 요즈음에는 한식날을 겸하여 식목일이 겹쳐 있으므로 그때 성묘하는 것도 좋고 분묘도 하고 이장하기에도 좋은 청명날 성묘해도 좋다.

추석을 중추절·한가위·가배절이라고도 한다. 일년 중 정월 초하루와 함께 가장 큰 명절의 하나로 치며 정월 명절과 함께 흠어졌던 가족들이 추석날 모여 햇곡식으로 차린 음식으로 차례를 올리고 성묘를 간다. 차례를 지내는 대상은 직계 조상으로부터 하며 제사 지내는 방법은 기제사와 같다. 제사순서는 다음과 같다.

- (1) 강신(降神) : 신위께서 내려 오셔서 음식 드시기를 청한다는 뜻으로 제주가 먼저 분향하고 술잔에 술을 반쯤 따라 모사 위에 세 번씩 붓고 제주가 두 번 절한다.
- (2) 참신(參神) : 강신을 마친 뒤 제주 이하 두 번 절한다.
- (3) 초헌(初獻) : 제주가 제상 앞에 나아가 분향한 뒤 술잔을 받아 술을 가득히 채운 후 강신 때와 같이 모사에 술을 세 번씩 붓고 술잔을 신위 앞에 놓은 후 수저를 고른다.
- (4) 독축(讀祝) : 축문을 읽는 것으로 축관이 앉아 읽으며 다 읽은 후 두 번 절한다. 이때 제사 지내는 사람이 세 사람 이상이면 축을 읽고 제사 지내는 사람이 세 사람 이하면 축은 생략하여도 좋다.
- (5) 아헌(亞獻) : 두번 째 올리는 잔으로 근친자의 두 번째 가까운 사람이 잔을 올리되

방법은 초헌과 같다.

- (6) 종헌(終獻) : 마지막으로 잔을 올리는 것으로 근친자의 아헌 다음 가까운 사람이 아헌과 같은 방법으로 잔을 올린다.
- (7) 첨작(添酌) : 유식(侑食)이라고 하고 술잔을 세 번씩 나누어 가득 채우고 두 번 절한다.
- (8) 개반삽시(開飯插匙) : 메 그릇의 뚜껑을 열어 놓고 수저를 꽂는 것으로 수저의 바닥이 동쪽을 향하게 한다.
- (9) 합문(闔門) : 제사에 참가한 사람 모두가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신위께서 음복하시도록 밖에서 수 분간 기다린다.
- (10) 계문(啓門) : 기침을 세 번 하고 문을 연다.
- (11) 헌다(獻茶) : 갹을 물리고 송늑을 올리며 메를 조금씩 세 번 떠서 송늑에 말고 수저를 고른다.
- (12) 철시복반(撤匙覆飯) : 수저를 거두고 메 뚜껑을 덮는다.
- (13) 사신(辭神) : 모두 두 번 절하고 지방을 불사른다.
- (14) 음복(飮福) : 조상이 물려주신 복된 음식이란 뜻으로 가족이 음식을 먹는다.

다음은 제사상 차리는 순서이다. 사랑방이나 안방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제상을 정제하고 양초를 켜고 신위를 모시고 향로, 향합, 모사를 준비한 다음 설찬(設饌)을 하는데, 설찬의 순서는 제일 앞줄부터 해가 뜨는 쪽 동쪽부터 차린다. 즉 사과, 배, 밤, 대추 순으로 차리고 제사가 끝나면 반대로 제물을 물린다. 예부터 내려오는 설찬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대표적인 것은 제물 차림은 다섯줄을 넘기지 않는다. 이는 오행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고, 한 줄에 다섯 가지를 놓은 것은 이 또한 오행에 근거를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수의 진열에는 홍동백서[紅東白西] : 붉은 것은 동쪽 흰 것은 서쪽, 생동숙서[生東熟西] : 생나물은 동쪽 익힌 나물은 서쪽, 어동육서[魚東肉西] : 물고기는 동쪽 육고기는 서쪽, 두동미서[頭東尾西] : 머리는 동쪽 꼬리는 서쪽, 좌포우혜[左脯右醢] : 좌측은 포 우측은 식혜, 우반좌갱[右飯左羹] : 우측은 메 좌측은 국의 방법으로 차린다.

지방(紙榜)이란 돌아가신 분의 신위를 말하는데 사진으로 대신 할 수도 있다. 깨끗한

백지에 길이 22cm, 넓이 6cm정도 크기로 먹으로 써서 붙인다. 지방을 쓸 때는 마음을 가다듬고 정성 들여 써야한다. 만약 제사를 지낼 때 지방을 붙이지 아니하면 벽을 보고 제사지내는 것과 같으므로 어느 분인지 꼭 지방을 붙이고 제사를 지내야 한다. 원칙적으로 지방을 붙이면 축을 써야 하나, 제사 지내는 제관이 3명 이하일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 제관이 혼자 제사를 주관하는데 축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함은 제사를 제관이 혼자 주관하므로 마음속으로 축원하고 혼자 굳이 격식을 차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방은 좌고우비(左考右妣)라 하여 좌측에 남자, 우측에 여자를 쓴다.

3. 민속놀이

민속놀이를 ‘향토오락’이라고도 부르듯이 향토성을 지닌 놀이로 어린이들의 단순한 유희적 오락은 물론 철갈이 세시풍속과 제의적 신앙의식 전개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놀이적 요소를 포함하는 행위 전반을 말한다. 이러한 민속놀이는 낙천적 기상과 풍부한 정서를 바탕으로 일정한 질서와 규칙에 따르는 자유로운 삶의 한 가운데 정제(整齊)되고, 제도화되고, 정형성을 띠면서 전승된 것들이다. 따라서 민속놀이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술성이 내재하므로 민속예술 민속예능에 포함되는데 각 지방마다 민속의 특수성과 향토의 특색을 갖춘 것들이다. 이것은 향토색이 짙기 때문에 ‘향토예술’이라 하고, 전승집단이 민중이고 전승매개체가 민간이므로 민속예능, 민간예능, 민간기에, 민중예술이라고도 부르는 것이다. 따라서 민속놀이는 문화적으로 형성되어 대대로 전해진 자연발생적 예능이므로 민중생활에 규범적 의의를 가지고, 민간의식에 깊이 작용하는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민속놀이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내포의미도 다양하여 분류가 쉽지 않다. 다양한 요소의 복합성 때문에 적극적 놀이, 소극적 놀이로 나누거나 문화적 놀이와 생물적 놀이로 분류한다. 민속놀이는 성격상 경기놀이, 가무놀이, 오락놀이 등으로 나눌 수 있고, 방법상 집단형과 상대형, 개인형, 형태상 운동형, 지능형, 사회형 등이 있으며 이를 혼자 놀이인 외놀이, 두 명의 짝놀이, 패나 편을 싸고 하는 편전(便戰)양식의 패놀이, 여럿이

하는 대동놀이 등으로 세분 할 수 있다. 『조선의 향토오락』(1941년)에 제시된 양양군의 당시 놀이 명 총 항목수는 약 6,400종인데 이 가운데 놀이법에 대한 설명이 있는 항목이 약 1,300종이고 놀이명만 제시된 항목이 5,100종이다. 그러나 이를 정리하면 약 400가지로 볼 수 있다. 1940년대 양양군의 놀이 시기와 대상, 놀이법, 유래 등에 대하여 조사된 43항목의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웃놀이는 정월 초순에[어린이, 농부], 널뛰기는 정월 보름[여자], 달맞이는 정월 보름[어린이], 다리밟기는 정월 보름[주부, 노인], 햇불싸움은 정월 보름 달밤[일반 남자], 2월 6일 별밤에 하였다.

석전은 정월 보름, 단오, 추석[농부, 청년]에 성황신제는 정월, 11월 첫 정일(丁日), 때로는 두 번째 정일에 하였다. 각 마을별로 행한다. 각 마을 전체가 받드는 제장(祭場)이 있고 제장에는 성황신, 토지신, 여역신 등의 세 신을 모신다. 세 신에게 각각 제물을 바치는데, 제물은 전부 남자가 준비하고 제사 일주일 전부터 금줄을 치고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금하는 등 지극히 엄숙히 행한다. 옛날 주나라 시대부터 마을의 무사평온을 기원하는 목적 아래 행하여졌다고 한다.

그 밖에 종경도놀이는 정월[유림], 연날리기는 정월[어린이], 풀각시놀이는 봄[농가 여자 어린이], 장치기놀이[청년 농부], 꽃구경은 3~4월[일반], 화전놀이는 꽃피는 봄[일반 여자], 풋국은 봄·가을[소녀], 사상전례는 봄·가을[유림], 씨름은 봄·여름·가을[어린이], 그네는 단오[여자], 농악은 여름·겨울[농민], 덕석말이놀이는 가을·겨울[남자 어린이], 사자놀이는 가을[어린이], 썰매타기[남자 어린이], 팽이치기[어린이], 쌍육은 겨울[상류층], 박첨지놀이[남자], 가락치기 찾기는 수시[여자 어린이], 메뚜기치기는 수시[여자 어린이], 소놀이는 수시[남자 어린이], 지게 상여놀이는 수시[어린이], 자치기는 수시[어린이], 골뱅이놀이는 수시[어린이], 수건떨구기는 수시[여자 어린이], 진치기[어린이], 숨바꼭질[어린이], 활쏘기[남자], 백일장은 수시[유림], 경로회는 수시[청년 남녀, 일반] 등이 각각 열렸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현재 양양지역에는 이러한 민속놀이가 차츰 소멸되고 있으므로 그동안 사라지거나 일부 전승된 놀이를 중심으로 원형대로 복원하고 재현해야 할 것으로 본다. 향토지(양양문화원, 1976년)에 수록된 어른놀이, 아이놀이 세시놀이는 다음과 같다.

1) 어른놀이

- 화전[花煎] : 화전놀이] : 봄 2, 3월 두견(杜鵑) 꽃필 무렵에 남녀노소(男女老少) 각각 그 류(類)를 상종(相從)하여 들로 산으로 계곡으로 방화수류(訪花隨柳)하여 1일을 오유(娛遊)하니 이를 ‘화전’이라 한다.
- 삼복유[三伏遊] : 복놀이 복달임] : 하일(夏日) 극서(極暑)한 삼복일에 호봉휴주(呼朋携酒)하고 부정재래(負鼎齋來)하여 해안천변에서 로어채패(撈魚採貝)하여 어탕 주변으로 하루를 소서(消暑)하니 왈(曰) ‘복달(伏達)흠’이라 한다.
- 세려연[洗犁宴] : 세려연, 씨레씻음] : 농가에서 경종(耕種)과 이앙(移秧)을 완료하고 농부와 군취하고 음주 오락하여 하루를 휴식하니 이를 ‘씨레씻음’이라 한다.
- 세서연[洗鋤宴] : 세서연, 호미씻음] : 농촌 연중행사의 하나로 행하는 예사(例事)로서 각종 곡물의 운자(耘耔)를 종료한 후 유두절(음 6월 15일)을 이용하여 요호(饒戶)에서는 고인(雇人)을 극대하여 살계영육(殺鷄靈肉)으로 연상(宴床)을 공출(供出)하되 오찬을 동리 사람 회동 공식하며 전답곡물의 성장우열을 논하고 또한 상마(桑麻)의 선부(善否)를 허(許)하여 담소상환(談笑相歡)하니 속호(俗號)로 유두일(流頭日) 또는 ‘호미씻음’이라고 한다.

2) 아이놀이

- 초연[草宴] : 소꿉장난] : 봄, 가을 따듯할 때 남녀 아이들이 양지에 자리잡고 사기나 옹기그릇에 풀잎 또는 흙을 담아서 음식으로 하여 잔치를 하는 놀이이다.
- 행상[行喪] : 지게행상] : 지계를 이렬(二列)로 열립시켜 놓고 지계와 지계를 밧줄로 관통하여 놓고 그 위에 수건을 덮은 다음 행상의 모양을 만들고 그 속에 장대를 꽂아 둘러매고 행진하는 놀이이다.
- 마증[麻蒸] : 삼구이놀이] : 여름철 아동들의 놀이로서 농촌에서 생산하는 삼을 찌내는 흥내를 낸다. 조그마하게 삼굿을 만들고 똑같은 식으로 하여 옥수수살이, 밀살이, 감자살이 등으로 입이 시커멓게 되며 땀냄거리며 노는 장난이다.

- 타구[打毬] : 짚치기] : 봄철 초등들이 나무하러 가고 오는 도중 벌판에서 두 패로 갈라서 나무로 깎은 공을 나무채로 치는 지금의 마치 하키와 비슷한 놀이인데 상당히 위험하다.
- 닭과 고양이놀이 : 여러 아이들이 모여서 원진을 만들고 한 아이는 산고양이가 되고 한 아이는 닭이 되어 서로 쫓고 쫓기는 놀이인데 원진에 있는 아이들은 닭을 보호하고 산고양이를 방해하여 닭이 잡히지 않도록 한다.
- 반지놀이 : 주로 여자아이들이 많이 하는 노름인데 때로는 부녀자들도 한다. 5~6명(그 이상도 가함)이 둘러앉아 술래를 정한다. 술래는 얼굴을 가리우고 고개를 숙인다. 남은 사람들은 원형으로 쭉 둘러앉아서 반지를 돌리면서 “반지 반지 누가 가졌나? 속히 찾아내어라”하면 술래가 고개를 들고 가지고 있을 만한 사람을 가리키며 맞으면 그 사람이 술래가 되고 정한대로 노래나 춤을 추어야 한다. 그리고 맞추지 못하면 먼저 술래는 맞출 때까지 계속 술래가 된다.
- 나유[螺遊] : 골뱅이놀이] : 지면 위에 우불구불하게 나선상으로 그리고 두 패로 갈라진 다음 한편은 나(螺)의 구부(口部)에 한편은 나(螺)의 미부(尾部)에 진을 친다. 그리하여 양편에서 나선형의 줄을 밟고 뛰어 나오다가 중간 마주친 자리에서 가위바위보를 하여 진 아이는 자기진지로 퇴각하고 이긴 편은 그대로 전진한다. 진편에서는 새로 다음 사람이 뛰어나와 마주치는 곳에서 역시 먼저와 같은 방법을 되풀이하여 종점까지 먼저 진출한 편이 이기는 것이다.

3) 세시놀이

- 널뛰기 : 여자들의 정초놀이의 대표적인 것으로 널뛰기가 있다. 활발용약(活潑勇躍)으로 표현을 삼는 이 놀이는 유교적인 행동범절과는 달리 기마 격구가 자유롭던 우리 여성 폐쇄기 이전의 고유한 민속일 것이다. 그런데 널뛰기의 유형적 유사성은 시소와 같아 세계적 보편성을 띄게 되지만 유구도(琉球島)에 이와 비슷한 풍속이 있어 중국의 유람자가 판무(板舞)라고 이름한 예도 있다. 지금에 와서는 부녀자(처녀)들은 거의 없고 여자 꼬마들이 뛰는 광경을 이따금 볼 따름이다.

- 연날리기 : 정초 어린이들이 하는 놀이의 대표이다. 맑게 개인 겨울날 미풍에 여러 가지 모양의 연을 만들어 세배를 마친 뒤부터 보름까지 사이에 즐기는 놀이이다.
- 옷놀이 : 설날의 유희로 가장 신정의 정취를 갖는 특수한 놀이인데 초하룻날부터 보름까지 한다. 이 옷은 박달나무나 혹은 붉은 통 싸리나무로서 만드는데 옷에는 장작 옷과 밤나무 옷의 두 가지가 있다. 2, 3명 또는 5, 6명이 할 수 있는 이 놀이는 한국에만 있고 이 기원은 신라시대부터라고 한다.

4) 집단놀이

(1) 패다리놓기

동해안 지방은 태백산맥을 따라 줄줄이 이은 고산준봉에서 발원된 수많은 비교적 급류를 형성한 대천이 동해로 유입된다. 여기에 태백준령이 해양풍을 가로막아 기상변화가 심하여 장마와 가뭄이 고르지 않고 여름철이면 예측하기 어려운 산골짜기 물의 범람을 가져오는 것 또한 양양 지방의 특징이다. 이와 같은 지리적 여건 때문에 옛날부터 양양을 중심으로 한 산간마을에서는 해마다 장마에 떠내려간 다리를 추수기를 앞두고 다시 놓는 일이 연중 되풀이될 수밖에 없었다. 양양 패다리 놓기는 이러한 입지환경에 연유되어 계곡천을 사이에 둔 양쪽 마을이 패를 지어 다리 놓기 경쟁을 벌인데서 비롯된 이 지방 특유의 민속놀이이다. 이 놀이는 매년 추석전날 명절놀이의 하나로 다리 놓기 경기를 하면서 놀이를 벌여온 것이 전통화 된 것인데, 이의 시초가 언제부터인지는 정확치 않으나 고려 중세부터라고 전해지고 있으며 1910년까지 성행되었다. 패다리 놓기는 일제의 침략과 더불어 그 명맥을 잃어가다가 산간벽촌에 이르기까지 시멘트다리가 놓이면서 중단되었다. 1970년대에 이르러 새마을 운동으로 마을 앞다리를 주민 스스로 놓기 시작하면서 재현하였다.

(2) 탁장사놀이

조선 말기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하여 전국각처에서 목재를 모아들였다. 당시 개자니골(현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 2리 서남쪽, 일명 개전리)과 가매소골(현 강릉시 연곡면 삼

산리) 사이 바다재에 황장목(벌목)이 있었다. 이곳이 양양과 강릉의 접경으로 많은 주민들이 나라에 바칠 벌목부역에 나와 일을 하게 되었다. 이때 공교롭게도 제일 큰 한 그루 나무가 경계부근에 서 있어 서로 차지하려는 데서 내기가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나무를 베면서 쓰러뜨릴 때 경계 북쪽으로 쓰러지면 양양이 차지하고 경계 남쪽으로 쓰러지면 강릉이 차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경계 중간에 쓰러지므로 또 다시 내기를하기로 하여 이 나무를 지고 가는 편이 갖기로 했다. 당시 강릉 연곡(현 퇴곡리)에 힘세기로 이름난 권장사가 먼저 지고 일어서다가 그대로 주저앉고 말자 양양 서면 소래(현 송천리)에 사는 탁구삼 씨가 이 나무를 지고 서림까지 넘어오자 소래 마을에서는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 후부터 탁구삼 씨는 탁장사로 널리 이름이 알려져 매년 정월 대보름을 전후하여 탁장사 후계자를 뽑는 놀이로 큰 잔치가 베풀어졌다. 장사가 난 마을은 풍년이 들고 번영한다고 한다.

(3) 귀애평기놀이

양양군 산간마을에서는 농경생활 치수를 위해 30년 전만 해도 크고 작은 귀애 즉 통나무 수관(水管)을 만들었으며 허궁귀애도 남아 있다. 지명도 통상 귀애목, 수채골 등으로 불리고 있어 전통적인 산간 농경문화의 뿌리를 간직하고 있다. 양양군의 지형상 서쪽 오색령과 박달령에서 흐르는 계곡과 서남쪽에서 조침령과 구룡령에서 흐르는 계곡이 있고, 남쪽은 오대산 신선령 막암치에서 발원하는 개전리 계곡 등 높고 험준한 산맥에서 생긴 계곡이 급경사를 이룬다. 그러므로 계곡 비탈의 협소한 농경지를 다락처럼 만들어 경작하는데 냇물의 유속이 빠르므로 가뭄에 대비하는 치수시설로 통나무의 속을 파서 수관을 만들고 수로를 개설하였다. 귀애평기는 계곡을 끼고 있는 산간마을의 연중행사로 매년 한식을 전후하여 마을 사람들이 협동으로 산에서 원목을 베어내려 ‘귀애’를 파서 여러 개 연결, 절벽이나 산허리를 돌아 물을 유입시킨다. ‘귀애’를 다 놓게 되면 용왕께 치수를 기원하는 제를 올리고 잔치를 벌려 흥겹게 놀아야 가뭄이 없고 풍년이 든다고 믿는 전통적인 민속놀이이다. 이러한 ‘귀애평기’ 놀이는 대체로 고려 중엽부터 성행한 것으로 전하는데, 수 십 년 전만 해도 산간마을 다락논을 경작하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든지 귀애를 흔하게 볼 수 있었다.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와 도리 등지의 귀애목과 수채골, 암치골, 떡둔지, 들미골 등에서는 귀애를 소규모로 이용하고 있다. 서면 송천리의 귀애골과 송애골에도 마찬가지다. 이곳의 귀애를 근거로 귀애파기놀이를 재현하였다. 귀애파기는 산간마을 농경생활의 수리 안전을 위한 공동사업이다. 선조들이 자연을 극복하기 위해 자조협동사업으로 계승했는데 치수의 수로공사와 특유의 노동요인 톱질소리, 운자소리, 귀애파기소리 등이 부수되는 토속적인 놀이다.

(4) 복골 지게가리 싸움놀이

강현면 상북리는 복골이라고도 불리는데 지형상 험준한 계곡이 중첩된 분지형태로 고요한 산간민속이 잘 남아있는 마을이다. 복골 지게가리 싸움놀이는 영농현장에서 힘든 일을 지혜와 슬기로 극복하기 위해 발생한 민속놀이로 운반도구인 ‘지게’를 이용하여 놀이를 만든 것이다. 이는 노동현장에서 손쉽게 지게를 이용하여 설 참에 한바탕 놀이마당을 펼치는 것이다. 복골 지게가리 싸움놀이는 1910년대까지 성행하였는데, 추수가 끝나면 동지까지 월동을 위한 땀감을 준비하러 산에 간다. 나무하러 다니는 산길에 넓은 풀밭이나 개울가에 쉼터가 있다. 주민들은 산에 오르다가 이곳에 모이는데 이때 웃모탱이, 아랫모탱이로 나뉘어 지게가리 동체를 만들어 지게가리 싸움을 벌인다. 지게가리 상물이꾼의 지시에 따라 상대 패의 지게가리를 넘기거나, 상물이꾼을 떨어지게 하여 승패를 정한다. 진패는 이긴 패에게 나무를 해 주어야 하므로 지게가리 싸움은 치열한 접전을 펼친다. 웃모탱이와 아랫모탱이는 각각 지게가리 동체를 만들어 두레농악소리에 맞추어 쉼터에서 흥을 돋우며 기를 모은다.

두 패는 서로 상대패의 지게가리를 넘기기 위해 합을 이루며, 상물이꾼의 지시에 따라 지게가리 싸움을 펼친다. 이렇게 싸움을 벌이다가 어느 한 쪽 패의 지게가리에 넘어지거나 상물이꾼이 떨어지면 승패가 결정된다. 이긴 패는 승리의 마당 놀이판을 벌이며 흥겨워하고, 진패는 재기를 다짐하며 벌칙은 이긴 패에게 나무한 단씩을 해주고 마지막에 서로 흥겹게 한마당 놀이판을 벌인다.

(5) 잔교농악

현북면 잔교리 농악은 명절이나 농한기를 틈타 연중 농악놀이를 펼치고 고층에 따라 청장년으로 구성되어 신명나는 판굿을 펼친다. 잔교농악은 가락과 판굿이 좌우하나 영남농악의 가락과 달라 조금은 단조로우나 소박한 향토성과 전통이 묻어나는 농악이다. 특히 동적 움직임이 강한 농악으로 마당에서 펼치는 판굿의 진풀이는 농작활동을 응용한 농사풀이와 산간마을인 잔교리의 농악에서만 전승되는 절기풀이의 단오 그네놀이와 길쌈놀이 등은 향토색이 짙다.

잔교농악은 원래 걸립농악으로 마당에서 벌이는 판굿을 중심으로 마을 서낭당에서 서낭굿을 시작으로 다리를 건너면서 다리굿을 올리고, 마당에 들어서기 전에 대문에서 벌이는 대문굿의 순으로 이어져 농악놀이의 핵심인 판굿을 마당에서 벌이고 마지막으로 국태민안과 만복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고사굿으로 끝을 맺는다. 민속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구성된 농악은 주로 마당에서 벌이는 판굿으로 진풀이 내용은 황덕굿, 오방진놀이, 십자놀이, 명석말이가 있으며, 농사풀이는 가래질, 모찌기, 벼베기, 방아찰기와 단오그네놀이, 길쌈놀이 순으로 판굿이 진행된다. 농악 가락은 질꼬내기(질꾸래기, 길군악, 행진채), 자진삼채, 삼채찍찍이, 자진이체 등이며 진풀이로는 태극진, 골뱅이진[명석말이], 삼방진, 가세진 등이 있다. 놀이과정은 전부 14마당이다.

(6) 양양 왓달계 놀음

현남면 입암리에서는 마을의 처녀가 시집을 가면 잔칫날 첫날밤에 신랑을 밧줄로 매다는 놀음을 위하여 임시계가 조직되는데 이것을 왓달계라 칭한다. 잔칫날의 유흥 절차로 풍속화 된 왓달계의 놀음인 신랑달기는 마을의 처녀를 아내로 삼는 신랑에게 적당한 고통을 주어 조강지처로 평생을 해로하라는 다짐의 의미다. 또한 이 고장 풍습에 따른 처가의 대소사에 사위의 역할이 크므로 처가부락의 동네 사위로서 처가 마을사람들에게 얼굴을 익히고 통성명하는 과정이 되었다. 부정적 측면으로는 동네 총각들은 장가를 못 가는데 마을 총각을 빼앗긴다는 총각대방과 마을 총각들에 노여움의 화풀이가 포함되어 있었다. 식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가난했던 시절에 이러한 왓달계 놀음을 함으로써 유희와 회음의 기회를 만들었으며 마을에 잔치가 있으면 목구멍 때를 벗긴다는 말이 속

담처럼 이 고장에 전해지기도 한다. 이 왁달게 놀음은 해학적인 대사로 신랑을 밧줄로 매어 달면서 즐기는 놀음으로 마을 사람들의 결혼 축하와 신랑의 다짐을 확인하는 기회로 삼았다.

(7) 질래꾼 씨래매기

설악을 배경으로 험준한 계곡이 중첩된 지세로 분지 형태의 산간 마을인 양양 북골 마을은 촌락의 형태를 이루면서부터 산간 전통 농경 민속문화가 형성발달한 마을이다. 옛날부터 유동가구나 주민이동이 거의 없는 마을로 외지문화의 유입이 없으므로 마을 고유의 민속이나 생활풍습 등이 잘 보존되어 있다. 이 마을의 다락논과 비탈밭 화전 등 농토의 특성으로 아직까지 재래식 유농방법을 버릴 수 없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마을의 배경 속에서 영농현장, 노동현장에서 힘든 일을 지혜와 슬기로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민속이 유래되었으며, 두레를 짜서 모심기를 하였다.

(8) 솟가마 만들기

솟은 나무를 솟가마에 넣어서 구워낸 검은 덩어리로 재가 되기 이전의 탄소덩어리다. 양양은 태백산맥에 위치하여 울창한 수풀과 산림을 지니고 있어서 솟을 만들기에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들이 서면 갈천리 지역에 공장을 세워 대단위로 솟을 생산하여 케이블카를 통하여 실어 날랐다. 현북면 어성전리·범수치리, 서면 오색리·서림리, 강현면 상북리·둔전리·물갑리 등의 지역에서도 솟을 많이 생산하였다. 농민들이 농한기 동안에 가게에 보탬이 되고자하여 솟을 구워 내는 경우가 많았다. 솟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솟가마를 만들 위치선정을 하는데, 솟가마 터는 우선 주변에 나무가 많아야 하고 다음으로 점질토가 가까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솟가마를 쉽게 만들 수 있으며, 물이 가까이 있어야 한다. 솟을 만드는데 양양에서는 주로 참나무를 사용했다. 참나무가 많은 지역을 찾아서 솟가마 터를 잡는다. 흙은 너무 질거나 너무 물러도 안 되고, 너무 질기만 하거나 또 모래가 과한 흙을 사용하여 솟가마를 만들면 솟가마를 구우면 다 터져 버린다. 그래서 토질이 적당한 흙을 사용해야 솟가마가 오래 보존되고,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 보통 솟가마 만들기가 힘이 많이 들므로 한 번

사용하고 말려고 숯가마를 만드는 경우는 없고 서너 번은 이용한다. 그렇지 못하고 숯가마가 무너져 버려 한 번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자를 보게 된다. 숯가마를 만들 터 선정이 끝나면 고사를 올리기 위하여 택일을 한다. 양양 강현면에서는 설악산이 서쪽에 있으므로 5일과 6일을 꺼려왔다. 그 날을 피해서 택일하는데, 주로 7일, 8일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택일을 하면 그날부터 상가(喪家)집 출입 등 부정한 것과 접촉을 일체 피한다. 음식도 개고기나 닭고기는 먹지 않으며, 부득이 먹었다면 3일이 지난 다음에 올라가 봉행하고 숯을 만들었다.

일제 당시에 서림 벽실골에서 하던 숯가마업자들은 일본관청에서 허가를 얻어 하던 일본인 자영업자들이 태반이었고, 이에 반해 갈천에서는 일본관청에서 직영하였다. 일본이 패망하기 몇 해 전부터는 숯 굽는 인부들도 징병으로 끌고 가는 경우도 있었다. 1945년 이후 일본인들이 떠난 후 벽실골 뒷산이나 조침령에서 한국인들이 숯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당시 마을 주민 십여 명이 공동으로 숯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양양의 숯가마와 숯만들기의 산간생업 민속놀이로도 매우 중요한 자료다.

4. 구비문학

구비문학(口碑文學) 가운데 설화와 민요는 말로 전하는 문학유산이다. 설화는 이야기라고 하지만 세분하면 신화, 전설, 민담, 동화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역사성이나 지역성이 가장 많이 반영된 것이 전설이다. 전설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지명 전설이 지역민의 오랜 향토성이 담겨져 있다. 그러므로 사실의 전승 또는 사실이라고 믿는 이야기가 오래 구전되며 역사적 장소, 시기, 사람과 관련된 것이 많은 편이다. 전설을 분류하면 암석전설, 풍수전설, 사찰전설, 인물전설, 지명전설 등 다양한데 1940년대에 나온 조선전설분포표에는 양양지역의 경우 오색리 오색령과 설악산 오세암 등 두 곳만 소개되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수행된 현지조사 결과 많은 수의 양양지역에 전설들이 수집되었다. 특히 매바위, 미륵바위, 거북바위, 새알바위, 평바위, 덩덩바위, 거북바위, 송장바위, 새바위, 신선바위 등 암석전설이 많은 편이며 풍수설화와 사찰설화,

용설화, 효행설화, 고승사찰설화, 장수설화 등이 수집되었다. 이 가운데 양양지역과 특별히 연관성이 깊은 지명전설과 인물전설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1) 구전설화

(1) 탁장사

양양군 서면 송천리[일명 송전리]에는 전설적인 장사로 탁구삼이라는 인물의 일화가 전승된다. 이 마을에는 그 분의 후손들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데, 현재 이 마을에는 탁구삼 장사의 7대후손인 탁봉원 씨를 비롯하여 10촌 내외의 친척들이 집성촌을 형성하고 있다. 해마다 현산문화제 때 관심을 끄는 탁장사뽑기는 조선후기로 그 유래가 올라간다.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 전국에서 쓸 만한 목재를 모았는데, 당시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2리 개자니골과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가마골 사이의 언덕 위에는 국유림으로 황장목이 있었다.

이곳이 양양과 강릉의 접경으로 양쪽에서는 나라에 바칠 나무를 베기 위해 이곳에서 부역을 하었는데, 공교롭게 제일 큰 나무가 경계선에 서 있었으므로 서로 차지하기 위해 내기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강릉에서는 연곡에 사는 힘세기로 유명한 권장사가 먼저 지고 일어서다가 그냥 주저앉자 양양 서면 소래[송천리]에 사는 탁구삼 씨가 이 나무를 지고 서림까지 내려오자 소래마을에서는 탁구삼 씨를 위해 큰 잔치를 열었다고 한다.

그때부터 탁구삼 장사의 이름이 알려졌으며, 매년 정월 대보름을 전후해서 탁장사의 후계자를 뽑는 놀이가 이어져 왔다고 한다. 이때 장사가 난 마을에는 그 해 풍년이 들고 경사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1984년 제2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종합우수상을 수상하면서 현재는 현산문화제 때 탁장사뽑기를 개최하고 있다.

당시 이 장사놀이의 고증은 탁상호외 4명, 지도는 최종덕, 인원은 120명이 참가하였는데, 해설문은 다음과 같다.

조선말엽 이곳에는 천하장사로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여러 가지 힘내기에서 이겨 양양 제1의 역사(力士)로 널리 알려졌다. 그가 죽은 후 양양 서면 마을에서는 탁장사의

넋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정월 대보름을 전후하여 탁장사의 후계자를 뽑는 놀이를 하였는데, 큰 원목을 지게에 올려놓고 제일 멀리까지 지고 가는 사람을 제2의 탁장사로 칭하여 주는 동시, 양양 제1의 장사로 칭호, 지게로 만든 가마에 태워 축하하여주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온 마을이 축제분위기였다고 한다. 이렇게 할 때마다 매년 풍년이 약속되었고, 마을의 영화와 국태민안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으로 사라졌다가 송천리 마을 노인들의 고증과 이 지방 사람들의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을 발굴 출연하였다.

이와 같이 발굴되어 양양에서는 탁장사의 후계자를 뽑는 탁장사 놀이가 지역의 민속 놀이로 전한다. 탁구삼 장사의 일족은 본래 오색리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탁장사 후손들이 고성군 토성면 성천리와 양양군 서면 송천리 등으로 이주하였다고 한다. 현재 탁구삼 장사의 묘소는 토성면 성천리에 있다. 지역에 전하는 유래에 의하면 탁장사의 출생 비밀로 당시 오색 장군바위 맞은 편에 묘를 쓰면 장사가 탄생한다는 설을 믿고 묘 자리를 그곳으로 옮긴 후에 탁구삼 장사가 태어났다고 한다. 그러나 일제가 계속 장사가 날 것을 두려워하여 장군바위를 깨뜨렸다고 한다.

탁씨 후손들은 오색2리 관터마을 뒤에 위치한 탁씨 시조산소에 매년 시제를 드리고 있으며, 탁구삼 장사의 묘소가 있는 토성면 성천리에서도 탁장사 기일에 제를 올리고 있다. 양양지역에서는 탁장사의 구전설화를 바탕으로 탁장사 뽑기대회를 하는데, 무거운 통나무를 지게에 싣고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하는 사람을 탁장사 후예로 선발하고 있다.

양양 탁장사 설화는 인물전설에 관한 연구에 해당된다. 전설은 일정한 민족 혹은 지방에서 민간에 의해 내려오는 설화인데, 신화가 신격중심이라면, 이것은 인간과 그 행위를 주제로 한 이야기다. 인물전설은 ‘구비상의 전(傳)’ 이므로, 전기적(傳記的) 유형 또는 일대기적(一代記的) 유형을 띠고 있다. 일대기적 유형은 한 인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주요한 행적을 다루는 것으로 통시적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특징이 있다.

어느 지역이든지 그 지역에서 위세를 과시하는 명문거족이 있으므로 인물전설은 자기 선조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야기되거나, 자기 고장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인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므로 전설은 역사적 성격과 역사구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르라는 점에 주목하여 구술역사와 개인사 또는 생활사를 드러내는 기능의 측면에서 탁장사 전설의 개인사적인 측면과 지역생활사를 연계시켜 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설과 민담을 구별지을 수 있는 것은 화자나 청자가 그 이야기의 사실을 신빙하며, 증거물이나 기념물이 있다든가, 역사에서 전설화하거나 역사상 가능성이 있고, 일정한 정형이 없는 이야기 방식이다. 탁장사 설화는 이른바 힘자랑유형, 힘겨루기형의 ‘이기고 지는’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전설적인 인물로 형상화되어 태생에서 명당과 관련된 비범한 탄생이라는 ‘영웅의 일생’ 유형구조를 지니고 있다.

(2) 장사 구납(具納)

양양의 열전에는 다음과 같은 장사이 이야기가 전한다. 임거정이 해변에서 날뛰어 관원들을 괴롭히고 있을 때 양양 땅에서는 이경래라는 자가 떼를 지어 관민을 괴롭혀 약탈을 일삼고 있었다. 이때 조정에서는 임거정 일당을 잡기에도 동분서주를 해야 할 참인데 이경래가 또 날뛰고 있다하는 엇친 데 덮친 격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더욱이 임거정이나 이경래는 다같이 천하의 장사여서 웬만한 힘으로는 이를 당할 만한 사람이 없어 인재난을 겪고 있을 때였다. 이 시기에 힘이 센 구납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힘도 세려니와 담도 컸으며 풍채도 좋아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를 호걸이라고 일렀다.

한때는 무과로 주부벼슬을 지낸 일도 있으나 상사와 의견이 맞지 아니하여 퇴관하여 야인으로 있었다. 나라의 형편이 이렇게 어지럽게 되네다가 도적들의 세가 워낙 크니 “내가 그들 도적의 무리를 잡아 오겠소”하고 선뜻 나오는 사람이 없어 조정에서는 중신 회의를 열어 장사를 천거하라고 하였다. 그 회의에서 이경래를 토벌하기에는 구납이 좋겠다하여 그가 지목받게 되었다. 상감은 그를 친히 불러보고 그 자리에서 선전관을 제수하고 암행어사를 겸하게 하였다. 구납은 오랫동안의 야인생활을 청산하고 관선에 오르게 되니 즐겁기는 하나 한편 대명을 맡고 있어 그 수행에 근심이 없지도 아니 하였다. 그는 이경래 토벌에 관하여 이 궁리 저 궁리하다가 우선 자기를 도와 자기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부하장사가 있어야겠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인물을 물색하였다. 그때 장안 포교 중에 힘센 장사인데다 도적 잘잡기로 유명한 변시진이라는 사람이 우선 머리에 떠올랐다. 변은 서울의 도적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정도의 인물이었다. 그는 변교리를 찾아가 이번 사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동행하기를 승낙을 받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장안의 건달두목이던 임완석을 찾아 협력을 구했다. 그도 “동행하겠다.”하기에

든든한 수족을 얻어 날짜를 정하여 양양으로 향해 떠났다. 이때 조정에서는 이들이 양양에 가서 활동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구납의 삼촌을 양양부사로 발령시켜 주었다. 일행이 같이 길을 떠나기는 했으나 양양부사의 행차는 정장을 했고 구납 일행은 광대차림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경래 토벌의 선전관임을 알아차릴 수 없는 행색으로 길을 떠났다. 그들 일행은 임지인 양양에 도착하여 산정에서 연회를 베풀고 그 고을에서 유지행세를 하는 모모한 인사들을 다 초청하였다. 그 모임 중에 풍채 좋고 말 잘하는 사람이 유독 눈에 띄었다.

구납은 그 사람에게 눈독을 들이고, 그 옆에 가서 술을 은근히 권하였다. 밤새도록 연회를 하다보니 다른 사람들은 다 술이 취하여 인사불성의 처지에 이르렀다. 구납이 풍채 좋은 그 사람의 손을 비틀고 칼을 뽑아 가슴에 들이대면서 “너 이놈, 네 놈이 이경래지”하고 호통을 쳤다. 이 돌연한 행동에 놀란 그는 “그렇지 않다”고 해명을 했다. 그러자 “이놈 나는 어명으로 너 경래를 잡으러 온 사람이니 내 칼을 받아라”하고 대들었더니 자기는 이경래가 아니고 이경래는 따로 있다는 것이다. 구납은 그 “도적놈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니 “일전 이곳에 와서 신관사포가 부임한다는 소리를 듣고 탐지하러 왔다가 금강산으로 들어간다고 여기를 떠났다”는 것이다. 구납은 이 말을 듣고 “네가 이경래를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그의 행적도 알고 있으니 너도 그와 내통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이경래를 잡는데 협조하면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너는 삼족을 멸할 것이니 그리 알고 협조하라”고 그의 협조를 다졌다.

다음날 구납은 삼인의 동행자를 데리고 금강산 일대를 다니면서 장구와 북을 울리고 좋은 목청으로 노래까지 부르며 “우리는 서울서 금강산 구경 온 광대들로 이곳에서 며칠 공연을 할 것이니 노래를 들으러 오라”고 선전하며 다녔다. 금강산에 유람 온 사람들은 장안명창이 왔다는 말에 모두 모여들었으나 그 중에도 이경래는 보이지 않았다. 일행은 외금강에서 내금강 장안사까지 거쳤으나 끝내 찾는 이경래는 보이지 아니하였다. 근심에 잠긴 구납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장안사 앞마당을 거닐었다. 한밤중에 나와 이 궁리 저 궁리를 하다가 장안사 앞산을 바라보니 산중턱에 반짝거리는 것이 보였다. 그는 이상히 여겨 한걸음 두 걸음 그 불을 찾아가 보았다. 조그마한 움막 한 채가 있기에 문을 열어보니 중 한 사람이 당황해하며 무릎 밑에 무엇인가를 감춘다. “당신은 누

구길래 이 밤중에 이곳에 왔소?” 하고 묻기에 “나는 서울서 온 광대하고 잠이 안 와 절마당을 서성거리다가 이곳에 불이 있기에 찾아 왔소”라고 대답했다. 중의 무릎을 살펴보니 보통 사람은 신을 수 없는 엄청나게 큰 가죽신 한 짝이 보였다. 구납은 저렇게 큰 신을 신을 사람은 이경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놈, 그 신은 이경래의 신이지. 나를 숨길 수 없다. 나는 서울서 임금의 명을 받아 이경래를 잡으러 온 사람이다. 네가 이경래를 잡는데 협조하면 나라에 알려 상을 줄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네 놈도 살아남지 못하리라. 어서 바른대로 대어라”하고 으박질렀다. 중도 할 수 없다는 듯 단념하고 자기에게 도적을 잡을 대책이 있다면서 “이경래는 본시 노래를 좋아하며 장안사에 장안명창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저에게 신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이 신을 찾으러 모레 이리로 오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때 나리께서 이곳에 와서 노래를 불러 흥을 돋구어주면 술을 좋아하는 성미에 더욱 술을 많이 먹을 것이요, 대취한 뒤에 결박을 지으면 쉽게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고 하기에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였다. 구납도 호쾌한 장부로서 이경래의 일대일 대결을 하고 싶었으나 만약 그러다가 일을 그르치면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을 저지를까 두려웠다.

그는 데리고 온 사람을 양양부사에게 급히 보내 날썸 군졸 50명만 얻어 오라하여 거사 전에 이들을 번복시켜 요소요소에 배치하여 놓았다. 약속한 이경래는 산에서 내려와 신을 찾으러 왔다. 중은 “신이 좀 털되었으니 그때까지 기다리라” 하고 “그동안 심심하면 마침 준비된 술도 있고 하니 명창을 불러 노래나 듣자”하였다. “이경래도 승낙하기에 중은 장안사에서 올라오는 길을 보고 일행이 많으면 수상하게 여겨 도망칠 터이니 나오리라고 저하고 단 두 사람만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고 하기에 그렇게 하자고 하고 두 사람만이 장안사를 떠나 산사 움막으로 올라갔다.

잠시 후 주안상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서로 대좌하였다. “그대가 장안명창이지?”, “네, 명창이랄 것은 없어도 소리마디나 합니다. 노래 중에서 무슨 노래를 잘하는가?”, “네, 권주가가 특기이니 권주가부터 하겠습니다.”하고는 소리를 뽑았다. 워낙 목청도 좋은데다가 이 자리가 특별한 계략이 있는 자리라 평소보다 더욱 잘하였다. 술맛 좋은 데가 노래마저 좋으니 흥에 겨워 이경래는 연거푸 잔을 비웠다. 주거니 받거니 하다보니 이경래는 도연히 취하여 갔고 구납은 긴장한 탓으로 취기가 없었으나 일부러 취

한 척하였다. 이러는 동안에 이경래는 취기에 못 이겨 옆으로 넘어지자 구납은 소매속에 감추었던 첩퇴를 뽑아 내리쳤다. 이경래는 술이 취하기는 하였으나 첩퇴 한 대를 맞고 벌떡 일어나더니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어 나갔다.

구납은 그 뒤를 따르며 “이놈, 네 놈이 힘깨나 쓴다고 그 힘을 믿고 농사짓는 시골 백성을 괴롭히며 나라의 명을 어겨 왔으니 네 놈은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소리를 지르며 그를 따랐다. 취중이기는 했지만 힘이 장사인 데다가 사세가 급하게 된 이경래는 산으로 도망치다가 근처에 매복하고 있던 양양군졸들에게 잡히고 말았다. 다음날 구납은 이경래를 결박하여 서울로 압송하여 금부옥에 가두고 “상감의 명이 아니었던들 이경래와 힘내기를 한번 해보는 건데 잡기는 잡았으나 힘으로 못 잡고 계교로 잡은 것이니 천추의 한”이라고 말했다.

(3) 하조대(河趙臺)의 하륜(河崙)과 조준(趙浚)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해변에 하조대라고 불리는 승지가 있다. 기암절벽이 바다에 용립하여 기관(奇觀)을 이루고 있는 암두에 하조대라고 이름한 조그마한 정자 하나가 있다. 여기를 하조대라고 부르게 된 것은 고려 말에 신돈의 비행을 공박하는 한편 최영장군의 요동공략이 불가하다고 반대하다가 양주(揚州)에서 유배생활을 했던 하륜과 최영의 휘하에 있다가 윤소종(尹紹宗) 허금(許錦) 등과 우왕(禔王)의 폐위를 도모한 바 있던 조준 두 사람의 성자를 따서 하조대라 이름하였다 한다. 그들이 이곳 하조대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고려가 기우러져 나라 안이 어지러웠을 때 이 두 사람이 같이 고려에서 벼슬살이를 하고 있었으나 나라 안의 정세로 미루어 보아 고려왕조의 왕통이 그대로 지탱할 수 없을 것이니 새로운 왕조를 건립하여야겠다는 뜻을 품고 벼슬을 버리고 이곳의 경색(景色)이 좋아하여 여기 와서 소요하면서 새 왕조 건립의 모사(謀事)를 하며 태조가 등극하자 벼슬길에 오르기 위하여 두 사람이 다함께 떠났다 한다. 그들이 이곳에 있는 동안 혁명을 꾀했고 이곳에서 꾀한 혁명이 성취되어 후일 그들이 현관(顯官)이 되자 하조대의 경관이 돋보이게 알려졌다 한다.

(4) 하조대의 총각과 처녀

옛날 하광저리 하조대 근처에 하씨 성을 가진 준수한 청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살고 있는 바로 이웃 조씨 가문에 혼기가 찬 두 처녀가 있었다. 그런데 이 처녀들은 하씨 청년이 준수함에 반하여 둘이 다 같이 한 청년에게 애정을 품게 되었다. 두 처녀 중 한 처녀가 양보를 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이나 두 처녀는 한사코 양보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세 사람은 이 해결책을 협의하였으나 이 세상의 관습이나 윤리가 세 사람을 함께 결합시킬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청년이 저세상에는 도덕이니 윤리니 하는 번거로움이 없을 지도 모르니 우리 다 같이 저세상에 가서 셋이서 함께 살자고 합의하여 그들은 함께 하조대 절벽에서 몸을 던져 죽었다 한다. 그 후 이곳을 하조대라고 부르게 되었다 한다. 이곳 하조대 근처에는 해당화가 많고 그 해당화의 빛깔이 동해안의 다른 곳 해당화 보다 훨씬 붉다하는데 그 이유는 이들 세 젊은이의 애절한 넋이 해당화에 얹혔기 때문이라 한다.

(5) 죽도(竹島)의 절구바위

현남면 인구리 바로 앞에 죽도라고 부르는 산봉이 바닷가에 우뚝 솟아 있다. 이 산을 죽도라고 부르는 것은 산 도처에 키가 작은 대나무가 우거져 있는 탓으로 죽도라고 하기는 하나 지금은 섬이 아니고 봉의 서쪽 맥은 해변의 백사장과 이어져 있다.

이 죽도 동쪽 해안은 큰 바위로만 되어 있고, 이 바위 중에 가운데가 파여 절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 옛날에 마고할미가 상제를 섬기고 있을 때 상제가 마음먹은 일이면 무엇이든지 이루는 상제의 권능이 부러워 불가능이 없는 상제의 권능이 어디에서 생기는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제가 큰일은 계획해 놓고는 밀실에 들어가 큰 공만 한 둥근 돌로 열심히 바위를 갈아 끝내는 그 바위에 구멍을 내놓고는 그 다음날 계획했던 일을 착수하여 무서운 권능으로 그 일을 달성하는 것을 알고는 상제의 불가사의한 기능이 어디에서 생기나 했더니 ‘바로 저 둥근 돌에서 생기는구나. 내가 저 돌을 훔쳐가지고 인간 세상에 내려가면 모든 세상을 통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며칠 뒤 상제가 없는 틈을 타서 그 돌을 훔쳐가지고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

막상 오기는 했으나 아무데서나 갈다가 혹 사람의 눈에 띄기라도 한다면 상제에게 다

시 잡혀가 벌을 받을 것이니 돌을 갈만한 곳이 마땅치 않아 사람 없는 산속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밑돌도 마땅치 않은데다가 가는 소리가 커서 사람들에게 들키기가 쉬웠으므로 인적이 드문 바닷가에서 밑돌을 구하여 갈기로 하고 해안선을 따라 장소를 물색하다가 이곳 죽도에 와 보니 섬이어서 거의 인적이 없는 데다 대숲이 우거져 있어 사람에게 발견될 염려가 적고 이곳은 사장이 아니어서 항상 파도가 바윗돌에 부딪쳐 요란한 소리가 나므로 돌 가는 소리가 파도소리 때문에 멀리 가지도 않거니와 소리가 난다해도 동네 사람들은 파도소리거나 생각할 것이니 돌 가는 소리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 좋은데다가 밑돌 할 만한 돌이 얼마든지 있어 여러모로 안성맞춤이었다. 야심에 찬 마고할미는 그 바위 중에서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 갈기 시작했다.

며칠이 걸려 바위 하나를 구유처럼 갈아 이제 겨우 끝이 나게 되었을 때 갑자기 바다가 거칠어지며 파도가 거세게 일어 물결이 마고할미가 일하고 있는 작업장까지 쳐들어와 작업도 할 수 없거니와 갈아놓은 밑돌 구멍에 물이 가득 차 더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며칠을 기다려 보아도 물결은 자지 아니하고 상제가 잡으려 올 것 같은 조바심이 나기에 거의 끝을 보게 된 돌을 버리기는 아까우나 그렇다하여 무작정 파도가 잘 때를 기다릴 수 없어 파도가 미치지 아니하는 위쪽에 있는 돌을 다시 갈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돌도 거의 다 갈아 끝을 보게 될 무렵 다시 파도가 일어 이 돌 있는 데까지 물결이 쳐왔으므로 또 작업을 중단하니 할 수 없었다. 작업을 중단한 채 물결 잘 때를 기다렸으나 전혀 잔잔해질 기색이 없었으므로 다시 위쪽으로 자리를 옮겨 다른 돌을 골라 갈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또 전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 다시 자리를 옮기지 아니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 번 옮기다 보니 돌 하나도 끝을 맺지 못한 채 상제에게서 흠쳐온 둥근 돌이 다 닳아 쓸 수 없게 되어 마고할미의 계획은 좌절되고 말았다.

지금 죽도 동쪽 바닷가에는 구유나 절구처럼 구멍이 파여 있는 돌이 여러 개 흩어져 있는데 이 돌들은 다 이때에 마고할미가 갈다가 파도 때문에 끝을 보지 못하고 중단하여 버려놓은 돌들이라고 한다. 오랫동안 물결이 거세게 쳐서 갈다 던져둔 이 돌들이 물결의 힘으로 마멸이 되어 구멍이 나면 반드시 사회에 큰 변고가 생긴다고 하여 옛날에는 이곳 사람들은 사회의 큰 이변이 있을 기미가 보이면 죽도에 와서 이 돌에 구멍의 상태를 살펴 이변을 예측했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병란이 일어났을 때에 이곳 돌에 구멍

이 낮으면 피난 집을 싸서 산중으로 피난을 가고 외병이 쳐들어온다는 풍문이 돌고 이곳 돌에 구멍이 나지 아니하면 재앙이 이곳까지 미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평상시와 같이 생활한다고 한다. 마고할미의 야심이서린 장난이 끝내는 이곳 사람들에게 재앙을 점치게 하여 옛날에는 이곳 서낭당 제(祭)때면 곁들여 마고할미 제(祭)까지 지냈다고 한다.

(6) 임천리(林泉里)의 철수혈(鐵叟穴)

영동지방에는 양강지풍(襄江之風)이요, 통고지설(通高之雪)이라는 말이 있다.

양양과 강릉은 바람이 세차고 통천과 고성은 눈이 많이 내린다는 뜻이다. 어느 때인가 양양부사가 부임해 보니 어찌나 바람이 심한지 농작물이 제대로 크지 못할 뿐더러 설사 결실은 했다 하더라도 바람에 다 떨어져 버려 농민은 1년 내 농사를 짓고도 굶어야 할 형편이었다. 새로 부임한 부사가 가만히 생각하니 이 고을 사람을 잘 살게 하자면 바람을 막을 수밖에 없으니 강풍의 진원지가 어디인지 알아보아야겠다고 정사에 앞서 바람의 근원을 찾으려 나섰다. 사또가 바람결을 거슬러 따라 올라가 보니 바람이 이곳에서 생겨나는 것 같은데 어디인지 그 장소를 알 수 없다. 이리 저리 찾다보니 석성(石城)이 있고 그 성내에 10여 개의 혈(穴)이 있었다. 귀를 기우리고 자세히 들어보니 이 혈(穴)마다 안에서 바람이 나오는 소리가 나기에 바람의 진원처가 바로 여기였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을 안 사또는 동민을 동원시켜 큰 바윗돌을 가져다가 10개의 혈을 다 막아버렸다. 그리고는 “이제 양양에는 큰 바람이 불지 아니 할 것이며 농사도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돌아왔다. 사또가 돌아오는 동안에는 바람이 잠잠하더니 부중(府中)에 돌아와 동헌(東軒)에 올라서니 전에 일찍이 겪지 못했던 큰 바람이 또 불기 시작했다. 혈의 당처에 바윗돌로 막아 이제 바람이 안불 터인데 이상하다고 행각한 사또는 사람을 시켜 그곳에 가보라고 했더니 갔다 온 사람이 말하기를 “굴을 막았던 돌은 다 넘어지고 혈은 옛 모습대로 이었습니다.” 하고 보고하기에 사또는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관원과 동민을 데리고 다시 그 굴에 가서 이번에는 혈을 막지 아니하고 제물(祭物)을 차려 혈마다 제사를 지냈다. 그 뒤로부터 바람이 잦다 한다. 이에 유래하여 양양에서는 큰 바람이 불기만 하면 이곳 철수혈에 와서 제를 올렸다고 하며 이 혈을 신혈(神穴)이라 부르게 되었다.

(7) 낙산사의 의상대사

낙산사가 있는 산 이름을 낙산이라 한 것은 천축(天竺)의 보타란 낙가산에서 딴 것이라 하며, 이 낙산 동쪽 바닷가에 바닷물이 출렁거리는 굴이 하나 있는데 이 굴은 대비진신(大悲眞身)인 백의대사(白衣大師)가 거처하던 성지라고 한다. 이곳은 항상 바닷물이 출렁거리고 파도가 심하여 일찍 아무도 들어가 본 사람이 없는 곳이기에 불교의 성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강원도 양양 낙산에 성지가 있다는 말이 널리 퍼지자 의상대사가 이 성지에서 대비진신에게 예불하려고 찾아왔다. 대사는 이곳에 와서 사람을 시켜 바닷물에 돛자리를 깔게 하고 목욕재개를 한 다음 그 돛자리에 올라앉았다. 그랬더니 바다 속에서 여덟 마리의 용이 나와 대사를 모시고 굴속으로 들어갔다. 대사가 굴속으로 들어가 그 안에 안치되어 있는 부처님께 예불을 하니 공중에서 수증염주가 내려오기에 그 염주를 받아가지고 굴을 나오자 용이 다시 나타나 여의주(如意珠)를 바치며 “용왕께서 말하기를 이 낙산 위에 올라가면 대나무가 두 그루 나 있는 곳이 있을 것이니 그 곳이 바로 명당자리다. 그곳에 절을 지으면 불법이 크게 일 것이다”라고 일러주고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대사는 그 길로 낙산으로 올라가 일러준 자리를 아무리 찾아도 대같은 것도 없어 실망하여 한참 두리번거리고 있는 참에 멀리 바라보이는 동해에서 “대사는 너무 성급하게 찾지 마시고 때가 되면 찾을 수가 있을 것이오”라는 말소리가 바람을 타고 아련히 들려왔다. 대사는 느낀바 있어 그 자리에 앉아 염주를 굴리며 있노라니까 바로 눈앞에서 두 자루의 불꽃같은 죽순이 솟아오르기 시작하여 보고 있는 동안에 큰 대나무가 되었다. 대사는 그제야 바로 이곳이 명당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법당을 짓고 그 절 이름을 낙산사라고 불렀다 한다.

(8) 생불 못 본 원효대사

의상대사와 같은 시대의 원효대사가 낙산사가 명찰이라는 말을 듣고 찾아온 일이 있었다. 원효대사가 양양 땅에 들어서 멀리 낙산이 보이는 논두렁길을 걷고 있노라니 논에서 흰옷을 입고 혼자 벼를 베고 있는 부인 한 사람이 있기에 “남편은 무엇 하기에 부인 혼자 이 호젓한 들판에서 일을 하고 있소. 나 같은 중이 업어 가면 어찌려고”하고 말을 던졌더니 벼 베던 여자가 대사를 쳐다보더니 웃으면서 “나 같은 못생긴 여자를 어떤

남자가 업어가겠소. 요석공주처럼 곱게 생겼으면 원효스님같은 훌륭한 스님이 반하여 업어가겠지만”한다.

한때 요석공주와 애정을 불태워 아이까지 낳았던 원효대사는 이 말을 듣고 속이 뜨끔하였다. 초면인 중에게 서슴지 않고 받아넘기는 그 여자의 모습에는 범할 수 없는 기품이 있어보였다. 대사는 농을 받고도 그 기품 때문에 짐짓 “소승은 그 따위 파계승 원효대사와는 다른 비구승이니 업혀갈 염려는 없습니다.”라고 자신을 욕을 해보였더니 그 여자는 “원효대사는 자비심이 많고 너그러운 승입니다. 그는 자비심과 관용이 있었기에 요석공주의 애처로운 애정을 구해 주었지 목석같은 외고집 중들은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라고 뜻밖의 말을 하기에 호기심이 생겨 “그럼 부인도 원효대사가 구애한다면 요석공주처럼 그 청을 들어 주시겠소”하고 은근히 떠보았더니 자기는 다른 여자와는 사정이 좀 다르다고 한다.

대사는 이 여자가 다른 여자와는 사정이 좀 다르다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어 이 여자가 부처님의 화신이 아닐까 하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농을 거두고 “부인에게 실례되는 말을 하여 죄송합니다. 뜨내기 나그네 중의 뜻 없는 말을 허물치 마십시오.” 하고 “관음보살 같이 아름답고 다정하신 분이신신(信身)에서 한 말입니다.” 하고는 이렇게 오가는 길에서 만나 이야기 하게 된 것도 하나의 인연이니 벼이삭 하나를 주며는 낙산사 부처님께 추수를 감사하는 뜻에서 바치겠다고 하였다. 그랬더니 부인이 “그렇지 아니하여도 금년에는 부처님 은덕으로 대풍이 들었고 낙산사에서는 스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 벼이삭을 건네주며 인연이 있으면 또 만날 것이라고 하고 헤어졌다.

원효대사가 그 부인과 헤어져서 한 참 갔는데 맑은 시냇가 다리 밑에서 소박한 여자인 사람이 여자의 생리 빨래를 하고 있었다. 대사가 목이 말라 그 여자에게 물 한 모금을 청했더니 여자가 빨래가 잠겨 있는 윗물을 떠주는 것이 아니고 아랫물을 떠주었다. 화가 난 대사가 그 물그릇을 엎질러버리고 “같은 값이면 빨래 위쪽의 맑은 물을 떠 줄 것이지 무엇이요” 하고 손수 내려가 윗물을 떠마셨다. 빨래하던 여자는 이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 겹연쩍어 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음을 보고 “기이한 여자도 다 보겠다.”고 중얼거리며 언덕길을 재촉하면서 “오늘은 어찌된 연고인지 이상한 여자만 만나다.”고 중얼거리고 나니 길옆 언덕바지 소나무 위에 파랑새 한 마리가 날아

와 앉으며 “휴재호화상” 크게 한마디 울고는 어디론지 사라졌다. 이 새소리를 들은 대사는 “이상한 말을 하는 새로구나” 물 얻어먹은 것을 조롱하는 듯하니 영조가 아니면 흥조이려니 여기고 지나가는데 그 새가 울던 소나무 밑에 여자의 고무신 한 짝이 있는 것을 눈여겨 보았다. 원효대사가 낙산사에 이르러 관음보살에게 예불하려고 법당에 들어가 보니 관음보살의 불상 밑에 여자의 신이 한 짝 있기에 자세히 보니 아까 파랑새가 울던 소나무 밑에 그 신짚과 꼭 같았다. 이것을 보고 아까 벼 베던 여자나 빨래하던 여자가 사람이 아니고 관음보살의 화신이었으며 벼이삭을 주면서 수작한 것이나 생리 빨래를 하면서 빨래가 잠긴 아래쪽 물을 떠 준 것이나 나를 시험하려고 했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일이 있었던 뒤부터 이곳에서는 이 파랑새가 앉았던 소나무를 관음송이라 하여 신목으로 모시게 되었다 한다. 대사는 낙산사의 생불(生佛)을 보려고 왔었다. 그런데 낙산사의 생불은 아무에게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도가 통하여 색공(色空)이 절(絶)한 경지에든 사람에게나 보이지 속진(俗塵)이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불러도 보이지 않는다고 한 원효대사는 이러한 연유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생불을 보려고 예불을 하였으나 보지 못하고 사보인 수증염주와 여의주도 마침내 보지 못하였다. 그는 생불이 보이지 아니하자 “내 마음에는 아직도 속진이 가득차 있나 보구나 아까 빨래하던 여인이 관음소살의 화신으로 나를 시험하려 했던 것인데 내가 득도의 경지에 들었으면 윗물 아랫물을 가리지 아니하였을 터인데 아직 청탁을 가릴 정도이니 내 도가 참으로 얕다. 아까 빨래하던 여자가 떠주던 물을 훑 마셨으면 관음보살을 볼 수가 있었을 지도 모를 것인데 그 물을 엇질러 버릴 정도의 수도밖에 없는 내가 생불을 보려고 하는 것은 내 나름대로의 욕심에 불과하구나” 하고 선의(禪意)를 깨쳤다고 한다.

(9) 낙산사의 불상

명주군 구정면 학산리에 지금 빈터만을 남기고 있는 신라시대의 대찰 굴산사의 창건주인 범일대사가 대화년간(大和年間)에 당나라에 가서 그곳 명주 땅에 있는 개국사에서 법회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다. 대찰의 법회이기에 천하의 명승들이 많이 참석하였는데 그 법회 맨 끝자리에 왼편 귀가 없는 중 한 사람이 앉아 있다가 범일국사를 보

더니 “스님은 동해 신라에서 오시지 아니하였습니까? 저도 신라에서 왔습니다. 만 리 이국에서 이렇게 대사를 뵈을 수 있어 반갑습니다.”하고 인사를 걸어온다. 범일도 인사를 한 뒤에 그 중이 살고 있는 곳을 물었더니 명주와 접경인 덕기방이라는 곳에 살고 있으니 귀국하거든 오늘 이국에서 만난 인연으로 꼭 한번 찾아오라는 것이다. 범일도 이국에서의 인연이 있으니 돌아가면 꼭 찾아가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리고 헤어져 범일은 그곳에서 수도를 마치고 신라에 돌아와 명주 땅에 와서 굴산사를 세워 포교에 열중하느라 당에서 만났던 중의 일을 까맣게 잊고, 어느 날 꿈에 대사가 새로 절을 건립하고 중생계도하기에 바쁘겠지만 당나라 명주땅 개국사에서 약속한 일을 왜 잊었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아니하니 찾아오면 좋은 불복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니 한번 찾아오십시오 하고 돌아갔는데 당나라에서 본 왼쪽 귀가 없는 그 중이었다. 그 중이 원망하는 눈길을 남기고 돌아가기에 대사는 꿈에서 깨어 자기의 불신을 뉘우치고 그 중을 찾아 길을 떠났다. 그들 일행이 길을 떠나 한 곳에 당도하여 어떤 부인에게 그들이 찾아가는 덕기방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그 부인이 “덕기방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인지 알 수 없으나 이상한 일도 다 있네. 내 이름이 덕기인데”라고 혼자 말로 중얼거렸다. 범일은 부인의 이름이 덕기라는 말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 부인에게 이곳의 풍속 지리에 비슷하여 부인의 생활과 근황까지 자세히 물어보았다. 부인은 묻는 말에 자세히 대답하더니 “제게 8살 난 딸아이 하나가 있는데 그 나이의 아이들 하고 놀지 않고 매일 남촌 가는 돌다리 위에서 혼자 놀다 와서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혹 정신에 이상이 생긴 거나 아닌지 걱정입니다. 대사는 도를 얻었을 것이니 이 아이의 이상한 행동이 왜 생겼으며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는지 그것을 알고 계시거든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한다. 대사도 이상하여 그 아이가 돌다리에서 종일 놀다가 돌아와서 한다는 이상한 이야기가 어떤 것이냐고 물었더니 “몸이 금색으로 된 동자하고 논다.”고 이야기 한다고 하는 것이다. 범일은 금색동자 부처님의 화신이 아닐까 생각하고 소녀를 데리고 돌다리에 가서 찾아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돌다리 밑에 물이 썩 웅덩이가 있을 뿐이다. 범일은 사람을 시켜 그 웅덩이를 파보라 하였다. 얼마 파지 아니하여 그 곳에서 불상 하나가 나왔는데 황옥으로 된 누런색의 돌부처였다. 돌부처를 물에 잘 씻어보니 왼쪽 귀가 떨어져 없을 뿐 다른 데는 한군데도 손상된 곳이 없어 자세히 살펴

보니 범일이 당나라에서 만났던 왼쪽 귀가 없던 중 그대로이었다. 범일은 이 불상 앞에 향불을 올리고 그동안 일찍 찾지 아니하였던 불신(不信)을 사(謝)하고 “부처님은 어느 절에 모심을 받고 싶습니까?” 하고 염불을 하며 물었더니 갑자기 정신이 몽롱해지더니 비몽사몽간에 바람 곁에 들리는 말이 “낙산사에 가고 싶다.”라는 말이 멀리서 들려왔다. 범일은 정신을 가다듬고 이 불상은 정취보살이 분명하니 원대로 낙산사에 봉하라 하여 낙산사에 봉안하였다고 한다.

(10) 조신(調信) 다시 불도(佛道)로

명주고을 날리군에 세규사(世遶寺)의 장사(莊舍)가 있었는데 서라벌의 본사에서 조신을 그곳에 지장(知莊)으로 보내어 관리케 하였던 일이 있었다. 이때 이 고을 태수로 김흔이란 사람이 있었고 김흔에게는 아름다운 딸이 하나 있었다. 조신이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김흔의 딸을 보고 그 미색에 혹하여 홀로 은근히 마음을 태우기 시작하였다.

조신은 이 사랑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힘을 빌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낙산사의 대비상과 사보(寺寶) 여의주(如意珠)에게 “제가 목숨을 걸고 사모하는 여인에게 뜻과 같이 아내가 되도록 여의주의 영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매일 기원을 하였다. 그러나 그 간절한 기원도 아랑곳없이 그 처녀는 딴 곳으로 시집을 가고 말았다. 홀로 사랑하던 처녀가 딴 곳으로 시집을 간 것을 알고도 조신은 단념치 않고 그 여자와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낙산사에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부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다가 지쳐버렸다. 꿈속에 생시와 같이 김태수의 딸이 나타나 조신에게 기쁜 얼굴로 인사를 하더니 금시 슬픈 표정을 지으며 “스님 저는 사실 처녀시절부터 스님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도에 정진하고 계시는 스님에게 저의 심정을 털어놓을 수도 없어 홀로 고민하다가 부모의 명에 의하여 마음에 없는 시집을 가기는 했습니다만 시집살이를 하면서도 마음은 항상 스님에게 있어 그 괴로움을 견딜 수가 없어 앞으로는 스님만 모시려고 이번에 집을 뛰쳐나왔으니 저를 더럽다 마시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울면서 호소했다. 조신(調信) 옆에는 김태수의 딸이 와서 불상에 합장하고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이 광경을 본 조신은 낙산사의 불상과 여의주에 감사하고 그 여인을 데리고 불계를 떠나 환속(還俗)하여 고향에 돌아와 속인의

생활을 시작하였으나 세상 물정에 어두워 살아갈 길이 막연하였다. 나이가 늘어감에 따라 부부의 애정은 짙어갔으나 아이들은 늘어나고 생계는 어려워 가족은 누더기 옷으로 겨우 살을 가리고 문전걸식을 하며 연명해야 할 처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떠돌며 걸식을 하는 동안에 아이 하나는 굶어 죽고, 가족은 길가에 거적을 쳐놓고 거지생활을 하기에 이르렀다. 설상가상으로 두 부부는 병들어 거적에 눕게 되고 보니 열 살짜리 딸아이가 부모를 대신하여 집집마다 다니면서 밥을 빌어 입에 풀칠을 해야 할 형편이 되었는데 그 아이마저 어느 날 밥을 빌리러 갔다가 개한테 물려 자리에 눕게 되어 이제는 밥을 빌러 다닐 사람도 없게 되었다.

사정이 이렇게 되니 조신은 아내가 “지금까지는 가난할망정 가족이 건강하여 밥을 빌러 다닐 수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것조차 할 수 없게 되었으니 무엇인가 달리 대책을 세워야 하겠는데 다른 도리는 없고 어린 것들을 나누어 각기 헤어집시다. 나는 친정 고장에 갈 터이니 당신도 일가친척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하기에 조신도 그 생각이 옳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조신은 인세의 무상함을 느끼고 그동안 고생을 하였으나 가족을 가졌던 흐뭇했던 일을 되새기며 지난날을 생각하다가 막상 헤어지게 되니 문득 가난에 시달려 굶주려 죽은 아들 생각이 났다. 내일이면 가족이 남북으로 흩어질 판이니 내일 아침 죽은 아이의 무덤에 가보고 헤어지자고 걱정했다.

날이 밝자 가족을 데리고 죽은 아들의 무덤에 찾아갔다. 무덤 앞에서 조신은 “이제 다시 우리가 언제 만날지 알 수도 없는데 낯선 객지에 아이 빼만 묻고 가기가 너무도 쓸쓸하니 그의 손가락 뼈 하나씩이라도 지니고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내도 그것이 좋겠다고 동의하였다. 조신이 봉분을 파헤쳤으나 웬일인지 아이의 시체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좀 더 깊이 팠더니 아이의 신체 대신에 동자미륵의 돌부처 하나가 나타났다. 조신은 그 부처를 놀래 “아이가 부처로 변하였구나, 이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우리가 굶어서 부처를 섬기다가 도중에 가족을 갖게 되어 속세에 돌아와 있었으나 오늘 이것을 보니 우리 불교와 숙연(宿緣)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다시 절로 돌아가야 할 사람이다.”하고 자기 아들의 변신인 동자미륵을 본존으로 삼아 이적(異蹟)을 멀리하여 돈을 모아 정토사(淨土寺)라는 절을 세워 죽을 때까지 이 절에서 불도를 닦았다고 한다.

(11) 선정비(善政碑)의 눈물

양양에서 동쪽으로 얼마를 가면 구교리가 있다. 이 구교리와 연창리 사이에(현재는 현산공원에 있음) 조선조 때 양양부사로 와있던 이상일(李尙逸)의 선정비가 있는데 이 비를 이곳 사람들은 타루비(墮淚碑) 즉 눈물을 흘리는 비라고 부른다. 이상일이 부사로 와서 5년간 여기서 정사를 맡아보는 동안 그는 어려운 백성을 잘 보살펴 굶주림이 없게 하였고 백성에게 억울함이 없게 하였으며 관원이나 지방 토호(土豪)들의 행패를 철저히 막아 선정을 하였으므로 그가 이곳에 있는 동안에는 억울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었다. 임기가 끝나고 돌아간 뒤에 이곳 사람들이 그의 선정을 길이 잊지 못하여 세운 것이다. 그가 재임 시에는 백성들이 눈물을 흘릴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없었지만 그가 간 뒤에는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많았다. 관원이나 지방 토호에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은 하소연 할 곳이 없어 선정을 베푼 구관 사또를 생각하고 오래 선정비 있는 곳에 그 비석을 안고 하소연 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이상하게도 억울함을 당한 백성이 이 비석을 안고 올면 비석에서 물이 흘러나와 같이 울며 억울함을 동정하여 타루비라 부르게 되었다한다.

(12) 불에 탄 사당(祠堂)

양양에서 동북방으로 6km 정도 가면 도적신사(道積神祠)라고 부르는 사당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당은 없고 다만 기지만이 사천리 웅이동(熊耳洞)에 남아 있다. 이 사당의 [佛] 주신(主神)은 존귀와 위엄이 대단하여 어떤 사람이든지 이 사당 앞을 말이나 가마를 탄체로 지나가지 못하며 반드시 내려 걸어야 하고, 이 사당을 지나면서 함부로 지껄린다거나 기침을 한다거나 침을 뱉으면 그에 합당한 죄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런 탓으로 이 고을 사람들은 이 사당 앞을 지나기를 꺼려하며 술에 취하여 집으로 가던 사람도 이 사당 앞에서는 긴장이 되어 술이 깬다는 사당이다. 양양에 최정립(崔挺立)이라는 담력이 센 선비가 있었다. 하루는 이웃 고을에 갔다가 그곳에서 술이 거나하게 취하여 돌아오느라고 말을 탄채 이 사당 앞을 유유히 지나가려 하기에 이때 같이 오던 행인이 놀라 “여보시오 선비양반 여기가 어딘지 알고 말 탄체로 그냥 지나려 하시오. 화를 당하지 않으려거든 빨리 말에서 내리시오”하고 남의 일이지만 걱정이 되어 귀뜸을 했더니 최정

립이 “쓸데없는 걱정 말게 귀신은 약한 사람에게는 범하지만 강한 사람에게는 덤비지 못하는 법이야” 하고 말 탄체로 사당 앞에 이르러 말 위에서 사당을 향하여 “이놈의 귀신 듣거라. 나는 이 고을에 사는 사람인데 네가 무엇인데 네 앞을 지나가는 사람은 숨도 크게 못 쉬고 지난다 하니 그런 행패가 어디 있느냐. 내가 오늘 마침 이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말 탄체로 지나가는 나에게 추호의 행패라도 있으면 그 때는 내가 사당을 다 불태워 버릴 것이니 그리 알라”고 소리를 치고 떠나 몇 걸음을 아니 가서 말이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대노한 최정립은 차고 있던 칼을 뽑아 쓰러진 말의 다리 하나를 잘라 들고 사당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피 묻은 말 다리로 신주(神主)를 후려갈기면서 “이놈이 감히 누구에게 행패를 부리느냐. 내가 이 행패를 당하고 고분고분 물러갈 줄 알았더니. 하고 소리 지르며 신주와 사당(祠堂)을 모조리 부셔버리고 그래도 시원치 아니하여 그 자리에서 불 질러 버렸다. 이것을 본 행인들은 손에 땀을 쥐고 “저 사람 살아서 이 고개를 넘지 못할 것이다.”라고 수군거렸으나 최정립은 사당이 다 불타 없어진 것을 보고 유유히 걸어와 넘어져 있는 말에 채찍을 치니 말이 세발로 벌떡 일어섰다. 최정립은 다리 잘린 말을 타고 고개를 넘어가는 것을 행인들은 눈이 둥그레지며 바라보면서 “역시 저 사람 말대로 귀신은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하다는 말이 옳은가 보다고 수군거렸다. 그 뒤부터는 강자에게는 귀신도 못 당한다는 이야기가 퍼지게 되었다 한다.

(13) 영혈사(靈穴寺)의 영천(靈泉)

화일리 설악산 동남방 관모봉 기슭에 영혈사라는 절이 있다. 이 절은 신라 신문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한 절이다. 대사가 이곳에 와서 산세를 둘러보니 절터로는 안성맞춤이나 물이 없었다. 절 근처에 물이 날만한 곳을 찾아보았으나 물이 나오지 아니하여 식수 때문에 폐사할 형편이었다. 대사는 간절하게 부처님께 샘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올렸다. 그러던 어느 날 대사의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 이 절 근처 한 곳을 일러주며 그곳을 파면 물맛이 좋은 샘이 나올 것이니 거기를 파라. 이 샘은 그대의 정성에 부응하여 솟은 샘이니 보통 샘과는 다르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가물거나 장마가 쳐도 이 샘은 그 수량에 변동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샘줄이 다른 곳으로 갈리어 가면 이 샘의 물도 줄거니와 이 절도 크게 번성치는 못할 것이라고 이러주고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다. 꿈

에서 깨어난 대사는 백발노인이 일러주던 장소에 가서 봤더니 맑은 물이 솟아났다. 그러나 그 샘은 일정한 양 이상은 나오지도 아니하거니와 아무리 많이 써도 마르지 아니하였다. 장마나 가뭄에도 수량에 변동이 없어 영천이라 이름을 짓게 되었고, 이 절을 영혈사라 부르게 되었다. 원효대사는 이곳에서 절을 이룩한 뒤 낙산사에 가서 한 때 홍련암에 기거하고 있었다. 이 암자에 식수가 없어 낙사 본사의 샘물을 길러다 먹는 불편이 이만 저만 아니었다. 대사는 이곳을 찾아드는 신도와 승려의 불편을 덜기 위하여 샘을 하나 찾아야 하겠다고 며칠을 두고 근처를 파 보았으나 샘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 전에 영혈사에서 샘 때문에 고생할 때 찾아왔던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나서 “바로 그 홍련암에 샘터가 있다.”고 일러주고는 “그러나 그 물줄기는 영천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영천 물이 반으로 줄 것이다.”라고 알려주었다. 다음 날 대사는 일러준 곳을 봤더니 맑은 샘이 나왔다. 반가워 샘물을 떠서 마셔보니 영천의 샘물과 물맛이 꼭 같았다. 이 샘이 지금도 바로 홍련암 옆에 있는 그 샘이라 전하고 있다. 대사는 처음 홍련암 샘을 보고 영천의 샘과 물맛이 같기에 옛날 영천샘을 팔 때 꿈에 나타났던 “이 샘물이 다른데 갈리어 가면 이 절은 번창할 수 없다.”던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낙산사는 대찰이니 더 번창하지 않아도 좋고 이 홍련암도 식수가 불편하기는 하나 견디면 견딜 만하다. 그렇지만 모처럼 세워놓은 영혈사가 번창하지 않아서는 아니 되겠다고 생각하고 홍련암 샘물을 막아버리기로 정했다. 그러나 아무리 힘써 막아도 한번 터진 샘은 여전히 흘러나와 할 수 없이 다시 파 놓았다. 다음 날 대사는 영천의 물이 정말로 줄었는가를 알기 위하여 영혈사에 가보았다. 영혈사에 이르니 그곳 중이 울상이 되어 “어제 갑자기 영천의 샘물이 반으로 줄어들어 겨우 이 절 중들의 식수를 이어줄 정도 밖에 안 되어 밖에서 오는 신도나 외인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니 이제 이 절이 번창한 대찰이 되기는 다 틀렸다고 말하였다. 대사가 이 말을 듣고 영천에 가보니 과연 반으로 줄어 있어 뉘우쳐지는 바 없지 않으나 별도리가 없다고 홀로 탄식하였다. 그 뒤 영혈사는 크게 번창하지 못한 채 지금 그 명맥만을 이어가고 있다.

(14) 관음굴(觀音窟)의 후사 점지

조선조 익조(翼祖)가 정숙황후와 더불어 관음굴에 행행하여 후사를 기도하였다. 꿈에

한 가사승이 와서 이르기를 반드시 생남할 터이니 이름을 선래(善來)로 지으라 하였다. 과연 태기가 있어 10개월 후에 도조를 낳아 선래라고 하니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겠다.

(15) 안심암(安心庵)의 자심탑(慈心塔)

양양에서 서쪽으로 4km쯤 가면 안심암(安心庵)이라는 절이 있다. 옛날 이절에 효성이 지극한 자심(慈心)이라는 승려가 있었다. 자심은 불심이 두터워 중이 되었지만 속세에는 불교를 믿지 아니하는 부모가 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어느 한 해인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가 홀로 남게 되었다. 효성스런 자심은 신심이 없는 어머니가 절에서 기거하기가 오히려 불편할 것 같아서 절로 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것을 더 강제로 권할 수는 없었다. 그는 어머니 뜻대로 살게 하고 매일 한 번씩 찾아뵙고 노모를 위로하는 것을 일과로 삼으면서 지냈다. 비록 출가한 중이라고는 하나 홀로 남아있는 어머니에게 효성을 다하니 어머니 생전에는 불편이 없이 지내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나이가 많아 멀지 않아 죽으면 신심이 없었던 어머니에게 극락에는 가지 못할 것을 생각하니 어머니 죽은 후의 고초가 걱정이 되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신심을 가지라고 더 권하지도 못할 바에야 어머니의 사후를 위해 어머니를 대신하여 불사(佛事)를 일으켜야겠다고 어머니 뉘의 탑을 하나 짓기로 했다. 그는 탑에 쓸 돌을 여러 곳에서 찾아 그 한 덩어리를 정성을 다하여 다듬었다. 망치와 정으로 돌을 다듬을 때에는 어머니의 극락행(極樂行)을 염(念)하면서 다듬었다. 돌을 다 다듬은 뒤에는 자기 어머니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수고를 끼쳐서는 어머니가 극락 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것 같아 며칠이 걸리던 자기 힘으로 돌을 다듬고 돌을 끌어다가 탑을 쌓았다. 그러다 보니 자심(慈心)의 공력(功力)도 많이 들었고 시간도 많이 걸렸다. 동료 승려들이나 이웃사람들이 그의 성력(誠力)에 감동되어 협력하겠다고 자청해 오는 사람도 있었으나 그는 모두 사절하고 홀로 자기 힘으로만 이 탑을 쌓아갔다. 그러던 중 아직 탑이 완성되기 전에 어머니가 병상에 눕더니 얼마 안가 세상을 떠났다. 탑이 되기 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으니 자칫하면 어머니는 극락에 가지 못하였을 지도 모르겠다고 혼자 걱정을 하였다. 상사(喪事)를 마치고 절에 돌아와 보니 자심(慈心)이 완성하지 못했던 탑 윗부분이 깨끗이 완성되어 있었다. 자심이 이상히 여겨 동료들에게 물었더니 “자네 어머니가 죽어 염라대왕에게 심판을

받기 전에 탑이 다 완성되어야 그 탑의 공력으로 극락에 가겠기에 자네 어머니 병환이 위중하다는 소리를 듣고 남은 부분을 우리가 협력하여 다 마치고있네.” 라고 한다. 한편 고맙기도 하려니와 한편으로는 남의 힘으로 마치게 되어 개운치 아니한 데가 있었지만 이미 다된 것이니 그대로 두고 날을 받아 탑제(塔祭)를 지내기로 했다. 그런데 탑제(塔祭) 바로 전날 밤 자심(慈心)의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 “나는 생전에 적선한 것도 없고 불심도 없어 지옥으로 갈 것이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불사를 일으켜 탑을 쌓은 은공으로 극락에 가게 되었다. 그러나 그 탑의 밑 부분은 염불하며 정성을 다하여 지어서 좋으나 웬일이지 위 부분은 염불도 정성도 없이 지어져 그것 때문에 극락에 못 가고 미결로 남아 있다. 그러니 네가 이왕 나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니 윗부분의 사연을 알아서 잘못 되었거든 그 부분만 헐어 다시 쌓아 달라”라는 것이다. 자심은 느껴진 바가 있어 날이 밝은 뒤 탑에 올라가 자기가 쌓지 아니한 부분을 전부 헐어 버렸다. 이것을 본 동료나 동네 사람들이 “우리가 그대의 효성에 감동되어 괴로움을 무릅쓰고 그대 어머니 죽기 전에 완공하려고 밤을 새워가며 쌓은 탑이다. 그 탑을 헐어버린다는 것은 남의 성의를 무시한 처사다”라고 노기등등하여 대어 들었다.

자심은 어젯밤 꿈 이야기를 소상하게 말하고 양해를 구하여 겨우 납득을 시켰다. 그 날부터 자심은 전과 같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아니하고 혼자 힘으로 열심히 염불을 하며 탑역사(塔役事)를 다 마치고 탑제(塔祭)날을 정하여 탑제(塔祭)를 올렸다.

탑제날 밤 꿈에 또 어머니가 나타났는데 비단옷을 입고 연꽃 속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연꽃을 타고 자심에게 오더니 “나는 그동안 극락도 지옥도 아닌 곳에서 미결인 체 고생하고 있었다. 이제 염라대왕이 불러 대왕 앞에 갔더니 대왕이 인과업보란 본인에 의한 것인데 그대는 생전 그대의 업보로는 당연히 지옥으로 갈 것이로되 아들의 효성과 신심이 하늘에 사무쳐 오늘 아들 덕에 극락으로 가게 되었다. 가게 된 연유나 알고 가되 그대는 극락에서 아들을 위하여 축원하라고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극락에 온 것은 네 덕이라고 알려주었다. 그 뒤부터 이 탑을 자심탑이라 부르게 되었고, 죽은 부모가 극락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꼭 이 탑에 와서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고 한다.

(16) 관찰사 오도일(觀察使 吳道一)과 소금장수

오도일(吳道一)은 조선중기 숙종 때의 문신으로, 자는 관지(觀智) 호는 서파(西波) 1673년 문과에 급제하고, 1694년 강원도관찰사, 대제학(大提學), 한성부윤(漢城府尹), 병조판서(兵曹判書) 등을 역임하고, 문장이 뛰어난 분으로, 강원도 관찰사가 되어 영동지방을 순시 중 낙산사에 도착하여 빈일루 누각 위에 자리하고 그 수려한 경치에 도취되어 시를 지으려고, 시운(詩韻)을 읊조리고 있는데 누각 아래서 누군가 인기척을 하면서 말하기를 “관찰사 사도오(使道伍)의 글 잘한다는 말이 가소롭도다” 하면서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 오도일관찰사(吳道一觀察使)는 그래도 시운을 계속 읊조리니 역시 같은 곳에서 “관찰사 사도오(使道伍) 글 잘한다는 말이 가소롭기만 하도다.”하는 소리가 또 들려와 관찰사 오도일은 노하여 수행원을 시켜 어느 놈인지 찾아보도록 한즉 하인들 말이 어떤 소금장수 한 놈이 누각 밑에 소금지개를 꺾어놓고, 그 옆에서 돌을 베고 자고 있다는 말을 듣고, 다시 하인들을 시켜 그놈을 잡아 와 자기 앞에 앉혀놓고 말하기를 네놈이 어찌하여 감히 나를 비웃는다는 말인가 하니 소금장수 말하기를 “사도께서 밤이 새도록 글만 읊조리시고 잠자리에 들지 않음으로 그러한 말을 하였습니다.”하니 관찰사 오도일은 말하기를 “내가 운자를 부를 터이니 네가 시를 잘 지으면 상을 줄 것이고 못 지으면 곤장(棍杖)을 면치 못할 것이다.”하면서 일천천자(千字)를 운자로 부르니 소금장수는 곧이어 부르기를 “부천대해(浮天大海)는 동남북이요, 삽지기봉(插地奇峰)을 만 2천을시다.”하였다.

이것을 곧 해석하여 보면 “하늘에 띄워놓은 큰 바다는 동쪽, 남쪽, 북쪽 3면이 다 바다이고 땅에 꽃아놓은 기특한 봉들은 금강산 1만2천봉이 뒤가 됩니다”하니 관찰사 오도일은 “이렇게 멋진 글귀를 보고 놀라서 말하기를 자네는 과연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다.” 성명은 무엇인가 하니 소금장수는 말하기를 “천한 사람이 성명을 세상에 전하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하필 사도오(使道伍)께서 물으시니 소인의 성명만이나마 오가(吳哥)라고 불러주십시오”하고 어딘가로 사라져버렸다는 것이다.

6·25한국전쟁 전까지 낙산사 경내에 이름이 난 빈일루에 오르면 낙산사 주위 사방의 경색을 관상조망하는 곳으로 특히 시선묵객(詩仙墨客)들의 글 짓는 곳으로 유명했다. 지금은 그 자취도 볼 수 없어 낙산사의 옛 정취를 잃은 것 같다.

(17) 설악산령(雪嶽山靈)이 노하다

옛날 신흥사 승려가 탐약(探藥)하러 입산하여 밥을 지어 먹을 때에 한 남루한 의복을 입은 노파가 앞에 와서 밥을 빌기로 즉시 밥을 주었더니 그 노파가 홀연히 피신하여 그 형태를 감추고 말았다. 그 후 승려가 산에서 내려온 이튿날 피를 토하고 죽었다. 이것은 산령을 멸시킨 때문에 설악산령이 노(怒)한 것이라 한다.

(18) 물치주(沕淄柱)가 생긴 유래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에 있으며 조선조 숙종(肅宗)때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烈)선생이 함경도 덕원배소(德源配所)로부터 남하 중 이곳에서 홍수로 월천하지 못하여 부득이 이 동리 정립(鄭笠)이라는 사람 집에 체재하게 되었다. 우연히 기둥에 부친 시구(詩句)를 보니 하구(下句)가 거꾸로 붙어 있으므로 우암선생이 괴이하게 생각하여 주인에게 그 내용을 물은즉 주인 대답이 작년 금일(5월 5일)에 어떤 과객이 저 기둥[沕淄柱]에 이 글을 써 붙이면서 “명년금일(明年今日)에 어떤 손님이 지나다가 읽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과연 선생께서 이 구(句)를 읽게 되니 그 예지감(豫知感)에 주인은 탄복(嘆服)하여 그 시구를 써 붙인 기둥을 동명과 더불어 물치주(沕淄柱)라 하고 석현 우암(碩賢 尤庵)선생 체류(滯留)를 기념하였다 한다. 그 시구는

三傳市虎人皆信(삼전시호인개신) 一綴裙蜂父亦疑(일철군봉부역의)

世上功名看木雁(세상공명간목안) 座中談笑愼桑龜(좌중담소신상구)

라 하여 작시의 주인공은 후세까지 미지이나 선생만은 짐작하였으리라 믿어진다.

(19) 맹공(孟公)의 유배

태종(太宗) 7년 정해에 대사헌 맹사성(孟思誠)이 지율(持率) 박안신(朴安信)으로 하여금 태종부마조대임시충(太宗駙馬趙大臨侍寵)에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경의를 표하는 도중에 예의의 절차가 위반되었으므로 태종이 노하여 죽이려 하니 하륜성성인(河崙成城璘)이 간주하여 선생을 구하였으나 외방 유형(流刑)을 면치 못하였다.[일시상운찰방(一時祥雲察

訪)으로 전보를 시켰다] 그런데 강원감사가 관동을 순회할 때 상운을 통과하는데 맹공은 이노(吏奴)에 명령을 하여 오찬을 준비하는데 산해진미로 감사를 대접케 하고 맹공은 맥반(麥飯)을 먹었다. 출영할 때에도 역마를 타지 않고 흑독(黑犢)을 타고 나갔다. 감사가 맹공을 보고 그 특수한 것을 보고 물은 즉 맹공이 답하기를 “나는 죄인이라 감히 국마를 탈 수 없고 또 맥반은 관식(慣食)이라”하니 감사가 그 뜻을 알고 영에 돌아가 상소하여 사(赦)를 얻어 맹공을 내직으로 소상하였는데 세종조에 좌의정까지 역임하였다.

(20) 동해송금란(東海松禁亂)

광무원년(1897년)에 김홍원(金弘源)이란 자가 농상공부훈령을 수령하였다고 하면서 동해신묘후면의 임목을 벌목코자 하였다. 그때 조산 80여 호의 주민들은 동해신묘림(東海神廟林)은 신비지역으로 보호하며 금양해온 것이 500년이나 되었고 소나무를 벌채할 경우 국가제사터인 동해신묘를 신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풍으로 인해 조산리 주민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이곳을 떠나야 하므로 강경히 벌목을 반대 하였다. 관·민간에는 일대 충돌이 발생하여 최영빈(崔永彬), 최영휘(崔永徽) 등은 투옥을 당하고 선동자를 엄벌하여 영문(營門)에까지 압송하려 했다. 그래서 전주민은 합심 궤기하였고 양양군수 조관현은 농상공부대신(農商工部大臣)에게 관유지 삼림의 벌채허가를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농상공부대신은 보고를 접하고 민의를 거절할 수 없어 취소하므로써 김홍원은 도망해 버리고 사태는 평온해졌다.

(21) 과장동서지쟁(科場東西之爭)

감시 장소는 본래 병간식(并間式)이 있는데 영동 영서의 순서가 있다.

현종(顯宗), 숙종(肅宗)때부터 감사가 영동지방을 원로라 하여 병간순서에 의하지 않고 영서에만 많이 시행하여 오히려 영동 유생들은 그의 잘못을 수년을 두고 항쟁해왔다. 숙종(肅宗) 40년 갑오 9월에 역시 순위를 불구하고 원주에 감시 장소를 정하였다. 영동 9읍의 유생들이 적극 항쟁하였으나 감사 윤성준(尹星駿)이 절대 불응하므로 영동 유생들은 감시소에 들어가지 않았다. 감사가 예조(禮曹)에 보하여 실권을 시켰다. 영동 유생들은 후원(喉院)에 상소하고 감사는 예조에 상소하였으며 양양·강릉은 유생의 수

위라 하여 양군에서 3명의 유생을 영문에 유치하여 형벌을 과하였다고 전한다.

(22) 어사옥(御史獄)

부사 한진(韓鎭) 재관(在官) 시에 암행어사가 이 관내에 왔다는 것을 알고 영리한 관노를 보내 암행어사를 유인하여 옥에 가두었는데 이 어사는 도저히 탈출할 기회가 없어 대동하였던 서사(書史)를 통하여 이 사정을 상사에게 전하겠다고 진(鎭)에게 보냈더니 진이 곧 석방하자 크게 사례하면서 양양관아(襄陽官衙)는 어사옥(御史獄)이라고 하겠다고 한 것이 그 유래다.

(23) 해현총(蟹岬塚)

양양읍 사천리 뒷산에 있었다하나 지금은 어디인지는 알 수 없다. 신라시대 명주 내리군(捺李郡)에 있던 세규사(世達寺)의 장사(莊舍) 관리인으로 와 있던 조신(調信)의 15세 된 큰아들이 굶어 죽으니 해현에 묻었다. 임기가 만료된 조신이 서라벌로 돌아가고자 아들의 무덤을 발굴하니 아들의 시신대신 미륵일좌(彌勒一座)가 있으므로 그 돌부처를 깨끗이 씻어 낙산사에 안치하고 갔다는 기사가 ‘삼국유사 제3권 탐상 제4편’에 기록되어 있는 곳이다.

(24) 도취석(陶醉石)

양양에서 동방 10여리 조산리에 대포성 소강상(小崗上)에 있다. 고려 유신 조공 인벽이 새로 등장한 조선왕조를 피해서 의로써 이군을 불사한다는 고신충단으로 이곳에 은거, 둔세(遜世)하였으므로 오늘날의 조산리 마을이름을 시상(柴桑)이라 하였는데, 영일이면 이 돌위에 반극(盤極)하면서 마치 진나라 도연명(陶淵明)이 궁을 버렸다는 고사로 도취석이라고 이름하였다.

(25) 회룡굴(回龍窟)

양양에서 북방 40여리에 있다. 만취(晩翠) 오억령(吳億齡)이 친구와 같이 동거하다가 하루는 이별 하였다 한다. 그곳 당시 한 구절에 “그대는 청운에 돌아 갈 것이며 나는 청

산을 바라보고 돌아간다 라고 써있었던 것이다. 서로 이별하던 그때 눈물이 설라의(薛蘿衣)를 적시었다. 그 후 10여년이 경과하도록 간 곳을 몰랐다. 오공은 관동방백이 되어서 해상을 순화할 때에 이별했던 친우를 영랑호에서 작은 배를 타고 노는 것을 우연히 상봉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공이 말하기를 “군은 하처에 있었는가”하고 물은즉 “나는 미시령아래 화암사 마을입구에 있었고 또는 양양지방 40여리 회룡굴에도 있었다”고 한다. 오공이 그 곳을 한번 찾아 굴에 들어가니 일월이 명랑하고 주택이 화려하며 또 춤추는 아이들도 있었다. 오공이 다시 “군(君)은 어떻게 그런 곳을 알고 찾았던가”하고 물은즉 “여차(如此)한 곳이 수십처”라고 말하므로 그후 재차 찾아 갔으나 알 길이 없었다고 한다. 신참봉, 돈복, 학산, 잡록을 상세히 찾아도 이곳이 어디인지 지금은 알 수가 없다고 한다.

(26) 향산비폭(香山飛瀑)

일명 향노산폭(香爐山瀑) 이라고도 한다. 강현면 둔전리 강선천 상류에 있는데, 좌우에 노고암(老姑岩)이 있는바 그 사이에서 물이 흘러 급한 폭포를 이루고 있다. 그 폭포 밑에 백옥청담이 있어 물고기가 많다. 향산비폭은 둔전리 하구에 있으니 20여척 절벽 위에서 비류하는 광경은 장관이며, 좌우는 석별로 둘러쌓이고 수중에 층암기석이 석주처럼 돌출하여 맑고 시원한 수면은 조양석월에 경면을 이루어 선경을 환성(幻成)하고 있다. 전설에 의하면 천태산 마고가 이곳에서 목욕하였다 하여 노고천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담주위에는 백사와 백반석이 있어서 춘하추절에는 마을사람들의 시회와 놀이터로 되었다. 그런데 병자년 대홍수에 노고암 일부가 파괴되었고, 향산폭(香山瀑)이라고 크게 조각한 것은 향리사람 추병두의 고안이라고 한다.

(27) 대궐굴참(大闕窟站)

강현면 둔전리 서쪽에 있다. 둔전리에서 설악산으로 오르면 대궐참이 있다. 그곳에는 석봉이 높이 서있고 그 중간에 굴이 있다. 굴 안에는 약 40~50명의 사람이 들어가 숨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 안에는 맑은 샘이 흐르고 산약을 캐러온 사람들은 대개 이곳에서 머무르게 된다. 규모가 매우 웅장하여 세칭 이곳을 대궐참이라고 한다. 대궐참 뒤에는 선

암이 있는데 그 높이가 수백척이 되고 50~60리 해면을 바라볼 수 있다. 한해가 심할 때는 이곳에 살생기도하면 영험을 본다고 한다. 대궐참 앞에 큰 반석이 있고 그 중간에 조그마한 구멍이 있는데 꾸불꾸불 10리를 연하여 유상(流觴) 공구화 같은 기이한 형상을 하고 있다. 이 대궐굴참 부근에는 당당한 동굴이 있으나 아직 그 양상을 답사치 못 했다.

(28) 의춘암(宜春巖)

서면 소재지에서 약 3km 홍천행 도로 남대천변에 있다. 110여 평 되는 반석이 포진되고 반석 중앙에 석정 3개소가 있어 물이 사시 충분할 뿐만 아니라 목욕하면 피부, 안질에 효과를 얻으며, 반석 뒤에 석벽이 길며 여기에는 1709년 양양부사 이해조(李海朝)가 쓴 의춘암(宜春巖)이라고 쓴 세 글자가 크게 조각 되어 있고 반석 아래에는 맑고 푸른 물이 흐르고 있으며, 깊은 못을 형성하여 고기떼가 많으므로 낚시꾼이 끊이지 않는다.

(29) 기생담(妓生潭)

양양에서 서남방 2리 한수(남대천) 상류(서면 용천리), 세간에 전하여 오는바에 의하면 익령(翼嶺)이라 칭할 때 기생이 산정 바위 위에서 춤을 추다가 바람에 싸여 절벽 아래 담수에 떨어져 죽었으므로 기생담이라고 한다.

(30) 중구봉(重九峰)

손양면 하왕도리에 있는 봉으로서 산봉우리가 9개 겹쳤다는 이곳 중구봉은 도로에서 송포학교로 향해 10리를 걷자면 9봉을 다 볼 수 있으며 9봉은 봉마다 풍수적으로 명산이라고 한다.

(31) 함창봉[(含蒼峰), (咸昌峰)]

설악산 영봉을 맞이하러 북주(北走)하는 오대산의 여맥이 동으로 떨어져서 정족산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높이 솟아 와리상봉이 되었다. 준엄한 기상은 후중불천(厚重不遷)하는 태고성을 가지고 있다. 울창한 수림 속으로 조도와 같은 좁은 길을 타고 올라가면

암석도 없는 순전한 육산으로 되었으나 높이가 해발 천여척이나 되는 손양 최고의 고지이다. 마치 서제(樓梯)를 공중에 걸어 놓은 듯 상제의 옥계를 밟는 것 같다. 기우하던 옛날 터에 희생의 피 흔적이 석면에 물들인 채 비에도 지지않고 완연히 남아있어 이 봉의 영험함은 지금까지도 추모를 가시지 않게 한다. 그런데 이 봉 이름에 대하여 소개하자면 이론이 구구하다. 한학자 의헌 김성기(毅軒 金聖基)의 기록에 남겨 놓은 함창봉등척기(含蒼峰登陟記)에 “한창봉”이라고 써있다. 그러면 “한(韓)”은 “대(大)”와 동일한 의미로서 유연한 천연체가 천고에 태도를 옮기지 않고 기세가 크게 왕성하다는 것을 의미한 것도 같다. 그리고 현대지방 인사들의 전하는 말에 의하면 강릉함씨가 양양에 준거한 후 와리를 중심으로 여러 대를 살았으므로 땅의 주인공으로서 이 봉 이름을 “함창봉”이라고 하였다는 등 이 산 이름에 대한 견해가 분분하다.

(32) 쌍호(雙湖)

바로 오봉 뒤편이며 적성[지금의 학포리] 아래와 송전리 앞까지 양계로 나뉘어 있다. 주위는 약 10리에 한낱 경면을 벌려놓은 듯 담결청허(淡潔淸虛)하다. 수심은 5척정도로 깊은 것은 아니나 이어방해등속(鯉魚螃蟹等屬)이 다산하며 순채(蓴菜)가 극가(極佳)하여 구한국시대에 쌍호의 해합(蟹蛤)이 진상에 공하고 능인순채(菱仁蓴菜)는 봄 가을 석존대제에 수공(需供)되고 있었으나 지금은 볼 수 없다. 호수도 좋거니와 쌍호의 이름을 높인 문장달사(文章達士)도 많았다.

조선 중엽 수의사도(繡衣使道)로 영동지구를 순찰하던 박민헌이 사명을 마치고 어전에 주달(奏達)할 때 양양을 본 감상을 아뢰는데 “어산에 견설악 어수에 견동해 어인에 견쌍호(於山 見雪嶽 於水 見東海 於人 見雙湖)”라고 하였다. 쌍호란 강릉최씨의 참봉으로 불취하고 적성에 은거하던 최도명(崔道鳴)의 호가 즉 쌍호(又號)다. 땅에 준거하면서 명호를 취해서 시호를 가졌다는 것과 또 박어사가 최도명의 인물을 경모해서 주달한 것만은 사실이겠으나 최도명으로 해서 호수가 이름을 날리게 되었든가. 그렇지 않으면 명호가 있으므로 해서 그가 호를 얻게 되었든가에 있는 것이다. 이 호수는 송전리에 한한 명당수라고까지 하리 만큼 쌍호의 위치와 승경을 가히 알 수 있다.

(33) 쿵쿵산

손양면 가평리 동쪽 지점에 있는 조그마한 산인데, 이 산에 올라 발로 구르면 마치 북을 치듯이 쿵쿵 하는 소리가 지금도 난다. 전설에 의하면 그 옛날 하늘에 있던 북이 떨어져 이 산 밑에 묻혔다고 하여 북방망이는 오산봉이 되었다고 한다. 그 산속이 비어있는 것인지 내부의 일을 아는 이가 없으며, 전설에 의할 따름이다. 옛 지사(地師)가 “삼대지하연화부수국(三垓之下蓮花浮水局)”이라 하고 정 철(鄭澈)의 혈압지라고도 한다. 또 천고하락지(天鼓下落之地)라는 전설도 있는 신기한 쿵쿵산이다.

(34) 송림사지(松林寺址)

손양면 송전리 해변가에 고려시대에 세워졌던 절로서 30여년 전만 하여도 주춧돌이 있었고 상당히 큰절로 추측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연대나 창건자는 알 수 없다. 송림사가 있었던 곳을 금강리라 일컬어 왔으나, 200여년 전에 송전으로 개칭되었으며 큰 노송이 한 그루 서있으나 그 당시에는 다섯 그루가 있었고 제주송이라고 한다. 절터에 있던 주춧돌은 지방민에 의해 거의 없어지고 별로 남아있는 것이 없고, 수년 전만 해도 이 절터에서 돌창, 돌칼, 옥구슬, 유리구슬 등 여러 가지 유물이 나왔다. 현재 절터 부근은 모래밭에 옛기와 조각 여러 빛깔의 조각이 흩어져 있다.

(35) 수산굴암자(水山窟庵子)

손양면에서 정동으로 4km지점의 수산진 봉수대 아래에 있다. 남쪽으로 하조대를 바라볼 수 있으며 북쪽으로 오봉을 바라보고 있다. 육지로는 수산진의 청룡 끝이다. 산을 타고 바로 내려갈 수도 있지만, 낙산사를 구경하고 일엽편주로 전진바다를 떠나 오봉을 바로보고 해협을 끼고 돌아 절벽만장하에 다다르면 좌우로 병풍과 같은 석벽이 삭립하고 중간으로 굴이 통하여 파도가 몰아 들어갔다가 석면에 마주치고 다시 돌아나오니 마치 낙산사 관음굴을 보는 것과 흡사하다.

관동으로 모여드는 관광객들이 낙산사 석굴암을 보고는 반드시 여기를 찾게 되지만 특히 조선시대에 문장이던 택당(澤堂) 이식(李植)이 강원감사로서 영동을 순시하다가 이 석굴을 찾아보고는 노룡잠처운개굴 오수격시해월성[老龍潛處雲開掘 鰲水激時海月

聲) : 늙은 용이 잠기는 곳에 구름은 굴을 열었고, 놀란 물이 부딪칠 때에 바다달의 소리로다]이라는 시구(詩句)를 토(吐)한일까지 있다.

(36) 천치산(泉峙山) : 샘잿산]

해발 약 200m의 높이를 가진 이 산은 현북면 말곡리와 상광정리 사이에 자리잡고 있다. 전설에 의하면 이곳 산 중턱에서 장수가 났으며 그가 샘물을 마시던 곳에는 두 손을 잡고 엎드린 손자위가 바위에 새겨져 있다. 이 산에서는 장수가 나고, 손양면 여운포리 누룩바위에서는 백마가 나서 이 백마를 타고 현북면 중광정리 독송정 뒷산 소나무에 매고 산천을 두루 살피며 수양하였다고 한다. 이 소나무가 5년 전 없어졌다.

다른 전설에 의하면 이 천치산 상봉에서 장수(위인)가 나타나려고 산이 들먹거리니 장수가 가면 장차 일본인을 몰아낼까 두려워 당시 왜놈들이 동리사람들을 시켜 철봉을 산봉에 박아 혈을 질렀다고 한다. 그리하여 장수는 나오지 못하고 이미 손양면 여운포(누룩바위)에서 나온 백마는 장수를 기다리고 울다가 장수가 나타나지 않으니 그만 어디론지 사라지고 말았다고 한다.

(37) 국사성황송(國師城隍松)

현북면 말곡리와 풍암동 사이 고개마루에 성황나무로서 약 600년 전 나무로 추정된다. 둘레가 4m를 넘는 웅장한 나무로서 이 고개를 넘나드는 행객들이 휴식하는 곳으로 유일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오래된 나무이나 고송답지 않게 아주 싱싱하게 자라고 있으며, 특히 6,7월의 복시기에 이 고개를 넘다가 이마에 흐르는 땀을 이 고송 밑에서 씻을 때의 상쾌한 기분이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우며 누구나 지나갈 때는 한 번씩 탄복한다.

(38) 어성전십경(漁城田十景)

약 400년 전 마을의 서북방에 어성사가 있어 어성전이라 하였으며, 현재 절터에서 당시의 것으로 추측되는 기와 조각이 나온다. 또한 산환여성 수심가어(山環如城 水深可漁)라 하여 마을 이름을 어성전이라 한다고 한다.

어성전에 경치 좋은 곳 십경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花登落照(화등락조) : 진달래꽃이 한창일 때의 낙조의 아름다움
- 雲門川石(운문천석) : 냇가에 솟아 있는 맑고 아름다운 바위
- 爐峰明月(노봉명월) : 높은 산위에서 비치는 월출의 아름다움
- 帽岩漁笛(모암어적) : 바위에 걸쳐 앉아 낚시하며 피리소리 듣는 평화롭고 한가한 풍경
- 高積浮雲(고적부운) : 높은 산정에 겹겹이 쌓여 있는 구름의 아름다움
- 奈川遊漁(내천유어) : 맑은 물속에 고기떼 노니는 모습
- 銀潭瀑布(은담폭포) : 마을의 서북방에 있는 은빛 폭포
- 龍沼鳴灘(용소명탄) : 소 주변을 흐르는 물소리의 아름다움
- 山寺暮鐘(산사모종) : 명주사의 저녁 종소리
- 鳥峴煙樹(오현연수) : 저녁연기 감싸인 숲 위로 까마귀 날아가는 한가한 저녁노을 풍경

(39) 상운정(祥雲亭)

손양면에서 남으로 5km 지점의 상운리 해변에 있다. 주대(奏代)에 봉작(封爵)을 부끄러워 하고 외로이 동해변에 홀로 서서 염량세태(炎涼世態)에 쓰고 단맛을 보고 풍상우로(風霜雨露)에 시달려 늙은 일주장송이 창창울울(蒼蒼鬱鬱)하여 마치 푸른 천막을 펼쳐 놓은 듯 주밀(稠密)한 지엽(枝葉)은 태양도 셀수 없고 언건(偃蹇)한 적송은 벽해창용(碧海蒼龍)이 하늘로 오르는 듯하다. 일석단침(一席簟枕)에 한가히 누웠으면 한줄기 바닷바람이 술 그늘에 사무쳐서 상연한 맑은 맛이 홍금을 쇠락하고, 한 곡조 거문고소리 천연락(天然樂)을 알릴적에[우습다 세상사람 흥진에 몸이 빠져, 흥로같이 성한더위 괴롭다 탄식마소, 시원한 여름다락 나 홀로 산신인가하노라.] 부채장단에 부르는 시조지상선(時調地上仙)이 그 아니라. 앞으로 바라보니 연포의 누룩바위 주천당 술 비져내고 독송정에서 보내는 글썽 연포로 흘러든다. 체마송의 터는 자취가 히미하다. 송정의 석태(石苔)만 남아있지만은 역찰방으로 상운관(祥雲館)에서 머무르던 제주도 출신 장한철(張漢哲)이 소슬(蕭瑟)한 가을 바람에 이 정자에 올라와서 읊은 사향시(思鄉詩) 한 수(首)가 남아 있을 뿐이다. 이 정자와의 직접 인연을 가졌었던 시가 남아 있다.

異鄉官客謾愁秋 獨獨亭松立海頭 回首扶赤千里外 紅雲歸會是瀛洲

이향관객만수추 독독정송입해두 회수부적천리외 홍운귀회시영주

(40) 청풍정(淸風亭)

위치는 손양면 하왕도리 중간산록으로 동해안을 통하는 국도가두에 수주고송(數株古松) 이 창수적갑(蒼鬚赤甲)으로 청음을 불개하여 삼연(森然)한 정지를 이루고 있어서 동으로는 광개(曠開)한 동면평야를 앞에 안고 오봉을 바라보며 남으로는 오대영봉인 정족산과 함창봉을 조망하고 있다. 이 정자는 이석와(李石窩)가 송음을 사랑해서 그 이름을 준 것이다. 원래 이 자리에 정각은 없었으나 자연미를 독점한 일말편구(一抹偏邱)에 가히 수십명이 반환(盤桓)할만한 석태를 축조하고 래인거객(來人去客)의 후식처로 혹은 시우주봉(詩友酒朋)의 반영처(飯詠處)로 해동에 유명한 승지라고 지점해 오던 터이다. 또 한가지 이 청풍정에 대한 유래를 소개하자면 자연 전설과 같은 한 토막 실화를 열어 놓지 않을 수 없다. 근 550여년 전이다.

세조가 이 애환이 있어 평창 월정사에서 정양(靜養)하다가 신불이 영험을 주하지 못하여 낙산사로 거동을 옮기던 도중 때는 성하혹염(盛夏酷炎)이라 이 송정에서 용가(龍駕)를 멈추시고 서퇴(暑退)를 하면서 위로를 풀었다. 그래서 마을명 “판교(板橋)”를 고쳐서 왕도라고 하였다. 일제강점기 이후에 왕(王)을 왕(旺)으로 전개한 것이다.

(41) 아홉무지골

현북면 어성전리에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의 이야기이다. 겨울철에 눈이 왔다고 하면 산에는 2m를 넘을 정도로 온다. 산촌 마을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겨울이면 눈 오기를 기다린다. 기다리던 눈이 오면 썰매와 설피를 준비하고 손에는 날카로운 창을 들고 원시적인 사냥에 나선다. 어느 겨울 눈내리는 날 아침 마을 장정 일행 10명은 곰과 되지 발자국을 따라 사냥을 떠났다. 마을에서 동서방 약 4km까지 서로 앞을 다투어 눈을 헤치면서 전진하였다.

추위와 싸워가며 가다보니 너무 지쳐서 한곳에 모여앉아 쉬기로 하였다. 그중 한사람은 용변을 보기 위해 그곳에서 10여m 떨어진 곳에 큰 다래덩굴이 있었으므로 그 밑에서 용변을 보며 우연히 앞산 허리를 올려다 보았다. 보는 순간 깜짝 놀랐다. 그 큰산이 움직이는 것이었다. 눈사태가 난 것이다. “우르릉”하는 소리와 함께 눈이 밀려 내려와 그들을 덮어버리고 말았다. 그 눈산에 이 사람도 덮쳤으나 간신히 뚫고 나왔다. 그러나

아홉 사람은 그대로 눈산 속에 묻혀 버리고 말았다. 허둥지둥 마을 장정들은 동원하여 구조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돌처럼 다져져 있어 파낼 도리가 없어 눈물로 되돌아 왔다. 온가족들은 눈물로 한해 겨울을 지내다가 이듬해 봄 눈이 녹은 뒤에 비로소 아홉 사람의 시체를 찾게 되었다. 장정 9명을 한데 물어버린 죽음의 골짜기이므로 아홉무지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42) 기사문수(奇士門水)

현북면 기사문리에 있다. 기사문 북방 관현(館峴) 아래 소천물과 기사문 남방 하천물이 기사문리 바다로 들어간다. 두 하천 거리가 약 반리 가량 되는데 관현수와 기사문수가 합류하게 되면 세상이 요란하게 되는 징조가 있다고 한다. 옛 노인이 말하기를 선조 임진, 인조병자, 고종무신, 기미년운동, 만주사변 발생 전년에 모두 합류하였다 한다.

(43) 제주송(濟州松)

제주송은 인구2리 입구에 있으며 연륜이 약 120년 쯤 되며 나무의 가지가 뿌리쪽으로 내려드리우며 자라는 것이 특징이다. 마치 양산모양으로 보이고 제주도에서 유람 온 사람이 가져다 심었다 하여 제주송이라 한다.

(44) 용소동(龍沼洞)

현남면 북분리 동남방에 용소동이 있는데 때는 알 수 없으나 추측으로 조선중엽 때 현 용소동 우물에서 용마가 나서 장사고개 까지 가서 상당히 오랫동안 장사를 기다리고 울다가 주인(장사)없는 말이 되어서 켄비골에 가서 없어졌다 하므로 용소동이라고 한다.

(45) 매호(梅湖)

포매리에 있는 주위 1리나 되는 호수 중에 배 모양으로 된 산이 있고 매화가 만발하여 있었기에 매호라 부르고 지명을 포매(개매)라 하며, 혹은 말하기를 개매호(蓋馬湖)라고도 한다. 이 산에는 호석정(湖石亭)이란 정자가 있었는데 현재는 석대만이 있으며 풍경이 맑고 아름다워 매호십경이 있다.

매호십경(梅湖十景)

- 望景歸雲(망경귀운) : 만경대에 떠돌아가는 구름.
- 城岬駭雪(성상박설) : 성재봉의 얼룩진 눈.
- 壯洞清流(장동청류) : 장동골의 맑게 흐르는 시냇물.
- 五松暮鶴(오송모학) : 오송정 저녁 때의 백학들.
- 見佛拜巖(견불배암) : 견불의 절하는 바위(굽정바위)
- 湖石淸風(호석청풍) : 호석정의 맑은 바람.
- 前浦明月(전포명월) : 앞개에 맑은 달빛.
- 曲湖釣梁(곡호조양) : 곱장개 낚시터의 정취
- 南涯浮島(남애부도) : 남애 앞바다에 뜬 섬.
- 陽也歸帆(양야귀범) : 양양도의 석양빛 받은 범선

(46) 화상암(和尚岩)

현남면 입암리에 있는 반석으로 약 300여년 전 도경(蹈耕) 최운우(崔雲遇)가 어린 시절에 외가에 와서 자랄 때 여러 아이들이 냇가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노는데, 다른 아이들이 잡은 고기를 도경은 도로 물에 넣어 주었다고 한다. 이때 지나가던 도승이 그 광경을 보고 기이하게 여겨서 그 이유를 물은즉 “고기가 활발히 살아가는 모양이 보기 좋아서 도로 물에 넣어 주었다”고 대답하였다. 도승은 그 아이를 바위에 올려놓고 합장배례를 하고 장래에 귀하고 어진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축원하고 갔다하여, 이 바위를 도승의 이름을 따서 화상암이라 불려오며 도경 최운우의 묘지는 현남면 원포리에 있어 그의 후손들이 지금도 이곳을 지나갈 때는 배례를 하고 지난다고 한다.

(47) 홍문산(紅門山)

현남면 정자리에 있으며, 전설에 의하면 대과에 등과하여 홍문에 출입할 인재가 출생할 묘지 또는 집터가 이 산 모처에 있다하여 홍문산이라 부른다.

(48) 월포대[(月浦臺) : 화동포]

현남면 하월천리 화동 입구에 있는 높이 10m의 장엄한 폭포이며 밑에 있는 계곡이 반월형 이어서 월천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하여 월포대라고 한다.

(49) 시루봉

현남면 하월천리에 있으며, 시루같은 봉우리에 6, 7명이 앉을 수 있는 넓은 바위가 있는데 명산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찾아온다고 한다.

(50) 냉천(冷泉)

세전 관음이 여자로 변하여 벼를 벨 때에 원효가 와서 냉천을 마시면서 관음을 희롱 하던 곳이다. 이 냉천은 강현면 답리에 있는데 신경통 습기병에 특효하다해서 여름철에는 부녀자들이 머리도 감고 목욕도 하기 위하여 원근각지에서 모여들고 있다.

(51) 쇠주골

강현면 답리 냉천이 있는 곳의 지명이다. 현재는 매몰되어 자취도 없어졌으나 지금부터 40여 년 전만 해도 그곳에 맑은 샘물이 용출하여 이를 냉정이라 일러 피부병, 눈병 등을 이 샘물에 씻으면 낫는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었다고 한다. 이 냉천이 용출하던 곳이라 하여 쇠주골 냉정터라 일러왔다.

(52) 삼형제송(三兄弟松)

강현면 전진리 지금의 잠업센터 바로 앞에 있었던 수백년의 연륜을 가진 커다란 소나무가 밑부분에서부터 2m 높이까지 1본이고 그 상부부터 세 갈래로 갈라져 똑같이 성장 하였으므로 이를 3형제 솔이라고 일렀다. 현재는 존재하지 않으나 이 소나무의 전설로는 2m 상부로부터 세 갈래로 갈라진 그 사이에 돌이 던져서 떨어지지 않고 그 사이에 언치면 아들 3형제를 낳는다는 재미있는 전설로 오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돌을 던져 성황당의 돌더미처럼 많은 돌이 쌓여졌다. 일명 관음송이라 불렀다.

(53) 진수(眞水)골

양양읍 기정리[터골]에서 용출하는 샘물을 진수라고 했고 그 샘물이 솟는 곳을 진수골이라 불러왔다. 조선조 세조가 신병요양을 낙산사에서 하게 되었을 당시 세조의 음료수를 선택코자 본군내의 샘물을 일일이 감정하였던 바 진상한 기정리 샘물이 으뜸으로 이를 세조가 애용하였던 바 이로 인하여 유래되었다.

(54) 태몽(胎夢)바위터

양양읍 포월리 양지마을에 있는 집터이다. 집터가 하도 좋다고 널리 알려졌기에 강릉 김모가 이곳에다 집을 짓고 살았는데 하루는 부인의 꿈에 집 앞에 보이는 설악산에서 굉장한 큰 바위가 굴러 내려오더라는 것이다. 부인은 얼른 치마로 바위를 받았다. 힘에 겨워 끄끌 거리다가 잠을 깨었는데 과연 얼마 안가서 태기가 있었고 옥동자를 분만하여 이름을 바위(岩)라 불렀다. 이 아이는 성장하여 과거에 급제하여 진사가 되었다고 한다. 6·25 한국전쟁 때 전 마을이 불탔지만 이 집만은 그대로 남아 수복후 전동민(全洞民)이 한동안 기거하면서 새로운 정착지를 마련했다고 해서 더욱 유명하다.

(55) 홍련암약수(紅蓮庵藥水)

홍련암에 있는 약수는 맑고 시원하기로 이름나 있다. 원효대사가 영혈사를 창건한 다음, 하루는 의상조사를 찾아 지금의 홍련암에 갔었다. 그때 홍련암에는 식수가 없었으므로 원효대사가 도술을 부려 갖고 있던 지팡이로 영혈사쪽 산허리를 찌르니 샘물이 용출하였다. 영혈사에서 씻던 쌀뜨물이 간혹 섞여 흘러나왔다는 것이다. 이 샘물은 여름철에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고 방문객에게 애음(愛飲)되고 있다.

(56) 칠성암(七星岩)

손양면 수여리 바로 관덕정 앞 소두록(小斗麓)인 수여리권 번지내 과거 이종율의 집 앞에 7개의 기괴한 암석이 마치 북두칠성과 같이 모여 앉았다. 특히 기이한 것은 7개 바위 중에 6개는 주위로 돌아 박혔고 제일 크고 넓은 반석이 중앙을 점령하고 앉아있어 마치 별들이 공지(拱之)하는 천문도를 펼쳐 놓은 듯하다. 바로 이기재(李夔在)(고종 30

년 계사)가 이 바위 위에서 시서를 독서하여 융희황제 즉위 첫 성전인 갑술과(甲戌科)에서 급제하셨다.

(57) 관덕정(觀德亭)

고월산 줄기가 동으로 수여리 뒤를 싸고 흘렀다. 바로 양양에 대가인 흥덕가택 뒤 산록이다. 뒤로는 남대천을 등에 지고 앞으로는 동면 평야가 놓였으며 동으로는 오봉과수산봉수대를 가까이 바라보고 서로는 구탄봉이 내려다 본다. 여러 그루의 소나무가 수백년동안 자양해오는 우로의 자연완부를 받으면서 울울창창하여 자연정을 이루어서 경색도 청숙하지만 조선시대에 예인재사(藝人才士)들이 모여들어 궁예를 습득하던 수도장이다.

논어에 “군자무소쟁야 기쟁야일군자(君子無所爭也 其爭也一君子)”라 하였으니 여기에는 가히 덕을 볼 수 있는 것이라 해서 정의 이름을 관덕정이라 한 것이지만 왜적이 우리나라에 통감부(統監府)를 설치하고 내정을 간섭하며 오영문군사(五營門軍士)를 해산하던 당시 한국인의 궁예술까지 금지하는 바람에 폐지되어 빈 정자로만 내려오다가 약 50년 전에 이 정송까지도 없어지고 지금은 그 유지만 남아 있다.

(58) 구봉(九峰)

적성동이라면 지금의 학포리다. 정족산의 한줄기가 동으로 흘러 적성동 뒷산맥이 되고, 또 다시 흘러 쌍호 머리에서 그쳤다가 똑 떨어져서 오봉이 되었거니와 이 적성동 뒷산 중심봉이 따로 적성동을 겹겹이 싸고 아홉 번이나 감아돌아 구봉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봉에 올라보면 양양 전경이 사방으로 일목통관하리 만치 활연하지만 통찰이 심수(深邃)하여 별용연하(別用烟霞)가 가히 무이구곡에 비하리만하다. 손와(巽窩) 최도명은 이미 인지심을 함양하여 쌍호를 자랑하는 지적심성과 구봉을 사랑하는 인적심성으로 복거(卜居)하여 역학을 공부하고 소사불취(召仕不就)하면서 세상을 둔망(遽亡)하고 운림의 낙(樂)을 취하였다. 지금 그 자손이 대대로 주거하여 수십호의 대문벌을 이루고 있으며 봉우리 아래 돌 위에 “적성동”이라는 글자가 조각되어 이끼에 파묻힌 채 고인의 필적을 말하고 있다. 깊은 인연을 두고간 최손와(崔巽窩)의 필적이 아닌가 한다.

(59) 체마대(遞馬臺)

상운관의 동쪽으로 내려다보면 왼편으로 바다가 임하고 오른편으로 연포를 낀 백사창송 넓은 곳에 중앙으로 큰 길이 통하고 있는 곳이 체마대이다. 이 대는 조선조 상운역 시대에 우마가 교체하던 곳이다. 물론 그 시대에 찰방이 주차(駐紮)하고 수의사도(繡衣使道)가 내려 홍백패(紅白牌)가 날릴적에 산천초목이 벌벌 떠는 듯 이대에서 위풍이 선 듯선듯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시대가 옮겨지고 역제도가 철폐된 오늘날의 사람으로서는 이 대의 이름조차 기억할 수 없다. 신설된 동해철도 연변에 버려진 채 비오고 바람 찬 긴 세월을 지키는 동안 무정한 봄풀이 폐허의 눈물을 저어낼 뿐이다.

(60) 구탄봉(九嘆峰)

함창봉에서 바로 서쪽으로 약 500m 거리로 마주보는 산이 구탄봉이다. 그런데 산명은 구탄봉이라고 하기까지에 물론 거기에 대한 유래도 있거니와 또 근사하게 전하여 내려오는 속설도 많은 것이다. 고려시대에 지술가로 유명한던 도선(道詵)이 오대장맥(五垵長脉)을 타고 들어오다가 지진두인 남대천 머리에 다달아 동으로 흘러가다가 이 산세를 바라보니 반드시 여기에는 명당이 숨어 있을 것을 짐작하고 두루 더듬어 보았으나 찾을 길이 없었다. 그래서 탄식하고 내려와서는 다시 쳐다보고 또 올라가서는 탄식하기를 아홉 번이나 하였다. 그래서 구탄봉이라고 하였다한다. 또 향간에서 전하는 말에 의하면 양양의 안대산은 화산이었다. 그래서 이 화산을 앞에 놓은 양양에서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년 춘추 2회씩 이 산상에서 무녀를 불러들여 굿놀이를 하였다. 그래서 굿터봉이라고도 전하고 있다. 이 봉을 수위로 열두봉우리가 중중(重重)히 양쪽으로 늘어섰으니 무산(巫山) 12봉이라고 말한다. 이 상봉에 올라서면 주위경관이 안하에 전개하였으며 삼삼(森森)한 수림들은 천년림을 이루고 있다. 백리장강의 남대천물은 굽이굽이 산밑을 안고 돌아 동해로 흘러가고 설악에서 쏟아지는 일진폭은 정방향으로 마주친다. 산이 체용도 좋거니와 골 이름도 기묘하니 이 산을 찬미하기에는 자연동명[곤우쥘]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임천리에 함평이씨라면 한참 구한국시대에 대소과(大小科)가 쏟아져서 사관으로나 문한(文翰)으로나 양양의 갑족이라고 하리만치 가성이 진진하였지만 또 그 이씨문중에서도 제일 문한이 좋고 가세가 부요(富饒)하여 만석꾼이

라고 호칭하든 이교환씨의 조부 산소가 이 골안에 들어와서 미좌축향으로 앉게 되었다. 그때 묘지를 점택하던 지술가의 판정이 “천곤장익(天鵬張翼)” 하늘의 곤조가 나래를 펴고 앉은 형국이라고 크게 소리를 높였다. 그래서 이 지명을 곤우꼴이라고 불러온다.

(61) 독송정(獨松亭)

일근삼주의 백척장송이 언건(偃蹇)히 연포에서 남으로 광정리에 이르는 국도연변에 올립(兀立)하였으니 속칭 삼형제송이라고 한다. 높이는 창천을 찌를 듯하고 지음은 약 50여평 주위를 덮으리만치 울창하여 사시의 청음이 떠나지 않으니 성하북염에 남양지로 피서객들이 초만원을 이루거니와 그 활련한 승경은 양양을 모르는 사람도 독송정은 안다. 동은 경파만리(鯨波萬里)의 무한한 대해를 열어놓고, 남은 하조대를 마주 대해 보며, 서로는 연포의 맑은 호기(灝氣)를 흡수하고, 북으로는 수산봉수대와 석굴 그리고 오봉을 바라볼 수 있다. 이 정자에 오른바 있는 정송강의 시 일수가 있다.

幅圓山水裡 灝氣滿寒亭 萬里雲開境 千年地有靈
 風前琴韻淡 月下酒盃停 孤鶴南飛去 海天一色青
 (폭원산수리 호기만한정 만리운개경 천년지유령)
 (풍전금운담 월하주배정 고향남비거 해천일색청)

산수의 경치가 한폭의 그림같은 속에, 맑은 기운이 빈 정자에 가득하다. 만리 푸른하늘 구름거둔 땅이요 천년된 땅에 신령한 기운이 있도다. 바람 앞에 거문고 소리는 말고, 둥근달이 잔속에 잠기는 구나. 외로운 학이 남쪽으로 날아가는, 바다와 하늘은 한빛으로 푸르기만 하다.

구한국시대 평양 연광정 앞에 심지도 않은 일체삼주의 연연송이 표연히 생장하고 있었다. 점차 자성하게 되자 외피부에는 [海東亭松移來于此(해동정송이래우차)]라는 팔대자의 흔적이 완연히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양양독송이 옮겨간 것이 사실이라고 백여 년을 두고 한참 떠들었다. 여기에 정송은 늙으리 만치 늙고 부패해서 지금은 그 뿌리조차 없어졌다. 연광정 앞에서 갱생(更生)하였다는 신비한 일화를 가지게 된 채 유지와 함께 옛날의 이름을 팔고 있다.

(62) 연포(連浦)

누룩바위 아래에 펼쳐져 있다. 호수는 그다지 호대한 편은 아니지만 수색이 징청(澄淸)하여 물 밑에서 노는 고기를 일일이 셀 수 있을 만 하다. 포변양미(浦邊兩尾)에 늙은 옛 버들은 전조인의 수종으로 지금까지도 조우모연에 천년물색을 띄고 있어서 [무정최시대성유 의구연룡십리제(無情最是埧城柳 依舊烟籠十里堤)]라는 장대유와 같이 쇠한 가지 천백사에 황조의 몸을 싣고 삼월동풍 가지위에 환우성을 불러내니 이감두주동산하(離柑斗酒東山下)에 듣기는 좋으려면 전대변화는 지나간幻境(幻境)이라 [만엽황리공호음(滿葉黃鸝空好音)]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 “연포(連浦)”라고 한 이 호수의 유래는 속전(俗傳)에 국가소연(國家騷焉)할 때에는 호수가 중간으로 개척하여 해수와 연통한다는 의미였었는데 현대에 마을명으로 화하여 여운포(如雲浦)라 칭하고 있다.

(63) 해암(蟹岩) : 게바위

오대장맥(五埧長脈)이 남대천 머리에서 용을 돌려 가늘게 동으로 흐르는 곳에 고월산(古月山)이 솟아 있고, 그 줄기가 다시 뻗어서 가평후산이 되었는데 바로 그 가평후산록단두(柯坪後山麓端頭)로서 한강물이 똑갑소를 지나 이 머리에서 다시 구비쳐 감아돌아 나오는 곳이다. 남대천 물줄기를 타고 가평을 내려가는 길 허리에 광대한 암석이 흡사 복해형(伏蟹形)을 이루고 반신은 물에 잠긴 채 반침반부(半沈半浮)로 완연히 놓여 있다. 암면은 평관하여 가히 수십 인의 좌석을 공하리 만치되어서 행객들의 휴식처로 유자들의 노래터로 백리한강의 만고풍연을 관령하고 수백십인의 옥호(玉壺)를 깨뜨릴 제 동해진미는(계장)이라 천연신공이 이름만 가지고도 술잔 마시는 자의 구미를 돕는 것이다. 이 암상에 돌아앉아 사방을 바라보면 만목경색(滿目景色)이 곤주승지(袞州勝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으로는 남대천 하류가 유입하는 해문이 열려 있고, 서로는 현산을 바라보며, 북으로는 낙산사 빈일루의 용틀임한 단청빛이 은연히 구름속으로 보이고 있다. 오른편으로 100m 거리에 불과하는 고월산이 가로 막아 서서 오대산고지에 쏟아져 내려오는 사나운 바람을 울타리 하고 있다. 산승도선(山僧道諺)이 영동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산천을 역람하다가 오대산 회룡을 쫓아 동으로 흐르는 고월산 줄기를 타고 내려오다가 이 해암을 절찬하면서 착해방수형(捉蟹放水形)이니 반드시 여기에는 명당이 있다고 하였던 것

이다. 그래서 지금은 주인도 모르는 무덤들이 백골천총(白骨千塚)를 이루고 있다.

(64) 국암(麴岩)

상운관에서 남으로 바라보는 연포상두에 암석이 마치 누룩덩이를 쌓아놓은 듯이 천연한 모양을 이루고 있어서 삼척동자라도 한번 보면(누룩바위)라고 이름을 붙이리 만치 기묘무쌍한 것이다. 체마대와 상운정은 북으로 정대방이 되어 있고 정족산과 함창봉의 준엄한 산세가 서(西)로 과거(跨踞)해 있으며 앞에는 연포가 놓여 전망하는 경상도 조하거니와 이 누룩바위가 생겨 있자 그 앞으로 주천당(酒泉塘)이 생겼다는 것은 조물주도 펴으나 술은 사랑하였던 것이리라. 봄꽃과 가을 바람에는 행인들이 이 바위를 바라다보고 주천당에 엮드려 양대로 마시고나면 자연히 취해져서 해갈이 된다고 한다. 국암의 이름은 동향에 가득차서 내외관반(內外官班)들도 원일견지(願一見之)하던 차에 선조조에 좌상이던 정 철(鄭澈) 대감이 처음 강원감사로 왔을 때에 동해지구를 순례하다가 이 바위를 찾아보고 묘하다고 절찬한 후 이 바위가 존재하는한 반드시 후세에는 술로 인한 권자가 날 것이라는 지술학적인 견지에서 이 바위의 상부를 파괴하고 말았다. 그 문어진 자리가 430여년을 두고 정송강의 지낸 자취를 인상 깊게 남기고 있거니와 주천당의 물맛도 그만 변해지고 말았다는 속설도 전하고 있다.

(65) 오봉(鰲峰)

손양면에서 정동으로 3km 해변평지에 불두형과 같이 둥그렇게 해문을 막고 돌연 올립(兀立)하여 있다. 앞으로는 만리대해를 굽어보고 뒤로는 쌍호를 짙어졌으며, 남으로는 수산석굴과 봉수대를 옆에 끼고, 북으로는 의상대와 동해묘를 바라보고 있다. 봉상에는 수백 인이 두류(逗遛)할 만한 범위로 평관하여 남녀창객과 노소시인들의 놀이터로 수천백인이 사시자유를 허하거니와 올라앉아 사방을 조망하면 흉금(胸襟)이 활연(豁然)하여 육근벽체(六根壁滯)가 일시에 관통하는 듯 오두해활심여대 봉배천장기육신(鰲頭海濶心如大鵬背天長氣欲伸)：“오봉머리에 바다가 넓으니 마음도 상쾌하고, 봉세 등에는 하늘이 높으니 기운도 펼 것 같다.” 부르게 된다. 청산불노오하재 백발동태노우래(靑山不老鰲何在 白髮同泰鷺又來)：청산은 늙지 않는데 오봉은 어느 곳에 있는고, 백

발이 함께하니 해오래비는 또 오도다. 오봉시에 압축(壓軸)을 자랑하던 주인공은 일찍이 조선조말엽 양덕현감을 지내고 본면발포(本面鉢浦: 지금의 도화리 바래월)에 은거하시던 추원 송달현(秋畹 宋達顯)의 걸작이다.

(66) 고월산(古月山)

양양농업기술센터 뒤의 남대천변 송현리 뒷산인데 일명 고월(孤月)이라고도 한다. 동은 망망한 만리창해를 바라보고, 남은 동서평야가 전개하였으며 서는 현산이 마주하고, 북은 관동팔경의 첫째를 자랑하는 낙산사가 바라보인다. 영봉 설악이 남대천 머리에서 어깨를 솟아 중천에 높이 섰고 북주하는 오대장맥이 용을 돌려 일거지맥이 동으로 흐르다가 외연(巍然)히 돌기하였으니 청숙한 산세가 태고성을 가진 승지이며 지금까지 소개한곳이 고월산이다. 산형이 단독(丹雘)하여 마치 일륜명월(一輪明月)이 동천에서 솟아 오르는 듯 고월이니, 고월이니 하는 칭호를 얻으리만치 방불한 천연의 자태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 고월산에 올라서서 양양읍내를 굽어보면 현산을 바라보게 될 때 글에서만 보던 만리중원의 가려(佳麗)한 승상을 실사하는 감이 없지 않을 것이다. 서쪽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일폭장강(一幅長江)의 한수가 구비쳐 산허리를 싸서 안고 가평천을 지나 동해로 유입하니 물굽이치는 곳이 바로 똑갑소다. 이 똑까비소라 이름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웃음거리와 같은 유래와 전설도 많으나 너무 허황하기에 약(略)한다.(지금은 사라진 똑갑소지리는 농업기술센터후원이다.)

19세기까지는 여름철 한발이 심하면 산위에 올라가서 동해신에게 기우제를 지내는 등 이 산의 영험을 감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동해안을 통하는 남대천교의 세 교량과 철교(지금은 자취만 있음)는 영동의 최대 가설로서 이 산을 가운데 두고 아래로 위로 놓여 있고 바다와 같은 한강물이 만폭의 비단(緋緞)을 펼쳐 놓은 듯 기려하고 담백하여 소리 없이 흘러가니 마치 은하수에 따라 오작교를 바라보는 듯 천경상계(天京上界)가 분명하다. 산상이 평탄하여 가히 수백명의 단좌를 열어놓았으니 춘화추월에 가인재자(佳人才子)들의 청사옥호(靑絲玉壺)와 금낭시랑(金囊詩郎)의 왕래가 끊이지 않음은 용지불갈(用之不竭)하고 취지무금(取之無禁)하는 천고풍월(千古風月)의 주인공으로서 천연적인 조건을 부여하였거니와 맑은 가을밤에 반륜고월(半輪孤月)의 밝은 그림자가 양양천을

힉싸고 남강물을 따라 흘러가니 아미산월반륜추 영입평강강수류(峨嵋山月半輪秋 影入平羌江水流)란 아미산(峨嵋山)을 읊은 고시가 이 산의 야경을 그대로 그려놓은 것이 아닌가한다. 이와같은 고요한 달밤에 풀밭에 앉아 꽃가지를 휘어잡고 한잔 술을 마시려니 연창역에서 떠나는 기적소리는 천객소인(遷客騷人)이 그 누구냐. 이정천리(離情千里)의 향수를 자아내고 태평루에서 들려오는 은은한 동적(洞笛)소리는 태평성대를 자랑할 때, 수가옥적흰비성 산입동풍만낙성[誰家玉笛喧飛聲 散入東風滿洛城] : 뉘의 집 옥통소 들려오는 소리가 동풍을 쫓아 낙성에 가득하도다] “낙성(洛城)”이 아니고 “양성(襄城)”이 아닌가 환상에 젖는다.

(67) 황계목[黃溪목 · 漢溪목]

남대천하구를 큰 계(溪)라 하여 한계(漢溪)또는 황계(黃溪)라고도 부르고 있다. 남쪽에서는 오대산 가마소(沼) 막암치(莫岩峙)에서 동북으로 40여km를 흘러오고 서남쪽에선 구룡령과 조침령에서, 그리고 서쪽에선 오색령과 단목령에서 각각 30여km를 흘러 서면 용천리와 북평리 간의 건지산(乾芝山) 앞에서 합류되어 큰 하천을 이루어 동해로 유입하는 양양의 젓줄이다. 매년 이른 봄부터 가을까지 천렵놀이를 하는 명소로 많이 찾고 있다. 철따라 찾아오는 물고기와, 또 서식하는 물고기 종류만도 50여종으로 대표적인 어족으로는 은어, 연어, 송어, 황어, 산천어, 뚜거리류 등과 10여년 전부터 멸종위기에 있는 털게, 뱀장어 등인데 이 중에서도 은어, 연어는 특산물 중의 명물이다.

황계목 북쪽엔 동해신묘가 바다를 지키고 남쪽에 오산리 선사유적지가 있어 태고때부터 남대천물을 젓줄로 하여 선사인들이 일찍 자리하게 된 것으로 본다.

2) 구전민요

양양군은 영동권에서 민요가 풍부하게 전승되는 곳이다. 특히 강현면 상북리나 현남면 입암리는 활발하게 소리의 끈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양양지역에서는 농업노동요나 어로요, 산간임업요도 다수 불리고 탁월한 가창능력의 소유자도 생존하고 있다. 농사일과 관련된 농요는 소모는 소리, 밭가는 소리, 논가는 소리 등이 있으며 모찌는 소

리, 모심는 소리, 논매는 소리, 벼 베는 소리, 벼단세는 소리 벼타작 소리(마댕이 소리), 검불날리는 소리, 물푸는 소리, 풀씨는 소리, 새쫓는 소리 등이 있다. 모심는 소리는 자진아라리가 많이 불려진다. 논매기 소리는 오독떼기와 미나리, 꺾음미나리, 동강소리 등이 있다. 양양남부지역인 현남면과 현북면에서는 주로 오독떼기를 많이 부르고, 손양면, 강현면, 양양읍에서는 오독떼기와 미나리를 함께 부르고 있다.

어업수산노동요는 손양면의 멸치 후리질소리, 고기푸는 소리 등이 있는바 이 지역에는 아직도 후리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살아있는 민요라 할 수 있다. 그 외에 현남면에서는 긴소리 또는 큰소리라고 부르는 만선 때 부르는 것들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고기를 풀면서 부르는 가래소리(산대소리)는 고성지방에서부터 해안마을을 따라 현남면까지 내려오며 거의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다만 뒷소리에서 약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임산노동요로서 나무내리는 소리, 목도소리와 집터 다지는 소리, 풀씨는소리, 풀하는소리 등 집단소리가 불려지고 있으며 의식요로서는 고사소리와 장례의식에 불려지는 상여소리, 회다지 소리와 달구질소리 등이 중점적으로 전승된다. 아라리는 다른 강원도 지방과 같이 많이 부르는데 모심기에도 부르고, 나물 뜯으면서도 부르고, 나무하고 꼴 베고 밭을 매면서도 불려 아라리타령의 기능은 복합적임을 알 수 있다. 그 밖의 언어유희요로서 화투풀이소리, 한글풀이소리, 가창유희요로서 뱃노래, 어랑타령, 칭칭이소리, 아이 어르는 소리와 동요 그리고 부녀자들의 성님성님사춘성님, 동무동무일천동무 등의 소리들이 강현면, 서면 등지에도 부르고 있다. 특별히 양양지역의 민요조 노래가 이곳 뿐 아니라 중국 조선족, 북한, 러시아 고려인들 사이에서 양양팔경가가 불린 것은 중요하다. 양양팔경가가 멀리 한민족의 이동경로에 동행한 것이다. 그 사실을 추적하여 악보와 가사를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

(1) 양양팔경가

양양팔경가는 중국조선족 민요집에 수록되어 있으며 중국조선족 음악교과서에도 실릴 정도로 유명하다. 필자가 만난 연변조선족작곡가의 언급에 의하면 ‘양양팔경가’는

곡조가 아름답고 가사가 단순하여 부르기 쉬워 연변조선족까지 전파되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였다. 양양팔경가의 전승상 가사에서 다소 차이가 나고 그 정확한 곡조를 확인할 수 없으나 양양출신 이종우 전 교장선생님의 증언이 정확하다. 이종우씨는 1947년 당시 양양초급중학교 2학년 때 학교 합창부 클럽활동에 참여하면서 작사하신 최용대 교장과 작곡하신 김태선 선생께 직접 배우고 ‘양양팔경가’를 보급하는 일에 참여했었다. 이종우씨가 부르는 노래 가사는 다음과 같다.

[자료1] 양양팔경가 (최용대 작사, 김태선 작곡)

산 좋고 물 맑은 양양이라네.
우리- 자라는 팔경이로다.
앞뜰엔 동해안 뒤뜰엔 설악산.
해안을 끼고 도는 낙산사로다
에헤- 좋구 좋다. 팔경이로구나.(1절)

놀이 좋고 물색(物色) 맑은 양양이라네.
우리- 자라는 팔경이로다.
남으론 하조대, 북으론 운봉산
청간정을 바라보는 의상대로다.
에헤- 좋구 좋다. 팔경이로구나.(2절)

최근 양양팔경가에 대한 각계 논의가 있어 그동안 수집한 몇 가지 자료를 소개하고자 한다. 《설악신문》(2009. 4.27, 904호, 엄경선 기자)에 게재된 ‘80년 전 우리지역의 풍류와 풍광’에 의하면 이 팔경가는 북한과 연변조선족, 러시아를 거쳐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사이에서도 불렸다고 한다. 북한자료에 의하면 양양팔경가는 1930년대 작곡된 신민요로서 1970년대 초까지 북한에서도 원가사로 불렸다고 한다. 그러다가 1973년 고성 출신인 월북작가 조영출(조명암)에 의해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가사로 개사되고 제목도 ‘명승가’로 바꾸었다. 조영출은 고성 건봉사 봉명학교 출신 시인으로 일제강점기에 많은 대중가요를 작사했다.

2004년 북한 조선문학예술총동맹 기관지 조선예술 8월호에 이와 관련된 기사가 실렸는데 “민요 명승가는 신민요 양양팔경가를 개작해 만든 노래”라면서 “광복전에 창작된 양양팔경가는 1970년대 초까지 원전 그대로 불리다가 1973년 작가 조령출이 가사를 개작하고 제목도 명승가로 고쳤다”고 밝혔다. 또한 “양양팔경가는 협소한 울타리를 뛰어 넘어 우리 조국은 어디 가나 살기 좋은 명승지라는 사상을 확고히 세운 데 기초해 그것을 구체적인 대상과 밀접한 연관 속에서 사회주의 조국의 현실을 예찬한 명승가로 개작됐다”고 하였다. “명승가는 시대적 미감에 맞게 재창조돼 우리 조국의 아름다움을 긍지 높게 노래한 것으로 해 우리 인민들의 사상 속에 널리 불리고 있는 귀중한 민요유산”이라고 덧붙였다. 2009년 북한 노래방에서 불리는 계몽기 가요 인기순위를 보면 명승가가 9위에 올랐다고 한다. 1위는 김영춘이 부른 흥도야 울지마라, 2위는 김정구의 눈물젖은 두만강이 차지했고, 10위는 고복수의 타향살이였다. 따라서 지난 1973년 개작된 양양팔경가인 명승가의 인기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된다.

양양팔경가는 1981년 중국조선족 민요집, 2009년 중국조선족 5학년 음악교과서에 조선민요로 수록되어 있으며 양양지역에는 현산문화, 양주지 등에 소개되어 있다. 《현산문화》 제1집(양양문화원, 1989, 144쪽)에는 최용대 작사, 김범소 작곡, 최만섭 노래로 소개하였으며 이것이 비교적 정확한 내용으로 판단되는바, 그 가사는 다음과 같다.

[자료2]

산 좋고 물 맑은 양양이라네,
살기 좋고 물색 좋은 양양이라네
우리 자라는 팔경이로다
우리 자라는 팔경이로다

앞에는 동해안 뒤에는 설악산
남에는 하조대 북에는 운봉산
해안을 끼고 도는 낙산사로다
청간정 바라보는 의상대로다
(후렴) 에헤에 좋구 좋다 팔경이로구나

《양주지》(양양군, 1990, 577쪽)에 수록된 양양팔경가 가사는 작사 최용대, 작곡 김범소로 되어 있으며 가사는 위의 현산문화에 소개된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고 그 순서도 바뀌었다. 작사가 최용대는 1925년 양양신청년동맹을 시작으로 양양청년동맹과 신간회 양양지회를 이끈 대중운동가였다. 그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삼척에서 영동기자단이 주최하는 시사강연 연사로 나서기도 했으며 1937년부터 2년 동안 동아일보 양양지국장을 맡기도 했고 초등학교 교장을 역임하였다. 전하는 이야기로는 당시 이 학교에 근무하던 속초출신 시인 황금찬 선생이 양양팔경가를 작사했으나, 당시 교장이었던 최용대 선생 이름으로 소개되었다고도 한다.

[자료3]

산 좋고 물 맑은 양양이라네
우리자랑은 팔경이라네
앞에는 동해안 뒤에는 설악산
해안을 끼고 도는 낙산사로다
(후렴) 에헤에 좋구 좋다 팔경이로구나

살기 좋고 물색 좋은 양양이라네
우리자랑은 팔경이라네
남에는 하조대 북에는 운봉산
청간정 바라보는 의상대로다

중국조선족 민요집에 수록된 양양팔경가 가사는 다음과 같다. 이 민요집에 수록된 민요는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중국 조선족이 살던 연변일대, 길림, 요령, 흑룡강 등 3성의 집거마을에서 수집한 것으로 [자료4]은 김태갑·조성일, 《민요연구》(연변인민출판사, 1981, 146쪽)에 수록된 것이고 [자료5]는 중국음악가협회 연변분회《민요곡집》(연변인민출판사, 1982, 404쪽)에 수록되어 있다. 후자에는 악보가 들어 있다. ()안은 필자가 바른 표기로 고친 것이다.

[자료4]

산 좋고 물 맑은 양양이로구나
우리 자랑인 팔경이로구나
앞뜰엔 동해안 뒤뜰엔 설악산
해안을 끼고도는 약(낙)산사로다

산 좋고 물 맑은 양양이로구나
우리 자랑인 팔경이로구나
남으로 화주대[하조대] 북으로 운봉산
청가[간]정 바라보니 의상대로다
에헤야 좋구 좋다 팔경이로구나

[자료5]

산 좋고 물 좋은 양양이로구나
우리 자랑인 팔경이로구나
앞뜰엔 동해안 뒤뜰엔 설악산
해안물 끼고[끼고] 드는[도는] 락산사로다
에헤야 좋구 좋다 팔경이로구나

위에 나오는 하조대, 운봉산은 1930년대 당시 양양군 행정구역이 속초시와 고성군 토성면까지 포함되어 양양 하조대, 고성 청간정과 운봉산 지명이 수록되었다. 1930년대 북한에서 불렸던 개작 전 양양팔경가 가사는 다음과 같다.

[자료6]

산 좋고 물 좋은 양양이로구나
우리 자랑인 팔경이로구나
앞뜰엔 동해안 뒤뜰엔 설악산

해안을 끼고도는 락산사로다(1절)
에헤야 좋구 좋다 팔경이로구나(후렴)

산 좋고 물 좋은 양양이로구나
우리 자랑인 팔경이로구나
남으로 화주대 북으로 운보산
청간정 바라보니 의상대로다(2절)

참고로 조영출에 의해 개작된 북한의 명승가는 다음과 같다,

산 좋고 물 맑은 이 강산이로구나
우리 자랑인 동해안이로다
앞에는 백사장 해당화 피구요
뒤에는 푸른 숲에 백학이 난다네
에헤야 좋구 좋다 명승이로구나(1절)

산 좋고 물 좋은 이 강산이로구나
우리 자랑인 서해안이로다
봄이면 과수원 사과꽃 피구요
가을엔 황금파도 출렁인다네
에헤야 좋구 좋다 지상낙원일세(2절)

산천이 좋아서 명승이라더냐
살기 좋으니 락원이로다
하늘은 사시절 맑기도 하구요
밤에는 달과 별이 보석을 뿌린 듯
에헤야 좋구 좋다 금수강산일세(3절)

중국에 사는 조선족 아동들도 ‘양양팔경기’를 불렀는데 이것이 의무교육 조선족학교

교과서 음악 5학년 하권[연변교육출판사, 2006, 39쪽]에 작사자, 작곡자, 가수가 밝혀지지 않은 채 조선민요로 수록되기에 이르렀다. 연변조선족자치주에는 강원도 이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 강원촌, 조양촌(조선 양양), 고성촌 등이 있는데 이들에 의해 강원도 민속과 민요가 전승되고 있다.

양양팔경가는 북한, 조선족뿐 아니라 1937년 스탈린의 강제이주 정책에 따라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재소한인인 고려인들에 의해서도 불렸다. 김병학 채록편저, 《재소고려인의 노래를 찾아서》(화남, 2007) 258쪽에는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이 부른 양양팔경가가 수록되어 있다. 가창은 1~2절, 필사본 1~3절로 되어 있다. 양양팔경가와 개작된 명승가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재소 고려인 양양팔경가는 다음과 같다.

[자료7]

1. 산 좋고 물 좋은 양양이로구나

우리 자랑인 팔경이로구나
 앞뜰엔 동해안 뒤뜰엔 설악산
 해안을 끼고도는 낙산사로다
 (후렴) 에헤야 좋구 좋다 팔경이로구나

2. 산 좋고 물 좋은 이 강산이로구나

우리 자랑인 동해안이로다
 앞에는 백사장 해당화 피구요
 뒤에는 푸른 숲에 백학이 난다네

3. 산 좋고 물 좋은 서해안이로다

우리자랑인 서해안이로다
 봄이면 과수원 사과꽃 피구요
 가을엔 황금파도 출렁인다네

(* 낙산사로다 : 필사본과 녹음테이프에는 '약산사로다'로 나와 있다, 채록자 주)

상기의 고려인들이 부른 양양팔경가는 1절이 대동소이하고 2절이 많은 차이를 보인다. 3절은 필사본에만 수록된 것으로 후에 개작된 명승가를 더 보탠 것이다. 각 자료에 수록된 2절을 차례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4]는 2절이 누락되어 있어 전체 5편이 된다.

[자료1]

앞에는 동해안 뒤에는 설악산
남에는 하조대 북에는 운봉산
해안을 끼고 도는 낙산사로다
청간정 바라보는 의상대로다
(후렴) 에헤에 좋구좋다 팔경이로구나

[자료2]

살기 좋고 물색 좋은 양양이라네
우리 자랑은 팔경이라네
남에는 하조대 북에는 운봉산
청간정 바라보는 의상대로다

[자료3]

산 좋고 물 맑은 양양이로구나
우리 자랑인 팔경이로구나
남으로 화주대(하조대) 북으로 운봉산
청가(간)정 바라보니 의상대로다
에헤야 좋구좋다 팔경이로구나

[자료5]

산 좋고 물 좋은 양양이로구나

우리 자랑인 팔경이로구나
 남으로 화주대 북으로 운보산
 청간정 바라보니 의상대로다

[자료6]

산 좋고 물 좋은 이 강산이로구나
 우리 자랑인 동해안이로다
 앞에는 백사장 해당화 피구요
 뒤에는 푸른 숲에 백학이 난다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2절 가사는 남쪽 양양의 하조대와 의상대, 북쪽 고성 의 운봉산과 청간정이 팔경에 들어 있다. 그러나 [자료6]은 백사장, 해당화, 푸른 숲, 백학 등 전혀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어 러시아 한인들에 의해 창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70년대 초 북한에서는 양양팔경가를 ‘명당가’로 개작했듯이 민요의 특성상 다양한 각편이 나올 수 있다고 볼 때, 양양팔경가의 일정한 원형은 북한, 연변조선족, 연해주 고려인들에 의해 지속되었다고 하겠다. 끝으로 조선족 초등학교에 실린 양양팔경가 내용은 《민요곡집》에 실린 가사와 동일한 것으로 이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7]

산 좋고 물-맑은 양-양이로구나
 우리 자랑인 팔-경이로구나
 앞뜰엔 동해안 뒤뜰엔 설-악-산
 해안물- 찌고도는 락-산-사로다
 에헤야- 좋구 좋다
 팔경이로구-나

(2) 양양의 노동요

가. 상복골 농요

상복골은 강현면에서 두 번째로 큰 마을로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상복골 2구는 지금의 속초시 설악동으로 이관되었다. 관내 상복골, 중복골, 하복골을 합해 통칭 복골이라고도 한다. 상복골은 이른 시기부터 농악이 있어왔다. 지금도 농악대가 있고, 마을의 중요 일을 할 때에는 두레 품앗이를 한다. 상복골 농요는 산간지방의 농요로 평야지방의 농요와는 다른 점이 많다. 소하천 주변의 좁은 들이나 골짜기의 다락논에서 불려진 농요다. 가락은 정적이나 사설은 지역의 명소나 명물들을 나오는 토속적이고 해학적이다. 권농을 중심으로 한 충효애향 근면과 애정 등의 사설내용이 많다. 논에서 일하며 불리는 양양지방의 대표적인 상복골 농요는 일의 과정과 동작에 알맞고 다락논에서 일하기 적합하게 짜여 있으며 향토색이 짙다.

다락논이 많은 산간지방의 특성을 살린 강현면 ‘상복골 농요’가 2010년 7월 한국민속예술축제의 분야 중 하나인 ‘현지민속예술축제’에서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 성군소리 : 농사철이 다가오면 논밭을 씨레로 간다. 흔히들 논을 삶는다고 하는데, 바로 소를 몰고 논밭을 가는 소리를 이름이다. 씨레는 한스레가 있고, 쪽스레가 있다. 한스레는 소 두 마리로 논밭을 가는 것이고, 쪽스레는 소 한 마리로 논밭을 가는 것이다. 스레가 지나가면 바닥을 골고 주기 위하여 쇠스랑을 든 이가 뒤따르면서 바닥을 골고 준다. 이때 우측소를 마라소, 안소를 젓소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한스레로 갈 때는 항상 우측소가 더 힘이 좋고 요령도 있어야 한다. 이 마을에서는 소를 몰고 쓰레질을 하는 이를 성군이라고 하고, 그 소리를 성군소리라 한다. 우장을 메고 농악에 맞추어 춤을 추며 입장하여 한바탕 흥을 돋운다. 씨레질을 하는 성군이 씨레질 소리를 하며 다른 일꾼들은 모찌기 준비를 한다. 소를 의인화하며 대화하는 형식의 사설과 가락으로 선소리와 뒷소리 없이 성군이 소리한다.

어디야 이 이 큰 암소야
 어정거리지 말고야 제곳으로만 차고 들어라
 이러이러 이 어 도 어디야 이 이
 잔들은 쓸어 냄기고 붉은 돌은 건너 뛰자
 이러이러 이
 어도 어허디야 이
 서산에 해는야 아 올라 섰는데 한눈 팔지 말고 가자
 이러이러 이 어허 도 어디야 이
 쇠머리에 무춘 흘랑 깎구나 얼릉얼릉 하고 말자
 이러이러 이 와 와

- 모찌기소리 : 성군이 논밭을 갈 때에 모내기꾼은 모를 찌 눈에 옮겨 심어야 한다. 이때 모찌는 소리가 있는데, 대부분 타령조다. 나머지 일꾼들은 ‘나간다, 잘한다’ 등의 추임새로 흥을 돋구며 모를 찌다.

걸썩 걸썩 하더니 여기도 또 한 춤
 -그 소리 멀리 가기 전에 여기도 또 한 춤
 물소리 찰랑찰랑 하더니 여기도 또 한 춤
 -나간다
 서산에 해 떨어지기 전에 여기도 또 한 춤
 -너도 한 춤 나도 한 춤 여기도 또 한 춤
 엉덩이 수퓹 할라 여기도 또 한 춤
 -바짝바짝 당겨를 주게 여기도 또 한 춤
 담배 참이 늦어간다 여기도 또 한 춤
 -나간다

- 모심기 소리 : 모찌기가 끝나면 모를 심는다. 농악이 곁들여지고 옮겨놓은 모를 가

지고 모를 심는다. 이때 이 소리는 대부분 아리랑 어랑타령 등이 주로 불려진다. 모를 다 찢 후 양손에 모춤을 들고 춤을 추며 논 앞쪽으로 나가서 횡대로 모심는 형태로 선다. 모심기를 시작하면 모 심는 소리를 하게 된다. 소리를 주고받으며 모심기를 하게 된다. 다른 일꾼들은 “잘한다 어히어히” 등의 추임새로 흥을 돋우어 모를 심는다. 모종들은 모를 던지며 모종을 한다. 모를 다 심고 쉴터로 나오게 한다.

하늘 등천에 뜬 구름은
 비나 줄락 오더지
 운무운무 나선 여자
 누굴 불라고 나섰너
 낙산 선질꾼 실안개 돌고
 우리집 문전에 정든님이 오네
 심어주게 심어주게 또 심어주게
 바다같은 요 논배미 또 심어주게
 좋다가 죽어도 원통한데
 밤낮을 모르고서 일만야 하느냐
 나두여 만날적엔 나같이 낫구나
 무스네 팔자로서 고공살이만 하리
 산이야 높아야 골도 깊지
 조꼬만 여자속이 뭐그리나 깊느냐
 올망태 남망태는 뜰가방 삼아 씨구요 고무자리 낫자리 만년필 삼아 쓰니
 소주야 안먹는다구 맹세를 했드니 안주보고 주모보니 또 한잔야 먹겠니

- 술참 좌판놀이 : 쉴터로 나온 일꾼들은 앉아서 참을 먹으며 두레패 농악이 흥을 돋우어 주면 모두 흥겨워 어깨춤을 추며 흥겨워한다. 이때 끝머슴은 상머슴에게 잔을 올리고 큰절을 한다. 이렇게 좌판놀이를 하다 흥에 겨워 모두 일어나게 되며 한바탕 흥겹게 논다.

- 김매기소리[미나리소리] : 모심기가 끝나면 김을 맨다. 이때도 소리를 하는데 오전에는 상당히 느린 가락으로 소리를 하고 오후에는 좀 빠른 가락으로 창을 한다. 이때 느리게 하는 소리를 미나리소리, 조금 빠르게 하는 소리를 동강소리라 한다. 미나리소리는 상복골농요 중에서 가장 정적이며 구성진 가락이 김매기 소리이다. 이 미나리 소리는 주로 오전에 부르는 김매기 소리로서 사설은 4·4·4·4조로 이루어진 시조형태의 농요이다. 처음에는 일렬 형태로 김을 매다 마지막 논뼤미에서 김을 맬 때에는 양쪽 끝에서는 “우겨라”하며 오무리며 원형 형태로 모여 소리한다.

심심하고 얌얌하아언데 심고
에헤이 홀로 아어 심어주게
매여주게 매어나주게 손을 세워 매어나 주게
이 히

산들산들 부는 아 아어 모심저씩 이곳 아어지나
모심 싹 이틀은 모주게 썬데 저싹 옛날 아어지나
이 히

동강소리는 농악소리에 맞추어 다시 김매기 형태로 서게 한다. 동강소리는 오후에 불러지는 김매기소리로 미나리보다 빠르며 가락이 경쾌한 편이어서 김을 빨리 맬 수 있는 민요다. 점심참에 휴식을 취한 뒤이므로 김을 매기 위함이다. 김을 맬 때에는 끝부분을 우겨서 매므로 원형대형이 이루어진다.

동해동창 솟는해는 반공중에 떠서있네
연줄가네 연줄가네 저 산너머 연줄가네
그게 어찌 연줄이나 우리부모 명줄이지
해가져서 그늘졌나 산이 높아서 그늘졌지
질꾼질삼 잘하는여자 울렁바리 실어주소

질꾼질삼 못하는여자 매어나아어 떼어주오
 이슬아침 낙랑동무 헤어질곳 몇해일새
 우겨라 우겨

이때 ‘우겨라 우겨라’ 하는 것은 논감을 다 매자는 뜻이다. 여름철 한창 피약별 아래에서 일을 하면서 마지막 고비를 넘기자는 뜻으로 하는 추임새다. 김매기가 끝나면 벼를 베다. 한춤, 두춤, 세춤, 네춤씩 묶어서 단을 만들어서 한 단을 만들어서 스무 단씩 세우는 걸 한 베이라고 한다. 한 무지가 열 단이니, 두 무지를 모아 붙여서 이쪽에 열 단, 저쪽에 열 단씩 세운다. 오십 무지를 한 동이라고 하는데, 보통 오십 무지면 화확비료를 쓰기 전에는 쌀 다섯 가마 정도를 생산했다. 이때 벼를 벨 때 하는 소리는 대체로 모찌는 소리와 비슷한데, 다만 한춤 대신 한단으로 바꾸어 부르는 것이 다르다. 벼를 다 베어 말린 후 도리깨질을 한다. 이렇게 하여 마뎡이가 끝나면 방아를 찧는다.

- 한바탕놀이 : 일이 끝나면 심신의 피로를 풀기 위함과 일이 끝나면 즐거운 마음으로 한바탕 놀며 흥을 돋운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피로를 상머슴에게 지게 가마에 태워 질꾸내기(질꼬내기, 길군악) 가락에 춤을 추며 귀가한다.

나. 입암농요

현남면 입암리는 화상천 유역의 들판을 중심으로 오래전 촌락이 형성된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입암리는 전통민속이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었고 특히 논농사를 지으며 부르는 농요가 다양하게 불린다. 양양 입암농요는 성군소리, 모찌기소리, 김매기소리 등 일의 과정마다 불리는데 가락은 정적이며 사설은 지역의 명소나 삶의 애환을 통속적이고 해학적으로 등장시켰다. 또한 권농, 애향, 충효, 근면, 애정, 축원, 덕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성군소리

내탓이나 네탓이나 내가 못쉬는 것은 주인탓이오.

네가 쉬지 못하는 것은 내 담배가 떨어진 탓이라
어디야 올라서라 내려서라 이놈이 주인 놈 닮았구나

○ 모심기 소리

남전 백설이 찾아지도록 봄소식을 물랐나
뒷동산 행화춘절이 나를 알려주네
앞능선 저묵밭을 작년에도 묵더니
금년에도 날과 같이 또 묵는구나

○ 큰소리

창밖에 노송을 심어 노송 끝에 학이 앉아
그 학은 젊어가고 우리 인생은 늙어간다
늙기 젊기는 쉽지 않아도 내 머리 사는 양이 더욱 쉽다
팔만 장안 억만가로 한강어룡은 꼬리를 치고
넘실넘실 춤을 추며 억만가호를 굽어보네
(큰소리 싸는 소리)

어리시구나 저리시구나 지화자 절시구나 에에헤

○ 오덕떼기

남산봉학이 죽순을 물고 한양성내를 굽어보네
양양이라 낙산사 의상대 고기 낚는 저 선비야
그 고기 낚지 말고 이네 몸을 낚아주오
월정리 오대산 물을 적심대로 감돌아 든다
오대산 중놈 세모시 고깔은 정방 처녀 솜씨로다
겉에 겹잎 제쳐놓고 속에 속잎 나를 주오
건곤이 불러 월정적하니 적막강산이 금백년이라
신사다주게 신사다주게 총각낭군이 신사다주게
건져주게 건져주게 빨래방치 건져주게

○ 양승백이

돌아왔네 돌아왔네 양승백이 다시 돌아왔네

칠월 한달 얼른 오면 부모 동생 들러 만나보세
 돈 실러가세 돈실러 가세 충주 목포로 돈 실러 가세
 충주목포로 돈실어놓고 서천개수로 술타령가세
 에헤야 에헤야 으으허 으허(후렴)
 어이구 지화자 자자 에이고 지야
 지어 월잔 부어도 못오시나

○ 동파래기

동 떨어졌네 동 떨어졌네 정용소매에 동 떨어졌네
 감쳐주게 감쳐주게 정용소매를 감쳐주게

○ 사령가[사랑가]

갈가나 보다 갈가나 보다 내 님찾아 갈가나 보다
 술집에 큰아기 술잔을 들고 베푸장 밑으로 왕래하네
 연줄가네 연줄가네 해와달속에 연줄이 가네
 에에헤 사리라 에에으 아아 아무리하여도 내 사리요(후렴)

○ 주름이[구음창]

에에헤 에헤헤 에헤이요 우여사아 에헤야 에헤헤 에헤이요 우여사대

다. 양양 모찌는 소리

걸썩걸썩 하더니 여기도 또 한 춤 나가는구나
 너보다 내가 먼저 또 한 춤 나간다
 바디같은 논배미를 모 한춤으로 채워주세
 동해동천 돈은 해가 반공중에 걸리기 전에 빨리 모찌고 참을 먹세
 일락은 서산에 해 떨어지기 전에 빨리 찌구 모나 심자
 그소리 한 마디 썩 좋아지네 얼른 찌고 나가쉬세
 너만 한 춤 나가느냐 나도 여기 또 한 춤 나간다

라. 양양 논삶는 소리

씨레질을 하면서[논을 삶으면서] 소를 모는 소리이다. 논을 삶을 때는 소 두 마리로 씨레질을 하며 논을 고를 때는 한 마리로 번지를 친다고 한다. 논 천 평에 모를 심을 경우 논 삶는 사람[성군] 1명, 쇠스랑 1명, 모춤을 지고 나르는 사람 1명, 비료를 치는 사람 1명, 모심는 사람 10명 정도가 함께 부른다.

이러 이러!

어디야 이이 이 큰 암소야 어정거리지 말구야 이이

제곶으루만 찾아 들어라 이러 이러 에이

어둡 어디야 이

오르내리지 말구야 어디 얼릉얼릉 가자

이러 이러이이

화채봉에 해는야 올라섰는데 한눈 팔지 말고 가자

이러 이러이이

어둡 어디야 이이

점심참이야 늦어가니 우리도 얼릉하고 말세

이러 이러 이이이 어둡

쇠머리에 모춤 올라 앉겠구나 얼릉 얼릉 껌싸게 가자

이러 이러 이 어둡

와와!!

마. 양양 모심는 소리(아라리)

심어주게 심어주게 또 심어주게

바다같은 요 논배미 또 심어주게

산이야 높아야 골도 깊지

쪼끄만 여자 속이 뭘 그리나 깊느냐

눈이야 올라거덩 펄펄 쏟아지거나 하지

우리님은 언제 올라고 소식조차없나
놀다가야 죽어도 원통한데
밤낮을 모르고야 일만야 하느냐
끝망태 낫망태는 들가방 삼아 씨구요

바. 양양 베나는 소리

베나는 소리는 베를 짜기 위해 날줄을 걸어 매면서 하는 소리로서 실제로 길쌈을 하면서 부르기 때문에 아주 귀하게 채집된 민요이다.

베를 발세 베를 날세
너른 마당을 해해칠고
쇠꼬쟁이를 여기 저기
쇠꼬쟁이를 박어 놓고
한 새 두 새 뗏 썰런가
홀홀 날어 베를 매세
한 새 두 새 뗏 썰런가

사. 양양운재소리

운재소리는 통나무를 끌어당겨 산 아래로 내려 보내면서 부르는 소리이다. 이 지방 사람들은 마을의 들판이 넓지 않기 때문에 산에서 이 일을 많이 하고 있으며 어떤 마을에서는 15년 이상이나 산판을 하면서 그러한 운재소리가 불려졌다.

어허어 산이로다	에헤이 산이로다
일심 받아 땡계주소	어허이 산호야
서산에 해는 지고	어허이 산호야
월출동녘 달이 솟네	어허이 산호야
일심 받아 땡계주소	어허이 산호야

잘두하시제 잘도해요 어허이 산호야

아. 멸치후리소리

후리는 멸치를 잡는 어업의 일종이다. 멸치는 덩치가 작아 일반 그물로는 잡을 수 없다. 일반그물보다는 눈이 촘촘할 뿐만 아니라, 무게도 다른 그물보다 훨씬 무겁다. 보통 600m 길이의 후리 그물을 동호리를 포함한 인근 마을들은 사용한다. 그렇다보니 다른 고기잡이보다도 특히 협동심이 필요하며, 또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한다. 양양에서는 동호리, 수산리, 전진리, 남애리, 동산리 등 바닷가 마을 어디에서나 후리질을 하였고, 특히 동호리는 아직도 멸치잡이 배가 남아 있어서 지금도 그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다. 인근 가평리는 벌써 10여 년 전에 명맥이 끊겼다. 조선시대 의유당 김씨의 관북 유람일기에는 동해안 멸치후리하는 광경이 잘 표현되어 있다.

조반 먹고 돌아올 새, 바닷가에 쌍교(雙轎)를 교부(轎夫)에 매어 세우고, 전모(鼙帽) 쓴 종과 군복(軍服)한 기생을 말 태워 좌우로 갈라 세우고 사공(沙工)을 시켜 후리질을 시키니, 후리 모양이 수십 척(尺) 장목(長木)을 마주 이어 나비 한간 배만한 그물을 노로 얹어 장목에 치고, 그물뿔은 백토(白土)로 구워 탕기(湯器)만큼 한 것으로 달아 동아줄로 끈을 하여, 해심(海心)에 후리를 넣어 해변에서 사공 수십 명이 서서 아우성을 치고 당기어 내니, 물소리 광풍(狂風)이 이는 듯하고 옥 같은 물굽이 노하여 뛰는 것이 하늘에 닿았으니, 그 소리 산악이 움직이는 듯하더라. 일월출(日月出)을 변변히 못 보고 이런 장관을 한 줄 위로 하더라. 후리를 꺼내니 연어, 가자미 등속이 그물에 달리어 나왔더라.

동호리는 예전에는 멸치잡이 후리배가 10여 척이 넘었으나, 지금은 각 기지마다 1척씩 4척이 있다. 톤수는 보통 3톤이고, 동호리 본동이 1기지, 장준리가 2기지, 동호리 1반이 3기지, 상문부락 앞이 4기지이다. 동호리가 비록 작은 마을이긴 해도 멸치를 후릴 때는 각자 자기 구역이 있어서 자기 구역이 아니면 멸치를 잡지 않는다. 망지기 또한 자기 기지에 멸치가 들어와야 소리를 지르지, 남의 기지에 멸치가 들어가면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각 기지마다 망보는 이들이 각기 따로 있다.

동호리는 각 기지마다 후리 배 한 척 당 보통 10명 정도로 후리꾼들을 선정한다. 이들은

멸치를 잡으면 전주가 대체로 40%를 가져가고, 나머지 60%를 선원들이 나눠 갖는다. 이때 비율은 망지기는 두 집, 사공은 한 집 반, 후리꾼 및 선원은 한 집 등의 비율로 나눠 갖는다. 망지기는 멸치가 많이 들어오는 두 달 동안 생업을 포기하다시피 하고 망대에만 올라가 있으므로 남들보다 두 배의 비율을 갖고 간다. 예를 들어, 선원이 11명이라면 60%를 12.5집으로 나눈다. 그러면 한 집 당 4.8%를 배당하므로, 망지기는 9.2%를 갖고 가고, 사공은 7.2%를 갖고 가고, 후리꾼 및 선원들은 4.8%를 갖는다. 바닷가에서 그물을 잡아당기는 후리꾼들은 배에 타고 바다로 나간 선원들보다 약간 적게 받거나, 혹은 동일하게 받기도 한다. 후리질 하는 날 급한 일이 있어 출타해도 약간씩 나눠주어 협동심을 표시한다.

자. 풀무질소리

대장간은 쇠를 달구어 각종 연장을 만드는 곳이다. 옛날에는 시골 장터나 마을 단위로 대장간이 있어 무딘 농기구나 기타 각종 연장을 불에 달구어 버리기도 하고 새로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그런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대장장이라고 하는데, 대장장이는 오랜 숙련을 통해 담금질로 쇠의 강도나 성질을 조절한다. 대장간에는 풀무, 모루, 정, 메(앞메와 옆메), 집게, 대갈마치, 솥돌 등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진다. 손양면 도화리 최상수 씨가 부른 풀무소리다. 이 소리는 아기를 어릴 때 불리기도 한다.

이 쇠가 어데 쇠냐
경상도 안동땅 우성계 쇠로다
불어라 불어라 불어라 불어라 푸~ 푸~ 무아
풍구풍구 풀무야 불어라 불어라 피~익
그래가지고 픽~해
아 -하 쇠 좋~다

풀풀 풀미야 풀러덕 풀러덕 풀미야
우리아기 잘 자래서 서울동대문 나가서서
풀더덩 소리를 하면서

풀풀풀 풀미야 풀미풀풀미야 풀풀떡 풀미야
 우리아기가 잘자래서
 한 살먹고 두 살먹고 세 살때는 어서자래
 풀떡떡 고개를 하옵소서
 풀풀풀 풀미야 풀러덕풀떡 풀미야
 아 우리풀미 잘한다 우리 아무개 참잘한다
 풀떡풀떡 풀미야 풀러덕풀떡 풀미야
 우리아기가 잘자래서 명년삼월 돌아오면
 풀떠덕풀미를 갈까나 풀떡풀떡 풀미야 풀러덕풀떡 풀미야

풀무는 대장간에서 쇠를 달구거나 녹이기 위하여 화덕에 공기를 불어넣는 연장이다. 네모난 통에 한쪽은 손잡이와 공기 흡입구를 두고, 한쪽은 풍로를 끼워 화덕의 밑부분과 연결한다. 풀무에는 손풀무인 횡식(橫式)과 발풀무인 종식(縱式)이 있다. 발로 밟아서 바람을 일으키는 풀무를 골풀무 또는 발풀무라 한다. 손풀무는 손잡이를 밀고 당기는 방식으로 바람을 일으키는데, 숯불을 피우기 위하여 손풍금 같이 생긴 손잡이를 잡고, 폼다 오므렸다 하며 바람을 일으키는 허풍선(虛風扇)은 손풀무의 하나다. 풀무로 바람을 일으키는 일을 풀무질이라 하는데, 뜨거운 대장간에서 풀무질을 하면서 노동의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소리를 불렀다. 풍구질을 해서 가마솥을 만들고, 적어도 7~8명이상이 이 일을 하고 또 무쇠를 녹여 연장을 만들던 곳이 대장간이다. 양양에서도 점간이라고 하여 대장간이 있었고, 이곳에서 농가에 필요한 쇠붙이, 연장 등을 만들었다.

현북면 원일전리는 밀성 박씨마을에서는 60여 년 전에 박용하, 박신병, 박기병, 박영원, 박용권, 박용택, 박용환, 박용한, 박용정, 박용심 등 일가 10여 명이 주주가 되어 점일을 시작을 하였고, 이중에서 박용택이 대장을 하였다. 주주란 돈을 대었던 사람을 말하고, 점일이란 쇠붙이를 녹여 연장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현재 원일전리에는 성황당 자리가 바로 점터 자리이다. 지금도 그곳에는 쇠뚝, 쇠뚝통(오리) 등이 널려 있다.

둔전리에도 대풍구간이라는 지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대장간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지금도 당시 녹였던 쇠뚝이 녹이 쓴 채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양양군 관내에서 점일을 했던 곳은 여러 곳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작은 연장들은 직접 집에서 만들어 쓰기도 하였다. 원일전리에 박씨들이 처음 들어온 것은 약 300년 전 박구동으로부터 시작하는데, 13대에 이르러 박용택이란 점일을 하는 점대장이 났다고 한다. 원일전리는 풍구질뿐만 아니라 명주길쌈으로도 유명했다. 이와 같이 풀무질하는 과정이나 노동요를 민속놀이화하는 것도 양양의 생업민속을 재현하는 한 방안이 될 것이다.

(3) 양양의 유희요

양양의 유희요는 여성들이 부른 것이 많다. 가정생활을 하는 가운데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며 대체로 어려서 부른 것이 구전되고 있다. 비교적 사설이 짧고 재미있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사위삼소나, 자장가, 다리세기 등은 다른 지역에서도 들을 수 있는 것들이다.

가. 사위삼소요

저기가는 저할머니
딸이나 있거든 사위보소
딸은 있지만 나이가 어려서
아이구 할머니 그 말씀마오
참새는 어려도 알만 낱소
제비는 어려도 강남만 가오

내 딸 죽고 내 사위야
울고 갈길을 너 왜왔니
기왕지사 왔거들랑
발치잠이나 자고 가소
품에 잠도 쉼다는데
발치잠이 웬말이오.

나. 양양 자장가

아기를 재우면서 부르는 소리로서 가창자는 여섯 남매를 잃고 나서 일곱 번째를 낳았을 때는 아주 귀하게 키우느라 고심하였다. 아이에게 귀신이 붙을까봐 업고 다닐 때 봉숭아 나무 가지를 지니고 다니면서 이 자장가를 부르곤 했다.

자장 자장 워리 자장
우리 애기 잘도 잔다
머레 잠도 내려오너라
눈썹 잠도 내려오너라
귀에 잠도 들어오너라
코에 잠도 올리오너라
입에 잠도 올리오너라
우리 애기 잘도 잔다
우리 애기 잘도 잔다

다. 양양동요(다리세기)

앵기 땡기	가락지 척척
올다 가다	가매 꼭지
딱게 동	앵기 땡기
가락지	척척
올다 가다	가매 꼭지
딱게 동	

(4) 양양의 의식요

양양지역은 의식요 전승이 매우 강한 곳이다. 그러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으나 가문

이나 마을 등에서 전통문화를 잘 지켜온 것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한편으로 우수한 가창자들이 양양지역에 많다는 점도 의식요 전승에 큰 도움이 되었다. 양양지역 의식요 가운데 상여소리는 가창능력이 출중하고 내용도 독창적이다. 입암리 지역으로 중심으로 전승되는 양양지역 상여소리는 전래소리가 소리없이 사라지는 현실에서 시급히 보존할 만큼 무형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가. 상여소리

상여소리는 전통 장례에서 전해오는 양양 특유의 소리와 절차이다. 대표적인 입암리 상여소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밀양두(상장계)에 의하여 아직도 잘 보존 전승되고 있는 입암리 상여소리는 밀양두의 상두꾼에 의하여 장례의 모든 절차가 진행된다. 드장날 저녁 상두꾼들이 선드레놀이를 시작으로 망자를 애도하고 상주와 가족을 위로해준다. 절차마다 불러지는 소리는 망자의 명복과 내세를 기원해주는 소리로 초초소리(초초아뢰는소리), 이초소리, 삼초소리, 하직소리로 이어지며, 상여가 이동할 때 부르는 상여가는 소리, 회를 섞어 다지는 달래 소리, 봉분을 다지는 달구질 소리로 구성되어 있다. 입암리 상여소리 중 선소리꾼이 부르는 선소리는 창자가 오랜 세월 동안 혼자 계속 불러 가락과 사설이 변함없이 잘 보존되어 지금까지도 전해진다. 특히 제갈량이 죽어 장사 지내는 대목을 잘 부르기로 소문난 유대근계의 소리계보를 이어왔는데, 그 사설은 주로 초한가와 회심곡에서 인용해왔다. 호상(好喪)과 악상(惡喪)에 따라 상주(喪主)와 복인(服人)을 더욱 슬프게 하고 위로하는 등의 선소리꾼의 즉흥적 사설도 가미한다.

양양군의 ‘수동골 상여소리’는 2010년 10월 충남공주시에서 개최된 제51회 한국민속예술축제행사에 참가하여 영예의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또 2008년 제23회 강원민속예술축제에서도 대상을 받은 바 있다. 수동골 상여소리는 현남면 수동골 화상천 주위에서 불리던 만가(輓歌)로서 전통 장례절차 중 상여소리 및 달구소리를 재현한 것이다.

- 선드레놀이 : 상여가 나가기 바로 전날 동네 넓은 논밭이나 혹은 상주의 집 마당에서 빈 상여를 가지고 하는 놀이로, 상두꾼들이 모두 모여 한 바탕 예행연습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호상일 경우에 하고, 악상일 경우에는 하지 않는다.

○ 초초소리

아어우어 미리미리타불
 아어우어 미리미리타불
 아어등 돌아나니 백발이로다
 아어 미리미리타불
 무명못할죽음이여
 아어 미리미리타불

○ 삼초소리 : 이초소리나 삼초소리는 초초아되는소리와 비슷하다.

○ 하직소리

하직이로구나 인간하직이여
 아어우어 이어어어
 신사당에 문안하고 구상당에 재배하여
 아어우어 아어어어
 인간하직 망극하여이다
 아어우어 이어어어

○ 상여가는소리(거리소리)

정월이라 십오일에 완월망월하는 소년들아
 예헤 어헤호 이리넙차 어호야
 음풍도 보려니만은 부모봉양 잊지마라
 삼신산 불사약을 구하러 보냈더니 애상황초뿐이로다
 우리선조 십삼도에 삼신산이 어디메냐
 강원도라 26관 명승지가 어디메냐
 금강맥이 비봉하여 명산을 이루었구나
 권자낙조가 여기로구나

○ 넘어가고 건너는 소리 : 상여가 가는 길을 형상화 한 대목으로 선소리꾼이 요령을 흔들며 만가를 구성지게 부른다. 언덕, 외나무다리, 도랑 등 험한 곳에 다다르면 상여는 가기를 멈추고 앞으로 진행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면 상주와 복인들이 나

와 절을 하고 성의를 표시하면 다시 상여가 앞으로 전진한다.

- 다지는소리 : 장지에 도착하면 상여를 잠시 모셔두고 산소를 판다. 산소가 다 준비 되면 장지에 하관을 하고 회를 다진다. 내용은 “통일천하 진시황은 아허 달해야 (중략)”라고 한다.

- 달구질소리

신체발부나 사대절골 아허 달구야
부모님께 다 나왔으니 아허 달구야
태산같이 높은 덕과 아허 달구야
황해같이 높은 덕을 아허 달구야
슬프도다 우리 부모 아허 달구야
상두님들은 왜 모르나 아허 달구야

참고문헌

- 『강원어촌지역전설민속지』, 1995, 강원도.
 『강원의 민요Ⅱ』, 2002, 강원도.
 『강원의 설화Ⅲ』, 2006, 강원도.
 『민요곡집』, 1980, 중국음악가협회연변분회, 연변인민출판사.
 『양양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4, 강릉대박물관.
 『양양의 열전』, 1982, 양양문화원.
 『양주지』, 1990, 양양군.
 『향토지』, 1968, 양양군교육청.
 『현산문화 창간호』, 1989, 양양문화원.
 강등학, 2002, 『양양군의 민요자료와 분석』, 민속원.
 고정옥, 1949, 『조선민요연구』, 수선사.
 김병학, 2007, 『재소고려인의 노래를 찾아서 I』, 화남.
 김선평, 1983 『한국구비문학대계』 2-4, 강원도 속초시 양양군편(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김종극, 1976, 『향토지』, 양양문화원.
 김태갑·조성일, 1981, 『민요집성』, 연변인민출판사.
 이한길, 2007, 『양양군 서낭제 축문연구』, 민속원.
 임동권, 1974, 『한국민요집 Ⅱ』, 집문당.
 장정룡 외, 1994, 『양양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강릉대박물관.
 장정룡, 1999, 『민속의 고향 강원도세상』, 동녘출판기획.
 장정룡, 2002, 『강원도민속연구』, 국학자료원.
 장정룡, 2002, 『양양군 마을제당조사』, 양양문화원.
 장정룡·양언석, 2001, 『양양군민속지』, 양양군 양양문화원.
 장정룡·이한길, 2002, 『양양의 민속예술』, 양양문화원.
 촌산지순 편, 박전열 역, 1992, 『조선의 향토오락』, 집문당.
 최상수, 1947, 『조선민간전설집』, 을유문화사.
 최상수, 1947, 『조선지명전설집』, 일성당서점.
 최상수, 1949, 『조선구비전설지』, 조선과학문화사.
 한국민요대전, 1996, 『강원도민요해설집』, (주)문화방송.

II. 양양의 언어

1. 언어의 지역적 특성

양양군(襄陽郡)은 북쪽으로는 속초 및 고성과 인접해 있고, 남쪽으로는 강릉과 접해 있다. 서쪽인 내륙으로는 홍천군과 인제군이 있는데 양양과 내륙 사이에는 험준한 태백산맥이 가로막고 있어서 내륙과의 교통이 어려웠다. 다만 남북으로의 교통이 수월하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양양의 언어는 지역적으로 중부 방언권의 강원도 방언에 속하면서도, 다시 영서 방언에 상대되는 동해안 지역의 영동 방언이라는 범주에 속하게 되었다. 영동 방언권은 고성, 양양, 강릉, 삼척 등의 언어가 여기에 속하지만, 양양의 언어는 고성 및 강릉과 함께 영동 북부 방언권을 형성하여 다른 지역과 대비되는 언어적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북부 영동 방언권에 속하는 고성, 양양, 강릉의 언어가 항상 균질적인 것은 아니다. 실제의 방언 형태를 조사해 보면, 양양은 전체적으로 강릉보다 고성 쪽에 더 가까운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성조(聲調)의 측면에서는 고성과 양양은 비성조 언어에 속하지만, 강릉은 성조 언어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저한 문법의 특징으로는 해라체 의문형 어미의 선택에서 강릉 이남은 ‘-나?’ 인 반면에 양양 및 고성 지역은 ‘-니?’를 사용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양양의 언어가 그 이남 지역인 강릉의 언어와 체계적인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양양의 언어적 특징을 음운, 문법, 어휘의 세 측면에서 개관하되, 양양과 인접 지역인 고성 및 강릉의 언어와 대비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다만 영서 지역과의 대비는 영동 방언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개관적으로 다루기로 하겠다. 언어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아서 역사와 더불어 변화가 계속된다. 특히 매스컴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

서 양양의 토착 언어는 다른 방언과 마찬가지로 표준어의 영향에 의해 그 특이성이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다루는 양양의 언어는 변화해 가는 새로운 경향의 양양의 언어를 추적하기보다는 보수적 시각에서 토착적인 상황을 포착하려는 의도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영동과 영서의 언어 분화

영동 지역의 언어적 특징은 어휘 및 형태적 측면에서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겠으나, 영동 방언을 모어(母語)로 하는 언중(言衆)에게는 억양의 측면이 영동과 영서의 언어를 가르는 주요한 지표가 된다. 원주, 홍천, 춘천 등의 영서 지역의 언어는 억양의 측면에서는 경기 방언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영동의 언어는 억양의 측면에서 경기 및 영서의 언어와 뚜렷하게 구분된다. 그리고 영서의 언어에서도 강릉 및 삼척의 언어는 경상 방언의 억양과 유사한 반면에 양양 및 고성, 양구, 양천의 언어는 오히려 북한의 언어를 연상시키는 억양을 보인다는 점이 그 특징이다.

영동과 영서의 언어 분화는 어휘의 분포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익섭(李翊燮)의 『영동·영서의 언어 분화』(1981년)에서 조사하여 보고한 어휘 분포에서 영동과 영서를 가르는 준거 어휘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2-1〉 영동과 영서에 있어서 준거(準據) 어휘의 분포

표 준 어	영 동	영 서
왕겨	새째	왕게/왕겨/왕제
시래기	건추	씨래기
두레	질	두레
누룽지	소골기/소쟁이/소디끼	누룽지/누렁지/누룽기
질경이	뽕짱우/뽕짱우/뽕짱구	질쟁이/질경이/질쟁이
우물	웅굴	우물
잠자리	소금쟁이	잠자리/째자리
글피	글패	글피
턱	택	턱

표 준 어	영 동	영 서
(국을) 덩혀야겠다	뜨세야겠다/뜨소야겠다	테워야겠다/텨헤야겠다
상추	불기/부루	상추/생추
회오리바람	돌개바람	회오리바람
버마재미	사마구	오줌씩개/오줌싸개
우렁이/다슬기	골뱅이	울뱅이/달팽이
철쭉꽃	함박꽃	철쭉꽃/철뚝꽃
목말	무등	목말/동고리
저지레하다	재간하다	저지레하다
(옥수수)튀밥	광밥/강밥	광정

이와 같은 어휘 분포는 영동과 영서의 언어 분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영서의 언어는 중부 방언에 가까운 표준어와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영서 지역의 언어가 중부 방언에 편입되어도 무방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강원도 방언이 하나의 특징적인 방언권으로 묶일 수 있다면, 이것은 영동 방언의 성격에 의해 강원도 방언이 특징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평창, 정선, 영월 지역은 부분적으로 영동 방언의 특징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여타의 영서 지역과 구분된다. 이것은 이러한 지역들이 역사적으로 강릉 지역과 밀접한 관련에서 생활권이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3. 음운 체계 및 음운 현상

자음체계는 표준어와 다름이 없다.

음운 체계에서는 자음 체계 및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체계와 그 음가와 음운 결합에서 생기는 몇몇 특징적인 음운 현상은 다음과 같다.

1) 19 자음 체계

조음방식 \ 조음위치		양순음	치경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파열음	평음	ㅂ/p/	ㄷ/t/	-	ㄱ/k/	-
	격음	ㅃ/pʰ/	ㄸ/tʰ/	-	ㅋ/kʰ/	-
	경음	ㅃ/p' /	ㄸ/t' /	-	ㄱ/k' /	-
	비음	ㅁ/m/	ㄴ/n/	-	ㅇ/ŋ/	-
파찰음	평음	-	-	ㅈ/tʃ/	-	-
	격음	-	-	ㅉ/tʃʰ/	-	-
	경음	-	-	ㅉ/tʃ' /	-	-
마찰음	평음	-	ㅅ/s/	-	-	ㅎ/h/
	경음	-	ㅆ/s' /	-	-	-
유 음	-	-	ㄹ/l/	-	-	-

2) 단모음 및 이중모음 체계

양양 방언의 단모음 체계는 표준어의 10 단모음 체계와 다르지 않으며, 역시 고성과 강릉의 단모음 체계와도 같다.

(1) 10 단모음과 이중모음 체계

가. 10 단모음

	전설모음	후설모음
고모음	ㅣ [i] (ㅿ [y])	ㅡ [ɨ] (ㅓ [u])
중모음	ㅔ [e] (ㅚ [ø])	ㅓ [ə] (ㅗ [o])
저모음	ㅐ [ɛ]	ㅑ [a]

()은 원순 모음

나. ‘에, 애, 으, 어, 위’의 최소 대립쌍 확인

- <에 : 애> 떼(群)[t' e]~때(垢)[t' ɛ]
- <으 : 어> 틀(機)[tʰ i]~털(毛)[tʰ ə]
- <이 : 위> 기(旗)[ki]~귀(耳)[ky]

다. 이중모음

- <여> 여럿[j̥əɾət], <예> 예절[jed̚ɐl], <야> 양념[jaɲnjəm],
- <유> 유리[juri], <요> 담요[ta:mnjo], <웨> 궤[kwe:],
- <왜> 왜국[wɛɡuk], <위> 원망[wə:nmaŋ], <와> 과부[kwa:bu],
- <의> 의논[ɰnon]

3) 겹받침의 발음

겹받침에 있어서 자음 탈락은 방언 사이에 차이가 많은 부분이다. 양양의 방언에서는 받침 ‘ㄱ’과 ‘ㄴ’에서 ‘ㄱ’의 탈락이 일정치 않고 어휘 개별적인 양상을 보이며, 역시 받침 ‘ㄷ, ㅌ’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용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겹받침에서 자음 탈락의 양상

가. 값 : [갑씨], 샷 : [사기]

나. 맑다 : [말거서~말찌], 밟다 : [발버라~밥찌]

4) 움라우트 현상

움라우트는 후행하는 ‘이[i/j]’ 모음에 의해서 후설모음이 전설모음화하는 현상이다. 여러 방언에서 다양하게 관찰되는 움라우트는 양양에서도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 양양에서 움라우트의 특징은 전형적인 전설모음화도 나타나지만, 약한 반모음 [ɰ]가 덧붙는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 점은 영서 방언에 간혹 보이기도 하지만, 강릉이나 고성에서는 찾기 어렵다.

(1) 움라우트(Umlaut)

가. ‘으’ → [ɰ] 또는 [i]

- 금 : h이[kɰmi] ○ 흠 : 힘이[hɰmi] ○ 틈틈이 : [tʰimtʰɰmi]

○ 이름 : 이림이[irimi]

나. ‘어’ → [ə]

○ 떡 : 떡이[t’ ə’gi] ○ 섬(島) : 섬이[sə’mi] ○ 녁넉히[nəŋ nək’hi]

다. ‘아’ → [a] 또는 [ɛ]

○ 밥 : 뱌이[pa’bi] ○ 입쌀밥 : 입쌀뱌이라구[i:ps’ alɛiragu]

라. ‘우’ → [u] 또는 [y]

○ 국 : 꺾이[ku’gi] ○ 숲 : 숲이[su’bi]/[syph’i]

마. ‘오’ → [o] 또는 [ø]

○ 복 : 뵅이[po’gi] ○ 똑똑히 : 똑뵅이[t’ okt’ øgi]

5) 단모음화 현상

양양의 방언에서 발견되는 이중모음의 단모음화는 ‘여[jə] → ऐ[ɛ]/애[ɛ]/우[u], 야[ja] → ऐ[ɛ], 위[wi/y] → 우[u], 유[ju] → 우[u]’ 등이 있다.

(1) 단모음화 현상

가. ‘여’ 및 ‘야’의 단모음화

○ 몇 → 뻬, 벼루 → 베루, 뻬 → 뻬 ○ 비녀 → 비내, 뻬 → 뻬
○ 가볍다 → 가뵅다, 마렵다 → 매뵅다 ○ 향교 → 행교, 향기 → 행기

나. ‘위[wi/y]’의 단모음화

○ 가위 → 가우, 바위 → 바우

다. ‘유’의 단모음화

- 흥 → 숭, 흥년 → 숭년

6) 구개음화 현상

방언 형태로서의 구개음화는 ‘ㄱ’ 및 ‘ㅎ’ 구개음화가 거론된다. 왜냐하면 ‘ㄷ’ 구개음화는 표준 어형으로 자리잡은 반면에 ‘ㄱ’ 및 ‘ㅎ’ 구개음화는 그렇지 않은 까닭이다. 구개음화는 반모음 ‘[j]’의 조음위치와 관련되는 음운 현상이기 때문에 단모음화를 수반하는 것이 보통이다.

(1) 구개음화

가. ‘ㄱ’ 구개음화

- 겨누다 → 저누다, 견디다 → 전디다, 겨울 → 저울, 겨자 → 제자
- 기둥 → 지둥, 기저귀 → 지저귀, 길이 → 지리

나. ‘ㅎ’ 구개음화

- 혀 → 세, 흥 → 숭, 휴지 → 수지 ○ 힘 → 심, 힘줄 → 심줄

4. 어휘

1) 분포로 본 양양 방언의 위상

영동과 영서의 언어 분화는 태백산맥이라는 분수령으로 인하여 뚜렷하게 양분된다는 것이 이익섭(1981년)의 연구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양양의 언어에 대한 위상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태백산맥 서쪽의 영서 지방과 비교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으

며, 같은 영동의 언어이면서 남북으로 인접하고 있는 북쪽의 고성과 남쪽의 강릉의 언어를 비교하는 것이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익섭(1981년)은 고성과 양양(속초 포함)을 묶어 ‘북단영동방언권’ 이라고 하여 ‘강릉방언권’ 과 구별하였다. 또 이익섭(1981년 : 210~258)은 언어지도 작성에 사용한 어휘를 대상으로 양양, 고성, 강릉의 어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양양, 고성, 강릉의 어휘 분포

표 준 어	양 양	고 성	강 릉
왕겨	새째	새째	새째/(왕겨)
시래기	건축	건축/(씨래기)	건축
두레	질	질	질
누룽지	소쟁이/(누룽지/소디끼)	소쟁이	소꿀기/(소디끼)
질겅이	뽕짱우/뽕짱우/(질겅이)	뽕짱구/뽕짱우/뽕짱우	뽕짱우/(질겅이)
오얏	꽤/(꽤)	꽤/(구타리/피타리)	꽤
우물	웅굴	웅굴	웅굴
(물이)피다	개비다/개이다(고이다)	개이다/(고이다)	개다/개비다
잠자리	소금쟁이/(잠자리)	소금쟁이/(잠자리)	소금쟁이
택	택	택	택
글피	글패	글패	글패
그글피	그글패	그글패	그글패
(국을) 덥혀야겠다	뜨세야겠다/(데워야겠다)/ 덥패야겠다	데워야겠다/ 뜨세야겠다	뜨소야겠다/뜨세야겠다/ 데워야겠다
상추	불기/(상추)	불기/생추	불기/(상추)
불나무	뽕나무/봉나무/(불나무)	봉나무/(불나무)	뽕나무/불나무/(뽕레나무)
회오리바람	돌개바람	돌개바람/(회리바람)	돌개바람
또아리	또바리/(따바리)	따바리/또바리	또바리/(따바리)
버마재비	사마구	사마구	사마구
우렁이/다슬기	골뱅이/골뱅이	골뱅이/골뱅이	골뱅이/골뱅이
철쭉꽃	함박꽃/(철쭉꽃)	함박꽃	함박꽃/(개꽃)
수탉	수뺨/(장뺨)	수뺨/(장뺨)	수뺨/장뺨
수수	쉬시/수수/수끼	쉬시/수수	쉬시/수수/(대끼지)
목말	목말	목말	동고리

표 준 어	양 양	고 성	강 룡
새총	새총/고무총/느르배기	새총/(느르배기)	느르배기
청미래당굴	통갈나무	통갈나무/통가리나무	땀바구/(깜바구)
곤지곤지	송구송구/곤지곤지	곤지곤지/(송구송구)	장개장개/곤지곤지
까고라지	꺼고랭이/(까오치)	꺼고랭이/꺼고래기	까오치
아재(호칭)	(숙부/고모/이모등 남녀)	(숙부 등 남자)	(고모/이모 등 여자)
거위	거우/거시	거시	거우/(거시)
호드기	주레/(줄레)	줄레/(주레)	주레/(회뜨기)
저지레하다	재간하다	재간하다/저지레하다	재간하다/저지레하다
박	박고지/(고지/박)	박고지/(박)	고지
긋볼	귀부랄/(귀젓/긋밥)	귀젓/긋방울/귀부랄	긋밥
-니/-나	-니	-니	-나
굶다	굶다/(꼴다)	굶다	꼴다
자리틀	매나무틀/(날개빨)	매나무틀/(자리틀)	날개틀/날개빨/(자리틀)
극쟁이	가데기/흑쟁이/(호리/후치)	가데기/후치	흑쟁이
쟁기	연장/(보구래/쟁이)	연장/(쟁기)	보구래
술가리	검불	검불	소갈비/(갈비)
확	확	확	확
줄음	줄음	줄음/	(자우름)자우름/ (줄음/자부름)
도깨비바늘	개바늘/(도깨비바늘)	개바늘	찢더풀/개바늘/도깨비바늘
(옥수수)튀밥	광밥/(옥썴기)	강밥/광밥	광밥/(포데기)
토방	뜨럭/(구팡)	구팡	뜨럭/(치망)
썰매	안질뱅이/(빙고/빙구)	빙고/빙구	안질뱅이
외양간	마구/마구간	마구간/마구	마구/마구간
쟁깃곤	성군/(쟁깃군)	보애비/성군/쟁깃군	보애비/성군/쟁깃군

위에 보인 어휘는 모두 47항목이다. 이 중에서 양양의 어휘가 고성 및 강룡과 일치하는 것은 29항목이며, 고성과 일치하고 강룡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7항목이며, 고성과 일치하지 않고 강룡과 일치하는 것은 단 1항목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보면 양양의 방언이 강룡보다는 고성과 가깝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로써 영동 방언에서 양양의 언어가 차지하는 위치는 고성과 함께 영동의 북부 방언권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양양의 언어는 ‘영동북부방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양양 방언의 어휘적 특징

양양 방언의 어휘는 『한국방언자료집 II』(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년)에서 조사한 것과 양양의 현지 조사를 통하여 얻은 것이다. 양양의 언어는 고성과 강릉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도 고성과 강릉의 것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함께 보이도록 하겠다.

(1) 양양의 방언 어휘

구분	표 준 어	양 양	고 성	강 릉
농사	못자리	모자리	못자리	모자리
	김매다	김매다/짐매다	김매다/짐매다	짐매다
	팽파리	팽파리/팽가리	팽파리	팽새
	쟁기	연장	연장	보그레
	호미	호맹이	호미/호매구	호미/회미
	자루(袋)-에	잘기다	잘기에/자루에	잘게다
	괭이	괭이/괭이	괭이/괭이	괭이
	새끼	새끼	새끼	새끼
	광주리	광지리	광지리	광지리
	바구니	동귀미/동기미/바구미	소코리	바구니
	삼태기	산데미/산태미	삼태미	산태미
	절구	절구	절구	절구통
	맷돌	맷돌	망	맷돌
	키	치	치	키
	옥수수	옥수수/(옥썴)	옥세기	강냉이
	무	무	무	몽우
	채소	푸성구(소채)	소채	채소
음식	김치	짬지	짬지	짬지, 짐치
	간장	간장, 지렁	간장	지렁
	불리다	뽕군다	뽕군다	뽕군다
	상추	불기	생추	불기, 부루
	오이	물외	물외	물외
	부추	분추	뽕추	분추
	김	짐	김	짐

구분	표 준 어	양 양	고 성	강 령
음식	이남박	남박, 쌀남박	남박	쌀남박
	조리	조랭이/조랭이	죄리	종오리
	주걱	박죽	박죽	주벅, 주걱
	누룽지	소쟁이	소쟁이	소꼴기
	가루	갈기	가루/갈기	갈기/가루
	파죽	파질	파질	약파
	엿기름	질금	질금	질굼
	시루	실기	실기	시르/실기
	떡배기	떡배기	떡베기	자베기
	부엌	정지/부엌	부엌	정지
가옥	아궁이	아궁지/보강지	보강지	벽아구리/아궁지
	시렁	실경	실경	실경
	서랍	빠랍	빠랍	빠다지/서랍
	자물쇠	문쇠/자물쇠	자물쇠	자물쇠
	미달이	밀창	밀문/미다지	밀창
인체	고드름	고드렘/고두름	고두레	고두래미
	가르마	가름베	가름베	가름베
	비듬	비듬	비눌	비눌
	수염	수염/썸	수염	수염
	혀	세	헤	헤
	거울	거울/세경	거울	거울
	가루비누	갈기비누/가루비누	—	가루비누
	얼레빗	얼게	얼게	얼게
	다리	달비	달비	달비
	저드랑	저드랑/저드랑이	저드랑이	저드랭이
	엉덩이	응텡이	응덩이	궁텡이
	감기	고쁠	강기	감기
인륜	졸음	자오름/조름	자오름	조울구
	아우보다	아시본다	동생본다	동상으본다
	아우타다	아시탄다	아시탄다	아이탄다
	결혼잔치	잔차/잔치	잔치	잔치
	울케	울케/울게	울게	동상으덱
	시누이	시누	시누	아기씨
	시숙	시숙	아주버니	서방님

구분	표 준 어	양 양	고 성	강 릉
인류	시동생	시아재비	시아재비	시아저비
경제	마을	마실/말	마을	마을/마실
	풀무	풍구/풀미	풍구	풍구/풀무
	모루	물기	모루쇠	모루/물기
	뭇(생선)	무데기	데미	무데비/두레미
	셋	셋	셋/스이	스이
	넛	넛	넛/느이	느이
	여덟	여들	여덜	여덜
동물	지느러미	날게미	고시날게	지느레미
	아가미	아게미	아금지	아금지
	창자	뱌	뱌	창지
	송사리	송사리	쌀고기/옹고지	눔발뛰기
	피라미	피레미	페데미	퍼들기
	두꺼비	두꺼비/뚜께비	먹저구리	두께비
	다슬기	골뱅이	골뱅이	골뱅이
	회충	거우(거시)	회충	거위
	벌레	벌거지	벌거지	벌거지/벌기
	진딧물	띠미	뜨미	뚝물
	땅벌	땡뻬	땡뻬	땡뻬
	마구간	마방/마구간	마사/마가	마구간
	고양이	고냥이/고녕이	고냥이	괴양이/고녕이
	(닭)벼슬	면두/배슬	벼슬	베실
	노루	노루/놀기	노루/놀기	노루/놀갱이
	올가미	옹노	옹누	옹노
	덧	덧/찌기	덧	덧
식물	해바라기	해자우리/해장우리	해자우리	해자우레기
	진달래	참꽃/참꽃	참꽃	참꽃
	냉이	나생이/냉이	나생이	냉이
	질경이	뽕짱우	뽕짱구	뽕짱우/뽕짱우
	달래	달록	달루	달루
	씀바귀	슴방우	씀바구	씨괭이
	개암	개금	개금	개금
	머루	멀구	멀구	멀구
	자두	패/자두/꺄	귀타레	패

구분	표 준 어	양 양	고 성	강 령
식물	솔가리	검불	검불	솔갈비
자연	벼랑	베랑/벼랑	베랑	어낭/베랑
	모래	모레/몰게	모레/몰게	모래/모새/몰개
	달무리	달물	달물	달머리
	가랑비	갈강비	가랑비	갈강비
	우박	누리	느리	느리
	먼지	몬지	문지/문데기	문데비
	아지랭이	땅썸/아지랑이	아지라이/아지랭이	아지랭이
	모퉁이	모퉁이/모텡이	모텡이	모텡이/모퉁이
	어디	어데/어디	어디	어데/워디
상태 동작	길다	길다/질다	질다	지다
	짧다	짜르다/찌르다	짜르다	짤따/짜르다
	넓다	널따	널따	널따/너리다
	가볍다	거볍다/가볍다	가볍다	가볍다
	가렵다	개렵다/개롭다	가렵다	개렵다
	사납다	사나롭다	사납다	사납다
	말랐다(瘦)	패랬다	말랐다	패래졌다
	잇-어서	잉어서	이어서	잉어
	뚫어서	뚫러서	뚫버서/뚫러서	뚫버서
	알리지	알구지	알리지	알구지
	달래고	달래구	달리구/달개구	달개구
	말린다	말긴다/말린다	말긴다	말긴다
	만져진다	만지킨다/맨져진다	만지킨다	만져진다/만지킨다
부사	모두/다	모두/몽땅/다	다	마커
	얼마나/어떻게	어찌나	얼마나	어떻게
	어찌	왜서/어째서	머뭇이레	왜/어째더거

양양의 방언 어휘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표준어 형태와의 대비에서 전혀 다른 형태이거나 아니면 음운의 변화 여부에 따른 형태의 차이라는 두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고어 형태(古語形態)의 잔존이거나, 아니면 다른 어휘의 선택으로 해석될 것이며, 후자는 음운 현상의 적용에 있어서 표준어와는 다른 양양 방언이 갖는 특질에 말미암는 것이다.

중세국어 및 근대국어의 문헌에서 찾을 수 있는 고어 형태가 각 지방의 방언 어휘에 남아 있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다. 역시 양양의 방언에서도 다음과 같이 이러한 고어 형태를 찾을 수 있다.

(2) 고어 형태의 잔존

가. ‘간장’에 대한 ‘지령’

- 청장왈(淸醬曰) 지령(동언고략)
- 지령이 도흐니(淸醬味好, 구황보유방 11)
- ⇒ ‘지령’은 근대국어의 ‘지령’에서 단모음화한 형태이다.

나. ‘상추’에 대한 ‘불기’

- 부루 와(蒿, 훈몽자회 상-14), 부루 거(菰, 훈몽자회 상-14)
- 부로(蒿菰, 박통사언해 중-33)
- ⇒ 중세국어 형태를 기준으로 하면 ‘불기’는 ‘ㄱ’이 첨가된 형태이다.

다. ‘바구니’에 대한 ‘둥귀미, 둥기미’

- 동고리(계축일기 79)
- 동우리(筐筥, 물보)
- ⇒ ‘둥귀미, 둥기미’는 ‘동고리, 동우리’와 연결되는 형태로 생각된다. 양양의 방언 형태에서 나타나는 ‘ㅁ’의 유래에 대해서는 아직 해명하기 어렵다.

라. ‘부엌’에 대한 ‘정지’

- ⇒ ‘정지’는 고어 형태로 생각되나 옛 문헌에서는 찾기 힘들다.

마. ‘감기’에 대한 ‘고뿔’

- 그 ㅎ 그므도록 곳블도 만나디 아니ㅎ며(분문온역이해방 4)

○ 궂불헛다(害鼻淵, 동문유해 하-6)

⇒ ‘궂불> 궂불> 고뿔’의 변화 과정을 거쳤다.

바. ‘창자’에 대한 ‘뱀’

○ 쏘 구리 토빈 거시 뱀슬흘 싸껴며(월인석보 21-43)

○ 제 뱀알 푸러니여 망양 그믐 너러 두고(고시조)

⇒ 중세국어의 ‘뱀슬 흘’은 ‘뱀[𪛗]+슬 흘[肉]’로 분석된다. ‘ㅅ’이 약화되어 ‘ㄷ’이 되고, 다시 근대국어에서 탈락하였다. ‘뱀알’에서 음절 축약을 거쳐 ‘뱀’이 된 것이다.

사. ‘회충’에 대한 ‘거시’

○ 거췌 구(蛭, 훈몽자회 상-21)

○ 것위를 팻닙 소매 녀허 프리 드외어든(구급방언해 하-43)

⇒ 중세국어의 ‘거 췌, 것위’는 ‘지렁이’를 뜻하는 말이었으나, 현대국어의 ‘거위’는 약간 의미가 변하여 ‘회충과에 속한 기생충’을 뜻한다. 현대국어의 ‘거위’는 ‘ㅅ’이 약화되고 탈락한 형태지만, 양양 방언의 ‘거시’는 ‘ㅅ’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방언 형태에 따라서는 고어 형태(古語形態)를 이어받고 있으면서도 음운 변화에 대한 적용 여부, 그리고 적용 방향의 차이에 의하여 표준 어형과 그 형태가 달라진 경우가 종종 있다. 양양 방언에서도 다음과 같이 이러한 용례를 확인할 수 있다.

(3) 음운 변화의 양상에 의한 분류

가. ‘ㄱ’의 잔존 또는 첨가

○ ‘우물’에 대한 ‘웅굴’

⇒ 중세국어 형태는 ‘우물(월인석보 21-33)’이다.

- ‘자루에’에 대한 ‘잘기다’
⇒ ‘자루’의 중세국어 형태는 ‘자르(훈몽자회 중-13)’이다.
- ‘불리다’에 대한 ‘뿔군다’
⇒ 사동접사 ‘-구-’의 연결로 해석된다.
- ‘가루’에 대한 ‘갈기’
⇒ 중세국어 형태는 ‘ᄒ르(법화경언해 1-223), ᄒ(석보상절 6-38)’이다.
- ‘시루’에 대한 ‘실기’
⇒ 중세국어 형태는 ‘시르(구급방언해 상-71), 실(두시언해-초간 21-35)’이다.
- ‘시렁’에 대한 ‘실경’
⇒ 중세국어 형태는 ‘시렁(소학언해 2-50), 실에(훈몽자회 중-14)’이다.
- ‘얼레빗’에 대한 ‘얼게빗’
⇒ 중세국어 형태는 ‘얼에빗(구급간이방 6-66)’이다.
- ‘모루’에 대한 ‘몰기’
⇒ 중세국어 형태는 ‘모로(박통사언해 하-29)’이다.
- ‘노루’에 대한 ‘놀기’
⇒ 중세국어 형태는 ‘놀(용비어천가 43), 노르(훈몽자회 상-18), 노로(훈민정음 해례 용자례)’ 등이다.
- ‘머루’에 대한 ‘멀구’
⇒ 중세 및 근대국어 형태는 ‘멀위(훈몽자회 상-12)’이다.
- ‘모래’에 대한 ‘몰게’
⇒ 중세국어 형태는 ‘몰애(석보상절 13-8)’이다.
- ‘가랑비’에 대한 ‘갈강비’
⇒ 근대국어 형태는 ‘ᄒ랑비(역어유해 상-2)’이다.

나. ‘ㅂ’의 잔존 또는 첨가

- ‘또아리’에 대한 ‘또바리’
⇒ 근대국어 형태는 ‘또아리(청구영언)’이다.

○ ‘다리[髭]’에 대한 ‘달비’

⇒ 중세국어 형태는 ‘들외(훈몽자회 중-25)’이다.

다. ‘ㅅ’의 잔존

○ ‘아우’에 대한 ‘아시’

⇒ 중세국어 형태는 ‘아스(월인석보 10-1)’이다.

○ ‘마을’에 대한 ‘마실’

⇒ 중세국어 형태는 ‘므슬 ㅎ(석보상절 6-23)’이다.

라. ‘ㄴ’ 음운의 첨가

○ ‘ㄴ’ 첨가 : ‘부추’에 대한 ‘분추’

마. 음운의 약화 및 탈락

○ ‘광이’에 대한 ‘광^ㄹ이/광^ㄹ이’

양양의 방언에서 가장 특징적인 형태는 ‘ㄱ’ 첨가에 의한 형태이다. 물론 이러한 형태는 중부 방언을 제외한 여타의 지역에서도 발견된다. 그런데 ‘ㄱ’ 첨가는 원래의 어원적 형태에서부터 ‘ㄱ’이 있었는가의 여부가 관건이다. 대개 이와 관련되는 중세국어의 형태에서도 ‘ㄱ-ㅇ’으로 분철 표기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원래의 어원적 형태에 ‘ㄱ’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지만, 문헌상으로 확인하기는 힘들다¹⁾. ‘ㅂ’의 첨가에 대해서도 ‘ㄱ’ 첨가와 같은 견해를 피력할 수 있으며, ‘ㅅ’의 경우는 옛 형태의 잔존으로 이해하여 충분할 것이다.

5. 문법

문법(文法)이라 함은 단어와 단어의 통합적 질서, 그리고 용언의 활용 등을 말하는 것이다. 양양의 방언에서는 조사(助詞)의 용법에 몇몇 특기할 만한 것이 있고, 용언의 활용에 있어서는 종결 어미의 형태와 불규칙 활용의 양상에 있어서 양양 방언의 특징을 기술할 수 있다²⁾.

1) 양양 방언의 조사(助詞)

양양 방언의 조사의 용법은 표준어와의 대비에서 큰 차이는 없으나, 다음과 같은 몇몇 용법에서 형태 및 용법에 차이가 있다.

(1) 조사(助詞)의 형태와 용법

가. 호격 조사 : -아/-야, -어/-여, -아이/-야이

- 주섭아. 철수야
- 주섭어 놀자(주섭아 놀자). 철수여 놀자(철수야 놀자)
- 주섭아이/철수야이: 이 경우는 연장자가 연하자에게 하는 말이다.

나. 여격/탈격 조사 : -한테

- 철수한테 줘라.
- 누구한테 받았니?

다. 소유격 조사 : -으, 또는 조사의 생략

- 남으 땅(남의 땅)
- 니 꺼지?(너의 것이지?)
- 가 땅이지?(그 애의 땅이지?)

라. 향진격/사용격/변성격/자격법/원인격 조사 : -루/으루, 또는 조사의 생략

- 학교루 가자.
- 감으루 꽃감을 맵근다.
- 나는 군인으루 전쟁에 나갔다.
- 강릉 가니?
- 쌀루 떡을 맵근다.
- 산이 불바다루 변했어.
- 어제 병으루 결석했어.

마. 동반격/열거격 조사 : -랑

- 영석이랑 같이 가니? ○ 돌이랑 물이랑 다 좋아.

바. 기타 특수 조사 : -두, -마둥, -부텀, -꺼정, -래두

- 진수두 착한 아다.
- 오늘부터 열심히 하께.
- 돈이 안 되문 쌀이라도 다와.
- 사람마동 하나식 줘.
- 서울꺼정 가니?

2) 양양 방언의 종결 어미

종결 어미는 문장의 종결법에 따라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또는 청유형)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되, 표준 어형과 다른 경우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겠다.

(1) 양양 방언의 종결 어미

가. 평서형 종결 어미 : -(이)여, -(는)기, -거든, -과, -이여, -어유, -래요

- 이기 내 끼여(이것이 나의 것이다). ○ 이쁘기도 한기(예쁘기도 하다).
○ 슷달은 꽤 춥거든(섣달은 꽤 춥다). ○ 참 크과(참 크다).
○ 오랜간만이여(오래간만이네). ○ 너머 좋아유(너무 좋아요).
○ 이기 즈 집이래요(이것이 저의 집입니다).

나. 의문형 종결 어미 : -니, -ㄴ, -언, -재, -라구, -게, -우, -어유, -라우

- 어떤기 크니(어느 것이 크냐)?
- 어테 인니(어디 있느냐)?
- 소식 들었니(소식 들었냐)?
- 강릉에 감이 많재(강릉에는 감이 많지)?
- 지금 갈라구(지금 가려느냐)?
- 그럼, 하나두 읍게(그럼 하나도 없겠느냐)?
- 뭘 보우(무엇을 보시오)?
- 언제 오셨어유(언제 오셨어요)?
- 뭘 잡술라우(무엇을 잡수시겠습니까)?

다. 명령형(또는 청유형) 종결 어미 : -어, -(아/어)유

- 돈 줘(돈을 주어라).
- 잘 가시유(잘 가십시오).
- 그걸 집으서유(그것을 집으십시오).
- 술 드시유(술을 드십시오).

3) 불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용언의 어간과 어미의 결합에서 생기는 불규칙적인 음운의 변이를 일컫는 것이다. 양양 방언에서 표준어의 활용과 구분되는 몇몇 불규칙 활용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양양 방언의 불규칙 활용

가. ‘ㅅ’ 불규칙

- 굿다[𪎐] : 굿구, 그으니, 거라
- 낫다[癒] : 낫구, 나스니
- 잇다[連] : 잇구, 잉어서/이어서, 잉어/이어

나. ‘르’ 불규칙

- 흐르다[流] : 흐르구, 흘르니, 흘러서

다. ‘ㄷ’ 불규칙

- 묻다[問] : 묻구/물꾸, 물으니, 묻지/물찌

라. ‘ㅂ’ 불규칙

- 돕다[助] : 독구, 도우니, 도와

마. ‘ㅎ’ 불규칙

- 누령다[黃] : 누럭구, 누루니, 누래서

바. ‘이’ 불규칙

- 살피다[察] : 살페, 살페라

‘ㅅ’ 불규칙 활용은 그 탈락의 음운적 기제는 표준어와 동일하지만, 적용 어휘에 대한 차이가 드러난다. 즉 ‘긋다’는 탈락이 적용되는 반면에 ‘낫다’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잇다’의 경우는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비음화된 형태 ‘잉어, 잉어서’가 특이하다. ‘르’ 불규칙은 표준 어형 ‘흐르니’에 대한 ‘흘르니’가 나타난다. ‘ㄷ’ 불규칙은 자음 앞에서도 ‘ㄷ’이 ‘ㄹ’로 변이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자음 앞에서도 ‘ㄷ’이 ‘ㄹ’로 바뀌는 불규칙은 주로 양양의 남부(주로 현남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양양의 전체에 걸친 특징은 물론 아니다. ‘이’ 불규칙은 표준 어형 ‘살피/살피어, 살피라/살피어라’에 대한 ‘살페, 살페라’의 형태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일종의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6. 종합

지금까지 양양의 언어를 영동과 영서의 언어 분화, 음운 체계, 어휘, 문법 등의 네 가지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부 방언과 크게 구분되지 않는 영서의 언어와 대비하여 영동의 언어는 영동 지역만의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강원도 언어의 특징은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기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양양의 언어는 영동의 언어 중에서도 다시 북부 영동권으로 묶이고, 북부 영동권에 속하는 강릉, 양양, 고성 중에서도 고성과 더 친연성을 보인다는 점이 양양 방언의 위상이다.

양양의 음운 체계는 표준어 음운 체계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으나, 겹받침의 탈락 양상이나, 음라우트와 같은 음운 현상에서 약한 반모음 [ɰ]의 첨가와 같은 특징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주목된다.

어휘에서는 양양이 강릉과 고성 사이에 위치한다는 점을 참작하여 준거 어휘를 대상으로 강릉의 어휘와 고성의 어휘를 비교하여보면 확실하게도 강릉보다는 고성의 어휘와 매우 가까운 친연성을 보인다. 개별 어휘에 있어서는 고어 형태의 잔존과 음운 변화의 적용 여부 등에 의하여 양양 방언의 어휘적 특징을 개관하였다.

문법에 있어서는 조사의 형태와 용법, 그리고 종결 어미와 불규칙 활용 등으로 나누어 양양 방언의 특징을 개관하였다. 특히 의문형 종결 어미 ‘-니’의 용법은 강릉과 구분되는 북부 영동 방언권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며, 불규칙 활용에 있어서는 ‘ㄷ’ 불규칙의 혼재 현상과 ‘ㅅ’ 불규칙의 다양한 양상이 주목된다.

집필 : 김무림

각주

1) 중세국어에서 ‘ㄹ-ㅇ’으로 분철 표기되는 것은 어원적으로는 ‘ㄹ-ㄱ’에서 약화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물애’는 ‘물개’에서 ‘ㄱ’이 약화되어 생긴 형태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기문(1978 : 128~129) 참조.

2) 문법 사항에 대한 기술은 『한국방언자료집 II』(강원도편)과 전성택(1980년)을 주로 참조하였다.

참고문헌

- 국어국문학회(1990), 『방언학의 자료와 이론』 지식산업사.
- 김무림(2000), 「속초시 거주 피난민의 언어」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 속초문화원.
- 김무림(2004), 『국어의 역사』 한국문화사.
- 김무림(2006), 「속초의 방언」 『속초시사』 속초시사편찬위원회.
- 김봉국(2006), 「강원도 말을 찾아서」 『새국어생활』 16-4. 국립국어원.
- 김형규(1974), 『한국방언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남기심 · 고영근(1993), 『표준 국어문법론』(개정판) 탐출판사.
- 박성종(2004), 『영동지역 방언의 이해』 관동대학교출판부.
- 이기문(1977), 『국어음운사연구』 탐출판사.
- 이기문(1978), 『국어사개설』 탐출판사.
- 이익섭(1981), 『영동 영서의 언어분화』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익섭(1997), 「방언」 『강릉시사』 강릉시.
- 장정룡(1991), 『강릉의 민속문화』 대신출판사.
- 장정룡 · 김무림(1998), 『속초 청호동의 민속과 언어』 속초문화원.
- 전성탁(1980), 「양양지방의 방언 연구」 『관동향토문화연구』 춘천교육대학 관동향토 문화연구소.
- 최명옥(1990), 『경북동해안방언연구』 영남대학교출판부.
- 최학근(1978), 『한국방언사전』 현문사.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0), 『한국방언자료집 II』(강원도편)

〈제보자 명단〉

1. 박공병(남/79), 안봉녀(여/70) : 양양군 양양읍 서문리 서문경로당
3. 이영조(남/60), 김경옥(여/57) : 양양군 양양읍 정손리
3. 최영길(남/56), 흥현숙(여/53) : 강릉시 내곡동 한리아파트
4. 이원재(남/76), 최봉진(남/53) :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5. 권혁준(남/56), 조혜숙(여/60) :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



Ⅲ. 민속신앙

1. 개 설

마을신앙은 옛날에 천제(제천의식)로부터 연원하여 산신제, 성황제, 서낭제 등의 개념으로 분화되어 변해왔다. 강원도의 마을신앙[洞祭]은 대체적으로 성황제, 산신제이지만 근래 들어 발음의 변화로 인하여 서낭제라 호칭하는 마을이 많아졌다. 이 글은 양양의 마을신앙을 서낭제라 명명하고 기술한다.

양양지방은 마을마다 서낭제를 지내고 있는 곳이 많다. 그런데 서낭제에 있어서 마을이란 기준이 모호하다. 왜냐하면 한 개 마을에 서낭제가 두 개 이상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두서너 마을이 하나로 합하여 지내고 있어 서낭제를 주관하는 마을의 개념을 ‘전승단위’란 개념으로 표현했다.

양양군의 행정구역은 1읍 5면으로 되어 있다. 양양읍은 21개 전승단위 중 10개 마을이, 서면은 31개의 전승단위 중 16개 마을에서, 손양면은 31개 전승단위 중 14개 마을에서, 현북면은 20개 전승단위 중 10개 마을에서, 현남면은 30개의 전승단위 중 18개 마을에서, 강현면은 24개 전승단위 중 11개 마을에서 서낭제가 현재 전승되고 있다. 이 가운데 현남면을 제외한 다른 5개 읍·면의 경우 전승율이 대략 50%대임에 반하여 현남면은 60%대에 가까운 전승율을 보여주고 있다. 총 조사된 마을은 157곳이며 이 가운데 79곳에서 서낭제가 전승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민속신앙으로 대표적인 것은 서낭제[성황제]가 많지만 산신제도 있었다. 마을의 민속신앙에 대하여 필자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직접 현지를 답사하여 조사한 자료를 중심으로 기록하였다.

1) 양양군 장군성황제

『양양향교지』(양양향교, 1999년)를 보면, 고려 목종 10년(1007년)에 양양읍 성내리를 중심으로 양주성을 축성하여 매년 침입해오는 외적들과 향전을 계속하면서 향토를 수호하였고 이후 양주성은 동서남북에 4대문을 내고 성내에 성황사를 짓고 춘추로 치제(致祭)하였으며, 선조 25년



장군성황사

(1592년) 이후 매년 5월 5일 제의뿐만 아니라 성황굿을 성대하게 하였다. 1908년에는 일본인들의 사주로 당시 최종락 군수가 중단하였던 것을 1921년부터 단양회를 구성하여 복원하였다. 1946~1950년 사이에는 공산 치하에서 미신타파라는 명분으로 공식적으로는 금지하였지만 은밀히 그 전통을 계승하였다가 1951년부터 복원할 수 있었다. 오늘날에는 현산문화제와 병행하여 제향(祭享)되는데 그렇다 보니 제의일시 역시 현산문화제와 연동하여 지내게 되었다.

현산문화제 기간 중에 장군성황제가 열리는데 15:00경에 고치물제부터 시작하여 장군성황당에서는 양양군수를 초헌관으로 하여 성황제를 지낸다. 다음 날 성황을 모시고 남대천 둔치에 개설한 굿당에 성황을 안치하고 성황굿을 시작한다. 제물 등 제의 준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황일선 님이 전담했다.

〈고치물제〉

과일, 삼배주, 포, 백설기 등 여러 제물을 올린다. 삼배주는 황일선 님이 직접 개발한 제주(祭酒)다. 고치물제는 일종의 용왕제로서 고치물 우물을 섬기는 제의이다. 이 우물은 고려 목종 무렵부터 전해오는데, 아무리 가물어도 수량이 줄지 않는다고 한다. 고치물 위에 만들어 놓은 정자 형태의 건물은 20~30여 년 전에 지었다.

* 장군성황제 축문

維 檀君紀元四千三百〇年勢次干支
月朔日干支 襄陽郡守 某 敢昭告于
襄州將軍城隍神 伏以
襄州關東大鎮 剛城守護將軍聖神
德著廣利 享祀是宜
庶諒祈告之誠 以垂豐穰之慶
謹以 牲幣醴齊 粢盛庶品 式陳明薦
尚 饗

(단군기원사천삼백〇년세차간지)
(월삭일간지 양양군수 모 감소고우)
(양주장군성황신 복이)
(양주관동대진 강성수호장군성신)
(덕저광리 향사시의)
(서량기고지성 이수풍양지경)
(근이 생폐예제 자성서품 식진명천)
(상 향)

2) 양양읍

(1) 감곡리(甘谷里)

마을에 특별한 일이 발생하여야 제향하며 보통 10년에 한 번 정도 제향하는데 이와 같은 전통은 지금부터 50여 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제의는 정월에 날을 받아 제향하며 보통 19:00에서 21:00 사이다. 제당의 형태는 당집이 아니라 당목이었는데 2005년 4월 양양산불에 소실되었다. 리사지신, 전조지신, 성황지신 등 3위 신령을 모신다. 메 3그릇, 백설기, 황소머리, 제주 등을 장만한다. 제향 후 소지를 올린다. 2005년 12월경 김용석(남·78세)에게 직접 전해들은 말에 의하면 감곡리 축문은 갑오년(1954년)에 만든 것인데 당시 향교 전교였던 고(故) 이경섭(생존해 있다면 100여 세가 넘었다)이 갖고 온 것을 김용석이가 다시 필사(筆寫)한 것이라 한다.

* 감곡리 축문

維歲次 甲申十一月丁亥朔十日丙申 幼學
某〇等 敢昭告于
城隍之神 里社之神 田租之神
天造斯山 萃于甘陽 我神孔靈 儼然在上
實賴神佑 俾民無艱 永奠厥居 既寧且安
月維伸冬 歲功告畢 乃差吉日 敢用祀事
我牲既潔 我酒既香 我有善禱 惟神是聽
凡所爲害 罔不悉去 癘疫是驅 咳瘡是除
并以遠之 無孽其間 和氣充溢 同我里閭
文蔚榮捷 家蓮桂戶 兼用大有 介我稻黍

(유세차 갑신십일월정해삭십일병신유학)
(모〇등 감소고우)
(성황지신 리사지신 전조지신)
(천조사산 채우감양 아신공령 엄연제상)
(실뢰신우 비민무간 영전필거 기령차안)
(월유신동 세공고필 내차길일 감용사사)
(아생기결 아주기향 아유선도 유신시청)
(범소위해 망불실거 려역시구 해학시제)
(병이원지 무얼기간 화기충일 동아리한)
(문울영첩 가런계호 겸용대유 개아도서)

穀既方苞 去蟲及蟊 奄觀銍穫 乃倉乃積
用伸虔禱 茲奠洞酌 尙 饗

(곡기방포 거모급등 엄도질확 내창내적)
(용신건도 자전동작 상 향)

* 감곡리 홀기

양양군 관내에서 홀기가 전하는 마을은 감곡리, 조산리, 임천리 뿐이다. 감곡리의 홀기는 조산리의 홀기와 비슷하다.

○ 獻官及諸執事 具就拜位 四拜 各就位

○(헌관급제집사 구취배위 사배 각취위)

○ 行奠幣禮

○(행진폐례)

初獻官詣 盥洗位 盥手洗手

(초헌관에 관세위 관수세수)

因詣 里社神位前 跪 三上香

(인에 리사신위전 꿇 삼상향)

執幣 獻幣 俯伏 興 平身

(집폐 헌폐 부복 흥 평신)

次詣 城隍神位前 跪 三上香

(차에 성황신위전 꿇 삼상향)

執幣 獻幣 俯伏 興 平身

(집폐 헌폐 부복 흥 평신)

次詣 田租神位前 跪 三上香 執幣 獻幣

(차에 전조신위전 꿇 삼상향 집폐 헌폐)

俯伏 興 平身 因降復位 獻官皆四拜

(부복 흥 평신 인강복위 헌관개사배)

○ 行初獻官禮

○(행초헌관례)

因詣 里社神位前 跪 執勺 獻勺

(인에 리사신위전 꿇 집작 헌작)

俯伏 興 平身

(부복 흥 평신)

次詣 城隍神位前 跪 執勺 獻勺

(차에 성황신위전 꿇 집작 헌작)

俯伏 興 平身

(부복 흥 평신)

次詣 田租神位前 跪 執勺 獻勺

(차에 전조신위전 꿇 집작 헌작)

俯伏 興 平身 少退 跪

(부복 흥 평신 소퇴 꿇)

○ 獻官及諸執事在位者 俯伏 祝詣獻官之左

○(헌관급제집사제위자 부복 축예헌관지좌)

東向 跪 讀祝 俯伏 興 平身 因降復位

(동향 꿇 독축 부복 흥 평신 인강복위)

○ 行亞獻官禮

○(행아헌관례)

亞獻官詣 盥洗位 盥手洗手

(아헌관에 관세위 관수세수)

因詣 里社神位前 跪 執勺 獻勺

(인에 리사신위전 꿇 집작 헌작)

俯伏 興 平身

(부복 흥 평신)

次詣 城隍神位前 跪 執勺 獻勺

(차에 성황신위전 꿇 집작 헌작)

俯伏 興 平身

(부복 흥 평신)

次詣 田租神位前 跪 執勺 獻勺 俯伏

(차에 전조신위전 꿇 집작 헌작 부복)

興 平身 因降復位

(흥 평신 인강복위)

○ 行終獻官禮

○(행종헌관례)

終獻官詣 盥洗位 盥手洗手

(종헌관에 관세위 관수세수)

因詣 里社神位前 跪 執勺 獻勺

(인에 리사신위전 꿇 집작 헌작)

俯伏 興 平身

(부복 흥 평신)

次詣 城隍神位前 跪 執勺 獻勺

(차에 성황신위전 꿇 집작 헌)

俯伏 興 平身

(부복 흥 평신)

- | | |
|------------------------|-------------------------|
| 次詣 田租神位前 跪 執勺 獻勺 俯伏 | (차예 전조신위전 꿇 집작 헌작 부복) |
| 興 平身 因降復位 | (흥 평신 인강복위) |
| ○ 獻官皆四拜 獻官各神位前 跪 焚祝 俯伏 | ○(헌관개사배 헌관각신위전 꿇 분축 부복) |
| 興 平身 因降復位 獻官及諸執事以 | (흥 평신 인강복위 헌관급제집사이) |
| 下皆四拜 退. | (하개사배 퇴) |

(2) 거마리(車馬里) 윗말(1~2반)

1년에 한 번 정월 5일 새벽에 제향한다. 제당의 형태는 당집이 아니라 당목으로 소나무를 모신다. 본래 거마리 윗말은 남서낭, 거마리 아랫말은 여서낭이다. 아랫말에서 제향이 중단된 이후 2004년경부터 남녀 서낭을 합제하여 윗말에서 제향하고 있다. 제물로는 명태 20마리를 사용하며 다른 육류는 사용하지 않는다. 제남서후 소지를 올린다. 한지와 실을 나무에 매단다. 제물로는 메, 백설기, 과줄, 포, 과일, 제주 등을 사용한다. 거마리(윗말)의 축문은 『시경』에서 따온 구절이 많아 한학에 밝은 이가 작성한 것으로 생각한다.

(3) 거마리(車馬里) 아랫말(3~4반)

정월 초이틀로 고정되어 있으며 한동안 제향하지 않다가 2005년에 정우교가 단독으로 제향했으며 앞으로 전승 여부는 불투명하다. 시간은 03:00~04:00경이다. 차지 1호를 선정하여 제물 준비를 맡겼다. 아랫말은 윗말과는 달리 남자들이 일찍 죽어 여자들이 많아 실제 제관이 될 남자들이 부족하였다. 그래서 마을제의를 중단될 지경에 처한 것이다. 제당은 당목으로 소나무이다.

주요 희생은 명태인데 명태는 가구 수대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외 제물로는 메, 떡, 과일, 포, 탕, 전, 나물 등이다. 제향 후 소지를 올렸으며 종이에 음식을 넣어 나무에 걸어두면서 다시 축원을 올렸다. 축문은 20여 년 전에 살았던 고(故) 김영상에 의해 작성되었던 적이 있었으나 전하지는 않는다.

(4) 내곡리(奈谷里)

유사 생기에 맞춰 정초에 택일하여 19:00경에 제향한다. 신격은 서낭으로 부부신위다.(본래는 할아버지 서낭이나 후대에 변했다.) 제당은 당목으로 본래 마을 앞산에 있는

데 올라가는 길이 가파르고 주위에 잡목이 우거져 한국전쟁 이후 줄곧 마을회관에서 제향하였다. 제물로는 어물, 백설기, 과일, 과줄, 육류, 제주 등을 사용한다. 고축을 하지 않은 지 20여 년 된다. 제향 후 소지를 올린다.



내곡리 서낭

(5) 송암리(松岩里)

제사 일시는 정월 3일 05:00경이다. 제당은 1972년경 새마을운동 당시 만들어 놓은 당집이 있다. 벽돌로 벽채를 하고 스텔트로 지붕을 했다. 신격은 서낭신 1위이다. 제물은 과일, 백설기, 메, 돼지고기, 어물, 제주 등이다. 제관은 3명이다. 제향 후 소지를 올린다. 고축은 없다.

(6) 연창리(連昌里)

제의 일시는 정월 5일로 고정되어 있으며 시간은 03:00 이후다. 신격은 할머니 서낭으로 제당은 ‘대미소 고댕이’ 언덕 위에 있던 것을 1990년도에 양양군에서 택지조성사업을 하면서 연창리 본 마을의 뒷산 대나무 숲으로 이전하였다. 제물은



연창리 서낭당

메, 백설기, 어물, 돼지머리, 과일, 포, 과줄, 나물, 소고기전, 탕, 제주 등을 사용한다. 제관은 3명이며 깨끗한 이를 선정하여 음식을 맡겼지만 근래에는 이장이 음식을 준비한다. 제향 후 소지를 올리고 이후 실과 종이를 당 안에 매달아 놓는다. 경인년(2010년) 부터는 연창리 노인회장 김훈각(1935년 생)이 마을 정서에 부합되는 축문을 작성하여 축을 고하고 있으며, 제사 후에는 마을주민이 별도로 준비한 음식을 마을회관에 모여 점심식사를 함께한다.

(7) 임천리(林泉里)

정월 3일 03:00에 제향한다. 제당은 돌담이 있고 그 안의 바위에 제단을 만들어놓았다. 헌관 3인, 축관, 집사 등 제관은 5인이며 신격은 성황지신, 토지지신, 여역지신 등 3위다.

제의를 산신제와 성황제로 구분하여 산신제를 먼저 지낸 후 성황제를 지낸다. 예전에는 초3일이 되면 03:00~05:00경에 산신제를 제향하고 마을로 하산한 후 저녁에 산신당 밑에 있는 서낭당에서 제향했다. 제관들이 연로하여 2005년부터 마을회관에서 제향한다. 산신제는 명태, 과일 등으로 3상을 차리고, 성황제는 돼지를 주요희생으로 사용한다. 성황제 역시 3상을 차린다. 제향 후 소지는 올리지 않는다. 홀기는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다. 마을제가 끝나기 전에 개인이 터제사를 올릴 수는 없다.

임천리의 축문은 양양읍에서는 아마도 가장 오래된 축문으로 짐작되는데 이 축문은 산신제 축문과 서낭제 축문으로 구별되어 있다. 임천리의 뒷산이 석성산이어서 산신제 축문 명칭이 '석성당 산신제'로 되어 있다. 성황제 축문에 보면 성황신만 호칭되는데, 실제 제사 현장에서 보면 성황지신, 토지지신, 여역지신을 모두 제사 지낸다.

* 임천리 석성산 산신제 축문

維歲次某年某月某朔某日某干支 幼學○○
敢昭告于

石城堂 山神之前 曰伏以

翼嶺高峙 一村之望 淑氣偕華 有神孔靈
神之聽之 備降百福 絃誦洋洋 勤力文學
里爲冠蓋 門成鄒魯 弓旌有招 蓮桂湊慶
東郊爲農 禾黍穰穰 千倉萬箱 櫛比隆崇
里瘠不侵 一里無憂 戶口增盛 上下歡喜
歲時伏臘 歌瑟相從 牛馬肥健 虎豹遁藏
偷兒迸跡 鬱攸無災 俾壽而康 俾熾而昌
佑我一洞 災去福來 凡此所祝 惟神司之
左之右之 隨事陰貺 我酒雖薄 我誠斯皎
心香時升 神其歆茲 尚 饗

(유세차모년모월모삭모일모간지 유학○○)
(감소고우)

(석성당 산신지전 왁북이)

(익령고치 일촌지망 숙기급화 유신공령)
(신지청지 비강백복 현송양양 근력문학)
(리위관개 문성추노 궁정유초 연계주경)
(동교위농 화서양양 천창만상 즐비융숭)
(리매불침 일리무우 호구증성 상하환희)
(세시복랍 가슬상종 우마비건 호표둔장)
(투아병적 울유무재 비수이강 비치이창)
(우아일동 재거복래 범차소축 유신사지)
(좌지우지 수사음향 아주수박 아성사교)
(심향시승 신기흠자 상 향)

* 임천리 성황제 축문

維歲次某年某月某朔某日某干支 幼學○○
敢昭告于

聚落相望 實賴神佑 茲值新正 敢陳虔禱

(유세차모년모월모삭모일모간지 유학○○)
(감소고우)

(취락상망 실뢰신우 자치신정 감진건도)

신지청지(神之聽之)이하는 석성산 산신제 축문과 동일하다.

* 임천리 홀기

謁者 引 獻官. 俱就外位. 謁者 引 獻官.
俱就拜位. 北向. 立.

行 奠幣禮.

謁者 引 初獻官. 詣 盥洗位. 搯笏.

盥水洗手. 執笏. 俯伏. 興. 平身.

因詣. 城隍神位前. 跪. 搯笏. 三上 香.

執笏. 俯伏. 興. 平身.

因詣. 土地神位前. 跪. 搯笏. 三上 香.

執笏. 俯伏. 興. 平身.

因詣. 癘疫神位前. 跪. 搯笏. 三上 香.

執笏. 俯伏. 興. 平身. 臨降復位.

獻官 皆 四拜.

行 初獻禮.

謁者 引 初獻官. 詣 城隍神位前. 跪. 搯笏.

執酌. 獻酌. 執笏. 俯伏. 興. 平身. 四拜.

次詣 神位前. 跪. 搯笏. 執酌. 獻酌. 執笏.

俯伏. 興. 平身. 四拜.

次詣 神位前. 跪. 搯笏. 執酌. 獻酌. 執笏.

俯伏. 興. 平身. 四拜. 臨降復位.

祝跪. 城隍之左. 讀祝.

行 亞獻禮.

謁者 引 亞獻官. 詣 盥洗位. 搯笏.

盥水洗手. 執笏. 俯伏. 興. 平身.

因詣 城隍神位前. 跪. 搯笏. 執酌.

獻酌. 執笏. 俯伏. 興. 平身. 四拜.

次詣 神位前. 跪. 搯笏. 執酌. 獻酌.

執笏. 俯伏. 興. 平身. 四拜.

次詣 神位前. 跪. 搯笏. 執酌. 獻酌.

執笏. 俯伏. 興. 平身. 四拜. 因降復位.

行 終獻禮.

謁者 引 終獻官. 詣 盥洗位. 搯笏.

盥水洗手. 執笏. 俯伏. 興. 平身.

因詣 城隍神位前. 跪. 搯笏. 執酌.

獻酌. 執笏. 俯伏. 興. 平身. 四拜.

次詣 神位前. 跪. 搯笏. 執酌. 獻酌.

執笏. 俯伏. 興. 平身. 四拜.

(알자 인 헌관. 구취외위. 알자 인 헌관)

(구취배위. 북향. 립)

(행 전폐례)

(알자 인 초헌관. 예 관세위. 진홀)

(관수세수. 집홀. 부복. 흥. 평신)

(인예. 성황신위전. 궤. 진홀. 삼상 향)

(집홀. 부복. 흥. 평신)

(인예. 토지신위전. 궤. 진홀. 삼상 향)

(집홀. 부복. 흥. 평신)

(인예. 려역신위전. 궤. 진홀. 삼상 향)

(집홀. 부복. 흥. 평신. 임강부위)

(헌관 개 사배)

(행 초헌례)

(알자 인 초헌관. 예 성황신위전. 궤. 진홀)

(집작. 헌작. 집홀. 부복. 흥. 평신. 사배)

(차예 신위전. 궤. 진홀. 집작. 헌작. 집홀)

(부복. 흥. 평신. 사배)

(차예 신위전. 궤. 진홀. 집작. 헌작. 집홀)

(부복. 흥. 평신. 사배. 임강부위)

(축궤. 성황지좌. 독축)

(행 아헌례)

(알자 인 아헌관. 예 관세위. 진홀)

(관수세수. 집홀. 부복. 흥. 평신)

(인예. 성황신위전. 궤. 진홀. 집작)

(헌작. 집홀. 부복. 흥. 평신. 사배)

(차예 신위전. 궤. 진홀. 집작. 헌작)

(집홀. 부복. 흥. 평신. 사배)

(차예 신위전. 궤. 진홀. 집작. 헌작)

(집홀. 부복. 흥. 평신. 사배. 인강부위)

(행 중헌례)

(알자 인 중헌관. 예 관세위. 진홀)

(관수세수. 집홀. 부복. 흥. 평신)

(인예. 성황신위전. 궤. 진홀. 집작)

(헌작. 집홀. 부복. 흥. 평신. 사배)

(차예 신위전. 궤. 진홀. 집작. 헌작)

(집홀. 부복. 흥. 평신. 사배)

次詣 神位前. 跪 搯笏. 執酌. 獻酌.
執笏. 俯伏. 興. 平身. 四拜.
祝進. 撤 籩豆. 獻官 皆 四拜.
行 望瘞禮.
謁者 引 初獻官. 詣 望瘞位. 西向.
望瘞. 因降復位.
謁者 引 獻官. 詣 飲福位. 祝而酌授獻官.
獻官受酌. 飲卒酌.
祝而胙授獻官. 獻官受胙. 祝 以下
諸執事 皆 四拜. 而出.

(차예 신위전. 궤 진홀. 집작. 헌작)
(집홀. 부복. 흥. 평신. 사배)
(축진. 철 번두. 헌관 개 사배)
(행 망예례)
(알자 인 초헌관. 예 망예위. 서향)
(망예. 인강부위)
(알자 인 헌관. 예 음복위. 축이작수헌관)
(헌관수작. 음졸작)
(축이조수헌관. 헌관수조. 축 이하)
(제집사 개 사배. 이출)

(8) 정손리(丁巽里)

정손리는 기리와 합하여 기정리가 되었는데 기정리 1반과 2반이 과거의 정손리에 해당한다. 공산치하 때 제사를 금지하여 소멸되었지만 이 마을은 서낭이 두 곳에 있었다. 마을 좌우쪽에 있었는데 각기 암서낭, 수서낭이었다. 그중 한 곳에서 서낭제를 올렸는데 서낭제를 올리던 나무를 인민군이 베었다. 이렇게 하여 중단된 서낭제를 1960년대 복원 논의가 있어 당목을 심었으나 바람이 워낙 심하여 고사하자 몇 해 후에 서낭제를 다시 중단하였다.

(9) 조산리(造山里)

제의일시는 음력 정월 초 무렵으로 약 15년 전에 정월 5일로 고정했으며 18:00 이후에 제의를 제향한다. 제당은 당집은 없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당목을 모시는데 2005년 4월 양양산불로 당목과 주변의 산림이 모두 소실되었다. 동쪽에 땅귀신[社神], 서쪽에 직신(稷神 : 곡식을 맡아보는 신), 북쪽에 성황신을 모신다. 제관은 축관, 3헌관 그 외 집사들로 구성된다. 도가는 선달 중순쯤에 선정하는데, 제물로는 명태, 돼지머리, 포, 나물, 탕, 백설기, 과일 등을 장만한다. 제향 후 소지는 올리지 않으며 음식을 백지에 조금씩 써서 당목 옆에 놓아두고 온다. 조산리의 서낭제 축문은 상당히 오랜 유래를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서 한국전쟁 무렵에 소실된 것을 당시 고(故) 최용기(생존해 있다면 100여 세가 넘었다)라는 분이 다시 작성했다고 한다. 봄축문, 가을 축문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예전에는 1년에 2회 제향하였으나 지금은 연 1회만 한다.

* 조산리 봄 축문

維

歲次 庚戌正月丁巳朔初十日丙寅 里中代表
敢昭告于 伏以

天造斯山 萃于渭陽 我神孔靈 儼然在堂
實賴神佑 俾民無艱 永奠厥居 既寧且安
月維孟春 歲功云始 迺差吉日 敢用祀事
我牲既潔 我酒既香 明神夕降 宛在中央
我有善禱 神之聽之 盖此生民 靡神何依
凡所爲害 罔不悉去 癘疫是驅 咳瘡是除
并以遠之 無孽其間 和氣充溢 同我里閭
文翰榮耀 家桂戶蓮 兼用大有 介我稻粱
既方既苞 不莠不稂 去其蝥賊 及其螟螣
我穉我穡 奄觀鉅穫 乃積乃倉 納時百穀
茲奠澗酌 庸仲虔祝 尙 饗

* 조산리 가을 축문

維

歲次 庚戌正月丁巳朔初十日丙寅 里中代表
敢昭告于 伏以

天造斯山 萃于渭陽 我神孔靈 儼然在堂
宅我民產 既庶且穰 佑我民命 既壽且康
月維季秋 時今云垂 采流不淑 維民之憂
迺差吉日 敢用祀事 念此生民 靡神何依
凡所爲害 是驅是除 矧茲天行 何怪不祛
斥之遠之 無孽其間 和氣充溢 保我里閭
以寧以安 罔非神惠 謹具牲幣 庸仲虔禱
尙 饗

* 조산리 흘기

祝及諸執事 具就拜位. 四拜. 各就位.

諸獻官 入就拜位. 四拜.

○ 行 奠幣禮.

初獻官 詣 城隍神位前. 跪. 三上香. 執幣.

奠幣. 俯伏. 興. 平身. 次詣 里社神位前.

跪. 執幣. 奠幣. 俯伏. 興. 平身. 次詣

里稷神位前. 跪. 執幣. 奠幣.

俯伏. 興. 平身.

引降復位.

(유)

(세차 경술정월정사삭초십일병인 리중대표)

(감소고우 복이)

(천조사산 취우위양 아신공령 엄연재당)

(실뢰신우 비민무간 영전결거 기령차안)

(월유맹춘 세공운시 내차길일 감용사사)

(아생기결 아주기향 명신석강 완재중당)

(아유선도 신지청지 개차생민 미신하의)

(범소위해 망불실거 려역지구 해학시제)

(병이원지 무얼기간 화기충일 동아리한)

(문한영요 가계호련 겸용대유 개아도랑)

(기망기포 불유불랑 거기모적 급기명동)

(아치아제 엄관질확 내적내창 남시백곡)

(자전형작 용신건축 상 향)

(유)

(세차 경술정월정사삭초십일병인 리중대표)

(감소고우 복이)

(천조사산 취우위양 아신공령 엄연재당)

(택아민산 기서차양 우아민명 기수차강)

(월유계추 시금운수 변유불숙 유민지우)

(내차길일 감용사사 염차생민 미신하의)

(범소위해 시구시제 신자천행 하괴불거)

(척지원지 무얼기간 화기충일 보아리한)

(이령이안 망비신혜 근구생폐 용신건도)

(상향)

(축급제집사 구취배위. 사배. 각취위)

(제헌관 입취배위. 사배)

○(행 전폐례)

(초헌관 예 성황신위전. 궤. 삼상향. 집폐

(전폐. 부복. 흥. 평신. 차예 리사신위전)

(궤. 집폐. 전폐. 부복. 흥. 평신. 차예)

(리직신위전. 궤. 집폐. 전폐)

(부복. 흥. 평신)

(인강복위)

○ 行 初獻禮.

初獻官 詣 城隍神位前. 跪. 執勺. 奠勺.
正箸. 俯伏. 興. 平身.
次詣 里社神位前. 跪. 執勺. 奠勺.
正箸. 俯伏. 興. 平身.
次詣 里稷神位前. 跪. 執勺. 奠勺.
正箸. 俯伏. 興. 平身. 少退. 跪.
祝 詣 獻官之左. 讀祝文. 俯伏.
興. 平身. 引降復位.

○ 行 亞獻禮.

亞獻官 詣 城隍神位前. 跪. 執勺. 奠勺.
俯伏. 興. 平身.
次詣 里社神位前. 跪. 執勺. 奠勺.
俯伏. 興. 平身.
次詣 里稷神位前. 跪. 執勺. 奠勺.
俯伏. 興. 平身. 引降復位.

○ 行 終獻禮.

終獻官 詣 城隍神位前. 跪. 執勺.
奠勺. 插匙. 俯伏. 興. 平身.
次詣 里社神位前. 跪. 執勺. 奠勺.
插匙. 俯伏. 興. 平身.
次詣 里稷神位前. 跪. 執勺. 奠勺.
插匙. 俯伏. 興. 平身. 引降復位.
獻官四拜
祝進掇籩豆. 獻官四拜. 祝焚祝幣.
獻官以次出. 祝及執事四拜而出.

○(행 초헌예)

(초헌관 예 성황신위전. 靑. 집작. 전작)
(정저. 부복. 흥. 평신)
(차예 리사신위전. 靑. 집작. 전작)
(정저. 부복. 흥. 평신)
(차예 리직신위전. 靑. 집작. 전작)
(정저. 부복. 흥. 평신. 소퇴. 靑)
(축 예 헌관지좌. 독축문. 부복)
(흥. 평신. 인강복위)

○(행 아헌례)

(아헌관 예 성황신위전. 靑. 집작. 전작)
(부복. 흥. 평신)
(차예 리사신위전. 靑. 집작. 전작)
(부복. 흥. 평신)
(차예 리직신위전. 靑. 집작. 전작)
(부복. 흥. 평신. 인강복위)

○(행 종헌례)

(종헌관 예 성황신위전. 靑. 집작)
(전작. 삼시. 부복. 흥. 평신)
(차예 리사신위전. 靑. 집작. 전작)
(삼시. 부복. 흥. 평신)
(차예 리직신위전. 靑. 집작. 전작)
(삼시. 부복. 흥. 평신. 인강복위)
(헌관사배)
(축진철변두. 헌관사배. 축분축폐)
(헌관이차출. 축급집사사배이출)

(10) 청곡2리(靑谷二里)

제의일시는 1991년에 음력 정월 3일 동트기 전으로 고정하였다. 당집은 1972년경 새 마을사업을 할 당시 신축하였는데 벽돌로 벽채를 하고 슬레트로 지붕을 이었다. 제당 안에 석비를 하나 세워놓았는데 그것이 성황신위다. 제관은 이장, 반장 등이 맡아 하고 보통 5~6명이 제관이 된다. 메 한 그릇, 백설기, 어물, 제주 등을 장만한다. 근래 들어 돼지머리도 사용한다. 실·종이를 성주라 하여 제사 전에는 당 옆에 놓아두었다가 제사가 끝나면 명태 등 음식과 같이 싸서 당 안에 묶어둔다. 제사가 끝나면 소지 20여 장을 올린다. 현재 청곡2리에 전승되고 있는 축문은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양양읍 노인회장

김덕기(1926년 생) 옹이 직접 지은 것으로 1990년경부터 사용해오는 축문이다.

(11) 화일리(禾日里)

정초에 택일하여 제향한다. 당집은 없이 당목 4~5그루가 있다. 여기에 종이와 실 등을 묶어놓고 지낸다. 제물은 주과포로 간단히 장만한다. 예전엔 그 외 여러 가지를 많이 장만하였는데 근래 들어 간소화하여 간단하게 장만하자 마을의 노인들은 제사에



화일리 서낭

잘 참여하지 않는다. 메, 백설기, 어물, 탕 등을 사용하지 않으며 고축도 하지 않는다. 10여 년 전후에 젊은이들이 주관하면서 간소화하였기 때문이다. 신위는 3분이나 어떤 신격인지 그 자세한 전승은 중단되었다. 제관으로는 생기가 맞는 사람 3인을 선정한다.

3) 서면

(1) 갈천리(葛川里)

갈천리는 현재 2개 반이지만 과거에는 3개 반이었고, 반마다 서낭이 있었다고 한다. 현재의 서낭은 2반에 위치하고 있는데 반별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제향한다.

제향 날짜는 8월 9일로 10:30경에 제향한다. 당집은 전부터 있었지만 2002년 태풍 루사에 유실되어 그 해 가을에 재건하였다. 신위는 산신 1위이다. 주민 중에서 부정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참가하다 보니 약 40~45명 정도가 된다. 고축은 하였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 초헌은 이장, 아헌은 비손, 3헌은 고령자가 한다. 도가에는 송침을 하고 당집엔 금줄을 친다. 제물은 소머리, 백설기, 어물, 닭, 나물, 과줄, 과일, 포, 술 등 간소하게 장만한다. 제사를 마치면 소지를 올린다. 동제가 끝난 후 반 별로 따로 반(班)서낭제를 지냈는데 15여 년 전에 중단되었다. 동제를 오전에 지내고 나서 모든 음식을 풀어 나눈 후 19:00경에 반별 다시 제의를 제향하였다.

(2) 공수전리(公須田里)

제의일시는 2004년까지 음력 정월 3일이었으나 설날 명절 등으로 제의 준비에 어려움이 있어 2005년부터 정월 13일 09:00로 변경했다. 제관은 헌관, 축관, 집사 등으로, 이장(초헌관), 반장 등 4명이 주관하며 주민들도 동참할 수 있다. 물



공수전리 서낭당

푸레나무 아래 작은 당집 3개가 나란히 붙어 있으나 이중 하나는 마을 서낭이고 나머지 2개는 1반 서낭과 2반 서낭이다. 마을서낭은 원래 2반에 위치하고 있는데 2반 서낭이 그 옆에 작은 당집을 지어놓았다. 이후 1반(뒷골)에 문제가 생겨 잠시 서낭을 이전하여 그 옆에 건축하였다. 1반 서낭은 마을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1반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당집의 크기는 1m×1m×1m 정도 된다. 제당이 있는 근처에는 오래된 거목이 세 그루가 있는데 물푸레나무, 고얌나무, 고로쇠나무이다.

예전엔 생기를 보아 제관을 선출하였고 도가도 있었으며 당집에 금줄도 쳤었다. 제관은 이장, 반장이 대신하고 도가 대신에 마을회관에서 장만하고 당집에 금줄도 치지 않는다. 제물은 메, 과일, 소머리, 콩팥, 지레, 백설기, 술 등이다. 어물, 나물, 포, 탕은 없으며 제물은 남자만이 준비한다. 축문은 있으나 홀기는 없다. 신위는 토지신, 성황신, 여역신 등 3위다. 제사를 마치면 소지를 올리고 나서 음복 후 술 석 잔을 땅에 붓는다.

마을제사가 끝나면 각기 반별로(1반과 2반만) 또 제향한다. 동제(洞祭)와 반제사는 같은 날 제향하는데 반제사는 주과포만 차려 제향한다.

(3) 공수전리 3반 용소골[龍沼里]

용소골은 인구가 감소하여 지금은 공수전리 3반이 되었으나 본래는 별도의 행정단위로 용소리였다. 제의일시는 10월에 택일하며 시간은 09:00경이다. 제당은 당집의 형태로 냇가에 있는데 마을 제당보다는 규모가 크며 주위에 참나무 20여 그루가 있다. 신위는 서낭이고 할머니 서낭이다. 할아버지 서낭은 상(上)용소리에 있었는데 댐건설로 인하여 수몰되었다. 홀기나 축문은 없지만 비손을 초빙해와 구축(口祝)을 한다. 제관은

마을 사람들이 거의 모두 참여한다. 음식 준비는 도가의 여성이 하며 제물은 메, 어물, 돼지머리, 포, 탕, 나물, 과일, 술 등이다. 제사가 끝나면 소지를 올리고 종이에 음식을 싸서 제당 안에 걸어둔다. 이후 주민들이 함께 식사를 한다.

(4) 내현리(內峴里)

제의일시는 3년에 한 번으로 음력 3월 7일 18:00~19:00가 지난 시간이다. 제당은 예전엔 4곳에 있었으나 지금은 한 곳만 남아있고 제당의 형태는 당집으로 신위는 성황 1위이다. 축문은 2005년경에 이명성이 급하게 작성한 것으로 내용상 착오가 있어 보인다. 옛날부터 전승되어 오던 것일지라도 후대에 현대적 감각에 맞게 고쳐진 것이 분명하다. 제관으로 초현(고령자), 아현(이장), 중현 등 3현이 있고 보통 7~8명의 남자만 참석한다. 도가는 생기를 보아 선정하고 도가엔 송침을 한다. 제물은 메, 떡, 술, 어물, 돼지머리 등이다. 제향 후 소지를 올리고 퇴송을 하고 실과 종이를 당 안에 매달아 놓는다.

(5) 논화리(論化里)

정초에 택일하여 24:00경에 제향한다. 제당은 당집과 당목이 모두 있다. 당집은 블록조 소형건물이고 당목은 커다란 엄나무다. 한지와 제물을 진설하고 제향하는데 신위는 2위인데 산신령 내외분이고, 산제사라고 명명한다. 제물은 메, 백설기, 어물, 육, 돼지머리, 술 등이다. 보통 이장이 도가를 하며 예전에는 송침을 하였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다. 제관은 3인으로 생기를 보아 선정한다. 축문과 흘기는 없다. 제의 전에 당 안에 실과 종이를 먼저 걸어 놓는다. 마을소지를 올린 후 이장의 소지를 올리고 이후 가가호호 세대주별로 소지를 올려준다. 그 후 음식을 뜯어서 동서남북 4곳에 버린다.

(6) 북평리(北坪里)

북평리는 골말, 아랫말, 새룻골로 구성되어 있으며 골말과 아랫말은 별도로 서낭이 있었다. 아랫말 서낭은 암서낭, 골말서낭은 수서낭인데 모두 신체는 당목이었다. 오늘날 복원된 서낭은 아랫말 서낭이다. 공산치하 때에는 미신타파라 하여 제의가 중단되었다가 1995년경에 마을의 여성들이 복원하였으며, 부녀회원이 제관이 되어 주관한다.

적어도 가구당 1인씩은 참석하지만 부정이 있는 젊은 여인들은 참여하지 않는다. 정월 초순에 택일하여 자정이 넘으면 제향을 시작한다. 제물은 메, 백설기, 어물, 돼지머리, 과일, 과줄, 나물, 탕, 술 등이다. 신위는 서낭 1위다. 제의 전에 종이를 길게 접어서 맞추어 실로 묶어 나무에 걸었다. 술 석 잔을 부어놓고 생기 맞는 사람 세 명이 절을 올리고, 나머지는 잡일을 돕는다. 제의를 마치면 소지를 1장 올리고 이후 퇴송을 한다.

(7) 상평리(上坪里)

제의일시는 정월 3일 03:00~04:00경이었으나 현재는 제의를 제향하지 않는다. 당집은 없었고 당목이 있었는데 10여 년 전 도로 개설로 인하여 당목이 사라지게 되자 제의도 중단되었다. 제물은 소머리, 과일, 백설기, 포, 술 등으로 어물을 사용하지 않았다. 제관은 이장 등이 하였다. 고축은 하였으나 축문은 전하지 않는다.

(8) 서림리 4반(아래황이리 : 황이골)

제의일시는 3월 삼짇날이다. 서낭제가 중단된 것은 1972년경으로 당시 전기가설을 위하여 제당이 장애가 되어 철거하면서 제의도 중단되었다. 당목이 있었으나 최근 외지인이 이 곳에 집을 건축함으로써 당집이 사라졌다. 제물은 메, 명태, 백설기, 술 등이었다.

(9) 서선리(西仙里)

제의일시는 정월에 택일하였으나 10여 년 전에 정월 5일 04:00경으로 제당은 당집은 없고 당목과 제단과 담이 있다. 신위는 서낭 1위다. 축문은 있으나 흘기는 없다. 제물은 메, 돼지머리, 과일, 술 등이며 백설기, 어물은 사용하지 않는다. 제관으로는 3명이 참가하며 제사 후 소지를 올리고 퇴송을 한 다음 실과 종이를 당목에 매달아 놓고 아침이 다가오면 마을주민이 함께 음식을 먹는다.

(10) 송천리(松川里)

송천리는 현재 3개 반이 있다. 이중 3반은 북암리와 송어리에 해당한다. 두 개 마을의 인구가 감소하자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송천리의 3번째 반으로 만든 것이다. 따라서

송천리라 할 적에는 3반을 제외한 1반과 2반을 의미한다. 송천리는 정초에 택일하여 제향하는데 시간은 자정이다. 제당의 형태는 당집으로 주위에는 엄나무가 있다. 당집은 1979년 11월 18일 준공하였으며 신격은 성황과 수배 등 2위를 제향한다. 축문과 홀기는 없다. 제관은 이장, 각반대표, 임원, 마을의 원로 등 7~8명이 참가한다. 제물은 어물, 소머리, 백설기, 술 등으로 제의 후 소지를 올린다.



송천리 서낭당

(11) 송천리 3반 송어리(松魚里)

송어리는 현재 12호가 살고 있으며 서낭제는 10여 년 전에 중단되었다. 마을주민들의 전출입이 잦아지자 자연스레 제사를 주관하는 이가 없어서 중단된 것이다.

음력 8월 15일 동이 트기 전에 제향하였다. 제당은 당목으로 소나무가 여러 그루 있었다. 한국전쟁 이전에는 소를 잡아 제물로 하였지만 이후에는 소고기만 올렸다.

(12) 송천리 3반 북암리(北庵里)

북암리는 마씨 집성촌으로 38°선에 접해 있어 수시로 남북한 간에 충돌이 많았다. 한국전쟁 전후로 주민들이 이주하면서 마을이 황폐화되어 중단되었다. 음력 9월에 택일하여 09:00~10:00경에 제향하였다. 제물로는 메, 백설기, 육, 탕, 술 등을 올렸으며 어물, 포 등은 사용하지 않았고 소를 잡아 제향했다. 축문이 있었으나 전하지는 않는다. 제당은 당집은 없고 당목이 있었으며 신위는 할아버지 서낭 1위였다. 도가는 생기를 보아 선정했다. 소지도 올렸으며 제사 후 음식을 종이에 싸서 실에 묶어 달아놓았다.

(13) 수리(水里)

음력 10월 초순에 택일하여 05:00~06:00경에 제향한다. 당집은 마을과 도로 사이의 논 가운데 있다. 한국전쟁 때에 소실된 것을 이후 다시 중수하였고 이후에 30~40여 년 전에 또 중수하였다. 이 서낭당은 2002년 태풍 루사에도 무사하였다. 신위는 3위이나 그 정체는 잘 모른다. 마을 서낭은 할머니 서낭이다. 오대산 신령은 할머니 서낭이고 설

악산 신령은 할아버지 서낭으로 여기는데, 이 마을은 설악산과 가깝지만 본래 주령이 오대산 북대봉에서 내려온 오대산 주령이므로 할머니 서낭인 것이다. 제관은 이장과 6개 반 반장으로 그 외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으나 부정한 이와 여성은 참여할 수 없다. 제물은 메, 백설기, 어물, 포, 과일, 술 등으로 육류는 사용하지 않는다. 지금은 축문과 홀기가 전승되지 않지만, 20여 년 전에 김상배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고축을 하였다. 실과 종이를 제당에 놓은 후 제사를 지낸 후 소지를 올리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전에는 소지 후 퇴반을 하고 반패를 했다. 퇴반은 짐승들이 먹으라고 음식을 털어놓는 것이며, 반패는 음식을 집집마다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14) 수상리(水上里)

정월 3일 05:00경에 제향하는데 명칭을 흔히 명태제사라고 한다. 당목이 있었는데 당목은 소나무로서 마치 정이품송 같았으며 10여 년 전에 고사(枯死)하였다. 이후 엄나무를 당목으로 모시며 1970년대에 블록으로 제단을 만들었다. 제물은 메, 명태, 과일, 술, 나물 등으로 백설기와 육(肉)은 쓰지 않는다. 제관은 5인, 7인 등 홀수로 선정하며, 위원, 이장 등이 하고 생기는 보지 않는다. 제의 후 소지를 올린다.

(15) 영덕리(盈德里)

15여 년 전에는 3개 반이 있어 반별로 제향하였다. 양수댐이 건설되면서 가구 수가 감소하여 3개 반이 통합하여 제향하였으나 지금은 중단되었다. 3반은 다른 2개 반에 비해 비교적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당집은 지금 남아 있다.

(16) 영덕리 1반

당집은 돌담에 능에 지붕으로 건축하였는데 양수댐을 건설하면서 담수시켜 15여 년 전에 수몰되었다. 신위는 서낭이고 할머니 서낭이었는데 2반에서는 할아버지 서낭이라 하였다. 성금을 모아 그 중에 한 사람을 선정하여 생기에 맞추어 택일을 한다. 제관은 이 사람 내외가 된다. 이들이 제향하고 오면 그 음식을 나눠 먹었다. 축문과 홀기는 없고 소지는 올렸다. 제물은 메, 백설기, 육, 술 등이다.

(17) 영덕리 3반

정월 초순 택일하여 아침 일찍 해뜰 무렵에 지냈다. 당집은 함석지붕에 블록으로 벽채를 했고 그 안에 종이로 예단해서 정성들여 걸어놓았다. 제관은 생기를 보았으나 부정하지 않으면 모두 참석이 가능하였다. 제물은 메, 백설기, 돼지머리, 탕, 어물, 술 등을 사용했다. 신위는 산신과 서낭신(城隍神)이다. 처음에는 산제당에서 산제를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서낭제를 제향하였다. 이후 음식을 주민들이 같이 나누어먹었으며 그 후 집에 가 터제사를 지냈다. 이 3개의 제의가 같은 날에 모두 이루어졌으며 중단된 지는 대략 15년 정도 된다.

(18) 오색1리(五色一里) 1반(가라피 : 加羅皮)

제의는 3월 3일과 9월 9일 연 2회를 해가 뜰 무렵에 제향하였으나 15여 년 전부터 중단되었다. 당목이 있었으나 고사한 다음부터 돌담에서 제향하였다. 신격은 산신이다. 제물은 메, 백설기, 나물, 포, 돼지머리, 어물, 술 등을 사용했다. 축문과 홀기는 없었다. 헌작을 마치면 소지를 올리면서 축원을 했다. 산신제가 중단된 이유는 도가를 맡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산신제 외에도 서낭제가 있었다. 서낭은 당목의 형태로서 엄청 큰 나무였다. 그런데 한국전쟁 중에 당목이 고사하면서 그 후부터 중단되었다.

(19) 오색1리 2반(백암)+5반(관대문)

1960년대 후반 무장공비가 이곳에서 소탕되면서 2반과 5반으로 분반이 되었다. 제의 일시는 4월 8일 06:00경이다. 제당은 마을에서 떨어진 암벽 밑에 높이 150cm 정도의 함석지붕으로 움막을 만들었다. 제물은 메, 과일, 포, 물 등으로 간단하게 준비한다. 제물은 제당 근처에서 직접 만든다. 헌작 후 소지를 올린다.

(20) 오색1리 3반(굴아우)

제의는 3월 삼짇날과 중양절 등 연 2회를 제향하였는데 10여 년 전부터 지역주민들의 이주가 잦은 관계로 중단되었다. 제당으로는 당집은 1m 높이의 작은 산당으로 굴피지붕을 이어 만들었다. 당목은 살구나무로 주위에 돌담을 쌓았는데 지금 그 형체만 남

아 있다. 축문과 홀기는 없다. 제물은 메, 백설기, 어물, 돼지머리, 포, 과일, 나물, 탕, 술 등이다. 헌작 후 비손을 모셔와 소지를 올리면서 축원한 후 당집 안에 소지종이를 싹타래로 감아 매달아 놓는다. 이와는 별도로 종이에 음식을 조금씩 담아 당 옆에 묻어둔다. 신격은 산신인지 서낭인지 알 수 없지만 통칭 서낭제라 칭한다.

(21) 오색2리(五色二里) 1반(관터거리)

제의는 산신제와 서낭제가 있다. 제의시간은 음력 3월 삼짇날 06:00~07:00경으로 1시간 이상 소요된다. 제당은 당집이 있는데 목조 스레트 지붕이다. 제관과 도가는 생기를 보아 선정하는데 5~6명 선이다. 산신제는 고축을 하였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 서낭제는 동네의 비손을 초청해 제사를 주관하도록 하였고 그 분이 사망한 다음부터는 양양의 무당을 초빙해 주관하게 하였다. 아침에 시작할 때는 그 날 하루는 마을 주민들이 모여 놀았다. 산신제 신위는 설악산 신령, 점봉산 신령 등 2위이고, 서낭제 신위는 서낭 1위이다. 산신제를 제향한 후에 서낭제를 올렸다. 소지는 참여한 사람만 올렸으며 제물은 돼지머리, 백설기, 메, 어물, 과일, 술 등이다.

(22) 오색2리(五色二里) 2반~4반(오색약수터)

당집이 마을 중앙에 위치하여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 옆으로 이전하였으나 2004년부터 기독교 신자가 이장으로 선출되면서부터 제의가 중단되었으나 2005년 마을 노인회를 중심으로 복원하였다. 제의시간은 3월 삼짇날 16:00~17:00경에 제향한다. 20여 년 전에는 마을에 비손이 있어 서낭제를 주관하였으나 지금은 무당을 초빙하여 제의를 진행하므로 고축을 하지 않는다. 예전 고축을 할 때에는 설악산 산신령을 추었지만, 지금 무당이 주관하면서 설악산 산신령과 더불어 점봉산 산신령도 춘다. 제물은 메, 어물, 시루떡, 탕, 나물, 과일, 포, 술, 돼지머리 등이다.

(23) 용천리(龍泉里)

정월 초정 19:00경에 제향하며 당집은 없고 당목으로 소나무 18그루 정도가 있다. 신위에 대해서는 혼란스러운 점이 있다. 3위(토지, 성황, 천택)지신임에도 불구하고 리사

지신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리사지신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축문은 있으나 홀기는 없으며 제관으로는 위원, 개발위원, 반장 4인, 이장 등 12명이 참가한다. 음식 장만은 예전에는 차지가 있어 주관하였으나 지금은 이장이 한다. 제물은 메, 백설기, 어물, 과일, 술 등으로 제향 후 소지를 올린다.

(24) 장승1리(長承一里) 1~2반

40~50여 년 전부터 정월 초사흘 03:00으로 정하였다. 당집은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제물은 메, 돼지머리, 포, 과일, 탕, 채소, 술 등이며 어물은 사용하지 않았다. 신위는 서낭 1위이고 할아버지 서낭이다. 음식은 도가가 장만한다. 마을에 비손이 있어 제의를 주관하며 제사에는 보통 10여 가구가 참가한다. 축문과 홀기는 없으며 제의를 마치면 소지를 올린다.

(25) 장승1리(長承一里) 3~5반

1994년 철광이 폐광이 되면서 자연스레 서낭제가 중단되었다. 개별적으로 제향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정월 초순에 택일을 하여 24:00 전에 제향한다. 당집과 당목으로 소나무가 있다. 제물은 메, 포, 돼지머리, 시루떡, 어물, 탕, 과줄, 과일 등이었다. 신위는 서낭 1위다. 축문은 있었으나 홀기는 없었다. 제향 후 소지를 올렸다.

(26) 장승2리(長承二里)

1994년 4월 30일 철광산이 폐광되면서 한두 해 제향하였으나 현재에는 중단된 상태이며 2007~2008년에 복원 논의가 있었다.

(27) 장승3리(長承三里)

정월 4일 24:00에 제향하며 당집에는 위패가 있었는데 지금은 분실했다. 제물은 메, 백설기, 과일, 포, 어물, 술 등이다. 제관은 7~8명이 참여하며 신위는 서낭 1위이다. 종이와 실을 걸어놓고 제물을 차리며 제향 후 소지를 올린다. 이후 음식 일부를 떼어 밖에 나가 버린다.

(28) 황이리(黃耳里) 2반

제의일시는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 음력 8월 14일 09:00이지만 차지에 따라 3월 삼진날에 한 차례를 더 제향한다. 신위는 서낭과 산신으로 산신각과 서낭당이 있었는데 노후되어 10여 년 전에 주민성금과 찬조금으로 다시 지었다. 축문과 홀기는 없다. 차지 제도로 운영하는데 제의비용은 마을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차지가 자기 돈으로 지출한다. 따라서 차지의 정성에 따라 제물의 종류와 양이 달라질 수 있다. 여자도 참여할 수 있었으며 경제적 여건에 맞게 제물을 준비한다. 제물은 메, 닭(돼지머리), 어물, 과일, 술 등이며, 서낭당에서 직접 준비하며 백설기는 하지 않는다. 제향한 후 소지를 올리고 음식의 일부를 털어 제당 근처에 놓아두고 실과 종이를 걸어 둔다.

4) 손양면

(1) 가평리(柯坪里)

제의일시는 음력으로 정월에 택일하여 해질 무렵이다. 제삿날이 결정되면 동네의 길·흉사를 자제하고 제관들의 심신을 청결하게 하며 몸가짐을 바르게 갖는다. 당집은 한국전쟁 이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산주와 토지사용 문제 등이 발생하여 당집을 새로 짓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서낭제를 올릴 때에는 임시 천막을 치고 제사를 제향한다. 신위는 오방지신과 서낭이다. 제관은 생기를 보아 선정하며 제물은 동네 사람들이 성금·품을 모아 남자들이 이장집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다. 보통 6~7명이 참가한다. 축문은 있으나 홀기는 없다. 주요 희생으로 돼지를 잡고 그 외 제물은 메, 포, 과일, 백설기, 술 등이다. 헌작 후 소지를 올리고 퇴송을 하여 잡귀를 물리고 실 한 타래와 종이 한 장을 서낭나무에 묶어둔다. 마을로 돌아와 전 주민이 참여하여 음식을 골고루 나눠 먹는다. 가평리의 축문은 신현선의 집안에서 대대로 보관하여 오고 있다.

(2) 남양리(南陽里) 1~2반[삽존리(插存里)]

남양리는 삽존리, 부소치리, 석계리 등이 합하여 만들어졌다. 석계리는 지번만 있으

며 주민은 없다. 삼존리가 남양리 1반과 2반, 부소치리가 남양리 3반이다.

제의 일시는 정월 초정 03:00~04:00 사이 닭 울기 전이다. 서낭목이 있었는데 고목으로 고사되어 15여 년 전에 교체하였고 이때 돌로 계단을 조성하였다. 생기를 보아 제물 장만하는 이를 선정하였으나 지금은 차지가 한다. 차지는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한다. 제관은 보통 4~5명이 참가하는데 차지(유사), 이장, 제집사 등이다. 제물은 메, 백설기, 어물, 과일, 술 등으로 육류는 사용하지 않는다. 헌작 후 소지를 올리고 고수례를 하고 이후 종이와 실 한 타래 등을 서낭나무에 매어 놓는다. 축문은 한글 축문으로 관내에서는 보기 드문 경우인데 이 축문은 상왕도리에 살았던 고(故) 김경배 풍수사가 1996년(병자년)에 작성한 것이다.

* 삼존리(남양리 1~2반) 한글 축문

유세차 년 월 삭 일 일진 유학 ○ ○ ○

감소고우

본리본동 성황존신지하에 정심정예로 이 제수를 드리오니 수차공향 하옵소서.

세화연풍에 백곡이 풍등하고 오대산 하에 이 자손이 누대번성하고, 효표둔적하고, 실물 손재없이 막아주시고, 동중이 무병무사토록 막아주시고, 관재구설 삼형육해 비명횡액을 막아주시고, 백사를 운영하드라도 여의성취하게 하여 주시고, 산재물 물재물 장사재물에 대하여 억천만금 횡재하게 하시고, 고관대작에 와가거성하고 천추만대에 효자충신과 천하영웅이 많이 속출하기를 천만복축하나이다.

(3) 남양리 3반(부소치리)

부소치리는 인구가 감소하여 현재 남양리 3반으로 편제되어 있다. 마을제의는 천수제(天水祭)라고 하며 ‘천수제’란 하늘과 물이 농사에 도움이 되어달라는 뜻으로 물가 바위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향한다. 정월에 택일을 하였지만 10여 년 전부터 정월 초정으로 고정하였으며 시간



부소치리 서낭당

은 저녁 해질 무렵이다. 축문은 있으나 홀기는 없다. 매년 마을에서 도가를 지정하면, 도가가 스스로 제물을 장만하고 제의를 주관한다.

제의에는 2~3명이 참가하는데 도가를 생기에 맞추어 선정하였는데 10여 년 전부터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제물은 메, 명태, 탕, 나물, 과일, 포, 술 등으로 백설기, 육류 등은 하지 않는다. 헌작 후 소지를 올리고 음식의 일부를 강물에 던지면서 축원한다. 이 마을의 축문은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축문서식집에서 유래한다. 양승운(1940년 생)이 축문서식집을 참조하여 최근에 작성하였다.

(4) 동호리(銅湖里) 2반~3반

동짓달 초정 04:00~05:00경에 제향한다. 당집은 45여 년 전에 중수하였으며 당안에는 서낭과 수부를 그려놓은 탕화가 있다. 제물은 소머리, 어물, 과일, 나물, 탕, 백설기, 술 등을 사용한다. 지금 축문과 홀기는 없으나 30~40여 년 전에는 고축을 하였다. 도가와 제관은 생기를 맞추어 선정하며 제관은 4~5명이다. 헌작 후 소지를 올리고 실과 한지를 서낭당에 매달고 음식을 함께 나눈다. 이후 용바우에 가서 다시 제향한다.

(5) 동호리(銅湖里) 4반

동짓달 초순에 택일하여 해가 뜨기 전에 제향한다. 당집은 함석지붕을 2004년에 스테트로 지붕을 다시 했다. 제물은 메, 백설기, 어물, 탕, 나물, 과일, 소고기, 술 등을 장만한다. 신위는 서낭 2위이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서낭으로 짐작된다. 축문과 홀기는 없으나 과거에는 고축을 하였다. 생기에 맞춰 도가를 선정하고 도가와 보조 1인 등 2인이 참가했다. 헌작 후 소지를 올린다.

(6) 상양혈리(上陽穴里) 양지말(2반~3반)

상양혈리는 4개 반이 있다. 한국전쟁이후 서낭제가 중단되자 2반과 3반이 같이 서낭제를 복원 전승시켰으나 1980년경 이후에 다시 중단되었다. 당시 동해고속도로 공사를 위해 토지를 선수매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이주하면서 제의가 중단된 것이다. 당집은 없지만 열댓자 정도 되는 아릅드리 서낭나무가 있었으며 신위는 서낭이다. 제물은 호당

쌀 한 되씩 모아서 제의경비로 활용하였으며 제물은 메, 백설기, 어물, 돼지고기, 술 등이다. 축문과 흘기는 없었다.

(7) 상운리(祥雲里)

제의일시는 동짓달 초정 자정이다. 35여 년 전 제당을 지었으나 중간에 한 번 중수하였다. 생기를 보아 제의 주관자를 선정하고 제물을 준비하였으나 지금은 이장집에서 준비한다. 축문은 있으나 흘기는 없다. 전에는 차지가 음식을 장만했는데 차지라 하더라도 생기를 보았다. 그러나 지금은 이장집에서 음식을 장만한다. 제물은 메, 백설기, 어물, 포, 돼지고기, 과일, 과줄, 탕, 나물, 두부, 갱, 면, 술 등이다. 제관은 이장, 반장 등 외에도 누구든지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다. 헌작 후 소지를 올린다. 상운리의 축문은 고(故) 장영환이 줄곧 전담하였으나 17년 전에 고령으로 인하여 김기범에게 축문을 전승시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상운리의 축문은 적어도 30여 년은 경과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8) 송전리(松田里)

2003년까지는 1년에 2회, 정월과 동짓달에 제향하였으며 이후에는 정월에 택일하여 19:30~20:00 사이에 제향한다. 제당의 형태는 당목으로, 밤나무, 엄나무, 뽕나무, 작은 소나무 등이 주위에 있고, 또 흘담도 있다. 신위는 3위로 토지신, 성황신, 여역신이다. 축문과 흘기는 전하지 않는다. 제관은 생기를 보아 깨끗한 주민을 3명 선출한다. 음식은 마을 회관에서 제관 3인이 장만하며 제물은 메, 소고기, 어물, 과일, 탕, 나물, 술 등이다. 헌작 후 소지를 올리며 이후 음식을 종이에 싸서 나무에 매달아 놓는다.



송전리 서낭당

(9) 송현리(松峴里)

공산치하 때 미신타파라 해서 서낭제를 잠시 중단하였으나 1956년을 전후하여 다시 복원하였다. 제의 일시는 정월에 택일을 하여 자시에 제향하였으나 6~7년 전부터 정월

5일 동틀 무렵으로 고정하였다. 당집은 없고 당목은 있으며 마을 입구에 낮은 산이 있고 그 산 위 노송이 당목이다. 입구 우측 산의 노송 아래에서 축을 부르면 마을 안에서 제물을 올리고 제향한다. 두 곳에서 제향을 하는 셈이다. 한 쪽에 3~4명씩 두 곳이므로 총 6~8명 정도가 참가한다. 제관은 생기를 보아 선정하며 1년에 2인을 선정한다. 2인 중에 연장자가 서낭제를 주관한다. 축문은 있으나 홀기는 없다. 축문도 전승이 중단되었다가 이기낙의 선친이 다시 복원하였다. 고축을 하는 장소는 마을 입구 쪽이다. 고축 하는 곳에서 5방신을 모시고 마을 안쪽에서는 서낭신을 모신다. 제물은 메, 과일, 포, 어물, 소고기, 술 등을 사용한다.

(10) 수산리(水山里)

음력 10월 초하루에서 초삼일 사이에서 택일을 하여 14:00~15:00 사이에 제향한다. 보통 3~4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당집은 15m²(약 4평) 정도로 시멘트 블럭 스테트 지붕으로 15여 년 전에 중수한 것을 2010년 6월에 다시 중수하였다. 당목으로



수산리 서낭당

는 소나무가 있고 당내에는 탕화가 있는데 1950년대의 작품으로 보여진다. 서낭은 할머니 서낭이므로 소를 잡을 때 반드시 황소를 잡는데 소를 부를 땐 반드시 ‘말’이라 부른다. 제물은 메, 소, 어물, 과일, 백설기, 탕, 술 등이다. 제관 2인, 도가, 일 보는 사람 등 여러 사람이 참가한다. 서낭제를 제향하기 전인 아침에 소내장을 삶아 피고사를 지낸다. 헌작 후 소지를 올리며 소지 올리는 이는 속초 보살이다. 제사를 지낸 후엔 당밖 에 나와 수부에게 징을 치면서 빌고 마친다.

(11) 수여리 웃말(上水餘里)

수여리 2반과 3반은 무너미라고 부르는데 상(上)수여리 일대이다. 2004년경까지 제향하였으나 이후 중단되었다. 정월에 택일하여 24:00~01:00에 제향한다. 당집은 없고 당목이 있었다. 당목이 벼락을 맞아 고사하여 그 주위에 병풍을 치고 제향한다. 신위는

오방지신(중앙황제지신, 백제지신, 적제지신, 흑제지신, 청제지신)으로 지방을 만들어 병풍에 붙여놓고 제향했다. 오방지신을 각자 말을 5인의 제관을 생기를 맞추어 선정을 한다. 그리고 축관과 음식을 다루는 보조도 있기 때문에 보통 10인 정도를 선정해야 한다. 제물은 과일, 포, 어물, 메, 천근(무우), 술 등 6가지로 백설기는 하지 않는다.

오방지신 제의를 지낼 때 고축 소리가 들리면 대기하고 있던 두세 명이 제물을 가지고 할머니 서낭으로 간다. 오방지신 제의는 마을의 서쪽에서 지내고, 축을 읽는 소리가 들리면 제관 두 사람이 음식물을 준비하여 동쪽에 있는 할머니 서낭으로 간다. 할머니 서낭도 당집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당목의 형태다. 그 곳에 가서 종이를 달고 실을 달고 절을 한다. 6가지 제물의 종류를 그대로 모두 갖고 간다. 향을 피우고 향냄새를 맡아야 혼이 온다. 예전에는 사방에서 제향했으나 근래 들어 두 곳으로 축소하였는데 이마저 이제는 중단되었다.

* 수여리(웃말) 축문 - 송현리 축문과 동일하다.

(12) 여운포리(如雲浦里)

정월 초정일 자시에 제향한다. 당집은 없고 당목은 고사하였으며 당목이 있던 자리에서 제향한다. 제단을 새로 조성하려고 하였지만 마을 어른들이 당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 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생기를 보아 제관을 선출하며 보통 3인이다. 제물은 포, 백설기, 어물, 소머리, 탕, 과일, 메, 술 등이다. 신위는 서낭 1위이다. 헌작 후 소지는 가가호호 올려주고, 퇴송이라 하여 제물을 서낭나무 밑에 파묻는다. 당목에 종지와 실을 매다는데 다른 제의음식은 매달지 않는다.

(13) 오산리(鰲山里)

정월 대보름, 단오, 중앙절 등 연 3회를 제향한다. 제당의 형태는 당목이다. 문헌에는 구룡나무라고 전한다. 서낭은 할머니서낭 1위이나 메는 2그릇을 제향하는데 내외로 모셨기 때문이다. 축문과 홀기는 없다. 정월 대보름에는 어물, 메, 떡, 술, 과일, 탕, 나물, 육 등을 사용한다. 단오에는 2006년경부터 이장이 혼자 주과포만 준비해서 간략하게 제향한다. 9월 중앙절에는 송아지를 잡기도 하였으나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2006년을

기점으로 하여 소머리, 소꼬리, 4족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제물 준비는 전통적으로 이장이 한다. 제의는 비손이 있어 지난 50여 년 전부터 주관을 하다가 15여 년 전에 부정이 생겨 속초 무당이 이어받아 주관하고 있다. 무당이 주관을 하더라도 징을 치지 않고 조용히 제향한다.

(14) 주리(舟里) 1~2반

2004년까지는 정초에 택일을 하여 01:00~02:00경에 제향하였으나 2005년부터 중단하였다. 중단 사유는 제관 선정할 시 생기를 보아 선정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특정한 이 계속하여 제관을 하게 되자 거부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중단되었다. 다음은 중단되기 전의 제의의 개요이다. 제관은 4명을 선정하였는데 이중 생기가 가장 좋은 이가 도가요 초헌관이 된다. 여자들도 음식 준비하는 2인을 선정하여 여자들이 제단에 음식을 차린다. 당집은 없고 당목이 있는데 당목은 소나무다. 제물로는 소머리, 백설기, 과일, 메, 나물, 탕, 국, 술 등이다. 축문과 홀기는 없다. 헌작 후 소지를 올리고 음식을 뜯어 당목 밑에 놓는다. 이후 종이와 실만 당목에 매달아 놓고 내려온다.

(15) 주리(舟里) 3반

15여 년 전까지 제향하였으나 젊은 사람들이 미신이라 주장하여 제의가 중단되었다. 주민도 6호에 불과하며 당집은 없고 당목만 있다. 당목은 소나무로 신위는 서낭 1위이다. 제물은 메, 어물, 육, 소머리(혹은 돼지머리), 포, 과일, 술 등이다.

(16) 하양혈리(下陽穴里)

제의일시는 동짓달 초정 03:00~04:00경이다. 당집은 없지만 당목은 있다. 축문은 있으나 홀기는 없다. 축문은 2005년경 현 노인회장인 김근수(남·75세)가 축문을 복원할 때에 인근 상운리의 축문을 참조하여 작성했다. 제물은 메, 백설기, 어물, 과일, 탕, 나물, 과줄, 술 등이다. 제관은 예전에는 생기를 보았으나 지금은 보지 않으며, 제관은 보통 5~6명을 선정한다.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모두 참가할 수 있으나 여자는 참여할 수 없다. 헌작 후 소지를 올리고 한지와 실 타래를 당목에 매달고 제의에 참여한 사람들

이 음복하고 헤어진다.

(17) 하왕도리(下旺道里)

15여 년 전까지 제향하였는데 청년들이 반대하여 중단되었다. 8월에 택일하여 07:00~08:00경에 제향하였고, 당집은 없고 당목은 있었다. 10여 년 전에 산주가 산을 훼손하면서 당목이 없어졌다. 당목은 소나무 한 그루였다. 제물은 메, 백설기, 과일, 돼지머리, 탕, 나물, 어물, 포, 술 등이다. 헌작 후 소지는 마을주민들을 모두 올려 주었고, 이후 실과 종이에 명태를 넣어 나무에 매달았다. 제의 후에는 마을주민들이 도가에 모여 음식을 나눠 먹었다.

(18) 학포리(鶴浦里)

마을 중구봉에 서낭목이 여러 그루가 있었는데 언젠가 누가 서낭목을 베어버렸다. 이후 아랫말 쪽에 다시 서낭목을 만들었다. 이때부터 웃말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고 아랫말 사람들끼리 서낭제를 제향하게 되었다. 정초에 대보름 전으로 택일하여 20:00에 제향한다. 서낭목은 소나무로 신위는 성황지신, 여역지신, 오방지신(25~30년 전에는 사방지신이었음) 등 3위이다. 제물은 메, 백설기, 명태, 포, 술 등으로 음식 준비는 차지 2인을 선정해서 한다. 제관은 생기를 보아 선정했는데 차지가 꼭 제관이 되지는 않는다. 학포리에 현재 전승되고 있는 축문은 이주만이 작성했다.

5) 현북면

(1) 기사문리(其士門里)

매년 9월에 택일하여 12:00에 제향한다. 마을의 노송 3그루를 서낭으로 표현하는 탕화를 그렸는데 남성 1위와 여성 2위를 그렸다. 당집은 한국전쟁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1970~1980년대에 다시 중수했다. 당안에는 탕화가 있었으나 낡아서 10여 년 전에 다시 그렸다. 제물로 예전에는 소를 잡았다. 제물은 소머리, 소뿔, 소꼬리, 소간, 소고

기, 어물, 백설기, 탕, 과일, 나물, 술 등이다. 축문과 홀기는 없다. 제의는 서낭제를 지낸 다음 용왕제를 지내는 순서로 진행된다.

서낭당에서 제의가 시작되면 5~6명이 따로 준비한 제물(메 1그릇, 3실과, 소다리, 포 등)을 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용왕제를 지낸다. 그 후 음식을 조금씩 덜어 바가지에 담아 수부를 위해 뒤풀이를 한다. 마을제의에 인근 해군부대장도 참여한다.

(2) 대치리(大峙里)

정월 초정 14:00~15:00에 제향한다. 당집은 없고 당목은 있는데 몇 백 년 된 소나무다. 제물은 돼지, 떡, 술, 과일, 탕, 나물, 메, 포, 갯 등으로 어물은 사용하지 않으며 돼지를 당목 있는 데서 직접 잡아 사용한다. 이 돼지를 ‘말’이라 한다. 잡은 ‘말’을 큰 함지에 담아 돌이 들어다가 놓는다. 신위가 셋이어도 이 ‘말’은 셋으로 나누지는 않으며 다만 쇠칼을 세 개 꽂아 놓을 뿐이다. 세 분이 알아서 드시라는 뜻으로 수저도 세 벌이다. 축문은 있고 홀기는 없다. 도가는 7일간 두문불출 한다. 제관이 되면 3일간은 부부 생활과 문밖출입을 삼간다. 신위는 성황신, 사직신, 여역신 등 3위이다. 헌작 배례를 마친 다음 제단 옆에다가 메와 나물을 갖다 놓고 재배한다. 이후 소지를 올리고 실과 종이를 폐백이라 하여 나무에 매달아 놓는다. 음복을 하고 이장이 주민들에게 제의가 종료되었음을 알리고 산에서 제향한 음식을 봉어로 만들어 나누어 준다.

(3) 도리(陶里) 1반

3월 삼짇날 해가 뜨면 제향한다. 신격은 할아버지, 할머니 서낭 2위이다. 당집은 투방집이다. 제물은 돼지고기, 어물, 과일, 메, 백설기, 술 등으로 메는 큰 그릇으로 한 그릇 올리는데 여기에 숟가락을 호(戶) 수에 신격 2위를 더한 숫자만큼 꽂는다. 제의는 집집마다 1명씩 참여하는데 많아야 2~3인이다. 축문과 홀기는 없으며 헌작 배례 후 소지를 올린다.

(4) 도리(陶里) 2반

3월 삼짇날, 9월 중양절 등 연 2회 아침 동틀 무렵에 제향한다. 고축은 하지만 지금은

하지 않고 흘기는 없다. 제당은 두 곳에 있다. 제당의 형태를 보면 위의 서낭은 당집이고 아래서낭은 당목이다. 당목에는 제향하지 않고 당집에만 제향한다. 서낭은 할아버지 서낭이다. 제물로는 백설기, 돼지머리, 어물, 술 등을 준비한다. 실과 한지를 당에 걸고 헌작 배례 후 소지를 올리고 퇴송을 한다.

(5) 면옥치리(綿玉峙里) 1반(연하동)

40~50여 년 전에는 연하동에 25여 호, 달아치에 21호 정도 거주하였다. 마을이 커서 각각 서낭제를 올렸다. 연하동은 본래 장리 영토였으나 실제 거주지가 장리보다는 면옥치리와 가까워 행정으로는 면옥치 관할이었다. 서낭제는 10여 호가 남을 무렵까지도 제향하였다. 울진무장공비침투사건(1968년)이 발발하면서 공비 잔당들이 원일전리, 장리, 달아치 등에서도 발견되었다. 그때 공비 신고 포상금으로 마을주민들 대부분이 강릉 주문진 등 도시로 이주하였다. 10여 년 전까지는 제향하였다고 하나 더 이상 제보를 얻을 수 없었다. 현재 연하동에는 2호가 살고 있다.

(6) 면옥치리(綿玉峙里) 1반(월아치)

월아치는 달아치라고도 하며 20여 년 전에 서낭제가 중단되었다. 동짓달에 택일하여 해질 무렵에 제향하였다. 서낭당은 돌로 벽채를 하고 굴피 지붕인 당집으로 2002년 태풍 루사 때 유실되었다. 산신당이 있어 산신제를 제향한 다음 서낭제를 제향하였다. 제관은 고령자 중에서 깨끗한 이로 선정했으며 마을주민들이 대부분 참석했다. 여자도 부정만 없으면 꺼리지 않았다. 메는 산신당 2그릇, 서낭당 3그릇을 해 올렸으며 제물로는 어물, 탕, 나물, 돼지머리, 술 등을 사용했다. 처음에 마을대표가 절을 하고 그 후로는 주민들이 모두 절을 한다. 소지 후 음복하고 짐승 먹으라는 뜻으로 퇴송하였다.

(7) 면옥치리(綿玉峙里) 2반(상면옥치)

2반 서낭제는 10여 년 전에 중단되었으며 당집은 15여 년 전에 교회 기도원에서 철거하였다. 제의는 8월 초정, 1년에 1회 12:00에 제향하였다. 과거에는 고축을 했었으나 중단된 지 30여 년이 된다. 흘기는 없다. 근처에 서낭나무(소나무) 2그루가 있다. 메는

1그릇을 올렸으므로 서낭 1위임을 알 수 있다. 제물은 메, 백설기, 술 등으로 어물은 사용하지 않았다. 예전 암소를 잡은 적이 있고 이후 암탉 5~6마리를 사용한 적이 있다.

(8) 면옥치리(綿玉峙里) 3반(하면옥치)

대보름 06:00에 제향한다. 원래 삼진날과 중앙절에 2회였는데 10여 년 전에 비용 문제로 1회로 전환하면서 대보름으로 변경했다. 제당은 20여 년 전에 돌을 쌓아서 벽채를 만들고 그 위에 나무를 대고 함석지붕을 이었다. 주위에 소나무가 몇 그루 있다. 제물은 메, 돼지머리, 포, 술(소주), 백설기, 과일, 어물, 나물 등이다. 축문과 홀기는 없다. 신격은 3위나 정확한 정체는 알 수 없지만 억울하게 죽은 처녀의 원혼을 위로해 준다는 제보도 있었다. 제물은 이장이 장만하고 이장이 없으면 반장이 장만한다. 제관으로 5인 정도 가는데 생기를 보지 않는다.

(9) 명지리(明池里)

정월초 이장 생기에 따라 택일하여 02:00~04:00 사이에 시작한다. 축문은 있으나 홀기는 없다. 제당이 2곳에 있는데 웃말 서낭당은 당집이 아니고 당목으로 할아버지 서낭이라 한다. 아랫말(아랫당)은 5년 전에 당집을 지었고, 그 안에 위패를 모셨는데 성황지신위라 써놓았다. 할아버지 서낭이 처와 첩을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신위는 아랫당이 1위, 윗당이 3위이다. 제관은 8~9명으로 생기를 본다. 제물은 메, 백설기, 어물, 포, 소고기, 닭, 계란, 과일, 술 등이다.

제의는 아랫당을 먼저 제향하고 윗당은 나중에 제향한다. 제물 차리는 것은 윗당과 아랫당이 동일하다. 소지, 제당에 거는 창호지, 고축도 두 곳 모두 한다. 제사 후 창호지에 명태, 떡 등을 넣어 싸서 실로 묶어 윗당은 나무에 매달고 아랫당은 당 안에 묶어 둔다. 제삿날 아침 마을회관에 모두 모여 제의 음식으로 아침을 먹는다.

(10) 법수치리(法水峙里)

아랫말, 중간말, 윗말 등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 각각 별도로 제향하였으나 그 정확한 정보는 지금은 알 수 없다. 오늘날은 중간말에 있는 서낭에서 함께 제향한다.

음력으로 정월 초정과 8월 초정 등 1년에 2회 제향한다. 정월엔 07:00~08:00, 8월은 05:00~06:00에 제향한다. 당집의 벽체는 나무로 했고, 지붕은 함석을 이었다. 신위는 2위이고 정체는 모르지만 내외로 여긴다. 고축은 하였지만 지금은 축문이 전하지 않는다. 제관으로는 보통 6~7명이 참가하는데 제관도 예전에는 생기를 맞추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 제물은 메, 과일, 소머리(혹은 돼지머리), 갈비, 과일, 어물, 백설기, 술 등으로 헌작 배례 후 소지를 올린다.

(11) 어성전리(漁城田里)

한국전쟁 이후 행정구역 조정으로 1리·2리로 분리되었다. 그러나 마을의 정체성은 하나이므로 서낭제는 두 마을이 함께 제향한다. 정월 서낭제는 1리가, 8월 서낭제는 2리가 주관하는데 주관은 각리가 별도로 하나 참여는 1리·2리 구분



어성전리 서낭당

없이 모두 참여한다. 당집은 없고 고송 옆에서 제단을 만들어 놓았으며 주위에는 소나무, 참나무 5그루 정도가 있는데 수령은 몇 백 년 되었다. 한지와 실을 매달아 놓고 제사를 지낸다. 헌작과 배례가 끝나면 소지를 올린다. 신격은 할아버지 서낭, 할머니 서낭 등 2위이지만 원 서낭은 할머니 서낭이다. 그래서 예전에 소·돼지는 수컷으로 잡았다. 제물은 메, 어물, 백설기, 소머리, 술 등으로 과거에는 소, 돼지도 잡았지만 지금은 소머리만 쓴다. 산신제에서 축을 고하고 서낭제에서도 축을 고한다. 비손이 있어 소지를 올리고 그 후에 마을 안전을 위하여 수부(잡귀)에게 사발에 음식을 모아서 던진다. 예전엔 돌로 말[馬]을 만들어 서낭 주변에 만들어 놓았는데 이는 서낭이 출타할 시 사용하라는 뜻이다. 이 마을의 축문은 1968년도에 만들어졌다.

(12) 원일전리(元日田里)

윗말(양짓말), 중간말(응달말), 아랫말에 서낭이 있었다. 각각 제향하였으나 지금은 응달말 서낭으로 통합하였다. 양짓말 서낭은 병자년 포락에 유실되고 아랫말 서낭은 새

마을 운동으로 도로가 개설되면서 없어졌다. 정월 초정 04:30경에 제향한다. 당집은 없고 당목으로 엄나무가 있다. 나무 아래에 성황신이라 지방을 써붙이고 제향하는데 축문은 있으나 홀기는 없다. 메 2그릇을 올리므로 신위는 2위이다. 내외로 여기지만 원서낭은 할머니 서낭이다. 제물은 차지가 장만한다. 제물은 돼지머리, 어물, 명태포, 과일, 백설기, 탕, 나물, 술 등이다. 헌작 배례 후 소지를 올린다.

(13) 장리(獐里) 3반(배터)

음력 정월 14일 해가 뜨기 전에 지낸다. 예전에는 중앙절에도 제향했지만 25여 년 전에 연 1회로 축소하였다. 신격은 3위이나 그 정체는 알 수 없다. 당집은 없고 당목이 있는데 소나무 외 다른 몇 그루가 있다. 고축을 할 때도 있고 하지 않을 때도 있다. 제물은 메, 어물, 돼지고기, 백설기, 술, 과일 등이다. 어물로는 명태를 사용하고 집집마다 한 마리씩 돌아가도록 장만한다. 메 3그릇 외에 접시밥을 따로 세 접시 한다. 제의 개시 전에 “수부! 수부! 수부!” 하면서 내물린다. 제관으로는 보통 2~3인이 참여한다. 헌작 배례 후 소지를 올리고 이후 밤, 대추, 떡 등을 제당에 조금 놓고 초지에 밤, 대추, 떡 등을 싸서 실과 종이에 함께 당목에 매달아 놓는다. 제사 후 차지 집에 와 모여 같이 나눠 먹는다.

6) 현남면

(1) 건불리(見佛里)

1년에 1회 정월 대보름 아침에 제향한다. 당집은 1937년에 건축하였으며 서낭은 두 곳에 있었다. 아래서낭은 당목이었는데 지금은 소멸되었다. 서낭제는 한국전쟁 이후 한동안 중단되었다가 2003년경 복원하였다. 예전에는 동짓달에 제향



건불리 서낭당

하였으나 복원하면서 정월로 변경하였다. 제물은 돼지머리, 어물, 과일, 포, 탕, 나물,

두부, 백설기, 술 등이다. 서낭 2위를 제향하는데 내외로 인식한다. 이 마을 축문은 2006년 3월 조철행이 지었다.

(2) 광진리(廣津里) 1반(광나루)

광나루 서낭당은 2곳이 있는데 바닷가에 위치한 곳은 암서낭으로 할머니서낭이라 한다. 남쪽 동산 중턱에 있는 서낭은 수서낭이라 하는데 실체는 오래된 참나무다. 마을에 처음으로 터전을 잡은 이가 김해 김씨였는데, 그 집의 조모가 호랑이에 물려가 이곳에 모셨다는 전설이 있다.

1970년대 중반 마을에서 기금을 모아 서낭당을 건축하고 이곳에 할머니 서낭을 모셨다. 제당은 벽돌집으로 스텔트로 지붕을 이었고 바닷가 군사통제구역 내에 있다. 1반은 연 2회 제향하며 정월 대보름과 음력 10월 중에 택일하여 09:00나 10:00쯤 제향한다. 제물로는 탕, 나물, 떡, 메, 포, 술, 어물, 과일, 과줄, 부침개, 돼지머리 등을 준비한다. 어촌계가 주관하며 제관은 4명으로 도가, 어촌계장 외 2인이다. 축문과 흥기는 없다. 제의는 무녀가 주관하며 수서낭을 모셔와 합배하여 제향한다. 헌작이 끝나면 소지를 올리고 수배를 위해 퇴송을 하고 바닷가에 나가 용왕제를 지내고 금줄을 걸어내고 음복한다.

(3) 광진리(廣津里) 2반(큰바다)

정월 대보름에는 07:00경, 10월엔 10:00~11:00경에 택일하여 제향한다. 당집이 바닷가에 있는데 1970년대 주민들이 성금으로 건립하였다. 암서낭이고 수서낭은 광나루의 서낭이었다.(광나루마을의 주장과는 다르다.) 그러나 마을이 오래 전에 분리되면서 각자 암·수서낭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광나루와 서낭의 성별이 다르다. 제향할 적에 큰바다는 메를 2그릇 떠서 광진리의 서낭을 모셔와 같이 합배한다. 축문과 흥기는 없다. 제물은 메, 포, 어물, 백설기, 술 등으로 육류는 사용하지 않는다. 박정옥 무녀가 제의를 주관한다. 징을 치고 축원한 후 헌작하고 소지를 올리고 바닷가에서 용왕제를 올리고 음복한다.

(4) 광진리(廣津里) 3반(갯가)

10여 년 전에 중단되었는데 주민 17호 중 5~6호가 기독교를 믿어 제의에 불참함으로 비용 마련이 곤란하였다. 더욱이 도가도 하기 싫어하여 제의를 중단한 것이다. 당집은 없지만 당목은 있다. 축문과 홀기는 없다. 제의는 정월 대보름 새벽 해가 뜰 무렵에 제향하였는데 제물은 돼지고기, 어물, 포, 과일, 탕, 나물, 메, 과줄, 두부, 약과, 술 등으로 백설기는 하지 않았다. 신격은 서낭 1위이며 제관은 도가 내외, 반장 등 3~4인이다. 헌작 후 소지를 올리고 주민들이 모여 같이 아침을 한다.

(5) 남애1리(南涯一里)

매년 2회, 3월과 9월 중에 초(初)5일 안으로 택일하여 제향한다. 곳은 예전에 3년마다 하였으나 한국전쟁 이후로는 하지 않았다. 신격은 할아버지 서낭으로 한 분이지만 메는 내외라 생각하므로 두 그릇이다. 원래 할머니 서낭은 남애2리의 서낭이었지만 남애 2리가 분리되어 자체적으로 암수 서낭을 만들자 남애1리에서도 자체적으로 할머니 서낭을 만들었다. 할머니 서낭은 국도 변에 있는 당목이었으나 없어진 지는 40여 년이 더 된 것으로 짐작한다. 조씨 서낭이란 말도 있는데 조씨가 마을에 처음 배판을 했기에 붙여졌지만 지금은 조씨들이 거의 살지 않는다. 축문과 홀기는 없다. 제관은 3월과 9월 초순에 제관 3인을 선정한다. 가능한 한 생기가 가장 빨리 나는 집을 선정한다. 제물은 메, 백설기, 과일, 탕, 나물, 포, 소간, 소머리, 소4족, 술 등이다. 제의는 비손이 주관하며 헌작 후 소지를 올리고 뒷풀이를 하고 음복 후 마친다.

(6) 남애2리~남애4리

제의 일시는 3월 삼짇날과 중양절 등 연 2회이며 11:30부터 12:00 사이에 제향한다. 제의는 어촌계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주관은 3개 리가 돌아가면서 한다. 한 해 3월 제의를 2리가 주관하면 9월 제의는 3리가 주관하고 이듬해 3월 제의는



남애2~4리 서낭당

4리가 주관하는 방식이다. 예전엔 당집이 없어서 당목에 지방을 붙이고 제향하였는데 당집은 1970년대에 신축을 하였다. 2000년대 초 정부의 남애향 미향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낭당을 중수하여 2003년에 완공했다. 신격은 서낭을 포함하여 7위이지만 그 정체는 알 수 없다. 서낭의 성별은 할머니 서낭이다. 축문과 홀기는 없다. 제의는 비손이 주관한다. 제관은 생기를 보아 선정하는데, 보통 4~5인이고, 일하는 이들을 포함하여 10여 명을 선정한다. 제물은 메, 백설기, 어물, 과일, 탕, 나물, 갯물, 술 등이다. 할머니 서낭이므로 육류는 사용하지 않는다. 헌작 후 소지를 올리고 퇴송하고 마친다. 예전에 굿은 3년마다 했는데 경제적 이유 등으로 최근에는 4년이나 5년 만에 한다.

(7) 동산리(銅山里)

2004년까지 연 2회 봄(정월 초정)과 가을(8월 초정)로 11:00에 제향하다가 2005년부터 경제적 이유 등으로 정월제의는 주과포만으로, 가을제의는 어촌제와 같이 풍어제로 제향한다. 당집이 있고 당 내에 탕화가 있으며 탕화에는 할아버지 한 분과 양 옆에 여성 두 분 그리고 수부가 그려져 있다. 신격은 할아버지 서낭으로 이 그림은 1990년경에 그렸다. 축문과 홀기는 없다. 신격은 할아버지 서낭, 할머니 서낭 2인, 수부 1인 등 4위이다. 제관은 도가, 이장을 포함하여 3~4인이 보통 참가하지만 가을제의에는 더 많이 참가한다. 주요 제물로는 가을제의에는 소를 잡았으나 근래 들어 경제적인 문제로 소 4족으로 대체한다. 그 외 제물은 메, 백설기, 포, 과일, 술 등이다. 가을제의를 무당을 불러 주재시켰는데 비용 부담이 커 지금은 무당을 부르지 않는다. 간단하게 헌작 후 소지를 올리고 마친다. 20년 전엔 3년마다 한 번씩 굿을 했다. 풍어제는 매년 하는데 11:00에 시작하여 하루만에 마친다.

(8) 두창시변리(斗昌市邊里) 1반(두리)

두창시변리는 두리, 창리, 시변리가 합하여진 오늘날의 행정리이다. 예전 마을 제의는 행정리 단위가 아니라 법정리 별로 제향하였는데 예전의 두리는 오늘날 두창시변리 1반과 2반 지역에 해당한다. 2반은 1968년 해일로 인해 동산리 주민들이 집단 이주하여 만들어진 곳이다. 동산리에서 이주한 2반 주민들은 두리의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다. 그렇다고 동산리의 제의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2반은 토지는 두리 소속이고 사람은 동산리 사람이다 보니 서낭제가 없고 1반만 서낭제를 지낸다.

정월 초정에 18:00경에 제향하는데 당집은 없고 소나무만 있으며 벽돌로 담장을 만들었고, 그 안에 시멘트로 제단을 만들어 놓았다. 신격은 3위이지만 그 정체는 알 수 없으며 제의는 1반 7호 모두 참가한다. 물론 부정을 타면 스스로 불참한다. 10년 전부터 시변리 새말(4반)에 사는 함재옥 무녀가 제의를 주관하고 있다. 무녀가 지시하는 대로 하는데 방식은 대체로 헌작 후 소지를 올리는 방식이다. 제물은 메, 3실과, 어물(명태 10마리, 문어), 술 등이다. 명태 10마리를 각 신위당 3마리씩 갈라 놓는다.

(9) 북분리(北盆里)

정월 초정 12:00쯤에 제향한다. 예전 제당이 위와 아래 2곳에 있었다. 위 서낭당에서 송아지를 잡아 올렸으나 언젠가 소를 잡다가 소가 도망쳐 아래 서낭당에서 죽은 후로는 아래 서낭당에서만 제향한다. 서낭은 당목이고 주위로 돌담을 쌓



북분리 서낭당

아 제단을 만들었다. 신격은 성황지신, 토지지신, 여역지신이지만 제향할 때에는 신들을 따라다니는 수부까지 제향한다. 축문은 전하나 홀기는 없다. 제물은 메, 백설기, 어물, 나물, 탕, 과일, 과줄, 갱, 산적, 포, 술 등이다. 헌작 후 소지 올리고 고수례를 한다. 이후 실·종이를 나무에 매단다. 북분리의 축문은 고(故) 안창모(1916년생)가 1990년경에 작성하였다고 전하지만, 실제 문구로 보아서는 그보다도 훨씬 이전인 듯하다.

(10) 상월천리(上月川里)

예전엔 봄과 가을로 연 2회 14:00경에 제향하였다. 인구가 감소하여 2002년부터 봄 제의를 제향하지 않고 음력 8월에 택일을 하여 제향하는데, 대체로 8월 초정에 제향한다. 당집은 1934년경에 지었는데 목조에 함석 지붕으로 당집 주위에 소나무가 열 그루 있으며 당안에는 탕화와 위패가 있다. 신격은 성황신, 토지신, 여역신이다. 축문은 전

하나 흘기는 없다. 제관은 부정하지 않으면 누구나 될 수 있으며, 제관으로 보통 5인을 선정한다. 제물은 예전엔 8월에 소를 잡고 정월엔 명태를 사용하였으며 지금은 8월만 제향하므로 어물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 외 제물은 메, 백설기, 과일, 나물, 술 등이다. 원래 산신제를 먼저 제향하고 서낭제를 제향하였으나 지금은 산신제는 제향하지 않는다. 헌작 후 소지를 올리는데 가구 수만큼 올렸다. 실과 종이를 제의상에 놓았다가 제당 내에 걸어 놓았다. 상월천리의 현전하고 있는 옛날 축문은 계축년(1973년)에 고(故) 조종옥(1992년에 88세로 사망)이 작성한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복잡하여 2005년경 주문진읍 주문 5리에 있는 철학관에 가서 간소화한 축문을 만들었다. 이전의 축문은 100여 년은 되었으리라 짐작된다.

(11) 인구1리(仁邱一里)

봄(삼진날)과 가을(중양절) 등 1년에 2회 자시에 인근 시변리와 함께 제향한다. 죽도 서낭당이라고도 부르며 당집이 있다. 신격은 성황지신, 토지지신, 여역지신 등 3위이고 할아버지 서낭이다. 제관은 10여 명이며 제물은 돼지머리, 어물, 백설기, 술 등이다. 1980년대까진 소를 잡았으나 그 후에는 두사죽으로 대체하다가 근래에는 소고기로만 사용한다. 제의의 진행은 헌작 배례 후 소지를 올린다. 이후 음식을 일부 털어서 수부를 위해 바닷가에 내물린다. 인구1리는 한문으로 된 축문이 있으나 2000년대 이후부터 한글 축문을 새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 인구1리 한글 축문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만유에 평등하사 두루 살피주소시는 성황님, 토지지신, 오방지신님 자비의 문을 열고 구원의 실상을 밝혀주소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저희들은 대지대비하옵신 성황님과 토지지신, 오방지신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발원하옵나이다.

오늘 일진(3월 3일, 9월 9일)에 부락주민 모두가 정성어린 제물을 준비하여 이렇게 공을 드리오니 성황님, 토지지신, 오방지신님께서는 쾌히 응감하시고 인구1리 마을을 잘되게 하시옵소서.

농촌에는 오곡백화가 무르익어 풍년이 들도록 하시고 인구항 어촌에는 만선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굽어 살피주소시옵기를 비옵나이다. 그리하여 주민이 살아나감에 있어 항상

사회와 가정이 화목하여 단합하고 융합된 살기 좋은 마을이 되도록 살피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2005년 9월9일 마을대표 000

감소고우

상향

(12) 인구2리(仁邱二里)

봄(정월)과 가을(동짓달)에 택일하여 일몰 후에 제향한다. 제당은 2곳에 있다. 산 위에 있는 제당은 당목의 형태이고 주위에 제단이 있는데 이를 봄제단이라 칭한다. 마을 앞 논바닥에 있는 것은 당집의 형태로서 가을 제단이라 칭한다. 2005년 당집을 중수했다.



인구2리 가을제당

정월엔 1신위, 동짓달엔 5신위(토지신, 성황신, 시기신, 별성신, 우역신)를 제향한다. 시기는 날씨, 별성은 홍역, 우역은 가축의 질병을 의미한다.

2005년부터 정월제의를 폐지하고 가을제의와 합제하였다. 정월은 할아버지 서낭을, 동짓달은 할머니 서낭을 모신다. 축문은 있으나 홀기는 없다. 제물은 메, 백설기, 어물, 술 기타 등이다. 인구2리의 축문은 김주호의 증조부가 작성한 것으로 100여 년 전부터 사용해왔던 것이라고 김기영은 전했다. 헌작 배례 후 소지를 올리고 이후 퇴송을 한다. 제의 후 음식을 나눠 먹는다.

(13) 임호정리(臨湖亭里)

동짓달 초정 04:30경에 제향한다. 당집은 없으며 소나무 5그루 정도가 있고 제단은 돌로 조성하였다. 2005년 4월 양양산불에 당목이 불타면서 서낭제가 중단되었다. 신격은 토지신, 성황신, 여역신 등 3위였다. 제관으로는 이장, 개발위원, 반장 등 5~6인이 참가하였으며 제물로는 메, 백설기, 어물, 과일, 탕, 나물, 술 등을 사용하는데 육류는 사용하지 않았다. 축문이 있었으나 마지막 고유제(양력 2005년 11월 17일) 때 불살

라 버려 지금 전하지는 않는다. 홀기는 없었다. 제의는 헌작 배례 후 소지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지에 밤, 대추 꽃감 떡 등을 뜯어 나무에 매달아 놓고 실도 물론 한 타래 걸어 놓았다.

(14) 입암리(笠岩里) 1~3반

입암리는 원래 3개 반이었으나 주리가 인구 감소로 인하여 입암리로 편입되면서 입암리가 4개 반이 되었다. 제의는 동짓달 초정에 해가 진 후 왕래하는 사람이 없는 시간에 시작한다. 당집은 없으나 제단을 만들어 놓았고 당목 주위로 울타리를 하여 잡인의 출입을 금하고 있다. 신위는 성황신, 토지신, 여역신이다. 제관은 이장, 반장 등 10여인이 참가한다. 생기를 보지는 않지만 부정한 이는 참가할 수 없으며 초헌은 이장이 한다. 축문은 있으나 홀기는 없다.

제물은 백설기, 간천엽, 과일, 탕, 포, 술 등으로 어물은 사용하지 않으며 메도 올리지 않는다. 헌작 배례 후 소지를 올리고 소지가 끝나면 지방을 태운다. 금줄을 풀은 다음 한지와 실을 그 금줄로 나무에다가 묶어 놓고 그 후 고수례를 하고 음복을 한다. 철상 후 차지 집으로 음식을 옮겨놓고 제관들이 먹는다.

(15) 입암리 4반[주리(酒里)]

주리는 입암리 4반으로 개현되었으나 법정리는 존속하고 있어 별도로 제향하고 있다. 동짓달 초정 04:00~05:00경에 제향한다. 3월 초정에도 제향하였으나 새마을운동 당시에 연 1회로 축소하면서 3월 제의를 중단하였다. 제향시간은 자시였으나 20여 년 전에 새벽으로 옮겼다. 제당은 서낭당이라기보다는 산당이였다. 근래 들어 신격의 교체(산신에서 성황으로)가 나타나고 있다. 신격은 나무토지지신, 나무산왕지신, 나무여역지신이였다. 제당은 당집이었고 1940년경에 지었으며 20여 년 전에 기와 지붕을 함석지붕으로 개량했다. 당 내에 12지신 조형물이 있었으나 지금은 몇 개 남아 있지 않다. 고축은 10여 년 전까지 하다가 중단하였으며 축문과 홀기는 전하지 않는다. 음식장만 하는 이를 차지라 하며 차지의 생기는 보지 않는다. 제물은 메, 백설기, 소고기, 포, 탕, 산적, 어물, 과일, 나물, 술 등이다. 예전 봄제의를 명태, 가을제의를 육류를 사용했다.

제의는 예단을 먼저 당 내에 걸어 놓고 이후에 헌작 배례 후 소지를 올리고 퇴물을 하는 순으로 진행한다.

(16) 죽정자리(竹亭子里) 1반~3반(죽리)

죽정자리는 죽리와 정자리가 합해 만들어진 행정리다. 제의는 죽리(1반~3반)와 정자리가 별도로 제향한다. 봄(정월 초정), 가을(10월 초정) 연 2회를 제향했는데 2005년부터 가을제의만 제향한다. 18:00 이후 날이 어두워지면 시작하며 신



죽리 서낭당

위는 토지신, 성황신, 여역신 등 3위이다. 50년 전엔 가을엔 길옆서낭(수서낭), 봄엔 산등강이 서낭(암서낭)에서 제향하였다. 지금은 암수서낭을 합위해 놓았다. 제물은 메, 백설기, 어물, 육, 과일, 술 등으로 메만 제외하고 다른 제물은 생물을 사용한다. 육류로는 봄에는 닭, 가을에는 소고기를 사용했으며 어물은 봄에만 사용했다. 헌작 배례 후 소지를 올리고 반포를 했는데 지금은 그냥 음복만 하고 반포는 하지 않는다.

(17) 죽정자리 4반~5반(정자리)

죽정자리 4반~6반은 정자리이다. 6반(가마골)은 4반~5반과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제향한다. 연 1회 매년 정월 초정에 해가 지면 제향한다. 봄·가을로 제향하였으나 2004년부터 봄에만 제향한다. 당집은 없고 당목은 소나무이다. 제단과 돌담으로 전에는 봄제단과 가을제단이 별도로 있었다. 두 제단의 거리는 100여m 정도로 15여 년 전에 두 제단을 합단하였다.

봄제의는 여서낭, 가을제의는 남서낭에게 올렸다. 제물은 메, 과일, 백설기, 술 등으로 봄에는 명태, 가을에는 돼지나 소를 잡았다. 지금 합제하였으므로 명태와 돼지머리를 동시에 사용한다. 도가는 생기를 보아 선정했지만 지금은 생기를 보지 않는다. 보통 제관은 4인을 선정한다. 헌작 배례 후 소지를 올리고 이후에 실과 종이를 당목에 매단다. 지금은 축문과 흘기가 없지만 30여 년 전에는 고축을 하였다.

(18) 죽정자리 6반(가마골)

동짓달 축일에 제향하는데 초축에 일이 있으면 중축에도 제향한다. 당집 없고 제단과 당목만 있다. 위패 대신 한지와 실을 나무에 매달아 놓고 지낸다. 신격은 산신, 성황신, 토지신 등 3위이다. 제관으로는 보통 5~6명으로 70~80대 노인들로 남자만 참여한다. 축문과 홀기는 없으며 제물은 메, 어물, 백설기, 술 등을 사용하였고 육류는 사용하지 않는다. 헌작 후 소지를 올린다.

(19) 지경리(地境里) 1반[지리(池里)]

지경리는 지리(1반과 3반)와 지경리(2반)가 합해졌는데 지리는 방축리라고도 한다.

지리는 주민들 대부분이 1반 지역에 거주하였으나, 지금은 이농현상으로 인구가 많이 감소했다. 전기가 들어온 1976년경부터 특히 심해 지금은 지리가 5~6호에 불과하다. 자연스레 15여 년 전부터 제의가 중단되었다. 당집은 없고 바리봉산 바위 아래에서 제를 지냈으며 그 터는 지금도 남아 있다. 축문과 홀기는 없다. 예전에 차지 2집을 선정했고 그 중 원(元)차지는 3일간 집밖 출입금지하였고 그 중 1집은 제의 준비를 위하여 외부에 출입도 하였다. 제물은 수탉, 과일, 포, 어물, 탕, 백설기, 메, 술 등이었다.

(20) 포매리(浦梅里) 3반~4반(후포매)

10여 년 전부터 미신이라 하여 제의가 중단되었다. 음력 동짓달 밤에 제향하였으며 당집은 없고 커다란 당목이 있다. 고축은 하였지만 현재 그 문건은 전해지지 않는다. 제물은 어물, 백설기, 포, 탕, 메, 나물, 과줄, 술 등이다. 메는 5~6그릇으로 이로 미루어 보면 신위가 5~6분은 되는 것 같은데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다. 음식을 준비하는 비용은 마을에서 돈을 모아 사용했다. 제의날 성주(실과 종이)를 교체했으며 교체한 종이는 불태웠다. 제관은 5~6명을 선정했다.

(21) 하월천리(下月川里)

10월 초정이나 해일(亥日) 중 택일하여 16:00경에 제향한다. 당집이 있지만 낡았으며 규모가 5㎡(약 1.5평) 정도이다. 주위에 여러 나무들이 있으며 신위는 토지신, 성황신,

여역신 등 3위이다. 축문은 있고 홀기는 없다. 제물은 메, 백설기, 어물, 소간, 천엽, 소머리, 과일, 술 등이다. 제관으로 이장, 도가, 반장들, 개발위원 등 10~15명이 참가한다. 헌작 배례 후 소지를 올리고 마친다. 마을에 3곳의 골[谷]이 있어 그 곳에서도 각각 서낭제를 제향하였지만 인구가 감소하면서 자연스레 중단되고 리(里)서낭제에 합제되었다.

7) 강현면

(1) 간곡리(間谷里)

매년 동짓달 초승에 택일하여 제향하며 시간은 17:00경이다. 서낭당은 당집은 없고 돌로 제단을 만들어 놓았고 소나무와 엄나무가 근처에 여러 그루 있다. 신격은 서낭 1위로 서낭의 성별은 알 수 없다. 제관 3인과 도가는 생기를 보아 선정한다.



간곡리 서낭

도가는 부정을 금하느라 송침을 한다. 예전엔 서낭목에 금줄을 하였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제물은 메, 백설기, 어물, 제주 등이다. 제사 후 소지를 올리고 도가에 마을주민들이 모여 저녁을 먹는다. 이 마을의 축문은 전해지지 않지만, 인근 둔전리의 예전 축문과 동일했다고 전한다.

(2) 강선리(降仙里)

제의일시는 동짓달 초이틀 15:00경으로 몇 년 전부터 고정했다. 제당은 당집은 없고 당목과 제단이 있고 위치는 마을 뒷산이다. 당목은 소나무로 신위는 성황신 1위이고 할머니 서낭이다. 할아버지 서낭도 있었지만 지금은 제향하지 않는다. 축문은 있으나 홀기는 없다. 제관은 도가, 헌관 및 집사로 구성한다. 제물은 메, 백설기, 포, 탕, 나물, 어물, 육, 과일, 술 등이다. 몇 십 년 전에는 서낭 옆에서 직접 소를 잡았으나 지금은 소머리, 소간, 소천엽, 소족발, 소꼬리로 대체한다. 제의가 끝나면 소지를 올리고 잡귀가 먹

으라고 사방으로 음식을 털어 놓고 이후에 반포한다.

강선리의 축문은 전래의 축문을 바탕으로 이철웅이 작성한 것으로 양양 최북단에 위치한 지정학적 특색이 가미된 현대적 의미의 축문이다.

(3) 금풍리(金風里)

금풍리의 서낭제는 아주 오래 전에 중단 ·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20여 년 전에 마을의 젊은이들이 이유 없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자 다시 서낭제를 제향하였지만 이로 인해 마을이 분열되어 15여 년 전에 서낭제를 또 다시 중단하였다. 당집은 없지만, 예로부터 당목으로 전해오는 소나무가 있어 개별적으로 서낭을 위한 풍속은 지금도 있다.

(4) 답리(答里)

제의 일시는 정월 9일 해가 질 무렵으로 20여 년 전부터 고정했다. 제당은 2005년 4월 양양산불로 검게 그을렸고, 당목은 소나무 2그루였는데 이때 불탔다. 신위는 성황신으로 할머니 서낭이다. 축문은 있었으나 전하지 않고 홀기는 없다. 제관은 차지, 현관 및 집사로 구성한다. 제물은 메, 백설기, 포, 탕, 나물, 어물, 육, 과일, 술 등이다. 메는 큰 양푼에 올리고 마을 호수만큼 수저를 건다. 제사가 끝나면 소지를 올리고 어물 · 과일 · 고기 등을 한지에 싸서 실 한 타래와 같이 나무에다가 묶어둔다. 그 후에 음식을 조금씩 나눠 사방으로 던지면서 고수레를 하고 이후에 반포한다. 양양산불에 서낭이 소실된 관계로 2007년 현재 제의는 중단된 상태다.

(5) 둔전리(屯田里)

제의 일시는 정월 초정(음력) 날 밝기 전에 지낸다. 연 2회 제향하였으나 25여 년 전부터 연 1회로 줄었다. 제당은 당집은 없고 당목과 제단이 있고 당목은 굴참나무다. 신위는 설악산 산신령이다. 축문은 있으나 홀기는 없다. 제관은 이장이 현관이 되어 몇몇 이들과 함께 지낸다. 예로부터 서낭제에 여성의 참여를 막지 않았으므로 할머니들이 떡이나 메를 지어와 서낭에 바치곤 하였다. 제물은 메, 백설기, 포, 과일, 돼지머리, 술 등이다. 제의가 끝나면 소지를 올리고 모든 음식을 털어서 백지에 싸서 당목에 매달고 이

후에 반포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축문은 예전 축문이 너무 길어 현대감각에 맞게 2005년 당시 마을이장인 추종삼(남·66세)이 다시 작성하였다.

(6) 물갑리(勿甲里)

제의 일시는 정월 초정 04:00~05:00다. 제당은 당집은 없었고 당목만 있었는데 2005년 4월 양양산불에 불탔다. 신위는 성황신이다. 축문은 있으나 홀기는 없다. 제관은 도가, 3헌관, 집사로 구성한다. 도가 및 헌관은 제사 며칠 전에 생기를 보아 선정한다. 제물은 메, 백설기, 어물, 돼지머리, 술 등으로 제의가 끝나면 소지를 올리고 퇴송 후 반포한다.

(7) 물치리(沕淄里)

제의 일시는 삼월 삼짇날 04:00~05:00시경으로 몇 년 전부터 고정했다. 당집은 1997년에 손인환 이장이 재임시에 건축하였으며 마을에서 100m 뒷산에 위치해 있다. 신위는 대동성황지신으로 할머니 서낭이다. 원래 암수서낭이 모두 있었으나 한 곳으로 합하였다. 그래서 메는 한 그릇을 올리나 수저는 두 벌을 놓는다. 축문은 있으나 홀기는 없다. 제관은 도가, 헌관, 집사로 구성한다. 도가 및 헌관은 제사 며칠 전에 이장, 어촌계장, 개발위원 등이 임원회의를 거쳐 선정한다. 여성이 참여할 수 있으나 부정한 이는 참여할 수 없다. 제물은 메, 백설기, 포, 탕, 나물, 어물, 육, 과일, 돼지머리(소머리), 술 등이다. 제사가 끝나면 소지를 올리고 제당에서 수부를 먹고 이후 반포한다.

(8) 사교리(沙橋里)

한국전쟁 이후에 서낭제가 중단되었다. 폭격으로 마을이 모두 불에 타버리자 서낭신도 소용이 없다며 제의를 중단하였다. 당집은 원래부터 없었고 당목은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9) 상복리(上福里)

제향 일시는 정월에 택일하여 정하는데 해가 뜬 후인 08:00~09:00경이다. 제당은 당집은 없고 당목이 있었지만 당목은 2002년 태풍 루사로 유실되었다. 신위는 산천지신,

성황지신, 토지지신이다. 축문은 있으나 홀기는 없다. 제관은 마을의 임원들이 참가하는데 보통 10~15명 선으로 지금은 생기를 보지 않는다. 주요 희생으로 소를 잡았으나 지금은 소머리, 꼬리, 4족으로 대체했다. 어물은 하지 않으며 기타 제물은 메, 백설기, 포, 탕, 나물, 과일, 술 등이다. 제사가 끝나면 소지를 올리고 음식을 종이에 싸 세 봉을 만들어 나무에 매단다. 또 꽃감, 밤, 대추, 육 일부를 뜯어 편편한 바위 위에 넣어놓는다.

(10) 석교리(石橋里)

동짓달에 택일을 하여 03:00~04:00경에 제향한다. 당집은 없고 당목과 제단이 있는데 제당의 위치는 마을 한가운데다. 지금 당목은 엄나무이지만 예전에는 도토리나무였다. 신위는 토지신, 성황신, 여역신이고 할머니 서낭이다. 할아버지 서낭



석교리 서낭당

도 있었으나 지금은 모시지 않는다. 축문은 있으나 홀기는 없다. 제관은 헌관 및 집사로 구성한다. 도가 및 헌관은 제사 며칠 전에 생기를 보아 선정한다. 제물은 메, 백설기, 돼지머리, 어물, 포, 과일, 과줄, 탕, 나물, 술 등이다. 제사가 끝나면 소지를 올리고 마지막에 음식을 덜어 종이에 싸서 서낭나무에 매달고 이후에 반포한다.

(11) 용호리(龍湖里)

지금은 2개 반이지만, 일제강점기에는 4개 반으로 반 별로 제향하였다. 공산치하 때 미신타파라하여 중단하였다. 2006년 김남성(남·85세)이 제보하기로는 당시 3반은 정월 대보름에 제향하였다고 전했다. 3반의 제당은 당목이었는데 2005년 4월 산불로 소실되었다. 당목에 개인적으로 제향하던 풍속은 2005년까지도 전승되어 왔었다.

(12) 전진1리(前津一里)

제의 일시는 3월과 9월에 마을에 사는 무당에게서 택일한다. 도가를 정한 후에 도가에 금줄, 송침을 하고 당집에도 금줄을 친다. 서낭당은 낙산비치호텔 방향 언덕길 왼편

에 소재하며 1952년에 지었다. 당목은 소나무이고 내부에 남녀 서낭의 탕화가 있다. 신위는 성황신 2위이지만 원래 서낭은 할머니 서낭인데, 영험하여 무당들이 많이 찾는다. 축문과 홀기는 없다. 제삿상은 할아버지 서낭, 할머니 서낭, 수부 순서로 차린다. 제물은 백설기, 과일, 과줄, 포, 돼지고기, 탕, 어물, 술 등을 사용하고 서낭에게는 특별히 돼지머리를 추가로 올린다. 제관은 부정이 없는 이를 선정한다. 헌작이 끝나면 소지를 올리고 이후에 반포를 한다.

(13) 전진2리(前津二里)

제의 일시는 봄(음력 3월에 택일), 가을(중양절)로 1년에 2회이고, 시간은 11:00쯤이다. 제당은 당집은 없고 당목과 제단은 있으며 낙산으로 내려가는 바닷가쪽 언덕에 위치해 있다. 현재의 당목은 30여 년 전에 새로 식목을 한 것인데 2005년 4월 양양산불에도 무사했다. 신위는 성황신 2위이다. 본래는 할머니 서낭이었으나, 60여 년 전에 용호리의 할아버지 서낭과 혼배하면서 모셔와 2위가 되었다. 축문과 홀기는 없다. 제물은 메, 백설기, 어물, 소머리, 탕, 과일, 나물, 과줄, 술 등이다. 예전엔 제당 옆에서 직접 소를 잡았다. 어물은 바다에서 잡는 것은 모두 사용하지만 고등어와 이름에 ‘~치’가 들어가는 물고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무당이 제의를 주관하여 절을 시키고 소지를 올리고 수부를 달래고 뒷풀이를 한 후 용왕제를 올리고 마친다.

(14) 주청리(酒廳里)

주청리는 전진1리에서 15여 년 전에 분리된 마을이다. 따라서 별도의 마을제의가 없으며 전진1리의 마을제의에 참가한다.

(15) 침교리(砵橋里)

제의는 정초에 택일을 하며 시간은 07:00경이다. 제당은 당집은 없고 당목이 2곳에 있는데 할아버지 서낭은 집 뒤에 있고 할머니 서낭은 산 위에 있다. 2005년 4월 양양산불에 양양산불에 양신위는 성황신 내외로 두 분이다. 축문은 있었으나 지금은 전하지 않고 홀기는 없다. 제관은 도가, 현관, 집사로 구성한다. 도가 및 현관은 제의 며칠 전

에 생기를 보아 선정한다. 제물은 메, 백설기, 포, 탕, 나물, 어물, 돼지머리, 과일, 술 등이다. 제의가 끝나면 소지를 올리고 이후 내물리기를 하고(종이에 음식을 싸서 당목 옆에 묻고) 반포한다. 제의를 지내기 위해 과거에는 무당(혹은 비전문당은 대행은 도 서낭은. 2005년 4월 양양산불로 전승되어 오던 축문이 모두 소실되었다.

(16) 회룡리(回龍里)

제의 일시는 1년에 2회로, 정월과 동짓달에 택일하며 시간은 아침 해뜨기 전이다. 당집은 없고 당목과 제단이 있었고 위치는 석교리 가는 산길이었다. 3~4명의 제관이 참가했었고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제의는 젊은이들이 마을제의를 기피하여 40~50여 년 전에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2. 개인신앙

1) 터고사(터제사, 안택)

(1) 양양읍의 터제사

터고사는 터주에게 올리는 고사로서 안택(安宅) 또는 터제사라고도 한다. 양양읍 지역에서는 이 고사를 대부분 터제사라고 칭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성주신을 모시는 제사와 조왕신을 모시는 제사와 같이 결부되어 있다. 터주에게만 제사지내는 것이 아니라 성주도 찾고 조왕도 찾고 심지어 장독대나 측간(화장실), 우사(牛舍)도 찾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여러 가신들을 한 자리에 모시는 일련의 연속되는 제의형태인데 가정생활에 필요한 여러 신격들을 어느 날 한데 모아 한꺼번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2007년에 조사한 양양읍의 4개, 강현면의 2개 리(감곡리, 기리, 정손리, 사천리, 금풍리, 사교리)에서는 모든 마을이 터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터제사의 방식은 대체로 비슷했으나 한 마을 내에서도 약간씩 다른 선택이 엿보였다. 우선 차이가 나는 대목은 터

제사를 올리는 시기의 문제다. 사교리의 경우 터제사는 집을 지은 상량한 날짜에 올린다. 그러나 상량한 날짜를 모른다면 동짓달에 올리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는 토왕 혹은 지신(토지지신을 칭하는 말)이 아직 얼지 않았기에 올릴 수 있는데 12월 선달에는 손이 있는 달이라 하여 올릴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동짓달에 부정이 있어 올리지 못할 경우에는 정월에 올려야 했다. 정월에 부정이 생기면 3월에 터고사를 지낸다. 2월은 ‘남의 달’이라 하여 꺼렸기 때문이다.

터제사를 올리는 것은 정확한 날짜가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대개 자신이 선호하는 달이 오면 날을 받아 올리는데 시간은 대체로 저녁 무렵으로 해가 진 다음이다.

제물은 서낭제를 올리는 것과 비슷했는데 단지 백설기 대신에 붉은 팔시루떡을 사용한 점이 다르다. 팔시루떡 분량은 7되 7홉 혹은 3되 3홉을 했다. 그 해 참여하는 가족들 수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증감했다. 어물은 명태를 즐겨 사용했는데 그 외에도 열기나 가자미도 사용했다. 형편에 따라 증감했는데 보통은 명태만 3마리 쓰는 경우가 많았다. 과일은 피밤, 감 등 세 종류를 사용했다. 개수는 짝을 맞추면 안 좋다고 하여 홀수로 올렸다. 감은 껍질을 벗겨 놓는데 밤은 껍질 채로 사용했다. 탕은 3탕이 기본이다. 무를 넣어 만든 무탕이 기본인데 3개를 만들어 그 중 두 개는 명태를 잘라 넣고 나머지 하나는 아무 것도 안 넣은 소탕으로 만들어 올린다. 나물은 버섯과 무채를 썰어한 그릇으로 만들어 올리는데 가정마다 기호마다 다른 나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제주 집에서는 담근 농주를 담아 사용하였으나 감주를 담가 사용하기도 하였다.

대주(집의 가장)는 터제사에 앞서 반드시 목욕재계를 한다. 이는 요즘에도 지켜진다. 금줄은 3일 전에 치고 집 마당이나 대문간에는 황토를 군데군데 놓는다. 또한 바가지에 다가 숯과 소금을 담아서 문을 열고 나가서 칼을 휘두르며 잡귀가 들어오지 말라며 중얼거리며 뿌린다. 부정을 치는 것은 집집마다 다른데 간혹 부정치기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부정을 친 다음에는 성주를 매단다. 실과 종이로 만든 성주는 보통 용마루에 매달았는데 이는 1년에 한 번 터제사를 올릴 때 교체한다. 후에는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이 들었으므로 고무락에 올려놓는 것으로 대체했다. 고무락에 올려놓은 성주는 그대로 보관하였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이전 해의 성주는 인근 산에 갖다 매어놓았다.

터제사를 지내기에 앞서 정손리는 고무락을 열어 용마루에 매달은 성주신이 응감하도

록 유도했다. 부정을 치고 나면 이후 대주가 직접 재배한 후 강신하고 이후 전작하고 소지를 올리면서 농사의 풍년과 가족과 우마(牛馬)의 안녕을 빌었다. 소지 올리기가 끝나면 음식의 일부를 떼어내어 고수레를 했다. 과거에는 강신한 후 전작 후 독축을 하였는데 오늘날 독축을 하는 집은 없다. 팔시루떡에 식구 수대로 수저를 올려놓는 경우가 여러 마을에서 발견이 되었다. 이 풍속은 마을마다 다르다기보다는 개인의 취향 문제로 보인다.

금풍리의 경우 과거에는 안방이나 마루에서 터주를 위한 제사를 지내고 나면 부엌에 가서 조왕을 위해 제사를 지내고 또 외양간에 가셔도 제사를 지냈다. 장독대에도 가는데 과거에 장독대에 벼락이 많이 떨어져 장맛이 변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외양간에서 지낼 적에는 한지를 매달아 놓고 간단히 상을 보아놓고 지냈다. 정손리에서는 외양간에서 지낼 적에 제물을 차려놓고 전작재배하면서 소가 1년 내내 아무 탈 없이 잘 자라기를 빌었다. 그러나 외양간에서 제향하는 풍속은 소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던 때의 풍속으로 근래 기계농법이 발달하면서는 사라진 풍속이 되었다.

무당이나 복술이를 부르지는 않았다. 감곡리에서는 터제사 후 과거에는 서낭에 가기도 하였다.

(2) 현남면의 터제사

원포리의 경우 터제사를 올리면 반드시 그 남은 음식 중에서 깨끗한 걸 가지고 서낭 나무에 제향하였다. 그리고 실, 종이, 마른명태를 나무에 매달아 놓은 것이 많았다. 지금 터제사를 지내는 집은 몇 집밖에 없다. 대체로 한국전쟁 이후 차츰 중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터제사에는 나물, 밥, 백설기, 붉은 팔시루떡 등을 사용했다. 마을의 할머니들은 터제사 며칠 전에 송침과 황토로 부정한 이의 출입을 막았다고 전한다. 그러나 금줄(새끼줄)이란 출산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터제사 때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터제사를 올리기 전 3일 전쯤에 술가지를 꺾어와 대문간에 거꾸로 걸어놓는다. 이를 송침이라 한다. 금줄은 하지 않으며 이때부터 대주는 몸가짐을 조심하고 나쁜 것을 보지 않으려 한다.

정월 대보름날 04:00~05:00경으로 고정하여 지낸다. 팔시루떡, 백설기, 찰밥, 과일,

탕, 어물, 나물 등으로 상을 차렸다. 팔시루는 큰 시루였고 백설기는 작은 시루로 하였다. 오늘날에는 시루떡 2종류(팔시루떡, 백설기)와 찰밥을 없애고 메밥으로 대신하였다. 조상에게 제향한 음식은 천대하면 안 되는데 잘 먹지 않으면 천대한 것과 같으므로 아예 잘 먹는 음식으로 바꾼 것이다. 문어는 반드시 별도로 한 좌판을 만들어 올리는데 명태, 열갱이, 오징어 등도 좌판 가득히 따로 하나 만들어 올린다. 탕은 심통이탕을 즐겨하는데 비린내가 나지 않고 담백하기 때문에 좋아한다.

진설을 한 후 헌작하고 재배하기를 마치면 소지를 올린다. 무당이나 복술이를 초청하여 주재시키기도 하지만 근래 풍속은 대주가 직접 고사를 진행한다. 소지가 끝나면 시루떡, 밥, 어물 등 일부를 잘라내어 바가지에 담아 밖에 나가 버린다. 이렇게 터제사가 끝나면 밥, 대추, 쌀을 조금 한지에 담아서 부엌의 성주기둥에 술잎과 실로 달아매어 놓는다.

(3) 서면 용마루제

서면 오색2리에서는 터제사의 일종으로 용마루에 제향하는 풍속이 있다. 명칭은 용마루제이지만 그 내용은 터고사(혹은 터제사)와 같은 부류다. 용마루제라 부르는 이유는 성주를 용마루에 매달아 놓았기 때문이다. 용마루가 없는 집이라면 가장 높은 곳에 성주를 매달면 된다.

봄에는 정월, 가을에는 추수감사절에 지낸다. 정월에 지내지 못하면 3월 삼짇날에 제향한다. 삼월 삼짇날은 오색2리 관터마을의 마을제삿날이다. 이날 마을제의를 먼저 제향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와 용마루제를 지낸다. 이를 일러 이 지역에서는 터고사라고도 불렀다. 한국전쟁 무렵에 잠시 중단된 적은 있어도 여전히 지금도 오색2리 근처의 마을에서는 대부분 제향하고 있다.

용마루제의 음식차림은 마을제의를의 음식과 비슷한데 다만 다른 것은 백설기 대신에 팔시루떡을 올린다는 것이다. 지내는 방식을 살펴보자. 팔시루떡에 식구 수대로 숟가락을 올려놓고 젓가락은 어물에다 올려놓고 지낸다. 온갖 음식을 종이에 싸 용마루에다가 성주 모신다고 모셔놓는다. 실도 한 타래로 묶어놓는다. 용마루제를 지낸 후 음식을 같이 갖고 가 마을제의 음식과 더불어 먹는다.

집 주인이 이사를 가게 되면 성주를 갖고 가지는 못하고, “성주님, 제가 이사를 갑니다.” 하고 성주님을 떼다가 바깥 깨끗한 나무에 묶어놓고 이사를 간다.

(4) 어촌마을 터고사

양양군은 동쪽으로 해안선을 끼고 위로는 강현면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래로는 현남면에 이르기까지 1읍 5면의 관내 구역 중 서면만 제외하고는 모두 해안선을 끼고 있다. 이중 다음 몇 마을의 터고사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가. 동산리

동산리에서는 안택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점쟁이에게서 10월에 날을 받아오면 3일 전에 금줄과 송침과 황토를 한다. 잡귀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잡인의 출입 또한 막는 것이다. 동산리 안택에서 사용한 제물은 다음과 같다. 시간은 16:00~17:00 경에 했다.

팥시루떡 5되, 과일(사과, 배, 귤, 대추, 밤), 과줄, 술(막걸리), 나물(고사리, 시금치, 무채), 포(오징어포), 탕(어탕, 육탕, 어육탕), 채국, 어물(열기, 마래미, 명태, 문어, 가자미), 전(두부전, 밀가루전, 생선전, 소고기전), 심통이알(도치알), 돼지고기 등이다. 배고사에는 돼지머리를 사용하나 안택할 적에는 돼지고기를 사용한다. 인근 바다에서 잡히는 어물은 모두 올리는데 그 이유는 풍어를 기원하는 주술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어물은 주둥이와 꼬리를 약간 치고 비늘도 친다. 열기는 구워 올리나 다른 어물은 찌 올린다. 어물 위에는 문어를 고명처럼 얹어 마감한다. 심통이는 탕을 만들 때 사용하고, 그 알은 소금에 저려 찌 올린다. 어물은 보통 종류별로 1마리 혹은 3마리씩 홀수로 올렸다. 어촌이다 보니 어물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이 전승되고 있었다.

광진리에 사는 무당을 모셔와 안택을 하는데 처음에는 부정을 치는 것부터 시작했다. 무당이 바가지에 물을 떠다가 숯을 집어넣고 칼을 내던지면서 부정을 쳤다. 진설 후 헌작 배례를 3회 실시하는데 3번째 배례를 할 적에 갯물에 밥을 말아 고수례를 하였다. 안택하는 장소는 성주 아래 즉 성주를 매달아 놓은 부엌의 기둥 아래로 여기에 고사상

을 차려놓았다. 배사업을 하는 이들은 먼저 안택을 한 다음 배고사를 지냈다.

나. 오산리

부정은 사흘을 가린다고 하여 사흘 동안 송침을 해놓는다. 황토를 문간 양옆으로 놓아 잡인의 출입을 금한다. 가족 중에 상을 당하면 2~3년간은 터고사를 지내지 못한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면 3년, 어머니가 먼저 사망하면 2년을 지내지 않는다. 터고사를 지내는 달은 오산리에서는 주로 정월이나 3월이다. 정월 대보름에 마을제가 있거나 혹은 대보름차례가 있으면 이를 먼저 지내고 나서 터고사를 지낸다. 혹은 대보름에 제의나 차례가 없으면 대보름을 전후하여 날을 받아 터고사를 지낸다. 오산리는 보통 14:00~15:00경에 터고사를 지내고 이후 배고사를 지낸다. 오산리 터고사의 제물은 메, 편(팔시루떡), 과일, 포, 술, 탕, 두부전, 어물 등이다. 무당(혹은 비손)을 초청하여 고사를 주관하게 한다. 무당이 구축(口祝)을 하는 동안 주인 부부는 수시로 절을 하는데 절을 하는 횟수의 제한은 없다.

다. 수산리

정월 초순에 날을 받아 새벽으로 지낸다. 보통 07:00경으로 처음에 서낭당에 간단히 제물을 장만하여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이후 집으로 돌아와 터고사를 지낸 후 다시 배고사를 지낸다. 모든 제의는 무당(혹은 비손)이 주관한다. 수산리 터고사에는 여자가 참여하고 남자는 참여하지 않으며 배고사는 남자도 참여한다. 제물은 돼지머리, 어물, 과일(사과, 배, 대추, 귤, 밤), 어물(명태, 우럭, 가자미, 문어), 백설기 5되, 대구포, 채소(무채, 시금치), 탕(무탕, 소고기탕), 두부전, 술 등이다. 어물은 세 마리가 기준이며 문어는 1마리였다. 어물의 주둥이와 비늘은 치나 꼬리는 치지 않았다.

2) 산치성

기리(基里)의 장흥 마씨들은 집집마다 산치성을 드렸다. 이를 ‘노구메 정성’이라고 부르며, 노구메란 여기에서 사용하는 낚그릇을 의미한다. 마씨 7~8가구가 저마다 부정

이 있는 날이 다르고 또한 대주의 생기에 맞추다 보면 같은 날을 받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자연히 기리에서 산치성은 마을치성이 아니라 개인치성이 되어버렸다.

산치성 날짜가 다가오면 2~3일 전에 미리 방문하여 기호를 표시해놓고 돌아온다. 집에는 송침을 해놓아 부정한 사람의 접근을 막는다. 우물도 각자가 사용하는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 기호를 해놓아 부정한 사람의 접근을 금한다. 같은 우물을 사용하는 이웃이 있다면 그때만큼은 다른 우물을 사용함으로써 부정을 타지 않도록 도와준다. 기호를 하는 방법은 소나무 가지를 잘라 놓는데 이를 송침이라 한다.

산치성은 보통 3월초에 날을 받아 지내는데 한 밤중에 올라가 02:00~03:00경에 올린다. 청수를 떠서 놓은 후 가지고 간 숯을 걸고 쌀을 씻어 현지에서 밥을 한다. 양초로 불을 켜놓고 한지를 산신당에 달아 놓는다. 그리고 재배한 후에 ‘일 년 열두 달 삼백에 순 날 그저 건강하고 농사도 잘되고 우마도 건강하게 해달라’고 빈다. 그 후에 소지를 올리는데 소지는 먼저 대주의 소지를 올린 후 가족들의 소지를 올리는데, 산신이 잘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응감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신기하게도 소지의 올라가고 못 올라가느냐에 따라 그 해의 운수가 맞아떨어졌다고 한다. 치성이 끝나면 사용한 음식을 조금 덜어내어 근처에 놓았는데 이는 짐승들이 먹으라고 뜻으로 하는데 까막까치가 가장 먼저 와 먹고 가곤 했다.

산치성의 제물로 제주(祭酒)는 사용하지 않았고 청수를 떠서 사용했다. 백설기도 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이 서낭제와 다른 점이다.

최근 산신당 자리에 사찰(보리암)이 건립되었다. 근래 산치성을 올리는 장소로 그 곳의 산신각을 활용하기도 한다.

3) 배고사

동산리의 배고사는 봄·가을로 서낭당에서 올렸다. 집에서 안택을 할 때에 같이 배고사를 지내는 경우가 있다. 서낭제를 지낼 때에 개인의 제물도 같이 차려놓았다가 서낭제를 지낸 다음 제물을 다시 차려서 배 선실에서 배고사를 지낸다. 안택을 할 때에도 안택이 끝나면 무당을 모시고 배로 가 배고사를 올린다. 이때 배에 갖고 가는 제물은 간단

하게 준비한다. 다만 돼지머리는 반드시 들어간다. 배고사 올리는 순서는 먼저 무당이 부정을 치면서 시작한다. 이후 무당이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하는데 보통 3번은 절을 하게 되지만 무당이 잡귀가 있다고 공수를 내리면 계속해서 절을 하게 된다. 서낭제와 안택을 지낼 적에 지내는 정기적인 배고사도 있지만 어황이 좋지 못할 적에 지내는 부정기적인 배고사도 있다.

수산리는 현재 어민들의 70~80%가 지내고 있다. 정초에 새벽으로 사람이 다니지 않는 07:00경에 지낸다. 가장 먼저 서낭당에서 무당과 함께 인사를 올린다. 이때 준비한 제물은 떡, 과일, 나물, 술, 탕, 포 등이다. 이후 터고사를 올린 후, 배에 가서 고사를 올리는데 배에 갈 적에는 남편과 아내가 동행했다. 모든 과정을 무당이 직접 주재한다. 배 주인은 무당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배에 갈 적에 무당 둘이서 동행하는데 한 명은 선실에서 앞쪽을 보고 고사를 올리고 다른 무당은 뒤쪽을 보고 고사를 올린다. 이때 징을 치며 고사를 올리는 무당은 앞쪽에 있는 무당이다. 뒤쪽에 있는 무당은 손으로 빌기만 한다. 고사 중에 남자는 앞쪽에 절 두 번 반을 하고 뒤쪽에 절 두 번 반을 하였다. 고사가 끝나면 고사상의 음식을 조금씩 뜯어 바닷물에 넣는다. 그리고 징에 쌀알 몇 알을 놓아 흠작을 맞추어 공수를 내린다. 제물은 터고사와 동일하지만 각기 장만한다. 한 번 사용했던 제물을 다시 사용하지는 않는다.

오산리에서는 터고사를 지내고 나서 배고사를 지내는데 서낭당에는 들리지 않았다. 정월에 주로 올리지만 정월에 부정이 있으면 3월에 올렸다. 시간은 보통 14:00~15:00경으로 배고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30분 가량이며 무당(수양어머니라고 불렀음)을 불러 주재시킨다. 배고사에 사용하는 제물은 과일, 포, 막걸리, 메, 탕, 채소, 어물 등으로 돼지머리나 소머리를 사용하지 않았다. 메는 양푼으로 1그릇이고 신격은 용왕 1위였다. 백설기, 두부전 등은 하지 않았다. 배고사를 지낼 적에 무당과 배 주인 내외가 같이 갔다. 배 선실에서 핸들 밑에다 선두를 보고 고사상을 차리고, 배성주는 문종이를 하나 접어 실에 묶어 매달아 놓았다. 진설 후 무당이 밖에 나가 바가지에다 고춧가루와 소금 등을 넣어 부정을 친다. 이후 성주에게 빌면 배 주인 내외가 알아서 절을 하는데 횃수는 셀 수 없이 많이 한다. 마지막으로 공수를 내려주고 고수례를 하고 마친다.

4) 차(車)고사

차량을 구입하면 고사를 올리는데 차가 집으로 들어오는 즉시 거행했기에 아침이나 저녁 등 특별한 시간의 제약은 없었다. 주로 나이 지긋한 어머니들이 자식들의 차를 위해 해주었던 풍속이다. 멀리 나가 있는 자식이라도 차를 샀다는 말을 들으면 전화를 하여 차를 갖고 오라고 시킬 정도라고 오늘날 각별하게 지켜지고 있는 풍속이다.

차를 마당에 놓고 그 앞에 상을 차린 다음 팔시루떡, 3실과, 술 등 간단하게 제상을 차려놓고 어머니가 무사히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보살펴달라고 기원한 후 차주(보통 자식들)를 오라고 하여 절을 시킨다. 이때 고사상에는 부모가 돈도 한 푼씩 놓아주는데 이렇게 해야 무사하고 돈도 잘 번다고 믿었다. 그 다음에 막걸리를 차의 네 바퀴에 붓고 실 한 타래를 차의 운전대나 브레이크 있는 데에 매달아 놓는다.

5) 삼신할머니

삼신할머니는 아이를 태어나게 하고 잘 자라게 하는 일을 돕는 여신이다.

양양읍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아이 머리 부근에 손 없는 방향으로 상 위에 미역국을 놓고 재배하면서 아이가 탈 없이 자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빌었다. 음력으로 1일과 2일이면 동쪽, 3일과 4일은 남쪽, 5일과 6일은 서쪽, 7일과 8일은 북쪽에 손이 있으므로 이 방향을 피한다. 그리고 9일과 10일은 어느 방향도 손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빌고 난 후 미역국을 원래 끓였던 큰 솥에 다시 집어넣고 휘저어 가족들이 다시 나누어 먹었다. 또한 아이가 자라다가 아프거나 보채면 삼신할머니가 노해서 그렇다며 정한수를 떠놓고 ‘아이가 탈이 없게 자라도록 삼신할머니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빌었다. 가정에 따라 메를 지어 미역국과 정한수를 같이 올리기도 한다. 아이가 자라면서 배가 아프다고 하면 ‘삼신할머니 도와주십시오.’ 하며 배를 쓱쓱 문지르곤 하였다.

이러한 풍속은 마을의 풍속보다도 개인적 취향의 문제였는데 의학의 발달로 이와 같은 풍습은 많이 사라졌지만 아이가 있는 가정은 지금도 가끔 한다. 손양면 여운포리에

서는 삼신을 살판에 모시기도 하였다. 쌀자루를 매달아 놓고 삼신 바가지와 실을 매달아 놓았다.

현남면에서는 평소에 삼신할머니를 위한다고 방구석에 실과 쌀이 들은 쌀바가지를 놓아두곤 하였다. 산통이 시작되면 산모 머리 부근에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을 놓고 아이가 잘 나오게 해달라고 빌며 무사히 출산해도 잘 자라게 해달라고 빌었다. 아들을 출산하면 새끼줄에 고추를 매달고 딸을 출산하면 새끼줄에 술가지를 꺾어 집어넣어 매달았다. 새끼줄은 금줄의 기능을 하였기에 그것을 보면 출산했음을 짐작하고 출입을 삼갔다.

집안에 임신부가 있으면 미물이라도 생명체를 잡는 것을 삼가야 하며 임신부가 살생을 하면 몸에 좋지 못해 업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6) 영동제(영동할머니)

양양읍에서는 2월 초하루에는 바람님이 온다고 장독대에 청수(淸水)와 음식을 차려 놓고 제의를 올렸다. 음식은 집집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고기, 나물, 미역국 등을 장만했고 집안 식구 수대로 수저를 놓았다. 감곡리에서는 장독대가 아니라 북쪽을 향해 문 있는데 놓았다. 제사를 마친 후 그 음식으로 아침 식사를 했으며 바람님이 내려왔다가 15일에 올라가는데 이날에도 제사를 올렸다. 그 사이에는 매일 정한수를 아침마다 올렸으며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은 반드시 바람님에게 바친 후에 먹을 수 있었다. 보름간을 영등 또는 영동이라 불렀는데 떡을 하는 풍속은 없었다. 영동할머니가 무지개를 밟고 올라간다고, 비를 많이 오게 한다, 바람을 많이 불게 한다는 등의 말이 있었다.

현남면에서는 2월 초하루에 장독대에 찰밥, 어묵과 물을 한 그릇 놓고 정성을 드렸다. 이 날부터 15일까지 밖에서 돈, 고기, 떡 등이 생기면 장독대에 고하고 처리하였다. 15일에도 찰밥과 물 한 그릇 놓고 빌었는데 이 날은 영동할머니가 올라가는 날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부정한 일이 생기면 20일이 되어 영동할머니가 올라간다고 20일에 다시 상을 차려놓고 빌었다. 영동할머니가 내려오는 날 비가 오면 한 해 비가 많이 오고 또 이 날 바람이 불면 날이 가문다고 하였다.

7) 소귀신(쇠군웅신)

강현면 상북리에서는 쇠군웅신을 모셨는데 마굿간에 소의 머리 부근에 천자대국님이 라고 한지를 접어 걸어 놓았다. 소가 아프거나 정초에 안택을 지낼 때 이 곳에 와서 떡과 고기를 차려놓고 천자대국님을 청하고 빌었다. 회룡리에서도 군웅을 모셨는데 소의 머리쪽에 한지 한 장과 명태 한 마리를 실에다가 매어 걸어 놓았다. 소가 병이 나서 새 김질을 하지 않으면 군웅이 탈이 났다고 하여 메 한 그릇, 나물 한 접시를 차려놓고 ‘군웅님! 미련한 인간이 몰랐으니 달게 받아 잡숫고 낮게 해주십시오.’ 라고 빈다. 현북면 장리의 경우 베헌짚을 끊어서 마굿간에 모셨다. 다른 집에서 좋은 음식이나 육류가 반입되면 반드시 쇠군웅님에게 보이기 위해 구유 앞에 올려놓았다가 먹었다. [『양양군의 역사와 문화유적』(강릉대박물관 외, 1994) 참조]

8) 개귀신

오산리 김해 김씨 문중에서는 한 때 개귀신을 믿었다. 명태포를 실로 매어 걸어놓거나 미역을 따는 갈고리에 어물과 실을 함께 걸어 놓고 개귀신이라 하였다. 외부에서 좋은 음식이 반입되면 먼저 개귀신 아래에 갖다 놓았다가 이용하였다.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개귀신을 ‘왜 이렇게 하나! 잘해 줄 수 없냐?’ 고 툭툭 때리기도 하였다. 여성들이 출가하면 따라오는 게 소귀신이고 개귀신은 남자들이 분가를 하면 따라 온다고 하였다.

9) 성주단지

성주단지와 터고사는 유사하다. 다만 성주의 형태가 일반적이지 않고 단지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다를 뿐이다. 오늘날 성주단지를 모시는 풍속은 거의 발견이 되지 않는다. [『양양군의 역사와 문화유적』(강릉대박물관 외, 1994)을 보면 관련 기록이 있어 소개한다.

강현면 상북리에는 성주단지를 모시는 풍습이 있다. 정월에 정성달이라 하여 집에서 정성을 올리는 안택을 하며 정월 초에 택일 하여 성주단지 앞에 떡과 제물을 차려놓고

가내 평안을 빈다. 제물은 팔시루떡, 찰밥, 고기, 나물, 탕, 3실과, 단술 등을 놓으며 촛불도 켜다. 메는 큰 그릇으로 하나를 놓는데 식구의 수대로 수저를 꽂아 놓는다. 성주신에게 빌 때는 가장이 말로써 축원한다. ‘성주님! 없는 것은 많고 변변치 않게 차렸으니 즐겁게 받으시고 집안에 아무 걱정 없이 일 년 열두 달을 잘 지내게 해달라고 이렇게 절을 합니다.’ 구연이 끝나면 소지를 올리는데 식구 수대로 다 올린다. 성주단지 안에는 알곡을 넣는데 매년 음력 10월에 새로 햅쌀을 자루에 넣어 단지 속의 쌀을 새로 넣는다. 성주단지의 쌀을 음력 6~7월에 꺼내어 떡을 해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같이 먹는다. 성주단지는 뚜껑이 있는 옹기단지로 성주단지의 쌀은 보통 한 말 정도 된다.

현북면 원일전리에서는 성주단지를 집안의 굴뚝 아래에 묻어놓고 추수 후 쌀을 넣어서 봉했다가 다음 해 햅곡이 나면 바꾸고 이 쌀은 떡을 해서 먹었다. 장리에서는 다락에 세 말짜리 단지에 수지쌀을 넣었다가 음력 7월 25일 날을 정하여 메를 지어 나물탕과 함께 성주신께 제의를 지내고 다시 햅곡을 넣어 놓았다.

10) 거리제

객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제삿날을 맞이하면 아침에 주과포를 장만하여 거리에 나가서 제사를 지낸다. 부정이 있는 이들은 이를 막으려고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서 간단히 제물을 놓고 새벽에 거리제를 지낸다. 제물은 갖고 오지 않고 그 곳에 놓아두는데 돈과 함께 놓아두는 경우가 많다. 이 거리제를 지내면 저승사자들이 사람을 데리러 오다가 다른 이를 대신하여 잡아간다고 한다.

11) 양봉 분봉 고사

서면에서는 양봉과 관련하여 특별한 약식 행위가 있다. 음력 5월부터 분봉을 하는데 벌통을 갈라놓는다. 분봉할 때 벌들이 원하는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안착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 멀리가지 말고 가까운 나무에 안착하라고 장독대에 정화수를 놓고 고사를 올린다. 벌은 주로 09:00~11:00 사이에 많아 이때 고사를 올린다. 물론 벌이 많으면

이 고사를 올릴 필요는 없다.

12) 심마니 고사

음력 처서가 지나면 삼이 달(씩)이 돋는다고 한다. 썩이 요만큼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땅의 지기도 하강해서 땅으로 들어가니 뿌리속의 약효를 머금게 된다. 따라서 이때 삼이 가장 좋다. 여름엔 땅에서 지기가 상승하므로 삼의 뿌리에 약효가 적다. 그래서 음력으로 7~8월, 처서가 지나야 삼이 좋다고 한다. 그래서 이 무렵에 주로 심을 캐러 들어간다.

심마니들은 심을 캐러 들어가기 전에 마을의 서낭당을 이용하여 제(祭)를 지내거나 혹은 자신이 즐겨 찾는 산당에서 제를 지낸다. 보통 제사는 출발하는 날 아침에 올리는 경우가 많다. 며칠 전에 제를 올리면 그 사이에 부정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 새벽으로 제를 올리는 것이다.

보통 몇 명이 팀을 이루는데, 3명, 5명 등 홀수로 팀을 구성한다. 혼자 갈 적도 많다. 제물은 3실과, 제주, 향, 초 등 간단하다. 제물은 어인마니(경험이 많은 리더)가 장만한다. 그 비용은 어인마니가 전액 부담하고 팀원들이 나누어 지불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심을 캐면 그 결실은 같이 나눈다. 무속인들은 인일(寅日)에 제사를 지내면 호환에 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심을 오래 한 이들은 인일에 제사를 지내면 심을 캐 확률이 높다. 제물은 자연 그대로 올리므로 과일 등도 껍질을 깎지 않고 그대로 올린다.

평상시 산에서 올리는 정성을 물우메(노구메를 일컫는 말)라 한다. 장소는 산 속에 잘 가는 냇가이다. 산신이라 지방을 써 붙여놓고 제향한다. 쌀을 씻을 적에 손으로 씻지 않는다. 나무를 깎아 올림대를 만든다. 올림대로 쌀을 휘저어 씻는데, 메를 지을 동안 물우메가 부글부글 끓어도 절대 뚜껑을 열어보지 않는다. 김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메가 다 지어졌는지를 추측한다. 비가 오면 불을 피우지 못하므로 생용에 생쌀을 넣어 올릴 적도 있다. 초를 밝히고 향을 피우고, 물우메를 갖다놓고 정화수도 떠다가 놓고 진설을 마치면 분향을 한다. 제주를 따르고 ‘불고택일을시다’ 라고 세 번 고한다. 절을 하고(두 번 반) 난 다음 입으로 부정경을 외우고, 이후 메 뚜껑을 열고 수저를 꽂아놓고 다시 입으로 산왕경을 외우고, 또 ‘수배신과 어인마니신이 동참해달라. 공양 받으신 존신들이

환희봉천 하옵소서’ 하고 존신들에 대하여 구축(口祝)한다. 수배신은 산신령을 따라 다니는 시종이고, 어인마니신은 산에서 심을 캐다가 생을 달리한 혼령들을 지칭한다. 이후 ‘잡귀잡신이 있다면은 퇴송할 적에 받아먹고 천리방송하라’고 진언을 외우면서 퇴송을 한다. 이후 절을 하고 철상을 한다. 이 제의는 보통 30여 분 정도 소요된다.(제보자 : 서면 갈천리 엄익환 심마니)

13) 칠성신앙

석성산은 양양의 진산이다. 그렇다 보니 예로부터 양양의 여러 신앙은 석성산으로부터 비롯하는 것이 많았다. 칠성신앙 역시 석성산으로부터 비롯한다.

칠성신앙은 칠성신을 모시는 신앙이다. 이 신앙은 칠성, 즉 북두칠성을 신격화한 신앙으로부터 비롯하는데, 중국에서는 사망자의 영혼이 좋은 곳으로 천도하기를 바랄 때 기원하는 신격이었다. 그러나 한국으로 건너오면서 칠성신은 죽음 이후가 아니라 탄생의 전후를 주관하는 신격으로 탈바꿈했다. 현재 양양지역에서 모셔지고 있는 칠성신앙은 이와는 조금 다른 것으로 보인다. 칠성신앙을 통하여 가정의 평안은 물론 국토의 통일마저도 기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군성황사 뒤에 있는 칠성탑에는 신위가 봉안되어 있다. 신위를 만드는 과정은 정성이 지극했다. 손이 없는 날 충청도에 가서 명주를 사왔다. 굳이 충청도까지 간 것은 당시 남쪽만 삼살방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사온 명주를 7자7치를 끊어 칠원성군이라 써 신위를 만들어 칠성탑 안에 봉안했다. 봉안을 하면서 우리의 정성에 감응하셨는지, 감응하셨다는 신성을 보이길 기원했다. 당시 큰 동이에 물을 떠놓고 신이 내릴 왕대를 꺼어다 동이에 담아놓았는데, 신성 현현을 기도하자 동이에 담가놓은 왕대가 홀연 서는 것이었다. 신성의 현현은 이와 같았다. 50여 년 전의 일이었다.

석성산에서는 음력 7월 6일 밤에 올라가 음력 7월 7일 0시부터 천제당에서 제사를 지냈다. 이후 7월 7일 오후 18시경 장군성황당 뒤 칠성당에 여러 신자들이 모여들었는데 모두 여성분들이었고 대체로 나이가 지긋하였다. 칠성당은 처음 건립 당시 이 땅을 팠더니 탑의 흔적이 나왔다. 그래서 이를 복원한 것이라고 한다.

2009년 음력 7월 7일 장군성황당 뒤의 칠성탑에서 거행되었던 칠성신앙의 현장은 다음과 같다.

칠성을 모시는 제의는 칠성탑 주위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후 신도들은 신발을 벗고 경건히 칠성탑 주위로 모여든다. 저마다 정성껏 가져온 쌀과 과일을 탑 아래에 진설한다. 그리고 향을 피운다. 손에는 고치물을 떠온 주전자를 하나씩 들고 있다. 이 고치물을 청수라 한다. 청수가 들은 주전자를 칠성탑의 5층이나 6층 탑신 주위로 7개를 봉안한다. 술 대신에 사용하는 것이다. 칠성신에게 올리는 제물로 어(魚), 육(肉), 주(酒), 메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생쌀과 청수, 과일, 취떡뿐이다.

신도들이 모두 모이면 주관자(황일선)가 징을 치기 시작한다. 우주가 28수로 만들어졌으므로 28번 징을 치는데, 그 사이에 신도들은 절을 4번씩 해야 한다. 이후 주관자가 4배를 하고는 축원을 올린다. 다음은 축원 내용이다.

대한민국 안과태평하시고, 남북통일 이루게 해주십시오.

일월성신 천신님 전에 축원 올립니다.

옛날에 조상님들이 올리시던 나라를 위한 천신제를 올리오니

내리 강림하시라고 …(말끝 흐림)

통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동족끼리 잘 살도록 통일이 오도록 해주십시오.

이후 주전자에 있는 청수는 칠성당 옆에다 붓고는 다시 청수를 떠와 올린다. 필자가 답사했던 날은 2회를 반복하였지만, 원칙적으로는 4회를 반복해야 한다고 한다. 신도들이 고령이어서 고치물을 떠오기 힘들기 때문에 2회로 줄인 것이다. 이후 합동으로 4배를 하고 철상을 한다. 철상을 한 다음 장군당으로 옮겨 장군신, 남대천용왕신, 매화여서낭 등에게 4배를 올린다. 제사에 사용한 음식은 같이 나누어 먹고 또 남은 음식은 인근 복지원이나 군경 초소에 제공한다.(이한길)

3. 집단신앙

1) 해수욕장 개장 시 고사(용왕제)

양양군은 5개 읍면에 걸쳐 해안선을 끼고 있어 마을의 대부분이 한여름 해수욕장을 7월 10일을 전후하여 개장한다. 해수욕장을 개장하는 날 11:00경에 해수욕장을 개장하였으니 많은 이들이 찾아오고 이 곳에 온 사람들이 무사히 해수욕을 마치고 돌아가기를 기원하는 용왕제를 제향한다.

다음은 하광정 해수욕장(1978년 개장) 용왕제에 사용한 제물 내역이다. 시루떡, 돼지 머리 1개, 어물(문어, 명태, 열기 가자미), 과일 등이다. 문어는 大 1마리(5kg)를 사용한다. 명태, 열기, 가자미는 10마리 이상을 찌서 올린다. 주둥이와 꼬리와 비늘은 친다. 과일은 귤, 밤, 대추, 사과, 배, 수박 등 골고루 사용한다.

2) 벌목 고사

양양군은 산림이 울창하여 예로부터 벌목이 성행하였는데 산에서 나무를 벌목하기 전에 명태포, 실, 백지 등을 나무에 달아놓고 주과포를 준비하여 목상이 제주가 되어 고사를 지낸다. 장소는 벌목할 산의 어떤 나무 아래로 절을 받은 나무는 베지 않는다. 대신 근처의 나무 몇 그루를 베어놓고 하산하며 본격적인 벌목은 다음날부터 진행된다.

3) 다이빙 고사

다이빙 동호인들이 매년 한 번씩 오산리 방파제에서 올리는데 제물은 주과포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고 장소만 확실하다.

(사진의 우측 축항에서 제를 올렸다.)



다이빙 고사 지내는 장소

4) 초매식

초매식은 한 해동안 관내 수협 산하 중매인들이 무사안녕을 비는 제의이다. 양양군수 산업협동조합에서 주관하며 양력 1월 1일 07:00경에 제향하며 어선이 출항하지 않으면 1월 2일에 올린다. 양양군 수협 조합장이 초헌관이 되고 유자망협회장, 자망협회장 등이 헌관이 되어 제향했고, 장소는 남애리 위판장이었다. 배들이 아침에 고기를 잡아 입항하면 초매식을 한 이후에 경매(중매)를 시작했다. 이 제의는 2006~2007년경에 중단되었다. 제물은 돼지머리와 어부들이 잡은 생선궤짝이었다.

5) 무후제

현남면에서는 후손 없이 세상을 떠난 고인들의 영혼을 기리는 무후제를 제향한다. 매월 4월 20일로 정하여 8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제의 제향동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후손이 없는 7명의 망인이 기증한 토지 기록을 보면, 1910년 을사조약 이후 이 병두 초대면장으로부터 시작했다고 되어 있다.

현남에 살던 청주 한씨 부부가 자손을 보지 못하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논밭 등의 토지를 모두 면에다가 기증을 하고 매년 제의를 지낼 것을 유언하였다. 이후 세월이 흐르면서 남원 양씨, 김해 김씨, 달성 서씨, 순흥 한씨 등 모두 7명으로 늘어나 무후제를 지내게 되었다. 이들이 기증한 토지는 현재 군유지가 되었지만 하월천, 후포매리 주민들이 경작하던 1970년대 초까지는 추석을 전후하여 주민들이 성대한 대동제로 무후제를 지냈다. 요즘은 군비 지원으로 현남면 면사무소에서 면장이 제주가 되어 주민들이 함께 무후제를 지내고 있다.

[『양양군의 역사와 문화유적』(강릉대박물관 외, 1994) 참조]

4. 무속신앙

1) 현산문화제 장군굿판

현산문화제는 양양의 단오절 행사로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때 무속인들이 모여서 굿을 행한다. 현재 양양의 유명한 무당은 남문리에 거주하고 있는 박월순(여·73세, 1994년 기준. 이하 동일)이다. 현산문화제 때 그가 행한 굿을 보면 부정굿, 서낭굿, 조상굿, 칠성굿, 산신굿, 용왕굿, 배성주굿, 삼한세존굿, 심청굿 등을 하였다.

또한 양양군 경신연합회지부는 황일선(여·67세) 회장을 중심으로 47명의 회원이 있다. 고희옥, 정금자, 김무순, 윤춘화, 함춘남, 김귀녀, 함경연, 김정녀, 윤옥정, 지정숙, 이영란, 전옥자, 이병순, 최돈숙, 김손옥, 윤금선 씨가 있고 화랭이로는 조정구, 천씨 등이 있다. 1994년 현산문화제 굿판에는 울진에서 온 배무호, 박생금 부부가 가세하였다.

2) 풍어제

풍어제는 풍어굿이라고도 하며 4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어촌 마을에서는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어촌 마을인 물치리, 인구리, 동산리, 남애리, 수산리 등에서 풍어제를 올렸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중단되어 전해지는 곳은 없다.

최근 1994년 11월 17일~18일까지 광진리 어촌계에서 거행된 풍어제를 문헌자료(『강원어촌지역 전설민속지』)에서 요약하여 소개한다.

굿은 음력 10월 중에 하였으며 준비는 마을이나 어촌계장이 주관하는 것이지만 최근 이 마을에 시집 온 다음 신이 내려 무당이 된 박정옥 씨가 주관하였다.

박정옥은 당주를 맡고 다른 강신무를 초청하여 진행하였다. 강릉의 사화선, 포항의 김용택, 김영숙 부부, 문헌수 등이 참여했다. 굿당은 바닷가 여서낭당 옆에 천막을 치고 가설하였다. 제사상에는 돼지머리, 과일, 어물, 메, 탕 등을 올리고 제삿상 아래에는 수부상도 하나 차려놓았다.

처음 굿은 사화선이 부정굿을 쳤다. 바가지에 물을 떠서 신칼로 굿당 주변을 뿌리고

다시 소지 종이에 불을 붙여 사방에 휘두른다. 다시 춤을 춘 후 신칼을 밖으로 던져 칼 끝이 밖을 향했는지를 살핀다. 밖을 향해 있으면 무사히 부정이 가시어진 것으로 믿고 굿을 시작한다.

두 번째 굿은 박정옥이 당맞이 굿을 하였다. 서낭신을 맞이하는 굿이 당맞이 굿이다. 여서낭이기에 산등성이에 있는 남서낭을 모시러 갔다. 맨 앞에 서낭대를 앞세운 이가 가고 그 뒤를 제관들이 제물을 들고 따라갔다. 커다란 소나무인 남서낭 앞에 제물을 진설하고 어촌계장이 절하고 무녀는 부채를 들고 사방에 절한 후 축원을 했다. 이어서 대잡이가 대를 잡고 서면 무녀는 제금을 치면서 대가 내리기를 축원한다. 대가 내리면 무당은 공수를 내린다. 무녀는 직접 서낭대를 잡고 흔들면서 공수를 내렸는데 그 내용은 도로공사를 하면서 산에 아무런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을 탓하면서 반드시 산제를 모시고 용왕굿을 잘 지내라는 것이었다.

세 번째 굿은 문현수가 하회동참굿을 했다. 여서낭과 남서낭 그리고 2반의 해당화 할머니 서낭 등을 함께 굿청에 좌정시키는 굿이다. 무녀는 성황대를 들고 축원하고 사람들에게 길흉을 알려주는 공수를 주는 것으로 간단히 마무리했다.

네 번째 굿은 다시 박정옥이 행했다. 조상신을 위한 조상굿인데 무녀는 조상신을 청하여 재수를 빌고 자손들을 잘 돌보아 달라고 축원을 했다. 무녀는 제물로 바쳤던 대구포를 들고 신칼로 누르면서 춤을 추었다. 이는 조상을 잘 섬기라고 마을 주민들에게 당부한 후 잔을 들고 축원하고 신칼을 던졌다.

다섯 번째는 사화선이 세존굿을 했다. 세존굿은 시존굿이라고도 하며 제석굿이라고도 한다. 세존은 복을 관장하는 신이지만 불교적으로 윤색되어 있어 당금애기가 구연되어야 하지만 이날 무녀는 당금애기풀이는 하지 않고 그냥 장삼에 고깔을 쓴 차림으로 축원무가만 불렀다. 이에 제주에게 고깔을 씌우고 염주를 걸어주고 동냥을 하게 하는 중잡이놀이를 하였다.

여섯 번째는 김영숙이 성주굿을 하였다. 성주는 집을 관장하는 신이다. 무녀는 쾌자를 입고 갓을 쓴 후 부채를 들고 무가를 부른다. 내용은 새로 집을 짓고 성주신을 모셔오는 과정이다. 김영숙은 세습무답게 천천히 정통무가를 부른 후 민요를 불러 관중을 즐겁게 하고 개인 축원을 해준 후 복잔을 돌리고 마쳤다.

일곱 번째는 사화선이 행한 논동우굿이다. 각도의 장수를 불러 오기에 장수굿이라고도 하고 군웅굿이라고도 하는데 이 날 무녀는 논동우(논동이)를 입에 무슨 묘기를 보여 주어야 하는데, 이를 생략하고 다만 여러 장수들을 청하여 축원을 하였다.

여덟 번째는 박정옥이 지신굿을 행했다. 터를 관장하는 신을 모시는 곳으로 축원으로 일관되게 행하였다.

아홉 번째는 김영숙이 손님굿을 행했다. 손님은 마마, 즉 홍역을 의미한다. 무녀는 쾌자를 입고 왼손에 한지를 총채처럼 오린 신간을 들고 무가를 부른다. 이때 사람들은 자손을 위해 신간에 돈을 매단다. 무가의 내용은 욕심 많은 철룡이 아버지가 손님을 잘못 대접하여 자손을 잃고 패가망신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무녀는 장고 반주에 맞추어 손님굿 무가를 부르고 이 마을에 역병이 도는 일이 없도록 축원을 하였다.

열 번째는 문현수가 산신제를 행하였다. 이 부분은 풍어제를 할 때 들어가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번에 당맞이를 할 때에 산을 깎아 길을 내므로 산신에게 정성을 올리라는 공수가 내렸기에 특별히 하게 된 것이다. 일을 하는 이에게 아무런 사고 없고 마을도 평안하기를 빌었다. 여러 제물을 진설하고 주위에 산봉우리가 셋인지라 물처럼 깨끗하게 마을을 도와달라는 의미에서 물을 세 그릇 떠놓았다. 무당이 축원을 올리면 주민들은 절을 했다.

열한 번째는 사화선이 행한 제면굿이었다. 제면은 무당의 당골구역을 의미한다. 내용은 제면할머니가 당골네들을 찾아다니면서 걸립을 하는 것이다. 무녀는 쾌자를 입고 부채를 들고 각도의 무당 홍내를 낸다. 끝에는 제면떡을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으로 마쳤다.

열두 번째는 꽃노래, 뱃노래, 등 노래굿이었는데 김영숙이 진행하였다. 굿이 끝나감에 따라 여러 무녀가 함께 꽃을 들고 신을 즐겁게 하는 춤을 추고 다시 굿청에 매어놓았던 배를 젓는 홍내를 내면 사람들은 배 안에 돈을 넣는다. 이어 등을 들고 춤을 추는데 이는 모두 신이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비는 것이다.

열세 번째는 문현수가 행한 용왕굿이다. 용왕은 물을 관장하는 신이다. 사람들은 제물을 준비하여 바다쪽으로 진설한다. 무녀는 바다를 향해 징을 두드리면서 어업을 하는 이들의 안전을 빌고 풍어를 기원한다. 원래 용왕굿은 물동이를 타고 신의 뜻을 전하는

것이지만, 광진리에는 큰 배가 없어 간략하게 하였다. 굿이 끝나자 남은 음식을 바다에 버렸다.

열네 번째는 문현수가 행한 거리굿이었다. 굿에 달리붙은 잡귀를 풀어먹이는 굿이다. 원래 남자세습무인 양중들이 하는 촌극적인 굿이지만 광진리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다만 남은 음식을 조금씩 떼어버리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3) 양양의 무가(巫歌)

양양의 무가로 조사된 자료는 『한국구비문학대계』2~4, 2~5(1983년)에 지경숙 씨의 삼신할멈발원가, 바리데기와 김남수 씨의 불설조왕경, 명당경, 안택신주경 등이 실려 있다. 또 장정룡이 조사한 자료로는 배무호의 성주굿이 『양양군의 역사와 문화유적』에 전한다.

IV. 의생활

1. 개설(概說)

우리나라 의생활(衣生活)은 사회변화에 따라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설이나 추석(秋夕)때에는 아직 한복을 입는 경향이 있으나 평상시에는 거의 입지 않고 양복이 일상화되어 있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관(冠)·혼(婚)·상(喪)·제(祭)때 특히 노인들은 정장으로 통용되고 있다. 우리복식(服飾)의 기본 형태는 바지, 저고리, 치마인데 이 상고복식(上古服飾)이 수천년이 지난 지금도 현존하고 있다. 이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입어온 우리 옷에는 분명히 종류가 있고 멋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처럼 세탁이나 염색, 직조 등에서 발전이 없었던 그 당시에는 옷을 지어 입기까지에는 숭한 시간과 노력·정성이 필요했다. 이 때문에 옷을 다루는 솜씨가 특별했다. 더러워진 옷을 빨아서 다시 지어야 하는 일이 반복되는 생활이었으나 손수 염색하고 풀 먹이고 밤새도록 다듬이질해서 반반히 올을 세워 바느질하면 언제나 진솔처럼 입을 수 있는 즐거움이 있었다. 이렇게 만져서 한여름이면 옥색 모시치마에 잔주름을 잡아 눈처럼 흰 허리를 달고 뽀얀 살빛이 아련히 비치는 모시적삼을 입었다. 또한 민감한 계절에 맞게 겹저고리, 누비저고리, 솜저고리 등 다양하게 입었다. 특히 『여지도서』 양양부 풍속조에 의하면 “농업과 양잠을 업으로 했으며[務農桑：무농상], 장례를 불쌍히 여겨 도왔고[恤喪葬：홀상장], 잔치를 열어 놀기를 즐겨했으며[喜遊宴：희유연], 학문을 숭상하고[尙文學：상문학], 예의를 귀히 여겼다[貴禮義：귀례의].”는 기록이 전해진다.

위와 같은 기록은 『강원도양양군읍지』권2 풍속조, 『관동지』권13 양양부 풍속조, 『현산지』풍속조에 유사한 내용이 언급되는 바 농업과 양잠으로 직물을 만들어 입었으며, 장례를 도왔다는 것은 일정한 장례의식과 형식 그리고 규범을 지켜 행했을 것이라 추측

되며, 예의를 귀히 여겼다고 한 바 관혼상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격식을 갖춘 의생활이 전래되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인간의 생활문화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자연 환경과 사회적 · 경제적 여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특히 양양지역은 6·25 한국전쟁 전의 유물과 유품 등은 거의 모든 것이 파괴되어 자료를 찾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 후에는 가난으로 입을 옷감이 없어 군복을 염색하여 입은 때도 있었다. 또한 자연환경은 높고 가파른 산악지형과 동해와 접하는 해안에 위치하여 농토와 산과 바다가 양양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으므로 필자는 여기서 파생된 의생활(衣生活)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의복의 구분

우리 복식(服飾)의 재료를 확보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부지런히 길쌈을 하였다. 길쌈내용은, 누에를 쳐서 명주실을, 목화를 심어서 면사를, 대마를 심어 삼실을, 모시풀을 심어 모시실로 각각 직조를 하였다. 옛 문헌에서 보듯이 양양에는 농업과 양잠을 업으로 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에는 길쌈문화가 성행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한복의 종류는 다양하여 관복도 계급에 따라 색깔과 모양이 다르며, 신분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대개는 관복, 평복, 예복, 상복 등으로 구분하며 현재는 평복, 혼례복, 상복만이 전승되고 있으며 이를 남 · 여복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자용으로는 바지, 저고리, 조끼, 마고자, 두루마기, 도포, 토시, 대님, 행전 등인데, 토시는 약 30여 년 전부터 점차 쇠퇴하여 지금은 거의 찾아 볼 수 없고, 도포도 일부에서 제사 때만 사용되고 있다. 그 밖에 대부분 특별한 변천이 없으나 버선은 노인층들만 사용하고 양말로 바뀌어 졌다.

여자용으로는 저고리, 치마, 배자(褙子), 단속 옷, 장옷, 버선, 속적삼 등이 있으나 장옷만은 이미 없어지고, 버선은 아직도 젊은 부녀까지 애용하고 있다. 두루마기는 남자 전용이던 것이 근래에는 남녀공용이 되었다. 버선은 고래로 오이씨 같은 발 모양을 내기 위하여 되도록 볼을 좁게 만들어 신던 풍속이 있으나 위생상 넓어졌고, 젊은 여성들

은 긴 치마를 많이 입는 경향으로 변하였다. 지금은 새해나 경사, 축하시 예식이나 외출시에 한복의 아름다운 모습이 차츰 늘어가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두루마기는 양반계급이 입던 속옷이다. 즉 바지, 저고리 위에 입고 그 위에 또 도포를 입고 다니던 외출복인데, 평민은 도포 착용을 못했기 때문에 겹옷으로 사용해 왔다. 또한 옛날의 두루마기는 현재의 상복처럼 소매가 넓고 화장이 길었으며 석자자락 혹은 넉자자락으로 터서 따로 덮게 되었다. 석자자락은 장옷 넉자자락은 중 치마 도포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행주치마는 임진왜란 때 권률 장군의 행주산성 싸움에서 부녀자들이 치마에 돌을 운반하는데 쓰여진 데서부터 유래되어 오늘날까지 부엌에서 일하는데 애용되어 왔다. 그러나 행주치마 시대와 유행의 변천을 따라 옛적부터 내려오던 튼튼하고 깨끗한 백색의 광목이나 옥양목으로 만든 한복치마에 반쳐 입은 행주치마는 사라지고 양장에 알 맞는 각양각색의 모양과 색조로 실용보다는 맵시에 중점을 둔 간편하고 아름답고 사치스런 앞치마로 변모하여 왔다.

백의와 의관제도가 일제강점기 때 유색 옷, 고무신 등으로 변했다가 다시 짚신, 나막신 등을 신었고 고무신, 운동화, 찌까다비[일제강점기시 작업할 때 신은 운동화 같은 것] 등으로 변했다가 오늘의 양화[구두] 시대로 발전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3. 의복의 종류

1) 평상복

남자들이 여름에 입는 옷은 고의[袴衣] : 훌바지], 적삼, 바지, 저고리 조끼, 두루마기를 입으며 겨울옷은 바지, 저고리, 조끼, 마고자, 두루마기이다. 도포가 있으나 이는 의식복장이다. 여자들의 여름옷은 치마, 적삼, 개끼적삼, 단속곳, 속바지이고 겨울옷은 치마, 저고리, 단속곳, 바지, 마고자, 덧저고리, 두루마기이다. 방한용으로 쓰는 남바위와 아양도 쓰고 있다. 내의가 심하던 때에 여자가 외출하려면 뒤집어쓰고 다니는 장의가 있었으나 이것은 이미 자취를 감추었다.

(1) 두루마기(周衣)

창옷과 같이 소매는 좁으나 창옷은 옆이 찢어졌지만 두루마기는 옆이 찢어지지 않았다. 두루마기는 독립된 겹옷이 아니고 도포 밑에 받쳐 입는 옷이었으나 근래에는 외출복 중 가장 밖에 입는 옷으로 됐다.

(2) 도포(道袍)

중치막과 비슷하여 소매가 매우 넓고 폭도 4폭으로 되어 있으며, 등에는 따로 중폭(重幅)이 붙어 있다. 이 옷은 사대부와 유생의 통상 겹옷도 되고 예복으로도 입었다. 지금은 평시에는 입는 사람이 없으나 구식(舊式)의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의(祭儀)에는 아직 입는다.

(3) 바지 · 저고리

큰사폭, 작은사폭, 마루폭, 허리로 구성되어 있다. 여름에 입는 바지는 고의라고 하며 박아 짓는다. 봄, 가을의 것은 겹으로, 겨울의 것은 솜을 넣어 홑질로 바느질하여 입었고 또한 누비옷도 지어 입었다. 저고리는 보편적인 상의이다. 봄 · 가을에는 겹저고리, 겨울에는 솜저고리를 만든다. 동정, 고름을 달아 입는다.

(4) 조끼 · 마고자

저고리 위에 입는 옷으로 팔, 소매가 없으며 저고리와 같은 깃과 옷고름이 없다. 주머니를 세 개 달아 남자의 휴대 일상 용품을 넣을 수 있게 했다. 마고자는 조끼 위에 입는 옷이다. 깃이 없으며 셔츠 양쪽이 같은 치수로 단다.

(5) 치마

여자들의 하의 중 제일 밖에 입는 옷이다. 홑치마, 겹치마가 있는데 치마허리는 요즘처럼 어깨허리를 달아 입지 않고 허리를 동여매게 되어 있다. 어려서부터 출가하여 첫애기를 낳 때까지는 붉은색 계통을 입었고, 중년이 되면 남색, 노년에는 옥색이나 회색 계통을 입었다.

(6) 속곳

단속곳과 속속곳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단속곳은 여자가 바지 밑에 입는 옷으로 폭 밑 밑바대 허리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속속곳은 여자들이 입던 속옷 가운데 맨 속에 입는 옷으로 다리통이 넓은 바지 모양이다.

(7) 버선

버선은 남녀가 모두 신는다. 그러나 근래에는 여자는 한복을 입을 때 버선을 아직 신으나 남자는 양말로 바뀌었다. 혼수 버선이라고 하면 보통 열 죽이라 하여 1백 켤레까지 해 왔던 필수 의류의 하나였다.

(8) 조바위

남바위, 아얌과 같이 여자들이 겨울에 쓰는 일종의 방한모이다. 조바위는 귀를 가렸으나 뒤 비녀 끼운 부분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졌으며, 남바위는 뒤가 늘어뜨려 비녀를 감추게 되어 있다. 아얌은 드림이라는 판전은 허리 밑까지 늘어뜨려 만든다. 이 밖에 중채, 만선두리 등 방한용(防寒用)쓰개가 있었으나 제일 많이 쓰인 것이 조바위이다.

2) 수의(壽衣)

사후(死後)에 입히는 옷을 수의라 하는데 집안에 연로한 노인이 있으면 미리 준비한다. 수의는 일반적으로 윤월에 만들면 좋다고 해서 이달에 많이 만든다. 명주나 옥양목, 삼베를 자료로 쓰나 대개의 경우는 삼베를 쓴다. 바느질 할 때는 실의 매듭을 짓지 않고 꿰맨 다음 실을 길게 늘어뜨리며 산 사람의 옷보다 크게 치수를 잡아 만든다. 아직 수의를 준비해 두는 집은 많은 편인데 복잡한 것을 피하여 적삼, 고의, 바지, 저고리, 도포, 심의, 행전, 버선, 안수, 땃넉, 명목(幘目), 조발당 정도의 홉이불 끼는 요를 만든다. 여자의 경우는 동정이 없는 저고리, 치마, 속치마, 속적삼, 속바지에 삼베로 원삼도 만든다.

3) 생업복식(生業服飾)

(1) 농촌지역 복식

농촌지역의 노동복은 과거에는 농사일 할 때는 여름에는 배잠뱅이 등거리적삼을 입고 바지는 홀으로 된 중의를 입는다. 중의는 한복바지와 서양식의 중간 형태로 노동복으로 입었다. 부인들은 평상복에 광목행주치마를 두른다. 현재에는 기계화영농으로 두레형식보다는 각 농가별로 농기구를 구입 농사일을 하고 있어서 작업에 간편한 작업복을 착용한다.

(2) 심마니 복식

산악지형이 70%를 차지하는 양양은 험난한 삶의 터전 위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 왔는데 그 중 하나가 심마니이다.

심마니란 산삼(심메)을 캐러 다니는 사람들을 ‘심마니’ 혹은 ‘심메마니’라고 부른다. 심마니는 전업채삼인과 부업



채삼전 산신제 모습



채삼을 위한 복식

채삼인으로 나뉘어지는데 일 년 내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그들의 생활은 땅에 있을 때에는 일반인들과 다른 점이 없으나 이들이 일단 입산 날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평상시와는 달라진다고 한다.

이들이 입산을 앞두고 부정을 가리는 것은 산 자체에 대한 경이르기보다는 그들이 캐고자 하는 것이 영초이기 때문에 부정한 몸에는 보이지 않고 또 부정한 몸으로 입산하면 산신의 노여움을 받는다는 그들의 신앙심 때문에 금기를 지키는 것이다. 전업채삼인

의 경우 전승습속을 중시하며 엄격히 지킨다고 한다. 술한 금기와 이를 신앙과 같이 염원하는 심마니들도 시대의 흐름은 간과 할 수 없어 복식에 있어서도 간편함과 실리적인 선택에 의해 전통과 관습이 사라져버리기도 하는데 지금은 어느 곳에도 고유의 심마니 옷을 입은 그들을 볼 수는 없다. 엄익환은 양양군 서면 갈천리(구룡령 바로 아래 마을)의 심마니로 70여 년을 심마니로 살아오신 분이다. 지금은 간편한 일반 옷을 입고 심마니 일을 하지만 60세까지도 고유의 심마니 옷을 입고 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산에 오르기 전에는 산신에게 소망을 기원하는 제의 행사도 하였다.

엄익환 선생이 가지고 있는 심마니 옷은 본인이 60세까지도 직접 입고 산에 채삼하러 갔던 의복이라 한다. 넥 쇠 반 정도의 삼베로 어머니(1916년생, 작고)께서 1987년도(당시 71세)에 만들어주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고유의 적삼과 바지, 그리고 행전으로 구성 되어 있다. 원래 적삼은 남녀의 홀으로 된 속옷을 적삼이라고 칭했는데 여름철에 입는 홀겹의 겉옷으로 변모하여 우리 고유의 노동복의 형태이다. 바지에 행전을 찢은 것은 산속을 다니는데 활동성을 돕기 위함으로 조선시대 말까지는 천민은 행전을 찢 수 없어서 바지 한가운데를 묶고 다녔다고 한다.



적삼



바지



허리띠



행전

(3) 어촌마을 복식

양양지역은 동해의 긴 해안선을 접하고 있어 현재에도 13개의 어촌계가 어민들의 생계를 위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어로 활동 복장은 특별한 것은 없으며 고무옷을 입는 방법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그 이유는 해녀들 각자 자신이 가장 편한 방법으로 입어야 활동하기가 수월한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해녀들의 복식으로는 해녀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입는 고무옷이 대표적이다.

4) 종교복식(宗教服飾)

이광재 신부는 1909년 6월 9일 강원도 이천군 낙양면 내달리 맵골에서 출생했고 1936년 3월 28일 사제 서품을 받았으며 서품 후 몇 달간 강원도 풍수원 본당의 보좌신부를 거쳐 같은 해에 양양성당의 본당신부로 부임하여 1950년 10월 9일 원산에서 순교할 때까지 14년간을 박해 속에서만 사목활동 하였다.

양양성당은 1981년 본당 설립 60주년 기념사업으로 이광재 신부 순교기념비 및 추모각 건립 사업을 1982년 착수하였고 이때부터 각 공소와 신자 개인들이 보관하고 있던 유물들을 전시해 놓기 시작했다고 한다.

『양양본당 80년사』에는 전쟁 중에 영동지역에 주둔하였던 국군의 군중 사제였던 이들 가운데 생존해 있는 신부들이 있어 이신부의 유품 몇 점을 구할 수 있었는데 최익철 신부가 보관하고 있던 물품중 제의 2벌, 부제복 2벌, 제병기 1점, 제대보 5점 등 최신부는 전쟁이 끝난 뒤에도 물품을 계속 가지고 다니다가 기증하였다고 한다. 현재 이광재 신부의 기념관의 복식관련 소장품은 제의(祭衣) 6벌, 부제복(副祭服: Dalmatica) 2벌, 영대(領帶) 6개, 수대(手帶) 2개, 제대포(祭臺襟) 등이 있다.

양양성당의 김두한 [마지아]의 증언에 따르면 이 중 이 신부님의 유품으로 확인된 것은 제의 2벌 뿐이고 나머지 유품들은 전쟁 중이나 직후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최익철 군중신부의 기증품들은 전쟁 통에 노인신자들이 주신 것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한다.

(1) 이광재 신부의 제의

제의란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가 마지막으로 입는 전례복(典禮服)이다. 형태는 반원형이며 소매가 없이 앞뒤가 늘어지고 양옆이 터져 있다. 고대 로마의 군인들이 외투나 여행용으로 입던 파에놀라(Paenula)에서 기원하며 7세기에 사제복으로 정착되었다.

제의는 ‘작은 집’이란 뜻으로 애덕을 표시하며 십자가 있음은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제사를 거행한다는 뜻이다.

한국 가톨릭의 제례복은 1886년 한불수호조약 이후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면서 비로소 프랑스 성직자들에 의하여 전통적인 가톨릭 전례복이 도입되었고, 1900년대 초기의 제의는 프랑스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로마식 제의로서 프랑스의 전례복(典禮服)이 많이 도입되어 유물로도 많이 남아있다고 한다.

이광재 신부의 유품으로 제의는 2벌이 있는데 하나는 화려한 검정색 벨벳의 로마식 제의로 6·25한국전쟁 당시 월남하면서 연곡면 행정리 움막 속에 숨겼다가 최익철 군종신부에게 인계하여 소장 후 정원일[가브리엘] 신부에 의해 발굴된 것이고 나머지는 백색 비단의 희랍식 제의로 오문식 신자에 의해 발굴 제공 된 것이다. 그런데 이광재 신부의 유품은 로마식과 희랍식 제의가 함께 남아 있어 독특하다고 하겠다.

한국 가톨릭의 고향인 풍수원 성당 유물전시관의 최초의 한국산 제의라고 하는 정규 하 아우구스티노 신부의 유품에서도 희랍식 제의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초기 가톨릭교의 제의 유품 중 희랍식 제의가 거의 없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광재 신부의 제의에서 두 가지 종류가 모두 보여지는 것은 그 사료적인 가치가 충분하다.



이광재 신부의 희랍식제의



이광재 신부의 로마식제의

김두한[마지아]의 증언에 따

르면 조선 말기시대부터 프랑스 등 유럽 쪽의 제의가 1900년대 초부터 들어왔고 이광재 신부의 제의도 프랑스에서 도입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하였던 바 필자의 생각으로도 한국에서 제작된 것은 아니지만 추후 1900년도 초기 한국 가톨릭에 대한 연구에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 사려 된다.

(2) 그 외의 전례복

가. 부제복(副祭服: Dalmatica)

미사 때 부제들이 입는 소매가 짧고 크고 헐렁하며 띠를 매지 않는 옷으로 부제복의 앞·뒤를 펼치면 십자가 형태의 목 부분만 구멍이 뚫린 형태로 법의(法衣)라고도 부른다. 원래 로마인의 옷이 아니라 유고슬라비아의 달마티카(Dalmatica)지방에서 착용되었던 옷으로 3세기경에 로마로 유입되어 12세기경에는 모든 부제들의 고유한 옷이 되었다. 이 옷의 형태는 커다란 십자가를 연상시키므로 성(聖)십자가를 의미하고 앞과 뒤에 장식 한 두 개의 줄무늬는 그리스도의 성혈을 상징한다.

이광재 신부 기념관의 부제복은 2벌로 『양양본당 80년사』에는 이광재 신부의 유품으로 전해지지만 다른 신부의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부제복이 이광재 신부의 유품과는 달리 한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옷의 소재가 우리나라 녹색 양단으로 보이고 옷의 가장자리에 테이프로 장식한 것 이외에는 다른 장식이 없는 아주 간소한 형태로 전반적인 상황이 어려운 시절에 제작된 것으로 사려 되며 무엇보다 부제복의 안쪽 가운데 서명(BT)이 수놓아져 있어 다른 신부의 유품으로 추정된다.

또한 김두한[마지아]의 증언에 의하면 노인신자들이 전쟁 후에 군중신부님께 이광재 신부의 유품이라고 기증하였다고 하였으나 확실하지 않다고 하였는데, 필자의 소견으로 전쟁 후부터 1960년대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동일한 소재의 제의와 동일한 서명이 들어간 제의도 있고 여름용 소재로 제작된 제의 2벌을 추가하여 총 6벌의 제의가 있다.



부제복1



부제복2



제의 1



여름용 제의 1



여름용 제의 2

나. 영대(領帶: Stole)

성직자가 자신의 성직자의 직무집행시의 표시로 목에 걸쳐 무릎까지 길게 늘어지게 매는 좁고 긴 띠로 고대 동방에서 사용되던 장식술이 달린 화려한 목도리에서 유래 된 듯 하며 6세기경부터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했다. 대부분 제의와 같은 천으로 만들어진 다. 이광재 신부기념관의 영대는 6개로 문양은 그리스식 십자가 형태를 띠고 양 끝에 테이프로 장식했고 띠 중에 한국적인 동정을 달았으며 영대 양끝의 모양은 향아리모양, 사다리꼴 모양 등 다양하다.

다. 수대(手帶: Maniple)

사제가 미사 때 왼쪽 팔목에 거는 형식으로 된 짧은 띠로서 8세기경부터 전례복의 일부가 되었다.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영대



영대 및 수대

집필 : 최혜정



V. 식생활

1. 서론

양양군은 강원도의 중부 동해안에 위치해 있고 동해안을 따라 2~4km 폭으로 좁고 긴 평야가 전개되고, 서쪽으로는 태백산맥이 남쪽으로 달리고 있어 대부분의 지역이 험준한 산악지대이다. 해안가에 자리 잡고 있어 북서계절풍이 태백산맥에 의해 환현상을 일으켜 대체로 서늘하며, 겨울에는 적설량이 많다. 한류와 난류가 만나 어족자원이 풍부하며 동해에서 산출되는 어패류를 이용한 다양한 음식문화를 발전시켰다. 같은 지역이라도 산촌과 어촌, 그리고 농촌에 따라 각기 다양한 식생활을 엿볼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맛이 극히 소박하고 구수하고 먹음직스럽다.

해안지대에는 항구와 어촌이 모여 있다. 수산물로는 연안 잡어의 수가 풍부하다. 즉 12월부터 정월까지 도루묵, 2~4월까지 멸치, 3~5월까지는 꽁치를, 5~11월까지는 오징어를, 11월~정월까지의 명태를 주로 잡는다. 명태, 양미리, 정어리, 오징어, 멸치, 미역, 다시마 등의 해산물이 많이 나서 이를 가공한 황태, 건오징어, 건미역, 명란젓, 창란젓 등을 제조하여 반찬으로 이용한 음식이 많으며 건조식품과 저장식이 발달되었다. 또 명태포, 가자미, 고등어, 새치, 도루묵, 멸치, 햇대를 밥과 엿기름가루와 함께 섞어 식해를 담그기도 하며 음식 조리할 때 조개나 멸치를 넣어 음식 맛을 돋구기도 한다. 김치를 담글 때는 생태나 대구, 서거리 등의 생것을 많이 넣고 여러 가지 꽁치젓, 잡어젓을 많이 넣고 담는다. 생선을 넣으면 김장김치의 시원한 맛과 저장기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농촌에서는 밭농사와 논농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쌀, 찰옥수수, 감자, 밤고구마, 토마토, 오이, 고추, 배, 복숭아, 감 등을 재배하고 있다.

산악지방은 음식의 간이 싱겁고 매운맛도 덜하며 음식이 큼직하고 양도 푸짐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부식으로는 어디에서나 고기반찬을 좋은 반찬이라 하며 중요시하는 편이나 일상적으로 찬류는 대부분 채소류 중심이고 저장하여 오래두고 먹을 수 있는 김치류, 장아찌류, 젓갈류, 장류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 산간지방에서는 육류와 신선한 생선류를 구하기 어려우므로 소금에 절인 생선이나 건조시킨 어패류, 해초류 등과 쌀보다는 옥수수, 메밀, 감자 등 밭작물을 이용한 음식이 많다. 또한 송이, 표고, 느타리, 능이 등의 버섯류와 예전에 구황작물로 이용되었던 고사리, 도토리, 상수리, 칩뿌리, 두릅, 곰취, 당귀, 다래, 머루, 누리대, 엄나무 등의 산나물이 풍부하여 이를 이용한 음식이 발달되었다.

특히, 양양송이버섯은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식품으로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개발 생산되어 국내 소비뿐만 아니라 수출까지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송이를 이용한 개발식품으로 송이장조림, 자연송이장아찌, 송이주, 송이고추장, 송이된장, 송이수음료, 자연송이캔디, 송이동동주, 송이불고기, 송이젤리, 자연송이추출액, 송이꿀, 송이피클, 송이복차, 송이쿠키, 송이청, 산꿀자연송이, 해양심층수 송이주 등 5개 업체에서 20여 개 품목의 개발품이 출시되어 고부가가치 상품화로 농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있다.

또한 오색지역부근에서는 산에서 나는 각종 산나물을 이용한 음식과 약초를 이용한 술을 만들어 관광상품으로 판매도 하고 있다.

송천떡마을에서는 20년 동안 부녀회를 중심으로 이 지역에서 생산하는 밭작물과 산채를 이용한 떡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판매하여 인기가 많다. 떡의 종류로는 송편, 개피떡, 절편, 백설기, 쑥설기, 팔 시루떡, 인절미, 찹쌀모찌, 찰뭉생이, 콩시루떡 뿐만 아니라 약식까지 다양한 떡을 만들어 농가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특히 깊은 산과 계곡이 많아 민물생선이 많이 서식하고 있으며 남대천을 중심으로 중소 냇물에는 30여 종의 민물고기가 서식한다. 봄에는 황어, 7~8월에는 은어, 10~11월엔 북태평양에서 3~5년 동안 자란 연어떼가 돌아온다. 또한 연어, 송어, 은어는 물론 타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뚜거리, 민물참게 등 희귀종 민물고기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은어와 뚜거리는 명물로서 은어는 맵시 곱고 빛깔이 깨끗할 뿐만 아니라 진미이며 회, 튀김, 구이로 요리되고 토착어종 뚜거리로 만든 뚜거리탕은 식도락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별미 중의 별미이다. 또한 매년마다 남대천에서 연어축제를 개최하여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여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2009년 2월부터 수산물가공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연어가공시설을 건립하여 현재 유통절차를 밟고 있는 실정이다. 이 시설을 가동하여 연근해와 남대천으로 회귀하는 연어의 전량을 이용하여 훈제, 스테이크, 초밥, 소시지 등 연어가공제품 100여 톤을 생산하므로 어민들의 소득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2. 주식류

주식류는 밥과 죽, 국수류, 만두, 떡국 등이 있다. 밥은 우리 음식의 대표적인 것으로 쌀로 지은 흰밥, 보리, 조, 수수, 콩, 팥 등을 섞어 지은 잡곡밥과 콩나물, 무, 버섯, 등의 채소류와 어패류, 육류 등을 한데 넣어 짓는 별미밥, 나물과 고기 등을 얹어 고루 비벼 먹는 비빔밥 등이 있다. 죽은 재료에 따라 흰죽, 잣죽, 깨죽 등과 채소류, 생선, 조개 등의 어패류와 닭고기, 쇠고기 등의 부재료를 넣어 끓이는 죽도 있으며 별미식, 보양식으로 쓰인다. 국수는 아침, 저녁의 식사보다는 잔치 때 손님 접대용으로, 평상시에는 점심식사로 많이 먹는다. 국수의 종류로는 밀국수, 송이버섯칼국수, 메밀국수, 녹말국수, 칩국수, 미역국수 등이 있다. 만두는 껍질의 재료와 속에 넣는 소에 따라 종류가 아주 다양하다. 주식류의 재료로는 쌀, 감자, 잡곡류 등의 식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1) 밥

(1) 강냉이밥

재료는 쌀 1½컵, 말린 찰옥수수 3컵, 감자 2개, 콩 60g이다. 만드는 법은 먼저 말린 찰옥수수는 성글게 타개어 껍질을 벗기고 타겐 옥수수는 물에 불린다. 솥에 불린 쌀과 불린 옥수수, 콩과 감자를 섞어 밥을 짓는다.

(2) 곤드레밥

재료는 쌀 3컵, 곤드레 나물 150g, 간장양념장, 들기름이 적당량 필요하다. 쌀은 30분 정도 불리고 말려놓은 곤드레 나물을 물에 충분히 불린 후 건진다. 불린 곤드레 나물에 물을 자박하게 붓고 끓여 건져 짠 다음 들기름에 볶는다. 솥에 불린 쌀과 볶은 곤드레 나물을 얹혀 밥을 하여 양념장을 곁들인다.(곤드레는 생것보다 말린 곤드레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맛과 향이 뛰어나다.)〈제보자 : 박점노미(여, 55세) : 양양읍 남문1리 ○○식당〉

(3) 도토리밥

재료는 쌀 1½컵, 도토리 1½컵, 팔 50g로 도토리는 삶아서 말려 껍질을 벗겨 물에 충분히 불린 후 푹 삶아 여러 번 물을 갈아 주어 떼은맛을 제거한다. 냄비에 물과 팔을 넣어 한 번 끓인 후 그 물을 따라내고 다시 물을 부어 부드러워지도록 삶는다. 불린 쌀과 삶아놓은 도토리와 팔을 넣어 도토리밥을 짓는다. 이 밥은 구람밥이라고도 한다.

(4) 무채밥

재료는 쌀 4컵, 무 ½개, 간장양념장(달래, 마늘, 깨소금, 고춧가루, 간장)이다. 쌀은 30분정도 불리고 무는 채를 썰어 솥에 깔고 불린 쌀을 얹어 물을 부어 밥을 짓는다. 충분히 뜸이 들면 간장양념장을 곁들인다.

(5) 보리해당이밥

재료는 쌀 4컵, 보리해당이 200g, 간장양념장 적당량이다. 쌀은 씻어서 30분간 불리고 보리해당이는 깨끗하게 씻어 솥에 깔고 불린 쌀을 넣어 밥을 짓는다. 간장양념장을 곁들인다.〈제보자 : 신금순(여, 51세) : 손양면 동호리 ○○횃집〉

(6) 산채비빔밥

설악의 깊은 숲 속에서 자생하는 두릅, 원추리, 취나물, 고비, 홀잎나무, 참나물, 갈나무, 곰취, 열레지, 전어기(취나물의 일종으로 잎 뒷쪽이 흰색임), 질경이, 씀바귀, 민들

레, 고들빼기, 냉이, 곤드레 등의 무공해 자연식품을 양념하여 그 산나물 특유의 향을 살린 산채는 계절에 따라 채취되는 나물이 다르므로 계절별로 색다른 산채 맛을 즐길 수 있다. 설악영봉의 길목에 자리 잡은 오색지구에는 산채요리 전문점이 많은데 집집마다 전통으로 내려오는 다양한 산나물을 재료로 한 요리솜씨로 손님들을 접대하고 있다.

재료는 고사리 100g, 고비 100g, 곰취 100g, 참나물 100g, 얼리지 100g, 도라지 100g, 쇠고기 150g, 달걀 1개, 쌀 1컵, 고추장 적당량, 다진 파·마늘·깨소금·참기름·후춧가루·식용유 약간이 필요하다. 산나물은 삶아 건져 적당한 크기로 썰어 팬에 기름을 두르고 볶아낸다. 쇠고기는 다져 갖은 양념을 한 뒤 볶아 놓는다. 달걀은 프라이를 해 놓고 밥은 고슬고슬하게 짓는다. 대접에 밥을 담고 갖은 산나물을 옆엎이 올리고 다진 쇠고기, 고추장, 달걀프라이를 올려 낸다.〈제보자 : 이순옥(여, 62세) : 서면 오색리 ○○식당〉

(7) 송이버섯무쇠술밥

재료는 송이버섯 15g, 혼합잡곡 200g, 완두콩 50g, 떡호박 50g, 대추 6개이다. 송이버섯은 길게 저며 썰고 떡호박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혼합잡곡을 하루 정도 불려 대추, 떡호박, 완두콩을 넣고 밥을 짓는다. 밥의 뜸이 들면 송이버섯을 올려 마무리한다. 자연산송이버섯은 향과 맛을 보존하기 위해 나중에 올린다. 무쇠솥으로 밥을 하면 밥색 짙, 밥맛, 구수한 맛, 영양에 있어서도 우수하다.

(8) 송이버섯덮밥

재료는 송이버섯 150g, 쇠고기 100g, 다진 마늘 0.5g, 양파 10g, 대파 10g, 간장 1큰술, 소금 약간, 굴소스 1작은술, 옥수수전분 30cc, 참기름·참깨 적당량, 밥 한공기이다. 송이버섯, 양파, 대파를 깨끗이 씻어 놓고 쇠고기는 핏물을 제거한다. 냄비에 참기름, 쇠고기를 넣고 볶다가 송이와 채소를 넣는다. 각종 양념을 넣어 볶은 후 굴소스를 넣는다. 여기에 옥수를 넣고 끓이다가 찬물에 갠 옥수수전분을 넣고 잘 저어 끓인 후 밥 위에 올리고 참깨를 뿌린다.

(9) 송이버섯영양밥

재료는 송이버섯 50g, 찰쌀 2컵, 술 1큰술, 물 1꺇컵, 간장 1작은술, 소금 1작은술, 미림 1큰술, 닭가슴살 80g, 당근 약간, 은행 8알, 통깨·잣가루 적당량이다. 찰쌀은 씻어서 물에 하룻밤 불리고 송이버섯을 깨끗이 씻어 5cm 길이로 썰고 닭가슴살, 당근은 잘게 썬다. 은행은 삶아 껍질을 벗기고 반으로 자른다. 찰쌀은 물기를 뺀 후 밥솥에 넣고 물, 술, 간장, 소금, 미림, 송이버섯, 닭가슴살, 당근, 은행을 넣고 밥을 한다. 뜸이 들면 통깨와 잣가루를 뿌린다.〈제보자 : 김춘호(남) : 양양읍 포월리 257-1〉

(10) 송이버섯철판비빔밥

재료는 송이버섯 60g, 배추 20g, 느타리버섯 30g, 흑설탕 15g, 새송이버섯 30g, 실파 10g, 표고버섯 30g, 호박 20g, 팽이버섯 30g, 생강 3조각, 쇠고기 100g, 미나리 20g, 목이버섯 20g, 대파 20g, 날치알 50g, 간장 1큰술이다. 프라이팬에 갈아놓은 쇠고기와 양념장을 넣고 볶다가 송이버섯, 표고버섯, 느타리버섯과 채소 등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볶는다. 철판에 밥을 얹고 볶은 버섯과 채소를 두르고 가운데 볶은 양념장을 넣고 날치알로 마무리 한다. 후식으로 버섯 다린 물을 낸다.

(11) 오색약수 영양돌솥밥

재료는 찰쌀 1컵, 멍쌀 1컵, 인삼(中) 2뿌리, 밤 10개, 대추 10개, 약수 적당량이다. 멍쌀과 찰쌀은 3시간 정도 물에 불린다. 밤은 삶아서 껍질을 벗기고 대추는 씨를 빼서 적당하게 썬다. 돌솥에 불린 쌀과 인삼, 대추, 밤을 넣고 약수를 부은 후 밥을 짓는다.〈제보자 : 이순옥(여, 62세) : 서면 오색리 ○○식당〉

(12) 연어초밥

재료는 연어 500g, 밥 600g, 식초 300g, 설탕 300g, 소금 50g, 정종 10g, 간장 5g이다. 연어를 포뜨기를 한 다음 정종과 소금으로 간을 하고 밥은 보슬 보슬하게 하여 식초, 설탕, 소금으로 배합하여 식힌다. 밥에 연어살을 얹은 후 간장에 와사비를 섞어 찍어 먹는다.

2) 죽

(1) 섭죽

재료는 쌀 2컵, 섭 150g, 고추장, 부추, 미나리, 양파, 들기름 적당량이다. 섭, 부추, 미나리, 양파를 잘게 썬 다음 냄비에 섭과 고추장을 넣어 먼저 볶고 채소와 들기름을 넣어 충분히 볶아지면 물을 붓고 끓인다.(동해안에서는 자연산 섭을 이용해 섭죽, 섭국, 섭해장국 등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섭을 잘게 썰어 넣고 주로 고추장 또는 된장을 풀어 넣어 얼큰한 해장국으로도 이용한다. 섭조개는 칼슘과 마그네슘, 철분, 지방, 단백질 및 비타민 B1, B2, B6 등이 함유되어 있고 항암작용 및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제보자 : 신금순(여, 51세) : 손양면 동호리 ○○횃집〉

(2) 송이버섯감자스프

재료는 송이버섯 100g, 감자 1kg, 대파 500g, 양파 300g, 버터 100g, 육수 8L, 생크림 300cc, 우유 200cc, 소금 10g, 화이트후추 5g이다. 냄비에 버터를 녹이고 양파, 대파, 감자를 어슷하게 썰어 색이 나지 않도록 볶다가 육수를 넣어 끓기 시작하면 거품을 걷어내고 3~4분 정도 멍근히 끓이고 체에 거른 후 다시 끓인다. 소금, 후추로 양념을 한다.〈제보자 : 김춘호(남) : 양양읍 포월리 257-1〉

(3) 송이버섯죽

재료는 쌀 60g, 송이버섯 150g, 당근 40g, 양파 30g, 참기름 10g, 참깨 2g, 소금 약간이다. 송이버섯은 깨끗이 씻어 콩알 크기로 썰어 놓고 채소도 같은 크기로 썰고 쌀은 씻어 30분 정도 불린다. 냄비에 참기름 두르고 송이버섯과 채소를 넣어 약 5분 정도 볶다가 쌀을 넣어 다시 볶은 뒤 물을 부어 끓인다. 완성되면 소금간을 한다.〈제보자 : 김춘호(남) : 양양읍 포월리 257-1〉

(4) 어죽

재료는 우럭 1마리, 쌀 1컵, 미역 50g, 떡국떡 80g, 들기름 2큰술, 왕소금·물 적당

량이다. 싱싱한 우럭의 회를 뜨고 남은 뼈에 물을 붓고 폭 고아 뼈와 살을 고운체에 받쳐 맑은 국물을 얻어 불린 쌀, 떡국떡, 미역, 들기름을 넣고 충분히 끓인다. 왕소금으로 간을 한다. 회를 먹고 난 다음 매운탕을 먹지 않고 어죽을 많이 먹는다.〈제보자 : 배기주(남, 53세) : 현남면 남애3리 ○○횃집〉

3) 국수 및 만두

(1) 감자수제비

재료는 감자 500g, 쌀 ½컵, 다시마 50g, 멸치 50g, 소금 약간, 녹말 적당량이다. 다시마와 멸치를 물에 넣어 육수를 만든다. 갈아놓은 감자는 베보자기에 넣어 짠 후 전분과 섞어 반죽한다. 육수에 쌀과 소금을 넣어 끓으면 감자반죽을 뚝뚝 떼어 넣는다. 식성에 따라 호박채, 미역 등을 넣어 먹는다.(이 곳 감자는 하얀 전분이 많고 질척거리지 않아 질감과 맛이 좋다.)〈제보자 : 김순덕(여, 59세) : 양양읍 서문리 주공아파트〉

(2) 뚜데기국(수제비)

재료는 밀가루 2컵, 감자 1개, 호박 ¼개, 멸치 15개, 다시마 50g, 고추장, 파, 마늘이다. 밀가루는 되직하게 반죽하고 멸치와 다시마를 넣어 멸치국물을 만들어 고추장을 풀어 끓인다. 여기에 감자를 썰어 넣고 밀가루반죽을 뚝뚝 뜯어 넣으면서 젓으며 끓여오르면 다진 파와 다진 마늘을 넣어 완성한다.〈제보자 : 김옥자(여, 79세) : 양양읍 서문리 주공아파트〉

(3) 막국수

메밀은 영양가가 높은 우수한 식품으로 단백질이 다른 곡류보다 12~14%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의 함량이 높아서 영양적으로 우수하다. 또한 모세혈관의 저항성을 높이고 고혈압증으로 인한 뇌출혈 등의 혈관손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루틴의 함유량이 높다.

재료는 메밀국수사리 4몽치, 오이 150g(1개), 육수 8컵, 절인 무 200g, 당근 150g, 마늘·깨·참기름·김가루 적당량이다. 메밀가루를 찬물로 반죽하여 냉면기에 뽑아 삶은 후 냉수에 헹궈내고 육수는 소뼈, 멸치, 다시마, 간장 등을 넣어 간을 맞춘 후 냉장 저장하며 살얼음이 생길 정도로 만들어 놓는다. 대접에 삶아 행군 막국수를 담고 채 썬 각종 채소와 절인 무, 김가루, 깨, 참기름 등을 올린 후 육수를 부어 낸다. 육수를 만들 때 소뼈나 사골, 고추씨, 감초, 양파, 마늘, 생강 등을 넣기도 한다. 특히, 동치미 국물로 맛을 내는 동치미막국수가 유명하다.〈제보자 : 조정옥(여, 48세) : 강현면 물치리 213-24번지 ○○국수〉

(4) 송이버섯국수

재료는 송이버섯 40g, 소면 100g, 대파 10g, 양파 30g, 당근 15g, 달걀 1개, 다진 마늘 2g, 국간장 1g, 식용유 2g, 후추 0.2g, 다시멸치 4g, 다시마 4g, 소금 2g, 김가루 약간이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당근, 양파를 볶으면서 다진 마늘, 후추로 양념한다. 다시멸치와 다시마로 국물을 우려낸 후 소금, 국간장, 다진 마늘로 양념을 한다. 송이버섯을 깨끗한 물로 씻어 손으로 찢어 뜨거운 물에 데치고 소금, 다진 마늘, 참깨, 참기름으로 무친다. 달걀은 지단을 부쳐 채로 썬다. 끓는 물에 소면을 삶아 찬물에 행군 후 소쿠리에 건져 물기를 뺀다. 소면을 담고 송이와 고명을 얹고 국물을 붓는다.

(5) 송이버섯칼국수

재료는 송이버섯 60g, 칼국수 100g, 감자 100g, 호박 50g, 달걀 1개, 다시멸치 20g, 다시마 10g이다.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내어 채 썬 감자를 넣고 끓이다가 송이버섯을 먹기 좋게 찢어 넣고 함께 끓이면서 소금으로 간을 한다. 칼국수를 넣고 다시 한 번 끓으면 호박 채 썬 것과 달걀을 풀어 넣어 끓인다.

(6) 송이버섯해산물스파게티

재료는 송이버섯 100g, 새우 30g, 조개 50g, 오징어 50g, 스파게티 400g, 와인 30cc, 마늘·홍고추 저민 것 10g, 파슬리가루 0.5g, 파마산치즈 30g, 토마토소스

100g, 버터 50g, 소금·후춧가루 약간이다. 스파게티는 끓는 물에 약 10분 정도 삶아 놓는다. 송이버섯을 소금물에 씻어 2~3mm 두께로 저며 놓는다. 팬에 버터를 두르고 새우, 조개, 오징어를 넣고 와인을 넣어 볶으면서 마늘, 홍고추를 넣고 볶다가 송이버섯을 넣어 다시 살짝 볶고 스파게티를 넣어 볶으면서 토마토소스를 넣어 끓인다. 소금, 후춧가루로 간을 맞추어 접시에 담고 파마산치즈와 파슬리를 뿌려 내놓는다.〈제보자 : 김춘호(남) : 양양읍 포월리 257-1〉

(7) 송이버섯만두국

재료는 밀가루 120g, 쇠고기 80g, 배추김치 100g, 숙주 40g, 두부 ¼모, 송이 40g, 밀가루 100g, 파 20g, 후춧가루·참기름 약간, 육수 700ml, 달걀 1개, 청장(소금) 약간이다. 밀가루를 소금물로 반죽한 후 젖은 행주를 덮어 두었다가 얇게 밀어서 직경 7~8cm의 둥근 모양으로 만든다. 쇠고기는 살로 곱게 다지고, 송이버섯도 잘게 다진다. 두부는 물기를 짜서 곱게 으깨고 숙주는 소금물에 데쳐 내어 잘게 다지고, 김치도 다져서 꼭 짠다. 다진 파, 다진 마늘, 소금, 후춧가루, 깨소금, 참기름으로 고루 섞어 소를 만든다. 양념한 소를 만두껍질에 싸서 만두모양을 만든다. 육수를 소금과 청장으로 간을 맞추어서 끓을 때 빻은 만두를 넣어 떠오르면 다 익은 것이다.

(8) 연어 만두

재료는 연어살 500g, 만두피 40장, 부추 150g, 양파 50g, 파 다진 것 2큰술, 마늘 다진 것 1큰술, 생강 다진 것 1작은술, 맛소금 1작은술, 참기름 1작은술, 청주 1큰술이다. 연어는 석장 뜨기로 떼서 껍질을 벗긴 다음 곱게 다져 놓는다. 부추는 0.5cm 길이로 썰고 양파는 곱게 다진다. 연어살에 소금, 파, 마늘, 생강, 맛소금, 청주, 참기름을 넣고 잘 치대어 부추와 양파를 넣고 가볍게 섞어 만두속을 만든다. 만두피에 만두속을 한 스푼씩 넣고 주머니 모양으로 싸서 윗부분을 꽃모양으로 만들어 찜통에 넣고 찌낸다. 또는 만두를 삼각형으로 빻어 끓는 물에 넣고 삶아 물위에 떠오르면 그릇에 냉수를 담고 만두를 담아낸다. 물만두에 초간장을 곁들여 낸다.

3. 찬류

찬류로는 국과 탕, 찌개, 전골, 선, 찜, 조림과 초, 볶음, 구이, 전(煎), 산적, 편육, 순대, 나물, 생채, 쌈, 회, 숙회, 포, 부각, 튀각, 장아찌, 젓갈, 식해, 김치 등이 있다.

1) 국 · 탕

(1) 더덕냉국

재료는 더덕 300g, 오이 5개, 홍고추 2개, 깨 · 마늘 · 실파 · 간장 · 소금 · 식초 · 설탕 약간이다. 더덕은 껍질을 벗겨서 방망이로 두들겨 잘게 찢어 소금에 절인 후 주물러서 씻고 물기를 짜 놓는다. 오이는 굵은 소금으로 비벼 씻어서 길이로 반을 자른 후 어슷하게 얇게 썬다. 붉은 고추, 마늘은 곱게 채를 썰고 파는 어슷하게 썬다. 넓은 그릇에 더덕, 오이, 마늘, 파와 간장, 설탕, 소금, 통깨를 담고 냉수와 얼음, 식초를 넣은 후 간을 맞춘다.

(2) 도루묵국

재료는 도루묵 5마리, 무 ¼개, 마늘 2톨, 대파 ½개, 소금 · 후춧가루 약간이다. 마늘은 다지고 대파는 송송 썰고 도루묵은 내장을 제거하여 손질하고 무는 납작하게 썬다. 끓는 물에 무를 넣고 끓이다가 도루묵과 소금, 다진 마늘, 후춧가루로 간을 하여 맑게 끓인다. 도루묵에 소금간을 세게하여 간도루묵식으로 3~4개월간 숙성시켜 먹기도 하며 도루묵알에 마늘, 붉은 고추를 넣어 찜을 하여 먹기도 하였다.〈제보자 : 조경옥(여) : 강현면 물치리 213-24번지〉

(3) 도치알탕

재료는 도치 1마리, 무 1/5개, 홍고추 1개, 풋고추 1개, 양파 ¼개, 대파 ½개, 고춧가루 2큰술, 다진 마늘 1큰술, 소금 적당량이다. 도치는 배를 갈라 알이 터지지 않게 꺼내 놓고 껍질이 벗겨질 정도로 살짝 데쳐 내어 물에 깨끗이 헹구어 먹기 좋게 썰어 놓고 알도 살짝 씻어 준비한다. 무는 납작하게 썰어 준비하고 고추, 대파는 어슷하게 썬다. 물에

데쳐서 잘게 썰어 놓은 도치와 도치알을 넣고 끓인다. 여기에 무와 고춧가루, 홍고추, 풋고추, 대파, 양파, 다진 마늘을 넣고 소금으로 간을 해 시원한 도치알탕을 완성한다.

(4) 뚜거리탕

뚜거리는 양양의 남대천에 사는 민물고기로 이 지역의 사투리다. 뚜거리는 다른 말로 꺾저구, 뚝지, 꺾어리라고도 하는데 맑은 민물에서 떼 지어 다닌다. 뚜거리탕은 뚜거리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손질한 다음 된장과 고추장을 섞어 독배기에 넣고 끓이는 영양이 많은 보양식이다. 얼큰하고 구수한 맛이 특징이다.

재료는 뚜거리 500g, 대파 100g, 마늘 5톨, 밀가루 1컵, 후춧가루·고춧가루·된장·고추장 적당량이다. 냄비에 물을 넣고 끓이다가 된장과 고추장을 1:1/3의 비율로 국물에 넣어 끓인다. 뚜거리는 내장을 제거하고 아가미에서 모래를 씻어내고 큰 것은 반으로 자르고 작은 것은 그대로 하여 된장국에 넣고 대파는 어슷하게 썰어 밀가루를 입히고 밀가루로 수제비를 만들어 같이 넣어 끓인다. 다진 마늘, 후춧가루, 산초, 당면을 넣고 한소끔 끓어오르면 달걀물을 풀어 넣고 간을 맞춘다. 된장과 수제비의 전분은 민물생선의 비린내를 제거해준다. <제보자 : 이정옥(여, 62세) : 양양읍 월리 ○○식당>

(5) 송이버섯재첩국

재료는 송이버섯 50g, 재첩조개 30g, 부추 10g, 쪽파 6g, 다진 마늘 1g, 소금 1g, 홍고추 3g, 후춧가루 약간이다. 재첩조개는 소금물에 박박 문질러 씻어 해감을 하고 부추와 쪽파는 4cm 길이로 썬다. 송이버섯은 소금물에 깨끗이 씻어 손으로 찢어 놓는다. 솥에 물을 끓이다가 소금을 넣고 재첩을 데친 후 조개는 건져 놓고 국물은 면보자기에 걸러 준비한다. 솥에 재첩국을 넣고 끓이다가 송이버섯, 홍고추, 부추, 재첩조개를 넣고 끓여 소금과 후춧가루를 넣어 간을 한다.(재첩조개는 입이 벌어지면 바로 불을 끈다. 홍고추는 국이 거의 끓었을 때 넣어야 깔끔한 매운 맛을 낼 수 있다.)

(6) 송이버섯탕

재료는 송이버섯 50g, 팽이버섯 15g, 육수 150g, 양파 10g, 소금 3g, 전분 4g, 다진

마늘 2g, 후춧가루 3g, 국간장 적당량이다. 송이버섯은 깨끗이 씻어 손으로 찢어 놓는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양파, 송이버섯, 팽이버섯을 썰어 넣은 후 소금으로 간을 해 볶는다. 끓는 육수에 볶아 놓은 송이버섯과 팽이버섯을 넣고 전분, 다진 마늘, 어슷어슷하게 썬 대파, 후춧가루를 넣어 끓인다. 간은 국간장과 소금으로 한다. <제보자 : 김춘호(남) : 양양읍 포월리 257-1>

(7) 송이버섯해장국

재료는 송이버섯 120g, 시래기 250g, 된장 80g, 선지 120g, 대파 2뿌리, 후춧가루 · 다진 마늘 · 소금 약간이다. 된장을 풀어 냄비에 넣어 끓으면 시래기, 선지를 넣고 함께 끓인다. 송이버섯은 먹기 좋게 찢어 놓고 대파는 어슷하게 썬다. 된장국이 끓으면 대파, 송이버섯을 넣고 끓이면서 후춧가루, 다진 마늘, 소금으로 간을 한다.

(8) 송이버섯조개미역국

재료는 송이 20g, 모시조개 100g, 미역 200g, 소금 약간, 다진 마늘 ½ 작은술이다. 미역은 미지근한 물에 불리고 모시조개는 껍데기끼리 바락바락 문지르면서 물로 씻고 소금물에 담아 해감시킨다. 미역은 소금을 약간 넣고 냄비에 담아 한소끔 끓여 모시조개와 송이버섯을 넣고 끓인다. 소금, 마늘을 넣고 간하여 모시조개가 질겨지지 않도록 약간 끓인다.

(9) 시래기국

재료는 시래기 200g, 재래된장 2큰술, 멸치 약간이다. 된장을 풀어 여기에 멸치를 넣고 끓인다. 여기에 시래기를 깨끗이 씻어 2cm 길이로 썬 것을 넣고 끓여 완성한다.

(10) 섭국

섭국은 영동북부지방의 어부들이 즐겨 먹던 토종음식이다. 칼칼한 고추장국물에 각종 채소와 섭(홍합)을 넣고 끓인 얼큰하고 시원한 탕 종류이다. 재료는 섭, 채소, 달걀, 육수(다시마, 조개, 된장, 고추장, 청양고추 외 4가지 추가)이다. 채소는 잘게 썰어 밀가

루에 문혀 냉장고에서 3~4일정도 숙성시킨다. 밀가루를 문혀 금방 끓이면 국물이 걸쭉해지기 때문이다. 냄비에 육수재료를 넣고 끓으면 썰어놓은 썽, 채소, 달걀 푼 것을 넣어 다시 한 번 끓여낸다. <제보자: 신금순(여, 51세) : 손양면 동호리 ○○횃집>

(11) 성게미역국

재료는 연어 1마리, 성게 5마리, 미역 200g, 다진 마늘 2작은술, 간장·소금 적당량이다. 연어는 살과 뼈를 발라내고 머리와 뼈로 육수를 낸다. 미역은 불려두었다가 먹기 좋게 썬 다음 육수에 넣어 끓인다. 어느 정도 끓여지면 성게알을 넣고 다진 마늘, 소금, 간장으로 간을 하여 끓인다. <제보자 : 박정란(여, 57세) : 강현면 물치리 7-7번지 ○○횃집>

(12) 연어냄비탕

재료는 연어 400g, 표고버섯 4장, 무 ¼개, 무청 50g, 다시마 20cm, 청주 ½컵, 진간장 ½큰술, 맛술 1큰술, 소금 1작은술, 물 6컵이다. 연어는 머리를 잘라내고 반 가른 후 뼈를 발라내고 먹기 좋게 자른다. 두부는 무거운 것으로 눌러 물기를 뺀 후 먹기 좋게 자르고 무는 달걀의 절반 정도 크기로 토막 내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고, 무청은 7cm 길이로 자른다. 표고버섯은 갓부분에 열십자로 칼집을 넣는다. 냄비에 물을 6컵 붓고 다시마를 넣어 중간불에 올린다. 국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하게 줄여 잠시 더 끓이다가 다시마는 건지고 진간장, 맛술, 청주, 소금으로 약간 싱겁게 간을 한다. 간한 다시물에 무를 먼저 넣어 5분 정도 끓이다가 연어와 무청, 표고버섯을 넣는다. 연어가 익고 무청이 부드러워지면 두부를 넣는다.

(13) 연어매운탕

재료는 연어 300g, 무 80g, 호박 60g, 두부 60g, 마늘 다진 것 1작은술, 생강 5g, 실파 3뿌리, 풋고추 1개, 붉은 고추 1개, 고추장 1큰술, 썬갓 10g, 고춧가루 1작은술이다. 연어는 4~5cm 크기로 토막을 내고 무, 호박은 3cm 크기에 8mm두께로 썰고 실파는 4cm길이를 썰어 놓는다. 붉은 고추와 풋고추는 어슷하게 썰어 씨를 털어 놓는다. 두부

도 호박과 같은 크기로 썰어 놓고 쑥갓은 짧게 손으로 뜯어 놓는다. 생강은 곱게 다져 놓는다. 냄비에 물을 붓고 끓이다가 고추장을 풀고 무를 넣어 무가 익으면 연어, 호박을 넣고 고춧가루를 넣어 다시 한소끔 끓인다. 팔팔 끓을 때 두부, 풋고추, 붉은 고추, 마늘, 생강을 넣고 끓이면서 소금으로 간을 하고 실파와 쑥갓을 넣고 불을 끄고 잠시 후에 담아낸다.

(14) 재첩된장국

재료는 재첩 300g, 된장 150g, 데친 시금치 200g, 다시 멸치 80g, 대파·다진 마늘·후춧가루 약간이다. 재첩은 끓여 물을 따라 낸 다음 다시멸치, 다시마를 넣어 육수를 만든 후 된장을 풀고 끓으면 재첩, 데친 시금치, 어스어스하게 썬 대파를 넣고 한소끔 끓이면서 간을 한다.

(15) 재첩탕

재료는 재첩 2그릇, 물 8컵, 소금 1큰술, 부추 20g이다. 재첩은 소금물에 담가 해감시킨다. 냄비에 물을 붓고 재첩을 넣은 다음 뚜껑을 덮고 끓어오르면 불을 줄인다. 재첩이 입을 벌리면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부추를 썰어 넣어 그릇에 담아낸다.

(16) 육수소스 제조

연어를 주재료로 하여 만드는 육수소스는 성게미역국의 국물로 사용하여 시판할 예정이다.

재료는 물, 무, 건조연어, 다시마, 다시마, 후추 등이다. 계량된 원료를 혼합조에 투입한다. 100℃이상에서 1시간 30분간 끓인다. 다시마와 후추를 투입한다. 일정농도가 될 때까지 약 30분간 농축시킨 후 70℃까지 냉각시킨다. 비닐팩에 일정량씩 충전 포장한다. 영하 25℃이하에서 냉동 및 보관한다.〈제보자 : 박정란(여) : 강현면 물치리 7-7 ○○횃집〉

2) 찌개 및 전골

(1) 송이버섯순두부찌개

재료는 송이버섯 50g, 순두부 150g, 생굴 20g, 홍고추 5g, 대파 10g, 다시 멸치 3g, 다시마 3g, 고운 고춧가루 2g, 쇠기름 10g, 배추김치 20g, 다진 마늘 2g, 돼지고기 10g, 식용유 5g, 진간장 2g, 다진 생강 1g, 참기름 1g, 소금 · 후춧가루 약간이다. 다시마와 다시멸치를 끓여 국물을 만든다. 쇠기름을 썰어 냄비에 넣고 약한 불로 녹이고 동량의 식용유를 넣고 다진 마늘, 고춧가루, 후춧가루, 볶은 참깨를 섞어 양념을 만든다. 생굴은 소금물에 깨끗이 씻어 놓고 송이버섯은 소금물에 씻어 물기를 닦은 후 손으로 찢어 놓는다. 돼지고기는 진간장, 다진 마늘, 생강즙, 후춧가루로 밑간을 한다. 냄비에 국물과 돼지고기, 소금을 넣고 끓인 후에 순두부, 굴, 양념, 잘게 썬 김치, 송이버섯, 홍고추를 넣고 끓인다. 후춧가루, 파, 참기름을 넣어 마무리한다. <제보자 : 김춘호(남) : 양양읍 포월리 257-1>

(2) 송이버섯찌개

재료는 송이버섯 150g, 다시마 20g, 다시멸치 20g, 풋고추 15g, 붉은 고추 10g, 고추장 · 고춧가루 · 파 · 마늘 약간이다. 다시마와 멸치로 육수를 뽑은 후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넣어 끓인다. 깨끗하게 씻은 송이버섯은 먹기 좋게 썰고 풋고추, 붉은 고추를 어슷하게 썰어서 끓는 육수에 송이버섯과 같이 넣어 끓인다. 다진 파, 다진 마늘을 넣고 간을 한다.

(3) 버섯전골

재료는 송이버섯 100g, 표고버섯 100g, 느타리버섯 200g, 팽이버섯 100g, 미나리 40g, 당근 100g, 실파 5뿌리, 홍고추 5개, 쇠고기 200g, 두부 ½모, 육수 적당량, 양념 다지기(다진 마늘 · 파 · 간장 · 고춧가루 · 고추장 · 소금 · 후춧가루 약간)이다. 송이버섯, 표고버섯은 썰어놓고 느타리버섯, 팽이버섯은 찢어 놓는다. 미나리, 실파, 당근은 6cm 길이로 썰어 놓고 홍고추는 어슷하게 썰어 씨를 제거 한다. 쇠고기는 7cm 길이로

썰어 양념에 재워두고 두부는 가로 4cm, 세로 6cm 크기로 썬다. 전골냄비에 버섯 및 채소를 돌려 담고 가운데에 쇠고기를 담고 위에 두부를 올린 후 양념 다지기(다대기)와 육수를 넣어 끓인다.〈제보자 : 김용월(여, 51세) : 양양읍 월리 221번지〉

(4) 송이버섯낙지전골

재료는 송이버섯 80g, 풋고추 30g, 낙지 2마리(40g), 육수 100g, 모시조개 50g, 무 30g, 새우 30g, 굵은 소금 약간, 양송이 40g, 표고버섯 80g, 쪽파 30g, 홍고추 20g, 다시마 100g이다. 냄비에 다시마와 물 4컵을 부어 끓여 국물만 면보에 걸러 놓는다. 낙지는 먹물과 내장을 제거하고 맑은 물에 행궤 건진다. 모시조개는 연한 소금물에 담가 해감을 토하게 한 뒤 맑은 물에 행궤 건진다. 새우는 등 쪽 가운데를 꼬치로 찔러 검은색 내장을 뺀 후 껍질째 씻는다. 송이버섯은 뿌리쪽의 모래를 씻어 낸 후 연한 소금물에 잠시 담갔다가 칼로 껍질을 살살 벗기고 모양을 살려 0.4cm 두께로 썬다. 양송이버섯과 표고버섯은 기둥을 떼고 미지근한 물에 살짝 행궤 다음 물기를 짜고 굵직하게 채 썬다. 쪽파는 5cm 길이로 썰고 홍고추와 풋고추는 어슷썰기 한다. 전골냄비에 준비한 재료를 색스럽게 돌려 담고 다시마 국물을 부은 후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낸다.

(5) 송이버섯전골

재료는 송이버섯 150g, 쇠고기 80g, 조개 50g, 애호박 40g, 두부 50g, 당면 50g, 감자 50g, 대파 20g, 양파 20g, 다진 마늘 10g, 양송이 50g, 배추 40g, 팽이버섯 100g, 표고버섯 60g, 느타리버섯 60g, 간장·소금·후춧가루 약간, 사골육수·조개육수·다시마육수 적당량이다. 쇠고기는 핏물을 제거하고 송이버섯과 모든 채소를 깨끗이 씻어 손질한다. 조개, 새우는 깨끗이 손질한 후 물에 씻는다. 모든 채소를 먹기 좋게 썰어 조개, 새우와 함께 전골냄비에 보기 좋게 담는다. 채소위에 육수를 붓고 간장, 소금, 후춧가루로 양념한 뒤 10분정도 끓여 낸다. 사골과 조개육수, 다시마육수는 같은 비율로 섞어 처음에는 센 불로 한소끔 끓인 후 약한 불에서 멍근히 끓인다.〈제보자 : 김용월(여, 51세) : 양양읍 월리 221〉

3) 찜 및 조림

(1) 되배기범벅

재료는 되배기 100g, 밀가루 50g, 쌀가루 1컵이다. 되배기를 깨끗이 손질하여 준비한다. 여기에 밀가루, 쌀가루를 섞은 다음 도톰하게 묻힌다. 김이 오른 찜통에 젖은 베보자기를 깔고 김이 오르면 밀가루를 묻혀놓은 되배기를 얹어 15~20분 정도 알맞게 찜낸다.

(2) 인진숙토종닭

재료는 토종닭 1마리, 인진숙 50g, 찹쌀 ½컵, 밤 5개, 대추 5개, 인삼 1뿌리, 황기 2뿌리이다. 토종닭은 내장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은 후 인진숙, 찹쌀, 밤, 대추, 인삼, 황기를 넣어 마무리한다. 솥에 물을 붓고 닭과 감자를 넣고 끓여 익으면 건져 접시에 감자와 함께 담아낸다.

(3) 연어매운찜

재료는 연어 300g(2쪽), 청양고추 1개, 홍고추 3개, 대파 1개, 생강 1개, 마늘 3개, 간장 4큰술, 맛술 2큰술, 물 1큰술, 레몬 ½개, 설탕 ½작은술, 생강채 적당량, 통후추 약간, 고추기름 약간이다. 연어에 소금, 후춧가루로 간을 한 다음 레몬즙을 뿌린다. 찜통에 물이 끓으면 길게 썬 대파를 깔고 연어위에 저민 생강을 얹어 10분간 찜낸다. 팬에 고추기름을 넣고 채 썰어둔 청양고추, 홍고추, 생강과 마늘 다진 것을 볶아 매운향이 나면 분량의 간장, 맛술, 물, 설탕을 넣고 끓인다. 찜 연어를 그릇에 담고 양념을 고루 끼얹는다. 그 위에 통후추를 뿌린다.

(4) 재첩찜

재료는 재첩 1그릇, 미더덕 100g, 찹쌀가루 2큰술, 쌀가루 ½컵, 들깨가루 2큰술, 방아잎 20g, 고사리 80g, 부추 40g, 미나리 40g, 간장·소금 약간이다. 재첩은 물에 담가 충분히 해감 시킨 후 소금을 넣고 오랫동안 삶는다. 재첩국물은 받쳐두고 껍질을 벗겨 재첩살만 남겨둔다. 찹쌀가루, 쌀가루, 들깨가루를 재첩국물에 풀어 넣는다. 재첩국

물 1컵 정도에 재첩살, 미더덕, 고사리를 넣고 끓이다가 걸쭉하게 만든 후 미나리, 부추, 방아잎을 넣고 간장, 소금으로 간하여 끓여준다.

(5) 감자조림

재료는 감자 4개, 잔멸치 80g, 간장·식용유·물 적당량이다. 껍질을 벗긴 감자는 굵직하게 썰어서 멸치와 함께 넣고 기름에 볶다가 간장과 물을 붓고 지지듯이 끓인다. 삼삼하게 졸이며 풋고추를 넣어 조리기도 한다.

(6) 재첩조림

재료는 재첩 500g, 정종 20cc, 설탕 50g, 간장 80cc, 깨소금·생강·제피가루 약간이다. 재첩은 삶아서 껍질을 제거한 다음 재첩살만 발라 설탕, 정종, 간장, 깨소금을 넣어 거의 다 졸여지면 제피나 생강즙을 넣어 저어준다.

4) 볶음

(1) 곰버섯볶음

재료는 곰버섯 300g, 양파 100g, 다진 파·마늘·깨소금·참기름·후춧가루·식용유 약간이다. 곰버섯은 끓는 물에 데쳐서 찢어 놓고 양파는 채 썬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곰버섯과 양파를 넣고 볶으면서 갖은 양념을 한다.

(2) 도치(심통이)두루치기

재료는 도치 1마리, 고춧가루 2큰술, 풋고추 1개, 홍고추 1개, 배추김치 200g, 다진 마늘 1큰술, 소금·깨소금·물엿·식용유 약간이다. 도치는 배를 갈라 껍질이 벗겨질 정도로 살짝 데쳐내어 물에 깨끗이 헹궈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준비한다. 배추김치는 송송 썰어 놓는다. 도치와 배추를 한데 섞고 고춧가루, 다진 마늘, 식용유, 물엿을 넣어 볶아 어느 정도 익으면 홍고추, 풋고추, 깨소금을 넣고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3) 송이버섯불고기

재료는 송이버섯 300g, 쇠고기(불고기용) 300g, 양파 20g, 대파 20g, 마늘 10g, 간장 20cc, 설탕 1g, 굴소스 10cc, 참깨 0.2g, 육수 20cc, 후춧가루 · 참기름 약간이다. 송이버섯은 깨끗이 씻어 먹기 좋게 썰어 놓는다. 불고기용으로 썰은 쇠고기에 양파, 대파를 얇게 썰어 섞어 놓는다. 재료에 불고기 소스를 넣어 약 10분 정도 간이 배게한 뒤 팬에 볶는다.〈제보자 : 김춘호(남) : 양양읍 포월리 257-1〉

(4) 송이버섯호박볶음

재료는 송이버섯 300g, 호박 300g, 양파 80g, 다진 마늘 · 다진 파 · 참기름 · 간장 · 깨소금 약간이다. 송이버섯은 깨끗이 씻어 납작하게 저며 놓고 호박은 납작하게 썰고 양파는 채 썬다. 팬에 참기름과 간장을 넣고 송이버섯과 호박, 양파를 넣어 볶다가 다진 마늘, 다진 파, 깨소금을 약간만 넣어 볶는다.

(5) 연어송이크림치즈 모듬

재료는 연어 200g, 만두피 10장, 훈제연어 50g, 양파 30g, 크림치즈 100g, 정종 10ml, 생크림 50ml, 두부 50g, 우유 30ml, 소금 15g, 송이버섯 50g, 후춧가루 15g, 김치 50g, 파마산 치즈 20g, 피망 1/2개, 마늘 4쪽, 밀가루 1컵이다. 먼저 김치연어볶음은 연어를 잘게 다지고 양파, 마늘, 김치를 넣고 볶는다. 김치는 물에 씻어 정종, 소금, 후춧가루를 넣어 간을 한다. 연어꼬치는 피망, 양파, 연어를 네모나게 썰어 뜨거운 물에 데쳐서 꼬치에 끼운다. 연어꽃은 후레쉬 연어에 소금과 설탕을 동량으로 뿌린다. 6시간 정도 두었다가 회 뜨듯이 떠서 꽃모양을 만든다. 연어 만두속은 연어를 굵직하게 자른 후 양파, 정종, 마늘을 넣고 볶고 파슬리가루를 넣고 간을 한 후 밀전병에 싸서 만두모양을 만든다. 연어샐러드는 연어를 주사위모양으로 썰어 뜨거운 물에 데치고 올리브오일, 파슬리, 소금, 후춧가루, 피망을 넣고 무친다. 소스는 크림치즈, 파마산치즈, 생크림, 우유를 증탕으로 녹인다. 송이를 갈아서 고운 천으로 거른다. 고루 섞고 우유의 농도를 조절하고 소금, 후춧가루로 간을 맞춘다.

(6) 오징어버섯불고기

재료는 생오징어 3마리, 표고버섯 400g, 느타리버섯 400g, 양송이버섯 400g, 홍고추 2개, 풋고추 2개, 양파 2개, 당근 200g, 고추장·고춧가루·간장·후춧가루·다진 마늘·다진파·대파·깨소금·참기름·식용유 적당량이다. 생오징어는 내장을 제거하고 껍질을 벗긴 후 가로 2cm, 세로 5cm 길이로 썰어 놓고 버섯류와 양파는 채를 썰고 당근은 직사각형으로 썬다. 홍고추, 풋고추는 어슷하게 썰어 씨를 제거하고 대파도 어슷하게 썬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다진 마늘을 넣고 볶다가 버섯과 채소를 볶고 생오징어를 넣어 잠시 볶은 뒤 양념장을 넣어 볶으면서 간을 본다. 양념장은 고추장에 고춧가루, 간장, 설탕, 다진 마늘, 후춧가루, 깨소금, 참기름을 넣어 만든다.

(7) 표고버섯볶음

재료는 표고버섯, 참기름, 깨소금, 다진 마늘, 다진 파, 식용유이다. 표고는 먹기 좋게 채 썰고 마늘 파는 다진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표고를 볶다가 참기름과 마늘, 파, 깨소금 등을 넣어 살짝 마무리한다. 가을에 채취하는 생표고는 생것에 간장소스를 얹어 먹으면 그 맛이 일품이다. 마른 표고버섯은 따뜻한 물에 설탕을 넣어 불리면 빨리 불려질 뿐만 아니라 표고의 감칠맛성분도 쉽게 달아나지 않는다.〈제보자 : 김용월(여, 51세) : 양양읍 월리 221〉

5) 구이

(1) 산더덕구이

재료는 산더덕 300g, 양념고추장(고추장·간장·고춧가루·참기름·설탕·다진 파·다진 마늘·깨소금·후춧가루 적당량), 식용유 적당량이다. 더덕을 물에 담갔다가 방망이로 두들겨서 편 후 유장(참기름:간장=3:1)을 만들어 더덕에 바른 후 석쇠에 식용유를 발라 달군 뒤 더덕을 올려 구워낸다. 구워진 더덕에 양념고추장을 만들어 바른 후 타지 않도록 구워 접시에 담아낸다.〈제보자 : 이순옥(여, 62세) : 서면 오색리 ○○식당〉

(2) 송이버섯소금구이

재료는 송이버섯 300g, 소금물 7%, 참기름 소스(참기름 40g, 소금 40g)이다. 소금물에 깨끗이 씻은 송이버섯은 먹기 좋게 저며 놓는다. 송이를 소금물에 잠깐 담갔다가 바로 석쇠불에 올려 살짝 구운 뒤 접시에 담는다. 뜨거울 때 참기름 소스를 찍어 먹는다.〈제보자 : 김춘호(남) : 양양읍 포월리 257-1〉

(3) 송이버섯호일구이

재료는 송이버섯 200g, 술 1큰술, 간장·레몬즙 적당량이다. 송이버섯을 깨끗이 씻어 1인분씩 나누어 각각 알루미늄 호일에 얹어 술을 뿌리고 둥글게 썬다. 오븐 토스터에 넣고 150℃에서 5~8분간 구운 후 꺼내어 간장과 레몬즙을 뿌린다.

(4) 은어간장구이

재료는 은어 20마리, 간장·다진 마늘·다진 파·설탕·참기름 적당량이다. 은어는 내장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손질한다. 진간장에 물, 다진 파, 다진 마늘, 설탕, 참기름을 넣어 양념장을 만든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은어를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은어에 양념장을 얹어 낸다.

(5) 송이버섯연어스테이크

재료는 송이버섯 40g, 연어살 300g, 당근 40g, 피망 40g, 빵가루 30g, 마늘 3쪽, 소금·후춧가루·오렌지즙·버터 약간이다. 송이버섯과 연어는 손질하여 곱데 다진다. 당근, 피망을 다져서 함께 소금, 후춧가루, 빵가루, 다진 마늘을 넣고 끈기가 생기도록 치대어가면서 반죽한다. 반죽한 덩어리를 납작한 모양이 되도록 빗어 모양을 잡는다. 팬에 올리브유를 넣고 약한 불에서 노릇하게 굽는다. 버터를 바른 냄비에 오렌지즙을 담아 결쭉해질 정도로 조린 뒤 소금과 후춧가루로 간을 하여 소스를 만든다. 접시에 구운 스테이크를 올리고 소스를 부어준다.

(6) 연어단호박구이

재료는 연어 200g, 단호박 ½개, 치즈 2장, 파슬리가루 ½큰술, 버터 1큰술, 치커리, 청주 1큰술, 흰후춧가루, 소금이다. 단호박은 반개를 다시 반으로 잘라 속을 긁어내고 껍질을 대강 벗겨 씻은 후 1cm 두께로 썰어 놓는다. 연어는 7mm 두께로 썰어 청주, 소금, 흰후춧가루를 뿌려 간을 한다. 단호박 위에 연어를 놓고 그 위에 치즈 썬 것, 버터를 얹어 놓는다. 오븐에 은박지를 깔고 미리 예열한 오븐에 넣어 250℃ 온도에 10~15분간 구워낸다. 위의 연어 단호박구이에 파슬리 가루를 뿌린다.

(7) 연어소금구이

재료는 생연어 200g, 소금 약간, 청주 약간, 양념장(간장 1큰술, 고추냉이 1작은술)이다. 연어의 내장을 손질하고 토막 낸 후 청주에 담가 비린내를 제거하고 소금을 뿌리고 연어를 석쇠에 구워낸다. 간장에 고추냉이를 담아낸다. 연어구이에 레몬을 뿌리면 향긋한 맛을 즐길 수 있다.

(8) 연어양념구이

재료는 말린 연어 600g, 실파 약간, 양념고추장(고추장 3큰술, 간장 1큰술, 다진 마늘 1큰술, 설탕·후춧가루·참기름·참깨 약간)이다. 꾸덕꾸덕하게 말린 연어를 물에 담갔다가 꺼내 손질한다. 분량의 재료로 양념고추장을 만든다. 손질한 연어를 먹기 좋게 잘라 양념고추장을 앞뒤로 고루 발라 재어놓는다. 석쇠에 기름을 바르고 양념한 연어를 타지 않게 골고루 익혀 굽는다. 구운 연어를 접시에 담고 실파를 종종 썰어 뿌린다.

(9) 연어스테이크

재료는 연어살 150g, 소금, 후추 약간, 콩기름 1작은술, 버터 20g, 레몬 ½개, 파슬리 1줄기 곁들이 채소(브로콜리, 감자, 당근), 크림소스(밀가루, 버터 각 2큰술, 우유 1컵, 소금, 흰 후춧가루)이다. 연어는 2cm 두께로 잘라 소금, 후추를 뿌린다. 팬에 식용유와 버터를 반반씩 넣고 연어를 놓아 앞뒤로 갈색이 나도록 굽는다. 크림소스는 냄비에 버터를 녹이고 밀가루를 넣어 약한 불에서 색이 나지 않도록 볶는다. 위에 우유를 조금씩

부어가며 나무주걱으로 멍울이 생기지 않도록 저으면서 걸쭉해지면 소금, 흰 후춧가루로 간을 맞춘다. 브로콜리는 데쳐 버터에 볶다가 소금, 후추로 간을 하고 감자는 손가락 굵기로 썰어 노릇하게 튀긴다. 당근은 5cm 정도의 길이로 가름하게 썰어 버터, 설탕, 소금을 넣고 은근한 불에서 조린다. 접시에 크림소스를 담고 그 위에 구워낸 연어를 놓은 후 준비된 채소와 레몬을 곁들여 낸다.

(10) 황태구이

재료는 황태 2마리, 마늘 3톨, 고추장 3큰술, 고운 고춧가루 1큰술, 간장 ½큰술, 깨소금 1작은술, 설탕 2큰술, 후춧가루 ½작은술, 참기름 1큰술, 식용유 적당량이다. 황태는 두들겨서 물에 잠깐 담갔다가 수분을 제거하고 5~6cm 길이로 토막 내어 황태에 칼집을 내고 유장(참기름:간장=3:1)을 발라 석쇠를 달군 후 구워 양념고추장을 발라 다시 한 번 굽는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지지는 방법도 있다.

(11) 어육떡갈비 제조

재료는 냉동연어연육, 잡어연육, 당근, 양파, 대파, 감자, 첨가물(대두단백, 전분, 숯불고기엑기스 등)이다. 냉동된 원료를 분쇄기에 넣어 분쇄된 원료를 5mm 크기로 초핑한다. 초핑된 원료를 믹서에 넣어 첨가물과 함께 혼합된 원료를 성형기에 넣어 성형한다. 성형 후 오븐기에 넣어 150℃에서 30분간 가열한다. 약 12℃의 냉풍으로 10분간 식힌 후 -40℃에서 동결시킨다. 냉동된 제품을 포장지에 넣어 실링을 한 다음 10kg 단위로 포장한다. -25℃에서 냉동보관한다.〈제보자 : 박정란(여) : 손양면 송현리 셀몬푸드〉

(12) 어육소세지 제조

재료는 냉동연어연육, 전분, 전비분유, 대두단백, 난백 등의 첨가물이다. 냉동된 연어어육을 분쇄기에 넣어 분쇄된 연어어육을 곱게 초핑한다. 초핑된 원료를 준비된 첨가물과 함께 믹서에 넣어 30분간 믹싱된 원료를 충전기에 넣어 충전하여 60℃에서 25분간 1차 스팀하고 80℃에서 25분간 2차 스팀되어진 제품을 8℃의 냉각기에서 1시간 냉각시킨다. 냉각된 제품을 개당 절단한다. PP포장지에 넣어 진공포장한다. 포장된 제품을

85℃물에서 30분간 2차 살균을 하고 7℃물에서 1시간 냉각시킨다. 물기를 제거한 제품을 10kg 단위로 박스포장한다. 8℃에서 냉장보관한다.〈제보자 : 박정란(여) : 손양면 송현리 셀몬푸드〉

6) 전, 산적, 편육

(1) 감자부침

재료는 감자, 파, 고추, 부추, 소금이다. 감자의 껍질을 벗겨 강판에 갈아 물기를 짜고 양금을 받아 간 감자에 섞고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간 감자를 둥글게 지지면서 파와 고추, 또는 부추를 얹어 노릇하게 지진다. 초간장에 찍어서 반찬이나 간식으로 먹는다.

(2) 누룩치부침

재료는 누룩치 500g, 밀가루 ¼컵, 식용유·고추장·소금 적당량이다. 누룩치는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벗겨 적당한 크기로 썰거나 다져 소금으로 간을 한다. 밀가루를 체에 곱게 내려 물과 섞어서 잘 풀어 누룩치와 고추장을 넣어 섞는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위의 반죽을 넣어 지진다. (누룩치는 일명 노리대로 깊은 산 속의 양지에서 잘 자라는 것으로 한약제로 식욕부진, 소화촉진을 위한 복통 등의 치료제로 쓰이며 산모가 먹으면 젖이 잘 나온다고 한다.)

(3) 두릅산적

재료는 두릅 300g, 쇠고기 300g, 당근 1개, 다진 파·마늘·소금·참기름·깨소금·간장·식용유 약간이다. 당근과 두릅은 길이 6cm, 폭 2cm로 썰어 소금물에 삶아낸다. 쇠고기는 폭 1cm 길이로 도톰하게 썬 다음 칼등으로 두들기고 간장, 파, 마늘, 깨소금, 참기름으로 갖은 양념을 하고 두릅, 당근과 함께 버무린다. 꼬지에 두릅, 당근, 고기순으로 끼운 후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지져낸다.

(4) 산채산적

재료는 돼지고기 300g, 더덕 300g, 표고버섯 50g, 당근 50g, 실파 50g, 달걀 2개, 생강 · 마늘 · 밀가루 · 설탕 · 간장 · 참기름 · 정종 · 식용유 약간이다. 돼지고기는 가로 1cm, 세로 1cm, 두께 0.6cm 크기로 썰어 설탕, 정종, 생강즙, 간장에 재웠다가 팬에 기름을 두르고 지저낸다. 버섯과 채소를 돼지고기와 같은 크기로 썬다. 표고버섯은 양념을 하여 살짝 볶고 당근, 더덕은 끓는 소금물에 데쳐 놓는다. 실파도 같은 크기로 썰고 달걀은 황백지단을 부쳐 같은 크기로 썬다. 준비된 재료를 꼬치에 차례대로 끼운 후 밀가루, 달걀순으로 입혀 팬에 기름을 두르고 노릇노릇하게 지저낸다.

(5) 송이버섯산적

재료는 송이버섯 250g, 쇠고기등심 250g, 대파 200g, 맛살 250g, 산적소스 150cc, 정종 30cc, 전분 · 참깨 · 실고추 적당량, (산적소스 : 진간장 50cc, 물 100cc, 설탕 50cc, 정종 20cc, 물엿 40cc, 미림 10cc, 양파 반 개, 대파 반 쪽, 참기름 10g, 파인에플 반 개, 배 · 사과 반 개(과일은 갈아서 사용), 마늘 40g, 생강 10g)이다. 쇠고기는 핏물을 제거한 후 대파, 맛살, 송이버섯과 함께 약 10cm 길이로 썬다. 재료를 보기 좋게 꼬치에 끼워서 산적소스에 재운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산적을 익힌 뒤 정종을 넣어 살짝 다시 익힌다. 팬에 남은 산적소스를 끓인 뒤 묽으면 전분을 넣어 다시 끓여 산적소스를 끼얹고 참깨와 실고추로 장식한다.

(6) 연어살장떡

재료는 연어 1/5마리, 고추장 ½큰술, 청고추 1개, 달걀 1개, 홍고추 1개, 부추 30g, 정종 ½병, 밀가루 50g, 식용유 약간이다. 연어는 손질하여 살만 잘게 썰어 정종에 하룻동안 담가 놓아 비린내를 제거한다. 밀가루 반죽물(밀가루, 물, 달걀)에 고추장을 넣고 잘게 썬 연어살을 섞는다. 청 · 홍고추는 잘게 다지고 부추는 짧게 썬다.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반죽을 떠서 올리고 그 위에 썰어놓은 채소를 보기 좋게 얹어 연어살장떡을 완성한다.

(7) 송이버섯수육

재료는 송이버섯 50g, 양파 ½개, 삼겹살 500g, 생강 1톨, 대파 1대, 마늘 2톨, 무말랭이 100g, 다진 마늘·설탕·물엿·참기름·후춧가루·고춧가루·깨소금 적당량이다. 삼겹살을 덩어리째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고 냄비에 물을 끓이다가 돼지고기, 마늘, 저민 생강, 된장, 양파, 소금, 맛술을 함께 넣어 푹 삶는다. 꼬치로 찢어 보아 핏물이 나오지 않고 다 익었으면 식힌 후 0.2cm로 썬다. 말랭이는 찬물에 10분 정도 담갔다가 건져 물기를 빼고 다진 마늘, 설탕, 물엿, 후춧가루, 고춧가루, 참기름, 깨소금을 넣고 섞어 무친다. 송이버섯은 깨끗이 씻어 납작하게 썬다. 수육을 담은 다음 술잎과 상춧잎을 깔고 무말랭이 무침을 담은 다음 송이를 나란히 얹는다.

7) 나물, 생채

(1) 냉이나물

재료는 냉이, 고추장, 다진 파, 다진 마늘, 깨소금, 참기름이다. 살짝 데친 냉이에 된장, 깨소금, 참기름을 넣고 무친 나물로 간장이나 초고추장에 무치는 방법도 있다.

(2) 느타리버섯나물

재료는 느타리버섯, 소금, 파, 마늘, 깨소금, 참기름이다. 느타리버섯은 단독으로만 볶기도 하고 쇠고기를 볶다가 느타리버섯을 같이 넣고 만들기도 하며 느타리버섯은 삶으면 부드러워져 입안의 촉감이 좋아진다.

(3) 송이버섯잡채

재료는 송이버섯 50g, 팽이버섯 40g, 표고버섯 20g, 채 썬 쇠고기 20g, 당면 200g, 채썬 당근 8g, 양파 15g, 쪽파 10g, 진간장 3g, 다진 마늘 2g, 설탕 0.5g, 참기름 0.3g, 볶은 참깨 0.5g, 실고추 1g, 식용유 20g, 소금 약간이다. 송이버섯과 팽이버섯을 깨끗한 물에 씻어 찢어 놓는다. 표고버섯을 물에 불려 물기를 꼭 짰 다음 채로 썬다. 쪽

파는 4cm 길이로 썬다. 쇠고기는 진간장, 다진 마늘, 후춧가루, 설탕, 참기름으로 양념한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쇠고기, 송이버섯, 팽이버섯, 표고버섯, 당근, 양파, 쪽파 순으로 볶는다. 당면은 찬물에 1시간 담갔다가 식용유에 볶는다. 소금, 후춧가루로 간을 맞춘 다음 불을 끄고 참기름, 볶은 참깨, 실고추를 뿌린다.

(4) 송이버섯채소무침

재료는 송이버섯 60g, 썬갓 10g, 파슬리 5g, 달래 20g, 레몬 10g, 소금 2g, 간장 6g, 참기름 2g, 고춧가루 1g, 식초 2g, 다진 마늘 2g, 설탕 2g이다. 송이버섯은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살짝 데쳐서 물기를 꼭 짰 다음 손으로 길게 찢어 놓는다. 썬갓과 파슬리는 씻어서 물기를 거둔 다음 잎사귀만 잘게 뜯어 놓는다. 달래는 다듬어 씻은 후 물기를 닦아 3cm 길이로 썬다. 진간장, 참기름, 식초는 3:1:1의 비율로 넣고 굵은 고춧가루, 레몬즙, 다진 마늘, 설탕을 넣고 소스를 만든다. 준비된 버섯과 썬갓, 파슬리, 달래를 모두 섞어 소스로 무친다.

(5) 송이버섯닭가슴살샐러드

재료는 송이버섯 100g, 닭가슴살 60g, 양상추 적당량, 방울토마토 적당량, 간장 1작은술, 식용유 1.5작은술, 식초 1작은술, 후추 약간, 깨소금 약간, 소금 약간이다. 송이버섯을 깨끗이 씻어 손으로 찢어 놓고 닭가슴살은 힘줄을 떼고 얇게 썬다. 양상추는 먹기 좋게 떼어 물에 행군 후 물기를 털어 접시에 담는다. 방울토마토는 꼬치모양으로 자른다. 팬에 식용유를 넣고 달구어 닭가슴살을 넣고 양면을 노릇노릇하게 지진 뒤 송이버섯을 넣고 살짝 볶는다. 불을 끄고 식초, 후추, 깨소금을 넣고 뜨거울 때 양상추를 깔아놓은 접시 위에 얹고 방울토마토로 장식한다.〈제보자 : 김춘호(남) : 양양읍 포월리 257-1〉

(6) 연어 샐러드

재료는 연어살 600g, 양파 1개, 청피망 1개, 붉은 피망 1개, 양상추 50g, 레몬 1개, 튀김반죽(달걀 1개, 물 ¼컵, 밀가루 1컵), 프렌치드레싱(식용유 ½컵, 식초 ¼컵, 레몬즙 2큰술, 소금 · 흰후춧가루 약간)이다. 양상추는 씻어 손으로 먹기 좋게 뜯어 놓고 양

파와 피망은 링모양으로 얇게 썰어 놓는다. 연어는 석장 뜨기를 하여 한입크기로 썰어 소금, 후추, 레몬즙을 뿌려 30분정도 재운 다음 밀가루를 살짝 묻히고 튀김반죽을 입혀 180℃되는 식용유에 바삭하게 튀겨낸다. 그릇에 양상추와 튀긴 연어, 양파, 피망을 담고 프렌치드레싱을 곁들여 낸다.(튀김반죽 : 달걀과 물을 먼저 섞은 후 밀가루를 넣어 끈기가 생기지 않게 젓는다. 이때 얼음물을 사용하면 좋다.) (프렌치드레싱 : 분량의 재료를 병에 넣고 잘 혼합한다. 양파나 파슬리 다진 것을 넣어도 좋다.)

(7) 질경이 묵나물

재료는 질경이 나물 100g, 들기름 · 소금 · 다진 마늘 약간이다. 말려놓은 질경이 나물을 물에 충분히 불려 물을 자박하게 넣고 다시 한 번 끓인다. 끓인 나물을 잘 씻어 들기름에 볶다가 소금, 다진 마늘로 간을 한다.

8) 회, 숙회, 강회

(1) 가시리묵

재료는 가시리 1kg, 소금 30g, 물 15L, 양념장(간장, 고춧가루, 파, 마늘, 참기름, 깨소금)이다. 바다에서 채취한 가시리를 바닷물에 깨끗이 행군 후 3일간 자연건조 시키고 깨끗이 정선하여 절구에 뺑아 굵은 체에 내린 가시리를 민물에 행궤 낸다.(3회 정도) 가마솥에 원료의 2배 정도 물을 붓고 4시간 정도 줄이다가 죽처럼 걸쭉해지면 불을 끈 뒤 30분 정도 뜸을 들이고 소금으로 간을 맞춘 뒤 성형틀에 부어 성형한다.(굳히기는 9시간 정도임) 완성된 가시리묵은 생것으로 잘라 양념장을 곁들여 먹는 맛이 일품이다.

(2) 고구마묵

재료는 고구마 3kg, 소금 2큰술, 물 16컵이다. 고구마는 껍질을 깨끗이 씻은 후 제거하고 믹서기에 곱게 갈아 발이 굵은체에 내린 후 다시 한 번 가느다란 체에 내린다. 앙금을 가라앉히고 물을 따라 버린 후 앙금을 베보자기에 쪄낸다. 앙금을 말린 다음 고운체

에 내린다. 고운 가루에 물을 부어가며 중간 불에서 잘 저으면서 걸쭉해 질 때까지 끓인 후 적당한 그릇에 담아 식은 후 적당한 크기로 잘라 낸다. <제보자 : 박재옥(여) : 양양읍 송암리>

(3) 능이버섯회

재료는 능이버섯, 고추장, 깨소금, 설탕, 다진 마늘, 식초, 소금이다. 능이버섯은 깨끗이 손질하여 끓는 소금물에 데친다. 고추장에 식초, 설탕, 깨소금, 다진 마늘을 넣어 초고추장을 만든다. 데친 능이버섯을 먹기 좋게 찢어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다.

(4) 도치회무침

재료는 도치 1마리, 미나리 100g, 미역 10g, 오이 1/2개, 양파 1/2개, 붉은 고추 1개, 풋고추 1개, 초고추장(다진 마늘, 고추장, 고춧가루, 식초, 깨소금)이다. 도치를 배를 갈라 끓는 물에 껍질이 벗겨질 정도로 살짝 데쳐 물에 깨끗이 헹궈 먹기 좋게 썰고 다시 한 번 물에 넣어 익힌 후 체에 받쳐 차게 식힌다. 미역은 불려 준비하고 갖은 채소는 채 썰어 준비한다. 한데 섞어 여기에 새콤달콤하게 만든 초고추장으로 양념하여 버무려 완성한다.

(5) 물회

재료는 오징어 2마리, 가자미 2마리, 상추 50g, 숙갓 50g, 깻잎 50g, 당근 1/2개, 오이 1개, 배 1/4개, 사과 1/4개, 초고추장 적당량이다. 오징어와 가자미, 각종 채소를 채 썰어 놓고 채소류는 오목한 그릇 가장자리에 돌려 담는다. 가운데에 오징어, 가자미와 초고추장을 넣고 냉수를 부어 비벼 먹는다. 오징어와 가자미는 한 종류씩만 사용하기도 한다.

(6) 각종 생선회

동해바다에서 갓 잡은 생선회는 성인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이 늘고 있는 요즘 고단백 저칼로리식품이면서 비타민과 무기질이 다량 함유된 식품으로 크게 주목 받고 있다. 생선에는 인체 구성성분으로 가장 중요한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하고 콜레스테롤의 수치

를 낮추고 혈전예방효과가 있는 EPA와 지능개발과 치매에 좋은 DHA를 가지고 있어 성인병예방에 효과적이다. 생선횃감으로는 광어, 도다리, 가자미, 오징어, 문어, 멧게, 해삼, 전복, 생새우, 성게, 농어, 방어, 우럭, 도미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7) 송이버섯실파강회

재료는 송이버섯 100g, 쪽파 50g, 고추장 30g, 물엿 5g, 식초 5g, 다진 마늘 3g, 참깨 0.5g, 사이다 2g, 레몬 10g, 소금 2g, 대파 10g이다. 송이버섯을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데쳐 찬 물에 행구었다가 물기를 꼭 짜서 굵게 찢어 놓는다. 쪽파를 깨끗이 씻어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데쳐 찬물에 행구었다가 꼭 짜서 5cm길이로 잘라 놓는다. 고추장, 식초, 물엿, 파, 다진 마늘, 참깨, 사이다, 레몬으로 초고추장을 만든다. 섞어서 그릇에 담고 양념한 초고추장을 뿌려 내 놓는다.〈제보자 : 김춘호(남) : 양양읍 포월리 257-1〉

(8) 은어회

재료는 은어 500g, 상추 300g, 다진 파, 마늘, 설탕, 식초, 고추장, 깨소금 적당량이다. 은어는 큰 것을 선택하여 내장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 살만 추려서 물기를 빼고 얇게 썬다. 고추장에 갖가지 양념을 넣어 초고추장을 만든다. 깨끗한 상춧잎에 은어살과 초장을 올려 쌈을 싸 먹는다.(은어는 보통 6~7월 사이에 잡는데 어린 은어는 내장을 제거하고 통째로 먹는다. 은어의 내장과 알을 버리지 말고 된장, 고춧가루, 마늘 양념을 넣고 조려 먹으면 맛이 좋다.)

(9) 연어회

재료는 생연어(꼬리부분) 300g, 조미한 국물(간장 적당량, 다진 생강 적당량)이다. 신선한 연어를 빼와 양쪽 살로 가르 꼬리 근처부분을 이용, 껍질을 벗기고 얇게 회를 떠서 접시에 가지런히 담는다. 회에 조미국물을 곁들여 먹는다. 꼬리부분은 살이 팽팽해서 회로 적당하다.(연어회는 내장을 깨끗이 손질하여 급속 냉동시켜 2~3일 두었다가 먹는 것이 식중독 및 질병예방에 효과적이다.)

9) 튀김 및 마른반찬

(1) 고르매자반

재료는 고르매 2장, 설탕, 식용유 적당량이다. 고르매(바다해초 말린 것)를 깨끗이 손질하여 준비한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자박하게 두르고 달궈지면 불을 약하게 하고 타지 않도록 얼른 꺼낸다. 식성에 맞게 설탕을 약간 뿌려 먹어도 좋다.

(2) 쇠미역 부각

재료는 쇠미역 2장, 설탕 · 식용유 적당량이다. 쇠미역을 깨끗이 손질하여 프라이팬에 기름을 자박하게 두르고 달궈지면 불을 약하게 하여 타지 않도록 얼른 꺼낸다. 식성에 맞게 설탕을 약간 뿌려 먹어도 좋다.

(3) 송이버섯튀김

재료는 송이버섯 60g, 양파 20g, 밀가루 (중력분) 10g, 달걀 10g, 소금 2g, 후추 약간, 식용유 60g, 대파 10g, 당근 10g, 쪽파 10g, 전분 20g이다. 송이버섯은 소금물에 깨끗이 씻어 손으로 찢고 물기를 제거한 후 꼭 찢는다. 중력분과 전분을 섞어 물에 갠 후 달걀, 소금, 후추를 넣어 튀김옷을 만든다. 양파와 당근, 쪽파를 4cm길이로 썰어 준비한 송이버섯과 함께 튀김옷을 입혀 식용유에 튀긴다.〈제보자 : 김춘호(남) : 양양읍 포월리 257-1〉

(4) 은어튀김

재료는 은어 300g, 녹말가루 1컵, 튀김가루 3컵, 맛소금 2큰술, 초간장(진간장, 식초), 식용유 적당량이다. 은어는 내장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 놓는다. 맛소금을 뿌린 후 녹말가루를 묻힌다. 튀김가루와 물을 섞어 걸쭉한 튀김옷을 만든다. 은어에 튀김옷을 입혀 기름에 튀겨 초간장과 함께 낸다.

(5) 연어가스

재료는 연어살 300g, 밀가루 3큰술, 달걀 1개, 빵가루 ½컵, 식용유(튀김용), 소금, 후춧가루

루 적당량, 레몬 ¼개, 마스터드 2작은술, 마요네즈 2큰술, 마스터드 마요네즈(마요네즈 2큰술, 마스터드 2작은술, 레몬즙 1작은술)이다. 연어는 석장 뜨기를 하여 껍질을 제거하고 10cm 정도의 크기로 잘라 소금, 후춧가루, 레몬즙을 뿌리고 밀가루, 달걀물, 빵가루의 순서로 무쳐 180℃ 되는 식용유에서 튀겨낸다. 접시에 연어가스를 담고 레몬과 파슬리를 곁들인 후 마스터드 마요네즈나 카레를 얹어 낸다. <제보자 : 박정란(여) : 강현면 물치리 7-7번지>

(6) 연어가스 제조

재료는 냉동연어송어 및 잡어연육, 첨가물(미트엑기스, 튀김가루, 전분, 전비분유)이다. 냉동연어송어 및 잡어연육을 4℃에서 24시간 해동시켜 5mm 두께로 슬라이스 한다. 여기에 수액을 묻혀 빵가루를 입혀 -40℃에서 동결시킨 제품을 포장지에 넣어 500g이나 1kg단위로 포장한 다음 10kg단위로 박스 포장한다. -25℃에서 냉동보관한다. <제보자 : 박정란(여) : 강현면 물치리 7-7번지>

(7) 연어 채소 소시지

재료는 연어 3kg, 조미료 100g, 옥수수전분 200g, 소금 10g, 스파이스 200g, 물 400g, 당근 500g, 부추 800g이다. 연어, 당근, 부추, 스파이스, 조미료, 옥수수전분, 소금, 물을 카터기에 넣고 고루 믹서하여 충진기에 넣고 뽑는다. 훈연기에 넣어 1시간 20분 정도 스팀에 익힌다. 채소와 연어의 담백한 맛이 어우러진 웰빙소시지가 완성된다.

(8) 연어 탕수어

재료는 연어(중) ½마리, 전분 4큰술, 밀가루 10g, 캐첩 ½큰술, 튀김가루 20g, 정종 ½병, 당근 ¼개, 피망 ¼개, 파프리카 ¼개, 양파 ½개, 간장 ½큰술이다. 연어는 손질해 살만 발라 잘게 썰어 정종에 하룻밤 동안 담가 놓아 비린내를 제거하여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밀가루를 묻힌 다음 반죽물을 입힌다.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넉넉히 두르고 반죽물을 입힌 연어를 넣어 바삭하게 튀겨낸다. 피망, 파프리카, 양파, 당근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기름에 살짝 볶는다. 물, 전분, 간장, 케첩을 넣고 끓이다가 볶아둔 채소를 섞어 소스를 만든다. 튀겨낸 연어에 소스를 넣어 연어탕수어를 완성한다.

10) 장아찌

장아찌는 장지(醬漬) 또는 장과(醬瓜)라고도 하며 무, 오이, 깻잎 등의 채소류와 굴비, 전복 등의 어패류, 김, 파래 등의 해조류를 간장, 된장, 고추장, 젓갈, 식초, 술지게미 등의 절임원에 담가 침장액의 삼투와 효소의 작용으로 독특한 풍미를 내게 하는 저장 발효식품이다.

(1) 고들빼기장아찌

재료는 고들빼기, 소금, 간장, 멸치젓국, 파, 마늘, 생강이다. 고들빼기 뿌리를 다듬어서 씻은 후 열은 소금물에 담가 돌로 위를 눌러 한 달쯤 두어 쓴맛과 아린맛을 제거한 후 건져서 물기를 뺀다. 손질한 고들빼기에 간장과 멸치젓국을 반반씩 섞고 채 썬 파, 마늘, 생강, 실고추를 넣어 버무려서 항아리에 담아 보름이상 두어 간이 들면 갖은 양념을 하여 무친다.

(2) 곤드레 장아찌

재료는 곤드레, 간장이다. 곤드레를 깨끗이 씻어 물기를 없앤 후 항아리에 담고 간장을 붓는다. 일주일쯤 후에 간장만 따라 내어 끓여 식힌 후 항아리에 붓기를 몇 번 거듭한다. 먹을 때 곤드레와 간장을 함께 담아내거나 참기름, 깨소금으로 무쳐낸다. <제보자 : 이순옥(여, 62세) : 서면 오색리 ○○식당>

(3) 느타리버섯장아찌

재료는 느타리버섯, 된장이다. 느타리는 끓는 소금물에 살짝 데쳐 꾸들꾸들하게 말린 후 된장에 박아두고 먹는다. 느타리뿐만 아니라 다른 버섯류로도 같은 방법으로 장아찌를 만들 수 있다.

(4) 누리대(누룩치) 장아찌

재료는 누리대, 간장이다. 누리대를 깨끗이 씻어 물기를 없앤 후 항아리에 담고 간장

을 붓는다. 일주일쯤 후에 간장만 따라 내어 끓여 식힌 후 항아리에 붓기를 몇 번 거듭한다. 먹을 때 누리대와 간장을 함께 담아내거나 참기름, 깨소금으로 무쳐낸다.〈제보자 : 이순옥(여, 62세) : 서면 오색리 ○○식당〉

(5) 되배기장아찌

구전되는 전통음식으로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었던 구황식품이다. 붉은 색을 띠는 해조류로 손바닥만한 크기로 미역처럼 생겼고 다시마보다 얇은 편이다. 간장, 물엿, 물을 넣고 끓여 바로 붓기를 3번 정도 반복하여 두었다가 먹는다.

(6) 머위(명우)장아찌

재료는 머위 400g, 고추장 양념(고추장 2컵, 물엿 4컵), 간장양념(간장 2컵, 물엿 2컵, 물 2컵)이다. 깨끗이 씻은 머위를 항아리에 담는다. 끓여 식힌 간장양념과 고추장양념을 각각 항아리에 넣어 무친다. 간장양념의 경우 하루가 지난 후 위아래를 한 번 뒤집어 준다. 4일째 되는 날부터 먹는다.

(7) 송이버섯장아찌(1)

재료는 송이버섯 400g, 간장 2컵, 물엿 2컵, 물 1컵이다. 깨끗이 씻은 송이를 1cm 두께로 통으로 길게 썰어 항아리에 담는다. 물, 간장, 물엿을 넣고 끓여서 완전히 식힌 후 가.의 항아리에 붓는다. 하루가 지난 다음 위아래를 한 번 뒤집어 준 후 4일째 되는 날부터 먹는다.

(8) 송이버섯장아찌(2)

재료는 송이버섯 100g, 진간장 10g, 다시마 4g, 풋고추 10g, 홍고추 10g, 다시멸치 10g, 다진 마늘 2g, 참깨 1g, 설탕 4g, 참기름 1g, 대파 20g이다. 송이버섯을 소금물에 깨끗이 씻어 놓는다. 진간장, 다시마, 다시멸치, 다진 마늘, 설탕을 넣고 끓여서 채로 걸러 식힌 후 송이버섯을 넣어 재우고 다시 꺼내어 재우는 방법으로 4일간 4~5회 반복하고 4일 후에 풋고추, 홍고추, 설탕, 대파, 참깨, 다진 마늘, 참기름을 넣고 버무려 낸다.

(9) 더덕장아찌

재료는 더덕 300g, 고추장 1½컵, 파 2뿌리, 마늘 4쪽, 깨소금 2작은술, 설탕 2큰술, 참기름 2작은술이다. 껍질을 벗긴 더덕을 깨끗하게 손질하여 물에 담가 쓴맛을 우려낸다. 쓴맛을 뺀 더덕의 물기를 거두고 반으로 갈라 방망이로 두들겨 얇게 펴 고추장에 넣고 버무려 향아리에 담아 두어 고추장 맛이 배어들고 빛깔이 붉어지면 꺼내어 잘게 찢는다. 파 · 마늘을 곱게 다져서 깨소금, 설탕, 참기름과 함께 더덕에 넣고 양념한다.

(10) 당귀장아찌

당귀의 연한 줄기를 고추장에 박아 만든 장아찌이다.

(11) 지누아리장아찌

재료는 말린 지누아리 400g, 간장 2컵, 물엿 4컵, 물 2컵이다. 지누아리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은 다음 물기를 없애고 향아리에 담는다. 물, 간장, 물엿을 넣고 끓여서 완전히 식힌 후 향아리에 붓는다. 하루가 지난 후 위아래를 한 번 뒤집어 주며 4일째부터 먹을 때 다시 한 번 뒤집어서 마늘채, 쪽파 채, 통깨를 뿌려 버무려 먹는다.

11) 젓갈, 식해

젓갈은 어패류의 염장식품으로 숙성 자체효소에 의하여 단백질 성분이 분해되면서 특유의 향과 감칠맛을 낸다. 작은 생선은 뼈째로 담그며 숙성 중에 연해지므로 모두 먹을 수 있어 칼슘의 급원이 된다. 밑반찬 뿐 만아니라 김치에 필수적인 재료로 쓰이고 있다.

식해(食醃)란 어패류를 엿기름과 익힌 곡물을 함께 섞어 고춧가루, 파, 마늘, 생강, 후춧가루, 소금 등으로 조미하여 저장하는 음식이다. 젓갈류의 종류로는 일반적으로 가자미식해, 도루묵식해, 명란젓, 명태식해, 서거리젓, 오징어젓, 창란젓 등이 있다.

(1) 가자미식해

재료는 가자미 10마리, 메조 1컵, 파 30g, 마늘 20g, 생강 10g, 고춧가루 ½컵, 엿기

름 1컵, 소금 적당량이다. 가자미 작은 것을 납작하게 썰어 소금에 절인 다음 하룻밤 두었다가 건져서 보자기에 싸서 무거운 것으로 눌러 주어 고기를 꼬들꼬들하게 만든다. 메좁쌀로 보슬보슬하게 밥을 지어서 싸늘하게 식힌 다음 다진 마늘, 다진 생강, 굵은 고춧가루, 소금, 가자미 옛기름을 섞어서 버무린다. 잘 버무려진 가자미식해를 단지에 담고 꼭꼭 눌러둔다.

(2) 도루묵식해

재료는 도루묵 10마리, 밥 2kg, 고춧가루 200g, 무 2개, 파 1단, 생강 4쪽, 옛기름 1병, 물엿 1병이다. 도루묵은 꼬들꼬들하게 하루 정도 말리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옛기름, 소금에 절인 무, 고춧가루, 다진 파, 다진 마늘, 다진 생강을 넣고 버무려 놓는다. 무는 깍둑썰기하여 소금에 절인 후 물기를 제거한다. 밥은 고슬고슬하게 짓는다. 고루 잘 버무려진 것을 항아리에 꼭꼭 눌러 담고 일주일 삭혀서 밀반찬으로 이용한다.

(3) 명란젓

재료는 생태알 300g, 소금 3큰술, 다진 마늘 2큰술, 물엿·고춧가루 적당량이다. 생태의 알에 소금을 뿌려 보름쯤 절여 명란이 폭삭은 후 고춧가루, 새우젓, 다진 마늘, 물엿을 넣고 잘 버무려 하루정도 재워 작은 항아리에 꼭꼭 눌러 담는다. 명란과 소금의 비율은 명란 1초롱(한말들이)에 소금 5되의 비율로 한다.

(4) 명태식해

재료는 반건조 명태 1kg, 무 450g, 좁쌀밥 5컵, 옛기름가루 5큰술, 소금 3큰술, 고운 고춧가루 2컵, 다진 파 3큰술, 다진 마늘 2큰술, 다진 생강 2큰술이다. 반쯤 마른 작은 명태의 배를 가르고 반으로 잘라 2cm 길이로 썬다. 무는 사방 2cm의 정사각형으로 얇게 썰어 고운 고춧가루로 물을 들인다. 좁쌀밥이 따뜻할 때 옛기름가루를 뿌리고 양념을 넣어 버무린다. 여기에 명태, 무를 함께 넣어 다시 버무려 항아리에 눌러 담고 위에 무청으로 꼭 봉하여 따뜻한 곳에 두었다가 10일 뒤쯤 밥알이 삭으면 차게 보관하여 먹는다.

(5) 서거리젓

서거리는 명태의 아가미를 가리키는 것으로 밀반찬, 술안주로 사용된다. 재료는 명태 서거리 8컵, 소금 3큰술, 무 800g, 고춧가루 2컵, 파 200g, 다진 마늘 ½컵, 생강 100g이다. 생태의 아가미를 떼어서 소금에 절인 후 서거리에 간이 배면 고춧가루로 버무려 둔다. 무는 납작하게 썰고 고춧가루를 넣어 물을 들인다. 서거리와 무를 함께 섞어 갖은 양념으로 버무려 항아리에 꼭 눌러 담아 놓으면 무에서 물이 나와 촉촉하게 된다.

(6) 오징어젓

재료는 물오징어 5마리, 소금 1컵, 무 · 마늘 · 생강 · 물엿 · 고춧가루 적당량이다. 오징어의 내장을 꺼내고 깨끗이 씻어 항아리에 담아 소금에 절여 푹 삭힌다. 먹을 때 소금을 씻어내고 껍질을 벗긴 후 채로 썰다. 무는 채 썰고 소금에 절였다가 꼭 짜서 오징어와 합하여 마늘, 생강, 물엿, 고춧가루를 넣고 버무려 하룻밤 두었다가 먹는다.

(7) 은어젓

재료는 은어 500g, 굵은 소금이다. 은어를 통째로 굵은 소금을 뿌려둔다. 은어젓이 맛이 들면 각종 양념을 넣어 무친다. 은어젓은 체했을 때 특효라고 한다.

(8) 연어알젓

재료는 연어알 1kg, 간장 150g, 조미료 10g, 정종 150g이다. 연어알을 꺼내 알의 3배 정도 되는 2%의 식염수(물 98%, 소금 2%)에 담가 3번 정도 가볍게 씻어 소쿠리에 담아 물기를 빼어 간장, 조미료, 정종을 넣고 섞어 냉장고에 3℃정도로 유지하여 4시간 정도 넣어 둔다. 연어알을 꺼내어 물기를 뺀 후 그릇에 내 놓는다. 많은 양은 냉동실에 비닐 포장하여 보관하고 먹을 때마다 꺼내 냉장실에 옮겨 녹이거나 정종에 담갔다가 먹는다.(연어알 정제방법 : 먼저 신선한 연어알 1kg 정도 준비하여 염도 3% 정도 되는 물에 연어알을 담아 깨끗이 씻는다. 우유 1000ml에 정종 300ml를 혼합하여 준비한 연어알을 약 20~30분간 담가 둔다. 연어알을 30분정도 담가두었던 것을 건져서 요리에 이용한다.)〈제보자 : 이정옥(여, 62세) : 양양읍 월리 월웅식당〉

(9) 창란젓

명태의 창자를 모아서 고춧가루와 다진 마늘·파를 넉넉히 넣어 무쳐서 담은 것으로 밥반찬으로 알맞다. 재료는 명태내장 300g, 소금 ½컵, 다진 마늘 1큰술, 물엿·고춧가루 적당량이다. 명태는 내장을 꺼내어 소금에 절였다가 속을 훑어 깨끗이 씻어낸 후 다시 소금을 뿌려 보름정도 푹 삭힌다. 내장이 푹 삭으면 고춧가루, 다진 마늘, 물엿 등을 섞어 골고루 버무려서 작은 항아리에 꼭 눌러 담는다.

(10) 콩치젓

콩치젓같은 봄에 담귀 응달에 묻어 저장하여 가을에 먹는다. 콩치의 기름기는 호박잎을 덮어 눌렀다가 떼어내면 기름기가 호박잎에 붙어 잘 제거된다. 주로 많이 해 먹어왔던 젓갈이다. <제보자 : 박현숙(여, 51세) : 현남면 남애3리 ○○횃집>

12) 김치

양양지역의 김치는 동해안에 접해 있어 싱싱한 생채와 오징어를 넣고 젓국을 많이 사용하지 않은 것이 특색이다. 배추김치를 버무릴 때 생 오징어채와 생채를 작게 저며 생채 조각을 무채와 같이 버무려 고춧가루, 마늘, 파, 생강 등과 함께 버무려 켜켜로 넣는다. 김치의 종류로는 명태김치, 해물깍두기, 서거리깍두기, 대구깍두기, 가자미무식해, 무청김치 등이 알려져 있다. 또한 김장김치 담글 때 오징어 이리를 같이 넣어주면 김치의 색깔이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

(1) 고들빼기김치

재료는 고들빼기 1kg, 고춧가루 1컵, 마늘 1통, 쪽파 80g, 생강 20g, 멸치젓 ½컵, 참쌀풀 ½, 통깨·소금 적당량이다. 싱싱한 고들빼기를 선택하여 뿌리는 칼로 굽어서 씻어 소금물에 잠길 정도로 담가 쓴맛을 뺀다. 여러 번 소금물을 갈아주면서 쓴맛이 완전히 빠지게 한다. 쪽파는 다듬어서 씻어 절반을 잘라 놓고 마늘, 생강은 곱게 다진다. 고

춧가루는 따뜻한 물로 불려 넓은 그릇에 넣고 마늘, 생강, 참쌀풀, 멸치젓을 넣어 섞어 양념을 만들어 양념에 고들빼기, 파, 통깨를 넣어 버무려 김치통에 꼭꼭 눌러 담는다.<제보자 : 엄유리(여, 38세) : 농업기술센터 생활자원계>

(2) 돌나물 물김치

재료는 돌나물 300g, 미나리 50g, 홍고추 1개, 실파 2뿌리, 고춧가루 1큰술, 마늘 3톨, 물 5컵, 소금 적당량이다. 돌나물은 꽃내가 나지 않도록 살짝 씻어 건지고 마늘은 채 썬다. 미나리와 실파는 4cm 길이로 썰고 홍고추는 송송 썰어 속 씨를 제거한다. 물에 소금을 넣어 끓여 식혀 고춧가루를 베보자기에 싸서 넣어 주물러서 붉은 색을 내고 소금으로 간을 맞춘 다음 마늘 채를 넣어준다. 여기에 돌나물, 송송 썬 홍고추, 미나리 채, 실파채를 넣고 간을 한 다음 익힌다.

(3) 동치미

재료는 동치미무 10개(5kg), 실파 500g, 갓 50g, 청각 50g, 풋고추(삭힌 것) 50g, 홍고추 3개, 마늘 20g, 생강 10g, 물 5L, 소금 1컵이다. 무는 작고 단단한 것으로 택하여 솔로 깨끗이 씻어 소금에 굴려 향아리에 담고 남은 소금은 위에 뿌려 하룻밤을 재운다. 청각은 깨끗이 씻어 건지고 홍고추와 삭힌 고추는 씻어 건져서 물기를 뺀다. 갓과 실파는 깨끗이 씻어 소금을 뿌려 살짝 절여 세 가닥 정도씩 모아 묶는다. 생강과 마늘은 씻어서 얇게 저며 면포 주머니에 넣는다. 향아리 맨 밑에 양념 주머니를 놓고 위에 절인 무를 한 켠 놓고 준비한 부재료들을 얹고 다시 무담기를 반복한다. 맨 위에 갓을 놓고 떠오르지 않도록 무거운 돌로 눌러준다. 향아리에 소금 1컵, 물 5L로 소금물을 만들어 가만히 부어 뚜껑을 덮어서 익힌다.

(4) 명태김치

재료는 생태(대구) 1마리, 무 2개, 쪽파 100g, 고춧가루 1컵, 생강 30g, 마늘 7쪽, 새우젓 ¼컵, 멸치젓 ¼컵, 소금·통깨 적당량이다. 생태는 토막 내어 소금물에 담갔다가 건져 하루 정도 별에 꾸들꾸들하게 말린다. 무는 나박나박하게 썰고 생강, 마늘은 곱게

다진다. 파는 4cm 길이로 썰고 새우젓은 곱게 다진다. 넓은 그릇에 고춧가루와 따뜻한 물을 섞어 넣고 불린 후에 무, 마늘, 파, 생강, 통깨를 넣고 버무린 다음 생채를 넣고 버무린다. 항아리에 꼭꼭 눌러 담고 일주일 정도 삭혀서 밑반찬으로 쓴다.

(5) 서거리깍두기

재료는 서거리 600g, 무(중) 3개, 멸치액젓, 소금, 파, 마늘, 생강, 고춧가루, 엿기름가루, 기타 김치 양념이다. 서거리는 소금을 넣고 바락바락 문질러 씻어 가락가락 뜯어서 칼로 두드려 주어 엿기름가루와 소금간을 하여 하루 밤 정도 재워둔다. 무는 깍둑썰기를 하되 서거리의 3배 정도를 넣는다. 서거리와 깍두기에 마른 고춧가루를 넣어 버무려 물을 들여 파, 생강, 마늘, 고춧가루 등 양념을 넣어 버무려 항아리에 담는다. 15℃ 정도의 온도에서 일주일 삭혀서 밑반찬으로 이용한다.

(6) 총각김치

재료는 알타리무 4단(약 10kg), 소금 500g, 쪽파 200g, 마늘 4통, 생강 2톨, 고춧가루 3컵, 따뜻한 물 1½컵, 설탕 2큰술, 새우젓 ½컵, 멸치젓 ½컵, 실고추 약간, 찹쌀풀 2컵(물 3컵+찹쌀가루 4큰술)이다. 알타리무의 무청 겉 부분은 떼어내고 무의 상한 부분은 도려내면서 깨끗이 하여 솔로 문지르며 씻고 굵은 알타리무는 이등분 또는 4등분한다. 이때 무청을 그대로 붙어있게 하면서 소금물에 6시간 정도 절인다. 쪽파는 잘 다듬어 씻어 살짝 절이고 생강, 마늘은 다진다. 고춧가루를 따뜻한 물에 개고 이 때 설탕을 넣는다. 찬물에 분량의 찹쌀가루를 풀어 익히면서 풀을 쭈어 식힌다. 고춧가루를 불린 것에 멸치젓, 새우젓, 찹쌀풀, 마늘과 생강 다진 것을 모두 섞어 양념을 한다. 절인 무 쪽파, 갇은 살짝 물에 행귀 소쿠리에 담아 물기를 빼고 여기에 갇은 양념을 넣어 고루 비빈다. 알타리무, 쪽파가 고루 들어가도록 한 손에 잡아 파리를 틀어주듯 묶어 항아리에 차곡차곡 담는다.

4. 장(醬)류

장(醬)은 한 민족이 조상대대로 먹고 살아온 뛰어난 전통발효음식으로 음식의 간을 맞추고 조화된 맛을 내는 조미료로서 각 가정에서 전통적으로 만들어 왔다. 집안의 장 맛이 좋아야 가정이 길(吉)하다고 여길 정도로 장담그기와 간수하기에 온 정성을 기울여 소중히 다루었다. ‘장맛을 보면 그 집안을 알 수 있다’고 하여 ‘장맛이 좋아야 가내가 화목하다.’는 속담은 그 만큼 정성들여 장만할수록 장의 맛이 좋아져 그 가문의 모든 음식 맛이 좋아진다는 데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양양군은 전통장으로 유명한데 청정지역인 설악산 500고지의 맑은 공기와 기후조건, 200년 전 화전민이 먹던 용천수를 바탕으로, 동해의 해풍을 받고 자란 콩과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무쇠솥에 참나무와 소나무 장작을 이용하여 쏘 메주를 자연 건조시켜 장을 담가 2년 이상 숙성시켜 만든다. 장(醬)은 1,500년 역사의 전통 음식으로 슬로우 푸드(slow food)의 대표식품으로 고추장, 간장, 된장, 막장, 청국장 등이 있다.

1) 메주 쑈는 법

재료는 메주콩 1말, 물 적당량이다. 메주는 모든 장의 재료가 되므로 메주를 잘 띄워야 장맛이 좋다. 메주콩은 굵은 햇콩을 구입하여 돌과 벌레 먹은 것들 골라내고, 깨끗이 씻어 콩의 3배 정도의 물을 붓고 12시간 정도 담가 불린다. 물에 불린 콩은 조리나 바구니를 이용하여, 콩 껍질, 돌맹이, 기타의 불순물을 가려낸 후 다시 한번 깨끗이 씻어 물기가 빠지도록 소쿠리에 받쳐 놓는다. 가마솥에 불려 놓은 콩과 물을 넣고 장작불을 지펴 3시간 정도 푹 삶은 후 3~4시간 정도 뜸을 들인다. 절구에 넣어 찧거나, 자루에 넣고 밟아서 콩을 으갠다. 네모 모양의 메주 틀에 보자기를 깔고, 찧어 놓은 메주를 눌러 담는데, 속이 꽉 차도록 하여 메주 형태를 완성시킨다.(콩 1말이면 3~6개의 등분으로 나눌 수 있다.) 형태가 완성된 메주는 짚을 깔고 10여 일간 꾸덕꾸덕하게 말려서 열십자로 묶고 끈을 달아서 서까래나 시렁에 매달아 약 40~50일간 말리면서 자연발효시킨다. 건조가 끝난 메주는 발효실에서 발효를 시키는데, 맨 밑바닥에 짚을 깔고 그 위에 메주를 놓고, 메주 위에 다시 짚을 까는 방법으로 층층이 쌓아 둔다. 발효가 끝난 메주

를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저장했다가 사용한다.〈제보자 : 박소연(여, 41세) : 서면 오색1리 22-2 오색전통장〉

2) 찹쌀고추장

재료는 찹쌀가루 5되, 메주가루 5홉, 고춧가루 2되, 표고가루 1되, 물(떡 삶은 물) 1되, 소금 1되, 간장 5홉, 설탕 2근, 엿기름가루 3홉이다. 찹쌀을 물에 담가 놓았다가 곱게 뺑는다. 엿기름을 치대 빨아 짜낸 물에 찹쌀을 넣고 장작불로 끓여 삭힌다. 다 달여지면 메주가루와 고춧가루 표고가루를 넣어 버무린다. 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조절한다. 장독에 고추장을 담는다. 햇볕과 신선한 산골 공기를 쏘이며 숙성시킨다.

(송이고추장은 가을에 수확하여 발효시켜둔 송이를 넣고 버무린 후 꿀로 당도를 맞춘다.)〈제보자 : 최종대(남, 47세) : 서면 오색1리 22-2 오색전통장〉

3) 간장

재료는 메주 찢은 것 1말(3~4덩이), 소금(천일염) 1.6말, 물 4말, 대추 5~10개, 붉은 고추 7~10개이다. 잘 찢은 메주를 씻어 말려 항아리에 차곡차곡 넣고 소금물을 풀어 일주일 이상 가라앉힌 다음 윗물만 따라 부은 후 2~3개월 간 1차 발효를 시킨다. 소금의 농도는 씻어서 물기를 제거한 달걀을 띄어 보아 4정도 뜨면 대개 염도가 맞는 것이다. 발효가 되면 메주 건더기를 걸러 순 액체부분만 따로 담가둔다. 분리된 간장을 날간장이라고 한다. 이것을 솥에 붓고 달이는데, 뭉근한 불에서(80℃정도 20여분)정도로 달이고 이 때 생기는 거품을 걷어 내어야 한다. 햇볕을 쏘이면서 발효시키면 미생물이 살아있는 맛좋은 간장이 만들어 진다.

4) 된장

간장 만들 때 1차 발효 과정에서 걸러놓은 건더기를 항아리에 꼭꼭 눌러 담아 놓은 후 햇볕을 쏘여 숙성시키면 된장이 된다. 송이 된장은 가을에 수확하여 발효시켜둔 송이를 넣고 버무린다.

5) 막장

막장은 막 담가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막장이라고 한다. 쌈장 및 된장찌개용, 추어탕, 영양탕, 감자탕 등 국이나 찌개로 많이 이용한다. 막장용 메주는 삶은 메주콩에 멥쌀, 보리 등의 전분질을 따로 익혀 혼합하여 주먹만하게 메주를 만들어 속이 노랗게 되도록 잘 띄워 메주가루로 만든다. 재료는 막장가루 1kg, 물 1.5L, 고춧가루 300g, 소금 250g, 물엿 300g, 엿기름가루 100g이다. 물을 끓인 후 완전히 식힌 후 막장가루, 소금, 고춧가루, 엿기름가루, 물엿을 약간 넣은 후 버무려두면 3주 후면 맛이 든다.〈제보자 : 원화자(여, 50세) : 현남면 지경리 1반〉

6) 청국장

청국장은 담근지 2~3일만 지나도 바로 먹을 수 있는 장류 중에서 숙성기간이 가장 짧은 장이다. 이 장은 독특한 냄새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청국장은 콩을 삶아서 벧झ이나 멍석으로 싸서 따뜻한 방에서 2~3일 숙성·발효시켜 소금을 첨가하고 조미하여 만든 것이다. 벧झ에 부착되어 있는 고초균(Protease)의 활성이 강할수록 청국장의 맛이 좋다. 재료는 메주콩 20컵, 소금 3½~4컵, 물 적당량, 다진 마늘 4큰술, 다진 생강 4큰술, 고춧가루 3컵이다. 콩을 깨끗이 씻어 여름에는 8시간, 겨울에는 12시간가량 담가 불려 가마솥에 장작불로 3시간 동안 삶은 후 3~4시간 뜸을 폭 들인다. 잘 익은 콩은 붉은 빛을 띠고 구수한 냄새가 나는데 이것을 용기에 넣고 광목천으로 덮은 후 발효실에서 2~3일간 띄운다. 발효가 끝나면 끈적끈적한 진이 나며 잡냄새가 없는 구수한 청국장이 완성된다.〈제보자 : 박소연(여, 41세) : 서면 오색1리 22-2 오색전통장〉

5. 떡류

떡은 가정의 대소사 및 잔칫날과 같은 의례행사에 빠지지 않는 주요한 음식이다. 떡이란 곡식을 가루 내어 찌거나 삶거나 기름으로 지져서 만든 음식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떡의 어원은 옛말의 동사 찌다가 명사가 되어 찌기-떼기-떠기-떡으로 변화된

것으로 본래는 찐 것이라는 뜻이다. 떡을 일컫는 한자어로는 고(餠), 이(餌), 자(瓷), 편(片, 餠), 병이(餅餌), 투(飴), 탁(飴)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병(餅)이라고 한다.

1) 감말랭이찰편

재료는 찹쌀 2kg, 감말랭이 400g, 밤 20개, 서리태 200g, 대추 500g, 설탕 1 컵, 소금 약간이다. 찹쌀은 물에 불린 후 곱게 갈고 감말랭이는 물에 씻어 닦아 놓는다. 밤은 껍질을 벗겨 반으로 잘라놓고 서리태는 물에 씻어 불려 놓고 대추는 씨를 빼고 적당한 크기로 썬다. 찹쌀가루에 감말랭이, 서리태, 밤, 대추, 설탕을 넣고 골고루 섞는다. 시루에 넣어 찌 낸다.〈제보자 : 황현숙(여) : 현북면 잔교리〉

2) 당귀잎떡

재료는 쌀 2되, 팥 2컵, 삶은 당귀잎 8컵, 설탕 1컵, 소금 4큰술이다. 쌀은 8시간 불려서 소금을 넣고 뿜아 체에 내린 다음 설탕을 고루 섞어 넓은 그릇에 담고 삶은 팥과 당귀잎을 잘게 뜯어 섞어 시루에 밀을 깔고 넣어 떡을 안친다. 김이 오르고 젓가락으로 찌러보아 쌀가루가 묻어나지 않으면 다 익은 것으로 떡을 그릇에 쏟아 한 김 나간 후 먹기 좋게 썬다.〈제보자 : 이정희(여) : 서면 용천리〉

3) 도토리칩송편

재료는 쌀가루 400g, 찹가루 150g, 도토리가루 150g, 소금·콩·팥·설탕·솔잎 약간이다. 쌀을 8시간 정도 물에 불려 뿜아 가루로 만든다. 송편소로 검은 콩과 팥을 넣는데 검은 콩은 물에 4시간 정도 불린 후 물을 제거하고 소금을 넣어 고루 섞고 팥은 잠길 정도의 물을 붓고 한 번 끓어오르면 물을 버리고 다시 새 물을 부어 주어 푹 삶아지면 체에 걸러 양금을 낸 후 설탕을 넣고 약한 불에서 볶아 식힌다. 쌀가루와 찹가루, 도토리가루를 고루 섞은 후 소금을 넣고 익반죽한다. 소를 넣고 송편을 빚은 후 식용유를 발라 불지 않도록 하고 찜통에 솔잎을 깔고 찐다.

4) 메밀총떡

재료는 메밀가루 2kg, 두부 1kg, 갓 1kg, 마늘 60g, 숙주 400g, 소금 100g, 고춧가루 40g, 깨소금 · 들기름 약간이다. 메밀을 갈아서 껍질을 벗긴 후 곱게 갈아서 체에 내린다. 두부는 꼭 짜서 잘게 으깨고 갓김치(배추김치)는 송송 썬다. 숙주나물은 살짝 데쳐서 잘게 썬다. 준비된 재료에 갖은 양념을 하여 버무린다. 메밀반죽은 기름을 두른 후 팬에 한 국자 떠 넣고 다른 재료를 넣어 말아서 지져낸다.〈제보자 : 오옥연(여) : 양양읍 청곡2리〉

5) 수수부꾸미

재료는 차수수 6컵, 팔 1컵, 소금 1작은술, 설탕 4큰술, 계피가루 2큰술, 식용유 약간이다. 차수수는 깨끗이 씻어 하루쯤 더운 물에 불린 후 가루를 만들어 놓고 팔은 껍질을 벗긴 후 충분히 썰낸다. 다 썰진 팔은 뜨거울 때 소금을 넣어 주걱으로 으깨어 어레미로 내린 다음 설탕, 계피가루를 넣고 소를 만든다. 차수수가루는 익반죽하여 둥글납작하게 만들어 팬에 모양을 만들어 지지면서 한 쪽이 익으면 뒤집어서 다른 쪽을 익히고 소를 한가운데 넣어 반을 접어 꼭꼭 눌러 붙인다.

6) 찰옥수수시루떡

재료는 찰옥수수 500g, 팔 250g, 설탕 · 소금 적당량이다. 찰옥수수를 물에 불려 곱게 뺑는다. 팔에 물을 붓고 끓인 후 일단 물을 버리고 다시 잠길 정도의 물을 부어 삶아 대충 뺑는다. 찹쌀에 김이 오르면 팔을 깔고 찰옥수수가루를 1cm 두께로 깔고 다시 팔을 깔다. 뜸을 들이고 따뜻할 때 썰어 낸다.〈제보자 : 정옥연(여) : 서면 영덕리〉

7) 송천떡

송천 민속떡의 특징은 전통방식 그대로 직접 빻어 만드는 민속떡으로 맑은 공기와 순수한 시골 인심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특히 떡을 만드는 식재료는 청정 자연에서 자라는 쑥 등의 신선한 재료와 무공해 청정쌀을 이용하여 거의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전통방식 그대로 손으로 빻어 만들고 있다. 또한 이 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소를 만드는데

강낭콩과 팥을 삶은 다음 고운체에 걸러 물기 없이 꼭 짠 다음 팬에 소금, 설탕을 넣고 계속 저으면서 수분을 증발시켜 가루를 만들어 소를 넣는다. 모든 떡은 안반에 떡메로 쳐 만들어 맛있고 입안에서의 촉감이 매우 좋아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떡의 종류로는 송편, 개피떡, 절편, 백설기, 쑥설기, 팔시루떡, 인절미, 찹쌀모찌, 찰뭉생이, 콩시루떡 뿐만 아니라 약식까지도 만들고 있다.

- (1) 약식 : 재료는 찹쌀 5컵, 밥 10개, 대추 5개, 잣 2큰술, 황설탕 1½컵, 참기름 5큰술, 계핏가루 1큰술, 간장 4큰술, 소금 ½큰술이다. 쌀을 5시간 이상 충분히 불린 후 시루에 찌고 충분히 찐 쌀에 볶은 설탕을 넣고 골고루 섞은 후 참기름, 간장, 소금, 계핏가루, 대추, 밥, 잣을 넣고 골고루 혼합하여 시루에 다시 찐다. 모양을 만들어 식혀 썬 후 담는다.
- (2) 송편 : 재료는 멥쌀 5컵(멥쌀가루 10컵), 쑥 60g, 소금 1큰술, 송편소(팥콩 300g, 소금 1작은술)이다. 멥쌀은 깨끗이 씻어 물에 5시간 정도 불린 후 소쿠리에 건져 소금을 넣고 가루로 뺏아서 체에 내린다. 쑥은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파랗게 데쳐서 곱게 다진다. 멥쌀가루를 2등분하여 하나는 그대로, 하나는 쑥 다진 것을 넣어 절구에 찧어 끓는 물로 익반죽하여 오래 치대어 젖은 베보자기나 비닐 등을 덮어 둔다. 팥콩은 껍질을 벗기고 소금을 약간 뿌려 간을 한다. 각각의 반죽을 한 입 크기로 떼어 둥글게 빚은 후 가운데에 우물을 파 소를 넣고 손자국 모양을 내어 빚는다. 빚은 송편을 솔잎을 깔 찜통에 서로 닿지 않게 엮고 김이 오르고 난 후 20~25분 정도 더 찐다. 다 익으면 불을 끄고 5분 정도 뜸을 들인 후 참기름을 발라낸다.
- (3) 개피떡 : 재료는 멥쌀 5컵(멥쌀가루 10컵), 소금 1큰술, 쑥 60g, 동부콩(거피) 150g, 설탕 1큰술이다. 멥쌀을 물에 12시간 정도 담갔다가 건진 다음 소금을 넣어 기계로 갈아 고운 가루를 만든 후 물을 뿌려 고루 섞어서 찜통에 찌고 파리가 일도록 기계로 다시 쳐서 이등분한다. 쑥개피떡은 쑥을 손질하여 끓는 소금물에 살짝 데쳐 헹군 후 물기를 빼고 다져서 찌낸 멥쌀가루와 함께 초록색이 나도록 기계로 찧는다. 흰색 개피떡은 그대로 사용한다. 동부콩을 거피하여 소금과 설탕을 넣어 섞은 후 꼭꼭 주물러 소로 넣는다. 밀대로 민 떡을 넓게 펼친 후 꼭꼭 주물러

놓은 소를 넣고 지름 5.5cm 정도의 공기로 떡을 하나씩 떠낸다.〈제보자 : 박희순 (여, 63세) : 서면 송천리 1반〉

(4) 백설기 : 재료는 멥쌀 10컵(멥쌀가루 20컵), 소금 1.5큰술, 꿀 1.5큰술, 설탕물 (설탕 1컵, 물 2/3컵)이다. 멥쌀을 깨끗이 씻어 물에 12시간 정도 담갔다가 건진 다음 소금을 넣고 뽕아 체에 내려서 끓인 설탕물과 꿀을 넣어 솔솔 뿌리면서 손으로 고루 비빈 후 체에 다시 한 번 내린다. 시루에 시루밀을 깔고 쌀가루를 손으로 솔솔 뿌려 위를 고르고 편편하게 한 다음 베보자기를 물에 적서 시루 위를 덮고 불에 올려 김이 오르면 약 20분 정도 푹 찌낸다.

(5) 쑥설기 : 재료는 멥쌀 10컵(멥쌀가루 20컵), 쑥 100g, 소금 2큰술, 꿀 2큰술, 설탕물(설탕 1컵, 물 2/3컵)이다. 멥쌀을 깨끗이 씻어 물에 12시간 정도 담갔다가 건진 다음 소금을 넣고 뽕아 놓는다. 하나는 쌀가루를 고운체에 내려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 놓고 다른 하나는 쑥을 삶은 다음 쌀가루와 섞어 같이 갈아 고운체에 내려서 고운 가루를 만든다. 체에 내린 각각의 가루에 끓인 설탕물과 꿀을 넣어 솔솔 뿌리면서 손으로 고루 비빈 후 체에 다시 한 번 내린다. 시루에 시루밀을 깔고 쌀가루를 손으로 솔솔 뿌려 위를 고르고 편편하게 한 다음 쑥과 쌀가루를 혼합한 가루를 한 켠 올린 후 다시 켠켠로 올려 베보자기를 물에 적서 시루 위를 덮고 불에 올려 김이 오르면 약 20분 정도 푹 찌 낸다. 뜬이 잘 들었으면 도마에 얹어서 한 김 나간 후에 큼직하고 네모지게 썬다.〈제보자 : 추계월(여, 57세) : 서면 송천리 2반〉

(6) 팔시루떡(팔고물시루떡) : 재료는 멥쌀 10컵(멥쌀가루 20컵), 소금 2큰술, 고물(붉은 팥 4컵, 소금 1큰술)이다. 멥쌀을 깨끗이 씻어 물에 12시간 정도 담갔다가 건진 후, 소금을 넣고 뽕아 체에 내려 고운 가루를 만든다. 팥에 물을 붓고 삶아 한소끔 끓으면 그 물을 버리고 다시 팥의 3배 정도의 찬물을 부어 팥이 무를 때까지 삶는다. 팥이 거의 익으면 물을 따라내고 낮은 불에서 뜬을 들인 후 소금을 넣고 절구에 대강 찧어 고물을 만든다. 시루에 시루밀을 깔고 팔고물을 뿌린 다음 멥쌀가루를 3~4cm 두께로 수평으로 편편하게 안치고 계속 팔고물과 멥쌀가루를 번갈아 켠켠로 안쳐 솔 위에 올린 후 밀가루로 반죽 한 시룻번을 붙인다. 베보자기를 물에 적서 시루 위에 덮고 센 불에서 찌다가 김이 오르면 20분 정도 더 찌 낸다.

- (7) 인절미 : 재료는 찹쌀 10컵(찹쌀가루 20컵), 소금 2큰술, 물 ½컵, 고물 1(노란콩가루 1컵, 소금 ½작은술, 설탕 1큰술), 고물 2(거피 붉은 팥 1컵, 소금 ½작은술, 설탕 1큰술), 고물 3(거피 동부팥 1컵, 소금 ½작은술, 설탕 1큰술)이다. 찹쌀을 깨끗이 씻어 물에 12시간 이상 담갔다가 건진 다음 찜통에 अच्छ히 거의 익을 무렵 소금물을 밥에 뿌려 다시 푹 찐다. 노란 콩가루와 거피 붉은 팥, 거피 동부 팥에 소금과 설탕을 넣어 간을 맞춘다. 절구에 찐 밥을 넣고 절구공이에 소금을 잘 적셔가며 으깨어지도록 골고루 친다. 안반에 고물가루를 깔고 쏟아 적당한 두께로 밀어 가로 3cm, 세로 5cm의 크기로 썰어 놓은 떡이 뜨거울 때 각색 고물을 묻혀 낸다.
- (8) 미지떡 : 인절미에 고물을 묻히지 않은 떡을 말한다. <제보자 : 박경자(여, 58세) : 서면 송천리 1반>
- (9) 찹쌀모찌 : 재료는 찹쌀 10컵, 소금 2큰술, 물 ½컵, 고물(거피 동부팥) 3컵, 모찌소(붉은 팥) 3컵이다. 인절미와 같이 찹쌀을 물에 불린 후 찌서 절구에 넣어 골고루 잘 쳐진 떡을 적당히 뜯어 삶은 팥을 소로 넣고 동부팥을 삶아 거피 내어 고물로 묻혀 만든다.

6. 과정류

과정류는 조과(造菓)라고 하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과자를 일컫는다. 종류로는 유밀과(油密菓), 유과(油菓) 다식(茶食), 정과(正果), 과편(果片), 숙실과(熟實果), 엿강정 등이 있다.

1) 유밀과(油密菓)류

유밀과는 밀가루에 꿀과 기름을 넣고 반죽한 것을 모양을 만들어서 기름에 지져낸 다음 증정한 것이며 모양에 따라 여러 이름이 붙게 된다.

(1) 약과(藥果)

약과(藥果)는 밀가루에 꿀을 섞어 반죽한 것을 기름에 튀긴 유밀과(油密果)의 하나로 우리나라의 역사상 가장 사치스러운 고급과자의 하나이다. 이러한 약과는 정월에 많이 만들어 먹었으며 그 밖의 통과의례, 명절, 잔치, 제향(祭享)의 필수음식이었다. 재료는 밀가루(중력분) 3컵, 참기름 4큰술, 술 1큰술, 꿀 5큰술, 생강즙 1큰술, 계핏가루 ½작은술, 기름 5컵, 집청꿀(꿀 2/3컵, 조청 1컵, 잣가루 2큰술, 계핏가루 약간)이다. 밀가루를 체에 쳐서 큰 그릇에 담아 가운데를 해친 다음 참기름을 넣고 잘 비벼 다시 체에 친 밀가루에 술과 꿀, 생강즙, 계핏가루를 넣고 고루 섞는다. 이때 재료를 한쪽 방향으로 섞고 반죽을 치대지 않는다. 이것을 조금씩 꼭꼭 뭉쳐 약과판에 눌러 박는다. 기름을 한번 충분히 끓인 다음 불을 다시 약하게 하여 130~140℃ 정도로 하여 타지 않게 시간을 넉넉히 하여 속까지 익혀 갈색이 나도록 한다. 다 지져지면 꺼내어 기름을 뺀 뒤 너무 식기 전에 집청꿀에 담갔다가 건져 계핏가루와 잣가루를 뿌려 낸다.

(2) 매작과(梅雀菓)

매작과는 마치 매화나무에 참새가 앉은 모양과 같다고 하여 매화 「매(梅)」참새 「작(雀)」을 써서 매작과(梅雀菓)라고 하며 매엽과(梅葉菓)라고도 부른다. 고소한 기름맛과 단맛이 나며 생강향과 계피맛이 나는 바삭바삭한 과자로서 만들기 쉬워 손쉽게 할 수 있다.

재료는 밀가루 2컵, 물 6큰술, 소금 1작은술, 생강즙 2큰술, 설탕 1컵, 물 1컵, 꿀 2큰술, 잣가루 1½큰술, 계핏가루 1작은술, 식용유 3컵이다. 밀가루를 체에 쳐서 물, 소금, 생강즙을 넣고 반죽한다. 집청꿀은 먼저 설탕과 물을 각각 1컵씩 냄비에 담고 중간불에 올려 젓지 말고 끓인 설탕시럽이 1컵 정도가 되면 농도가 적당하다. 설탕 시럽을 식힌 후에 꿀을 섞고 계핏가루를 넣어 고루 섞는다. 반죽한 밀가루를 두께 0.3cm 정도로 얇게 밀어서 길이 5cm, 나비 2.5cm 정도로 자른 다음 천(川)자 모양으로 칼집을 넣고 가운데 칼집으로 한 쪽 귀를 넣어 뒤집는다. 기름을 140~150℃ 정도로 해서 튀겨 내어 기름을 뺀 다음 집청꿀에 담그었다가 망에 건진다. 집친 매작과를 그릇에 담고 잣가루를 뿌려낸다.

2) 유과(油菓)류

유과는 찹쌀가루에 술을 넣고 반죽하여 찐 다음 파리가 일도록 저어서 모양을 만들고 건조시켜 기름에 지져 낸 다음 엿물이나 꿀을 입혀서 다시 고물을 묻힌 것으로 모양과 고물에 따라 여러 이름이 붙게 된다.

(1) 강정(强精)

강정에 대한 옛 기록은 1670년 《음식지미방(飮食知味方)》의 기본조리법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 즉, 강정이란 “찹쌀가루를 술과 콩물로 반죽하여 찌서 파리가 일도록 치대어 만든 반죽을 가름하게 썰어 말렸다가 기름에 지져 고물을 묻힌 것”으로 모양, 고물, 색에 따라 이름이 붙게 된다. 종류에는 세반강정, 깨강정, 흑임자강정, 들깨강정, 잣강정 등이 있다.

재료는 찹쌀 4컵, 흰콩 1큰술, 번가루(녹말 또는 쌀가루), 식용유, 물 1컵, 소주 2큰술, 설탕 1큰술, 집청(설탕 1컵, 물 1컵, 꿀 3큰술), 고물(세반(밥풀) 2컵, 흰깨 ½컵, 흑임자 ½컵, 잣가루 ½컵)이다. 찹쌀은 씻어서 10일 정도 담가두었다가 여러 번 씻어 헹구고 뺀아서 체에 내린다. 흰콩은 하루 정도 불린 후 껍질을 벗겨 곱게 뺀아 갈아놓은 찹쌀과 섞는다. 찹통에 젖은 베보자기나 얇은 헝겊을 깔고 반죽을 덩어리로 얹혀 찐다. 찌는 도중에 위아래를 뒤집어 주어 고루 익힌다. 찐 떡을 그릇에 쏙고 파리가 일도록 힘껏 쳐 낸다.(떡이 방망이에 실처럼 올라오는 상태가 될 때까지 방망이로 쳐낸다.) 넓은 밀판에 쌀가루나 녹말가루를 뿌리고 떡을 쏙은 다음 방망이로 얇고 판판하게 밀어 알맞은 크기로 썬다. 더운 방바닥에 한지를 깔고 썰어 놓은 반죽을 서로 붙지 않게 늘어 놓는다. 그런 다음 가끔 뒤집어 주면서 2~3일 정도 고루 말린다. 잘 말린 뒤 100℃ 정도의 기름에 넣고 서서히 튀겨서 불린다. 세반산자는 모양이 똑 바로 되도록 손가락으로 양 끝을 누르면서 튀긴다. 찹쌀과자가 부풀어 오르면 150~160℃의 기름에 잠깐 넣어 약간 노릇하게 튀긴 다음 건져서 기름을 뺀다. 냄비에 물과 설탕 1컵씩을 넣고 약 1컵의 시럽이 되도록 끓여서 식힌 후 꿀을 섞어 집청꿀을 만든다. 튀긴 것을 집청꿀에 담갔다가 여러 가지 고물을 묻혀서 소쿠리에 담아낸다.

(2) 산자

산자는 과줄, 과질, 유과라고도 하며 찹쌀가루에 술을 넣고 반죽하여 익힌 다음 파리가 일도록 저어서 강정과 같은 반죽을 하여 바탕을 네모모양으로 편편하게 만들어 말려서 기름에 지져 꿀이나 조청을 바르고 고물을 묻힌 것이다. 종류에는 매화산자, 세반산자, 메밀산자, 밥풀산자, 묘화산자 백산자 등이 있다.

재료는 찹쌀 800g, 흰콩 1큰술, 소주 ½컵, 물 약 1컵, 고물(세반 1컵, 잣가루 ½컵, 흑임자 ½컵, 흰깨 ½컵), 고명(잣 1큰술, 대추 3개, 튀김기름 3컵), 집청꿀(설탕 3큰술, 물엿 1컵, 꿀 3큰술(조청)), 썩은 감자가루 또는 밀가루 적당량이다. 산자 바탕 만들기는 먼저 찹쌀과 흰콩을 각각 하루 정도 물에 불린다. 찹쌀은 깨끗이 씻어 건져서 곱게 빻아 소주와 물, 불린 콩을 블랜더에 갈은 콩물을 넣어 고루 치대어 반죽한다. 찹통에 젖은 행주를 깔고 반죽을 15~20분 쪄다. 찌는 도중에 수저로 위아래를 섞고 떡이 말갭게 익으면 큰 그릇에 쏟아서 방망이로 파리가 일어날 때까지 치댄다. 도마에 썩은 감자가루(밀가루)를 뿌리고 찐 떡을 쏟아서 위에 감자가루(밀가루)를 뿌리고 밀대로 0.4cm 두께로 얇게 민다. 어느 정도 꾸덕해지도록 한다. 밀은 반죽을 가로 3cm 크기로 썰어서 채반에 한지를 깔고 서로 붙지 않게 고루 펴 따뜻한 실내에서 하루 정도 말린다. 수분이 11~13%정도 되도록 한다. 바탕이 약간 덜 말랐을 때 한지로 싼 다음 비닐이나 랩으로 싸서 냉장고에 보관한다. 말린 산자 바탕을 강정과 같은 방법으로 튀긴다. 바탕이 부풀기 시작하면 손가락으로 네 귀를 눌러서 모양을 반듯하게 하여 흰색으로 튀겨 내어 기름망에 종이를 깔고 건져 내어 기름을 완전히 뺀다. 고물은 끓는 물에 흰엿과 꿀을 섞어 조린 것이나 조청을 고르게 발라 깨, 잣, 세반 등을 골고루 묻힌다.

(3) 빙사과류

빙사과의 바탕은 산자나 강정과 같다. 반죽을 팔일 만큼씩 썰어서 말린 것을 기름에 튀겨 내어 집청꿀로 버무려 굳혀서 네모나게 썬 것이다.

재료는 찹쌀 800g, 흰콩 1큰술, 소주 ½컵, 물 약 1컵, 식용색소 약간, 튀김기름 3컵, 집청꿀(설탕 3큰술, 물엿 1컵, 꿀 3큰술)이다. 바탕은 산자나 강정 만들기와 동일하다. 얇게 밀은 반죽을 산자나 강정용으로 네모나게 잘라 내고 남은 부분은 말린다. 약간 굳

으면 팔알보다 작은 크기로 잘게 썰어서 냉장 보관한다. 빙사과 바탕을 망에 담아서 120℃ 기름에 넣고 휘저으면서 색이 하얗게 튀긴다. 튀긴 것을 건져서 종이를 여러 번 바꾸면서 기름을 완전히 뺀다. 집청꿀은 냄비에 물엿과 설탕을 함께 담아 중불에서 5분 정도 끓인 후에 꿀을 넣어 고루 섞는다. 튀겨 낸 것과 집청꿀의 비율을 3:1 정도로 하여 고루 버무린 다음 네모진 틀에 기름을 약간씩 바르거나 랩을 깔고 윗면을 편편하게 하여 굳힌다. 단단하게 굳으면 길이 3cm, 폭과 높이는 2.5cm 정도의 네모로 썬다.

3) 다식(茶食)류

다식(茶食)은 볶은 곡물가루, 한약재가루, 꽃가루 등에 꿀을 넣고 반죽하여 뭉쳐서 다식판에 넣고 갖가지 문양이 나오게 박아 낸 것으로 재료에 따라 여러 이름이 붙게 된다.

(1) 녹말다식

녹말다식은 녹두녹말을 꿀만으로 반죽한 흰색다식과 오미자국과 꿀을 한데 섞어 반죽하여 만든 분홍색다식이 있다. 녹말다식은 녹두녹말에 꿀을 넣고 반죽하여 다식판에 박은 것이다.

재료는 녹두녹말 2컵, 꿀 12큰술, 오미자국 2큰술, 설탕 2큰술이다. 오미자를 씻어 40℃의 물에 담가 우려서 고운체에 밭쳐 분홍빛의 오미자국을 만든다. 녹두녹말을 반으로 나누어 한 쪽에는 꿀과 오미자국을 넣어 고루 반죽하면 분홍색 반죽이 되고 나머지 녹두녹말에 꿀을 섞어 반죽하면 흰색 반죽이 된다. 다식판에 랩을 씌워 분홍색반죽과 흰색반죽을 각각 알맞게 떼어 내어 손으로 꼭꼭 쥐어박아 낸다.

(2) 흑임자다식

흑임자다식은 볶은 흑임자가루에 꿀을 섞어 반죽하여 다식판에 박은 것이다. 재료는 흑임자 5컵, 꿀 2큰술, 된조청 1~1½컵이다. 흑임자를 씻어 일어 건져서 깨알이 통통해 질 때까지 살짝 볶아 절구에 조금씩 넣어 가면서 기름이 날 때까지 짙고 꿀과 된조청을 넣어 잘 짊어 반죽하여 다식판에 박아 낸다.

(3) 콩다식

콩다식은 노란콩가루와 파란콩가루로 두 가지 색의 콩다식을 만든다. 콩가루를 꿀에 반죽하여 다식판에 박은 것이다. 재료는 노란콩가루 1컵, 파란콩가루 1컵, 물엿 3큰술, 설탕 2작은술, 물 1큰술, 꿀 3큰술이다. 파란콩과 노란콩을 각각 씻어 볶아 절구에 넣고 살짝 찧어서 키에 까불리서 콩껍질을 버리고 볶은 콩을 절구에 넣어 곱게 찧어서 고운체에 쳐서 콩가루를 만든다. 작은 냄비에 물엿, 설탕, 물을 한데 담아 끓으면 꿀을 섞는다. 두 가지 콩가루를 각각 꿀을 넣어 되직하게 반죽하여 밤톨만큼씩 떼어서 다식판에 박아낸다.

(4) 송화다식

송화다식은 송화가루를 꿀과 조청으로 반죽하여 다식판에 박은 것이다. 재료는 송화가루 2컵, 꿀 ½컵이다. 송화가루를 꿀에 반죽하여 다식판에 박는다. 다식판을 깨끗하게 하여 노란색이 깨끗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정과류

정과(正果)는 전과(煎果)라고도 하며 비교적 수분이 적은 뿌리나 줄기, 열매 등의 재료를 설탕시럽과 조청에 오랫동안 조려 졸깃졸깃하고 달콤하게 만든 것이다.

(1) 연근정과

연근의 껍질을 벗겨 0.3cm 정도의 크기로 썰어 삶아 꿀물이나 설탕물에 조린 것이다. 재료는 연근 200g, 물 2컵, 식초 1큰술, 설탕 100g, 소금 ½작은술, 물 3컵, 꿀 2큰술이다. 연근은 지름 4cm 정도의 가는 것으로 골라서 껍질을 벗기어 0.7cm로 얇게 저며서 끓는 물에 식초를 넣어 살짝 데쳐서 찬물에 행구어 건지고 냄비에 담아 설탕, 소금, 물을 한데 넣어 처음에는 센 불에 올린다.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하게 하여 서서히 뚜껑을 열어 놓은 채 조리며 끓이는 도중에 위에 떠오르는 거품을 말끔히 걷어 낸다. 설탕물이 거의 줄어들면 꿀을 넣어 위아래를 섞으면서 잠시 더 윤기가 나도록 조리고 굵은 체나 망에 하나씩 건져서 떼어 놓아 식혀서 그릇에 담는다.

(2) 도라지정과

도라지정과는 통도라지를 물에 삶아 쓴맛을 뺀 다음 꿀을 넣어 조린 것이다. 재료는 통도라지(다듬어서) 200g, 물 2컵, 소금 ½작은술, 설탕 100g, 소금 ½작은술, 물 3컵, 꿀 2큰술이다. 통도라지는 가는 뿌리는 떼고 4cm 길이로 토막을 내고 굵은 것은 반으로 갈라서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어 살짝 데쳐서 찬물에 행구어 건져 냄비에 담고 설탕, 소금, 물을 한데 넣어 처음에는 센 불에 올린다.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하게 하여 서서히 뚜껑을 열어 놓은 채 조리며 끓이는 도중에 위에 떠오른 거품을 말끔히 걷어낸다. 설탕물이 거의 줄어들면 꿀을 넣어 위아래를 잘 섞고 잠시 더 윤기가 나도록 충분히 조리되면 굵은 체나 망에 하나씩 건져서 떼어 놓아 식혀서 그릇에 담는다.

(3) 무정과

무정과는 무를 굵은 채로 썰거나 꽃모양으로 썰어 햇볕에 반쯤 말린 후 꿀과 설탕에 조린다. 재료는 무 400g, 설탕 ½컵, 물 ½컵, 꿀 1큰술이다. 무는 껍질을 얇게 벗기고 굵은 채로 썰어서 햇볕에 널어 꼬들꼬들하게 물기를 거둔다. 설탕과 물을 섞어 불에 놓고 끓기 시작하면 말린 무를 넣고 약한 불에서 오래 조린다. 거의 줄어들면 꿀을 넣어 윤기가 나도록 잠시 더 조린다.

(4) 당근정과

당근정과는 당근을 썰어 살짝 데친 후 꿀이나 설탕으로 졸인 것이다. 재료는 당근 400g, 물 5컵, 설탕 1컵, 물 1컵, 꿀 2큰술이다. 당근은 지름 3cm 정도의 아래 위의 굵기가 같은 것을 골라서 껍질을 얇게 벗겨 내고 씻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둥근 모양으로 또는 꽃모양으로 저며서 썰어 끓는 물에 잠깐 익힌다. 설탕과 물을 섞어 불에 놓고 끓기 시작하면 준비한 당근을 넣어 젓지 말고 약한 불에서 오래 졸여 빛이 투명하고 윤이 나며 걸쭉해지면 꿀을 넣어 잠시 더 조린다.

(5) 인삼정과

인삼정과는 인삼을 삶아 꿀이나 설탕물에 조린 것이고 수삼정과는 수삼의 쓴맛을 빼

고 설탕을 넣고 조리다가 꿀을 넣은 것이다. 재료는 인삼(다듬어서) 100g, 물 1½컵, 소금 약간, 설탕 40g, 물 1컵, 꿀 2큰술이다. 인삼은 되도록 큰 것으로 골라서 가는 뿌리는 떼어 내어 4cm 정도로 토막을 내고 굵은 것은 저며서 끓는 물에 소금을 넣어 살짝 데친 다음 찬물에 행구어 건져 냄비에 담고 설탕을 한데 넣어 처음에는 센 불에 올린다.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하게 하여 서서히 뚜껑을 열어놓은 채 조리며 끓이는 도중에 위에 떠오르는 거품을 말끔히 걷어 낸다. 설탕물이 거의 졸아들면 꿀을 넣어 위아래를 잘 섞고 잠시 더 윤기가 나도록 충분히 조리되면 굵은 체나 망에 하나씩 건져서 떼어 놓아 식혀서 그릇에 담는다.

5) 옛강정

옛강정은 중탕한 옛물이나 조청, 꿀, 설탕을 끓인 시럽에 콩이나 깨 등의 곡식이나 또는 견과류를 넣고 섞어 버무려 엉기게 한 다음 반대기를 지어서 굳으면 편으로 썬 것이다.

(1) 콩옛강정

콩옛강정은 중탕한 옛물이나 조청, 꿀, 설탕을 끓인 시럽에 콩을 넣고 섞어서 밤알 크기로 떼어서 콩가루에 묻혀 둥글고 얇게 만들어 굳힌 것이다. 재료는 흰콩 1컵, 검정콩 1컵, 설탕 ½컵, 물엿 ½컵, 물 ½컵, 식용유 적당량이다. 흰콩과 검정콩을 씻어서 변철에 부는다. 냄비에 물엿, 물, 설탕을 함께 넣고 약한 불에 올려 젓지 말고 끓인다. 도중에 숟가락으로 떠서 찬물에 떨어뜨려 보아 흠어지지 않고 엉겨질 정도까지 끓인다. 흰콩과 검정콩에 더운 설탕물을 각각 넣어 재빨리 버무려서 도마에 참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놓는다. 밀대에도 기름을 발라서 식기 전에 1cm 정도의 두께로 민다. 딱딱하게 굳기 전에 칼로 2cm, 세로 3cm의 네모꼴로 썬다.

(2) 낙화생옛강정

낙화생옛강정은 옛 녹인 것에 볶은 땅콩을 껍질을 벗겨 섞어 반대기를 지어 굳힌 것이다. 재료는 볶은 땅콩 1컵, 시럽(설탕 1, 물엿 1, 물 0.2)이다. 땅콩을 껍질을 벗겨 들

로 쪼개어 시럽을 끓여 넣어 섞어 기름 바른 도마 위에 반대기를 지어 기름 바른 방망이로 얇게 밀고 사방 4cm의 마름모꼴로 썬다.

(3) 깨엿강정

깨엿강정은 엿을 녹인 것에 볶은 깨를 섞어 반대기를 지어 굳힌 것이다. 재료는 흰깨 1컵, 검정깨 1컵, 설탕 ½컵, 물엿 ½컵, 식용유 적당량이다. 흰깨와 검정깨를 씻어서 볶고 냄비에 물엿, 물, 설탕을 한데 담아서 약한 불에 올려 젓지 말고 끓인다. 도중에 숟가락으로 떠서 찬물에 떨어뜨려 보아 흩어지지 않고 엉겨질 정도까지 끓인다. 흰깨와 검정깨에 더운 설탕물을 넣어 재빨리 버무려서 도마에 참기름을 두르고 놓는다. 밀대에도 기름을 발라서 깨 반죽이 식기 전에 0.7cm 정도의 두께로 민다.

(4) 잣엿강정(백자편)

잣엿강정은 끓인 엿물에 잣을 버무려 반대기를 지어 네모나게 썬 것이다. 재료는 잣 1컵, 물 4큰술, 설탕 ½컵, 물엿 ½컵, 꿀 1큰술, 식용유 적당량이다. 잣은 마른 행주로 비벼서 씻고 고깔을 판다. 냄비에 설탕과 물을 넣어 끓이다가 물엿을 넣어 젓지 말고 서서히 조린다. 조금 덜어서 찬물에 흘려 보아 흩어지지 않고 엉길 정도까지 조린다. 농도가 적당해지면 꿀을 넣어 섞고 불에서 내린다. 그릇에 잣을 담고 더운 엿물을 부어 재빨리 섞어서 기름을 바른 도마에 쏜다. 방망이에도 기름을 발라서 1cm 두께로 편편하게 밀어서 굳힌다. 엿이 거의 굳어지면 가로 2cm, 세로 3cm 정도의 네모로 썰어 시원한 곳에 보관하였다가 쓴다.〈제보자 : 원용문(남) : 서면 상평리 583 양양오색한과〉

7. 음청류 및 주류

음청류란 술 이외의 기호성 음료의 총칭이며 이 단위에서는 주류를 포함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양양군은 풍토가 매우 청명하여 예로부터 깊은 계곡의 맑은 물과 샘물이 양질의 감천수(甘泉水)였으므로 이런 물을 약수라 하여 좋은 음료로 사용할 수 있었다. 이

런 좋은 자연수와 함께 여러 가지 향약재, 식용열매, 꽃과 잎, 과일 등을 달이거나 꿀에 재우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병을 예방하고 추위에는 어한(禦寒)이 되고 여름에는 더위를 이기는 작용을 하였다.

1) 음청류

(1) 감잎차

감나무의 잎을 말려 따뜻한 물을 부어 마시는 차이다. 재료는 썬 감잎 5g, 뜨거운 물 6컵이다.

(2) 당귀차

재료는 귀 5g, 물 5컵, 꿀 3큰술, 잣 약간이다. 당귀를 냄비에 넣고 물을 부어 은근히 달여 밍쳐 그 물을 찻잔에 따른다. 기호에 따라 꿀을 타고 잣을 띄워 마신다.

(3) 둥굴레차

음료수 대용으로 많이 이용하며 강장제 역할을 한다. 재료는 둥굴레 30g, 물 적당량이다. 말린 둥굴레를 깨끗이 씻어 물을 부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여 멍근히 달여 마신다.

(4) 매실차

매실차에 쓰이는 매실은 5월 중순에서 6월 초순 사이에 덜 익은 매실을 이용한다. 재료는 청매실 500g, 설탕 500g이다. 깨끗이 씻은 청매실의 물기를 제거하여 단지에 매실과 설탕을 키크로 넣고 맨 위에 설탕을 충분히 덮는다. 1주일에 한 번 정도 뚜껑을 열어 위아래를 엮어서 고루 설탕물에 잠기도록 하며 약 100일 정도 발효숙성 시킨 후 차로 이용한다.

(5) 모과차

설탕이나 꿀에 재웠다가 차로 마시는 것으로 생것은 냄새가 없으나 재워 두었다가 먹

으면 맛이 달고 향기가 좋다. 재료는 말린 모과 썬 것 ½컵, 대추 8개, 물 7컵, 꿀(설탕) 적당량, 잣 1큰술이다. 모과는 깨끗이 씻은 다음 얇게 저며 썰고 대추는 씻어 분량의 물을 넣어 모과의 향과 맛이 우러나도록 푹 끓인다. 꿀을 섞은 후 잣과 대추채를 띄워 낸다.

(6) 송이버섯차

재료는 송이버섯, 물이다. 송이버섯은 깨끗이 씻어 잘 말려 두었다가 용기에 넣고 물을 부어 은근한 불에 오랫동안 달인 후에 찌꺼기는 체로 걸러내고 입맛에 따라 꿀을 넣어 마신다.

(7) 송이식혜

재료는 송이 20g, 엿기름 3컵, 설탕 2컵, 쌀 2컵, 잣 8개, 물 적당량이다. 마른 송이를 끓인다. 처음 엿기름을 가라앉힌 후 윗물을 받는다. 합하여 설탕을 넣고 끓인다.

(8) 송이수

산송림속에서 채취한 자연송이를 액상으로 추출하여 자연송이의 깊은 맛과 향을 최대한으로 살린 음료로 만든 제품이다. 서늘한 곳 또는 냉장보관한다.〈제보자 : 박영학(남) : 양양읍 포월리 72-5〉

(9) 인진쑥차

재료는 인진쑥, 물이다. 인진쑥은 이른 봄에 뜯어 깨끗한 물에 살짝 삶아 씻어 조금씩 떼어 비닐포장하여 냉동 보관한다. 하루에 쑥 20g, 물 4L를 붓고 약한 불에서 끓여 쑥의 향이 날 정도로 연하게 마신다. 인진쑥은 생명력이 강하여 한 겨울에도 죽지 않아 사철쑥이라고도 한다.〈제보자: 신금순(여, 51세) : 손양면 동호리 ○○Hits집〉

(10) 자연송이추출액

산송림에서 채취한 자연송이를 액상으로 추출하여 자연송이의 깊은 맛과 향을 살려 차(茶)로 개발한 제품이다.〈제보자 : 박영학(남) : 양양읍 포월리 72-5〉

(11) 오색약수

오색약수는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 있는 약수터로 설악산의 최고봉인 대청봉과 그 남쪽 점봉산사이의 깊은 골짜기 개울가의 한 너럭바위 암반에서 약수가 솟아나는데 그 약수를 오색약수라 한다. 오색약수는 조선중기인 1500년경 성국사의 승려가 약수를 발견하고 성국사 후원에 5가지 색의 꽃이 피는 신비한 나무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하며 약수에서 5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오색약수라 불렀다고 한다. 오색약수의 효능은 빈혈, 위장병, 신경통, 기생충구제, 신경쇠약, 피부병 등에 효과가 있고 특히 메밀꽃 피는 가을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특히 이 약수로 밥을 지으면 푸른 빛깔이 돌아 맛이 좋고 식욕을 증진시킨다.

2) 주류

(1) 호박동동주

재료는 늙은 호박 2개, 누룩 1장, 쌀 2되이다. 호박은 껍질을 깎아 속을 빼고 썰어서 삶다가 물이 반으로 줄면 호박건더기를 건져서 체에 내린다. 쌀은 술밥을 찌고 누룩은 가루로 만든다. 재료를 섞어서 삼베보자기에 담는다. 호박 삶은 물을 술독에 붓고 물에 잠기도록 보자기를 매단다. 일주일 후에 발효 후 식혜를 섞는다. <제보자 : 김은순(여) : 서면 오색1리>

(2) 머루주

재료는 머루 1kg, 설탕 200g, 소주 3.6L이다. 말린 머루와 설탕을 용기에 쪼갠 채 워 놓고 하루 정도가 지난 뒤에 소주를 부어 뚜껑을 봉하여 서늘한 곳에 저장한다. 잘 익을 때까지는 6개월 이상 두는데 열매는 다 밑으로 가라앉고 색깔은 진한 홍차색으로 포도주 이상으로 아름다운 술이 된다. 체에 걸러 주둥이가 좁은 병으로 옮기고 찌꺼기에 두 배 정도의 소주를 더 붓고 어둡고 서늘한 곳에 1년 이상 두면 오래될수록 더욱 아름다운 색깔의 머루술을 얻을 수 있다. <제보자 : 탁정희(여, 52세) : 강현면 하북리 507번지 ○○국수>

(3) 솔잎주

재료는 솔잎 2근, 설탕이나 또는 꿀 2근, 소주 4되이다. 깨끗하고 신선한 솔잎을 잘게 썰어서 설탕이나 꿀과 함께 항아리에 넣고 소주를 부어 밀봉하여 40여 일을 저장한다. 효능으로 옛날에는 불로장생주라 하였으며 허리와 사지가 저리고 아픈 것을 치료해주며 고혈압에도 특효가 있다. 또한 신장을 튼튼하게 하여 양기를 보호해 준다.〈제보자 : 이순옥(여, 62세) : 서면 오색리 ○○식당〉

(4) 송이주

자연산 송이를 원료로 하여 저온 장기 발효하여 송이의 향취를 음미하며 저도수이므로 거부감이 없고 두통과 숙취가 없다.〈제보자 : 김광희(남) : 강현면 방축리 144〉

(5) 송이동동주

100% 순수발효주이며 본래의 구수하고 깔끔한 맛과 자연송이의 독특한 향을 느끼며 쌀가루가 뜨지 않고 저온에서 숙성시켜 깊은 맛이 난다.〈제보자 : 김광희(남) : 강현면 방축리 144〉

(6) 음양곽주

재료는 음양곽(삼지구엽초) 100g, 소주 1.8L이다. 삼지구엽초는 씻지 말고 물기 없이 병에 넣고 적량의 소주를 붓는다. 젖은 재료는 숙성 과정에서 부패할 우려가 있으므로 마른 상태의 삼지구엽초를 사용한다. 공기의 접촉을 차단하고 밀봉을 잘하기 위해 용기는 입구가 작은 것을 선택한다. 뚜껑을 잘 닫아 공기와 완전히 밀폐시키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제보자 : 이순옥(여, 62세) : 서면 오색리 ○○식당〉

(7) 초피주

재료는 멍쌀 4kg, 찰쌀 5kg, 누룩 5ℓ, 엿기름 1.5kg, 초피잎 80g이다. 쌀을 8시간 정도 물에 불린 후 뿔아서 죽을 쑀어 엿기름을 넣고 식힌 것을 강한 불에서 끓인다. 오지항아리에 끓인 물을 붓고 잘 식힌 후 찰쌀밥과 누룩, 초피를 잘 버무려 자루에 넣어

항아리를 밀봉하여 28~29℃ 정도에서 발효시킨다. 완성된 술은 15일 정도 찬 곳에서 숙성시킨다.〈제보자 : 김은순(여) : 서면 오색1리〉

(8) 해양심층수송이주

송이발효주로서 모든 물을 해양심층수로 대체하여 차별화하였으며 해양심층수는 수심 200m 깊은 물로 해양식물의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염류가 풍부하고 미네랄균형성이 양호한 해수자원이다.〈제보자 : 김광희(남) : 강현면 방축리 144〉

8. 의례음식

1) 제사음식

제사란 돌아가신 조상을 추모하고 그 은혜에 대한 보은과 감사를 나타내는 예절이다. 제사는 지방과 계층에 따라 또 집안마다 제사를 지내는 격식은 다양하나 그 근본정신은 조상에 대한 공경을 실천하는 것이다.

과실은 전통적으로 쓰는 과일은 대추, 감, 배 밤이며 그 밖에 계절에 따라 준비한다. 포(脯)는 마른 문어나 오징어, 북어포, 대구포 중에서 선택한다. 나물(숙채 : 熟菜)은 익힌 채소로 한 접시에 고사리, 시금치, 도라지, 무채 등 삼색나물을 곁들여 담는다. 특히, 무채를 끓일 때 송이버섯을 통으로 넣어 끓인 후 찢어서 무채에 섞어 사용하고 송이가 없을 때는 대신 능이버섯을 사용하였다. 추석에는 주로 박이나 송이버섯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그 맛 또한 일품이다. 어물은 명태, 가자미, 열기는 한 접시에 담고 문어는 따로 다른 접시에 담아 올렸다. 구이(적찰)는 쇠고기 등심으로 산적을 하고 편육을 만들어 덩어리째 올리기도 한다. 부침(전煎) 및 튀김은 기름에 부치거나 튀긴 것으로 육전(肉煎)과 어전(魚煎)이 있다. 육전은 고기를 썰거나 다져서 완자를 만들어 달걀을 묻혀 기름에 부치고 어전은 생선에 달걀에 무쳐 기름에 지진 것이다. 떡(편片, 餠)은 제사의 떡은 현란한 색깔을 피하고 흰떡이나 껌질을 벗긴 팔고물을 묻혀 쓴다. 절편을 맨 밑에 놓

고 그 위에 미지떡을 얹은 후 기정을 맨 위에 올려 담는다. 밥(반飯)은 제삿밥으로 신위의 수대로 주발식기에 수북이 담는다. 설 차례 때는 메 대신 떡국을, 추석 차례는 메 대신 송편을 올린다. 탕(찌개湯)은 어탕, 육탕, 소탕 등 3탕을 올렸으나 요즘에는 단탕(單湯))으로 혼합하여 쓴다. 명태탕, 육고기탕 대신 도치탕을 쓰기도 한다. 국(羹羹)은 쇠고기와 무를 네모나게 납작하게 썰어 끓인 국으로 주발에 담고 뚜껑을 덮는다. 김치(침채 沈菜)는 고춧가루를 쓰지 않고 희게 담은 나박김치를 보시기에 담아 쓴다.〈제보자 : 원화자(여, 50세) : 현남면 지경리 1반〉

2) 폐백음식

폐백은 며느리가 시부모님과 친척 어른들께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예절이다. 대추는 붉은 색으로 부지런함을 의미하며 밤은 부모님을 공경해 모시라는 의미가 있다. 대추와 밤을 같이 고이는데 대추는 가운데에 꿰고 밤은 생울을 쳐서 가장자리로 돌려가며 끈다. 닭은 통닭의 배를 갈라 넓적하게 펴고 다리 쪽지를 붙인 채 목을 세워 찢 다음 위에 다 대추, 밤, 파슬리 색실(청, 홍)을 올려 장식한다. 육포는 시어머니의 치마폭을 상징하며 치마폭으로 며느리의 흥취물을 덮어주겠다는 뜻이다. 또한 육포를 받은 며느리는 “한결같이 정성을 다 해 모시겠습니다”라는 맹세를 나타낸다. 구절판은 동양인에게 9라는 숫자는 완전함과 충만함의 상징이다. 여자가 시집가서 병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을 잘 지내라는 상징성이 들어 있다. 내용으로 호두, 은행, 잣, 건시, 건정과(생강, 연근, 당근 등), 건오징어 등을 안주감으로 사용하고 있다. 강정고임(과줄, 강정), 과일고임(사과, 배, 바나나), 정종, 삶은 문어 등을 올린다.〈제보자 : 정경순(여, 62세) : 양양읍 남문4리 ○○청과〉

3) 이바지음식

이바지음식이란 오늘날에 와서 사돈과의 정을 나누는 인사의 의미가 있으며 이바지란 말의 어원은 ‘정성들여 음식을 준비하다’라는 의미의 ‘이바지하’에서 온 것으로 정

성스런 음식으로 시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시겠다는 의미가 있다. 정해진 것은 아니며 요즘 기본 구성은 떡, 갈비, 전 세 가지이다. 양양지역에서는 양양송천떡이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어 이바지음식으로 찰뭉생이떡 1바구니, 약식 1바구니, 인절미 1바구니, 문어, 쇠고기 등심 및 갈비, 과일, 한과 중에서 몇 가지를 선택하여 한다. 이바지음식을 보내는 시기는 신혼여행 후 신부댁에서 하룻밤을 묵고 시댁에 갈 때 가져가는 것이 전통방식이지만 최근에는 예식 전날 또는 예식 당일 날에 보내드려 잔치음식으로 나누어 드시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제보자 : 정경순(여, 62세 : 남문4리 시장상가 내 ○○청과), 박희순(여, 63세 : 서면 송천리 1번)〉

9. 특산물

1) 양양송이버섯

양양송이버섯은 소나무의 정기가 배어 있고 독이 없으며 향기가 좋아 버섯 중에 으뜸으로 ‘신비의 영물’이라 불리고 있다. 양양송이버섯은 20~60년 된 소나무에만 발생하며 한 번 난 자리에는 다시 나지 않는다. 땅속 온도가 5~7일간 섭씨 19° 이하로 지속되어야 자랄 수 있으므로 주로 가을에만 채취할 수 있으며 생장기에는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어야만 한다. 즉 매년 그 해 기온, 습도의 여부에 따라 생산량이 달라질 만큼 환경에 민감하여 아직까지 인공재배가 불가능한 100% 자연산이다. 특히, 양양송이버섯은 수분 함량이 낮아 육질이 단단하고 두터울 뿐만 아니라 향이 진하며 단백질과 비타민 등의 영양이 풍부한 고단백 저칼로리의 건강식품이다. 편도선, 유선염, 탈하증 및 각종 성인병에 약효가 있어 세계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고 있다.

송이버섯의 저장법은 수분함량이 50~60%일 때 1분에 70~75회 숨을 쉬기 때문에 공기를 차단해 습도를 유지해 주어야 신선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할 수 있다. 송이를 물에 씻지 말고 한지나 신문지에 하나씩 포장하여 랩이나 비닐에 싸서 진공포장한 뒤 영하 30° 이상으로 급냉시켜 냉장실에 보관한다. 요리할 때는 진공상태로 물에 담가 녹인다.

송이버섯은 발아한 뒤 신선한 상태로 길이가 8cm 이상으로 갓이 퍼지지 않고 자루

굵기가 균일한 것이 1등급이며, 길이가 6~8cm이며 갓이 1/3 가량 퍼진 것이 2등급, 길이 6cm 미만이며 길이 1/3 이상 퍼진 것이 3등급이다.

〈제보자 : 김춘호(남, 양양읍 포월리 257-1), 박영학(남, 양양읍 포월리 72-5), 김광희(남, 강현면 방축리 144), 박소연(여, 서면 오색1리 22-2)〉

2) 연어, 은어

연어(*Oncorhynchus keta*)는 북태평양에서 치열하게 성장하고 동해의 아련한 고향 냄새를 찾아 태어난 곳 양양 남대천으로 돌아온다. 회귀본능을 가진 연어는 수많은 역경을 헤치고 남대천에 이르러 알을 낳고 삶을 마감한다. 연어는 일생 한 번 산란하고 죽으며 치어는 바다로 내려간 후 2~5년 만에 성숙하여 성어가 되어 산란 차 회귀한다. 우리나라 하천을 찾는 연어 70% 이상이 양양 남대천으로 모천회귀하며 어린연어도 70% 이상이 남대천에서 바다로 가고 있다. 산란기가 되면 혼인색을 나타내고 먹이도 먹지 않으며 수컷은 양턱 앞끝이 돌출되어 구부러진다. 태평양연어의 연어의 종류는 7종이 있으나 우리나라 동해하천으로 소상하는 연어는 연어와 시마연어 2종뿐이다. 그리고 암컷이 수컷보다 조금 크다.

3) 토종 양봉꿀

원시림 지역인 양양에서 생산된 토종꿀은 양양군에서 입회하여 밀봉하고 군에서 봉인하는 품질이 보증된 것으로 국내 최고 품질을 자랑한다. 4월부터 시작하여 층층나무, 엄나무, 피나무, 어린 밤나무 등의 나무와 심신유곡에서 자라는 온갖 약초의 꿀로 이루어져 있어 맛이 진하고 몸에 좋다.

4) 장뇌삼

깊은 산속 그늘진 박달나무와 옷나무의 습한 곳에서 자라며, 일반적으로 야생 삼의 종자를 뿌려도 싹이 잘 나지 않는 희귀종이며 항암, 항당뇨작용, 심장강화, 간기능 강화, 위장기능강화, 스트레스 해소 및 강장효과, 빈혈효과, 허약체질 개선 등에 효능이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5) 인진쑥

인진쑥은 국화과에 속하는 다년생쑥으로 남설악의 산간구릉지에서 자생한다. 이 지역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봄과 여름에 식욕이 떨어지고 피로가 잦을 때 특히 황달 증세가 나타날 때 쑥을 가마솥에 넣어 달여서 고약처럼 만들어 먹기도 하고 냉이 심한 부인네들은 차로 만들어 마시기도 하였다고 한다. 현대적인 시설에서 정성들여 만든 인진쑥은 카필린, 시네올, 비타민 등이 함유된 건강식품으로 이뇨, 이담, 해열, 황달, 간염, 지방간, 간경화, 여성냉대하, 암세포를 억제하는 효능이 뛰어나다. 제품으로 인진쑥환과 인진쑥엿, 인진쑥차 등을 제조하여 판매한다.

6) 낙산배

낙산배는 조선 성종조에 재래종 황실리 품종이 낙산사 주변에 재배되면서 조정에 진상될 정도로 맛이 좋아 주요과수로 지정되어 낙산배라 불리게 되었다. 당도가 높고 알이 굵으며 수분이 많아 맛이 매우 우수하다. 옛부터 낙산사에 관광 온 사람이 이것을 먹고 가지 않으면 헛구경을 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명하며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아 농가소득에 일익을 담당한다.

7) 양양표고버섯

표고버섯은 우리나라, 중국, 일본에서 생산되는 동양의 특산물로 대체로 참나무류에서 기생하므로 참나무, 상수리나무 등에 종균을 접종하여 재배하고 있다. 특히 양양표고버섯은 영동지방의 독특한 기후의 영향으로 수확철에 부는 해풍과 청정환경에서 생산되어 우수한 화고 형성율이 높으며 육질이 두껍고 맛과 향이 뛰어나다. 마른표고가 생표고보다 맛과 향기, 영양가에서 우수하며, 표고는 감기의 묘약으로 알려져 있고, 항암물질 및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의 예방 치료 효과가 있다.

8) 양양한우

양양은 푸른 산, 맑은 물과 해양성기후의 환경에서 육성한 고품질 한우 개량단지로 명성이 있다. 특히 100% 수소를 거세하고 인진쑥을 먹여 키워 품질의 차별화로 개선하

여 고급육을 브랜드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한우하면 양양 한우라고 할 정도로 육질이 부드럽고 단백하여 맛이 있기로 전국적으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인진쑥 한우는 일반 한우보다 불포화지방산이 많고 육질이 곱고 단백하여 꽃등심으로 씹는 맛이 고소하고 뒷끝이 개운하다

9) 복숭아

알맞은 토양 산도와 충분한 일조량의 유리한 조건으로 재배하여 과육이 연하고 향기가 좋으며 당도가 높다. 비타민A, 펙틴, 유기산 등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으로 면역력을 키워주고 식욕을 돋우어주며 껍질은 해독작용을 해주어 니코틴 등의 독성을 없애 주며 종자는 한방에서 도인(桃仁)이라고 하여 약재로도 쓴다. ‘곰마을’로 불리는 용천리 복숭아 마을이 있는데 해마다 복사꽃 축제가 열려 꽃향기 가득한 소박한 마을 잔치를 경험할 수 있다.

10) 느타리버섯

향기가 좋아서 예부터 식용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각종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항암 및 항균작용이 있는 다당류를 함유하고 있어 건강식품으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양양 느타리버섯은 현대화된 시스템과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청정환경에서 재배하여 풍부한 향과 깊은 맛, 탱탱하고 쫄깃쫄깃한 식감을 자랑하고 있다

11) 쌀해뜨미

농업의 상징이며 민족의 주식으로 국민소득 증가와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소비량이 감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농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천혜의 기후 조건과 맑고 깨끗한 남대천 물이 흐르는 곳에서 재배한 쌀은 색택이 투명하고 충실도가 있어 모양과 크기가 균일하다. 또한 씹히는 질감이 좋고 차지고 기름져 양양의 대표적인 농산물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12) 오색한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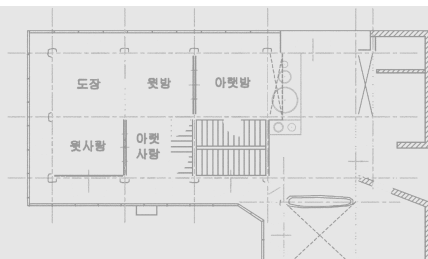
설악산의 맑은 물과 지역농가들이 직접 농사지은 국산원료만을 사용하며 옛 조상들

의 전통방식을 고수하며 어머니들의 손맛 그대로 이어온 10년 전통한과이다. 특징은 방부제나 표백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바삭바삭하고 고소하며 부드러워 한과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다. 종류가 다양하며 생산품은 유과류는 찹쌀연유과, 찹쌀콩유과, 찹쌀썩유과, 인진썩유과, 참깨유과, 흑임자유과, 파래유과, 백년초열매유과, 백년초유과, 들깨유과가 있으며 과줄류는 찹쌀산자, 참깨산자, 흑임지산자가 있다. 엿강정류는 참깨엿강정, 흑임자엿강정, 들깨엿강정, 깨엿강정 등이 있으며 다식류는 쌀다식, 흑임자다식, 콩다식, 백년초다식, 파란콩다식, 송화다식이 있다. 매작과류에는 치자매작과, 청매작과, 백년초매작과, 매작과 등이 있으며 정과류는 도라지정과, 인삼정과와 약과류로 찹쌀약과가 있다. <제보자 : 원용문(남) : 서면 상평리 583 양양오색한과>

집필 : 황재희

참고문헌

- 『송이 · 연어요리 공모수상작』, 2008, 양양군, 6~27쪽.
 『양양, 전통의 맛을 찾아서』, 2008, 양양군 농업기술센터, 6~50쪽.
 『아름다운 양양』, 2009, 양양군, 20~91쪽.
 『자연산 송이요리』, 2008, 양양군, 4~33쪽.
 정재홍, 2003, 『한국의 떡』, 형설출판사, 6~7쪽.
 황재희, 1998, 『향토음식문화』, 강원미디어, 264~317쪽.
 정재홍 외 9인, 2008, 『한국조리』, 형설출판사, 9~17쪽.
 황재희 외 8인, 2003, 『고품격한과와 음청류』, 형설출판사, 76~173쪽.
 강인희 외 6인, 2000, 『한국음식대관』제3권-떡 · 과점 · 음청, 한림출판사, 119~556쪽.
 장지현 외 6인, 2001, 『한국음식대관』제4권-발효 · 저장 · 가공식품, 한림출판사, 104~544쪽.
 양양의 향토음식 개발, 우리네 먹거리, 1998, 양양군 농업기술센터, 10~34쪽.
 이윤희, 2009, 「강원지역 향토음식의 인지도 조사연구」,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조리외식경영학과 석사학위논문, 11~36쪽.



VI. 주생활

주생활의 변천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 시대를 형성하는 사회·문화적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양양군은 근대에 급변하는 문화적 충동에 의해 주거의 형태와 가족구성, 성별에 따라 공간 활용과 주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1. 선사시대 주거지

양양지역의 구석기시대 주거는 도화리 등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큰바위 그늘, 동굴에서 주로 생활하였다. 신석기 시대에 들어와서 땅위에 움을 파고 가운데 화덕을 설치하고 움 위에 나뭇가지를 엮어 풀, 짚으로 지붕을 씌운 수혈주거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오산리 선사유적 등) 점차 지능이 발달하고 수렵과 어로 생활의 채집단계를 벗어나 농경생활이 시작되어 재배경제 단계로 바뀌어가면서 재배 축적된 농작물의 저장시설이 필요하여 창고건물이 주거지인근에 나타났다. 그리고 수확물의 양(量)에 의해 빈부의 차이가 나타나고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발생하여 계층에 따라 주거의 규모와 형태에서 다르게 발전하였다.

1) 신석기 주거

오산리, 송전리, 가평리 등 많은 지역에서 신석기시대 주거지가 산포되고 있으며 오산리 주거지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지상주거지로 알려져 있다. 이 시대에는 원형 혹은 방형의 수혈주거이며 바닥은 진흙을 깔고 취사, 작업을 위한 화덕이 중앙에 주로 있다. 화덕주위에는 저장공이 있고 출입시설이 채광의 기능을 함께 하게 설치되어 있다.

주거지는 대부분 호숫가 낮은 구릉이나 해안가에 주로 많이 분포하고 있다. 수혈주거 내에서 가족이 침식을 같이 하였고 출입구 쪽에는 남성이, 반대쪽에는 여성이 생활을 하였다. 수혈의 형태는 원형에서 장방형으로 변화 하였고 저장공은 점차 줄어들면서 수혈바닥에 얇은 구멍을 파고 큰 항아리를 세우고 격납하게 된다. 이것은 농경이 시작되면서 수확물이 점차 많아지게 되어 창고 건축으로 변모된다.

2) 초기 철기시대

가평리, 송전리, 여운포리 등에서 초기 철기시대 유적이 발굴되고 있으며, 주거지는 완전한 장방형으로 화덕은 중앙에 있지 않고 각각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남녀의 공간, 취사와 생활공간이 점차 구분된 주생활을 하였다. 즉 불의 사용이 많아지며 주생활이 다양화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판자로 벽을 만든 초기 벽체형식이 나타나고 있으며 화덕은 점차 발달하여 부뚜막 자리로 추정된 시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주거지의 형태는 영동지방에 많이 나타나는凸자형 주거지도 발굴되고 있다.(가평리) 부뚜막 시설은 우리나라 주거건축의 가장 큰 특징으로 구분되는 온돌난방으로 점차 진화되어 현재의 난방방식을 후대에 갖추게 된다.

3) 주거 건축의 발달

초기 철기시대 이후 초석을 두고 기둥을 결구하고 지붕을 만드는 방법을 인지하면서 주거 건축은 빠르게 진전하였다. 철기시대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볼 수 있는 누목식 구조의 가옥은 계속 이어져 발전하고 있으며 창고 건축에 많이 나타나는 고상건축은 지금도 농작물 보관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력이 약한 계층에서의 수혈주거는 긴 세월동안 계속하여 존재하였다. 계급에 따른 차이는 국가의 질서를 갖추게 되면서 규모와 형태뿐 아니라 장식과 치장물에 있어서도 현격한 구분을 두었다. 방과 부엌이 기능에 따라 나누어지고 동(棟)의 분리가 있는 지금의 전통주거와 같은 건축은 고려 말에서 조선초기사이에 형성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현재 주거 건축은 조선

시대후기의 것이 대부분이다. 온돌과 마루로 구분되는 전통주거의 특징은 양양지역의 추위와 더위를 고려 할 때 지역이 특징적 요소를 반영하여 겹집형태를 이루었으며 시대에 따라 조금씩 공간과 구조, 재료에 변화를 가져오면서 각 시대의 주생활을 담고 계속 발전되어 왔다.

2. 주택의 구조

1) 개론

선사시대부터 17세기까지의 주거 형식과 주생활에 관한 것은 기록과 유적지, 구술 등을 통하여 일부 실체만 확인 할 수 있을 뿐 전반적인 상황은 학문적으로 규명하기가 어렵다. 우리나라가 특별한 양식을 가지면서 발전한 것은 시기적으로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완성되어지고 건축적 공간이 구성 되고 난 후에 각 지방의 주생활에 독특한 모습을 형성하였다고 추측된다. 현재 양양군에 남아있는 주택이 19세기에서 근·현대에 이르는 건축이 대부분으로 이를 중심으로 주생활에 대한 고찰을 한다.

2) 조선후기 주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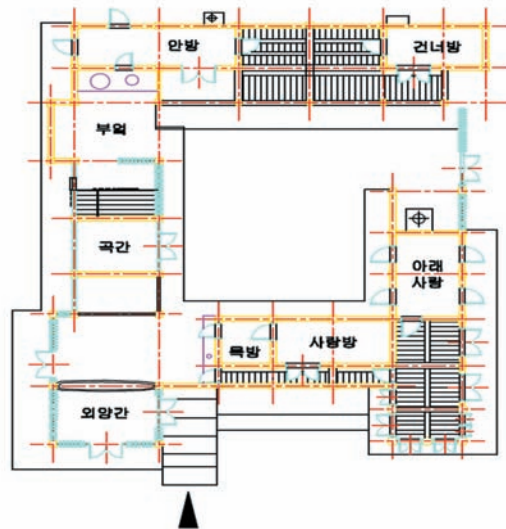
남성중심의 주생활이 강조되면서 주택에서 사랑채 부분이 우월성을 지니는 모습을 갖추게 된다. 넓은 농토를 가진 농민이 나타나고, 상류계층은 혈족(血族) 간에 결속을 다지면서 인근마을에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다. 사당은 결속의 중심이 되고 종가집은 정신적 구심체가 되고 있다. 포매리에 있는 조규승 가옥은 대표적인 사례로 살펴 볼 수 있다. 손님을 접객하는 사랑채는 집안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어 사랑채에서 집의 전면에 돌출하여 누마루 형태를 하고 있다. 사랑방에서는 집안에 드나드는 손님을 모두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집의 전면에 펼쳐진 광활한 경작지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높은 기단을 갖춘 당당한 품격을 보여주며 높이에 변화를 주어 단조로움을 벗어난 형태를 하고 있고 창호의 구성과 주택의 짜임새는 세련미가 있게 조화되고 있다. 집의 뒤

쪽으로는 노송의 숲이 있고 대관령에서 뻗어 나온 당당한 지맥은 이집을 향하고 있어 한눈에 천하의 명당자리임을 알 수 있다. 즉 주생활에서 엄격한 품격과 절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농촌생활을 여유와 즐거움으로 조화 시켜 주생활 공간을 가지고 있다. 또 실내구성에서는 생활의 편의를 중요시하여 사랑채 대청마루에는 섬세하게 문살이 가공된 문을 달아서 외부공간과 구분하여 실내를 아늑하고 유용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안채는 쾌적하고 밝게 꾸며졌으며 정교하게 가공된 가구가 있고, 벽에는 화가의 그림이나 글씨가 벽을 장식하였다. 생활의 편의성을 가진 공간구성과 세련된 치장이 강조되었으나 남·녀에 대한 공간구분은 계속되고 있다.



포매리 조구승 가옥



포매리 조구승 가옥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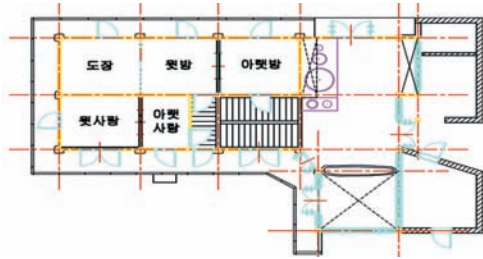
일반서민주거는 양양지역의 추운겨울을 대비하여 ㄱ자 겹집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것은 집안의 경제 규모에 따라서 측면으로 간(間)을 증축하고 있다. 그러나 산간 지방에서는 집의 재료에 있어서 누목식 구조의 너와집, 굴피집이 건축되어 지고 있었을 것이며 때로는 방 + 부엌의 가장 원초적 형태의 가옥도 존재하였다.(양양군 법수치리)

주생활에 있어서 남녀의 공간구분은 사랑방, 안방으로 생활영역이 나누어지고 집안의 출입은 여성은 부엌으로 남성은 사랑방 쪽으로 동선이 만들어졌다. 즉 양반계층의 동(棟)에 의한 구분이 서민계층에서는 칸(間)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유교적 예절과 관습이 서민계층에서도 지켜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양양지역은 양반과 서민 모든 계층에 있어서 산간 해안지역 모든 곳에서 유교적 예절이 절제되어진 주거생활을 하고 있었다.



함창교 가옥



함창교 가옥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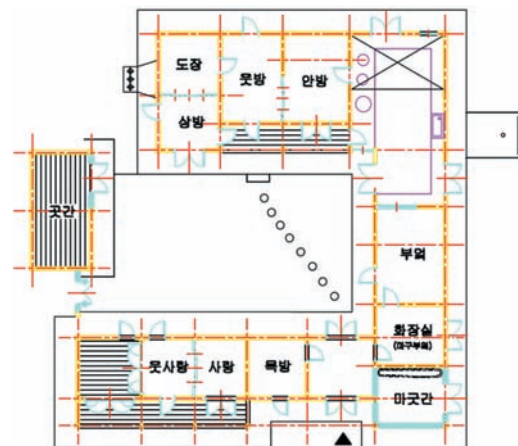
3) 근대화 시기

한일병합을 전·후해 수리사업으로 새로운 넓은 농경지를 확보한 일부 농민들은 경제적인 부를 충분히 가질 수 있었다. 주택은 전통적인 양반 주택의 규범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생활의 편의를 추구한 주택을 건축하였고 혈족마을을 이루었으며 위계질서보다는 마을 공동의 경제활동 또는 생활의 편의가 중시되고 외부에 대하여 주택 전체를 보여주려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서로 간에 비슷한 규모의 비슷한 치장을 한 집들이 군집을 이루며 특별히 영세한 집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미 제도상으로 노비가 존재하지 않으며 소작인 집이나 소위 가람집이 한마을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주택의 전체 규모가 크고, 특히 실내공간의 확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주간이 전보다 넓어지고 개방된 실내가 만들어졌다. 평면 형태는 다양한 방식이 과감히 도입되어 상하 서로 교차된 평면도 나타난다. 아울러 동선상에서는 기능성과 편의가 추구되었고 공간 확장과 함께 벽상부에 교창을 설치하여 실내를 밝게 하고 창호 설치가 확대되었다.



송전리 윤광희 가옥



송전리 윤광희 가옥 평면도

안채에서는 기단을 낮게 하여 출입시 오르내리는데 편리함을 추구하였다. 반면, 사랑채에서는 집의 위세를 높이기 위해 기단을 높이고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부분은 부재도 크게 쓰고 치장을 하였고 아주 큰 대들보를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1920년대 후반에는 일부 부유층을 중심으로 주거의 형식에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 그것은 실내에 긴 복도를 설치하여 안방과 대청마루, 그리고 건너방을 연결하고 복도의 바깥으로는 유리문을 달아 외풍을 막고 대청을 하나의 실내 공간으로 독립성을 주는 것이다. 긴 복도의 사용과 유리창문의 설치는 농촌지역에서 생활의 편리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요인과 전국적으로 당시에 확산된 일본건축의 영향도 함께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읍내를 중심으로 새로운 모습의 집단적 한옥이 건축되어지며 이러한 집들은 네모반듯하게 구획된 대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ㄷ자 혹은 ㄱ자로 평면을 꾸미고 한쪽 면을 도로에 면하게 하고 대문을 만들었다. 즉 기존의 불규칙하고 흙담을 두른 좁은 골목이 구불구불 연속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다. 각 집은 공사비 절감을 위하여 부재를 가늘게 하고 서까래에 부연을 달고 소로를 두어 장식효과를 주었다.

1920년대 이후의 주택은 식민치하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부유한 계층과 농촌의 부호들은 일본 혹은 서양식의 모습이 있는 큰 규모의 한옥에 거주하였으며 일반서민은 경제성이 높고 유지비가 저렴하며 쉽게 건축할 수 있고 목수의 임금이 저렴한 간결한 구조의 전통한옥이 주류였다.

3. 주거내의 생활상

1) 가족 구성의 변화

일제 강점기 후 신생활, 신가정의 등장은 전통적인 가족과 세대 간의 위계질서 보다는 부부관계와 아동의 중요성을 알리는 사생활 단위의 근대적 가족 구성으로 변화를 가져왔다. 유교적 개념의 친족중심 가족제도는 부부와 자녀중심의 소규모 핵가족으로 점

차 진행되었으며 이것은 가족의 규모를 축소하여 핵가족화가 가속되어 값고 양양 읍내를 중심으로 이에 맞는 개량형태의 한옥이 등장하였다.

1970~1980년대 산업화에 따라 직장, 학업을 위하여 주거지를 이동하였고, 또 전통적 효에 대한 가치관이 점차 약화되어 가족의 규모는 축소된 주생활을 하였다. 경제개발 초기에 가족계획 정책으로 급격한 인구증가 억제를 위하여 출산율 저하를 유도한 사회분위기는 주거 생활을 단출하게 하였다. 이러한 핵가족화는 가족 구성원의 개성과 창의성이 존중되고 여성에 대한 지위의 상승과 함께 점차 민주적이고 평등한 새로운 주거 생활이 정착되는 시발점이 되었다. 소득의 증대, 부부와 함께하는 노동, 시간적 여유, 부부의 평등한 생활은 1980년대 이후 주생활의 새로운 생활양식이 되었다.

부부+2자녀의 핵가족과 소득의 증대는 가구의 분화와 증가를 가져와 주택, 특히 아파트의 수요를 선호하게 하였고 가족구성원의 변화에 맞게 주거의 양상을 수용하는 최적의 주거 형태가 되었다. 아파트는 현대생활에 기능적이어서 젊고 지식과 소득이 비교적 높은 세대에 적합한 주생활 형태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특히 여성의 활동이 점차로 많아지면서 비교적 관리하기 쉽고 외부의 침입에 안전한 주거로써 가족 각개인의 사회활동을 보장해 주는 주거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핵가족에 따른 아파트 중심의 생활은 친족의 개념과 어린자녀들에 대한 사회성이 결여되어 자연스러운 집단에 의한 사회 교육이 약화되었고 가정에서는 효에 대한 개념과 위계질서에 의한 흐름에 변화를 가져왔다.

1990년대 이후에 나타난 주거생활의 특이한 점은 가족구성에서 독신가구가 증가하는 것이다. 종래에 부부와 자녀에 의한 가족의 개념에서 개인의 선택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주생활 양식이 나타나고 있다. 즉 부부만 있는 가족 혹은 노인 단독가구, 청년층 단독가구의 일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주거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해안가와 관광 명승지 부근에는 휴양을 위한 펜션 주거와 동호인주택 그리고 고령화 사회를 위한 노인주거시설 등이 건축되고 있다.

2) 남녀의 공간 활용 변화

주거에서의 전통가족 공간은 남녀의 공간구분이 강화되어 안채는 여성의 공간, 사랑채는 남성의 공간으로 성적인 구별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거에서의 위치도 사랑채는 전면으로 안채는 후면에 위치하고 남녀의 출입시선을 막기 위한 내외담도 건축되고 있다. 또한 집안에서의 가사 일은 일의 종류와 행하는 일들이 구분이 되어 있다. 외부의 일과 사랑채에서의 접객 이외에는 거의가 여성의 몫이었다. 집안활동이 많은 여성들에게는 안채와 사랑채 간의 이동, 부엌의 동선 등 주택의 구조에 의한 것이 가사노동의 피로도를 더하였다. 안채에서 여성의 주생활은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이었으며 사랑채에서 남성의 생활은 접객과 독서, 제례였다.

그리고 농촌생활에서는 남녀의 공간이 명확히 구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의 크기를 집안에 확보하지 못하므로 비교적 자유스럽게 여성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즉 사랑방을 제외한 모든 공간은 여성들이 편히 사용할 수 있었다. 주거공간 내에서 취사와 빨래를 위하여 우물, 개울에서 물을 길어 왔고, 마당은 곡식의 수확과 큰일거리를 정돈하는 곳이었으며 광, 곳간, 장독대 등 취사와 집안일을 하는 부속공간은 부엌 동선에 가까이 두어 여성들이 언제나 이용하였다. 이와 같이 여성들이 부엌을 중심으로 하루일과를 대부분 보내는 것은 1960~1970년대까지의 주생활이었다. 여성의 주생활 시간이 가장 많은 전통적 부엌은 지면과의 높이차, 난방방식의 불편함, 주방 설비의 미비함 등은 편리성, 위생성을 추구하는 근대화에 의해 개량되었다. 또한 주생활에서 기능적인 공간 활동을 점차 요구하게 되어 부엌 안에서의 동선 단축, 저장 공간의 부엌으로 진입, 자연채광과 환기의 중요성 등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아직 부엌은 여성들만의 공간인 것이 대부분이었다. 본격적인 부엌개량은 1970~1980년대부터였으며 부엌바닥을 높이고 난방방식을 변화시켜 기능성을 더하였고 식탁의 개념이 부엌에 들어와 밥상을 나르는 노동 없이 등 점차적으로 개선되어 갔다.

식탁이 들어와 식사를 가족과 함께 하면서부터 가정에서의 가부장적 권위와 연장자에 대한 위상은 점차 약화되어 갔다. 식사를 위하여서는 모두가 부엌으로 이동하였으며 방안에 앉아서 밥상을 받는 주거형태는 많이 사라지게 되었다. 식사시간은 여성, 연장

자, 가부장이 모두 모여 한자리에서 같이 모이는 단란의 장소가 되었다. 소득이 증가하면서 주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가전기기를 구입하게 되었고, 좌식생활에서 입식생활로 빠르게 변화되어 갔다. 생활에 편리성을 주는 가전기기는 산업화에 의한 남성의 경제수입에 따른 것이었으며 여성은 집안일을 책임지고 있었다. 부엌공간에 식탁이 배치되어 가족원 모두가 식사준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식사행위는 좀 더 평등하게 되었다. 부엌의 바닥은 거실과 같은 재료로 마감하여 부엌의 비위생적인 공간 개념은 사라지고, 거실, 방과 같은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곳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아파트가 도입되면서 더욱 확실히 인식되었으며 점차 남·녀의 평등 공간이 되어갔다. 지금은 전통 유교교육을 받은 노령화 부부의 생활에서도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위해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찾아오는 자녀들을 위하여 음식을 같이 나누는 것은 일상화된 주거생활이다. 현재 주생활에서는 냉·난방의 자동화,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김치냉장고 등 가사일손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가전제품이 개발되어 여성들이 시간의 여유를 가질 수 있어 남성과 동등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주거 내부가구의 선택과 설치도 이제 여성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주거공간은 여성들의 욕구를 표출하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주방은 가족들의 휴식과 대화의 장소로 인테리어하여 안방, 건넌방 등 모두가 주부의 취향에 맞게 만들어지고 있다.

3) 노령화

전통 주거 공간에서 유교의 도덕적 규범은 세대 간의 질서에 대하여 엄격하여 노인에 대한 예우는 항상 가정에서 최우선이었다. 사랑채에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큰사랑, 작은사랑에 거처하면서 5~6세의 남자아이들의 교육과 손님맞이를 하였다. 안채에는 안방과 건넌방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거주하면서 여자아이들의 생활예절과 가정법칙을 가르쳤다. 부엌살림과 곳간의 통제권에 따라 실질적 안주인이 되었으며 적당한 시기에 다음세대에 대를 이어가며 권한을 양도하였다. 완전히 별채로 떠나 생활하는 경우와 안방에서 함께 기거하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며 거처하는 공간은 주생활의 중심이 되고 공간의 꾸밈도 이에 맞게 하였다. 모든 일상의 대부분은 연장자가 알 수 있게 하였으

며 방안에서의 아랫목에 앉는 위치, 식사 예절시의 밥상받는 것, 식사시작, 반찬 등 모든 것이 연장자 우선이었다.

이러한 원칙은 근대화 이후에도 지속되어져 오고 있으며 주택의 양식이 바뀌어도 노인방은 항상 남쪽에 두었다. 그러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집들은 넓은 도로를



금봉리 낙산사복지재단 상락원

마주하여 사회축 중심으로 배치되고 있고 정자와 우물 등 자연스러운 모임의 장소는 사라지고 마을의 공동체적 공간은 친족중심에서 사회적 공간으로 변화되어 그 자리를 대신하여 마을회관, 노인회관이 있다. 아직도 남아있는 골목길과 정자에서는 노인들 간의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나 지금은 많이 사라지고 공동체적인 공적모임을 노인회관 등 공공장소에서 하고 있다. 집안에서도 경제 활동이 가능한 자식세대가 권한을 가지게 되고 노인들은 부양을 받는 세대가 되어 경제 우선의 시대적 사고 변화에 따라 가족 내에서의 영향력은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또한 다음세대에 대한 교육우선에 따라 아동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여 주거공간에서도 부부와 아동중심으로 공간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여성과 아동중심의 공간이 점점 많이 만들어졌으며 노인의 가족 내 위치는 약화되었다.

산업화와 경제, 자녀우선의 사고방식은 유교교육세대와 주거공간 형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것은 농경위주의 생산체제에서는 농사에 대한 경험이 우선이었으나 새로운 농업기술과 농기계의 보급은 농업생산에 있어 경험과 어른들의 가르침이 더 이상 크게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중심이 농업에서 산업화, 현대화되면서 생계를 위한 수단은 농업이외에 많은 직업을 형성하였고, 집안에서 경제력이 있는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결정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 가족질서와 위계가 흐트러지는 것이었고, 대가족제도가 해체되고 자식들의 분가와 도시로의 이주는 결국 노인세대만 남게 하였다.

지금 농촌의 주생활은 자식들이 떠난 뒤의 노인부부, 혹은 홀로 남은 노인만이 거주하고 있다. 노인이 부양의 대상이 되었으나 노인과 함께 있는 가구는 증가하지 않고, 노인들만 있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가구 중 홀로 사는 단독가구의 비율도 점차 증가

하고 있다. 즉 자녀들이 도시로 경제생활을 위해 떠난 후 빈집을 지키는 노인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시대사조에 맞추어 경제력이 있는 부모세대들은 자녀 세대와 분리하여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것이 상호 편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요즘은 주생활에서 노인들이 스스로 독립하여 생활하는 양상도 있다. 즉 노부부가 적극적으로 제3의 연령기를 가지며 새롭게 주거패턴을 형성하고 있다. 종래 자식들과 함께 거주하였던 넓은 주거공간을 부부만의 편리한 공간으로 만들어 새로운 가구를 형성하고 있다.

4) 아동공간의 중요성

전통주택에서 아이들 방은 따로 두지를 않고 성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성장과정에 따른 교육을 받았다. 남자아이는 유아기에는 어머니와 함께, 동생이 태어나면 할머니 방, 조금 더 성장하면 사랑채에 있는 할아버지 방, 더 성장하면 사랑채 작은방에서 생활을 하였고, 이어서 결혼을 하면 장손의 경우 작은사랑을 가지게 되고 이어서 가계를 잇게 된다. 여자아이의 경우는 유아기 때 어머니, 할머니 방을 거치고 난 후 7~8세가 되면 안채, 작은방이 없으면 할머니 방에서 집안일과 예의범절을 배워 나가는 생활을 하였다. 이러한 것은 조선시대 말까지 상류층 아동들의 주생활 모습이고, 서민계층 아이들은 방치되거나 일찍부터 어른들 노동력의 일부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핵가족화가 되어 아동에 대한 관심이 1970년 말부터 높아지기 시작하여 방의 크기와 면적은 점차 늘어났으며 1980년대부터 새로이 건축되는 주택에서는 농업지역에서라도 자녀들 방에 대한 크기와 위치는 중요한 고려요소였다. 현재는 자녀들이 안방과 거의 같은 크기로 공간을 확장해 가고 있으며 점차 남향으로 배치되고 있다. 이것은 주생활에서 가족의 중심이 자녀들에게로 쏠리고 있으며 부모의 권위와 세대 간 우월성은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점차 강화되는 교육에 대한 압박은 자녀들에게 학업에 필요한 공간은 제공되었으나 가족과의 단란한 주생활, 외부사회 요소와 접촉하면서 보고, 배우는 산지식의 습득 장소로서의 주거기능은 상실하여 단지 학업성취도 기능에 가장 편리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지고 있다. 즉 아동의 주생활은 학습 효과 위주로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다.

4. 주거공간의 변화

1) 기능변화

전통주택에서는 생산과 소비, 개인생활과 사회생활이 모두 주거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일상에 필요한 의·식·주와 유교적 관습에 따른 집안의 큰 의례 행사는 모든 것을 일상생활에서 해결하였다. 방은 생활의 공간으로써 취침, 접객, 세면, 욕아, 식사 등을 행하였고, 마당은 혼례, 상례 등 집안의 큰일을 명석을 깔고 휘장을 치고 행하였다. 이것뿐만 아니라 곡식짚기, 저장식품 만들기, 가축 기르기 등 생산활동을 위한 장소로도 활용되었다. 근대화는 가사노동과 생산노동 등 생활에 필요한 많은 부분을 공장제품으로 구입가능하게 바꾸어 놓았으며 전문성을 갖춘 상점이 등장하여 주거생활의 생산활동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또한 읍내 중심가에 상업공간과 근대화된 거리가 형성되면서 남성들을 중심으로 주거 내에 있는 사회적 활동영역(접객, 사교, 오락, 개인업무)을 이곳으로 옮겨가게 하였다. 그러나 많은 농촌의 가구들은 특별한 날(제사 물품구입, 가족생일 등)을 제외하고는 아직 집안에서 같은 동네주민들과 함께 집안에서 생산 가능한 활동 (김장, 저장식품 만들기 등)과 개인, 사회적 활동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

생활기능의 많은 부분이 주생활에서 외부로 나갔으나 1970년대까지는 아직 주거공간 내에서 집안 큰 행사가 이루어졌고 점차 가정의례 준칙에 의해 제례, 혼례, 상례에 대한 것은 합리적인 간소화를 하여 가족, 이웃 간 공동체적인 주생활 행위들을 주거공간 내에서 외부 사회공간(장례식장, 예식장)으로 변환하였다. 이것은 핵가족화되면서 대가족제도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한가족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웠기 때문 이기도하다. 점차 경제적 여유를 갖게 된 요즘은 가치관과 의식수준이 높아지게 되어 집안에서 다시 제사, 명절, 생일, 손님초대 등을 행하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2) 공간사용

근대화에 의해 조선시대까지 식·침이 분리되지 않고 다용도로 사용되어왔던 안방은 남·녀평등과 근대화된 사고로 인하여 활용도가 높아져 점차 중심으로 이동하고 부엌과의 사이에는 문을 만들어 밥상을 곧바로 방안으로 가져갈 수 있게 기능적으로 하였다. 또한 여성만의 공간에서 점차로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공간으로 변하였다.

사랑방은 주인남자가 거주를 할 때는 남자들의 공간으로 사용되었으나 바깥활동이 많아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손님 접객도 여성의 몫이 되어 사랑방의 기능을 안방이 점차로 대신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읍내를 비롯한 아파트문화가 있는 곳에서는 더욱 발달하여 안방이 침실만의 기능으로 축소되면서 거실에서 손님접대와 가족들이 낮에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 다시 변하게 되었다.

조선시대 마루는 제례; 혼례 등의 행사 때 많이 사용되었고, 평상시에는 여름철 식사와 접객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근대화되면서 상류주택에서는 이곳에 대한 용도가 마루에서 뒤주의 쌀을 가지고 오고 찬장에서 중요한 것들을 가져오는 식사준비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반서민계층은 겹집형태에서 마루가 있는 경우 부엌과 접하여 있어 식사준비공간과 함께 각방의 출입기능, 손님의 접객 등의 간단한 주거생활을 이곳에서 하였다. 또한 수납공간이 부족할 경우 이곳은 중요물품을 쌓아 두기도 하였고 마루 밑의 공간은 겨울철 저장식품을 보관하는 장소로 활용하였다. 근대화는 마루공간을 기능성에 대한 고려를 하게하여 전면에 유리문을 달아 비바람에 안전하게하고 냉·난방을 가능하게 하여 사계절 사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었다. 이후 마루는 냉난방과 함께 벽구조를 보완하여 내부공간에 흡수되어 거실의 기능을 하였다. 요즘은 거실 전면에 큰 유리창이 있어 외부를 조망 할 수 있게 하고 바닥은 패넬히팅(panel heating)을 하여 외부와 독립된 공간을 만들고 의자와 응접세트를 놓아 가족단위와 접객의 공간으로 사계절 사용하고 있다. 즉 마루는 거실의 기능으로 변환되어 종래 사랑방과 안방에서 하였던 주거생활을 다용도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식사공간의 완전한 분리는 1990년대 아파트가 보급되면서 시작되었으며 일반 농촌 주택에서는 부엌을 입식화 하고 식탁

을 두어 분리하였다. 주방이라는 명칭의 공간이 이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부엌은 취사공간, 식당은 식사를 하는 곳이었으며 주방은 이 두 기능을 함께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다. 또한 가족 간의 단란과 대화의 장소로 자리하게 되어 주생활에서 부엌은 여성들만의 개별 공간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내부공간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5. 맺음말

주거는 그 지역의 문화와 사회환경이 어우러져 건축이라는 공간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행위로서 개인과 가족과 이웃이 함께한 경험을 통하여 삶의 질을 표현하고 있다.

이것이 점차 모여 지역과 사회의 시대문화의 원천이 되고 주거문화를 형성하는 것이다. 양양지방은 우리나라에서 선사시대 생활주거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오산리, 가평리 유적 등 중요한 선사시대 유적지를 해안가와 호수 주변 언덕에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동해안 문화흐름과 선사시대 지상가옥의 주생활 문화를 살펴 볼 수 있다. 근대화를 겪으면서 유교적 관습의 전통적 공간에서 벗어나 개인과 단위 가족이 중요시되는 서구문화를 주생활에 받아들이고 있다. 관습과 법칙보다는 안락하고 기능적인 것을 선택하고, 집단보다는 가족을 우선하는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남·녀의 평등공간을 지나 아동이 우선인 주생활 패턴으로 바뀌어가는 가는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할 수 있다.

첫째 공동체 의식의 약화를 가져와 개개인이 중요시되는 독립적 공간을 중요시하고 있어 주거공간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공간은 사라지고 가족을 중요시하는 공간이 점차 확대 되고 있다.

둘째 경제적 관점의 우선은 우리의 전통적인 도덕적 관념의 체계를 무너지게 하고 이웃과의 공통의 장소, 노인의 공간이 사라지게 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셋째 기능성의 추구는 전통주거에서 나타나는 여유와 여백의 주거공간을 편리성과 기능성 위주로 주생활을 하게 하여 기능성을 추구하는 아파트라는 독특한 주거공간이 증가하고 있다. 점차 소득의 증대와 친환경적인 삶을 추구하는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간

성 회복의 주거건축이 점차 증가 할 것이다.

넷째 양양지역은 우리나라 타 지역보다 산업화는 늦게 시작하였으나 근대화는 비교적 빠르게 진행하였다. 이것은 현재 남아있는 근대 한옥이 타 지역보다 많고 규모도 상당히 크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즉 양양은 일찍 근대화된 주거생활이 각 지역에서 고르게 발생하였으며 이것은 농촌주거에서도 빠르게 기능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주거생활은 가족의 진정한 가치를 발산하고 미래의 성장인재를 실질적으로 교육하는 공간이다. 또한 태어나고 노년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다. 지역사회의 뛰어난 문화양식을 담고 있는 양양의 주거생활은 앞으로 계속 성장 발전하여 지역 문화 창달의 가장 중요한 단위공간으로 변화되어 갈 것이다.

집필 : 정재국

참고문헌

- 강영환 집의 사회사<웅진출판 1992>
 김광언 우리생활 100년<현암사 2000>, 방일문화재단 국문학예술총서 16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기문당 2008>
 김홍식 민족 건축론<한길사 1988>
 박영순 우리 옛집 이야기<열화당 1998>
 신영훈 우리한옥<현암사 2006>, 한옥의 향기<대원사 2007>
 이상해 한옥에 살으리랏다<돌베게 2009>
 임석재 한옥전통건축과 동양사상<북하우스 2008>
 주택문화사 한옥의 재발견<주택문화사 2002>
 진남일 외 한국주거의 사회사<돌베게 2005>, 한국주거의 미시사<돌베게 2009>
 장보웅 동서고금의 화장실 문화 이야기<보진재 2001>
 한옥공간연구회 한옥의 공간문화<교문사 2004>
 한필원 한국의 전통마을을 가다 1,2<북로드 2008>
 홍형욱 한국주거사<민음사 1992>

VII. 현대문학의 양상

1. 역사적 배경

예부터 산자수명한 천혜의 자연 속에 위치하여 선사문화를 꽃 피운 유서 깊은 땅으로, 그 지명은 ‘해가 떠오르다’는 ‘해 돋는 고장’을 뜻한다. 지정학적으로 태백산맥의 등줄기가 뻗어 내린 중앙 정동쪽 동해안에 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 험준한 태백 준령이 남으로 뻗으면서 설악산, 오색령, 구룡령, 오대산 등에서 발원하는 크고 작은 구룡과 계곡이 하천과 호수를 이루면서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고고학적으로 백두산에서 생성된 흑요석을 도구로 사용했던 원양양인(原襄陽人)들은 배달민족의 기원을 이루었던 큰 갈래로 유추되기도 한다. 그 같은 고증으로 오산리의 신석기인들은 우리나라 선사문화의 발원으로 알려졌던 시베리아와 연해주 그리고 동해안으로 이어지는 신석기문화보다 무려 1천년 내지 2천년을 앞서 취락을 이루고 약 4500년간 살아온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고전문학사에 있어 조선조 가사문학의 제일인자인 정철(鄭澈), 1536~1593년]은 조선 중기의 인물이다. 돈령부 판관(敦寧府判官) 정유침(鄭維沈)의 아들로, 기대승(奇大升)·김인후(金隣厚)·양응정(梁應鼎)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천부적인 문사이다. 그의 대표 가사인 『관동별곡』에서 낙산 의상대에서 바라보는 동해 일출의 장엄함과 황홀함을 우리는 다음 문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강의 『관동별곡』 중에서

니화(梨花)는 밭서 디고 접동새 슬피 울 제, 낙산(洛山) 동반(東畔)으로 의상대(義相臺)에 올라 안자, 일출(日出)을 보리라. 밤동만 니러하니, 상운(祥雲)이 집피는 동 녹룡(六龍)이 바되는 동, 바다해 떠날 제는 만국(萬國)이 일위더니, 텃둥(天中)의 티뜨니 모발

(毛髮)을 헤리로다. 아마도 널구름 근처의 머물세라. 시선(詩仙) 어데 가고 해타(咳唾)만 나뉘나니. 텃디간(天地間) 장(壯)한 그별 자셔히도 할셔이고. 사양(斜陽) 현산(峴山)의 턱톡을 므니 발와(석양 무렵 현산의 철쭉꽃을 잇달아 밝아)

이처럼 아름답고 빼어난 자연의 풍광은 지역주민의 심성을 다스리고 서정의 발로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특히 낙산 의상대는 고려시대 안축의 경기체가인 『관동별곡』과 정철의 가사작품인 『관동별곡』의 배경의 무대가 되었을 뿐더러 둔전골의 진전사지, 미천골의 선림원지 등 한국불교의 선맥(禪脈)을 짚어보는 바탕이 된다. 이 같은 문화적 유산은 최근에 이르러 백두대간의 두타행 순례 코스로서 그 비경을 보듬은 옛 나그네들의 멋스러운 풍류가 자리한 요산요수(樂山樂水)의 공간임에 틀림이 없다. 한편, 일찍이 중국의 지명인 양양과 연관되지만 진서 열녀전의 ‘작금회문(綴錦回文)’이라는 고사 성어는 진주지사를 지낸 두도와 아내 소혜와의 사연에서 유래된 ‘작금위회문선도시(綴錦爲回文璇圖詩)’로서 ‘훌륭한 문학작품을 비유’ 하는 뜻이다.

관동(關東)이란 지역 개념이나 그 범주에 따른 사전적 의미는 관습상 ‘대관령 동쪽의 땅’으로 통칭되고 있다. 이에 견주어 영동(嶺東)은 ‘강원도 대관령의 동쪽의 땅’이란 협의적 의미로서 관서의 대립 개념으로 상용되어 왔다. 관동이란 지리적 명칭은 어느 특정한 시대의 행정구역상의 지명이 아니라 관동팔경과 연계된 대관령 이동(大關嶺 以東) 즉, 동해안 일대에 이르는 지역을 일컫는 보편성을 의미한다. 이 같은 구성 요소들은 형태와 기능면에서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로서 다른 환경과 구별되는 특성을 나타내며 시간이라는 변화 요소에 의해 발전, 소멸, 대체의 과정을 밟는 유기체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 우리 현대문학사에 있어 신문학기에 『개벽』(1921년)을 통해 문단에 나온 김동명(1900~1968년) 시인이 강릉 출신이라는 점 하나만으로도 강원도 현대시문학은 1920년대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내설악의 오세암에 기거하며 불도에 정진한 만해 한용운(1876~1944년)의 행적은 주목할 일이다. 물론 한용운은 충남의 홍성 출신이지만 그 자신이 동학혁명에 가담하였다가 출가하여 설악산 일대에서 불도를 닦으며 『불교유신론』 등의 집필을 통해 불교 개혁을 부르짖기도 하였다. 3·1운동의 주역을 담당하면서 마침내 백담사에서 민족에게 바치는 시집 『님의 침묵』(1926년)을 간행한 것은 강원시문학의 근간(根幹)에 해당한다. 2000년 이후, <만해사상실천선양회

가 조직되어 해마다 8월에 만해축전을 백담사에서 열고 있다. 1918년 한용운이 발행하여 3집까지 나온 『유심』(1918년)은 강원도를 중심으로 복간하고 있어 강원도와 밀접한 연계성을 맺고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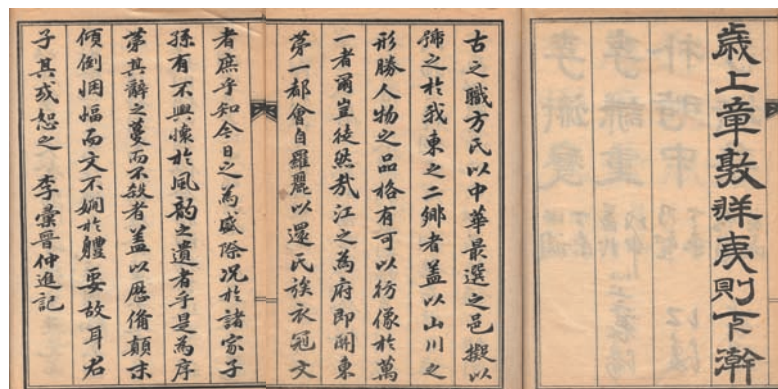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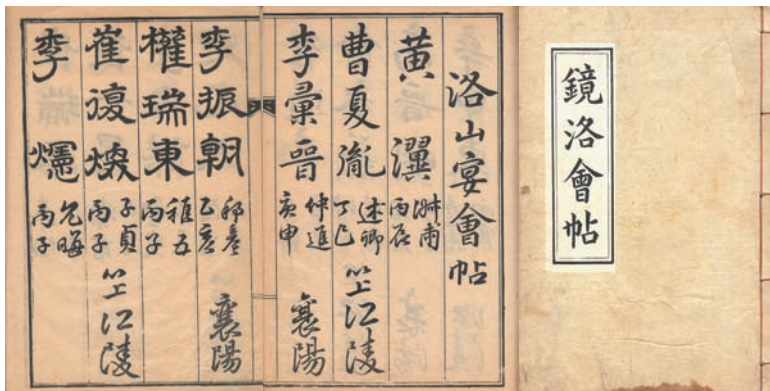
큰 틀에 있어 강원지역 시인의 시편에 다양하게 수용된 시적 특성은 1) 자연과의 친화 또는 순수 서정의 탐구, 2) 사회와 역사적 현실에 대한 관심, 3) 자아와 일상생활의 시적 탐구 등이다. 이 세 가지 경향적 특성은 그대로 현대시의 일반적 특성임은 주지할 바다. 여기서 시의 지역성이라면 강원도적인 것이고 자연과의 친화적이고 향토성, 서정성 등을 더 강조하는 것임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양양지역에 거주하는 문인들은 대체로 아름다운 자연과 낮은 인구밀도 등으로 친화적인 면이 비교적 강하다. 그리하여 소박, 단순, 순수하며 바깥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측면에서 문학적 특성을 ‘은둔과 폐쇄’, ‘소박과 단순’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 점을 유추하면 이지역의 문인들의 문학성은 충분히 다양하고 미래지향적인 가능성을 수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양양지역에 머무는 문인들의 작품성이나 경향을 분석해 보면 풀과 꽃과 나무와 같은 식물성과 산과 강과 바다와 같은 자연의 이미지가 빈도수 높게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인간과 자연 간의 순수한 서정적 교감에 의한 자연에 대한 경이감이 비교적 독자의 관심을 끌고 있는 점이다. 양양지역의 현대문학의 흐름과 사조는 한국사회의 근대화, 산업화, 정보화 과정에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침체된 이 같은 지체 현상은 지역 문단과 시에도 어느 정도 그대로 반영된 점은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지체 현상이 긍정적이고도 부정적인 양면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시의 흐름에 다소 둔감하고 자극이 부족하다는 점이 단점이라면, 시의 사회적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는 전반적 사회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는 여전히 시를 진지하게 대하고 열심히 창작에 몰두하며 서정시의 미적 주권을 차분하게 확장하는 문인으로서의 소임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이것은 문학에 대한 창작 곧 ‘글쓰기’가 비단 양양지역이라는 지역성에 머무는 한정된 작업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편적으로 강원도 문인의 작가적 기질이나 품성은 ‘소박과 단순, 순수와 완고, 은둔과 폐쇄’ 등 긍정과 부정의 양면으로 파악되어진다. 지정학적으로 바로 이 땅은 고려

때는 항몽(抗蒙)의 격전지였으며 임진왜란 때는 왜군에 용감히 항전한 곳으로 한말에는 위정척사운동의 공간으로 항일무장투쟁의 서슬 퍼런 지역이었다. 본 고에서는 고종 31년(1894년)의 갑오경장부터 자주독립 사상의 고취, 신교육의 권장 인습타파 등을 수용하여 개화·계몽사상의 고취를 중시한 신문화가 이 땅을 지배하던 1910년대를 기점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신소설의 개척자 이인직(1863~1919년)이 『만세보』에 <귀의 성>(1907년)과 <치악산>(1908년)을, 또 이해조(1869~1927년)가 <소양정>(1980년)을 발표하였다. 특히 여기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강릉중앙감리교회의 목사였던 노블(W.A. Noble) 선교사가 소설 <순이>(1902년)와 <이화>(1906년)를 발표하여 한국 신문학의 서장을 장식한 점이다. 강원문학을 기술할 때 비교적 강릉지역 문학을 비중 있게 다룰 수밖에 없는 배경은 최근에 발굴된 『예성시고(藥城詩稿)』(1919년)에 서울, 개성, 원산 등 346명 문사의 7언 절구 한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244명이 강릉 출신이었다. 양양과 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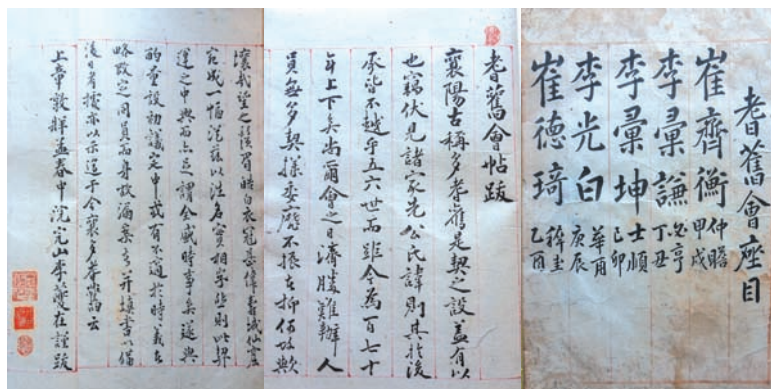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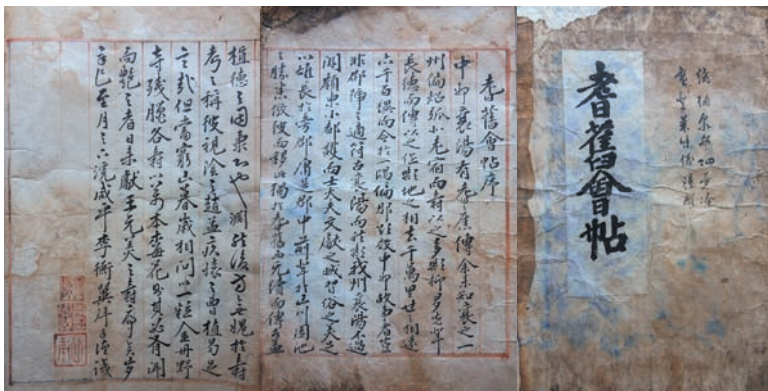
양양·강릉 문인 91명이 영조 26년 경오(1750년)에 조직한 경락회첩



양양의 음사자료

릉의 명사(名士) 91명이 1750년 경락회(鏡洛會)를 조직하여 오늘날까지 그 후손들이 명맥을 이어오고 특히 양양의 문인 명사 30명이 1761년 기구회(耆舊會)를 조직하여 한시문화의 풍류가 면면히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강릉, 양양, 속초, 동해, 삼척, 평창, 정선의 한시인들이 관동팔주한시회(關東八州漢詩會)를 조직하고 매년 10월 윤번제로 ‘관동팔주한시대회’란 제하의 백일장을 개최함으로써 한시문화의 계승은 물론 지역 간의 문화교류를 꾀하여 오던 중 일부지역 음사의 운영난으로 2008년 제27회를 끝으로 중단하였으며, 양양은 8·15광복 이전까지 판교시회(板橋詩會)에 이어 6·25한국전쟁 후 십일시회(十逸詩會：28名)로 재 발기 운영하여 오다가 노령화 회원 감소로 자연 중단되



양양문인 명사 30명이 영조 37년 신사(1761년) 조직한 기구회첩 서문 및 발문

니, 1998년 화정 이시행(華庭 李時行)선생에 의하여 양양음사(襄陽吟社)를 다시 조직개설하고 2001년 사단법인 한국한시협회 양양지회로 등록하여 현재 회장 우천 이종우(又泉 李鍾寓)의 지도하에 23명(名)의 회원이 전국한시백일장(全國漢詩白日場)에 참여하여 전국 한시인들과 교유하면서 한시문화의 계승 발전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현산문화제의 문화행사 일환으로 한시백일장을 주관 개최하고 시집을 발간하고 있다.

한국현대문학의 절정기인 1930년대보다 앞서 ‘파초의 시인’으로 일컬어진 김동명은 『개벽』지를 통해 시단에 데뷔하였으며 일제 강점기의 와중에서 『나의 거문고』(1930년), 『파초』(1938년) 등의 시집을 출간했다. 또한 중국 용정에서 활동한 심연수(1918~1945년) 시인의 문학적 업적은 민족적 비애의 시화(詩化)가 강원문학의 자긍심을 받아시키는 토양이 되었다. 이 무렵 백담사에 은거한 한용운은 『님의 침묵』을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민족에게 바쳤다. 아울러 한국문학사 발전에 크게 기여한 『문장』은 철원 출신의 이태준 소설가가 주도한 업적임을 강원문인들은 반드시 기억하여야 한다.

2. 강원지역 동인지와 양양문학의 출범

앞서 거론한 김동명, 이효석, 김유정, 이태준, 심연수 등은 한국문학사에 빛날 그들의 족적을 남겼지만 안타깝게도 강원문단과 직접 층위를 맺지 못한 활동에 머물렀다. 이 같은 상황에 있어 강원도 현대문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오늘에 이르러 사실상 한국문단의 산증인 격으로 1918년 8월 양양군 도천면 논산리 출생인 황금찬[호 : 후백(后白)] 시인의 역할이다. 그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 다이도오 학원을 중퇴하고, 8·15광복 후 한때 양양지역 학교에서의 교편 생활을 거쳐 1950년대 강릉사범학교와 강릉농업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며 순수문예지인 『문예』(1953년)와 『현대문학』(1956년)을 통해 시로 등단하였다. 특히 암울한 한국 전쟁기인 1951~1952년에도 강원도 최초의 시동인지인 『청포도(靑葡萄)』(1, 2집)를 간행하며 신선한 감동으로 다양한 시세계를 펼쳐 보였다.

그는 첫 시집 『현장』을 간행하면서 한국적 리리시즘의 토착화를 위해 꾸준히 시의 발을 경작하면서 현대시의 풍토를 조성하기에 이르렀다. 이 무렵 춘천·원주 등의 타 지

역의 문인활동은 다소 미온적이었다.

이시기에 『청포도』동인들의 영향에 힘입어 강릉지역에서는 관동문학회(1959. 1.18.)가 창립되었다.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영동(양양 포함)지역에 거주하는 초등교사 중심으로 ‘조약돌만의 독특한 문학적 빛깔을 선언’하며 구성된 조약돌아동문학회(1960.10. 창립)에서 『조약돌』(1963년)을 창간하였다. 한편 양양 인근의 속초에서 설악문우회(1969.10.)가 결성되어 종합문예지 성격의 『갈매』(1970년)를 간행하였다. 비록 1958년 이후 고향인 양양을 떠나 줄곧 서울에 몸담아 온 황금찬 시인은 순수서정이라는 미적 주권을 확립하며 한국문단을 위해 눈부신 활동을 계속하였다. 동성고등학교 국어교사를 거쳐 1981년부터 추계예술학교 강사를 역임하면서 한국 그리스찬 문학가협회 회장과 『심상』주관의 해변시인학교장과 <시마을> 출판대표(1993년)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그는 한국문학에 기여한 공적으로 보관문화훈장(1992년), 대한민국문학부문 문화예술상(1996년) 등을 수상하였고, 시집으로는 음악이 열리는 나무, 『분수(噴水)와 나비』, 『보릿고개』, 『영혼은 잠들지 않고』, 『조국의 흙 한 줌과 아름다운 죽음』, 『고향의 소나무』외 30여 권을 2000년 이후에도 의욕적으로 간행하고 있다.

특히 현대문학사의 격변기를 지나며 강원문학의 산증인 격인 평론가 김영기는 1970년대 이후 “강원의 산하에서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문학정신을 올곧게 신념처럼 지녀 줄 것을 호소하면서” 논의를 거듭했다. 또한 소설가인 서영은, 윤홍렬, 홍성암, 윤후명, 이경자, 박명자, 박용렬, 이성선(작고), 최명길, 이상국, 고흥렬 시인을 포함한 대다수 양양·속초·강릉의 지역의 문인들은 일체감을 다지며 공동체 인식의 소중함을 끈끈하게 확인하였다. 특히, 강원도 고성 출생인 이성선(1941~2001년)은 고려대 농학과 출신으로 『문학비평』(1970년)을 통해 등단하였고 『시문학』(1972년)으로 재추천을 받은 뒤, 귀향하여 영북지역(양양, 속초, 고성)의 중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며 1969년 설악문우회를 결성하고 1981년엔 물소리시낭송회를 창립하는 등 창작과 함께 지역 시문학 활성화에 애정을 기울이며 사실상 문학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1983년에는 『월간문학』을 통해 아동문학가로 활동하고 있는 양양 출신의 고성주가 <나비아 청산가리>를 발표하면서 극작가로도 데뷔하였다. 그는 강릉사범학교와 명지대학을 졸업한 뒤 한국동극작가협회와 한국극작가협회 회장을 두루 역임하였다. 이 보다

10년 남짓한 시간 뒤인 1953년에는 양양 출생의 한상남이 1992년에 『아동문예』로 등단하면서부터 그의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현재는 색동회 구연지도자반 동화제작 강사로 활동하면서 동화집에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 『동화로 엮은 천로역정』 등 30여 권을 줄곧 출간하였으며 월간아동문학 신인상, 색동회어머니 구연대회 금상 등을 수상하기도 한 다채로운 경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1993년 5월 29일에는 속초신협 4층 대회의실에서 물소리시낭송회 100회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날에는 김동규, 고은, 민영, 정진규, 염무웅, 조오현 신홍사 회주 스님 등을 초청하여 문학강연을 열었다. 그 후 물소리시낭송회는 145회까지 개최되었으며 1998년 6월 9일 해체되어 146회부터는 대중과 함께하는 시낭송회로 새롭게 변형되었다.

1996년 12월 19일에는 속초 아남프라자 웨딩홀에서 제135회 물소리시낭송회를 개최하였다. 상임시인인 동로(東老) 이성선, 후산(厚山) 최명길 시인이 참석한 이날의 행사는 근로청소년을 위한 문학의 밤 특별 행사로 마련되었다. 근로청소년들은 무대에서 시를 낭송했으며 초청시인으로 서울의 성찬경, 조영서 시인이 초청되었다. 특히 성찬경 시인은 고구려의 옛 전통 의상을 입고 춤을 추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처럼 물소리시낭송회는 20여 년 간 140여 회의 시낭송 행사를 개최하면서 문학의 불모지인 강원도 영북지역(속초, 고성, 양양)에 문학의 씨를 뿌려 싹틔우고 꽃을 피운 아름다운 모범이 되었다. 회원 출신으로서 등단하여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시인은 9명에 해당되며 4권의 동인지도 발간하였다. 산상시낭송, 해변시낭송, 어린이시낭송, 청소년시낭송, 어머니시낭송, 부부시낭송, 가족시낭송 등 각종 특집 이벤트를 마련하여 침체되어 있던 시낭송회를 활성화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성선 시인의 시집으로는 『시인의 병풍』(1974년), 『하늘 문(門)을 두드리며』(1977년), 『몸은 지상에 묶여도』(1979년), 『뱃줄』(1983년), 『나의 나무가 너의』(1985년), 『별이 비치는 지붕』(1987년), 『별까지 가면 된다』(1988년), 『새벽 꽃향기』(1989년) 등 다수가 있으며, 1996년에는 정지용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그의 대표 시에는 〈나무에게 주는 말〉, 〈달〉 등이 있다.

〈사랑하는 별 하나〉에서

나도 별과 같은 사랑이 될 수 있을까/ 외로워 쳐다보면/ 눈 마주쳐 마음 비춰 주는/ 그런
사랑이 될 수 있을까.//

나도 꽃이 될 수 있을까./ 세상일 괴로워 쓸쓸히 밖으로 나서는 날에/ 가슴에 화안히 안
기어/ 눈물 짓듯 웃어주는 하얀 들꽃이 될 수 있을까//

가슴에 사랑하는 별 하나를 갖고 싶다./ 외로울 때 부르면/ 다가오는 별 하나를 갖고 싶
다// 마음 어두운 밤 깊을수록/ 우러러 쳐다보면/ 반짝이는 그 맑은 눈빛으로 나를 씻어/
길을 비추어 주는 그런 사랑 하나를 갖고 싶다.//

양양문학사를 기술하며 기억하여야 할 인물은 비록 강릉 출신으로 강릉사범학교와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양양, 속초지역에서 초등교사로 활약하며 지역문단
에 기여한 최명길의 존재이다. 그는 1975년 『현대문학』(7월호)에 시 〈해역에 서서〉, 〈
예감의 새〉, 또 12월호에 〈자연 서경〉 외 2편으로 등단하고 첫 시집 『화접사』(1978년)
를 간행하면서 1981년 이성선, 고흥렬 시인과 더불어 ‘물소리시낭송회’를 구성하여 활
동을 시작하였다. 그의 시집으로는 『풀피리 하나만으로』, 『바람 속의 작은 집』, 『반만
울리는 피리』, 『은자(隱者), 물을 건너다』 등이 있다. 그의 대표시 〈은자(隱者), 물을 건
너다〉를 옮겨 본다.

북창을 열어젖뜨리니 왜가리 날고/ 남창을 밀어젖히니 눈이 붉은 짐승들/ 하루 종일 누
운 자리/ 심심해 뜨락에 나가 풀을 뽑다.//

무심히 건너다보는 산밭/ 황혼 불 일고/ 은자(隱者), 물을 건너다.//

한편, 양양지역의 산문(소설)활동이 다소 빈약하여 빛을 발하지 못한 현상에서 양양
출신인 소설가 이경자의 출현은 참으로 신선하다. 1973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 〈
확인〉으로 당선하여 등단한 뒤 한국여성문학(페미니즘)에 획을 긋는 역할을 담당하며
독보적 위상을 확보하기에 이른다. 단편소설집 『꿈추네 사랑』, 『할미소에서 생긴 일』,

『절반의 실패』와 에세이집 『반쪽 어깨에 내리는 비』, 『이경자, 모계 사회를 찾다』, 『딸아, 너는 절반의 실패도 하지마라』, 그리고 장편소설 〈배반의 성(城)〉, 〈사랑과 상처〉, 〈혼자 눈뜨는 아침〉, 〈황홀한 반란〉, 〈정은 늙지도 않아〉, 〈계화(桂花)〉, 〈귀비의 남자〉, 〈빨래터〉 등을 열정적으로 집필하여 간행하였다. 1999년도에는 〈사랑과 상처〉로 제4회 한무숙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이 무렵 다소 생소한 양양 출신의 윤희중이 1995년 6월에 계간지 『자유문학』(1995년 여름호)에 제16회 신인상을 받으면서 시인으로 등단하였다. 현재에도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시집으로는 『어머니, 통일이 늦어지면』 등이 있다.

또한 열악한 가운데서도 149페이지 분량의 양양문학회 동인지인 『양양문학』(1997.10.18.)이 간행된 사실이다. 제1집의 주요 목차는 발간사(송현정 양양문학 회장), 환영사(오인택 군수), 축사(박철수 군의회의장), 격려사(송훈석 국회의원), 초대시(황금찬, 이성교, 신봉승, 민영, 이성선, 이영춘, 이상국, 이언빈, 고흥렬, 박기동)로 분류되어 다루어졌으며, 회원 시에는 김진아(양양읍 송암리), 김은숙(양양읍 성내리), 권정자(양양읍 조산리), 노금희(양양읍 구교리), 방순미(양양읍 월리), 박응남(양양읍 남문리), 송현정(양양읍 남문리), 이상호(양양읍 구교리), 이진주(현남면 하월천리), 임정숙(서울 노원구), 전성호(현남면 북분리), 최숙자(양양읍 연창리), 최복숙(양양읍 남문리), 수필에는 황강연(양양 갈천리), 최숙자, 이진주(현남면 하월천리) 회원의 작품이 각각 수록되었다.

다양하고 폭넓은 양양문학의 토양과 기후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의 공간에 머물며 참으로 오랜 시간동안 문학인식의 쌓기와 허물기를 반복하며 저마다 고뇌하면서도 현실에 안주하기를 거부한 문인들의 남다른 애정은 칭찬할만하다.

1998년 6월 10일에는 양양문학동인지 제2집-『샘물이었음 좋겠네』(김동선 외 11인), 1999년 6월 21일에는 양양문학동인지 제3집-『하얀 감자꽃』(권정자 외 6인), 2002년 6월 26일에는 양양문학 제4집-『처음이던 그 곳』(권정자 외 23인)이 간행되었다.

특히 2002년 5월 1일 『순수문학』을 통해 등단한 최종한 시인은 〈문〉, 〈산다는 것은〉 등 4편의 시를 발표하였으며, 박응남 회장은 책 머리에서 “물이 흘러 바다에 이르기까지 숭한 물길을 트며 때로는 돌 틈에 더러는 늪지에서 꿈을 꾸듯 스미고 용솟음치듯이

회원들 모두가 지난 시간을 함께 걸어왔다. 이번의 동인지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비워 가며 따스한 사랑으로 뜻을 함께 해 보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2002년 5월 3일에는 많은 문인들이 뜻을 모아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1리 256번지 이성선 시인의 생가 터에 시비를 세웠다. 제막식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문인들이 참석하였으며 시비(詩碑)에는 고인의 시 〈미시령 노을〉이 새겨져 있다. 생전에 우리 문단에서 “생태계의 시인”으로 일컬어진 설악산인(雪嶽山人)으로 불려지는 동로(東老) 이성선 시인은 2001년 5월 4일 작고하였으며, 양양문학의 산파역을 담당하였다고 하여도 결코 지나침이 없다.

이와 같이 양양문학 회원들은 다행스럽게도 일상적 삶을 통하여 문화인식의 변화나 고정 관념을 깨는 발상으로 문화의 지역구심주의라는 변화의 틀에서 열악한 현상에서도 보다 눈부시게 펼쳐질 미래에 대한 문화인식과 접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지정학적으로 험준한 지세 때문에 체념하고 인고해 온 미개발의 불리(不利)는 도전과 실험정신 그리고 불타는 열정으로 그 지평을 열어나가야 할 양양문학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양양문학의 보다 밝은 현상은 그 표상의 축적으로 형성될 것이기에 문화충격의 세기를 맞아 미개발과 소외감을 충만한 생명감과 건강한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역동적인 힘과 지혜가 절실히 요청되는 인자(因子)로 인식된다.

3. 전통문화와 양양문학의 현상

사실상 오늘의 양양문학의 산파역은 1997년 3월 19명이 발기대회를 열고 양양지역에 흩어져 있던 이들이 모여 문학회를 출범시킴으로써 지역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양양문학회가 그 발단의 계기가 됐다. 양양문학회의 출범과 함께 현 회장인 박응남 시인이 『순수문학』(3월호)에 〈겨울 산책〉으로 등단했고 1998년 가을에는 송현정 시인이 『시대문학』(가을호)에 〈찾잔 속 이야기〉로 등단하였다. 이어 권정자, 최종한 시인이 잇따라 한국문단에 등단하면서 점차 양양문학회만의 지역성과 문학적 색채가 독자적인 지평을 열어가며 위상을 정립하게 되었다. 다행스럽게도 1997년 10월 18일 양양

문학동인지 제1집인 『양양문학』이 간행되어 회원들이 활발한 창작활동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 동안 회원들이 발표한 시와 수필 소설이 양적으로 많으나 안타깝게도 함께 묶을 발표 지면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차에 지난 2002년 박응남 회장의 첫 개인시집 『꽃바구니에 담긴 사랑』의 출판은 회원들의 창작활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되었다.

2003년에는 정덕수 회원의 제2시집 『한계령 에서-가슴 절절한 그리움으로 부르던 노래』 출간에 이어 제3시집 『다시, 한계령 에서 수채화 같은 삶이기에 비오는 날이면』이 간행된 것이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양양문학회 회원들은 대다수가 소도시 공간에서 삶을 꾸려가면서 여러 형태의 생업에 종사하는 이들인 까닭에 회원들의 작품에는 향토색이 특징적으로 표출되는 편이었다. 따라서 문학에 있어서의 환경, 시대, 종족이라는 조건을 기술하지 아니하더라도 지역민들의 소박한 생활감정은 작품에 수용되어 있다. 때문에 비교적 회원들의 작품에 지역의 산과 들, 바다, 사람, 풀, 돌, 물 등 모든 질료와 서정이 담겨 그 나름의 정신적 풍경화로 채색되었다.

『양양문학』 (제5권) 박응남의 〈수해지구에서 · 3〉에서

몇 몇 해 비바람 잠잠 하드니/ 마을 곳곳 루사의 자취마다/ 흙먼지와 모래는/ 바람의 힘
으로도 이동을 합니다./ 흙먼지 속사람들/ 흐린 눈동자/ 울부짖던 음성들/ 세월 잡이가
눈물겹습니다//

그래도 고마운 것은/ 만나는 옷차림 찌든 모습/ 젖은 눈빛에도 오가는 한 마디/ 하늘을
얻은 듯 환해집니다/ ‘참 고생들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통문화 환경이란, 물리적인 형태와 문화적인 형태가 분명하게 연관된 하나의 지역 또는 경관을 의미한다. 이 같은 구성요소들은 형태와 기능 측면에서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로서 다른 환경과 구별되는 특성을 나타내며 시간이라는 변화 요소에 의해 발전, 소멸, 대체의 과정을 밟는 유기체적인 속성을 지닌다. 다소 침체된 양양문학의 새로운 조성파 변화의 계기를 마련한 것은 양양 출신인 이상국 시인이 『심상』(1976년) 지에 시 〈겨울 추상화〉로 천료한 뒤 민족작가 협회의 주요 멤버로서 활약하며 소통의 역

할을 폭넓게 실행한 일이다. 뒷날에 순수문학지 『유심』(2001년)을 주간하면서 백석문학상, 민족예술상, 유심작품상 등을 다채롭게 수상하였다. 특히 그의 팔목할 시집으로는 『동해별곡(東海別曲)』(1985년), 『내일로 가는 소』(1989년), 『우리는 읊으로 간다』(1992년), 『집은 아직 따뜻하다』(1998년), 『어느 농사꾼의 별에서』(2005년) 등이 있다.

이상국의 <감자떡>

하지가 지나면/ 성한 감자는 장에 나가고/ 다치고 못난 것들은 독에 들어가/ 가을까지
몸을 썩혔다/ 헌 옷 벗듯 껍질을 벗고/ 물에 수십 번 육신을 씻고 나서야/ 그들은 분보다
더 고운 가루가 되는데//

이를테면 그것은 흙의 영혼 같은 것인데//

강선리 늙은 형수님은 아직도/시어머니 제삿날 그걸로 떡을 쳐서/ 우리를 먹이신다//

1999년 10월 16일에 이상국(창립준비위원장) 시인을 중심으로 하여 본부 및 강원지회 회원들이 속초신협 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민족문학작가회의 강원도지회가 출범하였다. 이날 도내 문인 40여 명이 참가하여 표현의 자유와 사회 민주화에 관심을 기울였던 자유실천문인협회의회의 기본 정신을 다짐하며 강원작가협회를 발족시켰다. 1999년 5월 강릉에서 열린 1차 준비위원회를 계기로 연 1회씩 『강원작가』지를 발간하고 강원문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것도 확정하였다. 이 같은 연고로 민족문학작가회의는 지난 2001년 1월 『강원작가』(지회장 이상국) 창간호를 간행하였다. 창간호는 「다시 강원도의 힘으로」라는 부제로 성희직, 이상국, 권혁소 등 회원 25명의 시와 이상인, 이순원, 김도연의 단편소설을 수록하였다. 조오현 신흥사 회주 스님, 이성선 민족문학작가회의 도지회 고문, 박기동, 최명길, 고흥렬 시인 등의 초대시도 권두에 게재했으며, 철원 출신으로 민족문학작가회 고문인 민영 시인의 작품해설과 초대글이 함께 수록되었다.

여기서 도내의 시낭송 관계에 있어 몇 개의 모임이 조직되어 활동하여 왔는데 강릉의 암호동인회가 중심이 된 바다시 낭송회(1979년)와 속초의 물소리 시낭송회(1981년)의 활

동에 힘입어 마침내 1997년 6월에 강원도시낭송가협회가 창립되어 활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1995년 이후 양구문화회에서 도내 출신의 시인들이 대거 참여한 시 문학지 『그해 유월, 잠에서 깨어났다』(2002. 6.)를 출간한 일도 그 나름의 시사적 의미를 지닌다.

2002년 10월 13일에는 양양읍 충용회관에서 (사)한국문인협회 양양지부 창립총회가 양양지역의 문인협회 회원들과 윤홍렬 설악권 원로작가를 비롯하여 신세훈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이진호 양양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그동안 양양지역 문학 발전에 주력한 박응남 시인을 초대 지부장으로 부지부장은 최종한과 최숙자를 사무국장에 최득영을 각각 선출하였다. 1997년 이후 양양지역 문학의 활성화를 위해 양양문화회가 정회원 24명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동인지 간행 및 문학행사가 추진되어 왔으나 이날의 문인협회 양양지부 창립을 계기로 매월 시 합평회는 물론 시화전, 백일장 등 다채로운 문학활동을 통해 양양문학 인구의 저변 확대와 신인 발굴에도 역점을 쏟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문인협회 양양지부 창립의 전신인 양양문화회 당시부터 진행해 왔다. 합평회를 지속적 개최함은 물론 시 부문 활성화에 힘썼다. 한편 소설장르 작가 발굴 등 다양한 문학 장르가 뿌리 내릴 수 있는 문학적 토양을 마련한다는 장기계획도 구체적으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1997년 『순수



황금찬시인 〈별과 물고기〉 시비제막식 광경

문학』을 통해 등단한 박응남 지부장은 물소리시낭송회 회원으로 10년간 활동하며 작품 역량을 키웠으며, 1997년 한국문인협회 강원지부 회원, 2000년 한국문인협회 정회원에 가입하는 등 활동을 펼쳐 왔다. 양양읍에서 ‘한일철물’을 운영하며 생활상의 진솔한 이야기를 시로 표현하던 사상철 시인과의 만남에서 작품활동에 전념하게 되었다.

2004년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한국의 원로시인 황금찬의 고향인 낙산도립 공원 관광안내소 앞 잔디공원에서 그의 대표시 〈별과 물고기〉 시비의 제막식이 거행되었다. 이날의 행사는 문예지 『시인정신』(대표 강옥현)의 모금운동에 의해 추진되었다. 건립된 시비는 길이 3m, 높이 1.2m 크기의 자연석으로, 시비에는 “밤에 눈을 뜬다/ 그리고 호

수 위에/ 내려 앉는다// 물고기들이/ 입을 열고/ 별을 주워 먹는다.”로 시작되는 황금찬 시인의 시가 각인되었다.

2004년 5월 20일에는 지역의 초중고생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현산백일장이 개최되었다. 6월에는 양양에서 오랫동안 창작활동을 한 고 이성선 시인의 생가에서 정례회를 열어 고인이 살아생전에 표현했던 아름다운 생각들을 다시 한 번 기리기도 했다. 양양문화회 회원들은 매월 27일 정기모임을 갖고 회원 간의 문학적 색채와 정보들을 교환하고 있다. 그해 7월 7일에는 강원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응남 회장은 “글이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작업인 것처럼 양양문화회는 지역의 문화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창작을 하기 시작한 박응남, 최숙자, 송현정 등이 주축이 되어 양양문화회를 창립한 이유도 후배들을 양성하고 지역의 문학적 수준을 높이려는 데서 비롯됐다.

2004년 12월 20일에는 아동 문학가이며 아동문학 평론가인 이경이, 유기송의 삽화가 함께 담긴 동화집 『하늘 밑 우리 집』(계수나무, 2004년)을 간행하였다. 작가 자신의 동화처럼 밝고 건강한 꿈을 소박하게 다룬 『하늘 밑 우리 집』을 쓰기 위해 작가 이경은 작품의 배경이 된 가정을 열의를 갖고 여러 해에 걸쳐 취재를 하기도 했다. 그는 1963년 강원도 양양에서 태어나, 서울예술대학에서 문예창작을 공부했으며 1992년에 『아동문학』평론 부분의 신인상을 수상하였고, 또 1994년에는 「문화일보」신춘문예에 동화가 당선되었다. 저서에는 『목련반 아이들』, 『서영이 짝꿍은 ET』, 『물 위의 발레리나 소금쟁이』 등이 있으며 작사한 동요에는 〈라일락은 향기로 말해요〉, 〈인어공주 시집가는 날〉 등 다수가 있다. 현재에도 어린이들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느끼게 하여주는 집필생활에 몰두하고 있는 작가 이경은 현재 문화센터 및 도서관에서 독서와 글쓰기 지도를 병행하고 있다.

2005년 4월 양양 출신인 김정순은 『문예운동』(통권 84호, 겨울호)에 〈새벽〉, 〈등근 발효〉 외 2편의 시가 추천되어 등단을 하였다.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이사장인 성기조 시인은 “김씨의 작품은 놀랄 만큼 세련된 구조를 가지고 적절한 표현으로 주제를 드러냈다. 우리 시가 가져야 할 상상의 세계, 그리고 언어구조와 수사가 알맞게 표현하고 있다.”고 격찬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정순은 양양여고와 관동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춘천

평생교육정보관, 문예창작반원, 두람문학 회원으로 폭넓게 활동하고 있다.

같은 해 9월에 양양 출신인 김귀녀 시인이 월간 『문학세계』(9월호 제134회) 신인문학상을 수상했다. 당선작은 <어머니의 새벽중>, <물새 발자국> 외 7편이다. 현재 인터넷 카페 시인의 향기 운영위원인 김귀녀의 남편(김내식)도 2004년 12월 월간 『문학세계』에서 신인문학상을 받으며 등단하여 시인 부부로 활동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2006년 1월에는 강릉 출신으로 양양문학회 회원인 최숙자 시인이 첫 시집 『내가 강을 건너는 동안』을 간행하였다. 『문학마을』(2004년)을 통해 등단한 최숙자 시인은 15년 동안 창작한 가운데서 선별한 90여 편이 수록되어 있으며 자연의 미감이 눈부신 설악산과 오색령, 낙산사와 물치항으로 대표되는 동해의 아름다운 풍경을 <죽도암>, <나무가 울다>, <과도> 등의 시편에서 담아 잔잔한 어조로 노래하였다.

2006년 4월 30일에는 양양 출신인 최종인(강릉 경포고) 교사가 근간에 민족 시인으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심연수의 시문학에 대해 입체적으로 접근하여 탐색한 평론 『심연수 문학연구』(푸른사상, 2006년)를 출간하였다. 최종인은 저서에서 심연수 시인이 활동했던 1940년대 초반의 국내외 문학적 경향을 고찰하면서 미적 특성과 당시의 간도 문학에 관해서도 깊이 있는 분석을 하여 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는 한국시문학사의 평가를 받았다. 저자는 「심연수 시문학 연구」로 관동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한국시문학회와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6년 5월 4일에는 2006 평화문학축전에서 문학 강연을 담당한 황금찬(89) 시인이 신작 시집 『음악이 열리는 나무』를 펴냈다. 이 시집은 황금찬 시인의 34번째 시집으로 형이상학적 말씀의 세계를 드러내는 시편들이 수록되어 있다. 황금찬 시인은 “음악은 천상의 하모니이고, 말씀은 신성이 내재한 계시적 언어이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여야 한다. 시인들은 성스러움을 ‘높이’가 아니라 ‘깊이’의 차원에서 경험해야 한다.”는 시론을 통해 다시금 교시적 의미를 강조하였다. 2006년 7월 1일에는 양양문학의 정명숙 회원이 계간 문학종합 잡지인 『문학마을』로 시 부문 신인상을 수상하며 등단하였다. 정명숙은 <풍경 · 3>, <나비의 꿈>, <정비소 간다> 외 2편이 당선되어 시인으로 등단했다. 정명숙 시인은 서울 출신으로 춘천 교대를 졸업하고 현재 속초 청대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양양문학’, ‘마음

의 향기’ 동인으로 활동 중이다.

2006년 10월 25일에는 양양군청 로비와 농협중앙회 양양군지부 로비에 총 48점을 시화를 전시하는 양양문학회(회장 : 최종한)가 “수해로 멎든 가슴 시 한 편에 날리세요”라는 주제로 폭풍우로 멎든 지역의 가을을 시화로 감싸며 주민들에게 위안을 주었다. 시화 전시는 10월 22일 종료된 양양언어축제에 맞춰 20여 명의 회원 중 10여 명의 기성문인들이 참가하였으며 양양문학회는 양양군청과 농협군지부에서의 전시 후에 지역 농협과 산림조합 등에서도 10여 일 간의 순회 전시회를 가졌다. 특히 최종한 회장은 “지난 7월의 수해에 연이은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의 정서에 다소의 위안을 마련하기 위해 순회전시회를 열게 됐다.”는 소감을 피력하였다.

11월 6일에는 천년고찰 낙산사의 소식을 전하는 격월간 『낙산사』가 창간되었다. 창간호에는 “천년고찰 불사의 초석을 놓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낙산사 정념 주지의 창간사를 포함하여 산불로 전소되었던 낙산사의 복원과 상심한 범국민의 심회가 어린 글과 사진들이 특집으로 수록하였다. 강원일보 기사를 역임한 문학평론가 이홍섭 시인이 편집주간을 담당하였다. 이번의 격월간지에는 홍창진(천주교 주교회의 종교간 대화위원회 총무) 신부의 <더불어 사는 세상>, 성민 스님의 <불교여행>, 법광 스님의 <죽비소리>, 목수 신영훈(한옥문화원장)의 <우리 건축이야기> 등이 다양하게 목차를 장식하였다. 또 만화가 최영순의 <연재 카툰> 등 불교계 소식뿐 아니라 세상을 들여다보는 따뜻한 코너들도 다루어졌다.

2006년 12월 20일에는 『양양문학』제8집이 간행되었다. 회지에는 김동선의 <벚꽃>, 정명숙의 <정비소 간다>, 김현주의 <인연>, 이명화의 <어느 날>, 정영택의 <작은 연못가> 등의 시편들과 최종한의 <내가 만드는 내 얼굴>, 이순천의 <보따리를 안고 사는 아이 외 1편>의 이라는 수필이 수록되어 있다. 창립 10년을 맞은 양양문학회가 『양양문학』제8집 출판기념회 및 문학의 밤 행사를 2007년 1월 27일 헤밍웨이 레스토랑에서 거행하였다. 양양문학 제8집에는 황금찬, 조규영, 서철수 시인의 초대시가 수록되었으며 새롭게 회원 10여 명이 한국문단에 등단하면서 지역문학 발전에 점차로 기여하게 되었다.

2007년 2월 10일에는 양양 출신인 이경자 소설가가 신작소설 <천개의 아침>을 간행하여 세인의 주목을 받았다. 이미 <절반의 실패>, <혼자 눈 뜨는 아침> 등 묵직한 여성

문제를 다룬 소설을 잇따라 발표해 한국 패니미즘 문학의 지평을 연 작가로 평가받아 왔다. 이경자는 “제 젊은 날의 연애 경험을 소재로 했지요. 내세울 것 없고 열등감에 억눌린 소설 속 주인공을 통해 추웠던 20대의 제 모습을 그려보고 싶었어요”라는 고백과 함께 “30년 전, 동해시에서 겪은 일을 꺼내 1년간의 작업으로 소설을 집필하였다.”고 밝혔다. 이 작품의 배경 무대는 묵호항이다. 아울러 소설가 김형경(강릉 출신)은 “젊음은 누구에게도 아름답거나 충만하지 않다. 오히려 젊음은 우리 모두에게 미숙한 지혜, 불안한 미래, 가난한 일상만을 선사할 뿐이다. 그 시기의 사랑 역시 결핍과 오류와 허상으로 빚어낸다. 훗날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야 우리는 젊은 날 사랑의 이름으로 행한 과오나 악행에 대해 알아차리게 된다.”며 <천개의 아침>에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의 과정이 공감할 만한 서사구도를 통해 묘사되고 있어, 젊은 시절의 자신을 용서하고, 그 시절의 상대방과 화해하고, 사랑의 한 과정을 마무리 짓는 여정이 세밀하면서도 덤덤한 어조로 이야기된다.”고 작품에 대해 평가하기도 하였다.

2007년 7월 7일에는 <제3회 전국시사랑사람들 문학제 장성 축령산 문학축제>에 시 <초승달>을 응모한 최숙자 시인이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였다. 같은 달 18일에는 양양군여성단체협회의 김동선 회장이 월간 『문학공간』(211회 시부문)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등단하였다. 강릉 주문진 출신으로 양양문화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동선 시인은 <꽃과 응시>, <벚꽃·6>, <현불사·1> 등 4편의 시로 신인문학상을 수상하였으며 그의 시적 특이성은 “삶의 현장에서 수시로 접하는 물상을 서정적으로 형상화하는데 몰두하고 사유하는 점이 매력”으로 조명되었다. 김동선 시인은 “뜻하지 않은 당선소식에 기쁨보다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부족하지만 새로운 각오로 공부하는 시인이 되겠으며 평소 격려를 아끼지 않은 양양문화동인과 가족에게 영광을 돌린다.”라는 수상소감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양양 출신으로 현재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는 『문학공간』출신의 추경희 시인이 『밤새 산이 하얗다』라는 시집을 출간하여 문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07년 8월 1일에는 나태주 시인이 한 때나마 양양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며 시 창작 활동에 몸담았던 최명길 시인의 “하늘이 내려와 질끈/ 산의 허리를 타고 앉는다// 사람이 올라가 살짝/ 하늘의 엉덩이를 건드렸다// 처음 보는 꽃이 피어난다/

눈부시다 향기 진동(향기 진동-최명길 시인에게)”이라는 자신의 헌시로 최명길 시인의 시격을 확인시켜주었다. 같은 해 8월 3일부터 양양군 여성회관에서 1개월 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19:30부터 2시간 동안 글쓰기 지도와 시문학을 중심으로 특강을 실시하였다. 양양군 여성회관에서 주관한 문학창작교실은 강릉경찰서에 재직 중인 피기춘 시인의 지도로 행하여졌다. 양양문화원에서도 11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문학적인 요소를 가미한 공예실기 지도도 곁들여 행하여졌다.

2007년 8월 9일에는 한국예술인총연합회의 이성립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 양양군지부가 본회의 123번째 예총지부로 인준되었다. 국악, 문인, 연예, 음악협회의 4개 회원단체로 구성된 양양군예총의 초대 지부장은 최종덕(연예), 사무국장은 이재언이 선출되었다. 양양군지부의 신설로 지역예술문화가 발전되고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이 신장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양양군청 관광문화과에서도 특수시책사업을 행정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그간에 군 당국에서는 지역의 예총이 없어 문예진흥기금 등 지역문화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각종 지원조차 받을 수 없는 실정이었다.

2007년 11월 10일에는 우리나라 페미니즘 문학의 선두 주자격인 양양 출신의 이경자 소설가가 에세이집 『딸아, 너는 절반의 실패도 하지 마라』를 펴내어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공생법을 제시했다. “만국의 여성이여, 단결하라.”를 표방한 그는 제1회 전주 <아시아 · 아프리카 문학축제>에 참가하여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살기”란 주제의 대답에서 ‘한국 드라마 속의 여성상, 양성평등 노력, 문학 내 성적 편견’을 따끔하게 지적하였다.

2008년 6월 4일 양양문화관과 현산공원 남대천 둔치 특설무대에서 제30회 양양 현산문화제 부대 행사로 한시백일장과 양양문학회 주관의 시화전이 치러졌다. 7월 5일에는 종합문예지 월간 『문학공간』(대표 최광호)이 제정해 수여하는 제18회 문학공간상(시 부문)을 추경희 시인이 수상하였다. 문학공간상은 권위 있는 문학지로 전국에서 매년 3명을 선정하는데 이번의 문학공간상에는 시집 『밤새 산이 하얗다』를 간행한 추경희 시인이 수상하였다. 양양 출신의 추경희 시인은 현재 하남시 문인협회 사무국장, 하남문화원 이사를 겸임하고 있으며 대표 시집에는 『밤새 산이 하얗다』, 『하늘 도화지』, 『들꽃 같은 사람』 등 다수가 있다. 최광호 시인은 시집 『밤새 산이 하얗다』에 대해 “삶의 역정에서 우리나라는 인간적 고백이며 그 속에 시화된 자연, 고향, 성찰에 의한 사유 등은 우

리 삶의 진실성을 회복하려는 갈망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극찬하였다.

2008년 12월 6일(토) 17:00에는 (사)한국문인협회 양양지부(지부장 : 최복숙) 주관으로 레스토랑 ‘헤밍웨이’에서 양양문학 제10집 발간기념회 및 시낭송의 밤이 개최되었다. 이명화 회원의 사회로 권정자, 김동선, 김정희, 김양수, 정명숙, 이상호(섹스폰 독주), 정국선, 김은숙, 최숙자, 정영택, 최복숙, 황순희, 송현정, 최종한 회원의 시낭송은 화기애애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같은 달 16일 19:00에는 강릉 경포현대호텔 금강홀에서 이진호 양양군수가 양양 송이축제, 현산문화제 등을 통해 지역 문화의 저변 확대와 발전을 도운 공로로 관동문화회(회장 : 심재교)의 ‘자랑스런 관동문화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양양지역의 문인 다수가 함께 자리한 가운데 수상식이 거행되었다.

2009년 3월 12일 18:30 팔복식당에서 (가칭)푸른 시낭송회 3월 월례회 및 자체의 품평회가 최종한 회장의 주최로 진행되었다. 한편 4월 5일에는 「문학예술 산행」행사가 <이상국과 양양 미천골>을 테마로 치러졌다. 『집은 아직 따뜻하다』(창작과비평사, 1998)에 수록된 이상국 시인의 시에는 강원도의 쓸쓸한 정서가 녹아 있으며 이 시집에는 <미천골과 선림원지>, <남대천>, <샛별(대간령)>, <진전사지>, <건봉사> 등지를 여행하면서 쓰여진 시들이 많다. 시집 중 『선림원지에 가서』는 (<http://www.toursorak.com/cul/cul-123.htm>)에도 전편이 실려 있다.

참고로 『답사여행의 길잡이-동해·설악』(한국문화유산답사회, 돌베개 : ‘양양과 설악’ 편에는 선림원지와 진전사지의 해설이 수록되어 있다. 지극히 향토적인 색채가 강한 이상국 시인에 대하여 이경자 작가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뜻하는 바가 클 것이다. “양양에 가면 설악산과 이상국을 만난다. 이상국은 어쩌면 그리도 의연한 대청봉 같은지. 고향 떠나 서울 객지에서 사는 나 같은 소설가가 그를 보면 언제나 위로를 받는다. 우리가 서구 사조에 의존하고 있을 때 그는 양양의 논밭 고랑에서 한국인의 정신을 다지고 키우고 지켜내고 있었다. 그래서 이상국은 나를 늘 부끄럽게 한다.”

2009년 7월 28일에는 현재 고려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인 이해원 문학평론가가 웹진 『시인광장』(2009년 가을호)에 “조화와 공생, 꿈꾸는 에코페미니즘 문학-자연과 여성의 가치 새롭게 부각시킨 담론, 생태시 통해 대안 찾아”를 발표해 전국의 많은 여

성문인과 독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이해원 교수는 1966년 강원도 양양에서 출생으로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와 동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졸업한 뒤 「한용운 · 김소월 시의 비유구조와 욕망의 존재방식」으로 문학박사 학위 받았다. 그의 저서로는 『현대시의 욕망과 이미지』(시와 시학사), 『세기말의 꿈과 문학』(하늘연못), 『현대시와 비평의 풍경』(월인) 등 다수가 있다. 수상으로는 2003년 김달진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이 논제의 평론에서 배려는 타율적인 윤리이며 친밀감과 접촉감에 기반을 둔다. 이기적이고 경쟁적인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려의 윤리를 인간 삶의 근본적 가치와 생존 전략으로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다음과 주장하고 있다.

“별이 쌀이 될 때까지/ 쌀이 밥이 될 때까지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 무르익고 있습니다”(‘새벽밥’)라는 김승희의 시나, “논에 물을 대주듯/ 상처에 눈물을 대주듯/ 끝모를 바다에 밀을 대주듯/ 한생을 뿌리고 거두어/ 벌린 입에/ 거룩한 밥이 되어준다는 것”(‘세상의 등뼈’)이라는 정끝별의 시에서는 돌봄과 사랑의 원천이 되어주는 ‘거룩한 밥’의 존재를 그리고 있다.

상생의 원리로서의 배려와 사랑은 나날의 실천 속에서 이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메마른 일상에 생기를 부여하는 돌봄과 배려의 자세는 측은지심이나 자비심 같은 높은 도덕률과 상통한다. 그동안 여성적 덕목으로만 여겨졌던 이러한 가치들을 이제는 현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경쟁과 차별로 공멸해가는 현대사회를 공생의 길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능성으로 모색해야 한다. …생략… 개별 주체의 자발적 실천과 함께 열리는 이 상생의 지혜는 경쟁과 차별로 황폐해진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긴요한 대안이다.

2009년 8월 19일에는 문학의 집 서울이 주최한 ‘수요 문학광장’(99회)에서 <내 인생의 소설> 주제의 강연이 있었다. 이날의 강연에서 작가 이경자는 “예술을 하게 된 동기는 예술가마다 다르지만 나는 상처가 예술가의 자궁, 수정체로 생각한다. 특히 48년생으로 내가 태어난 강원도 양양은 38°선이 그어진 가운데로 지나가는 곳이다. 광복과 6·25한국전쟁, 휴전선 수복 지구, 이런 것이 내 문학의 상처이며, 뿌리라”고 역설하여 청중의 호응을 뜨겁게 받았다. 또 하나 괄목할 사항은 같은 해 9월 1일자 『소년문학』(9월호)에 양양 남애초등학교 3학년 최무근의 동시 <자전거>와 5학년 김인철의 <구름>이 게재되어 양양문학의 미래를 밝게 하였다.

2009년 10월 1일에는 최종한(49) 시인이 문예지 『창작21』(제12회 수필 부문)에서 〈남대천과 연어〉, 〈사라진 편지문화〉로 신인상을 수상하며 수필가로 추천을 받았다. 그의 수상작품은 새로운 삶의 소재를 선택해 이를 사회적 안목과 순수한 감성의 틀 안에서 산문구조의 형식을 빌어서 형상화 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다. 강릉대학교 미술학과에서 서양화를 전공하였고 그동안 월간문학지 『순수문학』의 시 부문 추천시인으로 활동하면서 한국문협양양지부장, 양양문화회장, 양양문화원 사무국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양양시낭송회장을 맡고 있다.

같은 달 14일에는 양양 출신의 이일옥 시인이 첫시집 『누란에 기대어』를 출간하였다. 이일옥 시인은 2009년 문학전문지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신인상에 수상하였으며 출간한 시집으로 ‘200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 창작지원금’을 수혜 받았다. 현재 강원서예대전추천작가, 태을서예문인화 대전초대작가로 활동 중이다.

10월 27일에는 『용인문학』(1996년) 회원으로 활동 중인 양양 출신의 이향란 시인이 〈아, 봉숭아만이〉, 〈0번 버스〉, 〈누군가 나의 안부를 묻는다면〉 등의 시편을 발표하였다. 현재 왕성한 시창작의 의욕을 보이는 이향란 시인은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1993년 『자유문학』 신인상을 받으며 등단하였다. 특히 문학성을 인정받은 시집 『안개 詩』, 『슬픔의 속도』 등을 출간한 바 있다. 11월 13일에도 『중년의 사계절(seasons-4)』에 시 〈낙엽이 되어〉, 〈가을 애가(愛歌)〉 등을 발표하며 활동하는 탁정순 시인의 시적 경향은 독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1966년 양양 출생으로 계간문예지 『문학세계』(2005년 가을호)에 시 〈한계령〉, 〈바다의 아침〉, 〈탱자나무 울타리 안에 꽃피는 사랑〉를 발표하며 신인으로 등단하였다.

4. 양양문학의 미래와 인식의 변형

강원도가 독자적으로 지니고 있는 지리적 환경과 겪어온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강원문인의 사상과 인성으로 형성된 삶의 방식에 대한 대외지향적인 당당함과 주체의식을 확고하게 다지는 강원문화 정책성 확립은 더없이 막중한 작업이다. 정체성(正體性,

Identity)이란, 동일 집단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소속감, 동질감, 자부심의 총체적 개념을 뜻한다. 여기서 강원문화 곧 역사의 정체성이란 면에서 접근할 때, 바로 그것은 양양지역 문인의 생활정서와 뿌리의식(Roots Consciousness)을 근간으로 한 강원도민의 가치, 이익, 미래를 확보하는 의지적 과정의 총체성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일단, 몸담고 있는 공간과 시간대에 관심을 지녀야 할 구성원인 양양문인들은 무한 경쟁이 요구되는 후기산업사회에 있어 한 지역의 특성인 역사와 문화를 근거로 고유성, 문화성, 수월성 등의 측면에서의 특성을 널리 인지시켜야 한다.

양양지역의 현대문학을 기술할 때, 양양출신인 황금찬 시인이 주축을 이루었던 『청포도』동인들의 영향에 힘입어 비로소 강릉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문인 중심의 관동문학회가 창립된(1959. 1.18.) 것은 주지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회원으로 양양·속초지역에 거주하는 권정남, 권정자, 송현정, 최종한, 최숙자, 황강연 등이 동참하고 있다. 양양지역 문학의 기술에 있어 전통(역사)문화 환경이란 물리적인 형태와 문화적인 형태가 분명하게 연관된 지역 또는 경관의 통합으로 해석된다. 이 점은 2008년 12월 22일자 「설악신문」의 <삶 칼럼>에서 중견 시인인 최명길의 다음과 같은 기술에서도 확인된다.

속초문단의 태동은 196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0월 3일 개천절 날에 ‘설악문우회’가 탄생했기 때문이다. ‘설악문우회’는 속초나 고성 양양 쪽에서 제 각각 홀로 시나 소설에 매어달려 그걸까 아닐까 하며 문학을 꿈꾸던 문학청년들의 결집체였다. 설악문우회는 각각의 개인을 글을 등불로 삼아 같은 길로 이끄는 동행자의 도량이요 길잡이 구실을 했다. 이는 곧 글쓰기 전문가라는 조금은 이질적인 한 작은 사회가 속초와 고성 조금 넓게는 영동북부지역에 등장했음을 의미하기도 한 것이었다. 이 말은 이 조금 이질적인 사회의 중심에 글이 놓여 있고 글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트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문화충격이 예상되는 21세기를 맞아 역사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는 ‘강원인의 삶과 문화는 어떠했으며 귀중한 유산 속에 면면히 흐르는 정신은 무엇이며 강원인만이 독자적으로 지니고 있는 차별화 된 문화의 유산이 무엇인가’를 문학적인 면에서 접근하여 검색하는 것은, 개인이 살아온 삶을 확인하는 소중한 정신적 작업이기에 양양문학의 구성원들의 새로운 인식의 변화와 결집이 요청된다.

구체적 실례로 강원도만의 고유하고 풍부한 전통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푸른 숲과 물의 'Image-up'의 전략 수립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다. 이처럼 강원지역에 몸담고 있는 대다수 양양문인들은 공동체 의식의 새로운 문학적 토양의 구축과 함께, 강원도적인 환경문화의 실체와 양양문학의 미래를 예견함으로써 보다 미래지향적인 지역문학의 정체성을 자리매김하여 창조적 정신으로 미래의 시간대를 수용하여야 할 역사적 소임을 지녀야 할 것이다.

양양문학의 발전을 위한 제 방안의 모색 중 제기되는 문제의 양상은 각 지역 단위 문학의 활성화와 새로운 위상 정립을 위한 전망과 과제는 회원 상호간, 그룹과 그룹간의 조직적이면서도 우호적 교류와 관계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만약 지역문학의 존재 양상이 문학의 중개자에 의해 존재한다면 이에 따른 문제점은 어떻게 풀어나가고 도식화 할 것인가? 이 같은 물음에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대두된다. 첫째, 문화의 지역구심주의의 관점에서 동인지나 문학단체의 기관지를 통한 원인의 검색과 확증이다. 둘째, 시낭송회, 시화전, 문학강연 및 세미나의 개최이다. 셋째, 연극과 같은 종합예술의 활성화의 이행이다. 넷째, 작가 자신의 발상의 전환에서 비롯되는 역량의 변화 성장이다. 다섯째, 지역민의 삶과 정서를 담으려는 문인들의 노력이다. 여섯째, 작품으로서의 문학이 대중의 삶과 연계되는 다문화시대의 문화 운동으로 비교적 지역 단위나 문인들 중심으로 간행되는 동인지 증가로의 탈지역화이다.

이같이 예견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일제강점기나 동족상잔의 문화적 말살기를 거쳐 지식·정보화 사회 속에서 우리의 문화를 어떻게 지탱하여 왔으며 피동적·타생적인 문화 속에서 왜곡된 우리의 실상을 확인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올바르게 지니고 문화전승의 자세와 선도적인 창조정신으로 후기산업 사회를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물음 앞에 스스로를 놓아 보는 정신작업이다. 아울러 양양문학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박웅남, 최종한, 송현정, 황강연 등이 2009년 현재 『강원문학』(발행인:최복형), 『관동문학』(발행인:심재교)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진취적·자주적 정신을 가진 지역문인들의 보다 적극적이되 진취적인 참여와 의식의 전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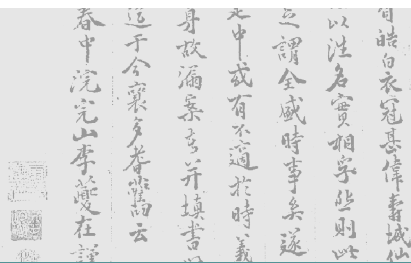
모름지기 지역의 예술문화를 선도해야 할 양양문학의 구성원들은 항상 진실은 갈등과 고뇌 속에서 자리매김을 하기에 지역이라는 제한된 공간에 몸담고 있을지라도 사고

가 열려 있는 식별력을 지닌 문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제의 창의성을 위해 고뇌하는 작가 정신이 눈부신 자이어야 함을 글의 말미에서 부연하면서, 모쪼록 문화의 21세기를 맞아 시적 상상력의 확장과 경영 마인드의 전략 개발은 물론 이거니와 양양문학의 생산적인 작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내적 충만에서 비롯되는 정체성의 확립과 ‘사고(思考)는 행동이라’는 이론의 골격 위에서 비판적이되 총체적 글쓰기 작업을 통해 보다 높은 자유와 꿈과 지성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집필 : 엄창섭

참고문헌

- 황금찬, 『황금찬 시전집』(1-5) (웅성출판사, 1988)
 최승순, 『강원문화론총』(강원대학교 출판부, 1989)
 신봉승, 『관동문학』(아티스트, 1992)
 엄창섭·장정룡, 『강원지역사회문화론』(새문사, 1997)
 신봉승, 『관동문학』(원영출판사, 2004)
 최복형, 『강원문학』(제38) (강원일보사, 2006)
 최영환, 『양양문학』(1집) (도서출판 먼동, 1997)
 최영환, 『양양문학』(2집) (도서출판 먼동, 1998)
 최영환, 『양양문학』(3집) (도서출판 먼동, 1999)
 박응남, 『양양문학』(4집) (도서출판 영하, 2002)
 문협양양지부, 『양양문학』(5집) (도서출판 들꽃, 2003)
 문협양양지부, 『양양문학』(6집) (도서출판 들꽃, 2004)
 문협양양지부, 『양양문학』(7집) (도서출판 들꽃, 2005)
 최종환 외, 『양양문학』(8집) (도서출판 들꽃, 2006)
 문협양양지부, 『양양문학』(9집) (동영기업사, 2007)
 최부순 외, 『양양문학』(10집) (도서출판 현대문예, 2008)
 * 강원일보사, 강원도민일보사 외 일간지 기타.



VIII. 한문학

1. 서론

양양지방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 그리고 문화를 지녔다. 특히, 신라시대부터 불교의 성지(聖地)로, 많은 고승과 화랑들의 순례지였고 중심 수련장이었다. 이런 연유로 우리나라 역대 최고의 문인과 학자들이 풍광이 아름다운 양양과 불교의 성지인 낙산사를 찾아 자신들의 심회를 표현하였다. 그리고 심회를 표현한 문장은 양양의 역사이고 문화가 되었다. 『관동지』의 풍속조에 의하면 양양인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농상(農桑)하기에 힘쓰고 상장(喪葬)에 정성을 다하여 유연(遊宴)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문학을 숭상하고 예의를 존중한다.(무농상 흠상장 희유연 상문학 귀예의 : 務農桑 恤喪葬 喜遊宴 尙文學 貴禮義)”

문학을 숭상하고 예의를 존중하며, 그리고 함께 즐거운 생활을 한다는 역사적인 기록은 양양인의 풍속과 성격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다. 또한 우수한 문화유산 중에 많은 선비들이 찾아 심회를 표현하였던 태평루, 관란정, 강선정, 음성, 동헌, 상운정, 취산루, 서선사, 수산봉수대 등이 소실되어 그 자취를 찾을 수 없다.

양양을 찾은 많은 문인들 중에는 조선조 최고의 문인이었던 김시습은 단종에게 절의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방랑하며 이곳을 자주 찾아 많은 시를 남겼다.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은 자신을 인정해 주고 도와주었던 양양부사 유자한(柳自漢)에게 자신의 생애와 마음을 기록한 서찰을 자주 주고받았다. 그리고 양양에 관한 시에서 이곳의 풍류와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또한 교산(蛟山) 허균(許筠)은 낙산사를 자주 찾았다. 석주에게 보낸 서찰에 의하면

“옛 부임지인 낙산을 찾으니 그 고을의 노인들이 모두 술병과 장작을 가지고 와서 다리를 덮어 주었고, 태수가 또 기생과 풍류로 호사를 베풀어주니 호연히 안석의 동산(중국 동진의 안석이 기생과 함께 술과 안주를 푸짐하게 준비하여 노닐었던 고사)에 노닐던 흥이 있었습니다.”고 하였다. 이 서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파직되어 산수를 유람하던 허균에게 양양 사람들의 변하지 않는 의리와 여유 있고 아름다운 마음을 알 수 있다.

신라는 불교국가로서 불교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전반적인 문제를 주도하는 중심이 되었다. 특히, 불교사원은 단순히 선교만이 아니라 국가와 개인의 문제와 지역적인 문제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므로 위정자들은 불교를 통해 국가통치 이념으로 생각하였고 사원은 신라사회 문화의 중심이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사원은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신앙적인 문제와 함께 그 지역사회의 문제를 수용하면서 민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양양지방은 신라시대 원효, 의상, 도의, 범일 등 당대 최고의 고승과 많은 화랑들이 찾았던 고을이었고 고려시대에는 공민왕과 공주 그리고 신돈과 고려시대 최고의 문인과 학자였던 이첨, 김부의, 안축, 이곡, 김극기, 이규보, 최자, 임춘 등이 찾아 많은 문장을 남겼다. 이 문사들의 문장은 양양을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조선시대에도 많은 문사들이 금강산과 이 곳을 찾아 아름다운 문장을 남겼다.

양양은 산과 바다, 호수, 평야가 신비로운 정도로 아름답고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 이러한 연유로 많은 시인묵객들이 이 곳을 찾아 자연을 벗하며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다. 그러므로 양양의 한문학을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분류하여 그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삼국시대

삼국시대의 문학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신라를 중심으로 고찰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신라는 불교국가로 불교는 정치적인 면에서 국가의 이념으로 신앙의 중심인 사찰은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다. 사찰은 신라문화의 중심으로 그

시대를 주도하며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양양지역은 신라시대부터 변방이었고 고구려와 접경지역으로 군사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었다. 변방이었지만 불교의 성지로 당대 최고의 고승인 의상(義湘), 원효(元曉), 도의(道義), 범일(梵日) 등이 사찰을 건립하여 불교사상을 전파하였다. 낙산사와 진전사는 변방의 접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고려, 조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국불교의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다.

신라시대부터 고승과 화랑들의 순례지였지만 많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삼국유사[권3탐상 제4낙산 이대성 관음정취조신]편에 낙산에 관한 기록은 양양을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낙산(洛山)이란 원래 관음보살이 있다는 서역의 보타낙가산(寶陀洛伽山)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관음보살은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을 치유해 줄 뿐 아니라 모든 중생의 소원을 해결해 주는 보살이다. 낙산의 공간적 배경을 인간의 고통과 슬픔이 없는 세계로 설정하였다. 낙산사는 관음보살이 함께 하는 자비의 도량으로, 이곳과 관계된 의상과 원효는 한국불교를 발전시킨 고승으로, 두 고승의 소중한 만남은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한국불교의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켰지만 신앙적 행태는 달랐다.

원효는 관음보살을 친견하지 못했다. 그것은 신앙적으로 말하면 깨달음이 부족해서이다. 법사가 만난 여인은 모두 관음보살의 화신이다. 원효 같은 고승이 왜 깨닫지 못했는가 하는 문제는 중요한 대목이다. 논에서 벼를 베던 여인에게 벼를 달라고 청하자 여인은 벼가 영글지 않았다고 말하며 거절한다. 농경사회에서 벼는 먹고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양식이었다. 이것을 달라는 상징적인 의미는 문화인류학적으로 본다면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달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속세의 욕망을 끊어야 할 스님에 대한 경계로 보인다.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관음보살을 친견하기에 정성이나 성의가 부족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벼가 익으면 머리를 숙인다는 겸손이 부족했던 불자였다.

다리 밑에서 월수백을 빨고 있는 여인에게 원효가 물을 청하자 여인이 더러운 물을 떠 주자 법사가 옆질러 버리고 다시 깨끗한 냇물을 떠 마신다. 속세의 욕망을 끊어야 할 월수백을 빨고 있는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는 모습에서 법사의 의식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속세의 철없는 행동을 보고 파랑새가 ‘스님 그만 두시오’ 한다. 그리고는 숨어버린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소나무 밑에 신 한 짝이 있었다. 그리고 법사는 절에 이르러 관음보살상의 자리 밑에 전에 보았던 신 한 짝을 보고 비로소 전에 만난 여인이 관음보살의 진신임을 알았다. 법사는 의상이 만났던 장소에서 관음보살의 진용을 친견하려 하였으나 풍량이 심해 보지도 못하고 떠나 버렸다.

이 이야기에서 두 스님의 참모습을 볼 수 있다. 지극한 기도와 불심으로 속세의 욕망을 끊고 불도에 정진했던 의상과 반면에 속세욕망을 끊어야 할 불자가 여인을 보고 희롱하는 모습에서 인간적인 면을 느낄 수 있다.

조신(調信)의 꿈 같이 꿈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은 우리 문학사에서 고대설화에서부터 시가, 수필, 소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표현해 왔다. 꿈을 소재로 한 작품은 민족의식과 관계있는 것으로 꿈의 서사양식은 인도의 불경 『잡보장경』의 「사라나비구」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 작품도 깨달음을 주기 위한 서술로 불경 속에 수록되어 중국의 육조시대나 당대에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는 불경역경사업이 성행하여 당대 소설인 「침중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꿈은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문학사에 자주 등장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조신으로, 이 작품은 우리 소설사에서 최초의 소설로 그 배경을 낙산으로 하고 있는 것은 불교의 성지이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신라말기의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모순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민초들의 의식반영으로 사회전반적인 모순과 현상을 서술하고 있다. 이 작품은 우리 문학사에서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3. 고려시대

신라와 같이 고려에서도 낙산사를 국가가 관심을 갖고 관리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양양도호부 불우 낙산에 의하면 “우리 태조께서 나라를 세우고 춘추로 사자를 보내 3일 동안 재를 설함으로써 치성하였고, 그 후에는 갑령에 적어서 항규로 삼았다. 그리고 수정염주와 여의주는 이 절에 보관해 두어 보물로 전하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고려 태조는 춘추로 사람을 보내 재를 설하였으며 해마다 실시할 것을 갑령으로 향규로 삼아 국가에서 필요한 사원임을 공인하고 있다. 의상이 받은 수정염주와 여의주를 이 절에 보관하여 보물의 가치를 인정하며 낙산사의 존재를 공인하였다.

그리고 고려시대 안축(1282~1348년)은 충숙왕(忠肅王) 때 강릉도(江陵道) 존무사(存撫使)로 파견되었다. 이때 이곳에서 문집인 『관동와주(關東瓦注)』를 남겼고, 경기체가인 「관동별곡(關東別曲)」이 있다. 안축은 강릉도에 존무사로 와서 학교(양양향교)를 설치하여 양양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1) 「관동별곡(關東別曲)」 근재(謹齋) 안축(安軸)

- 생략 - 신선들이 놀았던 선유담, 영랑도 머물렀던 영랑호, 신비하고 맑은 골짜기 속에 연잎인 듯 아름다운 섬, 푸른 옥의 병풍인 듯 둘러 선 산봉우리, 고운 풍경십리에 뻗었네 은은한 향기, 질푸른 나무 숲, 거울 같은 맑은 호수, 아. 배 띄워 노는 광경 그 어떠합니까. 연못에 우거진 순나물 뜯어 끓인 국, 호수에서 잡은 농어로 만 든 회, 은실같은 순채, 눈송이처럼 잘게 저민 고기. 아. 양젖을 어찌 말할 수 있으랴.

설악산의 동쪽, 낙산의 서쪽 양양의 경치 신선이 내려온 강선정, 소나무 늘어선 상운정, 남북으로 마주보고 있네 자주 빛 봉황새 타고 붉은 난새 타고 내려오는 우아한 신선들 아. 붉은 거문고, 다투어 타는 광경 그 어떠합니까 옛 고양 땅 술꾼들, 객사는 목가에 늘어서 있으니 아. 사계절 놀아 봅시다. -생략-

『근재집(謹齋集)』

안축의 「관동별곡」은 우리 문학사에서 중요한 작품으로, 서두에 관동지방의 뛰어난 경치를 이야기 하면서 시작한다. 이른 강원도를 순시하면서 아름다운 경치를 읊은 가사 문학으로서 모두 아홉장으로 되어 있으며 정철(1536~1593년)의 「관동별곡」보다 250년 앞서 창작되었다.

내용은 풍광이 아름다워 신선들이 노닐었다는 양양의 사계절을 즐기고 싶다고 노래하고 있다. 신선이 노닐었던 양양의 자연을 그림처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다. 자연과 풍부한 음식 그리고 배 띄우고 노니는 멋과 풍류는 이 작품을 읽는 우리를 행복하게 한

다. 낙산과 강선정, 상운정의 풍경과 그곳에서 거문고 타며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

2) 낙산 시운을 따라서(次洛山詩韻) 근재(謹齋) 안축(安軸)

부처님은 두루 통하는 경지에 계셔
바닷가 봉우리에 계셨다고 하네
은혜는 감로주와 같이 윤택하고
향은 임금께서 내리신 조서가 있네
사람에 따라 그 모습 늘 나타난다지만
엷히고 혼란한 눈으로는 만나지 못해
부처님 진신이다 아니다 말하지 말게
다만 자비로운 모습에 절하면 되네
『근재집(謹齋集)』

태성원통경(太聖圓通境)
증문해상봉(曾聞海上峰)
은동감로윤(恩同甘露潤)
향유자니봉(香有紫泥封)
수류신상현(隨類身常現)
전미안불봉(纏迷眼不逢)
막론진여가(莫論眞與假)
단자예자용(但自禮慈容)

관음보살의 상주처인 낙산사는 불교의 성지이고 깨달음의 공간이다. 고승인 의상대사가 낙산사에서 관음보살을 친견하고 낙산 바닷가에 절을 건립하였고, 고려의 공민왕과 신돈이 낙산사를 찾아 풍년의 고마움을 감사로 예배드렸다.

많은 스님과 지식인들이 낙산을 찾아 관음보살의 진신을 보고 싶었지만 속세의 번뇌와 욕망으로 친견하지 못하였다. 관음보살을 친견했느냐 못했느냐의 진위여부 문제보다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자비스러운 모습에 예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귀결하고 있다.

3) 낙산사에 있는 관음보살의 복장을 보수한 데 대한 문명송[洛山觀音腹藏修補文 并頌] 삼혹호선생 이규보(三酷好先生 李奎報)

〈원문은 생략하고 다음과 같이 번역문에 이어 운문을 실었음〉

운운. 동해 해변 낙산 위에 한 승지(勝地)가 있는데 청정하여 티끌 한 점 없으니, 수월(水月 : 물속에 비친 달)이 아름다워 이곳에 의탁하였다. 아, 저 완악한 오랑캐는 무지막

심하도다. 그들이 횡행하며 노략질할 적에 심지어 절의 불상까지도 훼손을 입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우리 석가여래의 존구(尊軀)도 또한 그러하여 비록 형체는 겨우 보존되었으나 복중(腹中)의 진장(珍藏)은 모두 수탈당하거나 흩어져서 텅 비었다.

지인(至人)의 경계는 본래 영허(盈虛)·소식(消息)의 이치가 없는데, 금강(金剛)의 진체(眞體)에 어찌 훼손이 있겠는가. 그러나 범부(凡夫)의 보는 바에 있어서는 어찌 상심이 되지 않으랴. 하물며 제자(弟子)로서는 경앙하는 마음이 전부터 간절하였었는데, 이제 복중의 진장이 분산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남보다 배나 가슴 아프게 여기고 동시에 용감히 보수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에 전일의 소장된 것을 참작하여 삼가 심원경(心圓鏡) 2개와 오향(五香)·오약(五藥)·색사(色絲)·금낭(錦囊) 등 여러 가지 물건을 갖추어 복중을 채워서 완전히 복구하여 예전 것과 손색이 없게 하였으니, 바라던 바에 무슨 문제될 게 있겠는가. 운운.

제자는 머리를 조아리고 이마를 두드리며 이어 단송(短頌)으로 다음과 같이 찬(贊)한다.

마침내 헐어버리지 못할 것은	구경부훼(究竟不毀)
금강의 진신이네	금강진신(金剛眞身)
그 밖의 상설이야	외지상설(外之像設)
이루고 허는 일 사람이 하거늘	성훼유인(成毀由人)
사람이 똑같지 않을진대	인비일류(人非一類)
공경하거나 업신여기네	혹경혹모(或敬或侮)
저들은 업신여겨 손상하고	피모이잔(彼侮而殘)
나는 공경하여 보수하네	아경이보(我敬而補)
저 이그러진 달과 같아	여월사결(如月斯缺)
얼마 안 가서 다시 둥글겠네.	미기부전(未幾復全)
모든 사녀(士女)들은	범백사여(凡百士女)
일심으로 돌아가 공경하네	일심귀처(一心歸處)

『동국이상국전집(東國李相國全集)』권제이십오(卷第二十五), 잡저(雜著). 낙산관음복장수보문명송(洛山觀音腹藏修補文并頌) 대최상국행금진양후야(代崔相國行今晉陽侯也).

이규보(1168~1241년)는 우리나라 최고의 문인으로 자신의 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술을 좋아하며 자유분방하게 지냈다. 그의 문학적 재능은 우리 문학사에서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문사(文士)이다. 낙산사에 있는 관음보살의 진신이 거란의 침략으로 크게 훼손

손되었다. 관음상의 형체만 보존되었으나 복중의 귀중한 물건들이 모두 수탈당하여 텅 비어 있었다. 이에 최우의 명에 의하여 완전히 복구하고 이규보로 하여금 복장을 보수하고 보수문을 짓도록 하였다. 이에 이규보가 칭송하며 찬한 것이 이 작품이다.

4) 「동행기(東行記)」 서하(西河) 임춘(林椿)

-생략- 새벽에 마을에서 들려오는 닭소리를 듣고 떠나서 낙산(洛山) 서쪽을 지나는데, 길옆에 외따로 서 있는 소나무가 있었다. 마디와 눈(芽)이 또렷하고 가지와 줄기가 구불구불하여 땅을 덮고 있는데, 그 그늘 주위가 몇 십 보(步)나 되었다. 특이하도다.

소나무로서 이렇게 기괴하게 생긴 것이 세상에 또다시 있을까. 골 안은 깊숙하고 고요하며 구름 어린 물은 흐릿하여 아마도 인간이 사는 곳이 아니요 신선이 거주하던 곳인 듯, 높은 선비의 유적이 완연히 있었다.

나는 옛날 신라(新羅)의 원효(元曉)와 의상(義相) 두 법사가 신선굴 속에서 관음보살을 직접 보았다는 사실을 생각했는데, 스스로 범상한 몸과 속된 정신이라 신선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감을 탄식하였다.

남아 있는 이야기를 물어보려 하였으나 다만 산만 길게 뻗었고, 물만 흐르고 있음을 볼 수 있을 뿐, 수백 년 동안에 옛집과 남은 풍속이 모두 없어졌다. 이에 절구(絶句) 두 편을 지어서 이를 그리워하였다.

일찍이 들었노라 늙은 유마힐거사(불가에 도통한 거사)는

증문거사로유마(曾聞居士老維摩)

지팡이를 휘날리며 허공을 건너서 만리 길을 지나갔다

비석릉공만리과(飛錫凌空萬里過)

별써 문수보살을 보내어 문병하러 왔으니

이견문수래문질(已遣文殊來問疾)

일 없이 비사리(중인도의 지명)를 나오지는 않았으리라

불응무사출비야(不應無事出毘耶)

이것은 원효를 가리킨 것이다.

지팡이를 휘날리며 좋은 곳을 찾아 외로운 바닷가에 이르렀더니

비석심진해안고(飛錫尋眞海岸孤)

묘한 양상 바라보니 허무에서 나왔도다

친침묘상출허무(親瞻妙相出虛無)

대사로 인연하여 신령한 응답을 돌리지 못하였다면 불연대사회령응(不緣大士廻靈應)
어떻게 신통의 진주 한 덩이를 얻어 낼 수 있었으랴 쟁득신통일과주(爭得神龍一顆珠)

이것은 의상(義相)을 가리킨 것이다. -생략-

『동문선(東文選)』권지육십오(卷之六十五), 기(記), 동행기(東行記),

임춘(林椿)의 출생과 사망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다. 고려시대 죽림칠현(竹林七賢)의 한 사람으로, 본관은 예천(醴泉)이고, 자는 기지(耆之), 호는 서하(西河)이다. 무신란 이전에 집안이 모두 귀족사회에서 일정한 정치적·경제적 기반을 지니고 있었다. 나이 20세를 전후한 의종 24년(1170년)에 무신란이 일어나자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출사도 어려웠다. 임춘의 글을 보면 상당히 비판적이고 어려운 현실에 대한 고뇌를 표현하고 있다.

이인로가 그의 문집 서문에 쓴 것에 의하면 “청춘삼십 백의영몰(靑春三十白衣永沒)”이라 하여 30세에 죽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인로·오세재 등과 더불어 죽림고회(竹林高會)에 나가 술을 벗하며 문학을 논하여 고려 중기 문단을 대표하는 문인 중의 한 사람으로 꼽힌다. 김부식 이래로 소동파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당시 문풍(文風)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문집으로 『서하집』이 있으며 한국 가전문학(假傳文學)의 선구적 작품인 「국순전(麴醇傳)」, 「공방전(孔方傳)」을 남겼다.

이 작품은 임춘이 우리나라 산수는 강동(江東)이 최고라는 말을 듣고 남쪽지방으로 탐방하면서 아름다운 승경을 보고 감회와 역사를 기술하였다. 낙산사를 찾아 옛날 원효와 의상 두 법사가 신선굴에서 관음보살을 친견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자신은 스스로 범상한 몸과 속된 정신이라서 만나지 못하고 돌아감을 탄식하기도 하였다. 원효와 의상을 그리워하며 두 편의 시로 감회를 표현하였다.

마지막에 대장부가 먼 곳을 두루 여행해야만 가슴속 수련한 기운을 넓히게 된다고 하면서 만약 자신이 명예나 벼슬에 얽매어 있었다면 기이하고 아름다운 승경을 탐방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자신의 속세에 구속 없는 자유롭게 살아감을 표현한 것이다.

5) 낙산사(洛山寺) - 양양부북15리 오봉산중(襄陽府北十五里 五峰山中)

김부의(金富儀)

해안 높은 언덕에 올라	일자등림해안고(一自登臨海岸高)
머리 돌려 바라보니 속세에 다시 생각 없네	회두무부구진로(回頭無復舊塵勞)
대성(大聖-관음보살)이 득도한 이치를 알고자 하나	욕지대성원통리(欲知大聖圓通理)
성난 파도 소리만 들리네	청취산근격노도(聽取山根激怒濤)

한밤 중 바다에는 흰 물결 일고	반야은륜용해동(半夜銀輪湧海東)
불어오는 바람결에 붉은 구름 날아드네	장풍취산채운홍(長風吹散彩雲紅)
맑은 빛 어룡굴에 바로 비치고	청광직사어룡굴(淸光直射魚龍窟)
수전 속 물결은 유리처럼 흩어진다.	조파유리수전중(照破琉璃水殿中)

『금강산시집(金剛山詩集)』하편(下篇)

김부의는 김부식의 아우로 형부상서 보운각대학사를 지냈다. 이 작품은 낙산사의 높은 곳에 올라 머리 돌려 멀리 세상을 바라보자 낙산사의 경치가 너무 청정하고 아름다워 속세의 인연과 욕망에 관심이 없고, 자신과 세속에 대한 순화된 마음을 갖게 된다. 의상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지만 자신에 들려오는 것은 성난 파도소리뿐이라며 자신을 돌아본다.

다음 수는 한 밤 중에 바다에는 흰 물결이 일고 일출 전에 붉은 구름이 바람에 흩어진 다. 아침 해가 홍련암의 해안 석굴을 비추자 수정 중에 영롱한 구슬이 흩어지는 느낌을 받은 심회를 표현하였다.

6) 강선정에 관한 시는 다음과 같다. 노봉(老峰) 김극기(金克己)

변방에 전쟁이 없음이 여러 해라	새상무진황유년(塞上無塵況有年)
꽃피고 새 우는 것도 모두 즐거워하네	화용조어상흔연(花容鳥語尙欣然)
천 수레 흰 눈 같은 실을 켜는 땅이요	천차백운조사지(千車白雲縲絲地)
만 이랑에 누런 구름 같은 보리를 베는 시절이네	만경황운할맥천(萬頃黃雲割麥天)
어부의 낚시터엔 이끼가 뒤섞였고	어부기변태착락(漁夫磯邊苔錯落)

초동이 앉은 두렁 위엔 풀이 우거졌네 초동룡상초천면(樵童龍上草芊眠)
 오가며 훌륭한 경개 더욱 구경할 만한데 왕래승개우감상(往來勝槩尤堪賞)
 일찍이 시인을 시켜 몇 편이나 지었는가 증견소인득기편(曾遣騷人得幾篇)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권지사십사(卷之四十四), 강원도 양양도호부
 (江原道 襄陽都護府),

김극기(1150~1204년경)는 과거에 급제하였으나 환로에는 나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금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온 뒤 죽었다. 이인로는 김극기를 칭찬하며 난새나 봉황 같은 인물이었다고 칭송하였다. 이 시는 강선정에 올라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

임춘의 동행기와 이곡의 동유기는 동해안을 순례하면서 낙산사에 이르러 글을 쓴 것을 보면 낙산사는 신라 때부터 화랑의 순례지이고 고승들의 방문지였고, 고려조에는 많은 순례자나 탐방객들의 만남의 장과 여객지로 교통의 중심지였다.

4. 조선시대

조선조에는 승유억불정책을 표방했지만 많은 문인이나 학자들이 양양과 낙산사를 찾았다. 세조가 세자와 함께 낙산사에 찾아 예배하고 낙산사를 개축하여 주었다. 승유억불정책 속에서도 많은 소객(騷客)들이 아름다운 양양과 낙산사에서 관음신앙을 체험하거나 경험하려고 노력하였다.

1) 익현(양양의 옛 지명) 유 사군에게 받들어 화답하다

(봉화익현류사군 : 奉和翼峴柳使君)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

관동에 아름다운 곳은 양주를 말하거니와 관동가려설양주(關東佳麗說襄州)
더구나 백성 순박하고 풍년까지 들었음이니네 황부민순세유추(況復民淳歲有秋)
영각의 금서를 보니 참으로 어진 태수요 령각금서현태수(鈴閣琴書賢太守)
바닷가의 부절은 바로 옛날의 제후라네 해기부죽고제후(海圻符竹古諸侯)
남 따라 굳이 안렴사를 높일 것도 없거니와 퇴동미필존렴사(雷同未必尊廉使)

허리는 굽혀서 어찌 독우를 향하네
조만간에 정히 성상의 부름을 받으면은
옛날의 장조와 누가 더 우월할런고

경절하증향독우(磬折何曾向督郵)
조만정응선실소(早晚定膺宣室召)
왕도장조숙위우(往圖張趙孰爲優)

과거에 장원하고 십육 년이 되기 전에
창해군 동쪽 가로 장관이 되어 갔네
풍속 교화한 예악의 정사를 모두 흠모하는데
조세 독촉으로 결박당한 흥터를 누가 탄식하라
관패 차림에 대궐 출입 막힌 게 싫을 터인데
운하 속에서 어찌 신선술을 배우네
주옥 같은 장편시가 풍편을 인해 당도하여
한번 읽으니 백발을 물리칠 만하네

계적괴선미과과(桂籍魁仙未破瓜)
위관창해군동애(爲官滄海郡東涯)
공흠화속현가정(共歆化俗絃歌政)
수탄최과목색가(誰嘆催科木索痂)
관패응협조청쇄(冠佩應嫌阻青瑣)
운하녕학양단사(雲霞寧學養丹砂)
려주백십인풍타(驪珠百十因風墮)
일독유감각빈화(一讀猶堪却鬢華)

『점필재집(佔畢齋集)』권지이십이(卷之二十二), 봉화익현류사군(奉和翼峴柳使君),

김종직(金宗直-세종 13년 : 1431년~성종 23년 : 1492년)의 본관은 선산이고, 자는 계온(季溫)·효관(孝盥), 호는 점필재(佔畢齋)이다. 부친은 성균사예(成均司藝)를 지낸 숙자(叔滋)이다. 사림파의 사조(師祖)로 부친 숙자는 고려말·조선초 은퇴하여 고향에서 후진 양성에 힘썼던 길재(吉再)의 제자였으며 아버지로부터 학문을 배운 종직은 길재와 정몽주(鄭夢周)의 학풍을 계승하였다. 세조 즉위를 비판하여 지은 「조의제문」이 무오사화를 불러일으켰다. 연산군 4년(1498년) 제자인 김일손이 사관으로 있으면서 사초(史草)에 수록한 「조의제문(弔義帝文)」의 내용이 문제가 되어, 부관참시(剖棺斬屍 : 죽은 뒤에 큰 죄가 드러난 사람을 극형에 처하던 일)당하였다.

김종직은 이 시에서 관동지방에서 양양이 가장 아름답고 백성들이 순박하고 문물이 풍부한 곳으로 좋은 태수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진나라 도잠의 고사와 명망 높았던 장조(장참, 조광한)의 고사를 인용하여 유사군에게 어진 태수의 모습을 강조 하고 있다. 양양 유사군이 과거시험에 장원을 하고 창해동쪽에 부사가 되자 풍속교화와 예악으로 올바른 정사를 펼치기를 바라면서 당부하고 있다.

2) 낙산사에서 선 대사에게 주다(낙산사증선상인 : 洛山寺贈禪上人)

3수(首).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

한번 보니 깨끗한 그 의표(儀表) 옛 친구 같은 데	일견청표사구지(一見淸標似舊知)
면목(面目)을 사모한 지 벌써 오래 되었네	선장면목이다시(羨牆面目已多時)
절조(節操) 크기는 높은 소나무와 대나무 모양	절조낙낙송균태(節操落落松筠態)
몸가짐 밝고 높아 난새, 학의 의표 이네	용지앙앙난학의(容止昂昂鸞鶴儀)
고요한 참선 의자에서 창해의 달을 보는데	선탑정간창해월(禪榻靜看滄海月)
다천(茶泉)에는 한가로이 푸른뿔의 교룡(蛟龍)흔드네	다천한요벽담리(茶泉閑擾碧潭螭)
대사 따라 도(道)를 물으러 어느 팬가 가게 되면	종사문도타시거(從師問道他時去)
검은 눈동자에 쌓인 백태 긁어내는 금칼 되네	적예현모금괏곤(積習玄眸肯刮錮)

방장(方丈), 봉래(蓬萊)가 가까이 있는데	방장봉래지고중(方丈蓬萊指顧中)
흰 구름 누런 학은 긴 구름 타고 가네	백운황학어장풍(白雲黃鶴馭長風)
신기루(蜃氣樓) 그림자 교인(蛟人)의 집을 눌렀고	신루영압교인실(蜃樓影壓蛟人室)
금 불전의 광채 해약(海若) 궁에 뚫고 드네	금찰광천해약궁(金刹光穿海若宮)
담소하며 용은 밑 없는 바리때에 항복하고	담소강룡무저발(談笑降龍無底鉢)
경행(經行)으로 뱀범 갈고리 있는 지팡이에 굴복하네	경행복호유고소(經行伏虎有詬所)
바위속에 편안히 앉았으니 하늘꽃이 비오듯 내리는데	암중연좌천화우(巖中宴坐天花雨)
풍진 세상의 뜨고 잠김이 별안간 공(空)이 되네	진세부침전안공(塵世浮沈轉眼空)

흐리고 무지한 인간이라 만 가지 일 다 글렀는데	무무인간만사비(貿貿人間萬事非)
장자와 열자 따라 삼기(三機)를 배웠네	육종장열학삼기(欲從莊列學三機)
뜬 인생 한되는 건 바람앞에 등불인 양 변화하는 것	부생유한풍등변(浮生有限風燈變)
부질없이 죽는 게 새끼 새 나는 데 무슨 도움되리	랑사하괘구조비(浪死何裨鷄鳥飛)
천녀(天女)가 차(茶)를 받드니 향주(香廚)가 깨끗하고	천녀공다향주정(天女供茶鄉廚淨)
산(山) 잔나비 바리때 받드니 도(道)기름지고 살찌네	산원경발도수비(山猿擎鉢道腹肥)
그 무슨 인연 얻어 생(生) 없다는 말씀 늘 들으며	하연항청무생화(何緣恒聽無生話)
돌집 소나무 다락에서 그대와 함께 의지하리	석실송감공이의(石室松龕共爾依)

『매월당집(梅月堂集)』권지삼(卷之三)

매월당 김시습은 단종에게 절의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방랑하며, 고향 강릉과 양양지역을 자주 왕래하며 많은 시를 남겼다. 특히 불가에 의지하여 승려들과 자주 교류하면서 한평생을 살았던 매월당이 낙산사의 큰 스님을 만나 주고받은 첫 번째 수는, 선대사를 사모하여 만나보니 옛 친구처럼 느껴졌고, 큰 스님의 지조와 절개는 소나무와 대나무처럼 곧고, 몸가짐 또한 높아 난새와 학의 표상이었음을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수는 자신의 삶이 현실에서 어긋나 불행하지만 항상 책을 통해 인생의 부질없음을 체험한 심회를 표현하였다.

3) 낙산사에 묵다(숙락산사 : 宿洛山寺) 교산(蛟山) 허균(許筠)

오봉사를 두 번째 찾아왔는데	중심오봉사(重尋五峯寺)
풍경은 지난해와 같네	풍경사전년(風景似前年)
대숲 길은 오가는 발길 통하고	죽경통추극(竹逕通秋屐)
화대에 저녁 연기 일어나네	화대기석연(花臺起夕煙)
여러 스님이 늘어서서 환영하는데	환영라중납(歡迎羅衆納)
멋진 놀이 제천을 밟아오르네	승천섭제천(勝踐躡諸天)
이미 무생인을 깨달았으니	이오무생인(已悟無生忍)
속된 인연 떨어져 조출도 하네	소연정속연(蕭然淨俗緣)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권지일 시부일(卷之一 詩部一), 풍악기행(楓嶽紀行), 숙락산사(宿洛山寺).	

허균은 벼슬길에서 잦은 파직과 유배를 당하여 고향 강릉으로 돌아왔다. 조선조에 허균만큼 영욕의 삶을 산 사람도 없다. 교산은 불가의 세계를 좋아하여 불서와 불교사상을 심취해 있었다. 그래서 낙산사를 찾아 당대의 고승들과 교류하며 자신세계를 넓혀왔다. 이 시는 낙산사를 찾아 하루 묵으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세속의 무상함을 깨닫고 속된 인연이 멀어짐을 아쉬워하며 읊었다.

4) 양양도중(襄陽途中) 촌은(村隱) 유희경(劉希慶)

유희경은 제복장(祭服匠)으로 호는 촌은(村隱)이다. 일찍이 이이첨(李爾瞻)과 사귀었는데, 뒤에 이이첨이 모후(母后)를 폐하자는 의론을 주장하자 이내 절교하였다. 그는 양양도중(襄陽途中)이라는 시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산은 비 기운 머금고 물은 연기를 머금었는데	산함우기수함연(山含雨氣水含煙)
청초 호수가에 흰 해오지 졸고 있네	청초호변백로안(靑草湖邊白鷺眼)
해당화 밑으로 가노라니	로입해당화하거(路入海棠花下去)
꽃잎이 채찍에 걸려 떨어졌네	만지향설낙휘편(滿地香雪落揮鞭)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청비록 권지4

유희경(劉希慶, 1545~1636년)은 임진왜란 시 의병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그는 시문학에 뛰어나 당시의 문사와 사대부들과도 교류하였다. 그의 집이 정업원 뒤뜰에 있었는데, 당시 울창한 숲이었던 이곳 시냇가에 돌을 쌓아 대를 만들고 이를 “침류대”라 이름했다. 이곳에서 시를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였다. 당대의 실권자였던 이이첨의 실정을 보고 절교할 정도로 강개한 선비였다. 이 시는 양양을 찾아 청초호수와 해당화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느낀 감회를 아름답게 표현하였다.

5) 낙산사(洛山寺)에서 양양 부사(襄陽府使)인 이여복(李汝復) 경용(景容) 종장(宗丈)을 만났는데, 이날 눈이 크게 내렸다. 3수 택당(澤堂) 이식(李植)

누가 용왕 불러내어 옥가루 뿌리게 하였는고	수환룡공살옥진(誰喚龍公撒玉塵)
머리 돌려 바라보니 선궁(仙宮)의 광경 새롭네	림궁광경전두신(琳宮光景轉頭新)
은백색 포말(泡沫) 뒤집어쓴 푸른 바다요	창명도접은도말(滄溟倒接銀濤沫)
봄철인 양 담백(蒼白)으로 하얗게 단장한 기수로세	기수장성백복춘(祇樹粧成白菴春)
세모에 올라와 굽어보니 그대로 마냥 절승(絶勝)	세모등림잉승지(歲暮登臨仍勝地)
하늘 끝 타향 만나 뵈 분 바로 우리 집안 어른	천애회합시종인(天涯會合是宗人)
귀로에 도롱이 젖은들 무슨 걱정 있으리까	부수귀노사의습(不愁歸路蓑衣濕)

구속 떨쳐 내버리고 술이나 한껏 드십시오

차투준전만낭신(且鬪樽前漫浪身)

지인도 창주의 취향이 있었던지

지인역유창주취(至人亦有滄洲趣)

신령스런 그 자취 동해안에 남겼네

령적증류해안동(靈迹曾留海岸東)

자비로운 천수관음(千手觀音)동방에 한손길 뻗쳐줌에

일수자비분접역(一手慈悲奔鰈域)

웅장한 절 천추토록 흥몽을 제압하였네

천추대전압흥몽(千秋臺殿壓鴻濛)

경어 우는 소리에 스님들 발우(鉢盂) 공양했고

경어자후승취발(鯨魚自吼僧催鉢)

보배 기운 감돌면서 벽에서 무지가 뿜었네

보기상등벽토홍(寶氣常騰壁吐虹)

백화 왕자가 지은 찬 한번 본떠 보려 해도

욕효백화왕자찬(欲效白華王子讚)

숨씨 겨룰 기막힌 시어(詩語) 없는 것이 부끄럽네

괴무기어여쟁공(愧無奇語與爭工)

진해(鎭海)의 낙가산(洛伽山)을 소백화산(小白華山)이라고도 하는데 이곳도 바로 관음(觀音)의 도량(道場)이다. 왕자 안(安)이 이에 대해서 찬(讚)을 지었는데 무척이나 기이한 숨씨를 보이고 있다.

안건의 수묵화에 석천의 시편

안건수묵석천시(安堅水墨石川詩)

천 년토록 가람의 기막힌 기예로 꼽혔는데

천재가람랑절기(千載伽藍兩絕奇)

이제는 겹화로 승려들마저 모두 떠나

겹화병장승보거(劫火併將僧寶去)

이 명승지 마치고 골짜기 배가 옮겨진 듯

명구변각학주이(名區便覺壑舟移)

분향 구름 감로 법문 다시는 볼 수 없이

향운법우허무리(香雲法雨虛無裏)

옛 추억 더듬어도 무너진 담에 기왓장뿐

해와퇴원지점의(解瓦頽垣指點疑)

그래도 다행히 선묘(宣廟)의 글 한 편 남아

뢰득선능신한재(賴得宣陵宸翰在)

신령스런 빛으로 여전히 산사(山寺)를 감싸 주네

신광의구옹산기(神光依舊擁山祇)

『택당선생집(澤堂先生集)』권지오(卷之五), 락산사(洛山寺). 회양부리여부 경용 종장(會襄府李汝復 景容 宗丈). 시일대설(是日大雪). 삼수(三首),

첫 번째 수는 낙산에서 바다를 바라보자 눈 내리는 모습을 용왕이 옥가루를 뿌려 은백색의 포말로 바다가 선궁 같다며 낙산의 절승을 노래하고 있다. 세상 걱정과 구속 떨쳐버리고 술이나 마음껏 마시고 싶다고 심회를 표현하고 있다.

두 번째 수에서는 낙산은 관음보살이 항상 머무르는 곳으로 자비로움을 이야기 하며

의상대사가 수정염주와 여의주를 성전에 모셨던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

세 번째 수에서는 안건의 수목화와 임억령의 시가 천녀토록 아름다움을 이야기 하며 전란으로 승려들이 모두 떠나 큰 변화로 폐허가 되었다고 심회를 토로하고 있다.

6) 하조대(河趙臺)택당(澤堂)이식(李植)

하조대란 이 이름 시작된 게 언제이고	대명하조자하년(臺名河趙自何年)
멋진 경치와 더불어서 성씨까지도 전해 오네	형승겸장성씨전(形勝兼將姓氏傳)
엄청난 물결과 맞싸우며 천 길 우뚝 솟은 누대	희희천심쟁거낭(鳳鳳千尋爭巨浪)
격류 속의 지주런가 처음에 눈을 의심하다가	초의지주당횡궐(初疑砥柱當橫潰)
문득 상전벽해(桑田碧海) 세월의 변천을 깨달았네	갱각상전열변천(更覺桑田閱變遷)
상구씨(爽鳩氏)가 이 즐거움 물려준 뒤로부터	종고상구유차낙(從古爽鳩遺此樂)
속인의 발길 그 얼마나 이 풍광을 좇았을가	기인진적축풍연(幾人陳迹逐風煙)

『택당선생집(澤堂先生集)』 권지오(卷之五), 시(詩),

이식(李植, 선조 17년 : 1584년~인조 25년 : 1647년)은 당대의 뛰어난 학자이자 문장으로 문풍을 주도하여 많은 제자를 배출했다. 문장능력이 뛰어나 문장의 짜임새를 정교하게 다듬어 간결하였다. 간결하면서도 품격 있는 시를 썼다. 이정구·신흠·장유와 더불어 한문4대가(漢文四大家)이다. 광해군 2년(1610년) 문과에 급제하여 7년 뒤 선전관이 되었으나 폐모론이 일어나자 낙향했다. 1623년 인조반정 후 이조좌랑이 되었다. 대사간으로 있을 때 실정(失政)을 논박하다가 여러 번 좌천되었다. 인조 20년(1642년) 김상헌 등과 함께 척화(斥和)를 주장하여 청나라 군사에게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 다시 의주에서 잡혔으나 탈출하여 돌아왔다. 그 뒤 대사헌, 형조·이조·예조 판서를 지냈다. 소설배격론이 대두되었을 때 한문4대가의 한 사람으로서 문풍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였고, 소설의 폐단을 강경하게 지적하고 허균을 공격했다.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첫 수는 눈 내리는 모습을 용왕이 옥가루를 뿌리는 형상으로 표현하여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 은백색의 포말을 뒤집어 쓴 푸른 바다, 너무나 아름다워 모든 구속을 떨쳐버리고 술이나 마시면서 걱정 없이 살고 싶음을 노래하고 있다.

7) 양양 바닷가에서(양양해변 : 襄陽海邊) 추강(秋江) 남효온(南孝溫)

어촌의 집들 나무껍질로 지붕 덮고	어가목피개(漁家木皮蓋)
소금 굽는 장막에는 흰 연기 비졌네	염막백연사(鹽幕白煙斜)
푸르디푸른 빛은 동해의 바닷물이요	중벽동명수(重碧東溟水)
연분홍 고운 빛은 서안에 핀 꽃이네	경홍서안화(輕紅西岸花)
돌러선 바위에는 해달이 울고	회암명해달(廻巖鳴海獺)
저녁 길가에 모래 울음 울려 퍼지네	모로향명사(暮路響鳴沙)
산봉우리들 푸름이 다하지 않는데	봉만청부진(峰巒靑不盡)
만 겹의 산이 눈 가운데 지나가네	만첩안중과(萬疊眼中過)

『추강선생문집(秋江先生文集)』권지이, 시, 양양해변(卷之二, 詩, 襄陽海邊)

8) 오색역에 묵으며(宿五色驛) 추강(秋江) 남효온(南孝溫)

산길 가다 만난 한 줄기 개울물	산행일류수(山行一流水)
굽이돌아 여러 번 산하를 건넜네	곡절발섭루(曲折跋涉屨)
시냇물 밝아서 어지러운 돌 희고	천명난석백(川明亂石白)
날씨가 흐려서 하늘 바람 노하네	일음천풍노(日陰天風怒)
황혼에 차가운 달 높이 뜨고	황혼한월고(黃昏寒月高)
온갖 나무에 가을비 머물렀네	만수두추우(萬樹逗秋雨)
머리카락 묶은 듯이 곧두서니	모발수여속(毛髮豎如束)
하물며 범 울음소리 들리네	황문소어토(沉聞嘯於菟)

『추강선생문집(秋江先生文集)』권지이(卷之二), 시(詩), 숙(宿) 오색역(五色驛),

9) 낙산사에서 성휴 스님께 드리다(낙산사 증성휴 : 洛山寺 贈性休)
추강(秋江) 남효온(南孝溫)

나는 강호로 떠도는 나그네	아시강호객(我是江湖客)
그대는 불제자의 스승이시오	군위석자사(君爲釋者師)
푸른 등불 한밤중에 밝히고	청등명반야(靑燈明半夜)

약속대로 함께 담론하노라	법어과유기(法語果幽期)
창밖에는 기암절벽 예스럽고	창외기암로(窗外奇巖老)
뜰 앞에는 잣나무 제격이라	정전백수의(庭前柏樹宜)
탕휴 스님 내 시심 일으켜서	탕휴기아병(湯休起我病)
미소 지으며 시 지으라 하네	미소색제시(微笑索題詩)

『추강선생문집(秋江先生文集)』권지이(卷之二), 시(詩), 락산사(洛山寺)°증성휴(贈性休),

10) 해초 스님께 드리다 (贈海超) 추강(秋江) 남효온(南孝溫)

푸른 산에 에워싸인 낙산사	청전락산사(靑纏洛山寺)
어제 저녁 홀연히 투숙하니	작모홀명투(昨暮忽暝投)
주인께서는 지둔의 무리이건만	주인지둔도(主人支遁徒)
손님 맞아 갖가지 음식 마련했네	요객구서수(邀客具庶羞)
내뱉는 말씀 내 게으름 일깨우니	출언기아라(出言起我懶)
맑은 서리 가을 하늘에 걸린 듯	청상횡소추(淸霜橫素秋)
새벽 종소리 깊이 반성하게 하더니	신종발심성(晨鍾發深省)
새벽빛이 벌써 누각에 밝았구려	서색이명루(曙色已明樓)

『추강선생문집(秋江先生文集)』권지이(卷之二), 시(詩), 증해초(贈海超).

남효온(南孝溫)은 세상에 뜻을 두지 않고 전국의 명승지를 두루 찾아다니며 방랑생활을 하다 일생을 마쳤다. 양양의 바닷가와 낙산사와 오색역에 묵으며 시를 썼다. 그리고 낙산사의 해초스님을 만나 함께 밤을 지새우며 스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게으름을 깨닫고, 새벽 종소리에 깊은 반성을 하게 된다. 또 성휴스님께 드린 시는 두보의 시를 인용하여 한밤중까지 담론을 주고받으며 자신의 시심을 표현하였다.

11) 차낙산현판(次洛山懸板) 부휴당(浮休堂) 석 선수(釋 善修)

달빛을 등불삼아 이정에 앉아서	이정독좌월위등(梨亭獨坐月爲燈)
적적한 봄 회포 노승과 함께 푸네	적막춘회어노승(寂寞春懷語老僧)
바다의 창룡은 때때로 물을 뿌리고	벽해창룡시타수(碧海蒼龍時打水)

우레 같은 파도소리 밤이 깊으니 더 하네

경파뇌후아래승(驚波雷吼夜來僧)

절 문 앞은 푸른 바다로

창명근재사문전(滄溟近在寺門前)

아득한 물결은 하늘에 이었네

만리경파묘접천(萬里鯨波杳接天)

외로운 섬 밖 고깃배 뜨고

수점어주고도의(數點漁舟孤島外)

석양 무렵 새 우는 소리 들리네

일성제조석양변(一聲啼鳥夕陽邊)

『금강산시집(金剛山詩集)』하편(下篇)

선수(善修-중종 38년 : 1543년~광해군 7년 : 1615년)는 스님으로 제자들이 해인사·송광사·칠불암·백장사 등에 부도(浮屠)를 세웠으며, 광해군은 부휴당부종수교변지무애추가홍각대사선수등계존자(浮休堂扶宗樹教辯智無礙追加弘覺大師善修登階尊者)라는 시호를 내렸다. 저서에 『부휴당대사집』이 있다.

이 시는 선수스님이 낙산사를 찾아 석양 무렵에 지은 것으로, 이정에 앉아 달빛을 벗삼아 노승과 함께 봄의 적적한 회포를 풀며 밤늦게까지 담화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수는 석양 무렵에 절 앞의 바다를 보니 바다와 하늘이 맞닿아 있어, 어디가 바다인지 어디가 하늘인지 알 수 없었다. 동해의 넓은 바다 위 멀리 섬이 있고, 섬 옆 그 곳에 고깃배가 있고, 석양에 새 한 마리 날아가는 모습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표현하였다.

12) 제동낙산동헌(題東洛山東軒) 청허당(淸虛堂) 석 휴정(釋 休靜)

속세의 인연에 휩쓸려 바쁘게 지내며

진창제륜망리주(塵漲蹄輪忙裏走)

미친 마음에 주색으로 밤낮이 없었네

심광주색야중행(心狂酒色夜中行)

어찌 타락한 모습으로 누우리

기여파납몽두와(豈如破衲蒙頭臥)

동창에 바다의 새해가 뜨네

직지동창해일생(直至東窓海日生)

『금강산시집(金剛山詩集)』하편(下篇)

휴정(休靜-중종 15년 : 1520년~선조 37년 : 1604년)은 속명은 최여신(崔汝信)으로 본관은 완산(完山)이고 자는 현응(玄應)이요 호는 청허(淸虛)이다. 묘향산에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묘향산인(妙香山人) 또는 서산대사(西山大師)로 불린다. 휴정은 법

명이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의 부탁을 받고 전국에 격문을 보내어 의승군(義僧軍)의 궤기를 호소했다. 안심사(安心寺)와 금강산 유점사(楡岾寺)에 탑이 세워졌으며, 해남 표충사(表忠祠)와 밀양 표충사 및 묘향산의 수충사(酬忠祠)에 제향되었다.

이 시는 휴정이 낙산사에서 묵으면서 자신을 돌아보면 감회를 표현하였다. 휴정은 임진왜란과 모반의 혐의 그리고 불교계와 관계없는 속세의 일들에 중심 잃고 생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조선조 불교의 중심에서 속세의 일에 분주히 많은 일들을 하며 때로는 속세와의 인연으로 청정하지 못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속세의 욕망과 허무함을 표현하였다. 낙산사는 우리 불교의 성지로 이곳을 찾아 선대의 고승들을 생각하며 타락한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였고, 새롭게 뜨는 해를 보며 마음을 새롭게 잡고 자신을 찾으려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13) 낙산사(洛山寺) 봉래(蓬萊) 양사언(楊士彦)

푸르른 안개 자욱하여 끝이 없는데	청청무각삼천장(靑靑霧閣三千丈)
흰 구름 긴 하늘은 아득하네	백백운창만리천(白白雲窓萬里天)
바라보아도 배타고 오는 사람 보이지 않고	망망승사인불견(望望乘槎人不見)
누선은 어디 떠 있는지 알 수가 없네	부지하처범루선(不知何處泛樓船)

『금강산시집(金剛山詩集)』하편(下篇)

양사언(楊士彦-중종 12년 : 1517년~선조 17년 : 1584년)의 자는 응빙(應聘), 호는 봉래(蓬萊)이고 돈녕주부 희수(希洙)의 아들이다. 명종 1년(1546년) 식년문과에 급제하였고 1556년을 전후로 대동현감 등을 지냈다. 회양에 나간 것은 금강산을 따라 스스로 택한 것으로 이때 금강산에 관한 시를 많이 남겼다.

만폭동 입구에 “봉래풍악 원화동천”(蓬萊楓岳元化洞天)이라는 8자를 새기기도 했다. 1564년에 고성군의 구선봉 밑 감호(鑑湖)가에 정자 비래정(飛來亭)을 짓고 풍류를 즐기며 은거하였다. 선조 15년(1582년) 다시 안변군수로 임용되어 다음해 번호(蕃胡) 변란을 당해 수사(守土)의 책임을 지고 귀향하여 1584년에 68세의 일기로 사망하였다. 글

씨와 문장으로 그 명성을 떨쳤으나 당대 최고인 문인인 이달, 허균 등과 교류하였다. 서예에 뛰어나 초서와 해서에 능하였다. 가사로는 「미인별곡」이 있으며 문집으로 『봉래집』이 전한다.

이 시는 낙산을 찾아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고승과 학자들이 순례하였던 모습을 연상하면서 자신의 외로움을 표현하였다. 낙산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최고의 풍경으로 푸르른 안개 자욱하여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고 흰 구름 아득한 하늘을 노래하고 있다. 보이는 것은 안개와 흰 구름뿐인 신선의 세계를 아름답게 표현하였다.

14) 증낙산사승(贈洛山寺僧) 송운(松雲) 석 유정(釋 惟政)

한양 남도에 남은 꽃마저 떨어지니
아름다운 계절 홀연히 가니 어찌하나
내일이면 봄도 가고 그대도 또 가고
헤어지는 서운함 견딜 수 없네
『금강산시집(金剛山詩集)』하편(下篇)

한양남도낙잔화(漢陽南道落殘花)
가절홀홀불내하(佳節忽忽不奈何)
명일춘귀군우거(明日春歸君又去)
불감상송과천애(不堪相送過天涯)

유정(惟政-중종 39년 : 1544년~광해군 2년 : 1610년)의 본관은 풍천(豐川), 속명은 임응규(任應奎)이며 자는 이환(離幻), 호는 사명당(四溟堂)·송운(松雲), 별호는 종봉(鍾峰)이다.

이 시는 낙산사 스님에게 준 시이다. 조선조 고승의 시라기 보다는 문장이 뛰어난 문사(文士)의 글처럼 보인다. 스님으로서 꽃이 지고 세월감을 아쉬워하며 인생의 무상함을 느낀 감호를 표현한 것이다. 또한 이 밤을 자고 나면 아름다운 계절인 봄도 가고 지인과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서운함을 표현하고 있다.

15) 낙산사에서 판상시에 차운하다(次洛山寺板上韻)

석천(石川) 임억령(林億齡)

파도소리 봄철을 흔들고
달빛은 소나무 사이로 승려를 보네
윙조리는 소리 바람결에 사라지니
맑은 기운 더 한층 더하여 오네

해도춘동사(海濤春動寺)
송월야규승(松月夜窺僧)
소인장풍발(嘯引長風發)
금인기익증(今人氣益增)

고요한 밤 달빛은 배나무에 비추고
창에는 욕심 없는 나그네 승려와 마주 앉네
누가 장부의 뜻을 알리요
비가와도 바닷물은 불지 않네
『금강산시집(金剛山詩集)』하편(下篇)

야적리횡월(夜寂梨橫月)
창허객대승(窓虛客對僧)
수지장부량(誰知丈夫量)
창해우무증(滄海雨無增)

임억령(林億齡-1496~1568년)의 자는 대수이고 호는 석천이다. 중종 11년(1516년)에 진사가 되었고 1525년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명종 즉위(1545년) 금산군수 때에는 을사사화로 동생 임백령이 소운으로 대운의 선배들을 축출하자 자책을 느껴 벼슬을 버리고 해남에 은거하였다. 1552년에 동부승지에 등용되어 병조 참지를 지내고 강원도 관찰사를 거쳐 1557년에 담양 부사가 되었다. 문집으로는 『석천집』이 있다.

이 시는 임억령이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낙산사를 찾아 쓴 시로 어느 누구의 작품보다도 출중하다. 당쟁의 와중에서도 낙산의 장엄함과 바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 장부의 숨은 큰 뜻을 암시하고 있다. 봄이 되어 세상을 뒤흔드는 파도소리는 한밤중 소나무에 걸린 달이 스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노래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사람들의 정신을 더욱 맑게 한다.

낙산사는 전통적으로 배(梨)가 유명하다. 봄의 달빛 속에 배꽃은 형용하기 힘들 정도로 아름답다. 이러한 밤에 스님과 마주앉아 있는 자신이 큰 뜻을 알 수 없음을 표현하였고 비가 와도 변하지 않는 바다처럼 흔들림 없이 자신의 꿈을 펴보고 싶다는 강한 감정을 표현하였다.

16) 낙산사에서 판상시에 차운하다(洛山寺次板上韻)

지퇴당(知退堂) 이정형(李廷馨)

풍경소리 맑게 들리는 등불 아래
고요히 참선하는 승려 있네
인생의 괴로움은 어느 날 그칠 것인가
파도소리 여운은 나그네 근심만 더하네

일성청경일룡등(一聲淸磬一籠燈)
좌대가부입정승(坐待伽趺入定僧)
자소노생하일기(自笑勞生何日記)
해도성리여수증(海濤聲裏旅愁增)

시름걱정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는데
갈 길 멀어 힘에 겹네
동창을 활짝 열어 두 눈을 들어
보일듯한 삼신산을 아득히 바라보네
『금강산시집(金剛山詩集)』하편(下篇)

다병상여미해소(多病相如未解消)
불감안마거정요(不堪鞍馬去程遙)
동창척진대쌍안(東窓拓盡擡雙眼)
은약삼산팔망초(隱約三山八望迢)

이정형(李廷馨-명종 4년 : 1549년~선조 40년 : 1607년)의 본관은 경주(慶州)이고 자는 덕훈(德薰), 호는 지퇴당(知退堂), 동각(東閣)이다. 아버지는 사직서령(社稷署令) 탕(宕)이다. 정윤희(丁胤禧)의 문인이다.

이 작품은 1606년 삼척부사로 부임하였다가 낙산을 찾아 쓴 것으로 보인다. 낙산사의 풍경소리 맑고 고요한 등불아래 참선하며 깨달음에 정진하는 스님의 모습을 보고 자신도 현실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속세의 인간으로 파도소리의 여운이 더욱 괴롭게 한다. 아직도 갈 길은 멀고 시름은 더하는데 동창을 열고 멀리 삼신산을 바라보면 속세의 인연에서 벗어나 신선이 되고 싶은 심회를 토로하고 있다.

17) 낙산사관일출(洛山寺觀日出) 낙정당(樂靜堂) 조석윤(趙錫胤)

동쪽 새벽별이 창으로 비쳐오기에
나그네 꿈결에 놀라 깨었네
동대에 급히 올라 멀리 바라보니
오색구름 트인 곳에 둥근 해 뜨네
『금강산시집(金剛山詩集)』하편(下篇)

부상서색사창명(扶桑曙色射窓明)
숙객포단몽자경(宿客蒲團夢自驚)
급상동대개원망(急上東臺開遠望)
오운탄처일륜생(五雲綻處一輪生)

18) 낙산사(洛山寺) 낙정당(樂靜堂) 조석윤(趙錫胤)

낙산의 절은 몇 천 년 있었던가	낙산유사기천년(洛山有寺幾千年)
새로 지은 절이 바닷가에 있네	동년중신의해천(棟年重新倚海天)
문 열면 부상에서 해 뜨는 것이 먼저 보이고	개문부상선견일(開門扶桑先見日)
선경과 이웃하여 신선도 만날 듯하네	지린봉도가고선(地隣蓬島可枯仙)
풍경소리 바람결에 갈매기 꿈을 깨고	풍전종성경구몽(風傳鐘聲驚鷗夢)
성난 파도 범연까지 흘러들겠네	경축파도천법정(鯨蹴波濤濺法筵)
선방에서 하루 묵고 갈 길 다시 물으니	일숙선창문귀로(一宿禪窓問歸路)
세속의 인연은 아직도 남았네	차생유미료진연(此生猶未了塵緣)
『금강산시집(金剛山詩集)』하편(下篇)	

조석윤(趙錫胤 : 선조 38년 : 1605년~효종 5년 : 1654년)의 본관은 백천(白川)이고 자는 윤지(胤之)이다. 호는 낙정재(樂靜齋)이다. 부친은 대사간 정호(廷虎)이고 김상헌(金尙憲)의 문인이다. 대사간 대사헌 등을 역임하였고 직언을 하였다.

낙산의 최고 풍경은 일출이다. 이에 낙산을 노래한 많은 시 중에 일출의 장관이 가장 많다. 첫 수는 낙산의 일출광경을 보고 싶었는데 동창으로 새벽별이 비치자 꿈결에 놀라 깨었다. 이때에 의상대 위를 바라보니 오색구름 트인 곳에 둥근 해의 일출을 보면서 그 장관을 노래하였다.

두 번째 수는 낙산사의 사찰이 그 유래가 아주 오래됨을 말하면서 새로 지은 절이 바닷가에 있음을 노래하고 있다. 문을 열어 일출을 바라보니 선경으로 신선을 만날 듯 승경이다. 선방에서 하루 묵고 다시 속세로 가야만 하는 자신을 보면서 아쉬워하고 있다.

19) 낙산사망해(洛山寺望海) 대암(大庵) 박성(朴惺)

채색한 누각은 바닷가에 높이 솟았고	화각고림대해두(畵閣高臨大海頭)
넘실거리는 물결은 하늘에 닿았네	경파만리접천부(鯨波萬里接天浮)
평생 능력이 적었음을 꺼리었는데	평생심안상혐소(平生心眼嘗嫌小)

이제부터 흐름에 따라 유연히 살라네
『금강산시집(金剛山詩集)』하편(下篇)

종차유연상하류(從此悠然上下流)

박성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으로 활동하였지만 벼슬은 하지 않았으며 ‘낙산사에서 바다를 바라보며’라는 작품은 자신을 바다와 관련시켜 심회를 표현하고 있다. 낙산의 높은 누각에서 바라보니 넘실거리는 바다와 하늘이 닿아있다. 바다를 바라보며 물의 흐름처럼 유유히 살기를 다짐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20) 14일(병진) 새벽에 빈일료(賓日寮)에서 일출광경을 보려고 했는데

마침 하늘에 비가 올 징후가 있어 붉은 노을이 남북을 통해 하늘에 질펀하였고 만경창과 같은 구름물결이 끝도 없이 하늘을 띄워 보내고, 해를 목욕시킬 듯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이 하늘 밖에 나가 놀게 만들었다. 조금 후 하늘은 금방 변하여 새벽빛이 다시 짙고 하늘 끝도 희미했다. 태양은 비록 뜬구름에 가려 있었지만 구름이 변화하는 태도라든지 별스럽게 자꾸 바뀌는 모양은 보기에 이채로웠다. 그날은 기일(忌日)이었기에 혼자 빈일료에 앉아서 재계하였다. 늙은 중 비경(秘瓊)이라는 자를 불러 함께 얘기하다가 최간이(崔簡易)가 읊었다는 운(韻)자를 들었는데 운자만 있고 시는 없었다. 그 운자에 차운하여 써 주고 벽상에 걸려 있는 홍녹문(洪鹿門)·정동명(鄭東溟) 운에도 차운하였다.

동해의 동쪽에는 낙산사가 있거니
부상에서 해가 뜨면 온 하늘이 붉어지네
절간의 이른 새벽 향 피우고 앉았으니
상서로운 구름 속에 떠 있는 듯하네

낙사사림동해동(洛寺寺臨東海東)
부상출일만천홍(扶桑出日滿天紅)
상방청효소향좌(上方淸曉燒香坐)
신재상운자기중(身在祥雲紫氣中)

위의 시는 간이의 운에 차운한 것이다.

설악산 동해 바다 그 사이 낙가정에서
붉은 해가 푸른 하늘로 오르는걸 내 보았네
해산이 다한 곳에 이름난 고장 있어
육경에 뛰어난 호걸스런 사람 같네

설악동명낙가정(雪嶽東溟洛伽亭)
직규홍일상청명(直窺紅日上靑冥)
해산궁처명구재(海山窮處名區在)
각사인호출륙경(却似人豪出六經)

위의 시는 동명의 운에 차운한 것인데, 다른 사람들도 함께 차운하였다.

우주 개벽 어느 때에 뒀다던가
이 절은 신라 시대에 지었다네
새는 구름 저 멀리서 사라지고
뚝단배 저 하늘 밖에서 오네
바람 일자 파도는 태양을 흔들고
가을 짙어 객은 누대에 오르네
바닷가 삼천 리를 다 돌아보고나니
이 정자가 참으로 장쾌하여라

우주기시벽(宇宙幾時闢)
선궁나대개(禪宮羅代開)
조향운변멸(鳥向雲邊滅)
범종천외내(飜從天外來)
풍생파탕일(風生波盪日)
추만객등대(秋晚客登臺)
준해삼천리(遵海三千里)
자정실쾌재(茲亭實快哉)

또 한 수는 다음과 같다.

위치는 산수 좋은 곳 차지했고
들창은 바다 쪽으로 향해 있네
하늘 밖에서 흰구름 일고
붉은 해가 밤중만 온다네
바람은 금선굴 흔들어대고
파도는 의상대를 절구질하네
구이에 가 살고픈 뜻이야 있었다만
날 따를 자가 누구란 말인가

지점산하승(地占山河勝)
창림명해개(窓臨冥海開)
백운천외기(白雲天外起)
홍일야중내(紅日夜中來)
풍감금선굴(風撼金仙窟)
파용의상대(波舂義相臺)
거이숙유의(居夷夙有意)
종아기수재(從我其誰哉)

여러 사람이 다 함께 차운하였다. 정동명의 원운(元韻)은, ‘임지로 가는 유열경(柳悅卿)을 보내며’ 이다.

일만 그루 배나무꽃 바닷가 정자
낙산이 바닷가라 바다가 끝이 없네
문정에 송사 없고 종일토록 한가하리니
부상의 대제경이나 챙겨서 읽게그려

만수리화해상정(萬樹梨花海上亭)
낙산변해해명명(洛山邊海海冥冥)
송정경일한무사(訟庭竟日閒無事)
수독부상대제경(須讀扶桑大帝經)

홍녹문의 원운은, ‘낙산사에서 노두(老杜)의 운으로’ 이다.

이곳이 용왕의 집 자린데
어느 해에 절이 섰던가
하늘은 푸른 바다에 떠가고
산은 백두산에서 왔다네
가을 풍경을 실컷 보기도 하고
석대에 올라 쉬기도 했네
여기에 올라 세월의 무상함을 어루만지노라니
생각은 이런 일 저런 일 끝이 없네

지즉룡왕택(地卽龍王宅)
하년범우개(何年梵宇開)
천부청해거(天浮靑海去)
산자백두내(山自白頭來)
종목관추색(縱目觀秋色)
부공의석대(扶筇倚石臺)
등림무금고(登臨撫今古)
부앙은유재(俯仰恩悠哉)

손홍우 희(孫洪宇熙)를 차운하다

창파가 아득하여 끝이 없구나
천지는 언제쯤 개벽되었다지
옛절엔 가을빛이 다해가는데
모래밭으로 물새들이 오는고야
시 읊조리며 옛일 더듬어도 보고
먼 곳 바라보며 누대에 앉기도 하지
황학이 한번 날아가더니
흰구름마저 왜 그리도 먼지

창파묘무제(滄波杳無際)
천지기시개(天地幾時開)
고사추광진(古寺秋光盡)
명사해조내(明沙海鳥來)
음시억구적(吟詩憶舊迹)
빙조좌한대(騁眺坐寒臺)
황학일비거(黃鶴一飛去)
백운하원재(白雲何遠哉)

『백호전서(白湖全書)』, 권지삼십사(卷之三十四), 잡저(雜著)

21) 낙산사에서 즉흥으로 읊다.(洛山寺卽事) 간이(簡易) 최립(崔嵬)

누각의 바다 해 기막히단 말은 전에 듣고
중추의 둥근달 보려면 일 년을 꼬박 기다려야 하네
바로 이때 이곳에서 모진 비를 만나다니
하늘에서 나를 영동에서 시를 쓰라도 잡아두네
『간역집(簡易集)』권지팔(卷之八), 동군록(東郡錄)

루관해일석문기(樓觀海日昔聞奇)
월득중추일세기(月得中秋一歲期)
차지차시봉고우(此地此時逢苦雨)
천공정아령동시(天公停我嶺東詩)

최립(崔嵬 : 1539~1612년)은 본관은 통천(通川)이고 자는 입지(立之), 호는 간이(簡易) · 동고(東皐)이다. 아버지는 진사 자양(自陽)이다. 이이(李珥)에게 수학했다.

외교문서 작성에 뛰어나 임진왜란 때는 수차례 명(明)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왔다. 명종 10년(1555년)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1561년 식년문과에 장원급제했다. 전쟁 후에는 판결사(判決事)·강릉부사·형조참판 등을 역임했다. 광해군 즉위 후 대북정권이 등장하자 정계에서 은퇴하여 평양에 은거했다. 문집으로 『간이집』이 있다.

이 시는 강릉부사로 와서 쓴 것으로 보인다. 강릉부사 시(時)에 낙산의 일출이 훌륭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 년을 기다려 중추에 달을 보려고 왔는데, 이 때 모진 비가 내려 보지 못한 것을 하늘이 자신을 영동지방에서 시를 쓰라고 잡아둔 것이라 하며 아쉬움의 심회를 표현하였다.

22) 오색령(五色嶺) 시구가 실린 한시

소양도에서 두보의 수회도시에 화답하다.(소양도화수회도：昭陽渡和水廻渡)

소와 말들은 나룻가에 서 있는데
 백사장 흐르는 물 또한 평온하여라
 풍경이 점차 도읍에 가까워지니
 넓게 트이어 험난한 곳 없구려
 강이 둘러라 화려한 누각 성대하고
 산이 머니 편평한 들 너르어라
 예쁜 건 부드러운 자태가 있었고
 추악한 건 미친 파도가 부끄럽네
 흙의 성질은 벼와 목면에 알맞아
 예부터 의식은 궁하지 않았다고
 이 물 근원이 설악에 이르렀다가
 여기까지 아홉 번을 굽어 돌았네
 내가 들으니 산삼을 씻은 물은
 진액이 마르지 않게 한다던데
 자나깨나 바라나니 오색천의 물을
 어떻게 해서 한번 마셔 볼거나

우마립도두(牛馬立渡頭)
 사수복평안(沙水復平安)
 기색근도읍(氣色近都邑)
 광망무험난(曠莽無險難)
 강요주루창(江繞朱樓甍)
 산원평무관(山遠平蕪寬)
 편연유유태(便娟有柔態)
 추오수광란(麤惡羞狂瀾)
 토성이도면(土性利稻棉)
 종고무기한(終古無饑寒)
 선원저설악(仙源抵雪嶽)
 도차구절반(到此九折盤)
 오문세삼수(吾聞洗蓼水)
 불령진액건(不令津液乾)
 오매오색천(寤寐五色泉)
 하유득일찬(何由得一餐)

설악산 동쪽이 곧 양양(襄陽)의 오색령(五色嶺)인데 여기에 영천(靈泉)이 있다.

이 시는 조선후기의 실학자. 목민심서(牧民心書)를 펴내신 목민관(牧民官)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 1762~1836년)의 시다.

오색령은 부의 서쪽에 있으며, 고비와 고사리가 많이 나는 오색령에서 고사리를 캐다.(오색령 재부서 다생미겔 서령채겔 : 五色嶺 在府西 多生薇蕨 西嶺採蕨)

명암 이해조 선생이 다음과 같이 먼저 읊으니

끝매봉 남쪽의 산나물이

계응남산물(季鷹南山物)

이제야 오색령서 나누나

금종서령생(今從西嶺生)

아이의 주먹 같이 생긴 모양

이작소아권(已作少兒拳)

나물국은 천리에 으뜸이로다

불하천리羹(不下千里羹)

다만 거두지 못할까 두려웠는데

단공방저공(但恐放筥空)

오히려 광주리 가득하여 무겁네

유희경광영(猶喜傾筐盈)

오늘은 그만 낚시질 접어두고

종금불조어(終今不釣魚)

날씨 화창하여 고사리 뜯었다

화우적신경(和雨摘新莖)

삼연 김창흡 선생이 다음과 같이 화답했다.

일찍이 오색령 불에 타고서

서산조소여(西山早燒餘)

비오니 초록색 고사리 돋네

일우록미생(一雨綠薇生)

광주리 끼고서 고사리 뜯으니

지광우이채(持筐于以採)

내 정신없이 고사리에 빠졌네

분오애기명(紛吾愛其名)

누가 이 맛이 쓰다하였나

수운차미고(誰云此味苦)

장부는 곧게 힘씀이 옳다

가려장부정(可勵丈夫貞)

좋은 음식 되어주길 바라는데

원회성부장(願廻腥腐腸)

뾰족이 돋는 바위산의 정이네

초존암수정(稍存巖岫情)

이시는 1709년 양양부사로 있던 명암 이해조(鳴巖 李海朝 : 1660~1711년) 선생과 할아버지는 좌의정 아버지는 영의정을 지내신 가문의 영재로서 벼슬자리에서 물러나 양양에 머물다가 설악산 영시암에 은거한 삼연 김창흡(三淵 金昌翕 : 1653~1722년)선생과 당시 양양의 30경을 읊은 유명한 시다.

상운으로 오느라 오색령에 당도하고도 약수 못 마셨다.(방상운승 치입오색령 음령천
불우 : 訪祥雲丞 值入五色嶺 飲靈泉不遇)

구름 덮인 소나무 아래 머무르니
님은 보이지 않고 누각은 비었네
빠어난 오색길을 찾으니
사방이 선경처럼 돌렸네
까치들이 둥지로 날아간 뒤에야
영천을 마시려 서로 서성거렸네
아쉬운 속에 갯가에 돌아오니
멀리 바다에 석양이 지려하네

정개운송하(停盖雲松下)
허루불견군(虛樓不見君)
경심오색승(經尋五色勝)
잉작사선군(剩作四仙羣)
비석환거후(飛鳥還居後)
령장당허분(靈漿尙許分)
의의연포반(依依沿浦返)
요해욕사훈(遙海欲斜暉)

이시는 정범조(丁範祖 : 1723~1801년)선생이 1778년 양양부사를 배명 받고 부임하
면서 지은 시다.

양양의 오색약수를 마시며 놀다.(유양양오색약수 : 遊襄陽五色藥水)
경호 어해훈(鏡湖 魚海勳) 선생의 시

나그네 승지를 찾아오니
위암 절벽에 나무가 삼삼
약수가 영험 있으니 병이 나았고
솔 피리 서늘하니 거문고 소리로세
쪽빛 같은 청산에 누런 사슴 달아나고
옛 절의 종소리에 흰 구름이 모여드네
여러 날 머무르니 선경 같은데
내 옷에 티끌 묻을까 두렵네

객로초초승지심(客路迢迢勝地尋)
위암절벽수삼삼(危巖絕壁樹森森)
약천령험능소병(藥泉靈驗能蘇病)
송뢰청량강주금(松籟淸涼更奏琴)
람색청산황록주(藍色青山黃鹿走)
종성고사백운심(鍾聲古寺白雲深)
유연수일의선경(留連數日疑仙境)
환과홍진염아금(還怕紅塵染我衿)

이 시는 경호집(鏡湖集)에 실려 있으며 과거 양양군 죽왕면 삼포리 태생으로 근세 드
문 문호였다. 경락회(鏡洛會)회원으로 많은 문집을 남긴 경호 어해훈(鏡湖 魚海勳)선생
의 시다.

양양을 기린다(송 양양 : 頌 襄陽)

승지 양양을 대영이 품었으니	승지양양포대영(勝地襄陽抱大瀛)
연어 오른 한수는 사시 맑도다	연유한수사시청(鱣游漢水四時淸)
화창한 봄이 되면 골과 동산 온갖 꽃이 반기고	화춘동원천화소(和春洞苑千花笑)
무더운 여름이면 산과 계곡 많은 손님맞이하네	염하산계만객영(炎夏山溪萬客迎)
비단 같은 가을이면 풍요롭다 송이에 취하고	금수풍요송이취(錦繡豐饒松栢醉)
눈이 내린 겨울이면 수려하다 설원을 이루네	은장수려설원성(銀裝秀麗雪原成)
쌍호의 저녁경치는 동정호를 방불하고	쌍호석경정호방(雙湖夕景庭湖髣)
오색령의 아침노을 별세계의 정취로다	오령조하별유정(五嶺朝霞別有情)

이 시는 양양음사(襄陽吟社) 회장인 우천 이종우(又泉 李鍾禹)가 2009년 봄에 아름다운 사계절의 양양을 기려 읊은 현대 칠언률시(七言律詩)다.

5. 결론

양양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자연을 사랑하며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 그리고 문화를 숭상하고 즐겁게 생활하였다. 선사시대부터 동해안을 중심으로 생활하였다. 신라시대에는 동해안의 교통과 군사적 중심지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접경지역이고 국가적 관심지역이다. 낙산사는 한국불교의 성지로 관음신앙의 중심으로 의상, 원효, 도의, 범일 등은 이 지역에 사찰을 건립하여 불교문화의 전파에 노력하였다.

신라의 고승과 화랑의 순례지였고 고려시대와 조선조의 최고 문인과 소객(騷客)들이 탐방하여 자신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표현하였다.

양양불교문화의 특성은 신라시대부터 관음신앙의 성지이고 신앙적 중심지로 한국불교문화의 중심에서 전통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 삼국유사의 낙산 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의 기록에서 관음, 정취의 담론은 관음신앙으로 불교의 성지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신의 꿈은 우리 소설사에서 최초의 소설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사찰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다. 특정지역의 문화적 전통 속에서

변화하여 왔다. 신라시대 양양의 불교문화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신라시대 가장 변방이었던 양양은 고구려와 접경지역으로 국가적으로도 중요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의 불안과 갈등을 불교가 수용하면서 양양의 불교문화가 발전하였다. 신라의 불교사상은 호국 불교로 변방의 불교는 신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호국사상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고려시대 거란과 몽고의 북방민족과 왜구의 침략과 약탈이 자주 있었던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다. 신라부터 당시 고승으로 존경받던 의상, 원효, 도의, 범일 등이 국가적 차원에서 양양에 사원을 건립하여 신라를 중심으로 하는 관음신앙을 통해 이 지역 민초들의 문제를 불교의 세계로 수용하여 양양의 불교문화가 발전하여 한국불교문화의 중심이 되었다.

동해안은 양양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정치의 제일로 공민왕과 세조가 양양과 낙산사를 찾아 부처님의 영험을 체험하였다. 이런 연유로 조선조에도 수많은 문사들이 양양과 낙산사를 찾아 아름다운 풍광을 보고 자신들의 심회를 표현한 시와 문장은 양양의 역사이고 문화로, 우리 한문학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집필 : 양언석

참고문헌

『關東誌』, 『東國輿地勝覽』
 『謹齋集』, 『東國李相國集』
 『東文選』, 『金剛山詩集』
 『佔畢齋集』, 『梅月堂集』
 『惺所覆瓿稿』, 『澤堂先生集』
 『秋江先生文集』



IX. 사진

1. 서언

디지털시대가 전개되면서 사진인구 천만 명이라는 폭발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사진인구의 양적증가 뿐만 아니라 사진의 질적 수준의 향상도 가져와 세계적인 반열에 오른 한국의 사진가들이 여러 명 탄생하게 되었다. 사진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는 산업발달로 인한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카메라 구입의 용이함과 아울러 여가활동의 범위가 넓어진 데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카메라는 생활필수품이라고 해도 될 만큼 소지가 보편화되었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는 PIE(Photo in Education)교육과정을 도입하여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한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 카메라를 장난감처럼 다루면서 하나의 표현도구로서 사물을 관찰하고 생각하고, 사진 찍고 거기에다 자기의 의도를 글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글쓰기와 창의력을 기르는데 매우 효과적인 활용을 하고 있다.

오늘날의 세계사진계는 사진의 분파를 나눌 수 없을 만큼 다양한 표현양식과 실험이 이전의 어느 때 보다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가히 영상시대의 총아로 각광 받게 된 것이 사진언어이다. 사진의 발달에 있어서 아날로그 시대인 1970년대 후반까지는 일정한 분파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이를 파악하여 보는 것은 디지털시대를 이해하는데 길잡이가 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흐름이 그것이다.

첫째, 대형카메라에 의한 대형프린트의 등장이다. 이는 세계의 미술관이나 대학의 박물관에서 사진을 시대적 언어로 재인식하면서 대대적인 컬렉션(Collection)을 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회화의 비엔날레에서 다투어 사진작품을 초대하였다. 회화의 비엔날레에 초대된 사진가는 타작품의 크기와 컬러적 요소에 의해 작품의 질보다는

우선 크기에 압도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큰 규격의 작품을 출품하게 된 데에 기인한다.

둘째, 여성사진가의 대거 등장이다. 이는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등장으로 인해서 예술의 장르간의 구별이 무의미해짐으로써 분야를 넘나드는 작업으로 여성사진가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조각 작품을 발표하면 조각가로 불리고, 사진을 발표하면 사진가로 불리는 작가들로서 신디셔먼(Cindy Sherman), 샌디 스커그랜드(Sandy Skogland), 바바라 캐스틴(Barbara Kasten) 등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뉴컬러 사진의 등장이다. 이전의 컬러사진은 색채자체의 탐구에 비중을 두는 장식적 컬러사진이 중심이었다면, 그와 전혀 다른 사진가들이 자연과 인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탐구하는 컬러사진을 발표함으로써, 컬러사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이는 아직까지도 유효한 컬러사진의 문법이 되었다.

넷째, 뉴 토포그래픽스(New Topographics)에 의한 풍경사진의 출현이다. 새로운 지형학적 사진이라고 번역되는 사진으로서, 이전의 풍경사진은 자연을 웅장하고 거대하게 표현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항이었다면, 이와는 반대로 인간이 자연에 자리 잡으면서 어떻게 풍경을 변모시키고 있는가를 중립적 시각에서 담담하게 표현하는 사진언어이다.

다섯째, 인체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다. 이전의 인체를 해석하는 주된 방법론은 인체를 심미적 관점에서 다루었다면, 이들 사진가들은 현대인의 실체 중의 하나인 성도착자, 신체불구자, 동성애자 등 부도덕하고 기형적인 인간들을 과격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사회에 커다란 파문을 불러일으킨 사진가들이다.

여섯째, 연출된 사진이다. 이들은 자기의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세트장을 만들고, 미니어처를 배치시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작하고 하여 자신의 내면세계를 표현하는 분파들이다. 이들은 연출이나 조작 등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자기의 세계를 표현하는가에 중점을 두는 사진가들이다.

이렇듯 분파를 가늠할 수 있던 사진계는 디지털시대에 들어오면서 더욱 더 다양한 표현 방식을 동원하여 분파를 나눌 수 없을 만큼 사진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 물론 전통적인 사진표현 방식도 지켜지고 있다. 한편으로 미국의 사진가들은 1970년대 말에 지역주의(Localism)를 선언하며 자기가 사는 지역의 작업이야말로 세계적인 작업이라는 인식으로 작업하였는가 하면, 오늘날은 인터넷의 발달로 각국의 작가들의 작업세계와

사진전들이 실시간으로 알려지는 글로벌시대에 들어섰다.

이에 따라 디지털은 인터넷에 힘입어 상승작용을 함으로써 국가 간의 경계가 희박해짐과 아울러 프로와 아마추어의 구분도 의미가 없게 만들었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 프로와 아마추어의 구분이 의미가 약화되는 시대에 지방에서 작업하는 사진가들의 문제의식과 투철한 작업의식은 그 내용의 독창성에 따라 세계적인 작가의 길도 가능하다는 인식을 한다면, 지방작가의 작업도 기대해 볼 만한 하다고 하겠다.

이런 인식하에 양양 지역에서 활동한 사진가들과 단체들을 조사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일과, 창작사진을 표방한 작업은 아니더라도 한 시대를 기록한 시대의 증언으로서의 기록사진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사진 활동

1) 단체전

사진 활동은 아마추어 사진예술가들이 2개의 사진동우회를 만들어 활동하면서 시작되었다. 처음 구성하여 활동한 단체는 빛 그림 사진동우회는 양양군청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진단체로 2005년 12월 10일 창립하였다. 최남희, 김정준, 박대혁 등 14명의 공직자들이 발기인으로 창립하여 2006년 9월 28일~10월 3일까지 양양송이축제 행사장에서 창립사진전을 가졌다. 첫 전시회를 계기로 2차 사진전은 2007년 9월에 양양송이축제 행사장에 출품하였는데 활동 평가에서 2위에 입상하였다.

양양사진 동호회는 2008년 10월 29일 창립한 신생단체로 2009년 10월 9~10일(2일간) 양양군 서면 황이마을축제에서 첫 전시회를 가졌고, 같은 사진으로 2009년 10월 17~18일(2일간) 양양연어축제 행사장에서 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단체이다.

양양에 관한 사진활동상황과 그동안 발굴된 것이 많지 않아서 아쉬운 일이지만, 수집된 자료만 정리하는 것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표9-1〉 양양지방의 사진동우회 회원전 현황

동 호 회 명	일 시	장 소
빛 그림 동우회	2006. 9.28.~10. 3.	양양송이축제장
빛 그림 동우회	2007. 9.29.~10. 3.	양양송이축제장
빛 그림 동우회	2008. 9.26.~ 9.30.	양양송이축제장
빛 그림 동우회	2009. 9.25.~ 9.30.	양양송이축제장
양양사진 동우회	2009.10.17.~10.18.	양양연어축제장
양양사진 동우회	2009.10. 9.~10.10.	황이마을축제장

2) 개인전

(1) 최낙민

양양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진가로는 최낙민을 꼽을 수 있다. 그는 1982년부터 국내외의 각종 사진공모전에 24회나 응모하여 많은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작업의 주제는 주로 양양지역 향토품물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2) 이명우

1964년에 양양에 사진관 임학사를 개업하였다. 1980년 강원도 새마을사진 현상 공모전(강원도 주최)에 출품하여 입선을 하였다. 1988년 제3회 전국세미누드촬영대회(사진작가협회 강원도원주·강릉·삼척지부 주최)에 ‘숲속의 선녀’와 ‘유혹’을 발표하여 주목을 받았으나 2005년 은퇴하였다.

(3) 안영국

1948년 대구에서 출생하여 사업을 하면서 사진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였으나 1997년 은퇴하고 양양에 정착하여 각종 공모전에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작가이다. 이전의 사진 활동으로 8회나 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상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3. 기록사진으로 본 양양사진의 변모

사진에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록성이라고 할 수 있다. 사진예술의 본질도 기록성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실험과 보는 방법의 혁신을 통해 계속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예술적 측면이 아니더라도 생활에서 사진의 기록성의 힘은 실로 대단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나 어린 시절의 사진이나 고향의 사진 등을 보면서 새삼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사진의 기록성 때문이다. 지난 시대의 온전한 회상도 사진을 통해 서만이 가장 실체적 진실에 도달 할 수 있다. 한 개 시군의 과거 기록사진을 들추어 보는 것도 시대에 대한 반추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비교해 볼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1) 「강원명승고적(江原名勝古蹟)」, 양양군 체육회. 1959.



2) 「향토지(郷土誌)」, 양양군 교육청.1968.



3) 「명승고적앨범, 관동 * 설악 (Album of Remains)」 1970년대.





관동관광기념



國立公園

雪岳山

NATIONAL PARK
MT. SORAK





4. 향후 발전방향 모색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양양지역은 그 역사성에도 불구하고 사진활동 등의 문화적 활동이 빈약한 편이다. 사진 인구 천만의 시대에 사진단체와 개인의 사진활동이 기대되고 있으나 뚜렷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양양지역에는 현대 세계 공통의 시각언어라 할 수 있는 창작사진 활동 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데, 주요한 이유로 는 지역 내에 대학이 없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지역에 대학이 있었으나 지역에 관한 연계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강릉으로 이전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두번째는 지역사회 각종단체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설 하지 못하고 있음도 아쉬운 일이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양양군청 소속의 공무원들의 사진단체 활동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으며, 새로 창립한 사진동호회도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된다고 하겠다. 이와 아울러 개인 작가들의 창작의욕이 더욱 더 살아나서 진정한 사진의 길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에서의 사진전문가를 초빙하여 꾸준히 강의를 듣고 워크숍을 가짐으로써 사진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시대에는 아마추어와 프로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시대에 어떻게 사물을 해석하고 작업하느냐에 따라 지역주의를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양양지역 향토사진에 대한 지속적인 수집과 보존 관리, 전시 등이 추진될 수 있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 김태한 역, 秋田實저, 사진미학, 형설출판사, 1982.
- 박주석 역, Jean- Lu Daval, 사진예술의 역사, 미진사, 1992.
- 이영준 편, 현대사진의 시각, 시각과 언어, 1992.
- 정진국 역, Beaumont Newhall, 사진의 역사, 영화당, 1987.
- 한정식 역, 카마나루 시네게, 예술로서의 사진, 해돋이, 1988
- 육명심, 세계사진가론, 영화당, 1987
- B.Newhall, Photography : Essays & Images, The Museum of Modern Art, 1980.
- Ben Addow, Edward Weston : Seventy Photographs Biography, An Aperture, 1978.
- Charles Traub, The Newvision : Institute of Design , Aperture, 1982.
- Naomi Rosenblum, A World History of Photoghaphy, Abbeville Press, 1984.

